

발 간 등 록 번 호
72-4190000-000219-01

원주지명총람(중)

김은철(金垠哲) 편저



원주시

책머리에

우리 원주에 먼 조상들이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것은 수만 년 전, 구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과 강을 끼고 너른 들판이 있는 이곳은 인류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기름지고 축복받은 이 터에서 조상들은 농사를 지으며 자식을 낳아 기르고, 치악산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이겨내며 대를 이어 뼈를 묻고 이 땅을 지켜왔다.

농경정착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산과 들과 강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들과 물이 필요하였고, 땔나무를 구하고 산나물을 뜯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산이 필요하였다. 사람의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구석기에 약 10km, 신석기에 약 5km였다고 하는데, 그 이동거리는 곧 우리의 먼 조상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루 동안 산과 들, 골짜기를 다닌 거리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다니는 삶의 터전 산과 들, 골짜기에도 각각 다른 이름이 필요하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붙인 것이 땅의 이름, 곧 지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산, 골짜기, 들과 내, 고갯길 등 조상들의 발길이 닿은 모든 곳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 지도에 나타나지 않거나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만 잊혀졌기 때문이다.

지명에는 원래의 땅의 모습과 역사, 조상들의 세계관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어서 지명 그 자체가 곧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가령 태장동의 ‘거릿대’는 도시화가 진척되면서 지금은 주택단지가 되었지만 그 이름에는 그곳이 옛날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옛 고갯길의 이름과 위치를 보고 옛날 조상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고개를 넘었으며, 마을 위치와 규모가 지금과 어떻게 달랐는지, 삶의 조건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짐을 지고 그 고개를 넘었을 조상들의 땀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명을 종합인문과학이라 하고 지명이 역사의 정립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명은 강한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천 년에 이르는 그 지역의 지리와 역사·문화를 누적하여 간직하고, 고대 우리말의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고대국어 연구와 우리 문화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지명은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담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조상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 전통문화를 재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지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척되고 전통적인 농경문화가 점차 쇠퇴하면서 고유지명은 급격하게 소멸하고 있다.

산과 논밭이 있던 곳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농경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그 이름들도 점점 사라져 간다. 지명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붙인 것인데, 산과 들에 가는 사람이 없으니 지명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농촌사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옛 지명과 유래를 알던 어른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으로 말하여 20년 이후가 되면 많은 지명들이 잊혀져 소멸될 것이다. 여기서 말한 20년이란, 농경사회의 삶을 살아오며 현장의 고유지명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의 자연연령에서 추론되는 제한된 시간이다. 지명을 발굴하여 채록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의 지명을 소멸되기 전에 발굴해서 등재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조사·연구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로 설정되었으나 이미 그 필요성은 『원주의 지명유래』가 나온 이후인 2000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주의 지명유래』에 1910년대의 기록인 『조선지리지자료』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척된 원주시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현지지명을 재정리하여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번 작업은 지명조사가 어느 한 순간에 답사하여 채록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하는 작업임을 재인식하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제반 사안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옛 지리지에 기록된 지명들을 모두 발굴하여 수록하고, 현 위치를 고증하여 반영하였다. 또 누락된 현지 고유지명을 최대한으로 채집하여 수록하고, 지명의 위치와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며, 지명의 유래와 풀이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애썼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옛 지리지에 등재된 지명, 특히 『조선지리지자료』와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에 등재된 지명을 동시에 수록하여 현재 지명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지명의 어원을 충실히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 『한국지명총람』은 1967년, 이 책이 2019년이므로 세 권의 책은 각각 약 50년간의 시차를 두고 현지 지명을 기록한 셈이어서, 원주지명의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보여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기록에서 나타나는 100여 년에 걸친 변화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원래의 우리말로 된 고유지명이 한자로 기록되며 크게 훼손되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지금은 산과 들에는 원래의 고유지명이 남아있는 반면 거기에서 파생된 행정지명은 한자로 되면서 간결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무형문화유산인 지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독려해준 원주시역사박물관 김성찬 학예연구팀장에게 깊이 감사한다. 또한 원주의 지명에 관심을 가지고 고대국어의 전문지식으로 자문해주신 김양진·이철우 교수,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및 자료정리에 애쓴 동료 연구원들에게도 감사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지명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마을 어른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 분들이 산 역사이며 그 분들이 이 땅의 보물들이다. 길에서, 마을에서, 산에서, 들에서 만나는 어른들의 말씀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소중한 역사였으며 척박한 우리의 삶과 존재의 뿌리 그 자체였다. 그 한 분 한 분들의 숭고한 삶에 필자는 숙연해 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당신의 젊은 발걸음이 닿았던 치악산 구석구석을 잊지 않으려고, 골짜기 하나 봉우리 하나까지 손수 상세하게 그려 벽에 붙여 놓았던 그 어른의 ‘보물지도’를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먼 골짜기 외딴집, 땀과 눈물로 얼룩진 옛 이름들을 가물거리는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며 회한에 젖던 어른들의 눈시울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새댁 때 들었던 잊혀진 그 골짜기 이름을, 반세기가 지난 이제서 누군가 찾아와 들추어 묻고, 아련한 기억 속에서 당신의 옛 젊음을 떠올리던 먼 눈빛, 다시 산을 내려가는 내 등 뒤에 머물던 그 시선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명조사는 항상 미완이다. 사람이 떠나면 있던 지명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나타나 새 지명이 생기며, 세월이 흘러 말이 변하듯이 지명도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다음 어느 시기 누가 이 작업을 다시 이어서 할지 나는 알 수 없다. 필자로서는 이것이 마지막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막다른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하지만 이 미완의 작업을 후대에 누군가 다시 보완하고 수정하여 바로잡을 것을 기대한다.

다만 『원주의 지명유래』에서 수정·보완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한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필자는 만족하려고 한다.

2019년 12월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김은철

일러두기

- 이 책은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원주 지역의 자연지명을 조사하여 등재한 것이다. 지명은 고유한 자연지명을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수록 대상은 원주시 전 지역의 지명으로, 옛 문헌에 등재되어 전하는 지명과 현지에서 채록된 지명을 모두 실었다.
- 등재 순서는 원주시 직할동·읍·면 순으로 하였고,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원주시 직할동의 경우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 원주시 직할동·면·리의 경우 앞부분에 상위 지명의 [위치]·[연혁]·[유래]·[내용]을 기술한 뒤 하위 지명을 서술하였다.
〔예〕 귀래면(貴來面) : [위치]·[연혁]·[유래]·[내용]
귀래리(貴來里) : [위치]·[연혁]·[유래]
- 지명의 표제어는 그 지역에서 현재 통용되는 것을 택하되 가급적 순수 고유지명을 우선적으로 취하였다. 단,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상의 지명을 쓴 곳도 있으며, 한자가 전하는 지명에 대해서는 () 안에 한자를 기록하였다.
- 이름만 남아있고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지명도 보존의 차원에서 등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동일 지명에 대해 다른 이름이 있는 경우도 모두 표제어로 삼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 동일한 지명이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어 나올 때는 중복하여 서술하지 않고 ‘→’를 써서 찾아가도록 하였다.

6 - 원주지명총람 (중)

- 각 지명에는 그 지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대표항목]을 달았다.

[예] 거무내 [마을]	거무내산 [산]
거무내골 [골]	거무내재 [고개]

- 각 지명의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건물] ; 건물, 집	[불상] ; 불상, 석불
[고개] ; 고개, 재, ~치, ~령	[비] ; 기념비, 비석
[골] ; 골, 골짜기, 계곡	[비각] ; 효자문, 열녀문 등 비각
[공원] ; 공원	[비행장] ; 비행장
[광산] ; 광산	[산] ; 산, 봉
[광장] ; 광장	[산업] ; 공장, 회사, 사업체
[교회] ; 교회	[샘] ; 샘, 우물, 약수터
[극장] ; 극장	[섬] ; 섬
[굴] ; 굴, 터널	[성] ; 성(城), 산성
[길] ; 길, 거리, 도로, 분기점, 인터체인지	[성당] ; 성당,公所
[나루] ; 나루, 나루터, 포(浦)	[소] ; 소(沼), 늪, 여울
[나무] ; 기념수, 보호수	[숲] ; 숲, 당숲, 보호림
[내] ; 개울, 내, 강, 천(川)	[시설] ; 시설물, 공공건물
[농원] ; 농원, 농장	[역] ; 역(驛)
[누정] ; 누각, 정자	[원] ; 원(院), 참(站)
[다리] ; 다리, 철교	[유원지] ; 유원지
[당] ; 성황당, 제당, 사당	[유물] ; 유물
[독] ; 독, 제방	[유적] ; 주거지, 유적
[들] ; 들, 논, 밭, 버덩	[장] ; 장, 시장, 상가
[마을] ; 마을, 동네	[장승] ; 장승
[모롱이] ; 모롱이, 모퉁이	[절] ; 절, 사찰, 암자
[못] ; 못, 연못, 저수지, 소류지, 양어장	[정문] ; 열녀문, 정문
[묘] ; 묘, 능, 공동묘지	[제단] ; 단, 제단
[바위] ; 바위	[주막] ; 주막
[보] ; 보(湫)	[탐] ; 탐, 부도

[터] ; 절터, 건물터 등 장소, 터

[학교] ; 초등, 중등, 대학, 기타 학교

[폭포] ; 폭포

- 각 지명마다 [위치]·[연혁]·[유래]·[유래담]·[내용]·[풀이]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각 지명에 대한 기술순서는 다음의 순으로 하였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이를 생략하였다.

[예] 지명[대표항목]·[위치]·[연혁]·[유래]·[유래담]·[내용]·[풀이]·[전설]·[유물]·[유적]

- 대표항목이 같은 동일 지명이 반복되어 나올 때는 지명(1), 지명(2) 등으로 하였다.

[예] 큰골(1) [골], 큰골(2) [골]

단, 이름이 같은 지명이라도 대표항목이 다를 때에는 번호를 달지 않았다.

[예] 큰골 [골], 큰골 [마을]

- [위치]에서는 ①그 지명의 위치를 동서남북을 위주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②현전하는 다른 이름을 적은 후, ③1910년에 채록된 『조선지리지자료』의 지명, ④1966년에 채록된 『한국지명총람』의 지명의 모습을 순서대로 기술하여, 100년 전과 50년 전,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귀래리의 동쪽에 있는 고개로 현 19번 충원대로와 복원로가 지나는 고갯길이다. 귀래면과 흥업면과의 경계에 있는 큰 고개를 큰양아치, 귀래 쪽의 작은 고개를 작은양아치라고 부른다. ‘양어치(兩御峙)’, ‘양안치(兩鞍峙)’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양앗치(兩峨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아치’라 하였다.

- [유래]는 그 지명이 현재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적었다. 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였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유래] 고개가 두 개이므로 대치(大峙)와 소치(小峙), 또는 둘을 합쳐 양치(兩峙), 양대치(兩大峙)라고 불렀는데 ‘양+치>양치’에 매개모음 ‘ㅏ’가 개입하여 ‘양아치’가 되었다. 큰 고개 두 개가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또는 고개가 마치 말안장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양안치(兩鞍峙)’라 하였다고도 한다.

- [유래담]은 그 지명에 얹힌 전설, 설화, 민담에 전하는 내용을 기술하여 참고로 하도록 하였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유래]

[유래답] 삼국시대에 고구려왕의 어거가 매지리에 머물고, 신라왕의 어거가 운계리에 머물러 대치하였으므로 그 경계인 이곳을 ‘양어치(兩御峙)’라 하였다고도 한다.

- [내용]은 그 지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어서 가급적 그 지명에 대한 기타 정보를 수록하였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유래]

[유래답]

[내용] 《해동지도》(1750)와 《광여도》(1800)에서는 ‘대치(大峙)’와 ‘소치(小峙)’로 구분하였다. 《여지도서》(1765)에 ‘양대치(兩大峙)’라고 하였으며 《대동지지》(1866)에서는 ‘대치(大峙)’와 ‘소치(小峙)’로 구분하였다. 《조선지리지》(1911)에서는 ‘양앗치(兩峨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1967)에는 ‘양아치(兩峨峙)’라고 하였고 《원주원성향토지》(1976)에서는 ‘양아峙’라고 기록하였다.

1971년에 개교, 1983년에 폐교된 학교 이름이 ‘양아치분교’였으므로 현지에서는 최근까지도 별 거부감 없이 ‘양아치’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주민들이 ‘양아치’라는 이름을 꺼려 개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양아치’와 ‘양안치’ 두 이름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나 현 도로표지판과 등산지도 등에 ‘양안치’로 적고 있어서 ‘양안치’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 [풀이]는 국어학적인 차원에서 해당지명의 어원을 밝혔다. 그러나 그 어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유래]

[유래답]

[내용]

[풀이] 18세기와 19세기의 모든 지리지에 ‘대치(大峙)’와 ‘소치(小峙)’, ‘양대치(兩大峙)’라 하였다. 이는 크고 작은 고개가 두 개이므로 붙여진 이름으로서 ‘양(兩)+치(峙)>양치’인데 매개

모음이 개입하여 ‘양+(ㅏ)+치>양아치(兩峨峙)’가 되었다. 높은 고개가 두 개라는 뜻이다. 이를 한자로 적는 과정에서 두 고개가 말안장을 닮은 것으로 보아 ‘아’를 ‘안(鞍)’으로 적어 ‘양안치’라고도 하였고, ‘양어치(兩御峙)’라 하여 유래담도 생겼다.

● 해당 지명과 관련된 [전설]·[유물]·[유적] 등은 해당 지명의 항목 안에 넣었다.

● 수록사진은 지명과 관련된 기록의 가치가 있는 것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 본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책임자 : 김은철(문학박사,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 책임연구원 : 김종호(문학박사,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 연 구 원 : 장향실(문학박사,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 연 구 원 : 윤은애(문학석사,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외래교수)
- 자 문 위 원 : 김양진(문학박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자 문 위 원 : 이철우(문학박사, 상지대학교 특성화기초학부 조교수)

● 본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참여한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책 자 편 찬 : 김성찬(원주시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 사 진 촬 영 : 전제인(원주시 우산동 ‘사진만들기’ 대표)

● 참고문헌 : 본 연구에 참고한 자료 및 문헌은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1145)	【해동지도】(1750)
【고려사】(1451)	【여지도】(1765)
【세종실록지리지】(1454)	【여지도서】(1765)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지승】(1778)
【동국여지지】(1660)	【광여도】(1800)
【관동지】(1831)	【조선지지자료】(1911)
【대동지지】(1866)	【조선고적도보】(1935)
【원주읍지】(1871)	【조선환여승람】(1937)
【1872년지방지도】(1872)	【강원도지】(1941)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1967.

《전국유적목록》, 문화재관리국, 1970.

《원주원성향토지》, 원주문화원, 1976.

《춘천의 지명유래》, 춘천문화원, 1995.

《원주의 지명유래》, 원주시, 1999.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2001.

《문막읍지》, 문막읍사편찬위원회, 2003.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한국하천지명사전》, 국토해양부, 2011.

차 례

책머리에	3
일러두기	6
차 례	12

제4편 귀래면(貴來面) 지명(地名) 13

● 귀래리(貴來里)	20
● 용암리(龍岩里)	36
● 운계리(雲溪里)	48
● 운남리(雲南里)	58
● 주포리(周浦里)	68

제5편 부론면(富論面) 지명(地名) 77

● 노림리(魯林里)	88
● 단강리(丹江里)	100
● 법천리(法泉里)	116
● 손곡리(蓀谷里)	130
● 정산리(鼎山里)	144
● 흥호리(興湖里)	158

제6편 소초면(所草面) 지명(地名) 167

● 교항리(橋項里)	176
● 둔둔리(屯屯里)	188
● 수암리(壽岩里)	198
● 의관리(衣冠里)	212
● 장양리(長陽里)	220
● 평장리(平庄里)	232

● 학곡리(鶴谷里)	244
● 흥양리(興陽里)	266

제7편 신림면(神林面) 지명(地名) 285

● 구학리(九鶴里)	296
● 금창리(金倉里)	308
● 성남리(城南里)	320
● 송계리(松桂里)	342
● 신림리(神林里)	352
● 용암리(龍岩里)	366
● 황둔리(黃屯里)	382

제4편

귀래면(貴來面) 지명(地名)



귀래면 소재지 ; 1973년

[위치]

귀래면은 원주시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시청에서 약 21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십자봉을 사이에 두고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과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봉림산을 경계로 하여 부론면과 접해 있다. 또 남쪽으로는 갈미봉과 운계천을 경계로 하여 충북 충주시 엄정면과 소태면, 북쪽으로는 양아치와 덕가산을 사이에 두고 흥업면 매지리·문막읍 비두리와 접해 있다.

[연혁]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굴파(屈坡)’라 하여 ‘처음은 30리, 끝은 60리이다.’라 하였고, 『여지도서』에 ‘굴파면(崙破面)’이라 하였으므로, 한자 표기는 다르지만 처음부터 이 지역을 ‘굴파’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1871년 『원주읍지』에는 귀래면, 1895년은 굴파면이라 하여 1800년대 후반에는 ‘굴파’와 ‘귀래’가 같이 쓰이다가 1900년 이후 귀래면으로 정착되었다.

『여지도서』가 나온 1760년대 후반 굴파면에는 1리·분1리·2리·3리의 4개 리가 있었다.

이름이 바뀐 1906년에 귀래면에는 초1리(용암리), 분1리(주포리), 2리(운남리), 분2리(운계리), 3리·분3리(귀래리), 양아치리의 7개 리가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용암·주포·운남·운계·귀래의 5개 리로 개편 관할하게 되었다.

1937년 원주면이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원주군 귀래면이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하면서 이름이 원성군 귀래면으로 바뀌었다.

1989년 원성군을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귀래면이 되었다.

1995년 도·농 통합으로 원주시 귀래면이 되었다.

귀래면 청사는 귀운리(貴雲里), 고청(古淸), 유현(楡峴) 등지에 있다가 지금은 운남리 너더리에 있다.

[유래]

예전부터 ‘굴파’라 하였다. ‘굴파(屈坡)’, ‘구을파(仇乙跛)’는 ‘굴파’를 음차하여 기록한 것이다. ‘파(坡)·파(巴)·파(跛)’는 ‘가리파’처럼 옛 고구려어에서 ‘바위, 고개’를 뜻하는 지명소이다. ‘굴(屈)’은 ‘굴’을 뜻하는 것이나 귀래에는 큰 굴이 없으므로 ‘굽을(曲)>구불>구불>구을>굴’로 음운 변천한 것으로 보인다. 큰 양아치와 작은양아치 사이가 크게 굽어져 있으므로 불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00년을 전후하여 경순왕 전설과 관련하여 귀한 분이 오셨다는 뜻으로 ‘귀래(貴來)’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귀래로 정착되었다.

[내용]

귀래(貴來)에는 귀한 분이 오셨다는 전설이 있다. 이는 신라 경순왕이 천년 사직을 고려에 바치고 43년 동안을 귀래 또는 제천에 살면서 용화산(미륵산) 절벽에 거대한 미륵불상을 조성하여 용화세계 건설을 발원하였다는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미륵산 마애미륵불상이며, 이때 창건한 절이 학수사(鶴樹寺), 미륵불상 아래 지은 암자가 고자암(高自庵)이라고 한다. 경순왕이 거대한 불사를 이룩하고 마의 태자도 중원에 미륵세계사(彌勒世界寺)를 짓고 미륵불상을 조성 봉안하였고 덕주공주(德周公主)도 제천에 덕주사를 짓고 미륵불상을 모셨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이 지역을 굴파에서 귀래라고 바꾸어 불렀고, 퇴락한 학수사를 황산거사가 중창하고 고자암에 경순대왕의 영정을 봉안하였으며, 학수사에 경순대왕의 소상(塑像)을 빚어 봉안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이 절을 황산사라 불렀다고 한다. 나중에 황산사도 퇴락하여 목은(牧隱) 이색(李穡), 양촌(陽村) 권근(權近),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등이 황산사를 중창하여 경순대왕의 경천순민(敬天順民) 사상을 받들어 맥을 이었다고 전한다.



귀래면사무소 ; 1973년

귀래면사무소 ; 1992년





귀래면 소재지 ; 1979년

귀래면 복지회관 준공식 ; 1989년





귀래3리 새마을회관 준공식 ; 1987년

운계3리 새마을회관 준공식 ; 1990년





운남리 ; 1979년

주포2리 마을회관 준공식 ; 1991년





귀래면 3.1만세 기념비 제막식 ; 1996년

귀래면 소재지 ; 2015년



귀래리(貴來里)

[위치]

귀래리는 귀래면의 북쪽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운남리, 서쪽으로는 부론면 손곡리, 남쪽으로는 용암리와 운계리, 북쪽으로는 문막읍 비두리·흥업면 매지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귀래면(貴來面)의 지역으로 삼리(三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삼리(三里)·분삼리(分三里)·양아치리(兩峨峙里)를 병합하여 귀래리(貴來里)라고 하여 원주군 귀래면 귀래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귀래면 귀래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귀래면 귀래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함에 따라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가 되었다.

[유래]

귀한 분이 오셨다는 뜻에서 ‘귀래’라고 하였다 한다. 귀래는 신라 말 경순왕이 이곳에 와 머물렀다는데서 유래한 것으로 미륵산 마애불상과 관련된 전설이 있다. 마을 이름을 따서 면 이름도 귀래면이라 하였다.

가십자봉 [산]

[위치] 십자봉 능선 북쪽, 오두치 남서쪽에 있는 높이 970.8m의 산을 말한다. 천은사 남동쪽에 있다.

갈고개 [고개]

[위치] 웅동에서 북동쪽으로, 넘말골을 지나 양아치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곰네미천 수살거리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갈고개’라고 하였다.

고청(古淸) [마을]

[위치] 평촌 북쪽, 귀운궁촌저수지 동쪽, 동습봉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귀래초등학교 귀운분교가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고청이(古淸)’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고청(古淸)’이라고 하였다.



「고청 마을 : 2019년」

고청뫼산 [산]

[위치] 고청 마을 뒤에 있는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고청뫼산’이라고 하였다.

[내용] 마을 뒤의 동습봉(336.9m)을 지칭하기도 하고 동습봉 앞에 있는 288.8m의 봉우리를 지칭하기도 한다.

고청이 [마을] → 고청

곰네미 [마을] → 곰네미

곰네미 [마을]

[위치] 양아치 마을 북쪽, 천은사 계곡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웅네미(熊躑)’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곰네미’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에 이 마을 뒷산으로 곰이 넘어 다녀서 곰네미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지명에서 ‘곰’은 ‘뒤(後)’의 뜻이고 ‘네미’는 ‘넘다(越)’의 ‘넘+이>너미>네미’이다. 이 지역의 중심 되는 마을인 양아치 마을에서 보았을 때 뒷산 너머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곰+넘+이>곰넘이>곰너미>곰네미’로 변천하였다.

곰네미천 [내] → 궁촌천

[위치] 큰양아치에서 곰네미와 버덩말, 사두, 평촌을 지나 귀운궁촌저수지에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유래] 궁촌천의 상류로 곰네미 마을 앞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마을 이름을 따라 곰네미천이라 부른다.

관촌저수지 [못] → 귀운궁촌저수지

관촌천 [내] → 궁촌천

[위치] 궁촌천의 다른 이름이다.

[내용] 고청과 평촌 앞을 흐르는 내를 관촌천이라고 불렀고 그 상류 곰네미 앞을 흐르는 내는 곰네미천이라 하였다.

구렁 [들] → 구릉

구릉 [들]

[위치] 웅동 마을 옆에 있는 작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렁’이라고 하였다.

구릉구레 [골]

[위치] 아래양아치 도자기터에서 남동쪽 동막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현 백운교차로에서 남쪽으로 19번 충원대로가 난 골짜기이다.

[풀이] ‘구렁’과 ‘구레’는 모두 ‘굴’을 어원으로 하고 있다. ‘구렁·구릉(<굴형)’, ‘구라·구레·구리(<굴)’ 등은 모두 우묵하게 깊은 곳을 나타내는 지명소이다. ‘구렁+구레>구렁구레’로 같은 의미가 중첩되었다.

굴뚝고개 [고개]

[위치] 탑상골에서 북쪽 평촌으로 가는 고개를 말

한다. 고개 넘어 망령들과 사기막골을 거쳐 평촌에 닿는다. 『한국지명총람』에 ‘굴뚝고개’라 하였다.

곰논골 [골]

[위치] 양아치와 동막골 사이, 곰네미천에서 동쪽으로 웃양아치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백운교차로 남쪽에 붙어있는 골짜기로 들이 형성되어있다.

궁촌천(宮村川) [내]

[위치] 큰양아치와 천은사계곡에서 시작하여 귀운궁촌저수지에 머물었다가 문막읍 낚은터를 지나 포진리와 후용리의 경계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내용] 내가 지나는 마을에 따라 관촌천, 궁말천, 봉두개울, 모래내, 사천(沙川), 귀래내, 곰네미천 등으로도 불린다.

귀래내 [내] → 궁촌천

[위치] 귀래에서 부르는 궁촌천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귀래내’라고 하였다.

귀래초등학교 귀운분교 [학교]

[위치] 귀래리 1343, 고청 마을에 있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37년 귀래공립보통학교 부설 귀래간이학교로 개설되어 1943년에 귀운국민학교 개교, 1983년에 양아치분교를 본교에 통합하였다. 2000년에 귀래초등학교 귀운분교가 되었다가 2016년에 귀래초등학교에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귀래초등학교 귀운분교 ; 2019년」

귀운궁촌저수지 [못]

[위치] 고청과 평촌 마을 남서쪽 앞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관촌저수지’라고도 한다.

[내용] 1971년 준공한 저수지로 높이 17m, 길이 203m이다.



「귀운궁촌저수지 ; 1972년」



「귀운궁촌저수지 ; 2019년」

귀운분교 [학교] → 귀래초등학교 귀운분교

귀운초등학교 양아치분교 [학교]

[위치] 귀래리 241-34, 웃양아치에 있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71년에 개교하여 1983년에 귀운초등학교에 통합되어 폐교되었다. 현재 치악버섯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기계골 [골]

[위치] 양아치 입버려진골에서 동쪽으로 680.6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입버려진골 남쪽, 바른골 북쪽의 사이에 있다.

길마재 [고개] → 질마재

김동인묘(金東仁墓) [묘]

[위치] 귀래공원묘원 내에 있는 소설가 김동인의 묘소를 말한다.

[내용] 1986년 5월에 이장한 소설가 금동(琴童) 김동인(1900~1951)의 묘와 그의 장남 김일환의 묘가 있다. 봉분은 묘석으로 둥글게 돌렸고, 화강암 상석과 망주석 한 쌍이 서 있다. 묘비에 작가금동 김동인지묘(作家琴童金東仁之墓)라는 비문이 작가 김동리에 의해 음각되어 있고, 비문 뒷면에는 그의 대표작 「배따라기」의 끝부분이 적혀 있다. 왼쪽에는 평양에서 서울 자신의 집으로 어머니의 임종을 알리는 친필 엽서가 있다.



「김동인묘 ; 2019년」



「김동인 친필 엽서 비석 ; 2019년」

꽃재골 [골]

[위치] 사두 서쪽, 솔미정 마을 남쪽 내 건너 꽃재부리 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솔미정들 북서쪽에 붙어있다.

꽃재부리 [산]

[위치] 꽃재골 남쪽, 솔미정들 서쪽에 있는 238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유래] 진달래가 많이 피므로 꽃재부리라 하였다.

너메숯고개골 [골]

[위치] 비두리 방아거리에서 내 건너 남동쪽 귀운궁촌저수지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들 남쪽에 대규모 채석장이 들어서 있다.

[유래] 숯고개를 넘어 숯고개들로 가는 골짜기이므로 '너머>너메'가 되었다.

넘말골 [골]

[위치] 응동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310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골짜기 위 갈고개 너머에 채석장이 있고 채석장 아래에 백운계곡 수살매기골이 있다. 고개 넘어 수살매기골을 지나 양아치에 닿는다.

능골(1) [골]

[위치] 고청 닥밭둔더기골 위 큰골천을 따라난 골짜기를 말한다. 광옥채석장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능골(2) [골]

[위치] 응동 북쪽, 중터개들 동쪽 건너편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넘말골이 이어진다.

닥밭둔더기골 [들]

[위치] 고청 동쪽에서 큰골천을 따라 북쪽으로 나 있는 들을 말한다. 골 북쪽과 동쪽 너머 작배기골에 대규모의 채석장이 들어서 있다.

대송산(大松山) [산] → 덕가산

대왕산(大王山) [산] → 미륵산

덕가산(德加山) [산]

[위치] 큰양아치 서쪽에 있는 높이 700.5m의 산을 말한다. 귀래면 귀래리와 흥업면 매지리, 문막읍 비두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대송산', '덕봉산', '덕화산'이라고도 한다.

[내용] 화전민들이 정착하여 산을 개간하여 살던 곳이다. 한국전쟁 때 국군과 미군, 인민군과 중공군 사이에 77번이나 교전을 할 정도로 전투가 치열하였다 한다. 결국 아군이 이겼으므로 '덕을 본 산'>덕본산>덕봉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풀이] '덕'은 덕가산, 덕고산(소초면 교항리), 붉은덕이(태장동, 가현리), 덕고개(태장동, 호저면 대덕리) 등으로 많이 나타나는 지명소이다. '덕장, 덕대(선반, 시령), 언덕·둔덕'처럼 '덕'의 어원적 의미는 '높은 곳'이다. '덕'자가 들어간 산들은 크고 우람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한자로는 대개 '德'으로 표기하였다.

'덕'(卜)+산>덕아산>덕가산, 덕화산'이다. '卜'는 매개모음이며, '화'는 '가'의 음운이 강화된 것이다. '덕고산'의 '고'는 '卜'음이 음운 변화된 것이다. '덕'에도 '높은, 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덕봉산(<덕+봉+산>)'은 '봉산되'처럼 같은 의미가 세 번 중첩된 것이다.

덕골 [골]

[위치] 사두 솔미정 버덩골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25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사근 절골 동쪽, 무시정골 서쪽에 있다.

덕봉산(德峰山) [산] → 덕가산

[유래] 한국전쟁 때 이 산에서 국군과 미군, 인민군과 중공군 사이에 77번이나 치열한 교전을 하였다고 한다. 결국 아군이 이겼으므로 '덕을 본 산'>덕본산>덕봉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덕화산 [산] → 덕가산

덤바우골 [골]

[위치] 웅동 서쪽, 중터개들 남쪽 끝에서 남서쪽으로, 덤바우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지등물양골이 갈라져 나간다. 골 남쪽 너머에 탑상골 마을이 있다.

덤바우재 [고개]

[위치] 웅동 서쪽, 덤바우골에서 남쪽 탑상골로 넘

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220m이다.

덤바우재구릉 [골]

[위치] 덤바우재 동쪽 아래, 웅동교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덤밭재구령'이라고 하였다.

덤밭재구령 [골] → 덤바우재구릉

도락골 [골]

[위치] 양아치 동막골 백련사에서 동쪽으로, 높이 673.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입벌어진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막골 [골]

[위치] 양아치 곰네미천에서 남동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국논골 남쪽, 현 동막골 마을이 있는 골짜기이다.

동막골 [마을]

[위치] 양아치 마을 남쪽, 동막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백운교차로 남동쪽, 백운령가든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동막실(東幕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막동'이라고 하였다.

동막동(東幕洞) [마을] → 동막골

동습봉 [산]

[위치] 고청 마을 북쪽에 있는 높이 336.9m의 산을 말한다.

돼지목골 [골]

[위치] 고청 마을 뒷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되지목골'이라고 하였다.

돼지목골산 [산]

[위치] 고청 마을 뒤, 돼지목골 위에 있는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되지목골산'이라 하였다.

된골 [골]

[위치] 양아치 바른골 중간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뒷골(1) [골]

[위치] 평촌 사기막골 남쪽의 망령들 끝에서 남서쪽으로 다시 길게 이어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굴뚝고개가 있다.

뒷골(2) [골]

[위치] 웅동에서 남동쪽으로, 운골산 서쪽 343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점말골 동쪽에 있다.

들말 [마을] → 평촌

만돌맹이들 [들]

[위치] 귀운궁촌저수지 남동쪽 위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승지골과 고청 마을 앞 404번 귀문로 밑에 있는 들이다.

마귀할미바우 [바위]

[위치] 마귀할미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마귀할멈처럼 생겼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마귀할미산 [산]

[위치] 큰골천 안, 현 광옥석재 옆에 있는 산을 말한다.

[유래] 마귀할미바우가 있으므로 마귀할미산이라 하였다.

마당재 [고개]

[위치] 양아치 아랫마을에서 웃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말림골 [골]

[위치] 웅동에서 동쪽으로, 숲고개가 있는 470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말림모태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말림골'이라고 하였다.

말림모태이 [골] → 말림골

망녕들 [들] → 망령들

망령들 [들]

[위치] 평촌 남쪽, 사기막골 남쪽 안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남동쪽 너머에 탑상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망녕들'이라고 하였다.

[유래] 천수답으로, 잘 될 때는 잘 되고 안 될 때는 형편없이 안 되어 망령을 잘 띤다고 해서 망령들이라 하였다.

명주골 [골]

[위치] 천은사계곡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원래 이곳은 명주굴이라는 큰 소(沼)가 있어서 명주굴이라 하였다. 명주굴은 명주실 한 타래를 풀어 연못에 넣으면 모두 들어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천은사계곡이 개발되고 난 후 지금은 없어졌다. 계곡 아래쪽 곰네미 주민들이 기우재를 지내던 곳이다.

모래재 [고개]

[위치] 아래양아치 마을에서 북쪽으로, 곰네미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주막거리골 동쪽, 현 북원로가 지나가고 있는 산기슭이다. '큰모래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모리지(沙峴)'라 하였다.

[유래] 산(물)의 고개(재)라는 뜻이다.

[내용] 이 고개를 '큰모래재'라고도 한다. '작은모래재'는 양아치도요지가 있는 곳의 작은 고개이다.

[풀이] '물'은 '산'의 옛말이다. '물(山)+재>물재>물+(ㅈ)+재>몰아재>모라재>모래재'이다. 산 고개란 뜻이다. 'ㅈ'는 매개모음이다.

모래재 [마을]

[위치] 모래재 고개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모리지(沙峴)'라고 하였다.

외너머골 [골]

[위치] 귀운궁촌저수지 남쪽, 애막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무니골 [골]

[위치] 웅동에서 남쪽으로, 서낭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백간말골 동쪽, 자작나무골 서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현 404번 귀문로 동쪽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무시정골 [골]

[위치] 버덩말 서쪽 아래에서 북동쪽으로, 530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버덩말 뒤에 있다.

미륵봉(彌勒峰) [산]

[위치] 미륵산 능선 남쪽, 마애불이 있는 봉우리를 말한다.

미륵산(彌勒山) [산]

[위치] 귀래리, 운계리, 용암리 경계에 있는 높이 695.5m의 산을 말한다. ‘용화산(龍華山)’, ‘대왕산(大王山)’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강원도원주군읍지』에 ‘관문 남쪽으로 60리에 있다.’고 하였다. 『1872년지방지도』에 미륵산이 확인된다. 『조선지리지』에 ‘미륵산(彌勒山)’이라고 하여 귀래면 초1리 능내(陵內)에 있다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미륵산(彌勒山, 용화산)’이라 하였다.

[유래] 황산사 뒤쪽 미륵봉 바위에 마애미륵불상이 있으므로 ‘미륵산’이라 하였다. 신라 말 경순왕이 왔다고 하여 ‘대왕산’이라고도 하고, 경순왕이 미륵불을 새기고 용화세계를 꿈꾸었다고 하여 ‘용화산’이라고도 한다.

[내용] 미륵산은 백운산의 지맥으로서 독립된 산이다. 산에는 12개의 봉이 있고 그 중 미륵봉에 미륵불상을 크게 조각하였다. 이 미륵불의 코를 만지면 소원을 성취하고 자손이 없는 사람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데 깎아지른 바위이므로 아무도 만져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 미륵불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그린 것이라는 전설도 있다. 산세가 험하지는 않으나 미륵봉, 장군봉, 신선봉 등의 암벽으로 된 봉우리가 많다.

바른골 [골]

[위치] 양아치 수논개골에서 북동쪽으로, 787.4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밤나무골 [골]

[위치] 평촌 남쪽 사기막골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328.3m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방아실 [마을] → 문막읍 비두리 방아실

[위치] 방아실골 안, 서지재(방아실고개) 북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자로 소리를 적어 ‘방화실(芳花實)’이라고도 하고 뜻을 따라서 ‘용곡(春谷)’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방아실’이라고 하였다.

[유래] 지형이 디딜방아같이 생겼으므로 방아실이라 하였다. 또는 여러 종류의 향기로운 꽃이 피므로 방화실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현재 문막읍 비두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마을 대부분은 채석장에 편입되었다.

방아실고개 [고개] → 서지재

방아실골 [골]

[위치] 과나무터골 방아거리 마을에서 남서쪽 방아실 마을, 피나무백이를 지나 서지재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문막읍 비두리와 경계가 되는 골짜기이다. 옛날 화전민들이 살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대규모로 석재가 채취되고 있다.

백간말 [마을]

[위치] 서낭고개 북쪽 아래, 백간말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404번 귀문로 옆에 있는 마을이다.

백간말골 [골]

[위치] 탑상골에서 남쪽 서낭당고개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무니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현 404번 귀문로가 지나고 있고 도로 옆으로 들이 형성되어 있다.

백련너메 [골]

[위치] 양아치 동막에서 동쪽으로, 백련사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빅연너메(白蓮菴)’라고 하였다.

백운계곡(白雲溪谷) [골]

[위치] 사두에서 천은사 쪽으로 약 700m에 이르는 골짜기로, 궁촌천의 상류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백운령계곡과 천은사계곡의 물이 합쳐서 이루는 골짜기로 ‘버덩골’, ‘수살거리골’, ‘주막거리골’ 등 곰네미천을 따라 난 골짜기이다.

백운령계곡(白雲嶺溪谷) [내]

[위치] 현 백운령가든 앞에서 동막골로 흐르는 내를 말한다. ‘바른골’, ‘입버려진골’, ‘기계골’, ‘시루봉’의 물이 합쳐져 흐르는 내이다.

버덩 [마을]

[위치] 솔미정 동쪽, 버덩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덩’이라고 하였다.

버덩골 [골]

[위치] 솔미정에서 동쪽으로 곰네미천(궁촌천)을 따라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버덩 동쪽 위 수살거리골로 이어진다.

[유래] 버덩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버덩골이라 하였다.

버덩들 [들]

[위치] 새동말 솔미정에서 버덩 마을 앞에 이르는 곰네미천 옆의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덩들’이라고 하였다.

버덩보 [보]

[위치] 버덩들에 있는 곰네미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덩보’라고 하였다.

불당골 [골]

[위치] 고척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불당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에 불당이 있었으므로 불당골이라 하였다.

사구막 [마을] → 사기막

사근들보 [보]

[위치] 사근절골 앞, 삼선덩이들에 있는 곰네미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사근들보’

라고 하였다.

사근절골 [골]

[위치] 평촌 동쪽, 솔미정 북쪽 삼선덩이들 위에서 북동쪽으로, 393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는 작배기골과 함께 현재 대규모 채석장이 들어서 있다.

[유래] 절골 안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빈대가 많아 중이 모두 떠나 삭아 없어지고 들이 되었으므로 ‘삭은절골>사근절골’이라 하였다.

[내용] 1950년대에는 절 앞에 웅달샘이 있었는데 물맛이 좋아 약수라 하였다. 절 입구의 마당에 있던 돌부처는 1970년대 후반 어떤 무당이 어디론가 옮겨갔다고 전한다.

사근절들 [들]

[위치] 사근절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사근절들’이라고 하였다.

사기막 [마을]

[위치] 평촌 남쪽 사기막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사기막(沙器幕)’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사구막’이라 하였다.

[유래] 웅기를 굽던 마을이 있었으므로 사기막이라 하였다. 도요지터가 있고 현재 한 가구가 살고 있다.

사기막골 [골]

[위치] 평촌에서 남쪽 내 건너, 원대골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사기막골 위에서 망녕들과 밤나무골이 갈라진다. 골짜기 안에 도요지터가 두 군데 있다.

사기막터 [터]

[위치] 사기막골에 있는 도요지터를 말한다. 사기막골 안 밤나무골 앞과 망녕들 두 군데에서 유적이 확인되었다.

[내용] 이곳에 도자기를 만드는 흙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도자기 조각과 가마 잔해 등이 개울가 밭에서 확인되고 있다. 조선 전기의 가마터로 추정

된다.

사기말 [마을]

[위치] 양아치 아랫마을 남쪽, 국논골 서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백운교차로 남서쪽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사기말(沙器村)’이라고 하였다.

[내용] 도자기를 굽던 곳으로 가마 유구 2기 및 백자편이 발굴되었다.

사두 [마을]

[위치] 평촌 남동쪽 새동말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사두말’, ‘사두동’, ‘서독말’이라고도 한다. 귀래3리 마을회관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사두(沙頭)’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서독말’이라고 하였다.

사두동 [마을] → 사두

사두말 [마을] → 사두

사두저수지 [못] → 용골사두저수지

삼리(三里) [마을] → 귀래리

삼막골 [골]

[위치] 큰골천 상류에서 북쪽 질마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삼선덩이들 [들]

[위치] 평촌 동쪽, 솔미정 북쪽 건너편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새동말 [마을]

[위치] 평촌 남동쪽, 버덩골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사두와 솔미정 마을이 있다.

[유래] 새로 생긴 마을이므로 새동말이라 하였다. 정선 전씨가 18대에 걸쳐 살았다고 한다.

새버덩 [들]

[위치] 천은사 계곡 북서쪽, 곰네미 북쪽 큰양아치들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서낭고개 [고개] → 서낭당고개

서낭당고개 [고개]

[위치] 사두에서 남쪽 아홉사리, 남동쪽 느릅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동쪽 운골산과 서쪽 미륵산의 중간에 있는 고개이다. 현 404번 귀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고개 높이는 275m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서낭고개’라고 하였다.

[유래] 아홉사리성황당이 있으므로 서낭당고개라 하였다.

서독말 [마을] → 사두

서지재 [고개]

[위치] 방아실골 남서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부론면 손곡리와 문막읍 비두리, 귀래면 귀래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높이는 385m이다. ‘방아실고개’라고도 한다.

[내용] 귀래리의 방아실과 부론면 손곡리의 방아실을 연결하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 손곡리 방아실이 있고 서지골 서지 마을이 있다.

소양아치(小兩岬峙) [고개] → 작은양아치

소양안치(小兩鞍峙) [고개] → 작은양아치

소치(小峙) [고개] → 작은양아치

솔미정 [마을]

[위치] 평촌 남동쪽, 사두 마을 북쪽에 붙어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소나무 정자가 있으므로 솔미정이라 하였다. 옛날에 큰 소나무 밑에 정자가 있었는데 도로를 내면서 헐었고 소나무도 병들어 죽었다고 한다.

솔미정들 [들]

[위치] 솔미정 마을 남쪽, 사두 서쪽 도로 건너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솔재골 [골]

[위치] 웅동 북쪽 아래, 중터개들에서 도로 건너 동쪽으로, 259.7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웅골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수고개 [고개] → 숲고개(2)

수고개들 [들] → 솟고개들

수논개골 [골]

[위치] 동막골 마을에서 동쪽으로, 731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수살거리골 [골]

[위치] 버덩 동쪽, 국논골 서쪽 아래에 있는 곰네 미천의 골짜기를 말한다. 버덩골에서 동쪽 상류에 이어진 골짜기로 현 백운산장 앞, 귀운교에 이르는 골짜기이다. 북쪽으로 질푸른동굴이 나 있다.

솟고개(1) [고개]

[위치] 버덩골 버덩 마을 앞 솟터골에서 남동쪽으로, 칠통골 즈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운계 터널 서쪽 산줄기에 있다. 높이는 470m이다. 『한 국지명총람』에 ‘솟고개’라 하였다.

솟고개(2) [고개]

[위치] 비두리 방아거리에서 남동쪽 솟고개들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수고개’라고도 한다. 한자로 ‘탄현(炭峴)’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탄산(炭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현 원주공원묘원이 있는 방아거리 앞산에 참나무가 많아 솟을 구웠으므로 솟고개라 하였다.

솟고개들 [들]

[위치] 솟고개(2)의 남쪽, 귀운궁촌저수지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수고개들’이라고도 한다.

솟터골 [골]

[위치] 버덩골 버덩 마을에서 내 건너 남동쪽으로, 높이 470m의 솟고개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솟터골’이라 하였다.

승지골 [골]

[위치] 귀운궁촌저수지에서 북쪽으로, 336.9m 높이의 동습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옛 귀운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시루봉 [산]

[위치] 동막 수논개골 남동쪽, 현 백운령모텔 남동

쪽 앞에 있는 높이 600.8m의 산을 말한다.

[유래] 높은 산봉우리이므로 ‘수리봉>시루봉’이라 하였다. 또는 산봉우리 모양이 떡시루를 닮았으므로 시루봉이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어원상으로 ‘시루’는 ‘수리’가 음운 도치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수리’는 ‘수릿날(단오)’, ‘정수리’처럼 가장 높은 곳을 이르는 말이다. ‘수리봉>매봉’, ‘수레너미’ ‘수리고개>수이고개>쉬고개’ 등은 모두 ‘수리’에 어원을 두고 있다.

십자봉 [산]

[위치] 백운산 남서쪽, 양아치 남동쪽에 있는 높이 983.2m의 산을 말한다. 백운산(1,014m)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있다. ‘백운산’이라고도 하고 ‘촉새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원래 이름은 ‘촉새봉’으로, 이는 산이 매우 가파르고 정상이 뾰족하여 생긴 이름이다. 일제강점기에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촉새와 비슷한 십자매를 염두에 두고 십자봉으로 하였다고 전한다. 주민들은 촉새봉으로 부르지만 십자봉으로 널리 알려져 정착되었다.

[내용] 백운산 줄기가 남서쪽으로 뻗다가 오두치에서 다시 남으로 방향을 바꾸어 950m 이상의 봉우리들로 산맥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이 십자봉이다. 강원도 원주시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과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서쪽으로는 덕가산에 닿고 동쪽으로는 충북 제천시 백운면과 경계를 이룬다. 큰양아치, 작은양아치는 이 산 서쪽 줄기에 있는 고개이다.

아낙골 [골] → 아늑골

아늑골 [골]

[위치] 웅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아낙골’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늑골’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가 아주 아늑하므로 아늑골이라 하였다.

아래양아치 [마을]

[위치] 양아치 마을 중 도로 서쪽 아래의 마을을 말한다. 현 19번 충원대로의 백운교차로 북동쪽에 있다.

아막골 [골] → 애막골

아홉사리 [고개] [마을] → 운계리 아홉사리

아홉사리성황당 [당]

[위치] 서낭당고개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서낭당’이라고 하였다.

[내용] 백운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 날에 당고사를 지낸다.

안경산 [산]

[위치] 귀운궁촌저수지 남서쪽, 현 원주공원묘원에 있는 높이 178.2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양경산(陽鏡山)’이라고 하였다.

앞들 [들]

[위치] 사두 마을 서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앞들’이라 하였다.

애막골 [골]

[위치] 귀운궁촌저수지 남쪽, 영천재골 입구에서 남서쪽으로, 284.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영천재골 서쪽의 골짜기로, 골짜기 너머에 방아실 마을이 있다. ‘아막골’이라고도 한다.

약물단지골 [골]

[위치] 고창 동쪽 닥밭둔대기골에서 북서쪽으로, 동습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양경산(陽鏡山) [산] → 안경산

양대치(兩大峙) [고개] → 양아치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귀래리의 동쪽에 있는 고개로 현 19번 충원대로와 북원로가 지나는 고갯길이다. 귀래면과 흥업면과의 경계에 있는 큰 고개를 큰양아치, 귀래 쪽의 작은 고개를 작은양아치라 부른다. 큰양아치의 높이는 380m로 원주에서 충주로 가는 가

장 높은 고개이며, 작은양아치의 높이는 300m이다. ‘양어치(兩御峙)’, ‘양안치(兩鞍峙)’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양앗치(兩峨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아치’라 하였다.

[유래] 큰 고개가 두 개이므로 대치(大峙)와 소치(小峙), 또는 둘을 합쳐 양치(兩峙), 양대치(兩大峙)라 하였다. ‘양+치>양치’에 매개모음 ‘ㅏ(ㅑ)’가 개입하여 ‘양아(어)치’가 되었다. 큰 고개 두 개가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또는 두 고개가 말안장처럼 생겼다고 하여 ‘양안치(兩鞍峙)’라고도 하였다.

[유래담] 삼국시대에 고구려 왕의 어거가 매지리에 머물고, 신라 왕의 어거가 운계리에 머물러 대치하였으므로 그 경계인 이곳을 ‘양어치(兩御峙)’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해동지도』(1747~50) 『광여도』(1767~76)에 ‘대치(大峙)’와 ‘소치(小峙)’로 구분하였고 『여지도서』(1757~65)에 ‘양대치(兩大峙)’라고 하였으며 『조선지리지』(1910)에 ‘양앗치(兩峨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1967)에 ‘양아치(兩峨峙)’라고 하였고 『원주원성향토지』(1976)에 ‘양아峙’라고 기록하였다.

1971년에 개교, 1983년에 폐교된 학교 이름이 ‘양아치분교’였으므로 현지에서는 최근까지도 별 거부감 없이 ‘양아치’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주민들이 ‘양아치’라는 이름을 꺼려 개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양아치’와 ‘양안치’ 두 이름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나 현재 도로표지판과 등산지도 등에 ‘양안치’로 적고 있어서 ‘양안치’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풀이] 18세기와 19세기의 모든 지리지가 ‘대치(大峙)’와 ‘소치(小峙)’, ‘양대치(兩大峙)’라 하였다. 이는 크고 작은 고개가 두 개이므로 붙여진 이름으로서 ‘양(兩)+치(峙)>양치’인데 매개모음이 개입하여 ‘양+ㅏ(ㅑ)+치>양아치(兩峨峙)’가 되었다. 높은 고개가 두 개라는 뜻이다. 이를 한자로 적는 과정에서 두 고개가 말안장을 닮은 것으로 보아 ‘아’를

‘안(鞍)’으로 적어 ‘양안치’라고도 하였고, ‘양어치(兩御峙)’라 하여 유래담이 생겼다.



‘양안치고개’ ; 2019년

양아치(兩峨峙) [마을]

[위치] 큰양아치와 작은양아치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서쪽 아래로 백운계곡이 이어진다. ‘웃말’ · ‘아랫말’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아치(양아치리)’라 하였다.

양아치도요지 [터] → 사기말

양아치리(兩峨峙里) [마을] → 양아치

양아치분교 [학교] → 귀운초등학교 양아치분교

양아치산신당 [당]

[위치] 웃양아치 개울 옆에 있는 산신당을 말한다.

[내용] 백운산 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9월 8일에 당고사를 지낸다.

양아치주막 [주막]

[위치] 아래양아치 마을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북쪽 곰네미 마을쪽으로 주막거리골, 주막거리골들이 나 있다.

양안치(兩鞍峙) [고개] [마을] → 양아치

양앗치 [고개] → 양아치

양어치(兩御峙) [고개] → 양아치

양치(兩峙) [고개] → 양아치

영천재 [고개]

[위치] 귀운궁촌저수지 남쪽 영천재골에서 남쪽으로

로, 망령들로 넘어가는 높이 220m의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넘어 밤나무골을 지나 망령들에 닿는다.

영천재골 [골]

[위치] 귀운궁촌저수지에서 남쪽으로, 영천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서 애막골이 남서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오야나무골 [골]

[위치] 귀운궁촌저수지 북서쪽 아래, 원주공원묘원 북쪽 아래의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2) 남쪽, 사흥교 동쪽에 있다.

용골 [골]

[위치] 용골사두저수지에서 동쪽으로, 367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용골사두저수지 [못]

[위치] 사두 남쪽, 용골 입구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지금은 메워서 밭이 되었다. ‘사두저수지’, ‘용골저수지’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사두저수지’라고 하였다.

용골저수지 [못] → 용골사두저수지

용화산(龍華山) [산] → 미륵산

운골산 [산]

[위치] 용골 남동쪽, 운계리 칠통골 마을 서쪽에 있는 높이 413m의 산을 말한다. 운계리와 귀래리의 경계가 되는 산으로 서낭당고개 동쪽에 있다. ‘운골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용골 마을 뒤에 있으므로 ‘운골산’이라 하였으나 ‘운골산’으로 정착되었다.

운들 [들]

[위치] 귀운궁촌저수지 북서쪽 아래, 원주공원묘원 동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운들 아래로 오야나무골이 이어진다. 공원묘원과 운들 사이에 귀문로가 지나고 있다.

움골 [마을] → 웅동

움동 [마을] → 웅동

웃고개골 [골]

[위치] 귀운궁촌저수지 남쪽 애막골 중간에서 남쪽으로, 높이 297.2m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웃양아치 [마을]

[위치] 양아치 마을 중 동쪽 도로 위, 옛 양아치분교가 있는 곳의 마을을 말한다. 도로 아래의 마을은 아래양아치라 부른다.

웅골 [골]

[위치] 사두에서 서낭당고개 사이, 현 웅동 마을에서 동쪽 470m 높이의 숯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웅동 마을이 있다.

웅골 [마을] → 웅동

웅골산 [산] → 운골산

웅골서낭 [당]

[위치] 웅동 마을 입구 길옆에 있는 벚나무와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원래의 당목이 쓰러져 길옆 젊은 느티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나무 아래의 자연석을 제단으로 삼았다. 마을 안 느티나무도 당목으로 삼고 있다. 격년으로 음력 정월 14일에 서낭고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해에는 줄다리기를 한다.

웅동(熊洞) [마을]

[위치] 사두 남쪽, 서낭고개 북쪽 아래, 탑상골 동쪽 웅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웅골’, ‘움골’, ‘움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서는 ‘움골(熊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움동(웅동)’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전시에 주민이 움을 파고 숨었다고 해서 움골이라고 하였다 한다. 또는 예전에 곰이 나와서 웅골, 웅동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마을 이름이 ‘움골’, ‘움동’, ‘웅골’, ‘웅동(熊洞)’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 곰과 관련된 지명은 나타나지 않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보아 낮은 골짜기를 뜻하는 ‘움(穴)+

골>움골’이라 하다가 음운 변화에 의하여 ‘웅골’이라 하였고, 이를 한자어로 ‘熊洞’이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웅동 마을 : 2019년」

웅유(熊踰) [마을] → 곰네미

원대골 [마을]

[위치] 평촌 남쪽 사기막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원대골’이라 하였다.

입버려진골 [골]

[위치] 양아치 수논개골에서 바른골과 갈라져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도락골 남쪽, 기계골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자루배들 [들]

[위치] 귀운궁촌저수지 남동쪽 위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평촌 서쪽 내 건너에 있다.

자작나무골 [골]

[위치] 웅골에서 남동쪽으로, 운골산 동쪽 34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무니골 동쪽, 점말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자작나무골’이라 하였다.

[유래] 자작나무가 많으므로 자작나무골이라고 하였다.

작배기골 [골]

[위치] 평촌 동쪽 삼선덩이들에서 북쪽으로 이어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사근절골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갈라진 골짜기이다. 현재 대규모 채석장이 들어서 있다.

작은모래재 [고개]

[위치] 현 백운교차로 남서쪽, 양아치도요지가 있던 곳의 작은 고개를 말한다.

[유래] 곰네미 쪽의 모래재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 곳은 작은모래재라 하였다.

작은양아치 [고개]

[위치] 큰양아치 남쪽 아래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양아치 마을 남쪽, 칠통골 북쪽에 있는 고개로 귀래리와 운계리의 경계가 된다. 현 19번 충원대로 운계터널이 나 있고 원래의 고개 자리에는 청원휴게소가 들어서 있다. ‘소치(小峙)’, ‘소양아치(小兩峨峙)’, ‘소양안치(小兩鞍峙)’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300m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자근양아치(小兩峨峙)’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작은양아치(소양아치)’라 하였다.

작은양아치주막 [주막]

[위치] 작은양아치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자근양아치두막(小兩峨峙酒幕)’이라고 하였다.

점말골 [골]

[위치] 웅동에서 남동쪽으로, 34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뒷골(2) 서쪽, 자작나무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종지바위 [바위]

[위치] 마귀할미바위 바로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종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마을]

[위치] 아래양아치 주막거리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주막거리골 [골]

[위치] 아래양아치에서 북쪽 곰네미 마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19번 충원대로가 지나고 있다.

[유래] 아래양아치에서 곰네미, 큰양아치로 넘어가는 옛길에 주막이 있었으므로 주막거리골이라 하였다.

주막거리골들 [들]

[위치] 주막거리골에 있던 들로, 아래양아치에서 곰네미천을 따라 난 들을 말한다. 현재 19번 충원대로가 지나가고 있다.

중터 [들]

[위치] 웅동 마을 북쪽 아래, 404번 귀문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솔미정들 남쪽 출가마골 입구에서 덩바우골 입구에 이르는 들이다. ‘중터개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중터’라 하였다.

중터개들 [들] → 중터

지등물양골 [골]

[위치] 웅동 서쪽, 중터 남쪽에서 남서쪽으로, 높이가 276.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덩바우골 입구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이다.

질마재 [고개]

[위치] 고청에서 북쪽으로, 큰골천을 따라 능골과 삼막골을 거쳐 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흥업면 대안리로 가는 노루재를 넘거나 문막읍 비두리 선돌로 가는 고개이다. 높이는 415m이다. ‘질마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질마재’라 하였다.

[유래] 모양이 길마(말안장)처럼 생겨서 ‘길마재>질마재’라 하였다.

[풀이] ‘길마’의 영서방언은 ‘지르마, 지르메’이므로 ‘지르마+재>지르마재>질마재’가 되었다. ‘질마(지르마)’는 ‘길마’가 구개음화한 결과이다.

질푸른동골 [골]

[위치] 백운계곡 수살거리골에서 북동쪽으로 53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백운산장에서 내 건너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천은사(天恩寺) [절]

[위치] 곰네미 마을 동쪽 위, 천은사계곡에 있는 조계종 사찰을 말한다. 1960년에 초막으로 건립되었고, 1998년에 크게 중창하였다.



「천은사 ; 2019년」

천은사계곡 [골]

[위치] 큰양아치와 작은양아치 사이, 천은사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곰네미 마을 동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명주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십자봉 산줄기의 물이 흘러 천은사 계곡을 거쳐 곰네미천(궁촌천)을 이루며 서쪽으로 백운계곡을 거쳐 귀운궁촌저수지로 들어간다. 1993년에 휴양지로 지정되었다.

천은사미륵불 [불상]

[위치] 천은사 남쪽 산 능선에 있는 미륵불상을 말한다.

[내용] 3m 높이의 자연암석에 불두를 얹어놓았다. 나팔을 한 부처의 머리는 납작한 얼굴에 눈과 코를 형식적으로 새겼다. 불신에 해당하는 바위에는 아무 조각이 없다. 불상 주변에서 상평통보와 토기, 도자기편 등이 발견되었다.

천향새골 [골]

[위치] 탑상골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에서 망령들에서 이어져 나온 뒷골(1)과 만난다.

축새봉 [산] → 십자봉

큰골(1) [골]

[위치] 평촌 마을에서 내 건너 남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남쪽 산 너머에 탑상골이 있다.

[내용] 사기막골과 망령들을 합쳐 큰골이라 한다.

큰골(2) [골]

[위치] 고청에서 북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닥발둔더기골’, ‘능골’을 거쳐 ‘삼막골’에서 북동쪽으로 덕가산에 이르는 골짜기이다. 다른 한 골짜기는 삼막골에서 북쪽으로 질마재에 닿는다.

큰골(3) [골]

[위치] 오야나무골 내 건너 맞은편에서 북동쪽으로, 동습봉 북쪽 능선을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천 [내]

[위치] 큰골(2)를 흐르는 내를 말한다. 덕가산과 질마재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삼막골과 능골을 지나 고청 앞에서 귀운궁촌저수지로 들어가는 내이다. 내를 따라 고청길이 나 있다.

큰마른골 [골]

[위치] 작은양아치에서 북동쪽 시루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모래재 [고개] → 모래재

큰양아치 [고개]

[위치] 양아치 고개 중 북쪽에 있는 높은 고개를 말한다. 귀래면 귀래리와 흥업면 매지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현 북원로와 19번 충원대로의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높이는 380m이다. 『조선지리지』에 ‘큰양아치(大兩峨峙)’라고 하였다.

큰양아치골 [골]

[위치] 곰네미에서 북쪽으로, 큰양아치 고개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19번 충원대로가 지나가고 있다.

큰양아치들 [들]

[위치] 곰네미 북쪽, 큰양아치골 동쪽에 따라 나 있는 작은 들을 말한다.

탄산(炭山) [고개] → 숯고개(2)

탄현(炭峴) [고개] → 숯고개(2)

탑골 [마을] → 탑상골

탑동(塔洞) [마을] → 탑상골

탑상골(塔上-) [마을]

[위치] 서낭당고개 북쪽 아래, 응동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404번 귀문로 서쪽에 있다. ‘탑골’, ‘탑동’, ‘탑상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탑골(塔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탑동(塔洞)’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뒷쪽 밭의 옛 절터에 작은 삼층석탑이 있으므로 탑골, 탑동, 탑상골이라 하였다.



「탑상골 마을 ; 2019년」

탑상골 탑 [탑]

[위치] 탑상골 마을 뒤쪽 복숭아밭에 있는 작은 석탑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오층탑이라 하였다.

[내용] 고려 후기 이후에 조성된 3층 석탑으로 추정되고 있다.



「탑상골 탑 ; 2018년」

탑상동(塔上洞) [마을] → 탑상골

평촌(坪村) [마을]

[위치] 귀운궁촌저수지 동쪽 위, 고청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귀래리의 중심되는 마을로 귀래1리 마을회관, 평촌노인정, 어린이회관 등이 있다. ‘들말’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들말(坪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평촌(坪村)’이라 하였다.

[유래] 비교적 넓은 곳에 마을이 섰으므로 원래는 ‘들말’이었으나 이를 한자로 적은 ‘평촌(坪村)’이란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평촌 마을 ; 2019년」

흘가맛골 [골] [마을] → 흘가맛골

흘가맛골보 [보] → 흘가맛골보

흘가맛골 [골]

[위치] 사두 남쪽, 솔미정들 남쪽에서 남서쪽으로, 22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들이 형성되어 있다. ‘흘가맛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흘가맛골’이라 하였다.

흘가맛골 [마을]

[위치] 흘가맛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흘가맛골보 [보]

[위치] 흘가맛골에 있는 보(淤)를 말한다. ‘흘가맛골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흘가맛골보’라 하였다.

용암리(龍岩里)

[위치]

용암리는 귀래면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운계리와 주포리, 서쪽으로는 부론면 단강리, 남쪽으로는 충주시 소태면, 북쪽으로는 귀래리와 접해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 귀래면의 지역으로서 첫 마을이란 뜻으로 초일리(初一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능내·신촌·동막·생산·당우·지둔지를 병합하여 용암리라 하여 원주군 귀래면 용암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귀래면 용암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귀래면 용암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함에 따라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가 되었다.

[유래]

용바우골에 용바우가 있으므로 용암리라 하였다. 곡수(曲水)가 흐르는 개울에 높이가 약 10m 되는 바위가 있었는데 형태가 용(龍)과 같으므로 용바우라 하였고, 이 바위 이름이 마을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가는골 [골]

[위치] 황골에서 북서쪽으로, 봉림산(2)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북없는골 위의 골짜기이다.

건너말 [마을] → 양지말

곡수(曲水) [내] → 용암천

골롱골 [마을] → 골용골

골용골 [마을]

[위치] 지둔 옷말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골롱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골롱골’이라고 하였다.

구라골 [골]

[위치] 능안에서 북동쪽으로, 미륵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황새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구락골’이라고도 한다.

[풀이] ‘구라’는 ‘굴’계통의 ‘굴’이 음운 변천한 것이다. ‘굴’에서 유래된 ‘갈·골·굴’ 등에서 ‘굴’은 ‘구라·구레·구려·구래·구리’ 등으로 나타난다. ‘구라+골>구라골, 구락골’이 되었다.

구락골 [골] → 구라골

너래바우(1) [바위]

[위치] 동막 소시랑골 입구에 있는 넓은 바위를 말한다.



「너래바우(1) ; 2018년」

너래바우(2) [바위]

[위치] 능유 산모퉁이 운계천에 있는 바위이다.

너령골 [골]

[위치] 지둔 옷말에서 북쪽으로, 206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용암저수지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너령바우 [바위]

[위치] 지둔 옷말 너령골 앞 용암천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너령바우 ; 2018년」

너시락바우 [바위]

[위치] 용바우골 용바우 위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너시락바우’라 하였다.

[내용] 약 5m×5m 정도의 평평한 바위로, 저수지에 수몰되었다.

능내(陵內) [마을] → 능안

능안 [마을]

[위치] 지둔 북쪽, 용암천의 상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에 ‘안능안’과 ‘바깥능안’이 있다. 한자로 ‘능내(陵內)’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능니(陵內)’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능안(능내)’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입구 신촌에 김해 김씨 김예직 등의 큰 능이 있는 골짜기 안에 마을이 있으므로 능안이라고 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광해군의 외숙 의헌(毅憲) 김예직(金禮直)이 여기에 묻히게 되었는데 광해군이 정을 못 잊어 왕릉을 쓰는 예우로 하라 하였다고 한다. 광해군이 직접 여기를 다녀갔

다고도 전한다.



「능안 마을 ; 2019년」

능안고개(1) [고개]

[위치] 능안에서 서쪽으로, 부론면 단강리 사기막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옥리봉 남쪽 능선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높이는 310m이다.

능안고개(2) [고개]

[위치] 바깥능안에서 북서쪽으로, 봉림산 동쪽 능선을 넘어 부론면 손곡리 서지로 넘어가는 긴 고개를 말한다. 봉림산 동쪽, 방아재 서쪽 능선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높이는 460m이다.

능안골 [골]

[위치] 전나무골에서 북쪽으로, 향골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바깥능안이 있는 골짜기이다.

당모루 [마을] → 당우

당모루들 [들]

[위치] 당우 마을 남동쪽 앞 운계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당우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당우들(堂隅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당모루들’이라 하였다.

당모루들보 [보]

[위치] 당모루들 동쪽에 있는 용암천의 보(淤)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당모루들보’라 하였다.

당모루버덩 [들]

[위치] 당우 마을과 당모루들 사이의 버덩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당모루버덩’이라 하였다.

당우(堂隅) [마을]

[위치] 지둔 서쪽, 생산 동쪽, 동막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당모루’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당모루(堂隅)’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당모루(당우)’라 하였다.

[유래] 성황당이 있던 길모퉁이이므로 당모루라 하였다. 또는 조선 후기(1700) 사헌부 지평으로 있다가 낙향하여 살던 당계(棠溪) 김광우(金光遇)의 이름을 따서 당우동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당우 마을 ; 2019년」

당우동 [마을] → 당우

당우들 [들] → 당모루들

당우웃말 [마을]

[위치] 당우 마을 중 동막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당모루웃말’이라고 하였다.

도꼬리 [골]

[위치] 큰향골에서 북서쪽으로, 558m 미륵산(2)와 579.3m 봉림산(2) 사이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 바위 절벽이 매우 많아 산돼지가 많이 굴러 떨어져 죽으므로 ‘돌골>도꼬리’라고 하였다.

[풀이] ‘돌+골>돌골>돌골+(ㅣ)>돌골이>도꼴이>도꼬리’로 음운 변천하였다. ‘돌’은 돼지의 옛말이며, ‘ㅣ’는 접미사이다. 돼지골짜기라는 뜻이다.

돌고지 [마을]

[위치] 지둔 남동쪽 돌고지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돌쏘지(石串)’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돌고지’라 하였다.

[유래] ‘큰 바위가 있는 곳’이므로 ‘돌곶이>돌고지’라 하였다. 또는 옛길이 그 곳을 빙 돌아서 갔으므로 ‘돌아서 가는 곳>돌곶이>돌고지’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소리개고개가 있는 지형이 동쪽과 남쪽은 운계천으로, 서쪽은 들로 둘러싸여 돌출되었으므로 ‘곶’이라 하였고, 운계천 쪽으로 큰 바위가 있으므로 ‘돌곶이>돌고지’라 하였다. 또는 새 도로가 나기 전 옛길에서는 그 곳을 빙 돌아서 갔으므로 ‘돌아가는 곳’이어서 ‘돌곶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지형이 곶으로 되어 있고 큰 바위가 있어 돌아가기도 한 곳이다. 『조선지리지』에 ‘돌쏘지(石串)’라고 하였으므로 ‘바위가 있는 곶’으로 볼 수 있다.

돌고지고개 [고개]

[위치] 돌고지들에서 북쪽으로, 소리개고개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돌고지고개’라 하였다.

돌고지들 [들]

[위치] 지둔저수지 남쪽, 운계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돌고지보 [보]

[위치] 돌고지들에 있는 운계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돌고지보(石串洑)’라고 하였다.

돌곶소 [소]

[위치] 돌고지 남동쪽에 있는 운계천의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돌곶소’라 하였다.

동막(東幕) [마을]

[위치] 지둔 북서쪽, 용암저수지 서쪽, 동막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동막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동막(東幕)’, ‘동막산(東幕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막(東幕)’이라 하였다.



‘동막 마을 ; 2019년’

동막고개 [고개]

[위치] 동막에서 남동쪽으로, 지둔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막고개’라고 하였다.

동막골 [골]

[위치] 당우 마을에서 북쪽으로 동막천을 따라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동쪽 산줄기 너머에 용암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골짜기 안에 동막 마을이 있다.

동막골 [마을] → 동막

동막산 [산]

[위치] 웃동막 서쪽, 빈재 북쪽에 있는 356.8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부론면 단강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산 너머에 부론면 단강리 사기막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동막산(東幕洞)’이라고 하였다.

동막성황당 [당]

[위치] 서낭고개 정상 길옆에 있던 옛 성황당을 말한다. 소나무 당숲이 남아있다.

동막천(東幕川) [내]

[위치] 능안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동막과 산수골을 지나 당우 앞에서 운계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동지둔(東芝屯) [마을] → 중간말

뒷들 [들]

[위치] 지둔 중간말 북서쪽, 웃말 남서쪽, 용암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뒷들’이라고 하였다.

뒷들저수지 [못]

[위치] 지둔 웃말 서쪽, 용암천 건너에 있던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용암저수지’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뒷들저수지’라고 하였다.

[내용] 현 용암저수지가 생기기 전 이 못을 용암저수지로 불렀으나 지금은 메워서 논이 되었다.

마근데미 [들]

[위치] 동막 북쪽, 마근데미고개 남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마근데미’라고 하였다.

[유래] 어느 풍수가 고개를 막아야 부자 마을이 된다고 하여 보를 막았으므로 마근데미라 하였다.

마근데미고개 [고개] → 서낭고개, 서낭당고개

[위치] 마근데미들 북쪽 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웃동막에서 능안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현 용암동 막길이 나 있다. 고개 높이는 200m이다. ‘서낭고개’, ‘서낭당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마근다미고기(塞檐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막은데미고개’라고 하였다.

마근데미보 [보]

[위치] 마근데미들에 있는 동막천(東幕川)의 보(洑)를 말한다.

모야골 [골]

[위치] 큰항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미륵산(1)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박작골 남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미륵봉(彌勒峰) [산] → 주봉

미륵산(彌勒山)(1) [산]

[위치] 능안 북동쪽에 있는 높이 695.5m의 산을 말한다. 남쪽 능선에 주봉, 장군봉, 신선봉, 치마바우봉 등이 운계천까지 이어져 있다. 용암리와 운

계리, 귀래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조선지리지』에 ‘미륵산(彌勒山)’이라고 하였다.

[내용] 미륵산이란 이름은 이 지역의 미륵산 줄기에 통용되고 있다.

미륵산(彌勒山)(2) [산]

[위치] 능안 북쪽 황골 끝에 있는 높이 558m의 산을 말한다. 방아재(568m) 북동쪽에 있는 산으로, 부론면 손곡리와 경계를 이룬다.

[내용] 미륵산이란 이름은 이 지역의 미륵산 줄기에 통용되고 있다.

바깥능안 [마을]

[위치] 능안 마을 중 안능안골 북쪽 위, 황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동쪽 골 안쪽에 있는 ‘안능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바깥능안’이라 하였다.

박작골 [골]

[위치] 큰항골 북쪽 위에서 동쪽으로, 미륵산(1)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박쥐골’이라고도 한다. 도꼬리 입구에서 북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내용] 골 안에 굴바위가 있고 그 굴에 박쥐들이 살므로 박쥐골이라고도 부른다.

박쥐골 [골] → 박작골

방아재 [산]

[위치] 미륵산(2) 남서쪽에 있는 높이 568m의 산을 말한다. 부론면 손곡리와 경계를 이룬다. ‘방아재봉’, ‘방재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방아지(舂峴)’라고 하였다.

방아재봉 [산] → 방아재

방재봉 [산] → 방아재

뱃머루 [모롱이]

[위치] 능유 너래바우(2) 앞 운계천의 모퉁이를 말한다.

번말 [마을] → 별말

별말 [마을]

[위치] 생산 남서쪽, 운계천 건너 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서쪽으로 부론면 단강리와 경계를 이루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번말’이라고 하였다.

복없는골 [골]

[위치] 미륵산 소매골 다음 골짜기를 말한다.

봉림산 [산]

[위치] 558m의 미륵산(2) 남서쪽, 568m의 방아재 동쪽에 있는 높이 579.3m의 산을 말한다.

[내용] 원래 봉림산은 서쪽에 있는 부론면 손곡리와 단강리의 경계인 543.3m의 봉우리이나 이 산도 봉림산으로 불리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봉림산, 방아재, 방아실, 미륵산 등이 혼용되고 있다.

불당골 [골]

[위치] 신촌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신촌 마을에서 북쪽으로, 현 용화사로 이어진 골짜기이다. ‘절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불당골(佛堂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불당골’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불당이 있었으므로 불당골이라 하였다.

빈재 [고개]

[위치] 동막에서 서쪽으로, 상부론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빈재산 북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빙재’라고도 한다. 높이는 320m이다. 『조선지리지』에 ‘빙지(氷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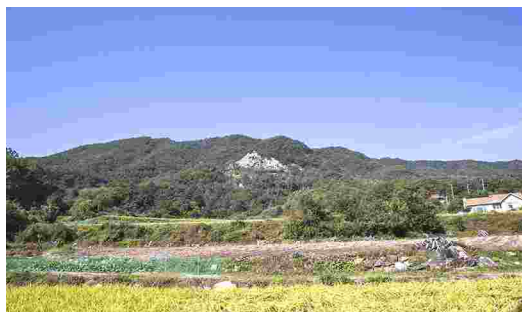
[유래] 암벽으로 비탈진 산, 벼랑으로 된 산 또는 고개이므로 빈재, 빙재, 빈재산이라 하였다.

[풀이] ‘빈·빙’은 ‘비탈·벼랑’의 방언이다. 평북에서 ‘빈재이골(빈쟁이골)’을 ‘비탈골’이라고도 하므로 ‘빈재’는 곧 ‘비탈’ 또는 ‘벼랑’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빋+달>비탈(비알, 별, 별앙)’, ‘빋+재>빋재(빈재)’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지명으로는 지정면 간현리의 ‘해빙골(희빈골)’, 호저면 주산리의 ‘빙모탕이’, ‘빙밑방천(氷下沓)’, 태백산의

‘빈재’, 춘천 천전리와 지리산의 ‘빙소’ 등이 있다.

빈재산 [산]

[위치] 동막 서쪽에 있는 높이 332m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빈재’라고 하였다.



「빈재산 ; 2019년」

빙재 [고개] → 빈재

산수곡(山水谷) [골] → 산수골

산수골 [골]

[위치] 동막 마을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33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옛 뒗들저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입구에 안경공파수련원 용암사가 있다. ‘산숫골’, ‘산수곡(山水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산슈골(山水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산숫골(산수곡)’이라고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 김해 김씨 안경공파의 산소가 많으므로 ‘산소골>산수골’이라 하였다.

산수골웃말 [마을]

[위치] 산수골 입구 위쪽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산숫골웃말’이라고 하였다.

산숫골 [골] → 산수골

산숫골웃말 [마을] → 산수골웃말

살미 [마을] → 생산

새말 [마을] → 신촌

생산(生山) [마을]

[위치] 별말 북동쪽, 당우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

한다. ‘살미’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싱산(生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살미(생산)’라고 하였다.

[유래] ‘미’는 들을 뜻하는데 ‘살’의 어원은 확정하기 어렵다.

[풀이] ‘살미’라는 지명은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유래는 각각 다르다. ‘살미’는 ‘살+미>살미’인데 이때 ‘살’은 ‘수리·화살·살다(生)·쌀(米)’ 중의 하나이며, ‘미’는 ‘산(山:뫼>메>미)’, 중세국어 ‘미(野)>미’, ‘물(水)>므>미’, 또는 고구려어 ‘매(賈:水)>미’ 중의 하나이다.

즉 수리뫼가 ‘수리뫼>술뫼>술미>살미’로 된 경우도 있고, ‘살’을 화살로 보아 ‘전산(箭山)·시산(矢山)’으로 표기하는 경우, ‘살다’로 보아 ‘생산(生山)·활산(活山)·거산(居山)’으로 표기하는 경우, 쌀이 많아서 ‘쌀미>살미, 미산(米山)’으로 보는 경우 등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생산(生山)’으로 표기하고 있어 ‘살’을 ‘살다(生)’와 결부시키고 있고, ‘미’는 ‘山’으로 표기하였으나 마을이 강 옆에 있으므로 ‘들(野)’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호저면 무장리의 ‘살미’와 마찬가지로 논농사를 하는 강 옆의 넓은 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곳 살미는 ‘쌀농사를 짓는 들’이란 뜻으로 추정되나 단언하기는 어렵다.

서낭고개 [고개]

[위치] 웃동막에서 북쪽으로 능안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서낭당고개’, ‘마근데미고개’라고도 한다.

[유래] 고개 위 길옆에 서낭당이 있었으므로 서낭고개, 서낭당고개라 하였다.

서낭당고개 [고개] → 서낭고개, 마근데미고개

서지골 [골]

[위치] 바깥능안에서 북서쪽으로, 능안고개(2)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고개 북쪽 너머로 서지골과 서지 마을로 가므로 서지골이라고 하였다.

서지둔(西芝屯) [마을] → 양지말

서포산 [산]

[위치] 신촌 마을 북쪽, 능안 용화사 동쪽에 있는 높이 358m의 산을 말한다. 주변에서 홀로 우뚝 솟아 있는 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서포산’이라고 하였다.

[유래] 바위산이 뾰족하게 솟아 있어서 노적거리 같으므로 서포산으로 불렀다고도 하고, 우뚝 솟아서 있으므로 서포산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서포산 ; 2019년」

서포산골 [골]

[위치] 신촌에서 북동쪽으로, 전나무골을 향하여 용암천 개울을 따라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서포산 남서쪽 아래로 난 골짜기이므로 서포산골이라 하였다.

소리개 [마을]

[위치] 소리개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소리지(薦峴)’라고 하였다.

소리개고개 [고개] → 할딱고개

[위치] 소리개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주포리 능유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용암리와 주포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로 현재 531번 부귀로가 지나고 있다. ‘할딱고개’라고도 한다. 높이는 160m이다. 『조선지리지』에 ‘소리기(松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소리개고개’라고 하였다.

소리개골 [골]

[위치] 소리개들에서 북쪽으로, 188.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소리개들 [들]

[위치] 지둔저수지 동쪽, 소리개골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소리개’라 하였다.

소리개보 [보]

[위치] 소리개들에 있는 531번 부귀로 옆 개울의 보(洑)를 말한다.

소리개저수지 [못]

[위치] 소리개골 입구, 소리개 고개 아래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소매골 [골]

[위치] 미륵산 모야골 다음 골짜기를 말한다.

소시랑골 [골]

[위치] 집념어골(1) 북쪽에서 북서쪽으로, 200.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신선바위 [바위]

[위치] 동막 서쪽, 빈재산에 있는 바위 벼랑을 말한다.

신선봉(神仙峰) [산]

[위치] 능안 마을 집념어골 동쪽 끝에 있는 높이 650m의 산을 말한다. 장군봉 남쪽, 치마바위봉 북쪽에 있다. 용암리와 주포리의 경계되는 산이다.

신촌(新村) [마을]

[위치] 용돈 북서쪽 용바우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능안 남동쪽 아래, 용돈에서 북서쪽 고개 위에 있는 마을로, 새로 막은 용암저수지 북쪽 위에 있다. ‘새말’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시말(新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말(신촌)’이라 하였다.

[내용] 마을 서쪽 산에 김해 김씨의 산소가 많이 있다. 옛날에 한지공장이 있었다.

아랫담 [마을]

[위치] 지둔 마을 중 가장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531번 부귀로 옆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랫담’이라고 하였다.

안능안 [마을]

[위치] 능안 마을 중 동쪽 지차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마을 중 골짜기 안쪽에 있으므로 ‘안능안’이라 하였다. 안능안 서쪽 황골 입구 능안골에 있는 마을은 ‘바깥능안’으로 부른다.

양지말 [마을]

[위치] 지둔 마을 중 아래쪽, 용바우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서지둔’, ‘서지둔’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서지둔(西芝屯)’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건너말’이라 하였다.

[유래] 북서쪽이 산으로 막힌 양지쪽에 있으므로 ‘양지말’, 용암천 서쪽 건너에 있으므로 ‘건너말’, ‘서지둔’이라고 하였다.

용바우 [바위]

[위치] 지둔 옷말과 신촌 사이에 있는 용암천의 바위를 말한다. 원래 개울에 반쯤 잠겨 있었으나 용암저수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이를 한자로 적어 ‘용암(龍岩)’이라 하였고 이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용바우’라고 하였다.

[유래] 높이 약 10m로 모양이 마치 검은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생겼으므로 용바우라 하였다. 이 바위에서 용바우골과 용암리 마을 이름이 나왔다.

용바우골 [골]

[위치] 지둔 마을에서 북쪽으로, 용암천을 따라 신촌과 능안을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용암(龍岩) [바위] → 용바우

용암저수지(1) [못] → 뒗들저수지

용암저수지(2) [못]

[위치] 옷동막 남동쪽 아래, 아랫동막 북동쪽에 새

로 막은 저수지를 말한다.

용암천(龍岩川) [내]

[위치] 미륵산과 봉림산 사이 황골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능안과 신촌을 거쳐 지둔에서 운계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곡슈(曲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용암천’이라고 하였다.

[유래] 용바위가 있는 용바우골을 흐르므로 ‘용암천’, 물길이 심하게 구비치므로 ‘곡수(曲水)’라고도 하였다.

용암초등학교 [학교]

[위치] 용암리 905, 동막골 입구 당우 마을에 있던 학교를 말한다.

[내용] 1945년 귀래국민학교 용암분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1956년에 용암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가 1998년에 귀래초등학교로 통합되어 폐교되었다.



「용암초등학교 ; 2019년」

웃말 [마을]

[위치] 지둔 마을 중 북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지둔지 웃말’이라 하였다.

원강수 [들]

[위치] 지둔 마을 남쪽 용암천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원강수’라고 하였다.

원강수보 [보]

[위치] 원강수 들에 있는 용암천의 보(淤)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원강수보’라고 하였다.

육리봉 [산]

[위치] 바깥능안 서쪽에 있는 높이 426m의 산을 말한다. 부론면 단강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산 서쪽 너머에 단강리 사기막골이 있다.

은적골 [골]

[위치] 신촌에서 북쪽으로 서포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은적골’이라고 하였다.

은적암(隱寂庵) [절]

[위치] 은적골 용암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옛 절을 말한다.

[내용] 『여지도서』 『관동지』에 ‘고을 남쪽 60리 거리 미륵산 아래에 있다. 앞에는 굽이굽이 흐르는 물가가 있고 너럭바위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며 잔을 물에 띄워 놓고 즐긴다.’고 하였다.

일곱마지기골 [들]

[위치] 웃동막 남쪽, 높이 231.3m 봉우리 동쪽 아래의 들을 말한다.

작은항골 [골]

[위치] 능안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장학골(長鶴谷)’이라 하였다.

잔나무정들 [들]

[위치] 동막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잔나무정이들(栢木坪)’이라고 하였다.

장군봉(將軍峰) [산]

[위치] 미륵산 주봉과 신선봉 사이에 있는 670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전나무골 [골]

[위치] 신촌 북쪽, 마근데미고개 북쪽 아래에서 능안으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용암2리 마을회관에서 남쪽으로, 서낭고개에 이르는 골짜기이다.

전나무정들 [들]

[위치] 전나무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잔나무정이들(栢木坪)’이라 하였다.

전말 [마을]

[위치] 전나무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능안 마을의 중심지로 마을회관이 있다.

[유래] 예전에 전나무가 많았으므로 ‘전말’이라고 하였다. ‘前마을’이라고도 한다.

절골 [골] → 불당골

조합담 [마을]

[위치] 옛 용암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마을에 농협창고가 있었으므로 조합담이라 하였다.

주봉(主峰) [산]

[위치] 능안 북동쪽, 미륵산 남쪽 능선에 있는 높이 676m의 산을 말한다. 봉우리 동쪽 아래에 마애미륵불상이 있고 옛 황산사터가 있다. 주포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미륵봉’이라고도 한다.

중간말 [마을]

[위치] 지둔 마을 중 너렁바우 가기 전 중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중턱말’, ‘동지둔(東芝屯)’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동지둔니(東芝屯)’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중턱말’이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의 중간에 있으므로 ‘중간말’, 중턱에 위치하므로 ‘중턱말’, 지둔 마을 중 용암천 동쪽에 있으므로 ‘동지둔’이라고 하였다.

중턱말 [마을] → 중간말

지둔(芝屯) [마을]

[위치] 용암천 하류, 용바우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당우 북동쪽에 있다. 마을 안에 ‘아랫담’, ‘양지말(서지둔)’, ‘중간말(중턱말, 동지둔)’, ‘웃말’이 있다. ‘지촌(芝村)’, ‘지둔지(芝屯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지촌(芝村)’이라고 하고 ‘동지둔니(東芝屯)’와 ‘서지둔(西芝屯)’을 구분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지둔지(지둔)’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이 선 둔덕에 지초가 많았으므로 지둔, 지촌이라 하였다. 진흙 둔덕이어서 지둔, 지둔지라 하였다고도 하고, 지씨 토박이들이 살다가 떠났으므로 지둔, 지둔지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단·둔·둔’은 언덕, 둔덕을 뜻하는 것으로 ‘屯’자로 기록하였다. 둥두렷한 둔덕에 마을이 섰으므로 둔이라 하였는데, 거기에 지초가 많았으므로 지둔(芝屯), 또는 지촌(芝村)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지둔저수지 [못]

[위치] 지둔 마을 동쪽 도로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지둔지(芝屯地) [마을] → 지둔

지둔지웃말 [마을] → 웃말

지차골 [골]

[위치] 현 용화사가 있는 안능안에서 북동쪽으로, 미륵봉 주봉(676m)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지차골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황새골이 갈라져 나가고 골 끝에서 집넘어골(2)가 이어진다. 『조선지리지』에 ‘지차골(芝谷)’이라 하였다.

지차골 [마을]

[위치] 지차골 안 집넘어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지차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미륵산 신선들이 놀다가 내려와 머물던 곳(지체한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골짜기에 5천 평 규모의 평평하고 산세가 고운 터가 있어 1990년대에 무속인이 이곳에 절을 지었다고 한다.

[내용] 작은 한지공장이 있었는데 1960년대에 없어졌다.

지착골 [마을] → 지차골

짐대골 [골]

[위치] 서지골과 탑상골이 마주치는 곳에서 서쪽

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서쪽 고개 너머에 부르면 단강리의 큰집대 골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집넘어골 [골]

[위치] 지차골 끝에서 동쪽으로, 신선봉(650m)을 향하여 이어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참나무골 [골]

[위치] 웃동막에서 북서쪽으로, 289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북쪽에 소시랑골이 있다.

참나무쟁이들 [들]

[위치] 능안 남쪽, 현 용암사 입구 용암교 건너기 전의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침나무정들(直木亭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참나무쟁이들’이라고 하였다.

[유래] 참나무 숲을 굽던 곳이므로 참나무쟁이들이라 하였다.

초일리(初一里) [마을] → 용암리

초향대 [바위]

[위치] 신선봉 남쪽 치마바우 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큰황골 [골]

[위치] 황골에서 북쪽으로, 526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탑상골 [골]

[위치] 바깥능안 서지골에서 북쪽으로, 방아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 안에 절터가 많으므로 탑상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평촌들 [들]

[위치] 생산 앞 운계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가 되는 들이다.

피아골 [골]

[위치] 지둔저수지에서 북쪽으로, 지둔 웃말을 향

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담] 밑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골짜기이므로 피난하기 좋은 곳이어서 피아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하향소(荷香沼) [소] → 행소

학바우 [바위]

[위치] 생산 남서쪽 냇가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경지정리로 땅에 묻혀 없어졌다.

[유래] 학이 와서 앉곤 하였으므로 학바우라고 하였다.

할딱고개 [고개] → 소리개고개

[위치] 소리개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지금의 도로가 나기 전에는 운계천 옆으로 산줄기를 돌아 넘었는데 고개가 험해 모두 내려서 버스를 밀고 올라가느라 힘이 들어서 할딱고개라 하였다.

행소 [소]

[위치] 화향대 아래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하향소’, ‘화향소’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하향소(荷香沼)’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행소’라고 하였다.

[유래] 기생 화향이 떨어져 죽은 곳이므로 화향소라고 하다가 행소가 되었다고 한다.

[내용] 용암천이 운계천에 합류하는 곳의 서쪽 옆에 있다. 화향대 아래 깊은 소가 있고 서쪽에는 행수보가 있다.



「화향대 · 행소 ; 2018년」

행소보 [보]

[위치] 화향대 행소 서쪽에 있는 보(沔)를 말한다.
'행수보'라고도 한다.

행수보 [보] → 행소보

흘논골 [골]

[위치] 신촌에서 북동쪽으로, 468.1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화향대(花香臺) [바위]

[위치] 당우 마을 남동쪽, 당우들에서 운계천 건너에 있는 넓은 바위를 말한다.

[유래] 옛날 충주목사와 원주목사가 만나서 놀던 곳이었는데 화향이라는 기생이 춤을 추다가 떨어져 죽었으므로 화향대라 하였다고 한다.

화향소(花香沼) [소] → 행소

황골 [골]

[위치] 바깥능안에서 북쪽으로, 미륵산(2)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서쪽에 558m의 미륵산, 568m의 방아재가 있다. '큰황골'과 '작은황골'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황골(黃谷)'이라고 하였다.

황골 [마을]

[위치] 황골 골짜기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미륵산(2) 남쪽 아래에 있던 마을로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풀이] '크다'는 뜻의 '한'과 '골'이 결합하여 '한+골>한골>향골>황골'이 되었다.

황새골 [골]

[위치] 안능안에서 지차골과 갈라져 북동쪽으로, 높이 694.5m의 헬기장과 미륵봉 주봉 능선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운계리(雲溪里)

[위치]

운계리는 귀래면의 중앙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십자봉 줄기를 경계로 하여 운남리와 제천시 백운면, 서쪽으로는 용암리와 주포리, 남쪽으로는 운남리, 북쪽으로는 귀래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귀래면(貴來面)의 지역으로서, 둘째마을에서 갈라진 마을이라 하여 분이리(分二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둔리·칠통·구사리·유현·분토동·대동을 병합하여 운계리(雲溪里)라 하여 원주군 귀래면 운계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귀래면 운계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귀래면 운계리라 하였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함에 따라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가 되었다.

[유래]

백운산(白雲山)의 운(雲)에 계곡의 계(溪)를 합하여 운계리(雲溪里)라 하였다.

가랫골 [골]

[위치] 느릅재 마을 동쪽, 곳집들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301.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리골(楸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랫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골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 있으므로 가랫골이라 하였다.

[내용] 뒤기비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곳집들과의 사이에 가랫골저수지가 있고, 골 서쪽 아래에 19번 충원대로가 지나가고 있다.

[풀이] ‘가래+골>가래골>가랫골’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추곡(楸谷)’이라 하여 가래나무와 연관시켰다. ‘갈·가래·가루·가리’ 등은 ‘分’의 뜻으로서, 산줄기가 갈라지거나 지역이 분기되는 곳에 나타나는 지명이다. 갈머리(秋頭:일산동), 가리봉(加里峰:행구동), 가리파(加里坡:금대리~신림)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 느릅재 마을 앞에서 북쪽으로 칠통 쪽으로 난 길과, 가랫골, 분토골 등으로 골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므로 생긴 이름으로 추정된다.

가랫골저수지 [못]

[위치] 가랫골 앞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곳집들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랫골 못’이라 하였다. 못 동쪽 위에 19번 충원대로가 지나가고 있다.

가막골 [골]

[위치] 느릅재 마을 북쪽, 주막거리들에서 북서쪽으로, 운골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북원로 북서쪽에 있다. ‘가맛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전에 그릇을 굽던 가마가 있었으므로 ‘가마골>가막골, 가맛골’이라 하였다.

가막골 [마을]

[위치] 느릅재 북쪽 가막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가맛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막골(可莫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

맛골’이라 하였다.



「가막골 마을 ; 2019년」

가막골들 [들]

[위치] 가막골 마을 남동쪽 앞, 유현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가막골저수지 [못]

[위치] 가막골 골짜기 중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가막골들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맛골못’이라 하였다.

가맛골 [골] [마을] → 가막골

골말 [마을]

[위치] 다둔리 마을 중 가운데에 있는 본 마을을 말한다.

골매 [골]

[위치] 텃골(3)에서 남서쪽으로, 35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골매’라 하였다.

곳집들 [들]

[위치] 느릅재 동쪽 운계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곳집들저수지 [못] → 가랫골저수지

구사동(九沙洞) [마을] → 아홉사리

구사리(九沙里) [마을] → 아홉사리

구사약수(九沙藥水) [샘] → 아홉사리 약수

까치락골 [골]

[위치] 텃골(2)에서 동쪽으로, 309.9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남쪽 너머에 운남리 까치락골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가치락설(可治樂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치랏골’이라 하였다.

까치락골성황당 [당]

[위치] 까치락골의 텃골(2) 마을 입구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백운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 초순에 택일하여 당고사를 올렸다. 지금은 폐지되어 철거되었다.

노가지나무골 [골]

[위치] 칠통골 즈터에서 북쪽 논골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남북으로 복원로와 19번 충원대호가 나 있다.

논골 [골]

[위치] 노가지나무골에서 북서쪽으로, 435.6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청원휴게소 남쪽, 한국이동통신귀래지국이 있는 곳이다. 골짜기 동쪽에 19번 충원대호가 나 있다.

논골 [마을]

[위치] 논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론골(論谷)’이라고 하였다.

느릅재 [마을]

[위치] 대동 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운계1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유현(楡峴)’이라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느릅지(楡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느릅재(유현)’라 하였다.

[유래] 길게 늘어진 고개에 마을이 있으므로 느릅재라고 하였다. 또는 느릅나무가 있어서 느릅재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아홉사리고개가 시작되는 마을로 문막으로 가는 404번 귀문로가 복원로에서 갈라지는 삼거리에 있다. 길 북서쪽 위에 아홉사리고개의 서낭

당고개가 있다.

[풀이] ‘늘어지다’의 뜻인 ‘늘’이 ‘느릅’으로 실현되어 느릅재, 유현(楡峴)으로 쓰였다. 긴 아홉사리고개가 시작되는 곳으로서 ‘늘어진 고개’의 뜻이다. 이를 한자로 적는 과정에서 ‘느릅’을 ‘느릅나무’로 보아 ‘楡峴’으로 정착되었다.



「느릅재 마을 : 2019년」

다둔리(多屯里) [마을]

[위치] 칠통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19번 충원대로 운계교차로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안에 ‘골말’, ‘양지말’, ‘뒗버덩’이 있다. ‘뒗돈’, ‘삼태미’라고도 부른다. 『조선지지자료』에 ‘다둔니(多屯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다둔리(多屯里)’라 하였다.

[유래] 산언덕에 있는 마을이므로 ‘달(高, 山)+둔>달둔>다둔’이라 하였다.

[유래담] 일제강점기에 마을 뒷산에 금광이 세 군데 있었는데 광석을 지고 내려오는 지게꾼들이 금을 훔쳐 삼켜서 항상 뒗돈여치만 생산되므로 마을 이름을 ‘뒗돈’이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다둔’으로 변천되었다고 한다.

[내용] 일제강점기 금광이 있을 때는 마을이 70여호가 될 정도로 번성했으나 지금은 30여 가구가 있다. 옛날 웅기공장이 있었다.

[풀이] ‘다둔’은 옛말 ‘달(高, 山)’과 ‘둔(屯)’이 결합하여 ‘달+둔>달둔>다둔’으로 음운 변천한 것이다. ‘달’은 산의 뜻이며 ‘둔’은 언덕 또는 둔덕의 뜻

이다. 따라서 ‘달둔>다둔’은 산의 둔덕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산 중턱의 둔덕에 마을이 섰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금광 ‘닷둔’은 ‘다둔’과 발음이 유사하므로 덧붙여진 것이다. 금광이 있던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이미 마을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둔리 마을 ; 2019년」

다둔리서낭 [당]

[위치] 다둔리 마을 입구의 지당숲과 길 양옆에 서 있는 돌장승을 말한다.

[내용] 지당숲의 참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격년으로 음력 정월 보름에 당목과 장승에 당고사를 지냈다. 지당숲의 서낭은 하천 공사로 훼손되어 폐지되었다.



「다둔리서낭 ; 2019년」

닷둔 [마을] → 다둔리

대동(垈洞) [마을]

[위치] 한치 북쪽, 느릅재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

한다. 운계2리의 중심 마을이다. ‘대동(垈洞)’은 ‘터골’을 한자로 적은 것이다. 『조선지리지』에 ‘터췌(垈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대동(垈洞, 터골)’이라고 하였다.

대동성황당 [당]

[위치] 대동 터골(3)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당숲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매년 음력 정월 보름 이전에 택일하여 백운산성황신을 모시고 당고사를 지낸다.



「대동성황당 ; 2018년」

대밭골 [골]

[위치] 다둔리에서 동쪽으로, 644m 높이의 수리봉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대왕산(大王山) [산] → 미륵산

덜레바우골 [골]

[위치] 주막거리들에서 북쪽으로, 운계천을 따라 칠통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복원로가 지나가고 있다.

도장골 [골]

[위치] 느릅재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서낭당고개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404번 귀문로가 지나가고 있고 골짜기에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다.

[풀이] ‘도장’은 안방이라는 뜻이다. 규(閨), 합(閣)을 도장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도장골은 안방처럼 아늑한 골짜기에 붙는 지명이다.

도장골들 [들]

[위치] 도장골 골짜기를 따라 난 들을 말한다.

두꺼비골 [골] → 뒤기비

둔짓골 [골]

[위치] 매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둔짓들 [들]

[위치] 둔짓골 입구, 현 대동마을 북쪽, 설공지들 남쪽에 붙어 있는 들을 말한다.

뒤기비 [골]

[위치] 가막골 동쪽 유현천 건너, 공동묘지가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로 19번 충원대로가 지나가고 있다. ‘두꺼비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뒤기비’라 하였다.

[풀이] ‘두꺼비골 >뒤끼비골>뒤기비(골)’이 되었다.

뒷골(1) [골]

[위치] 다둔리 골말에서 북동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뒷골(2) [골]

[위치] 느릅재 마을 뒤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뒷골’이라 하였다.

뒷버덩 [마을]

[위치] 다둔리 마을 중 동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뒷버덩’이라 하였다.

망배재 [고개]

[위치] 뒷골(3)에서 중막골을 거쳐서 서쪽, 주포리 새터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340m이다.

메기수 [소] → 애기수

무수막골 [골]

[위치] 아홉사리 마을 남쪽 아래에서 서쪽 미륵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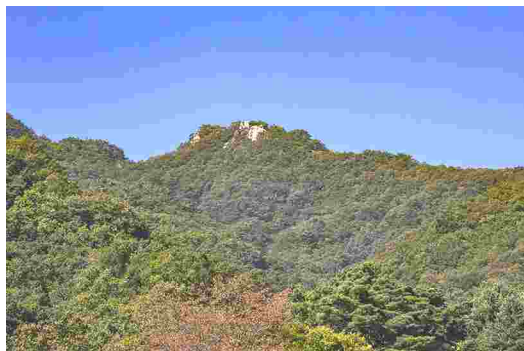
미륵산(彌勒山) [산]

[위치] 서낭당고개 남서쪽, 아홉사리 서쪽에 있는 높이가 695.5m의 산을 말한다. ‘용화산(龍華山)’, ‘대

왕산(大王山)’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미륵산(彌勒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정상 남쪽의 주봉(미륵봉)에 마애미륵불상이 있으므로 미륵산이라 하였다. 옛날에는 용화산이라고도 하였고 신라 말 경순왕이 왔다고 하여 대왕산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미륵산은 백운산의 지맥으로 독립된 산이다. 이 산에는 12개의 봉이 있고 그 12개 봉의 가장 크고 높은 봉이 676m의 주봉(미륵봉)으로, 그 주봉 암벽에 미륵불상이 새겨져 있다. 통상 주포리 미륵산으로 불리고 있으나 이는 주 등산로가 주포리에 있고 이 산의 다른 봉우리들이 주포리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상으로는 정상인 695.5m 봉우리는 주포리가 아닌 용암리와 귀래리, 운계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미륵산 ; 2019년」

민봉골 [골]

[위치] 대동 뒷골(1)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서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민봉골’이라 하였다.

바우백이 [골]

[위치] 칠통 옆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바우백기’라 하였다.

백련암산 [산]

[위치] 옷한치 서낭당들 서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범잡은골 [골]

[위치] 다둔리 마을 입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칠통저수지와 마을 중간에서 남쪽으로, 333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범잡은골’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이곳에서 범을 잡았으므로 범잡은골이라 하였다.

분이리(分二里) [마을] → 운계리

분토골 [골]

[위치] 대동 마을 동쪽, 수논골을 지나 북동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19번 충원대로가 지나가고 있다.

[유래] 골짜기 안에서 분토가 나므로 분토골이라고 하였다.

분토골 [마을]

[위치] 분토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분토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분토골(分土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분토골(분토동)’이라고 하였다.

분토동(粉土洞) [마을] → 분토골

사기막골 [골] → 사기바우골

사기바우골 [골]

[위치] 느릅재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사기막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사기바우골’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여기에서 사기를 구웠으므로 사기막골, 사기바우골이라 하였다.

산지당골 [골]

[위치] 대동 골매 중간에서 서쪽으로, 망배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삼태미마을 [마을] → 다둔리

[유래] 다둔리의 다른 이름이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마을의 모습이 삼태미처럼 보인다 하여 삼태미마을이라 부른다. 삼태미는 삼태기의 방언이다.

새논들 [들]

[위치] 까치락골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논들’이라 하였다.

[유래] 새로 논을 만들었으므로 새논들이라고 하였다.

새터고개 [고개]

[위치] 아홉사리에서 남쪽으로, 새터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미륵산길이 나 있다.

서낭고개 [고개] → 서낭당고개

서낭골 [골]

[위치] 웃한치 큰골 북쪽, 대동 텃골(1)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북원로 도로에서 서쪽으로, 높이 230.4m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민봉골 남쪽에 있다.

서낭당고개 [고개]

[위치] 아홉사리에서 북쪽의 웅골, 사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동쪽 운골산과 서쪽 미륵산의 중간에 있는 고개이다. 현 404번 귀문로가 지나고 있다. ‘서낭고개’, ‘아홉사리고개’라고도 한다.

[유래] 아홉사리 성황당이 있어서 ‘서낭고개’, ‘서낭당고개’라 하였고, 고개가 아홉구비나 될 만큼 많으므로 ‘아홉사리고개’라고도 하였다.

서낭당들 [들]

[위치] 서낭골과 웃한치 큰골의 동쪽 도로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북쪽으로 타진개들까지 유현천을 따라 난 들이다.

설공지들 [들]

[위치] 느릅재 마을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느릅재 마을과 둔지들 북쪽 사이에 붙어있는 들이다.

소개들 [들]

[위치] 대동 텃골(2) 마을 남동쪽 앞, 까치락골 서쪽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수논골 [골]

[위치] 대동 텃골(1) 마을 동쪽 건너편에서 북동쪽으로, 분토골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

간에 19번 충원대로가 지나가고 있다.

수논들 [들]

[위치] 수논골 입구에 있는 들이다. 물이 좋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논들’이라 하였다.

수리봉 [산]

[위치] 다둔리 동쪽, 운남리 인벌골 서쪽에 있는 높이 644m의 산을 말한다. 운계리와 운남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순지골 [골] → 순진골

순진골 [골]

[위치] 대동 텃골(2) 남쪽, 새논들에서 동쪽으로, 높이 25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까치락골 남쪽에 있다. ‘순지골’, ‘원집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원집골(五卜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순진골’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의 수확량이 원 집 정도 되므로 원집골이라 하였다. 소리가 비슷한 순진골, 순지골 등으로 실현되었다.

숯고개 [고개]

[위치] 칠통골 즈터에서 북서쪽으로 난 고갯길을 말한다. 고개 너머 숯타골을 지나 버덩마을과 사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운골산 북쪽, 운계터널 서쪽 산줄기에 있다. 높이는 470m이다.

원집골 [골] → 순진골

승지미골 [골]

[위치] 느릅재 마을 뒤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승지미골’이라 하였다.

십자봉 [산]

[위치] 백운산 남서쪽, 양아치 남동쪽에 있는 높이 983.2m의 산을 말한다. 백운산(1,014m)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솟아 있다. 강원도 원주시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과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큰양아치, 작은양아치는 이 산 서쪽 줄기에 있는 고개이다. 이 봉을 ‘백운산’이라고도 하고 ‘촉

새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원래 이름은 촉새봉으로, 이는 산이 매우 가파르고 정상이 뾰족하여 생긴 이름이다. 일제강점기에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촉새와 비슷한 십자매를 염두에 두고 십자봉으로 하였다고 전한다. 현재 십자봉으로 통용되지만 주민들은 촉새봉으로 부른다.

[내용] 백운산 줄기가 남서쪽으로 뻗다가 오두치에서 다시 남으로 방향을 바꾸어 950m 이상의 봉우리들로 산줄기를 이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이 십자봉이다. 북서쪽에는 천은사계곡이 있고 남쪽으로는 뒷산(745m)을 거쳐 뱃재고개가 있으며, 남서쪽으로 수리봉(644m), 백운산(666.7m)이 있고 다리골, 배골, 너더리 등 운남리의 큰 마을들이 있다.

아홉사리 [고개] → 서낭당고개

[위치] 느릅재에서 북서쪽으로 아홉사리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서낭당고개를 넘어, 귀래와 문막에 닿는다. 현 404번 귀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서낭고개’, ‘서낭당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아홉사리’라 하였다.

[유래] 고개가 아홉구비라고 해서 아홉사리라 하였다. 또는 아홉 가족이 살아서 아홉사리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사리’는 논이나 밭의 이랑이나 골(사래)을 뜻하기도 하고 실이나 새끼, 국수 등을 사리어 뭉친 것을 뜻하기도 한다. 두 경우 다 ‘길다’는 뜻이 들어있다. ‘아홉+사리>아홉사리’이며 또는 ‘아홉+살(<살다>+이(명사형성 접미사)>아홉살이>아홉사리’이다.

아홉사리 [마을]

[위치] 아홉사리 고개 남서쪽, 서낭당고개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구사동(九沙洞)’, ‘구사리(九沙里)’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구사리(九沙里)’라고 하였다. 『한

국지명총람』에 ‘아홉사리(구사동, 구사리)’라고 하였다.

아홉사리고개 [고개] → 아홉사리, 서낭당고개

아홉사리성황당 [당]

[위치] 서낭당고개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백운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 날에 당고사를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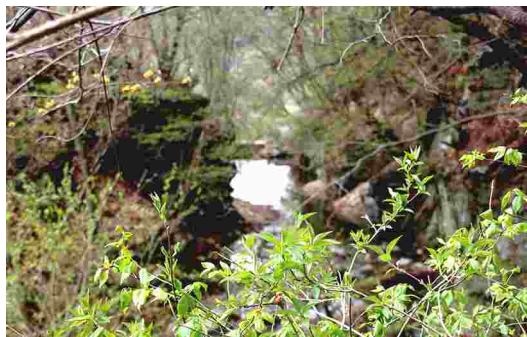
아홉사리약수 [샘]

[위치] 서낭당 고갯마루 남동쪽 아래 도로 옆에 있는 약수를 말한다. 현재 사용 중으로, 샘터가든 도로 맞은편에 있다. ‘구사약수’라고도 한다.

애기수 [소]

[위치] 다둔리 골말 북쪽, 유현천 바위 계곡에 있는 소를 말한다. ‘메기수’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메기수’라 하였다.

[내용] 옛날에는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풀릴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애기수 ; 2018년」

양지땀 [마을]

[위치] 다둔리 마을 중 서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물 [샘]

[위치] 아홉사리 약수터 남동쪽 맞은편 골짜기에 있던 약수를 말한다. 현 샘터가든 남쪽에 있던 샘이다.

[내용] 피부병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물이 말라

지금은 폐쇄되었다.

외둔지들 [들]

[위치] 대동 둔지들 동쪽 도로 아래, 유현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용화산(龍華山) [산] → 미륵산

운계천(雲溪川) [내]

[위치] 작은양아치와 십자봉 서쪽 계곡에서 시작하여 운계리 다둔, 칠통골, 느릅재, 대동을 지나며 남으로 흘러 너더리 앞에서 운남천과 합친 후 남서로 흐르면서 주포천, 용암천, 동막천, 사기막천을 차례로 합류하고 단강리 조귀농 앞에서 남한강에 합류하는 하천을 말한다. 유로연장 28.4km, 유역면적 73.2km²의 지방하천이다.

[유래] 운계리에서 발원하므로 운계천이라 하였다. 운계리 느릅재(유현)를 지나므로 ‘유현천’이라고도 하고, 주포리 황산골 앞을 지나므로 ‘황산천’, 부론면 단강리 앞을 지나므로 ‘단강천’이라고도 한다.

운골산 [산]

[위치] 운계리 북쪽에 있는 높이 413m의 산을 말한다. 서낭고개 동쪽, 칠통골 서쪽에 있다. 운계리와 귀래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 산 북쪽 아래에 있는 운골 마을에서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운골’과 발음이 비슷한 ‘운골’로 정착되었다.

웃말 [마을]

[위치] 느릅재 마을 중 도로 건너 서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말’이라고 하였다.

웃말들 [들]

[위치] 웃말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말들’이라 하였다.

유현(楡峴) [마을] → 느릅재

유현천(楡峴川) [내] → 운계천

[유래] 운계천(雲溪川)의 다른 이름이다. 너더리에

서 두 갈래로 갈라진 운계천의 물줄기 중 하나로
서, 십자봉 서쪽 뒷골에서 시작하여 다둔리, 느릅
재(유현)를 지나므로 유현천이라고 부른다.

작은골 [골]

[위치] 다둔리 뒷버덩에서 동쪽으로, 644m의 수
리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일제강점기 금광굴이 있던 골짜기이다. 굴
에 박쥐가 많이 살고 있다.

작은양아치 [고개]

[위치] 큰양아치 남쪽 아래에 있는 고개로 칠통골
북쪽에 있다. 고개에 충원대로의 운계터널이 나 있
고 고갯마루에 청원휴게소가 있다. 귀래리와 운계
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소치(小峙)’, ‘소양아
치’, ‘소양안치’라고도 한다. 높이는 약 300m이다.

점고개 [고개] → 즈고개

점말 [마을] → 즈터

점촌(店村) [마을] → 즈터

조산(造山) [산]

[위치] 다둔리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둔덕을 말
한다. 돌장승 동쪽에 있다.

[유래] 풍수지리상으로 마을에 산이 있으면 좋다
고 하여 흙을 쌓아 만들었으므로 ‘조산(造山)’이라
하였다.

주막거리들 [들]

[위치] 느릅재에서 북쪽으로, 유현천을 따라 난 들
을 말한다.

[유래] 옛날 주막이 있던 곳이므로 주막거리들이
라 하였다.

중막골 [골]

[위치] 텃골 둔지들에서 서쪽으로, 망배재를 향하
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즘고개 [고개]

[위치] 칠통에서 북동쪽, 양아치로 넘어가는 고개
를 말한다. 큰양아치 남쪽, 현 북원으로 옆 덕영례

미콘이 있는 고개이다. 고개 높이는 약 260m이다.

즘터 [마을]

[위치] 칠통골 즈고개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덕
영례미콘이 있는 곳이다. ‘점말’, ‘점촌’이라고도 한
다. 『한국지명총람』에 ‘점말(점촌)’이라 하였다.

[유래] 웅기를 굽던 곳이므로 점말, 점촌, 즈터(<점
터)라고 하였다.

지논들 [들]

[위치] 아홉사리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
국지명총람』에 ‘지논들’이라 하였다.

지당 [당]

[위치] 다둔리 마을 입구에 있는 당숲의 당을 말
한다. 오래 된 참나무를 당목으로 삼았다.

[내용] 옛날에는 2~3년에 한 번씩 소를 잡아 ‘지
당굿’을 하였다고 한다. 격년으로 음력 정월 보름
에 성향당굿을 하다가 지금은 폐지되고 장승만 남
아있다.

지당숲 [숲]

[위치] 다둔리 마을 입구, 현 돌장승이 있는 곳에
서 남쪽 개울에 있는 당숲을 말한다. 하천 공사로
많이 훼손되었다.

진태거리골 [골]

[위치] 다둔리 남쪽, 채변골 맞은편에서 남동쪽으
로 542.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범잡은골 동쪽에 있다.

채변골 [골]

[위치] 다둔리 범잡은골 앞에서 북동쪽으로, 양지
땀으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골짜기를 따라 들이 형성되어 있다.

축새봉 [산] → 십자봉

치마골 [골]

[위치] 다둔리 골말에서 뒷골을 지나 북동쪽, 높이
600.8m 시루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일
제강점기에 금광굴이 있던 곳이다.

칠통(七通) [마을]

[위치] 다둔리 서쪽, 운골산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19번 도로 서쪽, 옛 국도인 북원로 동쪽 아래에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칠통골(七通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칠통(칠통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해방 전까지 칠기를 생산했으므로 칠통이라 하였다고 한다. 옹기도 구웠다고 한다.



「칠통 마을 ; 2019년」

칠통골 [골]

[위치] 칠통 마을에서 북쪽으로, 작은양아치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북원로와 19번 충원대로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칠통골저수지 [못]

[위치] 칠통 마을 남쪽 앞, 유현천 옆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현 19번 충원대로 운계교차로 서쪽에 바로 붙어있다. 1979년에 준공하였다.



「칠통골저수지 ; 2019년」

큰골(1) [골]

[위치] 아홉사리 남쪽 새터고개 북쪽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미륵산을 향하여 난 길고 험한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2) [골]

[위치] 웃한치 북쪽, 서낭당들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백련암산 남쪽에 있다.

큰골 [마을]

[위치] 새터고개 북쪽 아래, 큰골(1)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큰골’이라 하였다.

터진개들 [들]

[위치] 대동 마을에서 남쪽으로, 유현천을 따라 난 들을 말한다. 소개들과 새논들 서쪽 내 건너에 있는 들이다.

텃골(1) [마을] → 대동 [마을]

텃골(2) [마을]

[위치] 대동 마을 동쪽 유현천 건너 까치락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뒤로 19번 충원대로가 지나고 있다.

텃골(3) [마을]

[위치] 대동 마을 서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중막골과 매골 입구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앞에 성황당이 있다.

텃골저수지 [못]

[위치] 텃골 둔지들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텃골못’이라 하였다.

텃골주막 [주막]

[위치] 텃골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터골두막(垆洞酒幕)’이라고 하였다.

운남리(雲南里)

[위치]

운남리는 귀래면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십자봉에서 뱃재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경계로 하여 충북 제천시 백운면, 서쪽으로는 운계리, 남쪽으로는 옥녀봉·갈기봉·갈미봉 줄기를 경계로 충주시 엄정면, 북쪽으로는 귀래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귀래면(貴來面)의 지역으로서 둘째 마을이란 뜻으로 이리(二里)라고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한치·법동·판교·이동·교동·인벌동을 병합하여 운남리(雲南里)라 하여 원주군 귀래면 운남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귀래면 운남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귀래면 운남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함에 따라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가 되었다.

[유래]

백운산(白雲山) 남쪽이라고 하여 운남리라 하였다.

가치락골 [골] → 까치락골

가치랏골 [골] → 까치락골

간무봉 [산] → 갈미봉

갈기봉 [산]

[위치] 녹재 남쪽, 갈미봉 동쪽에 있는 550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능선 동쪽에 녹재고개가 있고 산 남쪽에는 충주시 엄정면 소림 마을이 있다.

갈모봉 [산] → 갈미봉

갈미봉 [산]

[위치] 운암동 남쪽 등치맥이골 끝에 있는 59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동쪽에 갈기봉과 녹재고개가 있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유봉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갈모봉’, ‘모봉’, ‘간무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갓모산(帽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갈미봉(간무봉, 갈모봉, 모봉)’이라고 하였다.

[유래] 산봉우리가 칼같이 뾰족하므로 갈미봉, 갈모봉이라고 하였다. 또는 봉우리가 갈모처럼 생겨서 갈모봉, 갈미봉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갈+미+봉>갈미봉’이 되었다. ‘갈’은 칼(刀)의 옛말이고 ‘미’는 산을 뜻하는 고어 ‘뫼>메>미’, ‘봉(峰)’은 산을 뜻한다. 따라서 ‘칼같이 뾰족한 산’이란 뜻이다. 한편 ‘갈미’를 ‘갈모, 갓모’로 보아 ‘갈대 또는 칩으로 만든 갓처럼 생긴 산’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산의 형상이 칼같이 뾰족하므로 이때 ‘갈’은 칼(刀)의 뜻이다.



「갈미봉」; 2018년

갓모산 [산] → 갈미봉

거북바우 [바위]

[위치] 용암말 범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골짜기 정상 부근에 범바우, 용바우, 족두리바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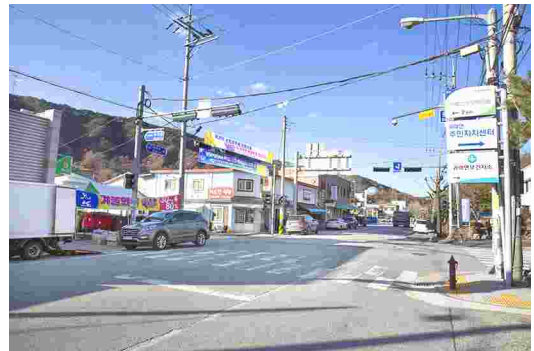
건너말 [마을]

[위치] 다리골 마을 중 남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교동(橋洞) [마을] → 다리골

귀래장터 [장]

[위치] 너더리에 있는 귀래면소재지의 장터를 말한다.



「귀래장터」; 2019년

깊은다리골 [골]

[위치] 다리골 건너말에서 남서쪽으로, 녹재고개에 이르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현 531번 내창로가 지나가고 있다.

까치락골 [골]

[위치] 배골 마을 서쪽 아래에서 북쪽으로, 409.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운계리 까치락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가치락골(可治樂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치랏골’이라 하였다.

너더리 [마을]

[위치] 귀래면의 중심이 되는 마을을 말한다. 귀래초등학교와 귀래중학교, 행정복지센터 등이 있는

면소재지이다. 이를 한자로 ‘판교(板橋)’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판터(板堡)’, ‘판교(板橋)’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판교(너더리)’라 하였다.

[유래] 넓은 들이 있으므로 ‘너다리·너더리’라 하였다.

[유래담] 경순왕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앞내에 널판으로 다리를 놓았으므로 ‘널다리>너다리>너더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풀이] ‘너더리’는 전국에 널리 분포된 지명이다. ‘너’는 ‘너르다·넙다’에서 나온 말이며 ‘다리·더리’는 ‘들>들’이므로 ‘너더리’는 넓은 들이란 뜻이다. 이곳의 다른 지명 ‘너더리들·넬터버덩(板坪)’은 이 지명이 곧 ‘넓은 터’, ‘넓은 들’이란 것을 뜻한다.

널판(板)은 넓게 켜 나무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형용사 ‘너르다’의 어간이 명사로 전성된 말이다. ‘너르다·넙다·넙뻘지·(넙래를)넙다’의 공통어근 ‘넙-’은 ‘면적이 큰’의 뜻으로 ‘널다리·넙뛰기·넙무덤’ 등으로 쓰인다.

대개 ‘너더리’의 ‘더리’를 ‘다리’로 보아 ‘교(橋)’라 하는데, 여기에서 ‘더리’는 ‘들’을 뜻하는 옛말 ‘덜’에서 파생된 ‘달, 들’이 음운 변화한 것이다. ‘넙+달>넙달>넙달(이)>넙다리>너다리>너더리’로 변천하였다. 즉 ‘너더리’는 이곳이 운남천과 운계천이 합류하는 곳으로 들이 넓게 형성된 곳이므로 ‘넓은 들’의 뜻으로 생긴 지명이다. 이곳 지명을 『조선지리지』에 ‘판터(板堡)’라고 한 것은 바로 터가 넓다는 원래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지정면 판대리의 ‘판대(判臺, 板臺)’도 같은 이치로, ‘넓은 터’를 뜻한다.

한편, 단구동 청구아파트 앞의 옛 지명 ‘너더리’는 ‘더리’를 사다리로 해석하여 ‘널(판자)+사다리>판제(板梯)’라 하였다. 판부면(板富面)은 이 판제(板梯)와 부흥사면(富興寺面)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지명이다.

‘너다리·너더리’에 경순왕의 전설이 결부되면서

‘다리·더리’를 ‘다리(橋)’로 보아 ‘널판으로 놓은 다리’로 해석하였고, 이를 한자로 적어 판교(板橋)라고도 하였다.



「너더리 마을 : 2019년」

너더리들 [들]

[위치] 무네미 남쪽, 너더리 마을을 중심으로 한 넓은 들을 말한다. 대부분이 현 면소재지 주택지 및 도로에 편입되었다. ‘넬터버덩’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넬터버덩(板坪)’이라고 하였다.

너더리주막 [주막]

[위치] 너더리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너더리주막(板橋酒幕)’이라 하였다.

넬터버덩 [들] → 너더리들

녹재 [마을]

[위치] 운암동 남쪽, 다리골천 건너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운남저수지 남서쪽 아래에 있다.

녹재고개 [고개]

[위치] 녹재에서 남쪽으로, 충북 엄정면 소림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갈기봉 동쪽 능선에 있는 고개이다. 다리골 남쪽 깊은다리골에서도 이 고개로 연결되는데 그 길로는 현 531번 내창로가 지나가고 있다. 고개 높이는 450m이다.

녹재말골 [골]

[위치] 녹재에서 남쪽으로 갈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높은보골 [골]

[위치] 법동에서 동쪽으로, 569.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너푼 법골(高法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높은보골’이라 하였다. 마을 성황당이 있다.

다리골 [마을]

[위치] 운남저수지 동쪽 위, 뱃재 고개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에 ‘뒷말’과 ‘건너말’이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교동(橋洞)’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다리솔(橋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교동(다리골)’이라 하였다.

[유래] 앞 내에 다리가 있었으므로 다리골이라 하였다. 또는 옛날 강릉의 안씨가 다래냉쿨을 걷고 이곳에 정착하였으므로 ‘다래골>다리골’이라 하였고 다고도 한다.

다리골광산 [광산]

[위치] 다리골 마을 뒤에 있던 옛 금광을 말한다.

다리골천 [내] → 운남천

[유래] 운남천의 다른 이름이다. 뒷산과 백운산 사이의 큰골 물과 뱃재 고개의 물이 서쪽으로 흘러 운남저수지로 들어간다. 다리골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다리골천이라 불렀다.

담안 [마을]

[위치] 새터말 동쪽에 있던 작은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담안’이라 하였다.

도장골 [골]

[위치] 운남저수지에서 북쪽으로, 높이 666.7m의 백운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옛날에 백회를 캐던 곳이다. 『조선지리지』에 ‘회골(檜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도장골’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가 산으로 둘러싸여 안방처럼 아늑하므로 도장골이라 하였다.

[풀이] ‘도장’은 안방이라는 뜻이다. 규(閨)·합(閤)을 도장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도장골 [마을]

[위치] 운남저수지 북쪽, 도장골 골짜기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동근광산 [광산]

[위치] 배골 마을 뒤에 있던 옛 금광을 말한다.

뒷골 [골]

[위치] 배골 마을에서 북쪽으로, 433.1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뒷말 [마을]

[위치] 다리골 마을 중 북쪽 산 아래, 큰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뒷산 [산]

[위치] 다리골 마을 북동쪽, 큰골의 동쪽 끝에 있는 높이 745m의 산을 말한다. 십자봉 능선 중 뱃재산 남쪽, 뱃재고개 북쪽에 있다. 운남리와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등치맥이골 [골]

[위치] 운암동에서 남쪽 내 건너 남쪽으로, 갈미봉에 이르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매봉 [산] → 수리봉

머리골 [마을]

[위치] 운남저수지 위 도장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모래재 [마을]

[위치] 아래한치 남쪽, 귀래초등학교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귀래복지회관이 있는 마을이다.

모래재들 [들]

[위치] 모래재 마을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귀래초등학교 서쪽 윤계천 건너에 있는 들이다.

모봉(帽峰) [산] → 갈미봉

무네미 [마을]

[위치] 너더리 북쪽, 용암말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수유(水踰)’라고 하였다. 『조선

지지자료』에 ‘무네미(水隄)’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무네미(수유)’라 하였다.

[유래] 배골에서 물이 넘어온다고 하여 무네미라 하였다. 원주 전역에 분포하는 ‘손님 많은 부잣집’ 설화가 전하고 있다.

[전설] 옛날 이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손님이 그치지 않으므로 탁발하러 온 노승에게 비법을 물으니 그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 허리를 끊어라.’고 하므로, 그 말대로 하였다. 그날부터 손님은 오지 않게 되었으나, 그 후 그 집이 망해버렸다고 한다.

[풀이] 물이 넘어왔으므로 ‘물(水)+넘(隄)+이>물넘이>물너미>무너미>무네미’가 되었다. ‘이’는 명사형성 접미사이다.

무네미들 [들]

[위치] 무네미 마을 남쪽에서 너더리까지 이어진 운남천 옆의 넓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무네미들’이라 하였다.

방앗간들 [들]

[위치] 운계천과 운남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남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귀래초등학교 남쪽, 한배미들 서쪽에 있는 들로, 충청북도와의 경계에 이르는 넓은 들이다.

배골 [마을]

[위치] 너더리 북동쪽, 운남저수지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배동’, ‘이동(梨洞)’, ‘이리(梨里)’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비골(梨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배동(백골, 이동)’이라고 하였다.

[유래] 배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배골, 배동이라 하였다. 또는 신라 말에 덕주공주가 이곳에서 경순왕이 있는 주포리를 보고 절(배례:拜禮)을 하었다고 하여 뱃재, 배골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배골들 [들]

[위치] 배골 마을 앞 다리골천(운남천)에 있는 들

을 말한다.

배나무골산 [산]

[위치] 옻한치 남서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배동 [마을] → 배골

배재 [고개] → 뱃재

백운산(白雲山) [산]

[위치] 십자봉 남서쪽, 수리봉 남동쪽에 있는 높이 667m의 산을 말한다. 동쪽에는 뒗산이 있고 서쪽 아래는 인벌골이 있다.

[내용] 원래의 1,087m의 백운산은 원주시 판부면과 충북 제천시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서 그 줄기가 오두치, 십자봉, 운남리 갈미봉으로 이어진다. 이곳 백운산은 십자봉 줄기로서 인벌골과 도장골 위에 있는 산이다. 이 지역에서는 백운산 줄기의 봉우리들을 대체로 백운산으로 인식하여 동일한 산 이름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뱃재 [고개]

[위치] 배골에서 동쪽으로 운남저수지와 다리골을 지나 충북 제천시 백운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십자봉(983.2m)에서 뱃재산(970m)과 뒗산(745m)을 거쳐 남쪽으로 뻗은 능선에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가 되는 고개로, 현 화당로가 지나고 있다. 높이는 약 490m이다. ‘배재’, ‘배재’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비지(梨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배재’라 하였다.

[유래] ‘배’는 ‘뽕’에서 파생된 것으로 ‘크고 높은, 신성한’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재·뱃재’는 높은 산의 고개를 뜻한다.

[유래담] 신라 경순왕이 귀래로 올 때 이곳에서 내려 고향을 향하여 절을 했다 해서 ‘배재>뱃재’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경순왕이 황산사에 있을 때, 월악산에 있던 덕주공주가 이곳에서 절을 했다고 하여 ‘배재>뱃재’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전국에 배와 관련된 고개나 산은 많다. 치악산에도 ‘배너미’가 있고 ‘배무덤’도 있다. 그리

고 유래로는 대체로 배가 넘어왔다거나 배나무가 많은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배와 관련된 지명은 높고 험한 산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어원상 ‘크고 높은, 밝고 신성한’을 의미하는 옛말 ‘뽕’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뽕>박’은 ‘박혁거세·박달재·박석고개·박치기’ 등에 남아있고 ‘백(白)·적(赤)’ 계통의 산 이름을 낳았다. 따라서 ‘뽕재’는 ‘크고 높은 산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뽕재 [산]

[위치] 십자봉 능선의 남쪽에 있는 높이 970m의 산을 말한다. 인벌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범바우 [바위]

[위치] 용암말 북쪽, 범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범바우’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 범이 자주 나타났으므로 범바우라 하였다.

범바우골 [골]

[위치] 용암말에서 북동쪽으로, 323.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범바우골’이라 하였다.

[유래] 범바우가 있으므로 범바우골이라 하였다. 골짜기에 큰 바위들이 많아 각각 형상에 따라 용바우, 범바우, 거북바우, 족두리바우 등으로 불린다.

법골 [마을] → 법동

법동(法洞) [마을]

[위치] 너더리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서쪽 앞으로 19번 충원대교가 지나가고 있다. ‘법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법동(法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법동(법골)’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이곳에 법흥사라는 절이 있었으므로 법동이라 하였다.



「법동 마을 ; 2019년」

법동광산 [광산]

[위치] 법동 마을 뒤에 있던 옛 금광을 말한다.

법동산신당 [당]

[위치] 법동저수지 남쪽 기슭에 있는 산신당을 말한다. 산신당 서쪽 옆으로 충원대교가 지난다.

[내용] 백운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고사를 지낸다.

법동성황당 [당]

[위치] 높은보골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매년 음력 9월 8일에 당고사를 지낸다.

법동저수지 [못]

[위치] 법동 마을 남서쪽 입구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서쪽 아래의 한배미들에 물을 댄다. 저수지 서쪽 옆으로 충원대교가 지나가고 있다.



「법동저수지 ; 2019년」

새말들 [들]

[위치] 너더리 남쪽, 새말저수지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가운데로 19번 충원대로가 지나가고 있다.

새말저수지 [못]

[위치] 새말들 동쪽 위, 애막골 서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새말들에 물을 댄다.



「새말저수지 ; 2018년」

새터말 [마을]

[위치] 너더리 동쪽 운남천 건너에 새로 생긴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 뒤로 19번 충원대로가 지나가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시말(新村)’, ‘시터(新垆)’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새터말’이라 하였다.

성말 [마을]

[위치] 너더리 남동쪽, 새터말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성말’이라 하였다.

성말들 [들]

[위치] 성말 마을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소림골 [골]

[위치] 다리골 마을에서 동쪽 뱃재 고개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화당로가 지나가고 있다.

수리봉 [산]

[위치] 운남저수지 북쪽 인벌골을 지나 큰골 서쪽에 있는 높이 644m의 산을 말한다. ‘매봉’이라고도 한다. 운남리와 운계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담] 임진왜란 때 김철이란 장군이 훈련된 매를 가지고 수백 명의 왜군을 무찔렀다고 한다. 결

국 매도 죽고 말았는데 그 매의 방울을 산에 매달아놓고 냇을 기렸다고 한다. 지금도 바람이 불면 딸랑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수유(水籬) [마을] → 무네미

십자봉 [산]

[위치] 백운산 남서쪽, 양아치 남동쪽에 있는 높이 983.2m의 산을 말한다. 백운산(1,087m)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있는 산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서쪽 덕가산과의 사이에 ‘큰양아치’가 있다. 이 봉을 ‘백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촉새봉’으로 부르기도 한다.

[유래] 원래 이름은 촉새봉으로, 이는 산이 매우 가파르고 정상이 뾰족하여 생긴 이름이다. 일제강점기에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촉새와 비슷한 십자매를 염두에 두고 십자봉으로 하였다고 전한다. 주민들은 촉새봉으로 부르지만 십자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내용] 백운산 줄기가 남서쪽으로 뻗다가 오두치에서 다시 남으로 방향을 바꾸어 950m 이상의 봉우리들로 산줄기를 이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이 십자봉이다. 북서쪽에 천은사계곡이 있고 남쪽으로 뒷산(745m)을 거쳐 뱃재가 있으며, 남서쪽으로 수리봉(644m), 백운산(666.7m)이 있다.

아래한치 [마을]

[위치] 한치 마을 중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귀래중학교 북서쪽, 귀래공원 서쪽 운계천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래한치’라 하였다.

애막골 [골]

[위치] 새말저수지에서 동쪽으로, 갈미봉 능선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애막골 [마을]

[위치] 애막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영산바우 [바위]

[위치] 너더리 앞 운계천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운남천과 운계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강변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영산바우’라 하였다.



「영산바우 ; 2018년」

오촌이고개 [고개] → 외촌재

옥녀봉(玉女峰) [산]

[위치] 뱃재 남서쪽, 녹재고개 동쪽에 있는 717m의 산을 말한다. 운남리와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충주시 엄정면 유봉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외촌(外村) [마을]

[위치] 법동 남쪽, 충주시와 경계에 있는 외촌골의 마을을 말한다. 외촌천을 가운데에 두고 마을은 충북과 강원도로 나뉘어져 있다. 『조선지리지』에 ‘외촌(外村)’이라고 하였다.

외촌고개 [고개] → 외촌재

외촌골 [골]

[위치] 너더리 방앗간들에서 남동쪽으로, 외촌천을 따라 외촌재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외촌 마을이 늘어서 있다.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경계를 이루는 골짜기이다.

외촌성황당 [당]

[위치] 외촌 남동쪽 산길 입구의 소나무 당숲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내용] 백운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9월 9일에 당제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강원도 외촌과 충북 외촌 주민들이 함께 당제사를 지내다가 지금은 강원

도 주민들만 지내고 있다.



「외촌성황당 ; 2018년」

외촌재 [고개]

[위치] 외촌에서 남동쪽 외촌골을 지나, 충북 충주시 엄정면 원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원곡리 외촌골이 있다. 높이는 360m이다. ‘외촌고개’, ‘오촌이고개’라고도 한다.

외촌천(外村川) [내]

[위치] 갈미봉 남서쪽 아래 외촌이고개에서 북서쪽으로 흘러 방앗간들 남쪽에서 운계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가 되는 내이다.

용마산(龍馬山) [산]

[위치] 현 귀래중학교 자리에 있던 산을 말한다.

[전설] 날개 달린 말을 용마라 하는데 현재 귀래중학교 자리를 용마산이라 불렀다. ①용마산 옆 황무지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 많은 것을 매우 귀찮아하였다. ②스님에게 처방을 물었더니 산 중턱을 끊어 수로를 내고 물을 끌어와 황무지를 논으로 만들면 된다고 하였다. ③산허리를 끊어서 수로를 내니 용마가 잔등이 잘려 ④그 집은 망하게 되었고 손님도 끊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부잣집이 망한 자리에 학교가 들어서고 산 중간 허리로 가는 길이 났다. 길 밑에 있는 샘에서 나오는 진흙물은 바로 용마의 땀물이다. 그냥 두었으면 용마가 나왔을 것이라 하였다.

용바우 [바위]

[위치] 범바우골 정상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이 바위에서 용암말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

[유래] 바위 위에 바위가 얹혀 있는 모습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므로 용바우라 하였다.

용암말 [마을]

[위치] 무네미 북쪽, 한치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 뒤로 19번 충원대교가 지나가고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용바우(龍岩)’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용암말’이라 하였다.

[유래] 범바우골에 용바우가 있으므로 마을 이름을 용암말이라 하였다.



「용암말 마을 : 2019년」

용암말들 [들]

[위치] 용암말 서쪽, 운계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서쪽 건너편에 한치들이 있다.

용암말저수지 [못]

[위치] 용암말 남동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운남천(雲南川) [내]

[위치] 십자봉 줄기인 백운산과 수리봉, 뒷산의 물줄기가 합하여 운남저수지에 머물렀다가 서쪽으로 흐르며 배골과 법동을 지나 귀래초등학교 앞에서 운계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다리골천’이라고도 한다.

운암동 [마을]

[위치] 운남저수지 서쪽 아래, 배골 동쪽 위에 있

는 마을을 말한다.

웃한치 [마을]

[위치] 한치 마을 중 북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대동 남쪽, 용암말 북서쪽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웃한치’라 하였다.



「웃한치 마을 : 2019년」

은행나무골 [골]

[위치] 배골들에서 남동쪽으로, 갈미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이동(梨洞) [마을] → 배골

이리(梨里) [마을] → 배골

이리(二里) [마을] → 운남리

인버력골 [골] [마을] → 인벌, 인벌골

인벌(仁伐) [마을]

[위치] 십자봉 남서쪽, 수리봉 북동쪽 아래 인벌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인버력골’, ‘인벌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인벌동(仁伐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인벌(인버력골, 인벌동)’이라 하였다.

인벌골 [골]

[위치] 운남저수지에서 북쪽으로, 십자봉과 뱃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인벌 마을이 있다. ‘인벌동’, ‘인버력골’, ‘큰골’이라고도 한다.

인벌동(仁伐洞) [마을] → 인벌

인벌천(仁伐川) [내]

[위치] 십자봉에서 남서쪽으로, 수리봉과 뱃재 사이의 인벌골을 거쳐 운남저수지에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작은다리골 [골]

[위치] 다리골 건너말에서 깊은다리골과 갈라져 남동쪽 633.1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깊은다리골 동쪽에 있다. 동쪽 너머에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비디재가 있다.

족두리바우 [바위]

[위치] 용암말 범바우골 범바우 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족두리처럼 생겼으므로 족두리바우라 하였다.

지당골 [골]

[위치] 인벌에서 북서쪽으로, 628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집바우 [바위]

[위치] 배골 마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집바우’라 하였다.

[유래] 모양이 집처럼 생겼으므로 집바우라 하였다.

촉새봉 [산] → 십자봉

큰골(1) [골]

[위치] 다리골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백운산과 뒷산 사이 능선으로 뻗은 큰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큰골(大谷)’이라고 하였다.

큰골(2) [골] → 인벌골

[위치] 인벌골의 다른 이름이다. 또는 인벌골 중 인벌 마을 남쪽, 수리봉 남동쪽, 백운산 서쪽 사이의 골짜기를 따로 큰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큰골(3) [골]

[위치] 웃한치 백련암산과 배나무골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판교(板橋) [마을] → 너더리

평동(平洞) [마을]

[위치] 한배미들과 방앗간들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평동(平洞)’이라 하였다.

한배미들 [들]

[위치] 법동 서쪽, 방앗간들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법동저수지의 물을 댈다. 『한국지명총람』에 ‘한배미들’이라 하였다.

[유래] 큰 논배미가 있으므로 한배미들이라 하였다. ‘한+배미+들>한배미들’이 되었다.

한치(寒峙) [마을]

[위치] 용암말 서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한치’와 ‘아래한치’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한치(寒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한치(寒峙)’라 하였다.

[유래] 큰 고개가 있으므로 한치라 하였다.

[풀이] ‘한+치>한치’인데 ‘한’은 크다는 의미이고 ‘치’는 고개이다. 이를 음차하여 한자로 ‘한치(寒峙)’라 하였다. 큰 고개라는 뜻이다.

한치들 [들]

[위치] 한치 서쪽 윤계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한치들’이라 하였다.

회골(檜谷) [골] → 도장골

주포리(周浦里)

[위치]

주포리는 귀래면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운남리, 서쪽으로는 용암리, 남쪽으로는 운계천을 경계로 하여 충북 충주시 소태면, 북쪽으로는 운계리와 접하고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듀포(周浦)’라고 하였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귀래면(貴來面)의 지역으로 초일리(初一里)에서 갈린 마을이라 하여 분일리(分一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은개·황산동·절안·신대(新垔)를 병합하여 주포리(周浦里)라 하여 원주군 귀래면 주포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귀래면 주포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귀래면 주포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함에 따라 원주시 귀래면 주포리가 되었다.

간요골(間--) [골]

[위치] 요골(1)과 요골(2)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요골(1)과 요골(2) 사이에 있으므로 간요골이라고 하였다.

감로수(甘露水) [샘]

[위치] 옛 황산사터에 있는 샘을 말한다.

경순왕 경천묘(敬順王 敬天廟) [당]

[위치] 새터 남동쪽, 더덕작골 입구에 있는 사당을 말한다.

[유래]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재위 927~935)의 영정을 모신 영정각이다. 경순왕은 신라를 고려 왕건에게 넘기고, 용화산(미륵산)으로 들어와 학수사(鶴樹寺)와 고자암(高自庵)을 세웠다고 한다. 경순왕이 죽자 한 화승이 그린 경순왕의 영정을 고자암에 모시고 제사를 지낸 것이 영정각의 발단이 되었다. 조선 영조 13년(1737)에 이르러 전각을 새로 짓고 경천묘(敬天廟)라 하였다 한다.

매년 음력 9월 9일 경순왕 추향대제가 열리는데 원주시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원주시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하였다.



「경순왕 경천묘 : 2015년」

고자암(高自庵) [절]

[위치] 경순왕이 미륵산 미륵불 아래에 지었다고 하는 암자를 말한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고

잠 마을 지명으로 보아 마애미륵불상 아래, 황산사터 부근으로 추정된다.

고잠 [마을]

[위치] 새터 동남쪽, 더덕작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경순왕 경천묘가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고잠’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 위에 고자암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고자암>고잠’이 되었다.

고잠골 [골]

[위치] 고잠 마을 더덕작골 상류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고잠골’이라 하였다.

고지랑골 [골]

[위치] 능유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돼지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붓당골과 횃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기차바우 [바위]

[위치] 점말 밑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기차 화통처럼 생겼으므로 기차바우라 하였다.

능너머 [마을] → 능유

능너메 [마을] → 능유

능유(陵踰) [마을]

[위치] 은포 북서쪽, 용돈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능너머’, ‘능너메’, ‘능유동’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능유동’이라 하였다.

[유래] 능너머에 있다고 해서 ‘능너머’, ‘능너메’라 하였는데 지금은 이를 한자로 적어 ‘능유(陵踰)’라 부른다.

능유동(陵踰洞) [마을] → 능유

능유들 [들]

[위치] 능유 마을 남쪽, 은포 앞까지 운계천을 따라 난 긴 들을 말한다.

능유서낭 [당]

[위치] 능유 마을 북서쪽 용돈골 위, 용돈 마을 입구에 있는 서당을 말한다.

[내용] 길옆의 소나무와 참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자연석 제단을 마련하여 해마다 음력 정월 14일에 당고사를 지낸다. 당목에는 금줄을 치고 실타래의 헌납속이 둘러쳐져 있다.

대왕산(大王山) [산] → 운계리 미륵산

더덕작골 [골]

[위치] 새터 마을 남쪽 아래 고장에서 북서쪽으로, 주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골 안에 옛 황산사터, 삼층석탑, 마애미륵불이 있다.

도래(桃來) [마을]

[위치] 황산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중간말 남쪽 아래, 안말 동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래’라 하였다.

[유래담] 산모퉁이를 돌 때마다 복사꽃이 피어 있으므로 도래(桃來)라 하였다.



「도래 마을 : 2019년」

돌박다리 [마을] → 수박다리

돼지봉 [산]

[위치] 황산동 아랫말 북서쪽, 용돈 동쪽에 있는 높이 333m의 산을 말한다.

망배재 [고개]

[위치] 새터 마을에서 동쪽으로, 운계리 느릅재(유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340m이다.

문고개 [고개]

[위치] 황산 웃말에서 북쪽 절안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문고개’라 하였다.

[유래] 고개 양쪽에 있는 언덕이 마치 문처럼 생겼으므로 문고개라 하였다.

미륵봉(彌勒峰) [산] → 주봉

미륵사(彌勒寺) [절] → 황산사터

미륵사 삼층석탑 [탑] → 주포리 삼층석탑

미륵산(彌勒山) [산] → 운계리 미륵산

미륵산 마애불상(彌勒山 磨崖佛像) [불상]

[위치] 미륵산 주봉에 있는 마애미륵불상을 말한다.

[유래담] 이 미륵불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머물면서 새겼다고도 하고 덕주공주가 아버지인 경순왕의 형상을 새겼다고도 한다. 또는 어느 석공이 큰 홍수가 났을 때 배를 타고 와서 조각을 하다가 물이 빠져 미쳐 다 완성하지 못하였다고도 한다. 상부가 뚜렷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하부로 내려올수록 조각이 흐릿한 것은 물이 일찍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용] 이 마애불상은 미륵산 주봉 20여m의 높은 암벽에 음각과 양각으로 조각되어 있다. 불상은 화사하게 장식된 연꽃받침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네모진 얼굴에 눈·코·입·귀 등을 크고 토속적으로 묘사하였다. 낮은 육계(肉髻)에 소발머리, 통견(通肩)의 법의(法衣) 등을 얹게 음각한 점, 머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네모진 체구, 치졸한 팔이나 손의 형태, 얼굴에 집중하고 하체는 소홀하여 간략화 한 점 등은 토속적이면서도 도식화된 고려 석불의 지방화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미륵불상은 대체로 고려 초기 경순왕이 머물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얼굴에 비해서 하체로 내려올수록 조각이 간략화되고 소홀한 점은 고려 초·중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양식상의 이유로 물이 빨리 빠져 석공이 완공하지 못했다는 전설이 생겼다.



「미륵산 마애불상 : 2019년」

미륵코 [불상]

[위치] 미륵산 마애미륵불상의 코를 말한다.

[내용] 속설에 바위에 인형(人形)이 새겨져 있는데 특히 코가 튀어 나왔다고 하였다. 이 인형의 코를 만지면 누구든지 소원성취가 되고 특히 자손 없는 사람이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소문에 코를 만져보려고 멀리서도 찾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깎아지른 바위에 새겨진 그것을 아무도 만져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미륵산 미륵불상의 코를 두고 하는 말이다.

봇들 [들]

[위치] 황산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봇들’이라 하였다.

봇들보 [보]

[위치] 황산 앞에 있는 운계천의 보(湫)를 말한다. 봇들로 물을 댈다. 충청북도와 경계선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봇들보’라 하였다.

분일리(分一里) [마을] → 주포리

봇당골 [골]

[위치] 능유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돼지봉 북쪽 능선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지랑골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곡(寺谷) [마을] → 절안

삼사골 [골]

[위치] 능유들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다. 능유와 은포 아랫비녕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현재 골 입구에 통나무집 요양원이 있다.

새미기 [골]

[위치] 안말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돼지봉 동쪽, 치마바우골 서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끝에서 소리목골이 이어진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미기’라 하였다.

[유래] 새를 잡으러 다니던 골짜기이므로 새미기라 하였다.

새터 [마을]

[위치] 아홉사리 남쪽, 절안 북쪽에 있는 황산골의 마을을 말한다. 새터고개 남쪽 아래, 주봉 동쪽 아래에 있다. ‘신대(新垆)’, ‘신대동(新垆洞)’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터(신대, 신대동)’라고 하였다.

[내용] 마을 서쪽 계곡에 옛 황산사터 및 마애미륵불상이 있다.

새터고개 [고개]

[위치] 새터 마을에서 북쪽 아홉사리를 향하여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소리개고개 [고개]

[위치] 능유에서 서쪽으로 소리개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주포리와 용암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로, 현재 531번 부귀로가 지나가고 있다. 고개 높이는 160m이다. ‘할딱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소리기(松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소리개고개’라고 하였다.

소리목골 [골]

[위치] 새미기 위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이어져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소리목골’이라 하였다.

수박다리 [마을]

[위치] 황산 웃말 북쪽, 절안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돌박다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박다리’라 하였다.

[유래] 산이 내려오면서 수박덩굴처럼 되어 있고, 수박 같은 호박들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박다리 마을 ; 2019년」

수박다리고개 [고개]

[위치] 안말에서 수박다리로 가던 고갯길을 말한다. 지금은 숲이 우거져 오솔길이 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박다리고개’라 하였다.

수박다리들 [들]

[위치] 수박다리 마을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박다리들’이라 하였다.

순다무골 [골]

[위치] 황산동 아랫말 서쪽, 현 느티나무가 있는 곳에서 북서쪽으로, 돼지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 금광굴이 있다. ‘순담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순담골’이라 하였다.

[유래] 무덤처럼 돌을 모아놓은 곳이 신 군데 정도 되었으므로 ‘신다무골>순다무골’이라 하였다.

[풀이] ‘신다무골>순다무골>순담골’로 변했다. ‘다무’는 ‘무덤’, 또는 ‘서령’을 말한다.

순담골 [골] → 순다무골

신대(新垓) [마을] → 새터

신대동(新垓洞) [마을] → 새터

신선봉(神仙峰) [산]

[위치] 미륵산 남쪽 능선에 있는 높이 650m의 봉우리를 말한다. 봉의 북쪽에 장군봉과 미륵봉이 있

고 남쪽에 치마바우봉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선봉’이라 하였다.

[유래담] 신선들이 내려와 놀던 곳이므로 신선봉이라 하였다고 한다.

씹골 [골]

[위치] 황산 아랫말 남서쪽, 은포 북동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웃비녕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아랫말 [마을]

[위치] 황산 마을 중 가장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마을회관 서쪽, 순다무골 입구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비녕 [산]

[위치] 은포 서쪽, 도로 모퉁이에 있는 바위산을 말한다.

[내용] 큰 바위 산줄기였으나 도로가 나면서 바위 일부만 남아있다. 마을 북쪽에는 ‘웃비녕’이 있다.

[풀이] ‘비냥·비녕’은 ‘벼랑’의 방언이다.

안말 [마을]

[위치] 황산골 입구의 서쪽, 현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말’이라 하였다.

앞들 [들]

[위치] 황산동 아랫말 남쪽, 531번 도로 부귀로와 운계천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앞들보 [보]

[위치] 황산동 앞들에 있는 운계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앞들보’라 하였다.

요골(1) [골]

[위치] 황산골 아랫말 동쪽, 운계천에서 북쪽으로, 266.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요골(2) [골]

[위치] 주포리의 동쪽 끝, 외촌천이 운계천에 합류하는 곳의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요골(1)과 요골(2) 사이에 간요골이 있다.

용돈 [마을]

[위치] 능유 마을 북서쪽 용돈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용돈’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용돈’이라 하였다.

[유래] 용바우골로 가는 언덕에 있는 마을이므로 용돈이라고 하였다. ‘돈’은 ‘둔’과 마찬가지로 언덕·둔덕을 의미한다.

용돈골 [골]

[위치] 능유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용돈을 지나 용암리 신촌으로 연결된 골짜기이다.

용둔(龍屯) [마을] → 용돈

용장원(龍壯院) [마을]

[위치] 주포리에 있다고 하는 마을 이름이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용장원(龍壯院)’이라고 하였다.

운계천(雲溪川) [내] → 운계리 운계천

웃말 [마을]

[위치] 황산 마을 중 가장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처마밭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말’이라 하였다.

웃비녕 [산]

[위치] 은포 북쪽, 운계천 옆 도로변에 있는 바위벼랑을 말한다. 마을 서쪽에 ‘아랫비녕’이 있다.

[풀이] ‘비냥·비녕’은 ‘벼랑’의 방언이다.



「웃비녕 ; 2019년」

은개 [마을] → 은포

은개고개 [고개]

[위치] 은포에서 서쪽으로, 능유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신작로가 나기 전, 은포에서 능유로 산을 넘던 고갯길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은갯고개’라 하였다.

은개성황당 [당]

[위치] 은개고개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은터 [마을] → 은포

은포 [마을]

[위치] 황산골 남서쪽, 능유 남동쪽, 운계천 옆에 있는 마을로, ‘은개’, ‘은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은포동(은개)’이라 하였다.

[유래] 바위벼랑으로 둘러싸인 물가에 마을이 있으므로 ‘영개>은개·은포’라 하였다. ‘영’은 ‘벼랑’의 방언이다.

[풀이] 웃비녕과 아랫비녕으로 둘러싸인 산 앞, 운계천 옆에 마을이 있으므로 ‘영개>은개·은포’라 하였다. ‘개’는 물가에 있으므로 붙여진 지명으로 이를 한자로 ‘포(浦)’라 하였으나 ‘은’의 한자어는 전하지 않는다. 바위벼랑의 방언 ‘영’과 물가를 뜻하는 ‘개’가 결합하여 ‘영+개>영개>은개·은포’가 되었다. 지금은 은포로 정착되는 과정에 있다.



「은포 마을 ; 2019년」

은포들 [들]

[위치] 은포 마을 앞, 운계천 옆에 있는 들이다.

장군봉(將軍峰) [산]

[위치] 미륵산 주봉(미륵봉)과 신선봉 사이에 있는 670m 높이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장악골 [골]

[위치] 절안 북쪽, 고잠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악골’이라 하였다.

장악들 [들]

[위치] 장악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절골 [골]

[위치] 절안 마을 앞에서 북서쪽으로, 미륵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골짜기 안에 옛 학수사 절터가 있다.

절골 [마을] → 절안

절골들 [들]

[위치] 절골 앞에 있는 주포천의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절솔들(寺谷坪)’이라고 하였다.

절안 [마을]

[위치] 황산골 북쪽, 새터 마을 남쪽, 절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절골’, ‘절터’라고도 하고 이를 한자로 적어 ‘사곡(寺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절터(寺堡)’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절안(절골, 사곡)’이라 하였다.

[유래] 옛 학수사가 있던 마을이므로 절안이라 하였다. 기와와 옹기를 굽던 곳으로 토질이 좋다고 한다.

절터 [마을] → 절안

절터 [터]

[위치] 절골에 있는 옛 학수사 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절터’라 하였다.

[내용] 옛 학수사가 있던 절터로, 주초석 등이 남아있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 말 경순왕이 이 절에서 18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

정수암(淨水庵)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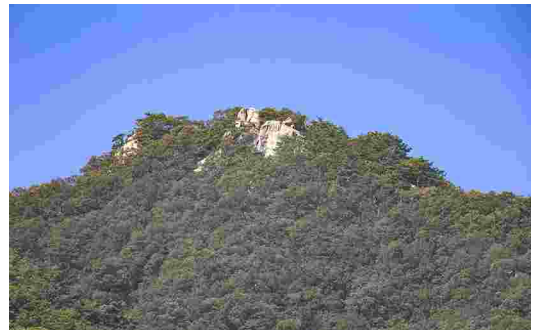
[위치] 옛 황산사 위쪽에 있던 암자를 말한다. 현

재 위치는 알 수 없다.

[내용] 우담 정시한(1625~1707)의 『산중일기』에 여기를 두 번 방문한 것으로 나온다. ‘암자가 있는 곳은 깊숙하고 한적하였으며 돌샘은 달고 차가웠다.’라고 하였다.

주봉(主峰) [산]

[위치] 미륵산 능선 중 마애미륵불상이 있는 높이 676m의 봉우리를 말한다. 산 동쪽 아래 계곡에 황산사터와 삼층석탑이 있다. 산 서쪽 용암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마애미륵불상이 있으므로 ‘미륵봉’이라고도 한다.



「미륵산 주봉 : 2019년」

주포리 삼층석탑 [탑]

[위치] 옛 황산사터에 있는 삼층석탑을 말한다.

[내용]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22호이다. 삼층석탑은 경내에 흩어진 석탑부재들을 모아 다시 세운 것으로, 기단은 없어지고 3층의 탑신부만 있다. 양식상 고려 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포리 삼층석탑 : 2017년」

주포천(周浦川) [내]

[위치] 미륵산 남동쪽에서 발원하여 아홉사리, 새터, 절안 등의 마을이 있는 황산골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황산동 마을 입구에서 운계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유래] 주포리를 관통하므로 마을 이름을 따라 주포천이라 하였다.

중간말 [마을]

[위치] 황산 마을 중 중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치마밭골 [골] → 치마바우골

철모바우 [바위] → 치마바우봉

치마바우골 [골]

[위치] 황산골 중간말과 웃말 사이에서 내 건너편 북서쪽으로, 멀리 치마바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내용] 골 안에 현 황룡사가 있다.

치마바우봉 [산]

[위치] 신선봉 남쪽에 있는 높이 640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철모바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치마바우’라 하였다.

[유래] 모양이 치마처럼 생긴 바위 봉이므로 ‘치마바우’, ‘치마바우봉’이라 하였다. 밑에서 보면 철모처럼 보이므로 ‘철모바우’라고도 한다.

큰고개밭들 [들]

[위치] 새터 마을에서 북쪽으로, 새터고개에 이르는 골짜기의 들을 말한다.

학수사터(鶴樹寺-) [터] → 절터

[위치] 절골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내용] 경순왕이 용화산(현 미륵산)에 고자암(高自庵)과 함께 지었다고 전한다.

할딱고개 [고개] → 소리개고개

[위치] 소리개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현 도로가 나기 전에는 운계천 옆으로 산줄기를 휘돌아 이 고개를 넘었는데 고개가 험해 모

두 내려서 버스를 밀고 올라가 힘이 들었으므로 할딱고개라 하였다.

해탈교 [다리]

[위치] 더덕작골 안, 옛 황산사터 입구에 있는 돌다리를 말한다.

황산(黃山) [마을]

[위치] 미륵산 남서쪽, 황산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말’, ‘중간말’, ‘아랫말’, ‘안말’이 있다. ‘황산골’, ‘황산곡’, ‘황산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황산골(黃山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황산동’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 안에 옛 황산사가 있었으므로 골짜기와 더불어 마을 이름도 ‘황산’, ‘황산골’이라고 하였다.



‘황산 마을 ; 2019년

황산곡(黃山谷) [골] → 황산골

황산골 [골]

[위치] 운계천 주포교에서 북쪽으로 서낭당고개까지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이를 한자로 ‘황산곡(黃山谷)’이라 하였다.

[유래] 미륵산 아래에 황산사(黃山寺)라는 절이 있으므로 황산골이라 하였다.

황산골 [마을] → 황산

황산동(黃山洞) [마을] → 황산

황산사 부도밭 [터]

[위치] 황산사터 입구 승탑이 있는 곳을 말한다. 황

산사에 딸린 부도밭으로, 종형(鐘形) 승탑 2기가 서 있다. 탑의 양식상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황산사 부도밭 ; 2018년」

황산사터(黃山寺-) [터]

[위치] 새터 마을 아래 더덕작골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미륵산 주봉으로 가는 중턱에 있다. '미륵사터'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여지도서』에 '8칸으로 고을 남쪽 50리 미륵산에 있다. 경순왕의 영당(影堂)으로 지금도 소상(塑像)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기록이 없어 절의 창건 시기와 폐사 시기는 알 수 없다. 전하는 말로는 신라 경애왕(924~926년 사이) 때 창건되었다고 하며 조선 연산군대에 이르러 폐사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황산사(皇山寺)'로 쓰다가 임금을 뜻하는 '황(皇)'자를 쓰지 못하게 하여 '황산사(黃山寺)'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절터에 삼층석탑이 남아있고 절터 입구에 부도밭이 있으며 북서쪽 주봉에 마애불이 조각되어 있다. 경순왕이 이곳에 온 이후로 이 산을 '대왕산(大王山)'이라고 했다고 하며 '귀래(貴來)'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연유한 것 등으로 보아 황산사는 고려 초기 신라 왕실과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마애불은 고려 초기~중기, 삼층석탑은 고려 중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부도 2기는 종형(鐘形)으로 조선시대의 것이다. 절터의 규모나 부도, 석탑, 근래에 발견된 동경(銅鏡)이나 불상 등의 유물로 미루어

그 규모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황산성황당 [당]

[위치] 황산 마을 앞 부귀로 남쪽, 운계천 독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유래] 일제강점기에도 당제를 지냈다. 한국전쟁 이후 20~30년 중단되면서 마을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는데 신령으로 보이는 나그네의 계시로 다시 당집을 짓고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고사를 지낸다.



「황산성황당 ; 2018년」

황산천(黃山川) [내] → 운계리 운계천

[유래] 운계천이 황산골 앞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황산천이라 하였다.

횃골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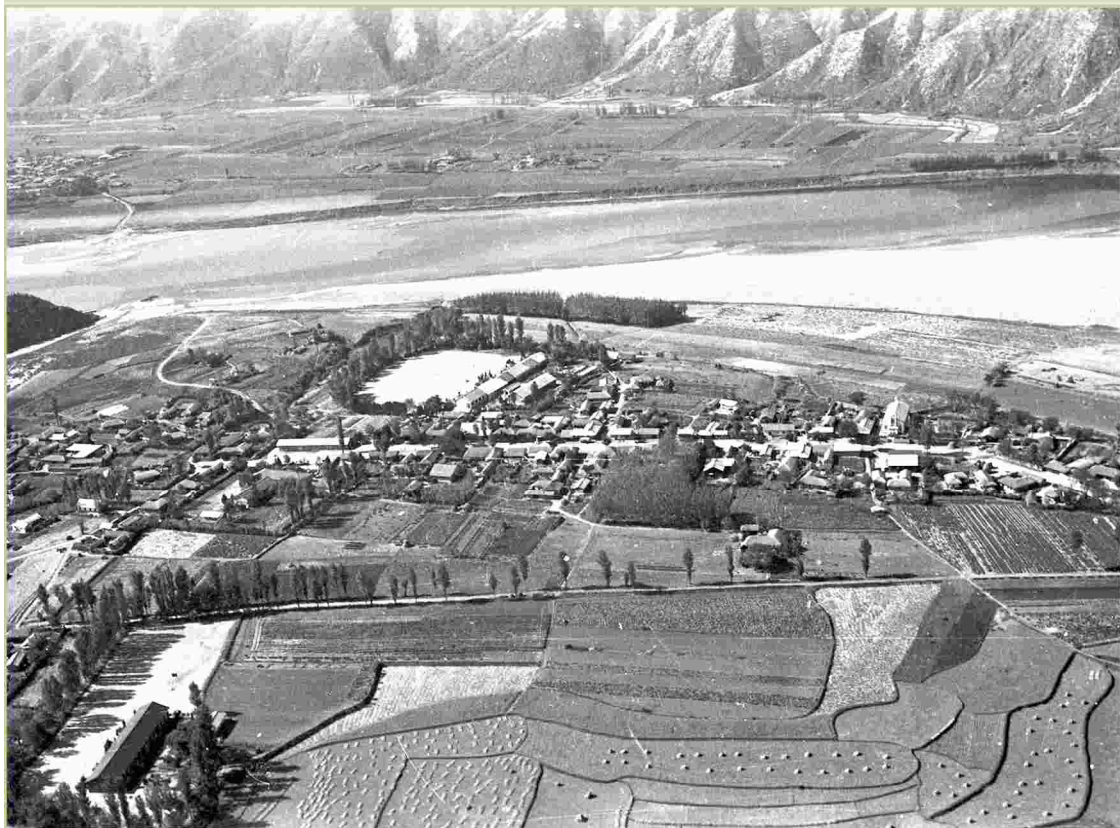
[위치] 능유 마을 동쪽에서 북동쪽으로, 돼지붕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삼사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흔들바위 [바위]

[위치] 미륵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우담 정시한(1625~1707)의 『산중일기』에 나오는 바위이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제5편

부론면(富論面) 지명(地名)



부론면 소재지 ; 1972년

[위치]

부론면은 원주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원주시청에서 약 34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상봉산·쌀개봉·봉림산·육리봉 산줄기를 경계로 귀래면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섬강과 남한강을 경계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충북 충주시 양성면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남한강을 경계로 충주시 소태면과, 북쪽으로는 문막읍과 접하고 있다.

[연혁]

부론면은 1760년대 『여지도서』에 부론면(富論面)으로 나온 이후 지금까지 이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부론면은 남쪽 60리에 있으며, 1리·분1리·2리·3리·4리·5리·6리·7리의 여덟 리가 있었다.

1914년 지방행정 개편에 따라 노림(7리)·단강(1리, 분1리)·법천(2리~4리)·손곡(5리)·정산(2리, 분1리)·흥호(6리) 여섯 리로 편성하여 관할하였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부론면이 되었다. 1965년 단강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原州郡)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부론면이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함에 따라 원주시(原州市) 부론면이 되었다.

면소재지는 남한강 수상교통의 요지였던 흥원창(흥호리)에 있었으나, 1936년 대홍수로 주민들이 법천리로 이주함에 따라 1950년 3월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유래]

벌(들)에 논이 있으므로 ‘벌논(불논, 불논)’이라 하였는데, 음운 변천하여 ‘부론’이 되었다. 남한강을 중심으로 넓은 들에 논농사를 짓던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부론’은 ‘불(~벌)+논>불논>불론>부론’으로 음운 변천한 것이다.

지금의 ‘들’을 뜻하는 고대국어의 ‘벌(坪·野)’은 ‘화(火), 벌(伐), 불(弗)’로 표기하였는데 그 소리는 ‘벌~불~불, 버루~보루~부루’이다. 즉 ‘벌~불~불’은 같은 소리로서 ‘벌(들)’을 뜻하였다. 귀론(歸論), 거론(巨論), 일론(日論)처럼 논(畝)은 ‘론(論)’으로 표기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벌논들(伐論坪)’이라고 한 것은 벌(들)에 논이 있어서 생긴 원래의 이름 ‘벌논’의 소리를 그대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부론’은 ‘벌논~불논~불논’으로 발음되다가 음운 변천하여 ‘불론>부론’으로 정착된 것으로, 넓은 들에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론면사무소 ; 1980년

부론면사무소 준공식 ; 1988년





부론면 단강출장소 낙성식 ; 1972년

부론면 소재지 ; 1978년





부론면 복지회관 준공식 ; 1992년

노림리 전기점화식 ; 1970년





노림리 노림초등학교 앞 도로 ; 1988년

노림리 노림초등학교 ; 1988년





단강1리 새마을복지회관 준공식 ; 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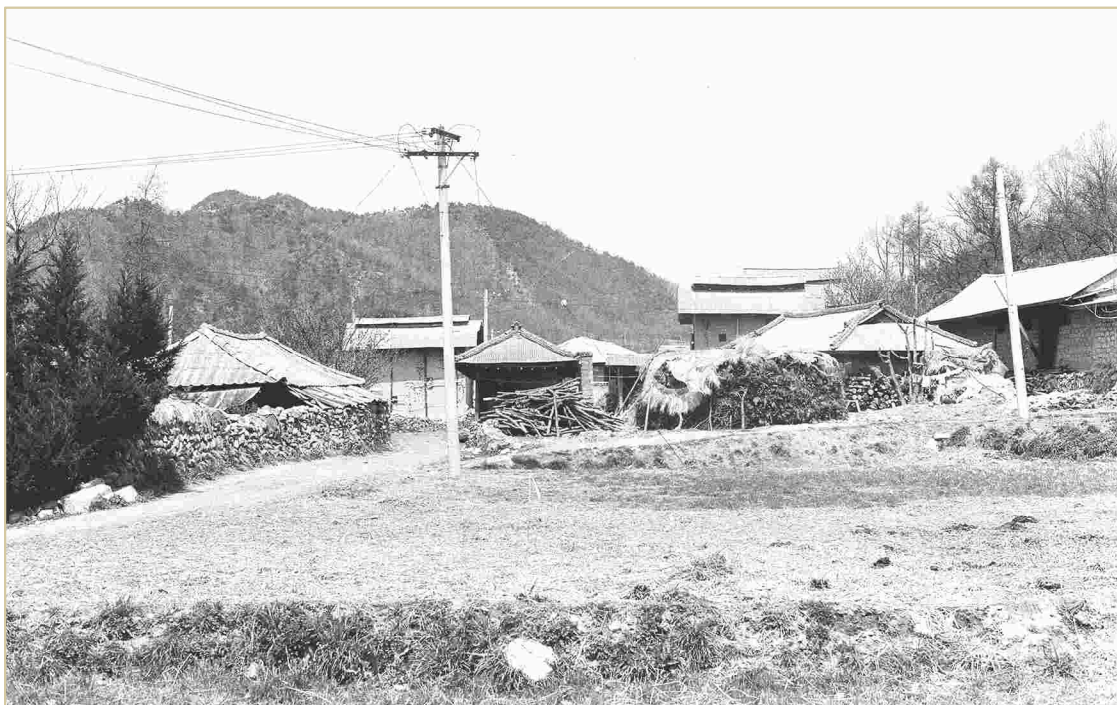
단강리 세포 마을 ; 1983년





법천리 법천사지 ; 196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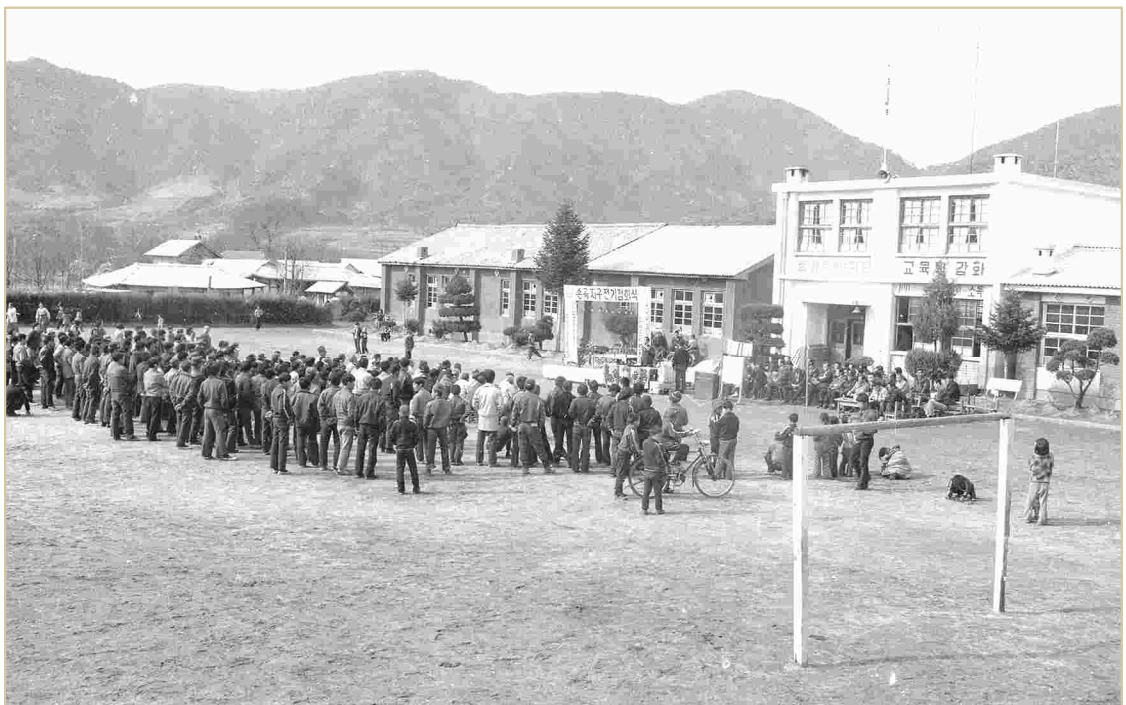
법천리 서원 마을 ; 1970년





손곡리 도로개통식 ; 196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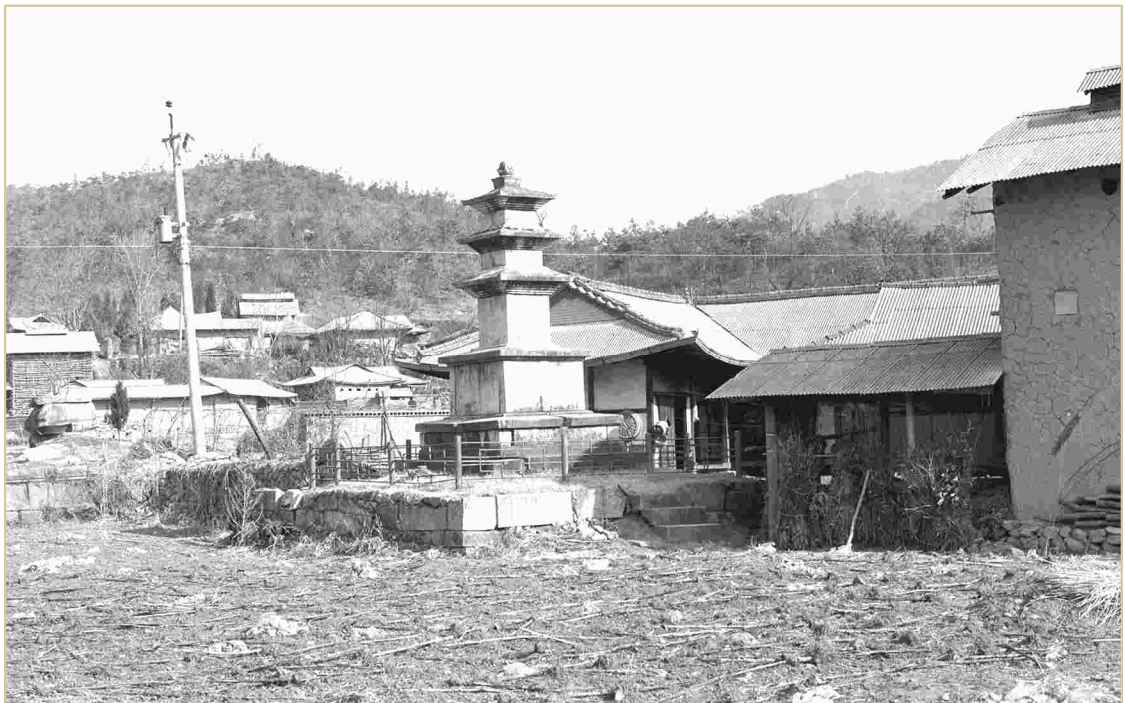
손곡리 전기점화식 ; 197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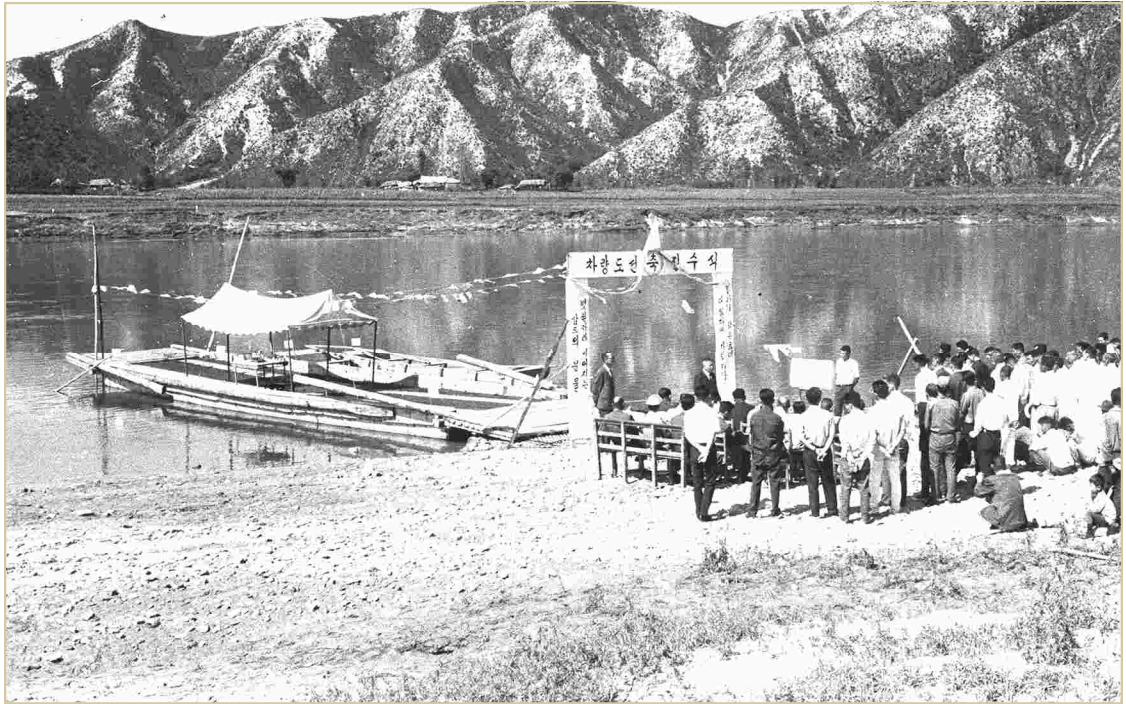




손곡3리 새마을회관 ; 1978년

정산리 거돈사지 ; 1974년





남한강 차량도선 진수식 ; 1972년

부론면 소재지 ; 2015년



노림리(魯林里)

[위치]

노림리는 부론면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문막읍 후용리, 서쪽으로는 섬강을 경계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남쪽으로는 흥호리와 손곡리, 북쪽으로는 문막읍 대둔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부론면(富論面) 지역으로 칠리(七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갈현·광명대·모산·율계·장남·월암을 병합하여 노림리(魯林里)라고 하여 원주군 부론면 노림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부론면 노림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부론면 노림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함에 따라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가 되었다.

[유래]

느티나무 숲이 우거져 있으므로 ‘느섭>노섭,노숲’, 또는 ‘숲말’이라 하였고 이를 한자로 노림(魯林)이라고 하였다. 한백겸이 노국에서 가져다 심었다고 하는 느티나무는 한때 노림리 일대에 울창한 숲을 이루었는데 한국전쟁 이후 토지개량과 도로확장 등으로 모두 남벌되어 현재는 몇 그루만이 남아있다. 청주(淸州) 한씨(韓氏)의 문중 마을로 실학파 한백겸(韓百謙) 형제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가루개 [고개]

[위치]가루개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섬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삼방골을 지나 섬강에 닿는다. 강 건너에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부도(釜島·가마섬) 마을이 있다. 고개 높이는 150m이다. ‘가루고개’, ‘가루개고개’, ‘삼방골고개’, ‘갈현(葛峴)’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삼방골고기(三坊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루개(가루고개, 갈현)’라 하였다.

[유래] 고갯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므로 가루개, 삼방골고개라고 하였다. 세 갈래 길은 고개 북서쪽으로 섬강으로 내려가는 길, 남동쪽으로 가루개로 내려가는 길,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산 능선을 따라 장남, 밤개, 노썰음으로 가는 길이다.

[풀이] ‘가루’는 ‘가르다(分)’에서 온 것으로 갈래를 뜻한다. ‘가루’는 ‘가라·가래·가리·거리·가야’ 등으로 나타나며 ‘개·갈·걸’로도 나타난다. 여기에서 ‘개’는 고개(峙, 峴)를 뜻하므로 ‘가루(<가르>+개>가루개’가 되었다.

가루개 [마을]

[위치]형제저수지 남서쪽, 흥호리 새말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서쪽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갈현동(葛峴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갈오기(葛峴)’라고 하였다.

[유래]가루개 고개 밑에 있으므로 마을 이름도 가루개라 하였다.



「가루개 마을 ; 2019년」

가루개고개 [고개] → 가루개

가루개내 [내]

[위치]가루개고개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흘러, 무상골을 거치고 가루개 앞에서 흥호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가루고개 [고개] → 가루개

갈오기 [마을] → 가루개

갈현(葛峴) [고개] → 가루개

[풀이] ‘가루개’에서 ‘가루’를 음차하여 소리를 따라 ‘갈(葛)’을 취하고 ‘개’는 ‘고개’로 해석하여 ‘현(峴)’으로 뜻을 적었다.

갈현동(葛峴洞) [마을] → 가루개

경경산 [산] → 긴경산

경정산(敬亭山) [산] → 긴경산

골광명터 [골]

[위치]광명터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해가 떠서 질 때까지 온종일 해가 들므로 골광명터라 하였다.

굽돌광산 [광산]

[위치]가루개 마을 서쪽 산 너머에 있던 광산을 말한다. 쌀굽돌과 보리굽돌을 채석하였다.

광명대(光明臺) [마을] → 광명터

광명터 [마을]

[위치]노썰 남동쪽 위, 광명터저수지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광명대’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광명터(光明臺)’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광명터(광명대光明臺)’라 하였다.

[유래]아침 해가 제일 먼저 드는 곳이므로 광명터라 하였다. 또는 예전에 마을 터를 잡고 불을 밝혔다하여 광명터라 하였다고도 한다.

광명터저수지 [못]

[위치]광명터 마을 남쪽 위, 긴경산 북쪽 아래 황수골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황수골저수지라고도 한다. 1970년에 준공하였다.

[유래] 광명터 마을 위에 있으므로 광명터저수지라고 하였다.



「광명터저수지 ; 2019년」

광명터천 [내]

[위치] 긴경산에서 북쪽으로, 황수골과 광명터를 지나서 노숲 앞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긴경산 [산]

[위치] 노숲 광명터 남동쪽에 있는 높이 352.9m의 산을 말한다. 백운산의 줄기로 노림리, 손곡리, 흥호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경경산’, ‘경정산’, ‘청룡봉’이라고도 한다. 『조선환여승람』에 서쪽으로 40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경정산(敬亭山)’이라고 하였다.

낙타봉 [산]

[위치] 광명터저수지 동쪽, 덕고개 서쪽에 있는 높이 203.5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유래] 멀리서 보면 산 모습이 마치 낙타와 같으므로 낙타봉이라 하였다.

노림(魯林) [마을] → 노숲

노림리고인돌 [유적]

[위치] 노숲 마을 옛 노림초등학교 앞,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고인돌을 말한다.

[내용] 도로 한가운데에 수령 약 250년의 느티나무 두 그루 아래에 있다. 원래 3기가 있었으나 2기는 학교 안으로 옮겨 땅속에 묻혔다고 한다. 덮개돌 위에 20개의 성혈이 파여져 있다.



「노림리고인돌 ; 2019년」

노림리서낭 [당]

[위치] 노숲 마을 도로 한가운데와 옛 노림초등학교 앞 도로 옆에 있는 느티나무들을 말한다.

[내용] 도로 한가운데에 고인돌과 함께 있는 두 그루와 학교 앞 두 그루가 마을의 당산목이다. 수령은 약 250년이다.



「노림리서낭 ; 2019년」

노림리숲말서낭 [당]

[위치] 노숲 마을 안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노림리 마을 안, 숲말에 있는 느티나무로 수령 약 300년이다. 마을의 당산목이다.

노림리유적지 [유적]

[위치] 노림리 고인돌 부근 동쪽 밭에 있는 유적지를 말한다.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노림분교 [학교] → 부론초등학교 노림분교

노림진(魯林津) [나루]

[위치] 노숲 앞 섬강가에 있던 나루터를 말한다.

‘노습나들이’라고도 한다.

[내용] 노림과 북쪽 문막읍 대둔리를 오가던 나루였다. 농선(農船) 1척이 있었다고 한다. 대둔리 사람들은 이를 ‘노습나들이’라고 하였다.

노림팔경(魯林八景) [유적]

[위치] 노림리에 있는 경관 좋은 8군데를 말한다.

[내용] 월암야우(月巖夜雨), 장곡초가(長谷樵歌), 문호추월(文湖秋月), 적담귀범(荻潭歸帆), 남도어적(藍島漁笛), 단산석조(丹山夕照), 청사낙상(淸沙落上), 경정귀운(敬亭歸雲)을 말한다. 한赫수(韓赫秀)의 선문편(善文篇)에 각각의 시(詩)가 있다.

노습나들이 [나루] → 노림진

노습 [마을]

[위치] 노림리의 중심 마을로 모산고개 남서쪽, 광명터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노습’, ‘노림’, ‘습말’, ‘숲말’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노습(魯林)’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노림리(노림, 노습, 습말)’라 하였다.

[유래] 옛날 노나라에서 나무를 옮겨 심은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었으므로 노습이라 불렀다 한다. 지금은 몇 그루만이 남아있다. 이곳에 청동기시대 유적인 고인돌이 있고, 주변에서 민무늬토기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풀이] 원래 이곳은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던 곳이다. 느티나무숲이 우거진 마을이므로 ‘느섭>노섭, 노습, 노습’이 되었다.



「노습 마을 : 2019년」

노하동(蘆下洞) [마을]

[위치] 모산 북서쪽 아래 강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섬강 변에 있던 마을로 영동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노하동’이라 하였다.

노하동들 [들]

[위치] 노하동 앞에 있던 섬강 변의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노하동들’이라 하였다.

능골 [골]

[위치] 장남저수지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다라미 [마을] [바위] → 월암

다래미 [마을] [바위] → 월암

다래미들 [들]

[위치] 월암 마을 동쪽 아래의 들을 말한다. ‘월암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월암들(月岩坪)’이라고 하였다.

달바우 [바위] → 월암

달암 [마을] → 월암

덕고개 [고개] → 박수고개

[위치] 광명터 남동쪽 덕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박수고개’라고도 한다. 높이는 185m이다. 『조선지리지』에 ‘덕고기(德谷峴)’라고 하였다.

[유래] 노림리 덕골에 있으므로 노림리에서는 ‘덕고개’, 고개 너머에 손곡리 박수골이 있으므로 손곡리에서는 ‘박수고개’라고 부른다.

덕고개산 [산]

[위치] 광명터 남동쪽, 덕고개 남쪽에 있는 높이 209.5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덕고기산(德谷山)’이라고 하였다.

덕골 [골]

[위치] 광명터에서 남동쪽으로 덕고개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에서 동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위에 부문재(후용고개)가 있다.

땀띠물 [샘]

[위치] 노췌 새말 길옆의 논 가운데에 있던 샘을 말한다.

[유래] 목욕을 하면 땀띠가 잘 스러지므로 땀띠물이라 하였다.

마근가래골 [골]

[위치] 광명터에서 남동쪽으로, 부문재 남쪽에 있는 270.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덕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만개래골’이라고도 한다.

마근가래들 [들]

[위치] 마근가래골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만개래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막근가리들(麻根坪)’이라고 하였다.

만개래골 [골] → 마근가래골

만개래들 [들] → 마근가래들

망탁골 [골]

[위치] 우두골 북쪽 산 너머, 섬강 변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남한강 해적들이 올라와 마을을 털고 간 후 마을이 없어졌다고 한다.

모산(茅山) [마을]

[위치] 노췌 동쪽, 모산고개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경동대학교 남쪽 고개 아래에 있다. ‘못안’, ‘모산(慕山)’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모산(茅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모산(茅山, 못안)’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마을 앞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못의 안쪽이므로 ‘못+안>못안>모산’이라 하였다. 또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손곡리에 유배와 있을 때 매일같이 산에 올라 개성을 향해 울며 세월을 보냈는데 개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래던 산이어서 모산(慕山)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마을에 큰 연못이 있어 연못의 안쪽이므로

‘못+안>못안>모산’이 되었다. 고대 국어는 개음절이었기 때문에 ‘못’이 연음되어 ‘모산’이 되었다. 한자로 ‘모(茅)’, 또는 ‘모(慕)’로 달리 나타난 것은 뜻과 관계없이 음차하여 소리를 적었기 때문이다.



「모산 마을 ; 2019년」

모산고개 [고개]

[위치] 모산 마을 북동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문막읍과 부론면의 경계가 되는 고개로 현 49번 전횡로가 나 있다. 고개 높이는 100m이다. 한자로 ‘모현(茅峴)’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모산고개’라 하였다.

[내용] 강원감영에서 흥원창을 거쳐 한양으로 가던 옛길이다. 고개 북쪽 아래 안산골에서 모산고개에 이르기까지 경동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서 있고, 고갯마루에는 경찰전적비가 서 있다.



「모산고개 ; 2019년」

모산골 [골]

[위치] 섬강에서 동쪽으로, 모산 마을을 향해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모산골’이라 하였다.

[내용] 골 하류인 강변 모래밭은 장살미들이 되었고 골 입구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모산들 [들]

[위치] 모산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가운데에는 49번 견원로가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다. ‘모현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모현들(茅峴坪)’이라고 하였다.

모현들 [들] → 모산들

모현(茅峴) [고개] → 모산고개

목골 [골]

[위치] 현 유진전철 동쪽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못안 [마을] → 모산

무당늪 [소] → 무당소

무당소 [소]

[위치] 노썩 북서쪽, 장살미들 서쪽 끝에 있는 소를 말한다. 현재 양수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무당늪’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무당소’라 하였다.

[유래] 옛날 여기에서 무당이 굿을 하다가 빠져 죽어서 무당소라고 하였다.



「무당소」; 2018년

무명장군묘(無名將軍墓) [묘]

[위치] 밤개 마을 서쪽 뒷산에 있는 어장군의 묘를 말한다.

[유래] 약 400년 전 어장군이 현몽한 이후로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온 묘이다. 매년 음력 동짓달 초 삼일에 밤개와 장남 마을 주민들이 같이 지내는데 마을 서낭에 제사를 올리기 전에 어장군 제사를 먼저 지낸다.

[전설(1)] 한백겸이 정사에서 물러나 향리인 노림리에 와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 천병만마를 거느린 장수가 나타나더니 엎드려 절을 하며 자신이 대감댁 바로 뒤에 묻혀 있으니 현주를 하면 한을 풀겠다고 하였다. 사흘 후에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채로 나타나 또 다시 간청하였다. 이튿날 뒷산을 수색하니 집 뒤 풀숲에 고분이 하나 있었다. 다음날 마을사람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제주가 되어 동짓달 초사흘날 마을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후 이것이 마을의 연중행사가 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나중에 면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서둘러 위토(位土)로 논 두 마지를 세워놓고 따로 면비(面費)에서 3원씩의 제사 돈을 대어왔다고 한다. 그 비석에 어장군지묘(魚將軍之墓)라는 비문이 있었으므로 묘의 주인공은 전몰한 견원의 부장(部將)중의 한 사람일 것이라고도 하고, 강감찬 장군에게 죽은 거란(契丹)의 장수라고도 한다.

[전설(2)] 한백겸 집안은 원래 섬강 가에 터를 잡고 살다가 강을 따라 들어온 왜구들을 피해 밤개 마을로 오게 되었다. 어느 날 신원을 모르는 어씨 성을 가진 장군이 꿈에 나타나 자신의 시체를 수습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 부탁을 들어준 후 그 부인까지도 현몽해 남편 곁에 묻히기를 간청하므로 이를 들어주었더니 그 보답으로 집터를 점지해주며 마을의 도적도 지켜주겠다고 하였다. 그 이후 밤마다 부부가 말을 타고 마을을 지켜주어 마을에 도적이 들지 않았고, 지금도 한밤에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때 정해준 집터가 아흔

아홉칸집터이다.



「무명장군묘 ; 2019년」

무상골 [골]

[위치] 가루개 마을 남동쪽 진개미들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섬강 남쪽 17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형제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위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골짜기 끝 서쪽 능선에는 가루개고개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무상골’이라 하였다.

[내용] 무상골과 여우골 사이에 현 철강회사 유진 건철이 들어와 있다.

무상골들 [들]

[위치] 무상골 골짜기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들의 많은 부분이 철강회사 유진건철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에 ‘무상동들(武相洞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무상골들’이라 하였다.

무상골저수지 [못] → 형제저수지

물당골 [골]

[위치] 별말 남동쪽 바방골 끝에서 남동쪽으로, 긴 경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바방골 [골]

[위치] 진검 동쪽, 별말 서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박수고개 [고개] → 덕고개

[위치] 광명터 남동쪽 덕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부르면 손곡리 박수골이 있고

아래로 별감골을 거쳐 솔미에 닿는다. ‘덕고개’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185m이다.

[유래] 노림리 덕골에 있으므로 덕고개, 고개 너머에 손곡리 박수골이 있으므로 박수고개라고 한다.

밤개 [마을]

[위치] 노술 서쪽 들 건너편 계곡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밤골’, ‘뱀개’, ‘뱁개’, ‘울개’, ‘울나미’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는 ‘밤씨(栗溪)’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뱁개(울개, 울나미)’라고 하였다.

[유래] 물가 옆에 밤나무가 많으므로 ‘뱁개’라 하였다.

[풀이] ‘뱁개>뱀개>뱁개’로 변천하였다. ‘개’는 물가, 나루를 뜻하는 지명소이다. 옛날에는 뱁개가 강변 옆이었기 때문에 ‘뱁개’라 하였다. ‘울개·울계·울나미’는 ‘밤’을 한자 ‘울(栗)’로 옮겨 적은 결과이다.



「밤개 마을 ; 2019년」

밤개내 [내]

[위치] 긴경산 북쪽 아래의 진골에서 내려와 밤개 앞을 흘러 북쪽으로 섬강에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뱁개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뱁새기울(栗谷川)’이라 하였다.

밤개다리 [다리]

[위치] 노술과 뱁개를 연결하는 뱁개내에 있던 옛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뱁개다리’라 하였다.

뱀개 [마을] → 뱀개

뱀개 [마을] → 뱀개

뱀개내 [내] → 뱀개내

벌말 [마을]

[위치] 진골 마을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봉오재 [산]

[위치] 뱀개 남서쪽, 능골 남쪽에 있는 142.1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봉화재’, ‘봉오재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봉오지산(峰峴山)’이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이곳에서 봉화를 올렸으므로 봉화재, 봉오재라 하였다.

봉오재산 [산] → 봉오재

봉화재 [산] → 봉오재

부른초등학교 노림분교 [학교]

[위치] 노림리 403, 노숲에 있는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40년에 부른초등학교 노림간이학교로 개설하여 1945년 노림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 2004년에 부른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부른초등학교 노림분교 ; 2019년」

삼방골 [골]

[위치] 섬강에서 남동쪽으로, 가루개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강 북쪽 건너에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가마섬 마을이 있다.

삼방골고개 [고개] → 가루개

[유래] 고개에서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므로 ‘삼방골고개’라고 하였다. 세 갈래 길은 고개 북서쪽으로 섬강으로 내려가는 길, 남동쪽으로 가루개로 내려가는 길,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산 능선을 따라 장남, 뱀개, 노숲으로 가는 길이다. ‘가루개’라고도 한다.

삼방골산 [산]

[위치] 삼방골 남쪽, 가루개고개 남서쪽에 있는 높이 211.3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삼방골산(森坊谷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산 아래에 삼방골고개가 있으므로 삼방골산이라고 하였다.

상무상골 저수지 [못] → 형제저수지

새말 [마을]

[위치] 노숲 마을 북동쪽, 모산고개 쪽의 마을을 말한다.

[유래] 1970년대 초 영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마을들이 입주하여 새로 생긴 마을이므로 새말이라 부른다.

새산수골 [골]

[위치] 장남저수지에서 영동고속도로 건너 남서쪽 위로 난 골짜기이다. 윗장남이골 남쪽에 있다.

선바위 [바위]

[위치] 월암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솔미산 [산]

[위치] 황수골 남동쪽에 있는 높이 261.6m의 산을 말한다. 덕고개 남서쪽, 긴경산 동쪽 산줄기에 있다. 손곡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송산(松山)’이라고도 한다.

[유래] 손곡리 솔미 마을의 솔미골 위에 있는 산이므로 솔미산이라고 하였다.

송산(松山) [산] → 솔미산

수기우물 [샘]

[위치] 노썸 앞 장살미들에 있던 우물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기우물’이라 하였다.

슌말 [마을] → 노썸

습말 [마을] → 노썸

신사당모퉁이 [모퉁이]

[위치] 밤개 남쪽 도로 옆에 있던 옛 신사 자리를 말한다. 도로 옆 산모퉁이에 있었으나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산 자체가 없어졌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사당모퉁이’라 하였다.

[유래] 일제강점기에 신사가 있던 모퉁이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아흔아홉칸집터 [터] → 무명장군묘

[위치] 밤개 서쪽 뒤에 있는 넓은 집터를 말한다.

[유래] 아흔아홉칸의 큰집이 있었으므로 아흔아홉칸집터라고 부른다.

[내용] 한백겸 집안의 집터였다고 전한다. 집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지금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밭에서 기와조각이 출토된다고 한다. 무명장군묘에 얽힌 설화가 전하고 있다.

[전설] 섬강 가에 살던 한백겸 집안이 밤개로 옮겨 온 후, 현몽한 어장군과 그 부인의 시신을 수습해준 보답으로 집터를 점지해 주었다고 전한다. 집터 위에 어장군 묘가 있다.

안산 [산]

[위치] 노썸 마을 앞에 있는 작은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산’이라 하였다.

어장군제사터 [터] → 무명장군묘

엄나무골 [골]

[위치] 장살미들 남쪽 끝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월암 마을에서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여우골 [골]

[위치] 진골 마을에서 북쪽으로, 49번 견훤로 건너 형제저수지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여

우골과 무상골 사이에 철강회사 유진건설이 들어와 있다.

영골 [골]

[위치] 대둔리 번개들에서 강 건너 남쪽 맞은편 무상골을 향하여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강 건너 북쪽은 문막읍 대둔리 번개들과 바사리고개가 있고 남쪽 산 너머에는 무상골과 형제저수지가 있다.

영골고개 [고개]

[위치] 영골에서 남동쪽 장남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40m이다.

[내용] 옛날에는 노썸 바로 앞으로 섬강의 샛강이 흐르고 있었으므로 노썸에서 대둔리로 가기 위해서 강을 한 번만 건너려면 영골고개를 넘어야 하였다.

옥녀봉(玉女峰) [산]

[위치] 골광명터 동쪽, 부문재 북쪽 능선에 있는 높이 260.1m의 산을 말한다. 『조선환여승람』에 감영에서 서쪽 40리에 있다고 하였다.

[유래] 족두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으므로 옥녀봉이라 하였다.

[내용] 일제강점기 옥녀봉의 배꼽자리에 금광을 개발하여 혈을 끊으려고 하였다고 한다.

옥다라기 [골]

[위치] 광명터저수지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항수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중간에서 작은골이 갈라져 나간다.

왜둔지저수지 [못]

[위치] 노썸 마을 동쪽, 좁은머리골 입구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경지정리로 없어졌다. ‘왓둔지소류지’라고도 하였다.

왓둔지소류지 [못] → 왜둔지저수지

우두골 [골]

[위치] 웃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은둔

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가 아늑하여 은둔하기 좋으므로 은둔골이라고 부르다가 우두골이 되었다고 한다.

웃골 [골]

[위치] 장남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웃장남이골'이라고도 한다.

웃골 [마을]

[위치] 웃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4~5가구가 모여 살았다.

웃장남이골 [골] → 웃골

월암(月岩) [마을]

[위치] 밤개 북쪽, 장남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영동고속도로 남쪽에 있다. '달바우', '다라미', '다래미'라고도 한다. 달바우를 한자로 적어 '월암(月岩)'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다라미(월암)'라 하였다.

[유래] 마을 뒷산에 달바우가 있으므로 월암이라고 하였다.

[풀이] '달바우>달암(岩)>달암이>다라미>다래미'로 변화하였다.

월암(月岩) [바위]

[위치] 월암 마을 북서쪽 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영동고속도로가 나면서 해체되었다. '달바우', '달암', '다라미', '다래미'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달바우'라 하였다.

[유래] 모양이 달처럼 생겨서 '달바우'라고 하였다 한다.

월암들 [들] → 다래미들

율개 [마을] → 밤개

율계(栗溪) [마을] → 밤개

율나미 [마을] → 밤개

[유래] 밤(栗)이 난다고 해서 '율+남(出)>율남>율남+이>율남이>율나미'가 되었다.

은둔골 [골] → 우두골

작은골 [골]

[위치] 옥다라기에서 갈라져 남동쪽 솔미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장남(長南) [마을]

[위치] 옛 노림초등학교 서쪽, 밤개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장내미'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장남이(長浦)'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장내미(장남)'라 하였다.



「장남 마을 ; 2019년」

장남저수지 [못]

[위치] 장남 남서쪽, 밤개 서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장내미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장내미저수지'라 하였다.



「장남저수지 ; 2019년」

장남천(長南川) [내]

[위치] 영골고개에서 남동쪽으로 장남저수지와 장

남 마을을 지나 광명터천으로 들어가는 작은 내를 말한다.

장내미 [마을] → 장남

장내미저수지 [못] → 장남저수지

장살미들 [들]

[위치] 노썩 북쪽 섬강 변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장살미들(長沙尾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살미들’이라 하였다.

장승백이 [마을]

[위치] 현 유진전철 앞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 장승이 있었으므로 장승백이라고 하였다.

[풀이] ‘-백이’는 ‘박다’에서 나온 말로 ‘박이>백이’로 무엇이 박혀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장승이 박혀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정절문 [정문]

[위치] 아흔아홉칸집터 앞에 있던 정문을 말한다.

좁은머리골 [골]

[위치] 노썩에서 남동쪽으로, 260.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문재 [고개]

[위치] 장남에서 서쪽, 옷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진개미 [마을] → 진검

진검(眞檢) [마을]

[위치] 무상골 남쪽, 진골 마을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유진전철 남쪽, 진검저수지 동쪽에 있다. 노림리와 흥호리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진개미’, ‘진기미’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진개미(진검)’라 하였다.

진검저수지 [못] → 흥호리 진검저수지

진골 [골]

[위치] 장남과 밤개 남쪽 위로 밤개내를 따라, 긴

경산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땅이 물기가 많고 질어서 ‘진골’이라 하였다 한다. 무실동 ‘진억이’, 문막읍 취병리의 ‘진밭’과 같은 이치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는 진골들을 ‘긴골들(長谷坪)’이라고 하여 골이 길다고 보았다.

[유래담] 왕건과 견훤의 싸움에서 견훤이 쳐서 이곳을 통해 도주했는데 싸움에 졌다고 해서 ‘진골’이라 했다고 한다. 또는 견훤의 군사들이 왕건에 쫓겨 도망갈 때 이곳 진흙탕에 빠져 많이 사로잡혀 죽었다고도 한다.

[내용] 진골과 진골 마을, 별말 사이에 부론일반산 업단지가 예정되어 있다.

진골 [마을]

[위치] 진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별말 북쪽 아래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진골’이라 하였다.

진골고개 [고개]

[위치] 진골에서 남서쪽으로, 흥호리 승등으로 넘어가던 고갯길을 말한다. 현 49번 견훤로가 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진골고개’라 하였다.

진골들 [들]

[위치] 진골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긴골들(長谷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진골들’이라 하였다.

진기미 [마을] → 진검

쪽개울골 [골]

[위치] 밤개 마을 남쪽 위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청룡봉(靑龍峰) [산] → 긴경산

하무상골 저수지 [못] → 형제저수지

형제저수지 [못]

[위치] 가루개 고개 남동쪽 아래, 무상골의 상무상골 저수지와 옆에 있는 하무상골 저수지를 합하여 형제저수지라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무상골저수지’라고 하였다.



「상무상골저수지 : 2019년」



「하무상골저수지 : 2019년」

흥창나들이 [나루]

[위치] 가루개고개 서쪽, 심방골 입구 섬강의 나루를 말한다.

[유래] 문막읍 대둔리 사람들과 여주 강천의 가마섬 사람들이 흥창으로 가기 위해 건너는 나루이므로 흥창나들이라 하였다.

항새우물 [샘]

[위치] 장살미들에 있던 우물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항새우물’이라고 하였다.

항수골 [골]

[위치] 광명터저수지에서 남쪽으로, 긴경산 줄기의 항수골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황숫골’이라 하였다.

항수골고개 [고개]

[위치] 항수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긴경산 동쪽 아래, 솔미산 서쪽에 있다. 고개 너머에는 손곡리 항수골이 있다. 고개 높이는 220m이다.

항수골들 [들]

[위치] 광명터 마을 남쪽 위, 광명터저수지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항수골저수지 [못] → 광명터저수지

황숫골 [골] → 항수골

단강리(丹江里)

[위치]

단강리는 부론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귀래면 용암리, 서쪽으로는 정산리, 남쪽으로는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북쪽으로는 손곡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부론면(富論面) 지역으로 일리(一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세포·단정·작실·도평·평촌·부론동·사기막·조귀농을 병합하여 단강리(丹江里)라 하여 원주군 부론면 단강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부론면 단강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부론면 단강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함에 따라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가 되었다.

[유래]

홍수가 나면 운계천과 남한강에 붉은 황토물이 흘렀으므로 한자로 ‘단강(丹江)’이라 하였다. 단강(丹江), 단전(丹田) 등의 지명으로 보아 원래는 황토물과 황토흙에서 단(丹) 관련 지명들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단정(端亭)도 원래는 단정(丹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담]

단강리의 중심되는 마을은 단정(端亭, 끝정자)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담이 전한다.

- ①단종(端宗)이 영월로 유배를 가는 길에 이 정자에서 마지막으로 쉬어갔으므로 끝정자, 단정이라 하였다.
- ②평해 사람인 문정 선생이 전국에 정자를 지으며 다녔는데 일생에 15번째로 마지막 정자를 이곳에 지었다고 하여 끝정자, 단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 ③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이 왜적과 싸우지는 않고 조선 명산의 혈기를 끊는 데만 혈안이 되었는데 옥녀봉이 천하명당이라 혈기를 끊으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였으므로 단정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가느개 [마을] → 세포

가느개 [마을] → 세포

가늘개 [마을] → 세포

가늦개 [내]

[위치] 세포 마을 남동쪽 운계천 건너에 있는 작은 내를 말한다. 충북 소태면 덕은리의 약수봉에서 흘러 단강리 벌말과 덕은리 본목 사이의 들판을 지난다. ‘가느개·가늑개·가느개·가늘개·가늦개·세포’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실현된다. 지금은 세포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유래] 냇물이 가늘므로 ‘가느개·가늘개·가늦개’라 하였다. 이를 한자로 ‘세포(細浦)’라고 하였다.

[내용] 이 개울이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계의 일부를 이룬다. 이 개울 이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강원도 단강리 세포와 충청북도 덕은리 세포 두 마을의 이름이 되었다.

가늦개 [마을] → 세포

가늦개들 [들]

[위치] 세포 마을과 운계천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늦개들’이라 하였다.

가늦들보 [보]

[위치] 세포 마을 동쪽, 벌말 서쪽 운계천에 있는 보를 말한다. 가늦개들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늦들보’라 하였다.

가르개 [마을] → 세포

갈곡(葛谷) [골] → 갈골

갈곡산(葛谷山) [산]

[위치] 사기막 갈골 동쪽에 있는 높이 217.5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갈곡산(葛谷山)’이라고 하였다.

갈골 [골]

[위치] 사기막 동막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사이골 동쪽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갈곡

(葛谷)’이라고도 한다.

갈골들 [들]

[위치] 갈골 서쪽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갈곡들(葛岩坪)’이라 하였다.

갈현동(葛峴洞) [마을] → 세포

감골고개 [고개] → 절골고개

강신재 [고개]

[위치] 아래작실에서 서쪽 정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능골저수지와 구억논저수지를 지난다. 고개 높이는 120m이다. 『조선지리지』에 ‘강신지(降神峴)’라고 하였다.

개수고개 [고개]

[위치] 끝정자, 섬뜰에서 서쪽으로, 정산리 개수 마을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염태고개 남쪽에 있다. 높이는 141m이다.

건네골 [골]

[위치] 아랫사기막에서 동쪽으로, 26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능안재골이 갈라져 나간다. 골 동쪽 너머에 용암리 웃동막의 집넘어골이 있다.

공기바우 [바위]

[위치] 봉림산 정상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둥글게 생겨서 마치 공깃돌과 같으므로 공기바우라 하였다.

괴목정(槐木亭) [누정] → 단정

[유래] 오래된 나무 아래 정자가 있었으므로 괴목정(槐木亭)이라 하였다.

괴목정들 [들] → 단정들

구라골 [골]

[위치] 웃사기막에서 사기막골과 갈라져 북동쪽으로, 봉림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큰짐대골이 갈라져 나간다. 구라골과 큰짐대골 사이에 채석장이 들어서 있다. ‘굴

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에 굴바위가 있으므로 '굴바우골>구라골'이라고 하였다.

[풀이] '굴바우골>굴바우골>굴아우골>구라우골>구라골'로 음운 변천하였다.

구라골들 [들]

[위치] 구라골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굴골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굴곡들(窟岩坪)'이라고 하였다.

굴곡들 [들] → 구라골들

굴골 [골] → 구라골

굴골들 [들] → 구라골들

굴락골 [골]

[위치] 아래작실에서 동쪽으로, 262.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굴바우 [바위]

[위치] 구라골 북동쪽, 봉림산 아래 8부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이 바위가 있어서 '구라골'이라는 지명이 나왔다.

[유래] 바위에 깊이 13m의 자연동굴이 있으므로 굴바우라 하였다.

[내용] 옛날 이 굴에서 스님이 수도를 하였다고 한다. 박쥐가 많이 살고 있다.

굴바우샘 [샘]

[위치] 굴바우 아래에 있는 샘을 말한다. 사시사철 수량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

길재골 [골]

[위치] 사기막 중간담 충충골 중간에서 남서쪽으로 404.1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서쪽 너머에 터골이 있다.

끝정자 [누정] → 단정

끝정자 [마을] → 단강

끝정자나무 [나무]

[위치] 끝정자 마을, 옛 단강초등학교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단정(끝정자)'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 제6대 단종(端宗)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 갈 때 이 나무 아래 정자에서 마지막으로 쉬어갔으므로 끝정자라고 하였다. 이 나무 아래 정자가 있었으므로 괴목정(槐木亭)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끝정자저수지 [못] → 단정저수지

날근터골 [골]

[위치] 작실골(3) 남쪽에 붙어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옛날에 이곳에 대장간이 있었다고 한다.

넙적골 [골]

[위치] 옷작실에서 서쪽으로, 샘골로 이어지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논골 [골]

[위치] 작실골에서 북동쪽으로, 작실고개 동쪽 능선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작실고개 남동쪽 아래에 있다. 골 북쪽 너머에 거론 샘골마을의 참나무골이 있다.

느네미골 [골]

[위치] 옷사기막 구라골 위, 독안경터골 입구에서 서쪽으로, 사방산과 405m 봉우리 사이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서쪽 너머에 정산리 느네미골, 정산저수지와 거둔사가 있는 선득골이 있다.

느시락바우 [바위]

[위치] 사방산 북동쪽 느네미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넓고 평평하므로 느시락바우라 하였다.

능골(1) [골]

[위치] 염태저수지에서 북동쪽으로, 강신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능골(2) [골]

[위치] 하부론 왜둔들 서쪽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평장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능안고개 [고개]

[위치] 아래사기막에서 건네골, 능안재골을 지나 동쪽 용암리 능안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옥리봉 남쪽 능선에 있는 고개로, 높이는 310m이다.

능안재골 [골]

[위치] 건네골 끝에서 북동쪽 능안고개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옥리봉 남쪽 능선에 있다.

단강(丹江) [마을]

[위치] 옛 단강초등학교가 있던 단강리의 중심 마을을 말한다. ‘끝정자’, ‘단정’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숫정자(端亭)’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단정(끝정자)’이라 하였다.

[유래] 홍수가 나면 운계천과 남한강에 붉은 황토물이 흘렀으므로 한자로 ‘단강(丹江)’이라 하였다.

단강분교 [학교] → 부론초등학교 단강분교

단강저수지 [못]

[위치] 섬뜰 마을 동쪽 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섬뜰저수지 북동쪽 바로 위에 있다. 1966년에 준공하였다.



‘단강저수지 ; 2019년’

단강천(丹江川) [내] → 운계천

[유래] 운계천의 다른 이름이다. 단강 마을 앞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단강천이라고 부른다.

단전(丹田) [마을] → 단정

[위치] 단정(端亭)의 원래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단전들(丹田坪)’이라 하였다.

[유래] 운계천의 황토물과 황토흙이 들을 이루었으므로 ‘단강(丹江)’, ‘단전(丹田)’이라 하였다. ‘끝정자’, ‘단종’의 유래담이 결부되면서 ‘단전(丹田)’을 ‘단정(端亭)’이라 하였다.

단전들(丹田-) [들] → 단정들

단정(端亭) [누정]

[위치] 단강 마을에 있는 정자를 말한다. ‘끝정자’, ‘괴목정’이라고도 한다.

[유래] 단강(丹江), 단전(丹田) 등의 옛 지명들로 보아 원래는 단정(丹亭)이었을 것이다. 끝정자와 단종의 유래담이 결부되면서 단정(端亭)이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정(端亭) [마을] → 단강, 단전

[위치] 단강리의 중심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마을 앞의 들을 ‘단전들(丹田坪)’이라 하였으므로 원래 마을 이름은 ‘단전(丹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래] 운계천의 황토물과 황토흙이 들을 이루었으므로 ‘단강(丹江)’, ‘단전(丹田)’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단전(丹田)’이 ‘끝정자’ 및 단종의 유래담과 결부되면서 발음이 비슷한 ‘단정(端亭)’이 되었다.

[유래담] ①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가는 길에 이 정자에서 마지막으로 쉬어갔으므로 끝정자, 단정이라 하였다. ②평해 사람인 문정 선생이 전국에 정자를 지으며 다녔는데 일생에 15번째로 마지막 정자를 이곳에 지었다고 해서 끝정자, 단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③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이 왜적과 싸우지는 않고 조선 명산의 혈기를 끊는 데만 혈안이 되었는데 이곳 옥녀봉이 천하명당이라 혈기를 끊으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였으므로 단정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단정 마을 : 2019년」

단정들 [들]

[위치] 단정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단전들(丹田坪)’, ‘괴목정들(槐木亭坪)’이라고 하였다.

단정저수지 [못]

[위치] 단강 마을 앞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끝정자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끝정자못’이라 하였다.

닷마지기골 [골]

[위치] 사기막 중간담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위쪽으로 삼막골이 이어진다. ‘점터’라고도 한다.

[유래] 들이 약 다섯 마지기가 된다고 해서 닷마지기골이라 한다.

더갈봉 [산] → 덕갈봉

덕갈봉 [산]

[위치] 웃사기막 서쪽에 있는 높이 461m의 산을 말한다. 정산리와 경계를 이룬다. ‘더갈봉’, ‘떡갈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떡갈나무가 많으므로 떡갈봉이라고 하였다.

덕은개울 [내] → 사기막천

[위치] 사기막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사기막천이 운계천에 합류하는 곳이 충북 소태면 덕은리이기 때문에 덕은개울이라 하였다.

[내용] 단강리는 덕은리와 동일 생활권이므로 세 포, 덕은, 조귀농 등 공유하는 지명이 많다.

덧재 [고개]

[위치] 하부론동 덧재저수지에서 동쪽으로 불당골을 지나 용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덧재저수지 [못]

[위치] 하부론동 덧재 서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부론골저수지’, ‘왜둔저수지’라고도 한다.

도요지(陶窯址) [터] → 사기막터

도평(島坪) [들] [마을] → 섬뜰

독안경터골 [골]

[위치] 사기막골 상류, 느네미골 입구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로 서지골을 거쳐 서지고개에 이른다.

동막골 [골]

[위치] 사기막골에서 동쪽으로, 동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사기막교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동막산(東幕山) [산]

[위치] 상부론동 북동쪽, 사기막교 동쪽에 있는 높이 356.8m의 산을 말한다. 귀래면 용암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산 너머에 용암리 동막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동막산(東幕洞)’이라 하였다.

되링기터 [마을]

[위치] 아래작실 마을 중 양달말 경로당 북쪽의 마을을 말한다.

뒷골 [골]

[위치] 웃작실 북쪽 위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논골’, ‘터골’, ‘선바골’이 있다.

들말 [마을] → 벌말

떡갈봉 [산] → 덕갈봉

마루바우 [마위] → 짐대바우

배나무골 [골]

[위치] 웃작실 냇적골에서 북쪽으로, 샘골로 이어

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변말 [마을] → 벌말

벌논들 [들] → 벌말들

벌말 [마을]

[위치] 사기막천 입구 남쪽, 운계천 남쪽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세포 동쪽, 하부론 남동쪽에 있다. 충청북도와 경계가 되는 마을이다. ‘들말’, ‘변말’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적어 ‘평촌(坪村)’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들말(坪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벌말(평촌)’이라고 하였다.

[유래] 벌(들)에 마을이 있으므로 들말, 벌말이라 부른다.



「벌말 마을 : 2019년」

벌말들 [들]

[위치] 벌말 마을 서쪽, 운계천과 가늯개 개울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벌논들’, ‘평촌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벌논들(伐論坪)’이라고 하였다.

보논골 [마을] → 부론

보늯골 [마을] → 부론

본일리(本一里) [마을] → 단강리

봉림산 [산]

[위치] 괴래면 미륵산 서쪽, 서지고개의 남동쪽 능선에 있는 높이 543.3m의 산을 말한다. 사기막천이 발원하는 곳으로 단강리와 손곡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부논골 [마을] → 부론

부늯골 [마을] → 부론

부론(富論) [마을]

[위치] 부론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부론골(상부론)’과 ‘아랫부론골(하부론)’이 있다. 부론면의 이름이 이곳에서 유래되었다. ‘보논골·보늯골·부늯골·부론골·부론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부론동(富論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부늯골(부론동)’이라 하였다.

[유래] 벌(들)에 논이 있으므로 ‘불(벌)논>불(벌)론>불론>부론’이 되었다. 옛말 ‘불~벌’은 들(坪)을 뜻하였다.

[풀이] 부론은 ‘불+론>불론>부론’으로 음운 변천한 것이다. ‘론’은 귀론(歸論), 거론(巨論), 일론(日論)처럼 논(畝)을 표기한 것이다. ‘부’는 고대 국어에서 ‘화(火), 벌(伐), 불(弗)’로 표기하던 ‘벌~불, 부리~부루’로 그 뜻은 ‘벌(들:坪)’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벌논들(伐論坪)’이라 하여 ‘벌논(伐論)’이라고 쓴 것은 ‘불론·벌론’의 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부론’은 ‘불(벌)+논>불론>부론’으로, ‘논이 있는 넓은 들’을 뜻한다.



「부론 마을 : 2019년」

부론골 [골]

[위치] 운계천 벌말에서 사기막천을 따라 북쪽으로 사기막골에 이르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작은부론골’과 ‘사이골’이 있다.

부론골저수지 [못] → 덧재저수지

부론동(富論洞) [마을] → 부론

부론초등학교 단강분교 [학교]

[위치] 단강리 1387에 있던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33년에 흥호공립보통학교(부론초등학교) 부설 단강간이학교로 개교하여 1942년에 단강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 1996년 단강초등학교로 개칭하였고 2006년 부론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2007년에 폐교되었다.



「부론초등학교 단강분교 ; 2019년」

부창이 [골] → 부챙이

부창이들 [들] → 부챙이들

부챙이 [골]

[위치] 상부론 마을 창고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불당골 북쪽에 있다. 골 북동쪽 끝에 빈재와 동막산이 있다.

부챙이들 [들]

[위치] 부챙이 골짜기의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부창이들(夫昌坪)’이라 하였다.

불당골 [골] → 불당골

불당골 [골]

[위치] 덧재저수지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불당골’이라고도 한다.

불당산(佛堂山) [산]

[위치] 불당골 동쪽에 있는 높이 331m의 산을 말한다. 빈재산 남쪽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불당산(佛堂山)’이라 하였다.

빈재 [고개]

[위치] 상부론에서 서쪽으로, 귀래면 용암리 동막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빈재산 북쪽을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높이는 320m이다. 『조선지리지』에 ‘빙지(氷峴)’라고 하였다.

[유래] 암벽으로 비탈진 산이므로 빈재, 빈재산이라 부른다.

[풀이] ‘빈’, ‘빙’은 비탈 또는 벼랑의 방언이다. 이와 같은 지명으로 지정면 간현리의 ‘해빙골(희빈골)’, 호저면 주산리의 ‘빙모탕이’, ‘빙밑방천(氷下沔)’이 있고 춘천 천전리와 지리산에 ‘빙소’가 있다. 평북에서는 ‘빈재이골(빈쟁이골)’을 ‘비탈골’이라고도 하므로 ‘빈재’는 곧 ‘비탈’ 또는 ‘벼랑’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빋+달>비탈(비알, 별, 별양)’, ‘빋+재>빋재(빈재)’로 풀이된다.

빈재산 [산]

[위치] 상부론동 동쪽에 있는 높이 332m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빈재’라고 하였다.

사기막(沙器幕) [마을]

[위치] 부론골 북쪽 위, 사기막천 상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사기막교를 중심으로 아래쪽을 부론골, 위쪽을 사기막골이라고 부른다. ‘웃사기막’, ‘중간담’, ‘아랫사기막’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사기막(沙器幕)’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사기막(沙器幕)’이라 하였다.

[유래] 고려 말에 도자기를 구운 마을이므로 사기막이라고 한다. 현재도 밭에 도자기 파편이 많이 묻혀 있다.

사기막고개 [고개] → 서지고개

사기막골 [골]

[위치] 사기막 마을에서 북쪽으로 서지고개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사기막천(沙器幕川) [내]

[위치] 봉림산과 서지고개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서지골과 사기막골을 지나 하부론동 별말에서 운계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덕은개울’이라고도

한다.

[유래] 사기막골 사기막 마을을 지나므로 사기막 천이라 하였다.

[내용] 사기막천을 다른 이름으로 '덕은개울'이라고도 한다. 이는 운계천 남쪽 건너 마을이 충북 소태면 덕은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흘러 덕은 마을 앞에서 운계천에 합류하므로 덕은개울이라고도 하였다. 단강리는 남쪽 내 건너의 충청북도 덕은리와 동일 생활권이므로 지명을 공유하는 것이 많다.

사기막터 [터]

[위치] 웃사기막 마을에 있는 옛 사기막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사기막터'라 하였다.

[내용] 길옆의 밭에 도자기편 등이 많이 흩어져 있다. 산막골 위, 작은집대골 입구의 밭과 자장골 입구 언덕 등 두 군데에 사기막터가 남아있다.

사기점고개 [고개] → 서지고개

사방산(四方山) [산]

[위치] 웃사기막 북동쪽에 있는 높이 437.5m의 산을 말한다. 덕갈봉 북쪽에 있으며 정산리와 경계를 이룬다. 『조선지리지』에 '사방산(四方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사방산(四方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산이 우뚝하게 높아 사방이 다 보이므로 사방산이라고 하였다.

사이골 [골]

[위치] 아랫사기막 남쪽, 상부론동 북쪽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사기막교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부론골과 사기막골 중간에 있다. 골 끝에 터골이 있다. '작실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부론골과 사기막골 중간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사이골'이라고 하고, 서쪽 고개 너머에 작실 마을이 있으므로 '작실골'이라고도 한다.

산막골 [골]

[위치] 웃사기막 함박골 입구에서 북쪽으로 작은 집대골 입구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삼막골'

이라고도 한다.

[유래] 산에 임시방편으로 움막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으므로 산막골이라 하였다.

삼막골 [골] → 산막골

상부론동 [마을]

[위치] 부론 마을 중 부론골의 위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작은부론골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웃부논골', '웃부론골'이라고도 한다.

상작골 [골]

[위치] 섬뜰 단강저수지에서 동쪽으로, 33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상작들 [들]

[위치] 단강저수지 동쪽, 상작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향적들(香積坪)'이라고 하였다.

샘골 [골]

[위치] 작실골 중 웃작실 북쪽, 작실고개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정산리 샘골이 있다.

[유래] 이 골짜기는 어디를 파든 샘물이 나오므로 샘골이라 부른다.

샘골밀 [들]

[위치] 웃작실 샘골 동쪽에 있는 작은 들이다.

서낭대이 [골]

[위치] 웃작실 냇적골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서지고개 [고개]

[위치] 웃사기막 북쪽 끝에 있는, 손곡리 서지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서지재'라고도 한다. 손곡리에서는 '사기막고개'라고 부른다. 높이는 380m이다. 『조선지리지』에 '서지지(西芝嶺)', '서지고기(西芝峴)', '사기점고기(沙器店峴)'라 하였다.

서지골 [골]

[위치] 사기막골 상류, 웃사기막 북쪽으로 서지고

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서지재 [고개] → 서지고개

[내용] 서지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손곡리에서는 서지고개와 구분하여 서지골에서 방아실골을 거쳐 귀래면 귀래리 방아실로 넘어가는 고개를 ‘서지재’라고 부르나 여기에서는 서지고개와 같은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이 지역에 ‘서지’란 지명이 넓게 분포하는 까닭이다.

선바골 [골]

[위치] 터골에서 북동쪽으로 측새봉을 향하여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 북쪽 너머에 정산리 섬골의 토깨이목골이 있다.

섬들 [들] [마을] → 섬뜰

섬뜰 [들]

[위치] 섬뜰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Y자형으로 양쪽으로 개울이 흘러 중간에 있는 들이 마치 섬처럼 되었으므로 ‘섬들>섬뜰’이라 하였다.

섬뜰 [마을]

[위치] 단강 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섬들’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도평(島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섬들(도평)’이라 하였다.



「섬뜰 마을 : 2019년」

섬뜰개울 [내]

[위치] 섬뜰 동쪽에서 서쪽으로 단강저수지를 지

나 섬뜰에서 작실천에 합류하는 작은 내를 말한다.

[유래] 섬뜰 마을 앞을 지나므로 섬뜰개울이라고 부른다.

섬뜰저수지 [못]

[위치] 섬뜰 동쪽 위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단강저수지 바로 남서쪽에 있다. 섬뜰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섬뜰저수지’라 하였다.

세포(細浦) [마을]

[위치] 하부론동 남서쪽 운계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과 운계천 사이에 영천들이 있다. ‘가느개 · 가는개 · 가늘개 · 가늯개 · 가르개’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세포(細浦)’, ‘갈현동(葛峴洞)’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가년기(細浦)’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늯개(세포)’라 하였다.

[유래] 마을 남동쪽에 작은 내가 흐르므로 ‘가는개’라 하였다. 마을 앞 충북 소태면 덕은리 약수봉에서 시작하여 벌말들을 지나는 작은 내가 세포 마을 앞에서 운계천에 합류하므로 생긴 이름이다.

[내용] 마을 남쪽 운계천 건너 마을 이름도 세포(細浦, 충북 소태면 덕은리)이며 두 마을은 세포교로 연결되어 마주보고 있다. 마을 이름이 된 ‘가느개’는 약수봉에서 흘러 내려오는 작은 개울이다. 그 개울이 단강리 벌말과 덕은리 본목 사이의 들판을 지나 운계천에 합류하는데 그 합류지점이 두 세포 마을 앞이어서 두 마을이 같은 지명을 쓴다. 이처럼 단강리와 운계천 건너 충북 소태면 덕은리는 행정구역은 크게 다르지만 같은 들을 경작하는 등 동일 생활권이므로 지명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드러낸다. ‘세포’, ‘덕은개울(사기막천)’, ‘조귀농(덕은리의 조기암)’, ‘당우’ 등을 공유하는 것이 그 예이다. 실제로 광복 이전의 옛 지도에는 두 세포 마을을 한 마을로 ‘세포(細浦)’로 표기하여 단강리와 내 건너의 덕은리가 동일시되고 있으며 들판을 지나는 작은 개울이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

[풀이] ‘가는개’는 ‘가늘다’와 ‘개’가 결합한 것이다. ‘가는’은 ‘가늘다’의 관형형이며 ‘개’는 물과 관련된 지명이다. 즉 ‘가느다란’, ‘작은’ 내가 흐르는 곳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세포(細浦)’라고 하였고 ‘개’를 ‘고개’로, 앞의 ‘가늘’을 ‘갈’로 보아 ‘갈현동(葛峴洞)’이라고도 하였다.



「세포 마을 ; 2019년」

세포서낭 [당]

[위치] 세포 마을 서쪽 도로 옆, 들에 있는 당산목을 말한다. 수령 약 300년의 느티나무이다.



「세포서낭 ; 2019년」

쇠골 [골]

[위치] 웃사기막 동쪽, 큰집대골 끝에서 북쪽으로, 봉림산 남쪽의 53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쇠점골 [골]

[위치] 부론골 입구 동쪽 531번 부귀로에서 북쪽으로, 32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마을회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쇠점들 [들]

[위치] 쇠점골 앞 도로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쇠점도리(鐵店坪)’라고 하였다.

신선대(神仙臺) [바위]

[위치] 봉림산에서 남동쪽으로 533m 봉우리까지 뻗은 암벽 능선을 말한다.

아래골짜기 [골]

[위치] 웃작실 텃골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서 잔골이 이어지고 잔골 너머에 단강리 부론골이 있다.

아래부논골 [마을] → 하부론동

아랫부론골 [마을] → 하부론동

아래사기막 [마을]

[위치] 사기막 마을 중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사기막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건너골과 갈라지는 곳에 있다.

아래작실 [마을]

[위치] 작실 마을 중 섬뜰 마을 북동쪽 위, 웃작실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양달말’, ‘음달말’, ‘되링기터’가 있다.

안골 [골]

[위치] 웃작실 넘적골 옆 남쪽 골짜기를 말한다.

암산 [산]

[위치] 웃작실 중막골 남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양달말 [마을]

[위치] 아래작실 마을 중 작실천의 동쪽, 경로당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아침 햇볕이 먼저 들므로 양달말이라고 하였다.

어리당골 [골] → 어리랑골

어리당들 [들] → 어리랑들

어리랑골 [골]

[위치] 사이골 입구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사이골과 작은부론골 사이에 있다. ‘어리당골’이라고도 한다.

어리랑들 [들]

[위치] 어리랑골의 동쪽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어리당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어리당들(於墨堂坪)’이라 하였다.

염태고개 [고개]

[위치] 단강에서 북서쪽 정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531번 부귀로가 지나가고 있다. ‘염터고개’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90m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덕고기(簾峙峴)’라고 하였다.

[내용] 정산리 거돈사의 당간지주를 사기막골 큰 짐대골에서 채석해서 옮길 때 이 고개를 넘어갔다고 전한다.



「염태고개 ; 2019년」

염태들 [들] → 염태들

염태들 [들]

[위치] 염태저수지 남쪽 아래에서 단강 마을 앞까지 도로 옆을 따라 나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염태들’이라 하였다.

염태저수지 [못]

[위치] 염태고개 남동쪽, 개수고개 동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염태저수지’라 하였다.

염터고개 [고개] → 염태고개

염터들 [들] → 염태들

염터저수지 [못] → 염태저수지

영정각(影幀閣) [당]

[위치] 아래작실에 있는 조선 후기의 문신 송곡(松谷) 이서우(李瑞雨, 1633~1709)를 봉안하는 사당을 말한다.

[내용]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환여승람』에 조선 숙종 때라고 기록하였다. 영정각은 정문과 사당으로 되어 있고 주위는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다. 1700년대 초에 건립된 것을 1968년에 개축하였다.



「영정각 ; 2019년」

영천(榮川) [내]

[위치] 운계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령천(榮川)’이라고 하였다.

영천들 [들]

[위치] 세포 마을 앞, 운계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영쳐들(榮川坪)’이라고 하였다.

웃고개 [고개] → 웃나무고개

웃나무고개 [고개]

[위치] 작실골(1) 입구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웃고개’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웃고개(漆峴)’라고 하였다.

웃나무골 [골]

[위치] 아래작실 양달말에서 서쪽으로, 옷나무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능골 저수지가 있다.

옷물 [샘]

[위치] 옷사기막, 구라골 개울 옆에 있는 약수를 말한다.

[내용] 사철 물이 마르지 않으며 옛날부터 옷에 약효가 있다고 한다.

왜둔들 [들]

[위치] 덧재저수지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왜둔평(倭屯坪)’이라고 하였다.

왜둔저수지 [못] → 덧재저수지

운계천(雲溪川) [내] → 귀래면 운계리 운계천

웃목골 [골]

[위치] 웃작실 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웃부늬골 [마을] → 상부론동

웃부론골 [마을] → 상부론동

웃사기막 [마을]

[위치] 사기막 마을 중 사기막골 상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구라골, 짐대골 남쪽의 마을이다.

웃작실 [마을]

[위치] 작실 마을 중 작실골 상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작실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육리봉 [산]

[위치] 옷사기막 동쪽, 큰집대골 남동쪽에 있는 높이가 426m의 산을 말한다. 능안고개 북쪽 능선에 있다. 산 동쪽 너머에 용암리 능안 마을이 있다.

음달말 [마을]

[위치] 아래작실 마을 중 작실천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동쪽이 산으로 막혀 응달이 지므로 음달말이라 하였다.

자장골 [골]

[위치] 사기막골 중간담 닷마지기골에서 서쪽으로, 덕갈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자장골 남쪽, 충충골 북쪽에 있다. 골 입구 언덕에 옛 사기막터가 있다.

자장골들 [들]

[위치] 자장골 입구, 사기막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자장이들(自將坪)’이라고 하였다.

작실(作室, 作實) [마을]

[위치] 섬뜰에서 북동쪽으로 난 작실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래작실’, ‘웃작실’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작실(作實)’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작실(作實)’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어귀 하천에 자갈이 많아서 작실이라 하였다고 한다.

[내용] 옛날에 재물을 보관했던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풀이] ‘실’은 한자로 ‘室, 實’로 적었지만 이는 골짜기를 뜻하는 우리말 ‘실’이다. ‘작’은 어디에서 유래하였는지 밝히기 어렵다.



「작실 마을」; 2019년

작실고개 [고개]

[위치] 작실골(1) 북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정산리 샘골, 거돈사로 넘어가는 높이 180m의 고개로 정산리와 경계가 된다.

작실골(1) [골]

[위치] 섬뜰에서 섬뜰개울을 따라 북동쪽으로 작실고개에 이르기까지의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옷작실과 아래작실 마을이 있고, 옷작실 위에서 작실고개 아래에 이르는 골짜기를 샘골이라 부른다.

작실골(2) [골] → 사이골

작실골(3) [골]

[위치] 상부론동 마을창고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서쪽 고개 너머에 아래작실 마을이 있으므로 작실골이라고 한다.

작실천(作室川) [내]

[위치] 축새봉 서쪽 작실골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며 옷작실과 아래작실, 섬뜰을 거쳐 단강에서 남한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작은간장골 [골]

[위치] 섬뜰과 아래작실 사이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고개 [고개]

[위치] 옷작실에서 북동쪽으로, 텃골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를 말한다.

작은부론골 [골] → 질골

작은옥골 [골]

[위치] 아래작실 굴락골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중막골 [골]

[위치] 옷작실 중막골 중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짐대골 [골]

[위치] 옷사기막 산막골에서 동쪽으로, 옥리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짐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거둔사 짐대(당간지주)를 채석한 곳이므로 짐대골이라고 하였다.

잠방이들 [들] → 잠뱅이들

잠뱅이골 [골]

[위치] 세포와 조귀농 사이에서 북쪽으로, 304.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잠뱅이들 [들]

[위치] 잠뱅이골 앞의 들을 말한다. 영천들 서쪽에 이어져 있는 들이다. ‘잠방이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잠방이들(潛方里坪)’이라 하였다.

잠뱅이천 [내]

[위치] 잠뱅이골에서 남쪽으로, 잠뱅이들로 내려오는 내를 말한다. 잠뱅이들에서 운계천에 합류한다.

절골 [골]

[위치] 아래작실에서 북쪽으로 감골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절골고개 [고개]

[위치] 아래작실 북쪽 절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220m이다.

[내용] 정산리에서는 감골고개라고 부른다. 고개 너머 정산리 감골이 있고, 감골 아래에 거론 음촌이 있다.

절골들 [들]

[위치] 아래작실 절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절솔들(寺谷坪)’이라 하였다.

점터 [골]

[위치] 사기막 마을 중간담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위쪽으로 산막골이 이어진다. 닷마지기골 안에 있다.

조구랭이 [마을] → 조귀농

조구랭이들 [들]

[위치] 조귀농 마을 앞 운계천 옆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조구랭이들’이라 하였다.

조구랭이보 [보]

[위치] 조구랭이들에 딸린 운계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조구랭이보’라 하였다.

조귀농(早歸農) [마을]

[위치] 벌말과 끝정자 사이 운계천 강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서쪽에서 운계천이 남한강에 합류한다. 원래 이름은 ‘조구랭이’이며 이를 한자로 적어 ‘조귀동(早歸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는 ‘조귀통이(早歸農)’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조구랭이(조귀농)’이라 하였다.

[유래] 작실과 함께 하천의 퇴적물로 형성된 지형이 마치 돌을 일어내는 조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원래 이름 ‘조구랭이’는 ‘작은 논밭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들 이름은 원래의 이름 조구랭이를 가지고 있으나 행정명칭은 조구랭이를 한자로 음차하여 조귀농(早歸農)이라 하였다.

[내용] 단강리는 운계천 건너의 충북 소태면 덕은리와 동일 생활권으로서 지명을 공유하는 것이 많다. ‘세포’, ‘덕은’ 등이 그것이다. 조귀농과 덕은을 연결하는 다리가 덕은교이며 덕은리에도 ‘조기암(조개미, 어부마을)’이 있다. 덕은리에서는 남한강을 ‘조기암천’으로 부르고 있어서 ‘조기암’이란 지명이 이 지역에 널리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의 옛 지도에는 ‘조귀농(早歸農)’과 함께 덕은리의 ‘조기리(造奇里)’가 표기되어 있다. ‘조기암’을 ‘조개미’, ‘어부마을’로 부른 것으로 보아 강에서 조개를 줍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어부마을’은 ‘조개미’ 이름에서 유추된 것이므로, ‘조기~’는 ‘작다(小)’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풀이] ‘조귀농’의 원래 이름은 ‘조구랭이’이다. ‘조귀농(早歸農)’은 뜻과 상관없이 소리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조구랭이’는 ‘조구+랭이>조구랭이’로 ‘랭이(<랑이>’는 논밭을 이르는 단위이고 ‘조구’는 ‘작다(小)’에서 온 말이다. ‘작다, 적다’의 옛말은 ‘족다’로서 ‘족+음(명사형 어미)>조금>조금’, ‘족+

애(접사)>조개>조개’로 쓰인다. ‘족+랭이>족+우(매개모음)+랭이>조구랭이>조구랭이’로 변하였다. 따라서 ‘조구랭이’는 ‘작은 논밭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조귀농 마을 : 2019년」

조귀동(早歸洞) [마을] → 조귀농

조귀통이 [마을] → 조귀농

조기동 [마을] → 조귀농

조사밭골 [골]

[위치] 조귀농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간담 [마을]

[위치] 사기막골 사기막 마을 중 웃사기막과 아래 사기막 중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충충골과 자장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중막골 [골]

[위치] 옷작실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텃골 남쪽의 골짜기이다. ‘큰중막골’과 ‘작은중막골’이 있다.

진골 [골]

[위치] 옷작실 텃골에서 아래골짜기 동쪽 위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너머에 단강리 부론골이 있다.

질골 [골]

[위치] 작실골(3)과 어리랑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부론골’이라고도 한다.

짐대골 [골]

[위치] 옷사기막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큰짐대골’과 ‘작은짐대골’이 있다.

[유래] 거둔사의 짐대(당간지주)를 이곳에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거둔사지에는 당간지주가 하나만 남아있는데 다른 하나는 이곳에서 제작 중 중단된 채로 남아있다.

짐대골들 [들]

[위치] 옷사기막 큰짐대골과 작은짐대골 사이의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진디동들(陳垔洞坪)’이라고 하였다.

짐대바우 [바위]

[위치] 큰짐대골 중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마루바우’라고도 한다.

[내용] 현재 옛 정산초등학교터에 미완성 당간지주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가 이 골짜기에서 채석된 채로 남아있다.

촉새봉 [산]

[위치] 사기막 중간담 충충골 서쪽 끝, 덕갈봉 남쪽에 있는 높이 394.7m의 산을 말한다. 단강리와 정산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유래] 산이 매우 가파르고 촉새부리처럼 뾰족하므로 촉새봉이라고 하였다.

충충골 [골]

[위치] 사기막 중간담에서 서쪽 촉새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의 끝, 촉새봉 남쪽 아래에서 길재골이 남서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유래] 나무가 촘촘하게 많아 ‘촘촘골>촘촘골>충충골’이라 하였다. 또는 호랑이가 나올 만큼 골짜기가 어두침침하므로 충충골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충충골들 [들]

[위치] 사기막 중간담 충충골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뚝충이평(中沖坪)’이라고 하였다.

큰옥골 [골]

[위치] 아래작실 작은옥골의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큰자장골 [골]

[위치] 옷사기막 남쪽 함박골 맞은편에서 북서쪽으로, 사방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자장골과 큰자장골 사이 둔덕에 사기막터가 있다.

큰중막골 [골]

[위치] 옷작실 중막골 중 큰 골짜기를 말한다.

큰짐대골 [골]

[위치] 사기막골 옷사기막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용암리 능안이 있다.

[유래] 거둔사 짐대(당간지주)를 채석한 곳이므로 짐대골이라 하였다.

탄가마 [마을] → 탄막

탄가마골 [골]

[위치] 사기막골 옷사기막에서 서쪽으로 사방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탄가마골들 [들]

[위치] 탄가마골 앞의 작은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탄막들(灘幕坪)’이라고 하였다.

탄막(炭幕) [마을]

[위치] 탄가마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탄가마’라고도 하였다.

[유래] 숲을 굽던 곳이므로 ‘탄가마’, ‘탄막’이라 하였다.

탄막들 [들] → 탄가마골들

터주골 [골] → 텃골

텃골 [골]

[위치] 옷작실 작실골 끝에서 북동쪽으로 촉새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논골 남동쪽에 있

다. ‘터주골’이라고도 한다.

텃골앞들 [들]

[위치] 옷작실 텃골 위, 텃골에 있는 저수지 아래의 들을 말한다.

평장개 [골]

[위치] 작실골(3) 남쪽, 능골(2)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평장개들 [들]

[위치] 상부론의 평장개 골짜기 입구, 사기막천 서쪽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평장기들(平長浦坪)’이라 하였다.

평촌(坪村) [마을] → 벌말

평촌들 [들] → 벌말들

하부론동 [마을]

[위치] 부론 마을 중 부론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랫부논골’, ‘아랫부론골’이라고도 한다.



「하부론동 마을 ; 2019년」

함박골 [골]

[위치] 큰자장골 동쪽 맞은 편 산막골에서, 남동쪽으로 34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집대골 남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해남고개 [고개]

[위치] 산막골에서 동쪽으로 용암리 능안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향적들 [들] → 상작들

법천리(法泉里)

[위치]

법천리는 부론면 소재지로서 부론면의 서쪽 남한강 옆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손곡리와 정산리, 서쪽으로는 남한강을 경계로 충북 충주시 양성면, 남쪽으로는 정산리, 북쪽으로는 흥호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부론면(富論面)의 이리(二里)·삼리(三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개치·골말·도시랑·서원말·좀재·장평을 합병하여 법천리(法泉里)라 하여 원주군 부론면 법천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부론면 법천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부론면 법천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함에 따라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가 되었다.

[유래]

신라 말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법천사(法泉寺)가 있었으므로 법천골이라 하다가 법천리(法泉里)로 정착되었다.

개사리보 [보]

[위치] 개치에 있던 법천천의 보(洑)를 말한다.

개치(開峙) [마을]

[위치] 부론면의 중심 마을로 면소재지이다. 창말 남쪽, 법천사지 서쪽에 남한강을 끼고 발달한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기치(法泉)’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개치(開峙)’라 하였다.

[유래] 고개가 있는 나루터에 마을이 섰으므로 개치라고 하였다.

[내용] 부론면의 중심 마을이다. 옛날 현재의 부론 초등학교터에는 돌무더기 사이로 밀밭이 있었으며, 현재의 시장 거리에는 집이 없었다. 안말과 골말, 양샫 쪽에만 집들이 있었고, 학교 앞 개치나루 언덕에 10여 호의 집과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학교 남쪽 150여m 지점에 미륵불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그 자리에 신사를 짓고 미륵불은 앞산으로 옮겼으나 1990년 여름에 도난당한 후 그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마을에서 면화와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한다.

[풀이] ‘개’는 강이나 내에 물이 드나드는 포구를 말하며 ‘치’는 고개를 뜻한다. 따라서 ‘개치’는 ‘나루에 있는 고개’, 또는 ‘고개 너머 나루’의 뜻이다.



「개치 마을 : 2019년」

개치나루 [나루]

[위치] 개치 남서쪽, 법천천 입구에 있는 남한강의 나루를 말한다. 충북 충주시 양성면으로 가는 나루로 현 남한강대교가 있는 곳이다. 『조선지리지』

『개치나루(法泉津)』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개치나루’라 하였다.



「개치나루 : 2019년」

개치서낭 [당]

[위치] 부론초등학교 동쪽, 개치 중심 상가 도로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부론면의 중심 상가 도로에 있는 수령 약 300년의 느티나무이다. 마을의 당산목이다.



「개치서낭 : 2019년」

개치유적 [유적]

[위치] 부론초등학교 후문 서쪽에 있는 들과 버덩의 유적을 말한다.

[내용] 구릉 전체의 광범위한 지역에 유적이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석기시대 유물인 뽕석기와 빗살무늬토기,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 초기철기시대의 두드림무늬토기가 발견되었다. 이곳이 삼국의 접경지였으므로 백제와 신라의 무덤 양식, 백제 토기류, 청자 등이 발굴되었으며 부근

의 돌널무덤에서 양형청자, 숯돌, 돛자리무늬항아리, 철제검 등의 여러 유물이 출토되었다.

개치재 [고개]

[위치] 서원말, 도시랑에서 서쪽으로 개치로 넘는 고개를 말한다. ‘까치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까치지(加峙)’라 하였다.

거란족격퇴지 [고개] → 불근덕고개

[위치] 도시랑과 장뜰에서 매골로 넘어가는 ‘불근덕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고려 고종 4년(1217)에 김취려 장군이 이곳에서 거란족을 이겨 물리쳤다고 한다. 김취려 장군은 도망가는 적군을 계속 추격하여 박달재에서 다시 크게 무찔렀다고 전한다.

건너보 [보]

[위치] 개치에 있던 법천천의 보(湫)를 말한다.

건너보들 [들]

[위치] 건너보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건너보들’이라 하였다.

고래들 [들]

[위치] 개치 뒤에 있는 들을 말한다. 수령논이 많다. ‘고랫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고랫들’이라 하였다.

[유래] 바닥이 깊숙하고 물길에 좋아 기름진 논이므로 고래들이라 하였다.

고래보 [보]

[위치] 고래들에 딸린 보(湫)를 말한다. ‘고랫보’라고도 한다.

고랫들 [들] → 고래들

고랫보 [보] → 고래보

고사리골 [골]

[위치] 서원말 남쪽, 법천사 당간지주가 있는 곳에서 남동쪽으로, 조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고사리골’이라 하였다.

[유래] 고사리가 많이 나는 곳이므로 고사리골이

라 하였다.

고사리골저수지 [못]

[위치] 고사리골 입구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수전저수지’, ‘수전이저수지’라고도 한다. 1963년에 준공하였다.

곡촌(谷村) [마을] → 골말

골말 [마을]

[위치] 개치 왜가마 동쪽 산너머, 법천사지 남서쪽 법천천 건너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한자로 ‘곡촌(谷村)’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골말(谷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골말(곡촌)’이라 하였다.



「골말 마을 ; 2019년」

골통골 [골]

[위치] 돌개들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광암사지(廣巖祠址) [터] → 도동서원지

[위치] 현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터의 서쪽 위 능선에 있던 사당터를 말한다.

[유래] 『산중일기』를 쓴 우담 정시한(1625~1707)을 봉안하였던 곳으로 건립과 철폐 연대는 알 수 없다. 강당 터로 보이는 초석이 있고 하마비도 발견되었다. 강당 터에는 해방 후까지 건물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 사당이 있었으므로 마을 이름이 서원말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금박고개 [고개]

[위치] 금박골 서쪽 위, 자작고개 남쪽 아래의 고

개를 말한다.

금박골 [골]

[위치] 좀재 남쪽 남한강 변에서 동쪽 자작고개 남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정산리와 경계가 되는 골짜기이다.

까치재 [고개] → 개치재

남달이골 [골]

[위치] 숯가마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남달이골은 다시 중간에서 갈라져 북쪽으로는 잣나무고개로, 동쪽으로는 289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진다.

논저리 [마을]

[위치] 숯가마골 남쪽 위, 논저리고개 북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논저리고개 [고개]

[위치] 숯가마골에서 남쪽으로 정산리 지르네미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능선 동쪽에 숯가마고개가 있고 남서쪽에는 장자울고개가 있다. 고개 높이는 180m이다.

당간지주(幢竿支柱) [유물] → 법천사지 당간지주

대명광산 [광산]

[위치] 산수골 위에 있던 옛 금광을 말한다.

도동사(道東祠) [당] → 도동서원지

도동서원지(道東書院址) [터]

[위치] 서원말에 있는 서원터를 말한다. ‘광암사터’라고도 한다.

[내용]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을 제향하던 서원 터이다. 향현사(鄉賢祠) 또는 광암사(廣巖祠)로 불리웠으나 『우담문집(愚潭文集)』에는 1711년 2월에 도동사(道東祠)가 세워지고 1717년 가을에 도동서원이 완성되어 1721년 9월에 위판(位版)을 봉안하고 제를 올렸다고 하였다.

도맹실(盜孟室) [터] → 자우실골

도사랑(都舍郎) [마을] → 도시랑

도시랑 [마을]

[위치] 서원말 북쪽, 장돌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도시랑(도사랑)’이라 하였다.

[유래] 법천사에 오는 수도승들이 거쳐하던 사랑채가 있었으므로 ‘도사랑’이라 하였는데 음운이 변하여 ‘도시랑·도시랑이·도시랭이’로 불렸다. 법천사가 창건되고 전국 각지에서 수도나 학문을 닦기 위해 모여든 사람이 천여 명에 이르렀다 한다.



「도시랑 마을 : 2019년」

도시랑이 [마을] → 도시랑

도시랭이 [마을] → 도시랑

도시랭이들 [들]

[위치] 도시랑 마을 남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장평앞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장평앞들(도시랭이들)’이라 하였다.

도시랭이보 [보]

[위치] 도시랑 동쪽에 있는 법천천의 보(淤)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도시랭이보’라 하였다.

도요지(陶窯址) [터]

[위치] 서원말 법천사지의 현 당간지주 서쪽 법천천 냇가에 있던 도요지를 말한다. 홍수로 유실되고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내용] 도자기편과 흙덩이, 자기 받침으로 사용된 굽 모양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법천사에서 운영

하던 도자기 가마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돌개들 [들]

[위치] 산수동 마을에서 남동쪽 위로 돌개저수지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들을 따라서 531번 부귀로가 나 있다. ‘석거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들기평(甓介坪)’, ‘석거들(石巨坪)’이라고 하였다.

돌개저수지 [못] → 산수동저수지

돌고개 [고개] → 자작고개

뒷산 [마을]

[위치] 양삿 마을 중 뒷산(1)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후산동(後山洞)’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뒤산(후산)’이라 하였다.

뒷산(1) [산]

[위치] 용마산 남서쪽, 양삿 북동쪽에 있는 높이 166.5m의 산을 말한다. 법천리와 흥호리 경계가 되는 산줄기에 있다. ‘후산(後山)’이라고도 한다.
[유래] 예전 이 지역 중심 마을인 양삿의 뒤쪽에 있으므로 뒷산이라 하였다.

뒷산(2) [산]

[위치] 도시랑 마을 뒤에 있는 높이 174m의 산을 말한다.

뒷산들 [들]

[위치] 양삿 서쪽, 뒷산(1) 남쪽에 있는 들이다.

뒷산저수지 [못]

[위치] 양삿 동쪽, 뒷산(1) 아래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뒷산저수지’라 하였다.

매곡(梅谷) [마을] → 매골

매곡들 [들] → 매골들

매곡보 [보] → 매골보

매골 [골]

[위치] 매골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매골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매골 [마을]

[위치] 도시랑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매곡’, ‘매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미골(梅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매골(매곡)’이라 하였다.

[유래] 매화나무가 많았으므로 매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옛날 이곳에 매를 가지고 꿩 사냥하던 사람이 살아서 매골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매골고개 [고개]

[위치] 매골에서 북서쪽으로 흥호리 아채와 창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소리개고개 남서쪽 능선에 있다. 높이는 130m이다.

매골들 [들]

[위치] 매골 마을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미골들(梅谷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매곡들’이라 하였다.

매골보 [보]

[위치] 매골 마을 앞에 있는 보(洑)를 말한다. 매골들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매곡보’라고 하였다.

매골산 [산]

[위치] 매골 마을 서쪽에 있는 높이 243m의 산을 말한다.

매골 [마을] → 매골

멧가마 [마을] → 왜가마

명봉산 [산]

[위치] 장뜰 남동쪽, 숯가마골과 자우실골 사이에 있는 높이 147m의 산을 말한다.

바람골 [골] → 흥호리 바람골

[위치] 수영봉에서 북서쪽으로, 검단리로 내려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박석고개 [고개]

[위치] 버덩말에서 동쪽으로, 도시랑으로 넘어가던 고개를 말한다.

[유래] 이 고개에 바위가 있었으므로 박석고개라

하였다고 한다.

[내용] 옛날에는 좁은 오솔길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으나 1940년대 초에 큰길이 났고 1990년에 포장되었다.

버덩말 [마을]

[위치] 개치에 있는 마을로 현 부론우체국과 부론성당이 있는 곳을 말한다. ‘버령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덩말’이라 하였다.

[유래] 남한강의 범람으로 쌓인 퇴적층 위에 발달된 버덩에 있는 마을이므로 버덩말이라고 하였다.



「버덩말 마을 ; 2019년」

버령말 [마을] → 버덩말

법천골 [마을] → 법천리

법천사지(法泉寺址) [터]

[위치] 법천리 산70번지에 있는 옛 법천사 절터를 말한다.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봉명산(鳳鳴山)에 있다고 하였다. 태재(泰齋) 유방선(柳方善)이 이 절에서 학문을 강의하였다고 하였고, 권람·한명회·강효문·서거정 등이 이곳에서 공부하였으며 그들이 탑에 쓴 시가 지금도 있다고 하였다.



「법천사지 ; 1912년」



「법천사지 ; 2018년」

법천사지 당간지주(幢竿支柱) [유물]

[위치] 법천리 74-2번지 법천사지 경내에 있는 당간지주를 말한다. ‘짐대’라고도 한다.

[내용] 1984년 문화재자료 제20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3.9m로 고려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천사지 당간지주 ; 2018년」

법천사지 석조물부재(石造物部材) [유물]

[위치] 법천리 74-2번지 법천사터 경내에 있는 석탑부재, 불상, 광배, 배례석, 연화문대석 등의 석조물을 말한다.

법천사지 지광국사탑(智光國師塔) [탑]

[위치] 법천리 산70번지 법천사터에 있던 지광국사의 승탑을 말한다.

[내용] 이 탑은 지광국사의 사리를 모신 것으로 입적 직후인 1070년경에 세워졌으며, 탑비의 서쪽 옆에 서 있었다. 1912년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었다가 1915년 반환되어 경복궁 경내로 옮겨졌다. 한국전쟁 때 포탄의 피해로 심하게 부서져 조각나 흩어져 있는 것을 1957년 복원하였다.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경복궁의

대부분 석조물들이 옮겨갔으나, 이 탑은 파손의 위험으로 인하여 그대로 남게 되었다가 현재 해체 복원한 후 법천사의 원래 위치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 탑은 고려시대 석탑 중 최고의 걸작으로 공인받고 있으며, ‘아름다워서 슬픈’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국보 제101호이다.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 1911년」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 2011년」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智光國師塔碑) [비]

[위치] 법천리 산70번지 법천사터에 있는 지광국사탑비를 말한다.

[내용] 지광국사의 속명은 해린(海麟)으로, 고려 성종 3년(984)에 원주(原州)에서 태어났다. 목종 2년

(999)에 용흥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역대 왕의 우대를 받았으며 문종 10년(1056)에 왕사, 1058년에 국사가 되었다. 문종 21년(1067) 84세로 법천사에서 세상을 떠났다. 비는 고려 선종 2년(1085)에 세웠다. 높이 4.55m로 고려시대 석비의 특징적인 양식을 보이는 걸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보 제59호이다.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 1912년」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 2018년」

법천사짐대 [유물] → 법천사지 당간지주

법천장터 [장] → 장터

법천제방 [둑]

[위치] 개치 남쪽, 개치나루에서 법천교까지 법천천에 쌓은 둑을 말한다. 안말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둑이다.

법천천(法泉川) [내]

[위치] 손곡리 봉림산에서 발원하여 현계산의 물을 모아 손곡저수지에 머물렀다가 법천리를 경유, 안말 앞에서 남한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서원말개울', '원촌천'이라고도 한다.

[유래] 법천사를 지나므로 '법천천'이라 하였다. 서원말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서원말개울', '원촌천(院村川)'이라고도 한다.

보통골 [골]

[위치] 산수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보통골'이라 하였다.

보통골들 [들]

[위치] 보통골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보통곡들(甫通谷坪)'이라고 하였다.

불근덕고개 [고개]

[위치] 도시랑, 장뜰에서 북동쪽으로, 매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장뜰 북쪽의 곳처럼 나온 작은 산등성을 넘는 고개로 고갯길에 현 법후로가 나 있다. 『조선지리지』에 '불근덕이(紅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불근덕고개'라 하였다.

[유래] 흙빛이 붉어서 불근덕고개라 하였다. 고려 고종 4년(1217)에 김취려 장군이 거란족을 크게 물리친 고개라고 전한다.

사당골 [골]

[위치] 새터말에서 북서쪽으로, 매골고개와 소리개고개 사이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예전에 사당이 있었으므로 사당골이라 하였다.

산수골(山水-) [마을] → 산수동

산수동(山水洞) [마을]

[위치] 개치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산수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산수췌(山水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산수골(산수동)'이라 하였다.

[유래] 산의 물맛이 좋으므로 산수골, 산수동이라 하였다 한다. 또는 산과 물이 맞닿은 마을이므로 산수골, 산수동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산수동 마을 ; 2019년」

산수동 앞들 [들]

[위치] 산수골 북동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산수골 앞들'이라 하였다.

산수동저수지 [못]

[위치] 산수동 남동쪽, 자작고개 북서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좀재고개 동쪽에 있다. '돌개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돌개저수지'라 하였다.

[유래] 돌고개 아래에 있으므로 '돌개저수지', 산수동 위에 있으므로 '산수동저수지'라고 한다.



「산수동저수지 ; 2019년」

삼상골(三相-) [골]

[위치] 개치 동쪽, 현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정범조(丁範祖) 묘소가 있다.

새터말 [마을]

[위치] 매골 동쪽, 법천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서리개 [마을] → 소리개

서리개고개 [고개] → 소리개고개

서원(書院) [마을] → 서원말

서원말 [마을]

[위치] 법천사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서원’, ‘원촌’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서원말(院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서원말(원촌)’이라 하였다.

[유래] 옛 법천사지에 들어선 마을로, 절이 없어진 뒤에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 ‘서원말’, ‘원촌’이라고 한다.

[내용] 조선 세종 때 태재(泰齋) 유방선(柳方善)이 법천사에서 글을 가르쳤던 곳이다.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을 제향하던 도동서원(道東書院)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서원말 마을 ; 1965년」

서원말개울 [내] → 법천천

[위치] 법천천의 다른 이름이다. 서원말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서원말개울’이라 부른다. 『조선지리지』에 ‘서원말기울(院村川)’이라 하였다.

서원보 [보]

[위치] 서원말 앞에 있는 법천천의 보(淤)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서원보’라 하였다.

석거들 [들] → 돌개들

소리개 [마을]

[위치] 매골 북쪽, 수영봉 마을 서쪽, 소리개고개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서리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소리개’라 하였다.

[유래] 항상 응달인 지역이어서 이 부근에서는 서리가 가장 먼저 오는 곳이므로 ‘서리개>소리개’라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소리개’라고 한다.

소리개고개 [고개]

[위치] 소리개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흥호리 아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30m이다.

숨재 [마을] → 쯤재

쇠고개 [고개]

[위치] 수영봉 마을에서 남쪽으로 법천천 건너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수양고개 [고개] → 수영고개

수양봉 [마을] [산] → 수영봉

수영봉 [마을]

[위치] 수영봉 남쪽 아래, 법천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수양봉’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영봉’이라 하였다.

수영봉(守英峰) [산]

[위치] 검단 남동쪽, 매골고개 북쪽에 있는 283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법천리와 정산리, 흥호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산 남동쪽 아래에 수영봉 마을이 있다. ‘수양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쉬양봉산(垂陽峰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수양봉(수영봉)’이라 하였다.

[유래담] 신선들이 와서 바둑을 두고 놀았으므로 수영봉이라 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바둑판이 그려진 바위가 있다고 한다. 또는 법천천 옆에 절벽이 있는데 우뚝 솟은 바위산에서 수양하기 좋다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도 한다.



「수영봉 ; 2019년」

수영봉보 [보]

[위치] 수영봉 마을 앞에 있는 법천천의 보(淤)를 말한다.

수전골 [골]

[위치] 법천사 당간지주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자우실골 남쪽에 있다. ‘수전이’라고도 한다.

수전이 [골] → 수전골

수전이저수지 [못] → 고사리골저수지

수전저수지 [못] → 고사리골저수지

숫가마고개 [고개]

[위치] 장뜰에서 남동쪽으로 숫가마골 골짜기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남동쪽 고개 너머에는 거둔사터가 있다. 높이는 185m이다.

[내용] 법천사와 거둔사를 오고가던 지름길이다.

숫가마골 [골]

[위치] 장뜰에서 남동쪽으로 숫가마고개를 향하여 나 있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중간에서 남달이골이 동쪽으로 갈라져 나가고 골짜기 한쪽 끝은 풍점고개에, 또 다른 끝은 숫가마고개에 닿는다.

[유래] 숫을 굽던 가마가 있었으므로 숫가마골이라고 하였다.

숫가마골 [마을]

[위치] 숫가마골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 너머에 정산리 풍점골이 있다. 이

를 한자로 적어 ‘탄부동(炭釜洞)’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숫가마골(炭釜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숫가마골’이라 하였다.

시장 [장] → 장터

신사터미륵 [불상]

[위치] 법천리 앞산 옛 신사터에 있던 미륵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사터 미륵’이라 하였다.

[유래] 원래 개치의 면사무소 남쪽 밭에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신사(神社)를 짓고 이곳으로 옮겼다가, 1990년대에 도난당하였다.

신촌(新村) [마을] → 좀재

안말 [마을]

[위치] 개치 마을 중 남쪽 법천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부론교회와 법천교가 있는 곳이다.

[유래] 개치나루에서 보아 강의 안쪽에 마을이 있으므로 ‘안말’이라 하였다.



「안말 마을 ; 2019년」

안말유적 [유적]

[위치] 안말과 산수동 사이 산수동 앞들에 있는 유적지를 말한다. 무문토기와 함께 붉은 간토기가 발굴되었다.

앞산 [산]

[위치] 개치 남쪽, 개치나루 남동쪽에 있는 높이 85m의 산을 말한다.

양사지 [마을] → 양삿

양삿 [마을]

[위치] 개치 북쪽, 창말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양사지’, ‘양호(良湖)’, ‘양호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양쇼왓(良湖)’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사지(양호)’라 하였다.

[내용] 옛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로, 원래는 섬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합수지점에서 현 개치 벵딩말에 이르는 강변의 마을을 통칭하던 이름이다. 주막이 많은 변화가였으나 1950년대에는 7가구가 살다가 한국전쟁 때 모두 불타고 마을은 논밭으로 변했다.

양삿나루 [나루] → 양호나루

양쇼왓 [마을] → 양삿

양호(良湖) [마을] → 양삿

[유래] 옛날에는 강이 호수처럼 잔잔하여 양호라 하였다.

양호나루 [나루]

[위치] 양삿에 있던 나루를 말한다.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로 건너가는 나루로 흥호도선장이 있던 곳이다. ‘은섬포’, ‘섬구포’, ‘흥원진’, ‘양삿나루’, ‘창남나루’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양쇼왓나루(良湖津)’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양호나루’라 하였다.

[유래] 양삿나루가 호수처럼 잔잔하였으므로 양호(良湖)라고 하였다.

[내용] 섬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곳으로 일찍부터 수운이 발달하여 고려 초기부터 은섬포와 흥원창이 있었다. 이 앞에 흐르는 남한강은 물이 깊고 호수처럼 잔잔하며 물길이 활 모양으로 휘어 배를 대기에 좋았으므로 서울로 왕래하던 배들이 많이 정박하던 수운의 요지였다.

여울목 [소]

[위치] 개치나루 위에 있는 여울을 말한다. 『한국

지명총람』에 ‘여울목’이라 하였다.

와가마 [마을] → 왜가마

와부(瓦釜) [마을] → 왜가마

왜가마 [마을]

[위치] 개치 동쪽, 서원말 남서쪽 산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와부’, ‘멧가마’, ‘와가마’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멧가마(와부)’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기와를 굽던 가마가 있었으므로 ‘와가마>왜가마’라 하였다.



「왜가마 마을 : 2019년」

왜가마들 [들]

[위치] 왜가마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왜광들(倭浪坪)’이라 하였다.



「왜가마들 : 2019년」

용마산(龍馬山) [산]

[위치] 매골고개 남서쪽에 있는 높이 242.8m의 산

을 말한다. 법천리와 흥호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용마산’이라 하였다.

[유래] 이 산의 정기를 받아 임경업 장군과 용마(龍馬)가 났다고 전한다.

우지소 [소]

[위치] 산수골과 좀재 사이, 우질 마을 앞에 있는 남한강의 쇠(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우지소’라 하였다.

우질 [마을]

[위치] 산수동 남동쪽, 좀재 북쪽 남한강 변에 있던 작은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우지쇼(牛之沼)’라고 하였다.

원촌(院村) [마을] → 서원말

원촌천(院村川) [내] → 법천천

임경업(林慶業) 장군(將軍) 조부묘(祖父墓) [묘]

[위치] 법천리 매골 앞에 이중으로 되어있는 묘를 말한다.

[내용] 조선 인조 때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게 된 지사를 살려주고 이 자리를 얻어 쓴 후 임경업 장군을 낳았다고 전한다.

자우실골 [골]

[위치] 서원말 앞 서원교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숯가마골 남쪽, 수전골 북쪽에 있다.

자우실골 [터]

[위치] 법천리 자우실골에 있던 창고의 터를 말한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도맹실(盜孟室)’이라고도 한다.

[유래] 법천사에서 쓰던 그릇을 보관하던 곳이라고 한다.

자작고개 [고개]

[위치] 개치에서 산수동을 거쳐 남동쪽으로, 정산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말한다. 현 531번 부귀로가 나 있다. 높이는 120m이다. ‘돌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돌고개’라 하였다.



「자작고개 ; 2019년」

젓나무고개 [고개]

[위치] 남달이골에서 북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손곡리 젓나무골로 이어진다. 높이는 210m이다.

[유래] 고개 너머 손곡리 젓나무골이 있으므로 젓나무고개라 하였다.

장들 [마을] → 장뜰

장뜰 [마을]

[위치] 서원말 북동쪽, 도시랑 동쪽 법천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장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장들(壯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장평(壯坪)’이라 하였다.

[유래] 법천사의 장독을 묻었던 곳이므로 장뜰이라 하였다.



「장뜰 마을 ; 2019년」

장자울고개 [고개]

[위치] 수전골에서 남동쪽으로, 거둔사를 향하여 넘

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지르네미와 학 고개가 있다. 높이는 220m이다.

장터 [장]

[위치] 개치 중심가, 시장이 서는 곳을 말한다. ‘법천장터’, ‘시장’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시장(장터, 법천장터)’라 하였다.

장평(壯坪) [마을] → 장뜰

장평앞들 [들] → 도시랭이들

절터 [터] → 법천사터

절터골 [골]

[위치] 자작고개에서 동쪽으로 황학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예전에 절이 있었으므로 절터골이라고 하였다.

조산(造山) [산]

[위치] 황학산 북쪽, 고사리골 남쪽에 있는 높이 305.2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도산(造山)’이라고 하였다.

조음(朝陰) [마을] → 좀재

조음재 [마을] → 좀재

좀개나루 [나루] → 좀재나루

좀재 [고개]

[위치] 좀재에서 북동쪽으로, 돌개저수지를 향하여 난 고갯길을 말한다. 산수동, 개치로 가는 고갯길이다. 고개 높이는 110m이다.

[유래] 마을에서 북동쪽 산수동저수지로 넘어가는 작은 고갯길이 있었으므로 좀재라 하였다. 고개 이름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내용] 옛날에는 좁은 오솔길이었으나 1985년에 큰 길이 나고 포장되었다.

좀재 [마을]

[위치] 산수동 남쪽, 관터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솜재’, ‘신촌’, ‘조음(朝陰)’, ‘조음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솜재(新村)’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좀재(신촌)’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뒤에 작은 고개가 있으므로 ‘좀재’라 하였다.

[유래담] 지씨(池氏) 풍수가 정씨의 묘를 써 주고 이곳을 얻어서 새롭게 마을을 이룩하였는데 아침에 그들이 지는 고개라는 뜻에서 한자로 ‘조음(朝陰)’으로 부르다가 ‘좀재’가 되었다고 한다.

[풀이] 이 지역에 ‘좀’이 들어간 지명으로 ‘좀개’, ‘좀재’가 있다. 원래 어원은 ‘좀’으로, ‘좀+개>좀개’, ‘좀+재>좀재’가 되었다. 1985년에 도로가 나기 전 1967년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에 ‘마을 뒤에 작은 고개가 있다.’고 하였다. 마을 뒤에 작은 고개가 있으므로 ‘작다’는 뜻의 ‘좀(<조금)+재>좀재’가 되었다.

따라서 고개가 작으므로 ‘좀재’라고 하였고 ‘좀’을 음차하여 ‘조음(朝陰)’이라 하였으며 그 한자의 뜻을 다시 풀이하여 아침에 그들이 진다는 유래담이 생겼다.

[내용] 이 마을 서쪽 남한강 변에 이르는 넓은 곳에서 구석기와 신석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좀재 마을 : 2019년

좀재고개 [고개] → 좀재

좀재나루 [나루] → 좀개나루

[위치] 좀재 북쪽, 우질 마을 앞에 있던 나루를 말한다. 강 건너 충북 양성면 검단 마을을 연결하던 나루이다. ‘좀개나루’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

에 ‘좀이나루(新村津)’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좀재나루’라 하였다.

좀재선사유적 [유적]

[위치] 좀재 마을을 중심으로 남한강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있던 유적지를 말한다.

[내용] 석영암 굴개, 마제도끼, 마제석기, 경질무 문토기 등이 발굴되었다.

중간말 [마을]

[위치] 좀재 마을 북동쪽 위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유래] 좀재 마을과 좀재고개 중간에 있으므로 중간말이라고 하였다.

짐대 [유적] → 법천사지 당간지주

창남나루 [나루] → 양호나루

[유래] 강 건너 편에 여주군 ‘창남이고개’가 있으므로 ‘창남나루’라고도 하였다.

탄부동(炭釜洞) [골] → 숲가마골

품무골 [골]

[위치] 산수동에서 동쪽으로 황학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들버덩 [들]

[위치] 개치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한들버덩’이라 하였다.

[유래] ‘한’은 크다는 뜻이고 ‘들’과 ‘버덩’은 들, 또는 언덕진 곳을 말한다.

한숨바우 [바위]

[위치] 남한강 변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부인들이 속이 상할 때 이 바위를 찾아와 한숨을 쉰다고 한다.

향현사(鄉賢祠) [당] → 도동서원지

현묘탑비 [비] →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환두골 [골]

[위치] 매골 앞, 임경업 장군 조부 묘 옆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이곳에서 임경업 장군이 환도를 얻었다고 하여 환두골이라 하였다.

황학골 [골]

[위치] 산수골저수지에서 동쪽으로, 황학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황학산으로 들어가는 골짜기이므로 황학골이라 하였다.

황학산(黃鶴山) [산]

[위치] 개치 남동쪽, 정산리 거론 북서쪽에 있는 높이가 341.7m의 산을 말한다. 정산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조선지리지』에 ‘황학산(黃鶴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황학산(黃鶴山)’이라 하였다.

[풀이] 황(黃)자가 들어가는 산은 대체로 경사가 느리거나 산의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황’은 원래의 소리인 ‘누르’를 따왔을 가능성이 있다. ‘널·놀·눌’은 서로 비슷한 뜻으로 ‘너르·노르·누르’로 쓰인다. 황학산은 정상에 이 부근의 다른 산과 비교해서 넓기 때문에 ‘눌+악>놀악>누락’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뜻은 ‘넓은 산, 비탈이 느린 산, 줄기가 늘어진 산’ 등의 의미이다. ‘황(黃)’은 ‘놀·누르’의 뜻을, ‘학(鶴)’은 ‘악’의 소리를 음차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학산」; 2019년

후산(後山) [산] → 뒷산(1)

후산동(後山洞) [마을] → 뒷산

손곡리(蓀谷里)

[위치]

손곡리는 부론면에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문막읍 비두리, 서쪽으로는 법천리와 흥호리, 남쪽으로는 정산리와 단강리, 북쪽으로는 노림리·문막읍 후용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부론면(富論面)의 오리(五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구만이·알산·신촌·송정·서지·오리울·잣나무골·통점·별말을 병합하여 손곡리(蓀谷里)라 하여 원주군 부론면 손곡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부론면 손곡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부론면 손곡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함에 따라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가 되었다.

[유래]

‘북덕골’을 한자로 옮겨 적어 ‘손곡(蓀谷)’이라 하였다. 또는 고려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손위(遜位)하고 와 있었으므로 ‘손위실(遜位室)>손곡’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조선 중기의 시인 이달(李達, 1539~1612)이 이곳에 은거해 살면서 마을 이름으로 호(號)를 삼았다.

[풀이]

북덕골의 원래 지명은 부들골인데 ‘부들’은 습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로서 한자는 ‘蓀(향풀이름 손)’이라 쓴다. 따라서 ‘부들골’을 한자로 옮겨 적은 것이 ‘손곡(蓀谷)’이며 이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손위실’의 ‘실’은 골짜기를 뜻한다. ‘부들골’이 ‘손곡·손실’로 불리고 ‘손실’에 매개모음이 개입되어 ‘손+(ㅣ)+실>손이실’인데 이를 한자로 손위실(遜位室)로 기록하였다.

가랑골 [들]

[위치] 솔미 남서쪽에서 벌말 북동쪽 사이, 법천천을 따라 나 있는 들을 말한다.

거북바우 [바위]

[위치] 긴경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내용] 거북이 남한강을 향하여 기어가는 모습으로 거북바우라 하였다.

고랑들 [들] → 고랑지들

고랑지골 [골]

[위치] 오리울 새보들 동쪽 끝에서 동쪽으로, 높이 228.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랑지들 [들]

[위치] 고랑지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고랑들(古浪坪)’이라고 하였다.

공천천 [내]

[위치] 봉림산과 쌀개봉 아래의 서지골, 방아실골에서 서쪽으로 흘러 손곡저수지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손곡저수지 아래부터는 ‘법천천’으로 부른다. ‘구만이천’이라고도 한다.

구마니 [마을] → 구만이

구만벌들 [들] → 구만이들

구만이 [마을]

[위치] 오리울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구마니’라고도 하고 이를 한자로 적어 ‘귀만(歸晩)’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구만리(九萬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마니(귀만歸晩)’라 하였다.

[풀이] 구만이는 굴안, 즉 지형이 낮은 우묵한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지형이 낮고 우묵한 곳에 마을이 있으므로 ‘굴(穴, 孔)+안(內)>굴안>구만>구만이’가 되었다. ‘굴’은 구멍(穴, 孔)을 뜻하는 ‘굴’, ‘구무’에서 나온 옛말로 우묵한 낮은 곳을 뜻한다. 개운동 ‘구만이’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구만이’ 마을은 모두가 냇가 또는 강변의 낮은 곳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곳도 구만이재 아래 산으로 둘러싸여서 낮은 곳으로 인식되었다. ‘歸晩’, ‘九萬里’는 ‘굴안이>구만이’를 음차하여 소리를 적은 것이다.

구만이개울 [내] → 구만이천

구만이들 [들]

[위치] 구만이 마을 서쪽, 공천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구만벌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마니들’이라 하였다.

구만이재 [고개]

[위치] 구만에서 남쪽으로, 귀래면 용암리 능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마니재’라 하였다.

[내용] 구만에서 능골로 가는 길은 ‘구만이>서지골>능안고개>능골’이다. 길은 곧지만 무척 긴 고갯길이다.

구만이천 [내]

[위치] ‘공천천’의 다른 이름이다. 구만이 마을 앞을 흐르므로 ‘구만이천’이라고 부른다. ‘구만이개울’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마니개울’이라 하였다.

구석골 [골]

[위치] 오리울들 서쪽 길 건너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18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너머에 아랑지안골이 있다. ‘구억골’이라고도 한다.

구석들 [들]

[위치] 구석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구억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구억평(九億坪)’이라 하였다.

[풀이] ‘구석>구석>구억’으로 변천하였다.

구억골 [골] → 구석골

구억들 [들] → 구석들

궁터 [터]

[위치] 궁터골 입구, 현 양지목장 뒤에 있는 터를 말한다.

[유래] 고려 공양왕이 유배 와서 머물던 궁의 터라고 전한다.

궁터골 [골]

[위치] 양지말 긴골과 황수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양지목장 뒤에서 긴경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귀만(歸晩) [마을] → 구만이

금광골 [골]

[위치] 새보들 남쪽, 공천천 건너에 있는 옛 금광을 말한다.

금정산 [산]

[위치] 서지골 청림사(靑林寺) 뒤, 쌀개봉이 있는 산을 말한다.

[유래] 1990년대 청림사를 지으면서 임의로 지은 산 이름이다.

긴경산 [산]

[위치] 양지말 북쪽, 황수골 북쪽 끝에 있는 높이 352.9m의 산을 말한다. 백운산 줄기로 손곡리, 노림리, 흥호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경경산’, ‘경정산’이라고도 한다. 『조선환여승람』에 서쪽으로 40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경정산(敬亭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경경산’이라 하였다.

긴골 [골]

[위치] 양지말에서 북서쪽으로, 긴경산 줄기인 높이 297.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길산 [산] → 현계산

[유래] 산봉우리가 평평하고 길므로 길산이라고도 부른다.

깃대봉 [산] → 솔미산

[위치] 부문재 남서쪽, 긴경산 북동쪽에 있는 높이 261.6m의 산을 말한다. ‘솔미산’이라고도 한다.

내산곡(內山谷) [마을] → 알산골

내산동(內山洞) [마을] → 알산골

너럭바위 [바위]

[위치] 긴경산에서 남서쪽으로 수영봉을 향하여 내려오는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논골 [골]

[위치] 새말 식량골 위, 만다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44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도요지터에서 남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골짜기에 논이 있으므로 논골이라 하였다.

능안고개 [고개]

[위치] 서지에서 남동쪽으로, 봉림산 동쪽 능선을 넘어 귀래면 용암리 바깥능안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봉림산 동쪽, 방아재 서쪽 능선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높이는 460m이다.

단동리골 [들]

[위치] 말개들 남쪽, 새말 서쪽에 있는 들이다.

달맞이봉 [산]

[위치] 송정 북쪽에 있는 높이 225.1m의 산을 말한다. ‘만세봉’이라고도 한다.

덕고개 [고개] → 박수고개

도덕골 [골] → 도둑골

도둑골 [골]

[위치] 알산골의 사막골에서 북서쪽으로 박수고개를 향하여 이어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도덕골’이라고도 한다.

도둑포골 [골]

[위치] 도둑골 끝에서 북동쪽으로 다시 이어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부문재가 있다.

동점(銅店, 洞帖) → 통점

동척광산(東拓鑛山) [광산] → 신흥광산

뒤골 [골]

[위치] 오리울에서 북동쪽으로 비두네미고개 서쪽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뒤산뒤골 [골]

[위치] 능골 끝에서 남동쪽으로, 225.1m 봉우리를

향하여 다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남쪽 너머에 손곡저수지와 송정 마을이 있다.

뒷골 [골]

[위치] 솔미 앞 가랑골에서 북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은골 동쪽, 솔미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기들 [들] → 말개들

마당매기 [마을]

[위치] 구만이 비두재골 중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한 집이 살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마당매기’라 하였다.

마당매기골 [골]

[위치] 마당매기에서 동쪽으로, 쌀개봉 줄기인 높이 456.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만논골 [들]

[위치] 새말 앞에서 남동쪽으로 오리를 북독골을 향해 나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마논들(萬論坪)’이라고 하였다.

만대고개 [고개] → 만디고개

만대골 [골] → 만디골

만대들 [들] → 만디들

만대산(萬垔山) [산]

[위치] 만디골 만디고개 서쪽에 있는 374.2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문막읍 궁촌리와 경계를 이룬다. 산 동쪽 아래에 만디고개가 있고 그 동쪽에는 443.4m의 상봉산이 있다. ‘만디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만딕(萬垔山)’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만대’라 하였다.

만디고개 [고개]

[위치] 새말 북동쪽, 만디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북쪽으로 문막읍 궁촌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 궁촌리 만디골이 있다. ‘만대고개’라고도 한다. 높이는 287m이다.

만디골 [골]

[위치] 새말에서 식량골을 지나 북쪽 만디고개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문막읍 궁촌리 만디골이 있다. ‘만대골’이라고도 한다.

만디들 [들]

[위치] 논골 북쪽 위, 만디골 안에 있는 들을 말한다. ‘만대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만디들(萬垔坪)’이라고 하였다.

만디산 [산] → 만대산

만세봉 [산] → 달맞이봉

말개들 [들]

[위치] 알산골 남쪽, 새말 북서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마기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마기들(馬旗坪)’이라고 하였다.

문앞골 [들]

[위치] 손곡저수지 동쪽 위, 송정저수지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송정 마을 남동쪽에 있다.

미사리들 [들]

[위치] 별말 서쪽, 양짓말 남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박수고개 [고개]

[위치] 알산 별감골에서 북서쪽으로, 노림리 광명터와 노술으로 넘어가는 박수골의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덕골이 있고 덕골 아래에 광명터가 있다. ‘덕고개’라고도 한다. 높이는 185m이다.

[유래] 손곡리 박수골에 있으므로 ‘박수고개’, 고개 너머에 노림리 덕골이 있으므로 ‘덕고개’라고도 부른다.

박수골 [골]

[위치] 별감골 중간에서 북서쪽으로, 박수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발간골 [골] → 별감골

방아들 [들] → 방아실들

방아실 [마을]

[위치] 서지재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방아실(坊我室)’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방아실’이라 하였다.

[유래] 지형이 디딜방아처럼 Y자형으로 생겼으므로 방아실이라 하였다.

[내용] 이곳 지명은 서지와 방아실이 혼동되어 나타나고 있다. ‘서지골’과 ‘방아실골’, ‘서지재’와 ‘방아실고개’ 등이 겹치는 수가 많다.

[풀이] ‘방아실’이라는 지명은 골짜기의 모양이 Y자일 때 붙는 이름이다. Y자의 골짜기가 디딜방아를 닮았기 때문이다.

방아실고개 [고개] → 서지재

[유래] 손곡리의 방아실 마을과 귀래면 귀래리의 방아실 마을을 연결하는 고개이므로 ‘방아실고개’라고도 한다.

방아실골 [골]

[위치] 서지골 끝 부분에서 동쪽으로 서지재(방아실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방아실들 [들]

[위치] 방아실골에 있는 작은 들을 말한다. ‘방아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바아뜰(飛蛾坪)’이라고 하였다.

방아재 [산]

[위치] 마루산(558m) 남서쪽에 있는 높이 568m의 산을 말한다. 능안고개 동쪽에 있는 산으로 귀래면 용암리와 경계를 이룬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방아지(舂峴)’라고 하였다.

배양산 [산] → 배향산

배향산(拜向山) [산]

[위치] 손곡리 동쪽, 손곡저수지 북쪽에 있는 높이 214.4m의 산을 말한다. ‘배양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고려 말 공양왕이 손곡리에 유배 와서 있을 때 눈물과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매일같이 이 산에 올라 향을 피우고 개성 쪽을 향해 절을 하였으므로 배향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고려의 멸망을 원통해 하는 이런 사실이 이성계에게 알려져 결

국 유배지를 더욱 먼 곳으로 옮기는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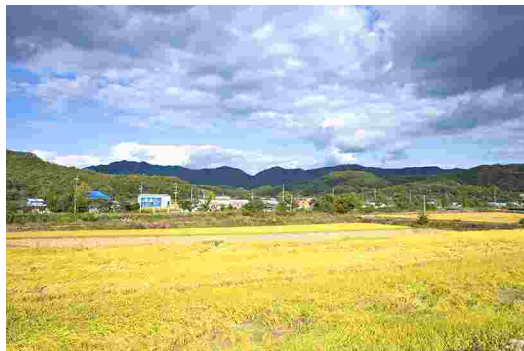
백자동(栢子洞) [마을] → 잣나무골

백자동저수지 [못] → 잣나무골저수지

벌말 [마을]

[위치] 긴경산 남쪽 아래, 손곡리에서 가장 큰 마을을 말한다. 손곡초등학교가 있던 곳이다. ‘평촌(坪村)’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벌말(평촌)’이라 하였다.

[유래] 법천천이 두 갈래로 갈라져 마을의 남쪽과 북쪽을 흐르면서 넓은 들이 형성되었다. 넓은 들에 마을이 섰으므로 벌말, 평촌이라 하였다.



‘벌말 마을 ; 2019년

벌말들 [들]

[위치] 벌말 앞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벌말들’이라 하였다.

벌말장승 [장승]

[위치] 벌말 마을 앞 삼거리에 있는 돌장승을 말한다.

[내용] 도로 양쪽에 돌로 깎은 장승이 서 있다.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에 장승제를 지낸다. 원래는 매년 제사 때마다 나무로 장승과 솟대(학)를 깎고 제사를 지냈으나 1990년대 후반에 돌로 만들어 세웠다. 아직도 학은 두 마리씩 깎아 각각 장승의 옆에 세운다.

법천천(法泉川) [내]

[위치] 손곡리 봉림산에서 발원하여 현계산의 물

을 모아 손곡저수지에 머물다가 법천리를 경유, 안말 앞에서 남한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손곡천’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법천천(法泉川)’이라 하였다.

[유래] 법천리를 경유하여 법천리에서 남한강에 합류하므로 ‘법천천’이라 하였다. 손곡리에서 발원하므로 ‘손곡천’이라고도 한다.

별감고개 [고개] → 부문재

[위치] 별감골 북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후용고개’, ‘부문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별감고기(碧岩峴)’, ‘별강고기(別江峴)’라 하였다.

[유래] 손곡리의 별감골에 있으므로 ‘별감고개’, 문막읍 후용리로 넘어가므로 ‘후용고개’, 부론과 문막읍을 연결하는 고개이므로 ‘부문재’라고도 한다. 현재 부문재로 통용되고 있다.

[풀이] ‘별감(碧岩)·별강(別江)’은 벼랑을 표기한 것이다. ‘벼랑’은 ‘별+양>별양>벼랑’으로서 ‘별감(碧岩)·별강(別江)’은 벼랑의 소리를 적은 것이다. 옛 기록에 벼랑은 ‘별(別)·성(星)·연(硯)·벽진(碧珍)’ 등으로 적었는데 이 중 ‘벽진(碧珍)’의 ‘벽(碧)’은 소리 ‘벼’를 적은 것이고 ‘진(珍)’은 ‘돌’을 표기한 것으로 이때 ㄷ이 탈락되어 ‘을’소리만 나므로 ‘벽진(碧珍)’은 ‘벼(ㄱ)+ㄹ>별’로 읽혔다. 산에 벼랑이 있으므로 ‘별감골·별강골·별감고개·별강고개’라 하였을 것인데 이 산은 육산이라 바위벼랑은 없으므로 벼랑 같은 급한 산비탈의 뜻으로 이러한 지명들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별감골 [골]

[위치] 알산교에서 북쪽으로 별감고개(부문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이다. ‘발간골’이라고도 한다.

별강고개 [고개] → 별감고개, 부문재

별풍바우 [바위]

[위치] 긴경산 남서쪽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보천리(普天里) [마을]

[위치] 쌀개봉 남쪽 아래 현 청림사가 있는 곳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포천리라고도 한다.

[유래담] 임진왜란 때 왕족들이 피난을 온 곳이라고 전한다.

봉림산 [산]

[위치] 귀래면 미륵산 서쪽, 서지고개의 남동쪽 능선에 있는 높이 543.3m의 산을 말한다. 손곡리와 단강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부들골 [골] → 북덕골, 북독골

부론골 [골]

[위치] 서지골 서지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현계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서지골(2)의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론초등학교 손곡분교 [학교]

[위치] 손곡1리 1382번지, 별말에 있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마을 유지 박영선이 땅을 희사하여 1950년 3월 31일 부론국민학교 손곡분교장으로 인가되었다. 1953년에 손곡국민학교로 승격하였고, 1999년 부론초등학교에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부론초등학교 손곡분교 ; 2019년」

부문재 [고개]

[위치] 알산골에서 별감골을 거쳐 문막읍 후용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 법후로가 지나가고 있다. ‘별감고개’, ‘별강고개’, ‘후용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부문재(후용리고개)’라 하였다.

[유래] 손곡리의 별감골에 있으므로 별감고개, 문막의 후용리에 있으므로 후용고개, 1965년 이 고

갯길을 개통하면서 부론면과 문막읍의 첫 글자를 따서 부문재라고 하였다. 현재 부문재로 통용되고 있다.

북덕골 [골]

[위치] 별말 앞들 동쪽 끝, 가랑골 남쪽 입구에서 동쪽으로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능골’과 ‘뒤산뒤골’이 있다. ‘부들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북덕골(北德洞)’이라고 하였다.

[내용] 이 골짜기 이름 부들골에서 손곡리의 지명이 유래하였다.

북독골 [들]

[위치] 오리울 마을 북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만논골 남쪽, 오리울들 북쪽 사이에 있는 들이다. ‘부들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 골짜기 이름 부들골에서 손곡리의 지명이 유래하였다.

비두네미고개 [고개]

[위치] 구만사에서 북쪽으로 비두재골을 지나 문막읍 비두네미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275m이다. ‘비두재’, ‘비두리재’라고도 한다.

비두리재 [고개] → 비두네미고개

비두재 [고개] → 비두네미고개

비두재골 [골]

[위치] 구만이 남동쪽에서 서지골과 갈라져 북동쪽으로 비두네미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에서 동쪽으로 마당매기골이 갈라져 나간다.

사기막고개 [고개] → 서지고개

사냥골 [들]

[위치] 양지말 남쪽, 미사리들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사막골 [골]

[위치] 별감골 남쪽 아래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를 말한다. 골 끝에서 북쪽으로 도둑골이 이어지고 골 동쪽 너머에 큰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시막골(沙幕谷)’이라고 하였다.

상봉산(上峰山) [산]

[위치] 새말 북동쪽, 만디고개 동쪽에 있는 높이 443.4m의 산을 말한다. 손곡리와 문막읍 궁촌리, 비두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새말 [마을]

[위치] 알산골 남쪽, 오리울 북서쪽으로 새로 생긴 마을을 말한다. ‘신촌’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시말(新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말(신촌)’이라 하였다.

새말들 [들]

[위치] 새말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말들’이라 하였다.

새말저수지 [못]

[위치] 새말 북쪽, 알산골 남쪽에 있던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경지정리로 지금은 메워져 없다. ‘안산골저수지’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말저수지’라 하였다.

새말천 [내]

[위치] 만디고개에서 남서쪽으로 만디골, 논골, 식량골을 거쳐 새말 앞에서 법천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새보들 [들]

[위치] 오리울 남쪽 공천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서작고개 [고개] → 서지고개

서지(西芝) [마을]

[위치] 구만이 남동쪽 서지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방아실골 입구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서지(西芝)’라 하였다.

[유래] 지초(芝草)가 많으므로 서지라 하였다.

[내용] 서지 마을 동쪽에는 쌀개봉이 있고 남쪽으로는 방아실골이 이어지며 방아실골의 끝에서 동쪽으로는 서지재가 있다. 서지 남서쪽에는 부론골

과 서지골(2)가 있다.

서지고개 [고개]

[위치] 서지에서 서지골(2)를 거쳐 정산리 사기막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정산리의 사기막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므로 ‘사기막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서지지(西芝嶺)’, ‘서지고기(西芝峴)’, ‘사기점고기(沙器店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서작고개’라 하였다.

[내용] 이 지역에 ‘서지’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여 혼란을 주므로 골짜기와 고개의 변별성이 떨어진다.

서지골(1) [골]

[위치] 구만사에서 남동쪽으로, 서지 마을을 지나 동쪽으로 방아실골을 지나고 서지재를 넘어 문막읍 비두리 방아실로 넘어가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서지골(2) [골]

[위치] 서지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서지고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남쪽 너머에 단강리 사기막이 있다.

서지골금광 [광산]

[위치] 서지골 웃서지 쉬다리골 입구에 있는 옛 금광 터를 말한다.

서지산(西芝山) [산]

[위치] 쌀개봉 남쪽, 서지재 서쪽에 있는 479.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서지산(西芝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서지재 옆에 있으므로 서지산이라 하였다.

서지재 [고개]

[위치] 쌀개봉 남쪽, 서지산 동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부론면 손곡리와 문막읍 비두리, 귀래면 귀래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방아실고개’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신현(薪峴)’이라고 하였다. 고개 높이는 380m이다.

[내용] 서지에서 방아실을 지나 북동쪽으로 귀래면 귀래리의 방아실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소정리 [마을] → 송정

손곡(蓀谷) [마을]

[위치] 긴경산 남동쪽, 현계산 북서쪽, 법천천 상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손위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손위실(蓀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손곡리(蓀谷里)’라 하였다.

[유래] ‘복덕골, 부들골’을 한자로 적어 ‘손곡(蓀谷)’이라 하였다. 또는 고려의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손위(遜位)하고 와 있던 곳이라고 하여 마을 이름을 손위실(遜位室)로 불렀고 이를 한자로 적어 손곡(蓀谷)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복덕골의 원래 지명은 부들골이다. ‘부들’은 습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로서 한자는 ‘蓀(향풀 이름 손)’이라 쓴다. 따라서 ‘부들골’을 한자로 옮겨 적은 것이 ‘손곡(蓀谷)’이며 이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손위실’의 ‘실’은 골짜기를 뜻하므로 ‘부들골’이 ‘손곡·손실’로 불리고 ‘손실’에 매개음이 개입되어 ‘손+(ㅣ)+실>손이실’인데 이를 한자로 손위실(遜位室)로 기록하였다.

손곡리도요지 [터]

[위치] 새말 논골 위 만디골에 있는 옛 도요지를 말한다.

[내용] 조선시대 전·후기의 백자편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가마터는 2기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곡분교 [학교] → 부론초등학교 손곡분교

손곡시비(蓀谷詩碑) [비]

[위치] 손곡리 1576-1번지 손곡교 옆에 있는 손곡(蓀谷) 이달(李達, 1539~1612)의 시비를 말한다.

[내용] 1983년 11월에 세웠다. 시비의 높이 230cm, 폭 110cm로 비신(碑身)은 오석(烏石), 지대석은 화강암이다. 비문에 적은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골밭집 젊은 아낙 저녁거리 떨어져 비 맞으며 보리베어 숲속으로 돌아오네. 생나무에 습기 짙어 불길마져 꺼지는데 문에 들자 아이들 옷자락 당기며 우네.’



「손곡시비」; 2019년

손곡 이달 사적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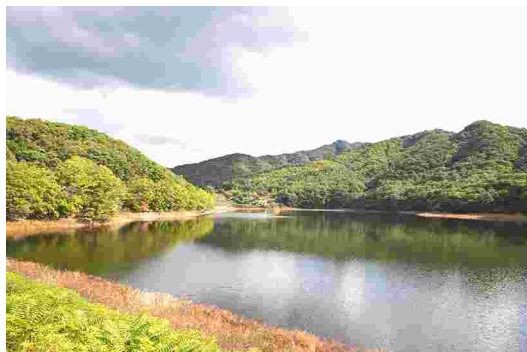
[위치] 손곡초등학교 주변 마을을 말한다. 손곡 이달이 시를 지으며 거주하던 곳이다.

[내용] 손곡(蓀谷) 이달(李達)은 조선 중기의 시인으로, 일찍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하여 마을 이름 손곡을 호로 삼았다. 허균과 허난설헌 남매를 가르쳤고, 많은 시를 남겨 조선 중기 시문에 꽃을 피운 동방의 시성(詩聖)이란 칭호를 받았다.

손곡저수지 [못]

[위치] 별말 남동쪽, 송정에 있는 큰 저수지를 말한다.

[내용] 높이 17m, 길이 293m, 수심은 14.5m이다. 1984년에 준공하였다.



「손곡저수지」; 2019년

손곡천(蓀谷川) [내]

[위치] 법천천의 다른 이름이다. 손곡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손곡천’이라고 부른다. ‘손위실개

울’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손위실기울(蓀谷川)’이라고 하였다.

손위실 [마을] → 손곡

손위실개울 [내] → 손곡천

솔미 [마을]

[위치] 알산골 삼거리, 현 알산교 서쪽 솔미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송산곡(松山谷)’이라고도 한다.

솔미골 [골]

[위치] 알산골 삼거리, 현 알산교에서 북서쪽 높이 261.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솔미들 [들]

[위치] 솔미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손미솔들(松山坪)’이라 하였다.

솔미산 [산]

[위치] 솔미골 북쪽 위에 있는 높이 261.6m의 산을 말한다. 박수고개 남서쪽, 긴경산 동쪽 산줄기에 있다. 노림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깃대봉’, ‘송산(松山)’이라고도 한다.

송산(松山) [산] → 솔미산

송산곡(松山谷) [마을] → 솔미

송정(松亭) [마을]

[위치] 손곡저수지 상류 북쪽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소정이’, ‘송정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송정이(松亭)’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소정이(송정)’라 하였다.

[유래] 마을 입구에 소나무 정자가 있었으므로 ‘송정’이라 하였다.

송정이 [마을] → 송정

송정저수지 [못]

[위치] 손곡저수지 동쪽 위, 문앞골 위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문앞골들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송정저수지’라 하였다.

수양봉 [산] → 수영봉

수영고개 [고개]

[위치] 궁터에서 서쪽으로, 흥호리 검단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수영봉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조선지리지』에 ‘슈양현(垂陽峴)’이라고 하였다.

수영봉(守英峰) [산]

[위치] 양지말 남서쪽에 있는 높이 283m의 산을 말한다. 흥호리, 법천리, 손곡리의 경계되는 산이다. ‘수양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슈양봉산(垂陽峰山)’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수양봉(수영봉)’이라 하였다.

쉬다리굴 [굴]

[위치] 비두재굴 입구 웃서지에서 북동쪽으로, 쌀개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시무나무굴 [굴]

[위치] 손곡저수지 상류 끝에서 북쪽으로, 225.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송정 마을 동쪽에 있다. 산 너머 북쪽에 뒤편뒤굴이 있다.

식량굴 [굴]

[위치] 새말에서 북동쪽 만디골로 이어지는 입구의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서 만디골이 이어지고 동쪽으로 논골이 갈라져 나간다.

식량굴들 [들]

[위치] 식량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싱양솔들(承陽谷坪)’이라 하였다.

신선대(神仙臺) [바위]

[위치] 봉림산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진 바위 능선을 말한다.

신선바위 [바위]

[위치] 긴경산 남서쪽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내용] 바위 위에 임경업 장군이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었다는 북두칠성, 고누판 등이 있다.

신선약수터 [샘]

[위치] 긴경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를 말한다.

신촌(新村) [마을] → 새말

신현(薪峴) [고개] → 서지재

신흥광산(新興鑛山) [광산]

[위치] 통점 동쪽에 있던 옛 광산을 말한다. ‘동척광산’이라고도 한다.

[내용] 1930년대에 동척에서 경영하던 광산으로, 1954년에 신흥광산이 되었다.

쌀개봉 [산]

[위치] 서지 북동쪽에 있는 높이 495.8m의 산을 말한다. 비두네미 고개 남동쪽, 서지재 북서쪽 능선에 있는 산이다. 산 남쪽 아래에 청림사가 있다.

아랑지고개 [고개]

[위치] 송정저수지 아랑지골에서 북동쪽으로, 오리울을 향하여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안응지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옹지고기(翁主峴)’라고 하였다.

아랑지골 [골]

[위치] 송정저수지 북쪽, 공천천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안응지골’이라고도 한다.

아랑지안골 [골]

[위치] 아랑지골 남동쪽 공천천에 붙어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송정저수지 북동쪽에 있다. ‘안응지안골’이라고도 한다.

알산골 [마을] → 알산골

알산골저수지 [못] → 새말저수지

[위치] 알산골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경지정리로 매립되었다.

안응지고개 [고개] → 아랑지고개

안응지골 [골] → 아랑지골

안응지안골 [골] → 아랑지안골

알산골 [마을]

[위치] 별말 북동쪽, 새말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

한다. ‘안산골’, ‘알상골’, ‘알쌍골’, ‘내산동’, ‘내산곡(內山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알산골(內山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안산골(알상골, 내산동)’이라 하였다.

[유래담] 묘 자리가 좋아서 삶은 알을 묻어 놓아도 그 이튿날 병아리가 올었다는 고장이라고 해서 알쌍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전설] 알쌍골을 옛날에는 산알골이라고 했다. 이괄이 왕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 좋은 자리에 선대 할아버지를 모시려고 달걀을 한번 그을어 진혈을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계란이 약간 상한 것이라 병아리가 온전하지 못하여 뽕오뽕오 소리를 내지 못했다. 닭을 묘 터에 넣어 지질을 검사해 보려고 하였는데 닭이 나오긴 나왔지만 시원치 않아서 이괄이 왕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괄의 반역 후 그 삼촌을 멸하는 바람에 이괄 아버지는 변을 당했지만 그 할아버지 묘는 알쌍골, 알쌍골에 있어서 안전했다고 전한다.

[풀이] 원래는 손곡리 산 안쪽에 있다고 하여 ‘안+산+골>안산골’로 불리웠는데 ‘안산골>알산골>알상골>알쌍골’로 불리고 거기에 전설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알산골 마을 ; 2019년」

알산골성황당 [당]

[위치] 알산골 마을 입구에 있는 산신당을 말한다.

[내용] 원래의 산신당은 오리울천 독 위, 돌담에 초가를 얹은 집이었는데 1970년대 중반에 철거하였

다. 이후 마을에 우환이 잦아 마을 앞에 목조건물에 기와를 얹어 다시 세웠다. 백운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 초이틀에 산신제를 지낸다.



「알산골성황당 ; 2019년」

알산골저수지 [못] → 새말저수지

[위치] 알산골 남쪽, 새말 북쪽에 있던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지금은 메워지고 없어졌다. ‘새말저수지’라고도 하였다.

알산골천 [내]

[위치] 알산골 북쪽 큰골에서 남쪽으로, 알산골을 거쳐 말개들 앞에서 법천천 지류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알상골 [마을] → 알산골

알쌍골 [마을] → 알산골

알쌍골 [마을] → 알산골

앞들 [들]

[위치] 별말 북쪽, 법천천 건너에 있는 들이다.

애장골 [골]

[위치] 새말 서쪽 단동리골에서 남서쪽 능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양지말 [마을]

[위치] 별말 북서쪽 긴경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양촌’, ‘양지촌’, ‘양지편’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지말(양지촌, 양지편)’이라고 하였다.

양지보 [보]

[위치] 양지말 앞에 있는 보(洑)를 말한다.

양지촌(陽地村) [마을] → 양지말

양지편 [마을] → 양지말

양촌(陽村) [마을] → 양지말

어재골 [골] → 풍점골

[위치] 통점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풍점골'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풍점고개 너머에 정산리 어재 마을이 있으므로 '어재골'이라고 한다.

연애골 [골]

[위치] 구만이들 서쪽 아래에서 남쪽으로, 현계산 줄기인 460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영논들 [들]

[위치] 오리울 새보들 남서쪽 공천천 건너에 있는 작은 들을 말한다.

오곡동(梧谷洞) [마을] → 오리울

오래울 [마을] → 오리울

오려울(塢礪-) [마을] → 오리울

오리(五里) [마을] → 손곡리

오리울 [마을]

[위치] 새말 남동쪽, 구만이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오곡동(梧谷洞)', '오래골', '오래울', '오려울', '오리울'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오려울(梧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오래골(오곡동梧谷洞)'이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오동나무가 많았으므로 오리울, 오곡동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는 언덕과 높은 산이 울타리처럼 둘러 있어서 한자로 '오려(塢礪)'라 했다고도 한다.

오리울들 [들]

[위치] 오리울 마을 남서쪽 앞에 있는 들이다.

오리울 [마을] → 오리울

웃서지 [마을]

[위치] 서지 마을 중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쉬다리골 입구, 잔디미골 내 건너에 있다.

은골 [골]

[위치] 가랑골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뒷골의 서쪽 아래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어은평(於隱坪)'이라고 하였다.

이괄 부친묘 [묘]

[위치] 알산골에 있었는데 파총당했다고 한다.

임경업 장군 추모비(林慶業 將軍 追慕碑) [비]

[위치] 벌말(평촌) 손곡교 도로 변에 있다.

[내용] 화강암으로 만든 것으로, 1968년 원주문화원에서 세웠다. 높이 330cm, 폭 60cm이다. 임경업은 조선 인조 때의 명장으로 이괄의 난을 평정시킴으로써 1등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이 되어 명나라, 청나라에서까지 벼슬을 받았다. 1647년 김자점(金自點)의 무고로 피살되었다. 그 후 나라에서 충민공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임경업 장군 추모비 ; 1968년」

작은용수골 [골]

[위치] 구만이들에서 북동쪽으로, 비두네미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용수골과 고랑지골 사이에 있다.

잔디미골 [골]

[위치] 서지골 웃서지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현계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잣나무고개 [고개]

[위치] 잣나무골 남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는 남달이골이 있고 남달이골에서 솟아마골을 거쳐 법천리 장뜰에 닿는다. 고개 높이는 210m이다.

잣나무골 [골]

[위치] 벌말 남서쪽에서 남쪽으로 잣나무고개를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잣나무골(백자동)’이라 하였다.

잣나무골 [마을]

[위치] 벌말 남서쪽, 잣나무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백자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잔나무골(栢子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잣나무골(백자동栢子洞)’이라 하였다.

[유래] 잣나무가 많았으므로 잣나무골이라 하였다.



‘잣나무골 마을 ; 2019년

잣나무골저수지 [못]

[위치] 잣나무골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백자동저수지’라고도 한다.

조산(造山) [산]

[위치] 황학산 북쪽에 있는 높이 305.2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도산(造山)’이라고 하였다.

충리골 [골]

[위치] 새말 남쪽 만논골에서 남서쪽 뒤산뒤골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진나무골 [골]

[위치] 비두재골과 서지골이 갈라지는 곳에서 남서쪽으로 현계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 [골]

[위치] 알산골에서 북쪽으로, 만대산 북쪽의 37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큰용수골 [골]

[위치] 구만이 마을에서 공천천 건너 북동쪽으로, 32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용수골 남동쪽에 있다.

통점(通帖) [마을]

[위치] 손곡저수지 남서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1984년에 손곡저수지가 생기면서 마을의 일부분이 남아있다. ‘동점(銅店)’, ‘통점’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통점(銅店)’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통점(동점)’이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동광(銅鑛)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구리점이 있었다고 하여 ‘동점’ 혹은 ‘통점’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는 옛날 정산리의 거돈사로 가려면 이곳을 지나 고개를 넘어야 하므로 ‘절로 가는 지름길 마을’이라는 뜻으로 ‘통점(通帖)’, ‘통점’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통점고개 [고개] → 풍점고개

[위치] 풍점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통점 마을 위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통점고개’라 부른다. 『조선지리지』에 ‘통점고기(銅店峴)’라고 하였다.

통점골 [골] → 풍점골

[위치] 풍점골의 다른 이름이다. 통점 마을 남쪽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통점골’이라고 부른다.

통점저수지 [못]

[위치] 통점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손곡저수지가 건설되면서 없어졌다.

투구봉 [바위]

[위치] 현계산 중턱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통점 [마을] → 통점

평촌(坪村) [마을] → 벌말

포천리 [마을] → 보천리

풍점고개 [고개]

[위치] 손곡저수지에서 남쪽, 정산리 담안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정산로가 지나가고 있다. ‘통점고개’라고도 한다. 높이는 260m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통점고기(銅店峴)’라고 하였다.

풍점골 [골]

[위치] 손곡저수지 통점에서 남쪽 풍점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어재골’이라고도 한다.

하련골 [마을]

[위치] 손곡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하련골(下輦洞)’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공양왕이 이곳으로 유배 올 때 가마를 타고 오다가 내린 곳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현계산(玄溪山, 玄鷄山) [산] → 정산리 현계산

[위치] 구만이 남쪽, 서지 남서쪽, 서지고개 북서쪽에 있는 높이 534m의 산을 말한다. 마륵산의 줄기가 서쪽으로 봉림산에 이르고 다시 북서쪽으로 뻗어 봉을 이룬 산으로, 손곡리와 정산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길산’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원주읍지』에 고을 남쪽 60리에 있다고 하였고, 『조선지리지자료』에는 ‘부론면 1리 거론(巨論) 마을에 있다.’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현계산(玄鷄山)’이라 하였다.

[유래] 현계산(玄溪山)은 ‘검은 계곡의 산’이라는 뜻으로, 산이 높고 험하며 나무가 울창해서 멀리서 보면 검게 보이므로 현계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산의 모습이 암탉의 형상이므로 현계산(玄鷄山)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산으로 법천사와 거돈

사가 이 산자락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산 입구에 임경업 장군의 추모비와 손곡 시비가 있다.

현계산도요지 [터]

[위치] 어재고개 북동쪽 현계산 중턱에 있는 도요지를 말한다. 우담 정시한의 묘소 위쪽에 있다.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분청사기와 백자편이 발견된다.

황소골 [골] → 황수골

황수곡(潢遂谷) [마을] → 황수골

황수골 [골]

[위치] 양지말에서 북쪽으로 긴경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황수골고개가 있다. 고개 너머에는 노림리 황수골, 광명터저수지가 있다. ‘황수곡(潢遂谷)’, ‘황소골’, ‘황숙골’이라고도 한다.

황수골고개 [고개]

[위치] 황수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긴경산 동쪽 아래, 솔미산 서쪽에 있다. 고개 너머에는 노림리 황수골이 있다. 높이는 220m이다.

황수골들 [들]

[위치] 황수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황수골들(黃水洞坪)’이라고 하였다.

황숙골 [골] → 황수골

후용고개 [고개] → 부문재

정산리(鼎山里)

[위치]

정산리는 부론면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단강리, 서쪽으로는 남한강을 경계로 하여 충북 충주시 양성면 강천리, 남쪽으로는 단강리와 충북 충주시 양성면 목미리, 북쪽은 법천리·손곡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부론면(富論面)의 분일리(分一里)·이리(二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관덕·거론·담안·서작·자작·샘골·개수를 합병하여 정산리(鼎山里)라 하여 원주군 부론면 정산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부론면 정산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부론면 정산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함에 따라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가 되었다.

[유래]

솔미산 세 봉우리를 솔의 발로 보아 ‘솔(鼎)+미(山)>솔미>솔메>솔미>손미>솔미’라 하였다. 이를 한자로 적어 정산(鼎山)이라 하였다. 이 산 이름이 마을 이름으로, 리(里)의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감골 [골]

[위치] 거론 음촌에서 남동쪽으로, 감골고개를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감골고개 [고개]

[위치] 음촌 남동쪽 감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단강리 절골이 있고 절골 아래로 아래작실에 닿는다. 단강리에서는 ‘절골고개’라고 부른다. 고개 높이는 220m이다.

강신재 [고개]

[위치] 염태고개에서 동쪽으로, 단강리 아래작실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구억논저수지와 능골저수지를 지나 동쪽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높이는 120m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강신지(降神峴)’라고 하였다.

개소 [마을] → 개수

개수 [마을]

[위치] 솔미 남동쪽, 솔미산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개소’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포담(浦潭)’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기쇠(浦潭)’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개소(포담)’라 하였다.

[유래] 개(포구)에 소(沼)가 있으므로 ‘개소>개수’, 한자로는 ‘포담(浦潭)’이라 하였다.



「개수 마을 ; 2019년」

개수고개 [고개]

[위치] 개수 마을에서 동쪽으로, 단강리 끝정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염태고개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높이는 141m이다.

개수서낭 [당]

[위치] 개수 마을에 있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 당목을 말한다.

[내용] 느티나무 두 그루를 당목으로 삼고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풍농과 수해 예방을 비는 당고사를 지낸다. 첫 번째 당목에 제사를 지내고 대동샘에 제사를 지낸 후 두 번째 당목에 제사를 지낸다. 제사 후에는 주민들이 남녀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는데 여자 편이 이겨야 끝난다.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들기 때문이다.

거둔사지 삼층석탑 [탑]

[위치] 정산리 188번지, 거둔사터에 있는 3층석탑을 말한다.

[내용] 9세기 신라 석탑이다. 2중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렸다. 몸돌에는 기둥이 새겨져 있고 지붕돌은 층급 받침이 5단으로 귀 끝이 약간 치켜들려 있다. 탑 꼭대기의 상륜부에는 노반이 남아있다. 통일신라 삼층석탑 정형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보물 제750호로 지정되었다.



「거둔사지 삼층석탑 ; 2019년」

거둔사지서낭 [당]

[위치] 담안 마을 거둔사터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 1,000년 이상 된 느티나무로 마을의 당산목이었다. 나무 밑 석축에는 옛날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고누판이 새겨져 있다. 2002년 이 나무에서 원앙이 번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거둔사지서낭 ; 2019년」

거둔사지 원공국사탑(圓空國師塔) [탑]

[위치] 거둔사터에 있는 원공국사(圓空國師) 지종(智宗)의 승탑을 말한다.

[내용] 원공국사는 930년(고려 태조 13)에 출생하여 1018년(현종 9)에 입적한 고려 전기의 고승이다. 광종·경종·성종·목종·현종 대까지 왕의 보살핌을 받아 왕사(王師)가 되었으며, 1018년(현종 9)에 거둔사로 하산하여 입적하였다. 승탑은 1025년에 세웠다. 보물 제190호이다. 원래의 탑은 일제강점기에 반출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2007년에 승탑이 있던 본래 자리에 재현품을 설치하였다.



「거둔사지 원공국사탑 ; 2018년」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圓空國師塔碑) [비]

[위치] 거둔사터 동쪽에 있는 원공국사의 탑비를

말한다. 원공국사(930~1018)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이다.

[내용] 이 탑비는 고려 현종 16년(1025)에 세워졌다. 해동공자 최충(崔冲)이 왕명으로 글을 짓고 김거웅(金巨雄)이 글씨를 썼다. 보물 제78호로 지정되었다.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 ; 2019년」

거둔사터(居頓寺-) [터]

[위치] 현계산 남서쪽, 현 정산저수지 서쪽 아래 담안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유래] 통일신라 때 창건되어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전한다. 사적 제168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이 시대 사찰로는 보기 드문 일탑식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현재 금당지와 불좌대가 남아 있는데 주초석의 배치상태로 보아 큰 규모의 불전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삼층석탑(보물 제750호)과 원공국사탑비(보물 제78호)가 있다. 원공국사탑(보물 제190호)은 일제강점기에 반출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유물들로 보아 거둔사는 신라 말 고려 초기의 절로 추정된다. 절터 아래 옛 정산분교 운동장에 거대한 단강지주 한 짝이 미완성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하나는 단강리 큰집대굴

에 있다.



「거둔사터 : 2019년」



「거둔사터 당간지주 : 2019년」

거론(巨論) [마을]

[위치] 황학산 남동쪽 아래, 정산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거둔사터 남서쪽 아래에 있다. ‘거론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거론(巨論)’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론(巨論)’이라 하였다.

[유래] 개울 옆에 논이 있으므로 ‘걸+논>걸논>걸론>거론’이라 하였다.

[풀이] 마을을 관통하여 정산천이 흐르고, 걸(개울) 옆에 논이 있으므로 ‘걸+논>걸논>걸론>거론’으로 음운 변천하였다.

‘개울(川)’의 옛말 ‘걸’은 ‘걸가’, ‘걸강’ 등으로 실현되어 전국에 널리 분포하는 지명소이다. ‘론(論)’은 ‘부론(富論)·귀론(歸論)·일론(日論)’처럼 ‘논(沚)’을 음차하여 표기한 것이다.

자작말 앞 ‘거문들(玄坪)’의 ‘거문’은 ‘곰’계통의 언어로, ‘크다, 높다, 신성한’ 등의 뜻이 들어있다. 즉 ‘거문들’은 ‘큰 들’의 뜻이므로, 이곳 정산천 옆에 큰 논, 넓은 들이 있어서 ‘거론’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한자로는 ‘巨論’, 또는 ‘居論’이라 하였는데, ‘巨論’은 ‘(논이) 크다’는 뜻을 포함시킨 것이며 ‘居論’은 뜻과는 상관없이 소리를 적은 것이다.

거론골 [골]

[위치] 거론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정산천을 따라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론이골 짜기’라 하였다.

거론들 [들]

[위치] 거론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론들’이라 하였다.

거론이 [마을] → 거론

거론장승 [장승]

[위치] 거론 음촌 마을 앞에 있는 돌장승을 말한다.

[내용]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마을의 무고와 안녕을 비는 장승고사를 올린다.



「거론장승 : 2019년」

거문들 [들]

[위치] 자작말 남동쪽 앞 정산천을 따라 나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거문들(玄坪)’이라고 하였다.

[유래] 들이 넓으므로 거문들이라고 하였다.

[풀이] ‘거문들’을 ‘검은들’로 보아 한자로 ‘玄坪’이라 하였다. 이때 ‘거문’은 ‘검대(玄, 黑)’는 뜻이 아니라 ‘곰’계통의 언어로 ‘크다, 높다, 신성하다’의 뜻이다. ‘곰’은 ‘감·가마, 곰·고모, 검·거무’ 등으로 분화되어 ‘가마봉, 감악산, 거무내, 고모령, 금오산(<거무산, 고모산)···’등의 지명을 낳았다. 따

라서 ‘거문들’은 ‘검은 들’이 아니라 ‘넓은 들’이라는 뜻이다.

공논들 [들]

[위치] 구억논저수지 북쪽 아래의 들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구억들(九億坪)’이라고 하였다.

공논저수지 [못] → 구억논저수지

공말 [마을]

[위치] 웃솔미 북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날 대장간이 있던 마을로, 정산2교차로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구석진 곳에 마을이 있으므로 ‘구석말>구억말>공말’이라 하였다.

[풀이] 이 지역의 지명이 ‘공논’과 ‘구억논’이 동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구석말>구억말>구억말>구억말>경말>공말’로 변천한 것으로 보인다. ‘구억’은 ‘구석’에서 나온 말로서 ‘구석>구억>구억’은 널리 발견되는 예이다.

공말제방 [둑]

[위치] 공말 마을 동쪽에 있는 정산천의 둑을 말한다.

공수논 [들] → 공수들

공수들 [들]

[위치] 아래솔미 앞에 있는 들이다. ‘공수논’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공수들’이라 하였다.

관덕(觀德) [마을]

[위치] 서작 북쪽, 좀재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자작고개(1) 서쪽 아래 남한강 변에 있는 마을이다. ‘관덕말’, ‘관덕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관덕이(觀德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관덕이(관덕)’라 하였다.

[유래] 이 마을을 지나면 남한강 물이 저 아래로 내려다보이므로 ‘관덕(觀德)’이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덕(德)’은 ‘독·득’과 같은 말로 언덕, 또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다.



「관덕 마을 ; 2019년」

관덕고개 [고개]

[위치] 관덕에서 북동쪽으로 황학산을 향하여 난 고갯길을 말한다. 531번 부귀로에 닿는다. ‘관덕재’, ‘관덕치’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관덕고개’라 하였다.

관덕말 [마을] → 관덕

관덕이 [마을] → 관덕

관덕재 [고개] → 관덕고개

관덕치(觀德峙) [고개] → 관덕고개

구억논저수지 [못]

[위치] 염태고개 북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531번 부귀로 옆에 있다. ‘공논저수지’라고도 한다.

[풀이] ‘구석논>구억논>구억논>구억논>경논>공논’으로 음운 변천하였다.

구억들 [들] → 공논들

금박고개 [고개]

[위치] 금박골 서쪽 위, 자작고개 남쪽 아래의 고개를 말한다.

금박골 [골]

[위치] 좀재 남쪽 남한강 변에서 동쪽 법천리 자작고개 남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법천리와 경계가 되는 골짜기이다.

길산 [산] → 현계산

노적봉(1) [산]

[위치] 정산저수지 북동쪽, 어재 동쪽에 있는 높이

324m의 산을 말한다.

노적봉(2) [산]

[위치] 솔미산에 있는 세 봉우리 중의 하나를 말한다.

논저리고개 [고개]

[위치] 지르네미에서 장골을 지나 북쪽으로, 법천리 솟가마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능선 동쪽에 솟가마고개가 있고 남서쪽에는 장자울고개가 있다. 고개 높이는 180m이다.

느네미 [골]

[위치] 샘골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서 자작나무골과 험한골, 흘논골이 갈라져 나간다.

[유래] 늘어진 긴 고개를 넘어가므로 ‘늘네미>느네미’라 하였다.

[풀이] ‘늘+네미>늘네미>늘네미>느네미’로 음운 변천하였다. ‘늘’은 길게 ‘늘어지다’의 뜻으로 ‘늘, 노루, 널, 너르’ 등으로 실현되고 ‘느릅’으로 보기도 한다. 길게 늘어진 고개를 넘어가므로 생긴 지명이다.

느티쟁이 [골]

[위치] 구역논저수지에서 북동쪽으로, 189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능골 [골]

[위치] 능골저수지에서 북동쪽으로, 198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능골저수지 [못]

[위치] 염태고개 북동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단내(檀內) [마을] → 담안

달밭골 [골]

[위치] 샘골 남동쪽 참나무골에서 북동쪽으로, 덕갈봉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토깨이목골 북쪽에 있다.

담내 [마을] → 담안

담안 [마을]

[위치] 거둔사터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거론 중간 말과 어재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담내’, ‘장내’라고도 한다. 한자로는 ‘단내(檀內)’라고 적었다. 『조선지리지』에는 ‘담안(潭屹)’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담안(장내)’이라 하였다.

[유래] 거둔사가 폐사된 후 옛 거둔사터 담 안쪽에 마을이 들어서서 ‘담안’, ‘담내’, 담장 안이므로 ‘장내’라고 하였다. ‘단내(檀內)’는 ‘담안’을 소리와 뜻을 빌려 쓴 것이다. 현재는 거둔사터를 발굴하고 복원하면서 모두 이전하였다.

대동샘 [샘]

[위치] 개수 마을에 있는 샘을 말한다.

덕갈봉 [산] → 덕갈봉

덕갈봉 [산]

[위치] 샘골 마을 동쪽, 단강리 웃사기막 서쪽에 있는 461m의 산을 말한다. 정산리와 단강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더갈봉’, ‘떡갈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떡갈나무가 많으므로 덕갈봉, 떡갈봉이라고 하였다.

도요지(陶窯址) [터]

[위치] 정산리 현계산 중턱에 있는 옛 도요지 터를 말한다.

[내용]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묘소 동쪽 위 둔덕에 있다. 많은 자기편과 가마 유구 등이 흩어져 있다. 조선 전기의 도요지로 추정된다.

두루봉(1) [산]

[위치] 공말 북쪽, 자작고개(2) 남쪽에 있는 높이 241m의 산을 말한다. ‘매봉’이라고도 한다.

두루봉(2) [산]

[위치] 솔미산 세 봉우리 중의 하나를 말한다.

두머시바위 [바위]

[위치] 솔미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둔덕봉 [산]

[위치] 아래솔미 북쪽, 공말 서쪽에 있는 121.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자작고개에서 남쪽으로 두루봉을 거쳐 아래솔미에 이르는 산줄기이다.

뒷골 [골]

[위치] 거론 음촌에서 남동쪽 뒷골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뒷골고개 [고개]

[위치] 거론 음촌에서 남쪽으로 살구나무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살구나무골을 거쳐 솔미와 공말, 염태고개를 넘어 단강리로 통한다. 고개 높이는 140m이다.

딸굴 [굴]

[위치] 솔미산에 있는 굴을 말한다. 아들굴 위에 있다.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딸을 낳는다고 한다.

떡갈봉 [산] → 덕갈봉

매봉 [산] → 두루봉(1)

못배미 [논]

[위치] 거둔사터 아래에 있는 논을 말한다.

[유래] 못을 메워 만든 논이므로 '못배미'라고 하였다. 옛날 거둔사가 있을 때 이곳에 연못이 있었는데 절이 없어진 후 못을 메워 논을 만들었다고 한다.

부두골 [골] → 부득골

부득골 [골]

[위치] 거론 북쪽 조산저수지에서 북쪽 숯가마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부두골'이라고도 한다.

부론초등학교 정산분교 [학교]

[위치] 거둔사터 남쪽에 있는 옛 초등학교이다.

[내용] 1963년에 단강국민학교 정산분교장으로 인가되어 정산분교로 개교하였다. 1969년에 정산국민학교로 승격하였고, 1995년 3월에 부론초등학교에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거둔사 당간지주 하나가 미완성인 채로 학교터에 남아있다.



「부론초등학교 정산분교 ; 2019년」

불당골 [골]

[위치] 풍점고개 남쪽 아래 풍점골에서 동쪽으로, 현계산의 서쪽으로 어재 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불당골들 [들]

[위치] 불당골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불도곡들(佛道谷坪)'이라 하였다.

비녀바위 [바위]

[위치] 솔미산에 있는 비녀를 닮은 바위를 말한다.

사방산(四方山) [산]

[위치] 거론 중간말 동쪽, 사방산골 끝에 있는 높이 437.5m의 산을 말한다. 덕갈봉 북쪽에 있다. 단강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산 동쪽 너머에 단강리 사기막이 있다.

[유래] 산이 높아 꼭대기에 서면 사방이 다 보이기 때문에 사방산이라고 하였다.

사방산골 [골]

[위치] 거론 중간말에서 동쪽으로, 21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샘골에서 올라오는 느네마골이 있다.

살구나무골 [골]

[위치] 공말과 솔미에서 북동쪽 뒷골고개로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정산2교차로 남동쪽에 있다.

샘개나루 [나루] → 정산나루

샘골 [골]

[위치] 음지말에서 북동쪽으로, 샘골 마을을 향하

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샘골 골짜기’라고 하였다.

샘골 [마을]

[위치] 거론 중간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천곡(泉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심설(泉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샘골(천곡泉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 좋은 샘이 있으므로 샘골이라고 하였다.

[내용] 마을 동쪽으로는 덕갈봉(461m)과 촉새봉(394.7m)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막혀 있고 그 산줄기로 향하는 느네미, 달밭골, 참나무골, 토깨이목골 등의 많은 골짜기들이 있다. 마을 남동쪽에 작실고개가 있고 고개 너머에 옷작실의 샘골이 있다.

샘골골짜기 [골] → 샘골

서작(西作) [마을]

[위치] 자작고개(1) 남서쪽, 관덕 남쪽 남한강 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서작골(西作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서작골(서작西作)’이라 하였다.

[유래] 자작말에서 두루봉(1) 너머 서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서작(西作)이라 하였다.



「서작 마을 : 2019년」

서작골 [골]

[위치] 서작에서 동쪽으로, 두루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석자골 [골]

[위치] 담안에서 노적봉을 향하여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선담골과 선득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선담 [마을]

[위치] 선담골 안, 어재 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계산 남서쪽 아래, 노적봉(1) 서쪽 아래에 있다. ‘선도동(善道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승도암(僧道菴)’이라고 하였다.

선담골 [골]

[위치] 풍점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현계산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어재 마을이 있고 골짜기 끝, 현계산 서쪽 아래에 선담 마을이 있었다. 골 북쪽 끝에 어재 고개가 있다.

[내용] 선담골 안, 옛 선담 마을 앞 치차골에 『산중일기』를 쓴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묘소가 있다.

선도동(善道洞) [마을] → 선담

선득골 [골]

[위치] 거둔사터 남쪽에서 동쪽으로, 정산저수지를 거쳐 저수지 북동쪽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 정산저수지가 있다.

손뒬 [마을] → 솔미

손미 [마을] → 솔미

솔고개 [고개]

[위치] 거론 중간말에서 남동쪽으로, 샘골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50m이다.

솔미 [마을]

[위치] 공말 남쪽, 개수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솔미산 밑에 있는 마을로, 마을 남동쪽 남한강의 솔미나루를 배경으로 형성된 큰 마을이다. ‘웃솔미’, ‘아래솔미’가 있다. ‘큰말’, ‘공말’, ‘아랫말’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정산(鼎山)’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손뒬(鼎山)’라 하

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정산리(솔미)’라 하였다.

[유래] 산의 봉우리가 세 개이므로 이를 솔과 솔다리로 보아 솔뫼>손미>솔미, 한자로 정산(鼎山)이라 하였다.

[풀이] 솔미산에 솔처럼 세 개의 봉우리가 있으므로 ‘솔(鼎)뫼(山)>솔뫼>솔메>손메>손미>솔미’라 하였다. 이를 한자로 적어 정산(鼎山)이라고 하였다. ‘솔뫼’를 한자로 적은 ‘정산’이 리(里)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솔미 마을 : 2019년」

솔미나루 [나루]

[위치] 아래솔미 앞에 있던 남한강의 나루를 말한다. 충북 충주시 양성면 강천리로 가는 나루이다. 『조선지리지』에 ‘손미나루(鼎山津)’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솔미나루’라 하였다.

솔미뚝방 [뚝] → 솔미저수지

솔미보 [보]

[위치] 솔미 마을에 있는 정산천의 보(淤)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솔미보’라 하였다.

솔미산 [산]

[위치] 솔미 마을 동쪽, 개수 마을 북쪽에 있는 높이 218m의 산을 말한다.

[유래] 봉우리가 두루봉, 신선봉, 노적봉 3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솔의 다리처럼 생겼으므로 ‘솔뫼>솔메>손메>손미>솔미’가 되었고 이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솔미서낭 [당]

[위치] 솔미 마을에 있는 서낭 당목을 말한다.

[내용] 매년 보름달이 뜨기 전에 수령 약 500년의 느티나무 세 그루에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 마을회관 뒤 느티나무는 약 500년 전에 ‘괴기’라는 중이 지팡이를 꽂은 것이라고 전한다.

솔미소 [소]

[위치] 아래솔미 앞 느티나무 밑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솔미소’라 하였다.

솔미저수지 [못]

[위치] 아래솔미 마을 앞 남한강가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솔미뚝방’이라고도 한다.

솔가마고개 [고개]

[위치] 거돈사에서 북서쪽으로 법천리 솔가마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솔가마골 아래에는 장들과 도시랑, 서원말이 있다. 높이는 185m이다.

[내용] 옛날 거돈사와 법천사를 오고가던 지름길이다.

승도암(僧道菴) [마을] → 선담

승묘탑 [탑] → 거돈사지 원공국사탑

신선동굴 [굴]

[위치] 솔미산에 있는 굴을 말한다.

신선바위 [바위]

[위치] 솔미 신선봉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담] 옛날에 신선과 할머니가 여기에서 바둑을 두었다. 바둑판은 바위에 손가락으로 꺾꺾 눌러 줄을 그어서 만들어 썼다. 바둑에서 신선이 이기고 할머니가 졌는데 화가 난 할머니는 옆에 오줌을 누고 신선은 이겼다고 손가락으로 줄을 그어 표시를 하였다고 한다. 그 손가락으로 그은 줄과 오줌을 눈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신선봉(神仙峰) [산]

[위치] 솔미산 정상에 있는 세 봉우리 중 218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아들굴 [굴]

[위치] 솔미산에 있는 깊이 5m의 굴을 말한다. 딸

굴 밑에 있다.

[유래] 여기에 들어가면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아들굴이라고 한다. 한국전쟁 때 마을 사람들이 이 굴로 피난하였다고 한다.

아래솔미 [마을] → 솔미

[위치] 솔미 마을 중 서쪽 아래, 남한강 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랫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래솔미’라 하였다.

아랫말 [마을] → 아래솔미

양골 [골]

[위치] 거론 양지말에서 북서쪽으로 황학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양달말 [마을] → 양지말

양지말 [마을]

[위치] 거론 마을 중 음촌 북쪽 위, 산 아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양달말’, ‘양촌(陽村)’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양달말(양촌)’이라 하였다.

[유래] 정산천 위 산 아래로 별이 잘 들므로 ‘양지말’, ‘양달말’이라 하였다.



「양지말 마을 ; 2019년」

양촌(陽村) [마을] → 양지말

어재 [고개]

[위치] 선담 마을에서 북쪽으로, 손곡리 송정으로 넘어가는 험한 고갯길을 말한다. 현계산 서쪽과 풍점고개 동쪽 사이의 능선에 있다. 고개의 높이는

420m이다.

[유래] 골짜기 위쪽에 있는 고개이므로 ‘윗재>어윗재>의재>어재’라 하였다. ‘어재’를 풀이하여 옛날 어느 임금이 이 고개를 넘었으므로 어재라 부른다 고도 한다.

[풀이] ‘어윗골, 어의골, 어잇골’ 등은 ‘위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의 ‘윗골’이 음운 변천한 것이다. 윗골의 고개인 ‘윗재’가 ‘어윗재’, ‘의재’, ‘이재’ 등으로 실현되다가 한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어재’, ‘의치(義峙)’가 되었고, ‘어재’를 ‘御재’로 보아 임금이 넘었다는 유래가 생겼다.

어재 [마을]

[위치] 담안 북쪽, 풍점골에서 선담골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의재’, ‘이재’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의치(義峙)’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의재(의치, 義峙)’라 하였다.

어재골 [골]

[위치] 선담 마을에서 북쪽으로, 어재 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염태고개 [고개]

[위치] 정산리와 단강리의 경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현 531번 부귀로가 지나고 있다. ‘염터고개’라고도 한다. 높이는 90m이다.

[내용] 옛날 거돈사지의 당간지주가 단강리 큰집 대골에서 내려와 이 고개를 넘어갔다고 전한다.

염터고개 [고개] → 염태고개

웃샘 [샘]

[위치] 개수 마을에 있는 샘을 말한다.

우산들 [들]

[위치] 거론 음촌에 있는 들을 말한다. 장승이 서 있는 들이다.

웃솔미 [마을]

[위치] 솔미 마을 중 북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공말 남쪽, 솔미산 북서쪽에 있다. ‘큰말’이

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솔미’라 하였다.

유경(遯逕) [고개] → 지르네미

음달말 [마을] → 음지말

음지말 [마을]

[위치] 거론 남쪽, 샘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음달말’, ‘응달말’, ‘음촌(陰村)’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음달말(음촌)’이라 하였다.

음촌(陰村) [마을] → 음지말

음촌저수지 [못]

[위치] 거론 음지말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응달말 [마을] → 음지말

의재 [마을] → 어재

의치(義峙) [고개] → 어재

이재 [마을] → 어재

자우실골 [골]

[위치] 조산저수지에서 북쪽 지르네미 마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자자기 [마을] → 자작말

자작(自作) [마을] → 자작말

자작개울 [내] → 정산천

자작고개(1) [고개]

[위치] 자작말에서 북서쪽으로, 법천리로 넘어가는 긴 고개를 말한다. 고갯길을 따라 현 531번 부귀로가 나 있다.

자작고개(2) [고개]

[위치] 샘골 안, 느네미골에서 동쪽으로, 흘논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자작나무골(1) [골]

[위치] 자작말에서 북서쪽으로 자작고개(1)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정산1교차로에서 531번 북서쪽으로 부귀로가 나 있는 골짜기이다.

자작나무골(2) [골]

[위치] 샘골 안, 느네미골 끝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334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으로는 험한골이 갈라져 나간다.

자작들 [들]

[위치] 자작말 남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자작들’이라 하였다.

자작말 [마을]

[위치] 공말 북서쪽, 거론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정산1교차로가 있는 마을이다. ‘자작(自作)’, ‘자자기’, ‘작실(作實)’, ‘자재기’, ‘재재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자작이(自作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자자기(자작, 작실)’라고 하였다.



「자작말 마을 : 2019년」

자작말서낭 [당]

[위치] 자작고개 남쪽 아래, 자작말 앞 도로변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약 500년 된 느티나무로 마을 당목이다.

자작천(自作川) [내] → 정산천

[위치] 정산천의 다른 이름이다. 자작말 앞을 흐르므로 ‘자작개울’, ‘자작천’이라고 부른다.

자재기 [마을] → 자작말

작실(作實) [마을] → 자작말

작실고개 [고개]

[위치] 샘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단강리 작실골의 웃작실, 아래작실 마

을이 있다. 고개 높이는 180m이다.

장골 [골]

[위치] 지르네미에서 북쪽으로, 논저리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장군바우 [바위]

[위치] 솔미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장내(塲內) [마을] → 담안

장승거리 [길]

[위치] 거돈사지 앞, 옛 정산초등학교 옆 개울가를 말한다.

[내용] 매년 새로 깎은 장승을 세워 장승군을 이루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서낭제사를 올린다. 지금은 석장승을 세워두었다.



「장승거리」; 2019년

장신거리들 [들]

[위치] 지르네미 북쪽 장골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장자울고개 [고개]

[위치] 지르네미에서 북서쪽으로, 항학산 북쪽 능선을 넘어 법천리 수전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220m이다.

재님이 [마을]

[위치] 아래솔미 북쪽, 서작 남쪽에 있는 남한강 변의 마을을 말한다.

[내용] 마을 앞에 샘개나루가 있었다. 충북 충주시

양성면 샘개 마을로 가던 나루이다.

재재기 [마을] → 자작말

젓마당고개 [고개]

[위치] 개수 마을 안에 있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절어골 [골]

[위치] 솔미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정산나루 [나루]

[위치] 솔미 북쪽, 재님이 마을 앞에 있던 나루터를 말한다. 강 건너의 충북 충주시 양성면 샘개로 가던 나루이다. 농선(農船) 1척이 있었다. ‘샘개나루’, ‘정산진’이라고도 한다.

[유래] 정산 앞에 있으므로 ‘정산나루’, ‘정산진’이라고 하였다. 강 건너에 충북 충주시 양성면 샘개 마을이 있으므로 ‘샘개나루’라고도 하였다.

정산내 [내] → 정산천

정산분교 [학교] → 부론초등학교 정산분교

정산저수지 [못]

[위치] 거돈사터 동쪽, 선득골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노적봉 남쪽 아래에 있으며 현계산 남서쪽 계곡의 물을 모은다.

[내용] 높이 36m, 길이 142m이다. 2000년에 준공하였다.



「정산저수지」; 2019년

정산진(鼎山津) [나루] → 정산나루

정산천(鼎山川) [내]

[위치] 현계산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담안, 거

론, 자작말, 공말을 거쳐 솔미에서 남한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정산내’, ‘자작천’, ‘자작개울’이라고도 한다.

정산촌(鼎山村) [마을] → 정산리

조산(造山) [산]

[위치] 황학산 북쪽, 거론 북서쪽, 조산골 끝에 있는 높이 305.2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도산(造山)’이라고 하였다.

조산골 [골]

[위치] 거론에서 북서쪽으로, 황학산 북쪽, 조산 남쪽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법천리 산수동이 있다.

조산들 [들]

[위치] 거론에서 북쪽 조산저수지에 이르는 넓은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조산들(造山坪)’이라고 하였다.

조산저수지 [못]

[위치] 거론 북쪽, 조산골 남동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내용] 1952년에 준공하였다. 높이 9.5m, 제방길이 90m이다.

중간말 [마을]

[위치] 거론과 담안 중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중간촌’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중간말(중간촌)’이라 하였다.

[유래] 거론과 거둔사 중간에 있는 마을이므로 중간말이라 하였다.



「중간말 마을 : 2019년」

중간말고개 [고개]

[위치] 중간말에서 북서쪽으로, 지르네미 남쪽 부두골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150m이다.

중간촌(中間村) [마을] → 중간말

지느러미 [마을] → 지르네미

[유래] ‘지르네미’가 자음이 교체되어 발음이 편리한 ‘지느러미’로 실현되기도 한다.

지르네미 [마을] → 지르네미

지르네미 [마을]

[위치] 담안 북서쪽 학교개 너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논저리고개 남쪽, 장자울고개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지느러미’, ‘지르네미’, 한자로 ‘유경(遯)’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지르네미(유경)’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법천사와 거둔사 스님들이 서로 왕래하는 지름길이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거둔사에서 북서쪽으로 학교개를 지나면 지르네미 마을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장자울고개를 넘으면 법천리에 닿는다.

[풀이] ‘질러가다’의 뜻인 ‘지르(다)’에 ‘넘다’가 결합하여 ‘지르+넘+이>지르네미>지르네미>지르네미’가 되었다. ‘이’는 명사형성 접미사이다.

지르르니골 [골]

[위치] 선담골 중간에서 북쪽으로, 365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노적봉 북쪽 아래에서 북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지차골 [골]

[위치] 선담골 옛 선담 마을 앞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노적봉 북동쪽에 있다.

[내용] 『산중일기』를 쓴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의 묘소가 있다.

참나무골 [골]

[위치] 샘골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측새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서 달밭골과

토끼이목골이 갈라진다. 골 너머에 단강리 선바골이 있다.

참샘들 [들]

[위치] 샘골 남동쪽, 참나무골 서쪽 아래에 있는 작은 들을 말한다.

천곡(泉谷) → 샘골

촉새봉 [산]

[위치] 샘골 동쪽, 단강리 사기만 중간말 서쪽에 있는 높이 394.7m의 산을 말한다. 덕갈봉 능선 남쪽에 있다. 정산리와 단강리의 경계되는 산이다.

[유래] 산이 매우 가파르고 정상이 뾰족하므로 촉새봉이라고 하였다.

큰말 [마을] → 웃솔미

토끼이목골 [골]

[위치] 샘골 마을 동쪽 참나무골에서 동쪽으로, 덕갈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평촌들이 있다.

통점고개(通帖--) [고개] → 풍점고개

평촌들 [들]

[위치] 토끼이목골 입구, 참샘들 동쪽 위에 있는 작은 들을 말한다.

포담(浦潭) [마을] → 개수

풍점고개 [고개]

[위치] 거둔사지 담안에서 북쪽으로 풍점골을 거쳐 손곡리 손곡저수지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정산로가 지나가고 있다. ‘통점고개’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260m이다. 『조선지지자료』에 ‘통점고지(銅店峴)’라고 하였다.

풍점골 [골]

[위치] 담안에서 북쪽으로, 풍점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정산로가 지나가고 있다.

학교개 [고개]

[위치] 학교말에서 북서쪽으로, 지르네미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학교말 [마을]

[위치] 거둔사지 앞 옛 정산초등학교가 있던 마을을 말한다.

험한골 [골]

[위치] 샘골 안, 느네미골 끝에서 남동쪽으로, 덕갈봉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북동쪽으로는 자작나무골이 갈라져 나간다.

현계산(玄溪山, 玄鷄山) [산]

[위치] 구만이 남쪽, 서지 남서쪽, 서지고개 북서쪽에 있는 높이 534m의 산을 말한다. 미륵산의 줄기가 서쪽으로 봉림산에 이르고 다시 북서쪽으로 뻗어 봉을 이룬 산으로, 손곡리와 정산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길산’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원주읍지』에 고을 남쪽 60리에 있다고 하였고, 『조선지지자료』에 ‘부론면1리 거론(巨論) 마을에 있다.’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현계산(玄鷄山)’이라 하였다.

[유래] 현계산(玄溪山)은 ‘검은 계곡의 산’이라는 뜻으로, 산이 높고 험하며 나무가 울창해서 멀리서 보면 검게 보이므로 현계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산의 모습이 암탉의 형상이므로 현계산(玄鷄山)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산으로 법천사와 거둔사가 이 산자락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 산을 중심으로 북쪽, 서쪽, 남쪽에 많은 골짜기들이 형성되어 있다.

흘논골 [골]

[위치] 샘골의 느네미골 안 자작나무골 입구에서 남동쪽으로, 덕갈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황소고개 [고개]

[위치] 아래솔미에서 북동쪽으로, 웃솔미와 공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황학산(黃鶴山) [산] → 법천리 황학산

흙산골 [골]

[위치] 황소고개 아래의 골짜기를 말한다.

흥호리(興湖里)

[위치]

흥호리는 부론면의 북서쪽에 있다.

동쪽으로는 손곡리와 정산리, 서쪽으로는 섬강을 경계로 하여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남쪽으로는 법천리, 북쪽으로는 노림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부론면(富論面)의 육리(六里) 지역으로, 흥원창과 시장이 있었으므로 흥원창(興原倉) 또는 흥원장(興原場)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검단·신촌·성등·월봉·양호·창촌을 병합하여 흥호리(興湖里)라 하여 원주군 부론면 흥호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부론면 흥호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부론면 흥호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함에 따라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가 되었다.

[유래]

고려 초기에 포(浦)가 설치되어 운영되면서 은섬포(銀蟾浦)와 흥원창(興原倉)의 이름이 등장하므로 흥원(興原)과 은섬포(銀蟾浦)의 이름은 유래가 매우 깊은 것이다.

흥원창과 시장이 있었으므로 흥원창(興原倉) 또는 흥원장(興原場)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흥원창(興原倉)과 양호(良湖)의 이름을 따서 흥호리(興湖里)라 하였다.

가래울 [내] → 가래울

가래울들 [들] → 가래울들

가래울저수지 [못] → 가래울저수지

가래울 [내]

[위치] 긴경산 서쪽 무상골에서 가래울저수지와 가래울들을 거쳐 새말 앞에서 흥호천에 들어가는 작은 내를 말한다. '가래울'이라고도 한다.

가래울들 [들]

[위치] 가래울 남쪽, 가래울저수지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하살미들 동쪽으로 있는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래울'이라 하였다.

가래울저수지 [못]

[위치] 가래울 동쪽, 새말 남동쪽, 두둑말 남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래울저수지'라 하였다.

가루개래 [마을] → 새말

[풀이] '가루'는 '가르대(分)'에서 온 것이고 '개'는 고개(峙, 峴)를 뜻하여 '가루+개>가루개'가 되었다. 낮은 고개가 여러 개 있으므로 '가루개', '가루고개'라 하였다. '가루개래'는 '가루개'에 내(川)가 결합하여 '가루개+내>가루개내>가루개래'가 된 것이다. 원래는 가루개에 있는 내를 지칭하였으나 마을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개똥들 [들] → 아채들

개똥머리 [모롱이]

[위치] 지루무골과 아채 사이의 길모퉁이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개똥모롱이'라 하였다.

개똥모롱이 [모롱이] → 개똥머리

검단리(黔丹里) [마을] → 검단이

검단사터(黔丹寺-) [터]

[위치] 검단이 마을 동쪽, 절골에 있던 옛 절의 터를 말한다.

[내용] 이곳 주변에 청운군(靑雲君) 심명세(沈命世)의 묘소가 있는데, 심명세 사후에 그의 명복을 빌

기 위해 이 절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절터는 묵밭이 되어 있으며 석축과 우물터가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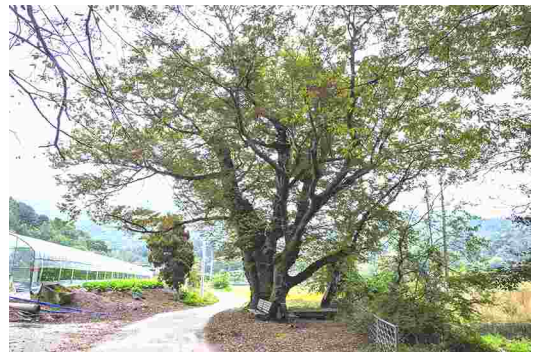
검단산(劍丹山) [산]

[위치] 검단 마을 북쪽에 있는 높이 153m의 산을 말한다. 산 남쪽 아래에 심명세의 묘소가 있다.

검단서낭 [당]

[위치] 검단이 마을 앞에 있는 수령 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 서낭을 말한다.

[내용] 매년 음력 정월에 날을 정해 당고사를 지낸다. 서낭나무의 잎이 필 때 잎이 밑에서부터 피면 모내기를 들의 아래에서부터 하였고 잎이 위에 서부터 피면 들의 윗부분부터 모내기를 하였다. 한꺼번에 피면 일시에 모를 내었는데 이때는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검단서낭 ; 2019년」

검단니(黔丹-) [마을]

[위치] 승등 남동쪽, 뒷산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금단(錦丹, 錦壇)'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검단니(黔丹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검단니(금단, 錦丹)'라 하였다.

[유래] 검단사(黔丹寺)라는 절이 있어 '검단니'라는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풀이] '검단'의 '검'은 '금'계통의 말로 '높고 큰,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단'은 '담'처럼 '터' 또는 '마을'을 뜻한다. 따라서 '검단'은 '크고 거룩한 땅(마을)'의 뜻이다. '금단(錦壇)'은 '검단'을 한자로 미화하여 기록한 것으로, '화려한 제단'이라

는 뜻이다.

[내용] 조선 인조 때 공조참판을 지낸 심명세가 이곳에 와보고 이곳에 묻어달라고 하였는데, 그의 유언대로 이곳에 묘를 쓴 후 심씨 집안이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검단이 마을 : 2019년」

검단이앞다리 [다리]

[위치] 검단이 마을 앞에 있던 다리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검단이앞다리’라 하였다.

검단이천 [내]

[위치] 경경산 남쪽 산줄기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검단이를 지나고 승등 앞 귀밀들에서 흥호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구름다리 [길]

[위치] 양샛에서 흥호리로 가던 길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름다리’라 하였다.

구름다리들 [들]

[위치] 구름다리 길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구름다리들(雲橋坪)’이라 하였다.

구말들 [들] → 귀밀들

귀밀들 [들]

[위치] 승등 마을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뒷산 북동쪽 아래에 있다. ‘구말들’, ‘기밀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구말들(九密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귀밀들’이라 하였다.

금단(錦丹, 錦壇) [마을] → 검단이

기밀들 [들] → 귀밀들

다릿골 [골]

[위치] 강원도와 경기도를 잇는 현 영동고속도로 섬강교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승등 마을이 있다.

[내용] 다릿골 입구에 배터나루가 있어 강원도와 여주를 왕래하였다.

다릿골 [나루]

[위치] 현 영동고속도로 섬강교 위치에 있던 나루를 말한다. 승등에서 서쪽으로 섬강 건너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다리골로 가던 나루이다.

다릿골 [마을]

[위치] 다릿골 나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배터’라고도 하였다.

도둑골 [골] → 두둑골

도둑말 [마을] → 두둑말

도토골 [골]

[위치] 새말에서 서쪽으로, 왕박지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독지골 [골]

[위치] 아채 동쪽 옆에서 남쪽으로, 용마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동매 [마을]

[위치] 월봉 남쪽 동매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물에 잘 잠기는 땅이므로 ‘동매’라 하였다고 한다.

[내용] 이곳은 섬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곳이며, 일찍부터 인류가 정착하였던 곳으로 마을 주변 넓은 지역에서 찧개, 펜석기 등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다. 옛날에는 이곳까지 강물이 들어와 나루가 있었고 강원도, 충청도는 물론 경상도 지방의 보부상들까지 이 나루를 건너다녔다고 한다.

동매산 [산]

[위치] 월봉 마을 남쪽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작고 둥근 산을 말한다. 높이는 61m이다.

두독골 [골] → 두독골

두독말 [마을] → 두독말

두독 [마을] → 두독말

두독골 [골]

[위치] 새말에서 동쪽 진검저수지로 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두독골’, ‘도독골’이라고도 한다.

두독들 [들]

[위치] 두독말 동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진검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다. ‘못두독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지상두들(池上頭坪)’이라고 하였다.

두독말 [마을]

[위치] 진검저수지 서쪽 독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두독말’, ‘도독말’, ‘못두독’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두독(斗獨)’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두독말’이라고 하였다.

[유래] 진검저수지 독 위 둔덕에 마을이 있으므로 두독말이라 하였다.

[풀이] ‘두독’은 ‘두독’이 변한 말이고 ‘도독’은 ‘두독’의 모음이 교체된 것이다.

뒷골 [골]

[위치] 섬강에서 뒷산을 향하여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월봉 마을 북서쪽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뒷골’이라 하였다.

뒷산(1) [산]

[위치] 월봉 북쪽 뒤, 뒷골 위에 있는 139.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뒷산(2) [산]

[위치] 용마산 남서쪽, 양삿 북동쪽에 있는 높이 166.5m의 산을 말한다. 법천리와 흥호리의 경계 되는 산줄기에 있다. ‘후산(後山)’이라고도 한다.

[유래] 예전 이 지역의 중심 마을인 양삿의 뒤쪽에 있으므로 뒷산이라 하였다.

뒷산들 [들]

[위치] 뒷골 안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

료』에 ‘뒤산들(後山坪)’이라고 하였다.

망골 [골]

[위치] 새말에서 동쪽으로, 두독말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매골고개 [고개]

[위치] 아채에서 남동쪽 법천리 매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43m이다.

모이골 [골]

[위치] 새말 남쪽 하살미들에서 북서쪽으로, 선두리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가운데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현 흥호리교회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못두독 [마을] → 두독말

못두독들 [들] → 두독들

무상골 [들]

[위치] 가래울저수지 남동쪽 위에 있는 골짜기의 들을 말한다. 진검저수지 남쪽에 있다.

바람골 [골]

[위치] 검단이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수영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밤개산 [산]

[위치] 월봉 북동쪽, 검단이 남서쪽에 있는 156.7m 높이의 산이다. 수영봉의 북서쪽에 있는 산이다.

배터 [마을] → 다릿골

[위치] 다릿골나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새둔지 [들]

[위치] 새말 마을 북쪽으로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새말 [마을]

[위치] 가루개 남쪽, 하살미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가루개래’, ‘신촌’, ‘신흥’이라고도 한다. ‘웃말’과 ‘아랫말’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시말(新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신흥(가루개래, 신흥리)’이라 하였다.

[유래] 역사가 오랜 마을로, 한국전쟁 후 온 마을

이 불탄 뒤 마을을 다시 세웠으므로 ‘새말(신촌, 신흥)’이라 하였다.



「새말 마을 : 2019년」

새말들 [들]

[위치] 새말 동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새말앞다리 [다리]

[위치] 새말 앞에 있던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말앞다리’라 하였다.

서누리 [들] → 서느리

서느리 [들]

[위치] 다릿골 북쪽, 서느리고개 서쪽의 섬강에 발 달한 넓은 들을 말한다. 현 영동고속도로 섬강교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이다. ‘서누리’, ‘서늘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선을들(先乙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서늘들’이라 하였다.

서느리고개 [고개]

[위치] 새말 남서쪽 모이골에서 북서쪽으로, 섬강강변 서느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아래 마을 사이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높이는 135m이다. ‘선두리고개’라고도 한다.

서늘들 [들] → 서느리

서리개고개 [고개] → 소리개고개

서창(西倉) [터] → 흥원창

[위치] 흥원(興原)에 있던 창고를 말한다. 『여지도서』에 32칸으로 고을 서쪽 흥원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조선시대 원주의 주요 관창은 북창(안창), 서창(흥원), 동창(주천) 등이었다. 흥원에는 서창이 있었다.

선두리고개 [고개] → 서느리고개

[유래] ‘서느리’를 ‘서늘들’, ‘선을들’이라고도 하므로 ‘선을들>선들>선들이>선돌이>선두리’로 추정된다.

섬구포(蟪口浦) [나루] → 은섬포, 법천리 양호나루

성등(聖登) [마을] → 승등

성등이 [마을] → 승등

소리개고개 [고개]

[위치] 아채에서 남동쪽으로 법천리 소리개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20m이다. ‘서리개고개’라고도 한다.

수영고개 [고개]

[위치] 검단이에서 동쪽 손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수영봉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조선지리지』에 ‘슈양현(垂陽峴)’이라 하였다.

수영봉 [산]

[위치] 검단이 남동쪽에 있는 높이 283m의 산을 말한다. 흥호리, 법천리, 손곡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승등이 [마을] → 승등

승등 [마을]

[위치] 하살미 서쪽, 새말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성등이’, ‘승등이’, ‘승등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승등이(聖登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성등(聖登, 승등이)’라 하였다.

[유래] ‘성등이’, ‘승등이’는 배말뚝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내용] 옛날 이곳에는 승등 서쪽 산 너머에 다릿골나루(배터)가 있었고 승등은 그 나루터의 기지 역할을 하였다. 남한강의 배가 다릿골까지 올라왔으므로 마을은 번성하였다고 한다.

승등이 [마을] → 승등

승등이고개 [고개]

[위치] 승등에서 서쪽으로, 다릿골 배터와 서느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승등이앞들 [들]

[위치] 승등 마을 동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성등이 앞들’이라 하였다.

신촌(新村) [마을] → 새말

신흥(新興) [마을] → 새말

신흥리(新興里) [마을] → 새말

아랫말 [마을]

[위치] 새말 중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우촌(衛又村) [마을] → 아채

아차(峨嵯) [마을] → 아채

아차동(衛又洞) [마을] → 아채

아채 [마을]

[위치] 창말 북동쪽, 월봉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차’, ‘아채’라고도 한다. 『원주읍지』에 ‘아우촌(衛又村)’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앗치(牙村)’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아채(아채)’라 하였다.



「아채 마을 ; 2019년」

아채들 [들]

[위치] 아채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개똥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기똥들(開東坪)’이라고 하였다.

아채앞다리 [다리]

[위치] 아채 마을 앞에 있던 옛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아차앞다리’라 하였다.

아채천 [내]

[위치] 소리개고개, 매골고개에서 서쪽으로 아채를 지나 흥호천에 합류하는 작은 내를 말한다.

아채 [마을] → 아채

여우골 [골]

[위치] 월봉 뒷골 끝에서 북쪽으로 다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뒷산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왕박골 [골]

[위치] 도토골에서 왕박지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왕박지 [산]

[위치] 새말 서쪽 영동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높이 136m의 산을 말한다. 산 서쪽에 선두리고개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왕박지’라 하였다.

용마산(龍馬山) [산]

[위치] 창말 남동쪽, 매골고개 남서쪽에 있는 높이 242.8m의 산을 말한다. 법천리와 흥호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용마산’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이 산의 정기를 받아 임경업 장군과 용마(龍馬)가 났다고 한다.

웃말 [마을]

[위치] 새말 중 북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주막거리 [마을]

[위치] 하살미 마을 앞 주막이 있던 마을을 말한다.

월봉(月峰) [마을]

[위치] 창말 북쪽, 아채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월봉(月峰)’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월봉(月峰)’이라 하였다.

[내용] 독립운동가 한기악(韓基岳, 1898~1941)이 마을 이름을 따라 호를 ‘월봉(月峰)’이라 하였다.



「월봉 마을 : 2019년」

월봉(月峰) [산]

[위치] 월봉 마을 북쪽에 있는 높이 119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월악바위산(月岳岩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산의 모습이 달을 닮았으므로 월봉이라 하였다고도 하고, 옥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형국이라 하여 월봉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창말에서 보면 저녁에 달빛이 가장 먼저 비친다고 한다.

은섬포(銀蟾浦) [나루] → 법천리 양호나루

[위치] 흥원창이 있던 남한강의 나루로, 양호나루를 말한다. ‘섬구포(蟾口浦)’라고도 하였다. 『대동지지』에 ‘은섬포(銀蟾浦)’, ‘섬구포(蟾口浦)’라고 하였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포(浦)의 기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고려 초부터 전국적으로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초기 전국에 60개의 포를 설치, 운영하였는데 은섬포에는 흥원창(興元倉)을 두었다. 포(浦)의 주된 기능은 조운(漕運)의 기점으로서의 역할이었다. 각 군현은 조세로 거두어들인 곡물을 인근의 포로 운반했다가 개경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따라서 늦어도 고려 초기부터 은섬포(흥원창)가 영서지방 조운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응골 [골]

[위치] 섬강에서 북동쪽으로 뒷산(1)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원주섬강두꺼비캠핑장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жат나무골 [골]

[위치] 검단이 마을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수영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지루무고개 동쪽, 바람골 서쪽에 있다.

절골 [골]

[위치] 검단이 마을에서 동쪽으로, 긴경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 안에 검단사터가 있으므로 절골이라 하였다.

지루무고개 [고개]

[위치] 지루무골에서 북쪽으로, 밤개산 동쪽을 넘어 검단리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검단이 잣나무골이 있다. 고개 높이는 135m이다.

지루무골 [골]

[위치] 뒷산(1) 남동쪽, 월봉 북동쪽에서 동쪽으로 수영봉을 향하여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밤개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진개미 [마을] → 진검

진개미다리 [다리]

[위치] 진검 마을 앞에 있던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진개미 다리’라 하였다.

진개미들 [들]

[위치] 진검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북쪽 길 건너에 무상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정개미들(曾啓味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진개미들’이라 하였다.

진검(眞檢) [마을]

[위치] 무상골 남쪽, 진검저수지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유진건철 남쪽, 진검저수지 동쪽에 있다. 노림리와 흥호리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진개미’, ‘진기미’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진개미(진검)’라 하였다.

진검저수지 [못]

[위치] 진검 마을의 서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진개미저수지’라 하였다.

진검천(眞檢川) [내]

[위치] 긴경산에서 서쪽으로 흘러 진검을 지나고 새말들에서 흥호천에 합류하는 작은 내를 말한다.

진기미 [마을] → 진검

창남나루 [나루] → 법천리 양호나루

[위치] 양산 흥호도선장에서 서쪽으로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으로 가는 남한강의 나루를 말한다.

[유래] 강 건너 편에 여주시 ‘창남이고개’가 있으므로 ‘창남나루’라고도 하였다.

창말 [마을]

[위치] 월봉 남쪽, 아채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창촌(倉村)’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창말(倉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창말(창촌)’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흥원창(興原倉)이 있었으므로 창말이라 하였다. 큰 창고와 시장이 이곳에 있었으나 1936년 대흥수 이후 법천리 개치로 중심지가 옮겨졌다.

[내용] 창말의 지형은 산으로 막혀 마치 울타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천연의 언덕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옛 창고 자리에 부론초등학교가 있었으나 1936년에 학교가 법천리 개치로 옮겨간 이후 그 자리는 밭이 되었다.



‘창말 마을 ; 2019년’

창촌(倉村) [마을] → 창말

하살미 [마을]

[위치] 승등이 동쪽, 새말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흥호1리 마을회관이 있다.

하살미들 [들]

[위치] 하살미 마을 북쪽 낮은 곳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새말 남쪽에 있는 들이다.

호랑바우 [바위]

[위치] 호랑이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호랑바우’라 하였다.

호랑이골 [골]

[위치] 새말 새둔지에서 서쪽으로, 왕박지산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흥원도(興原渡, 興元渡) [나루] → 법천리 양호나루

[위치] 『동국여지』에 나오는 나루 이름이다. 고을에서 남쪽으로 50리에 있는데 한강 나루터가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유래] 고려 때 흥원(興元), 흥원진(興原津)이라고 하였다. 한강의 진도(津渡)이다.

흥원장(興原場) [시장] → 창말

흥원진(興原津) [나루] → 법천리 양호나루

흥원참(興原站) [원]

[위치] 흥원에 있던 참(站)을 말한다. 고을의 서쪽 35리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참은 역과 역 사이의 쉬어가는 곳이다.

흥원창(興原倉) [마을]

[위치] 조창(漕倉)이 있던 마을로 현 창말을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을 남쪽 30리, 섬강 북쪽 언덕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흥원창(興湖)’이라고 하였다.

[내용] 고려 초에 남도(南道)의 수군(水郡)에 12창(倉)을 두었을 때 은섬포(銀蟾浦)에 흥원창이 설치되었다. 원주·평창·영월·정선·횡성 등 강원도 영서지방 남부 5개 고을의 조세(租稅)와 세곡(稅穀)을 이곳에 수납하여 조운(漕運)으로 서울로 옮

겼다. 조창에서는 전년에 거두어 저장한 세미(稅米)를 이듬해 2월부터 4월까지 경창으로 운송하였는데, 흥원창에는 적재량이 2백 석인 평저선(平底船) 21척이 있었다.

조선시대 원주의 주요 관창은 읍내에 있는 사창(司倉)과 별창(別倉)을 제외하고 북창(안창), 서창(흥원), 동창(주천)이 있었고, 흥원에는 서창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관선조운(官船漕運)이 쇠퇴되고 사선임운(私船賃運)이 널리 행해지면서 이름만 존재하였고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수로의 이용은 줄어들어 1910년경에는 대체로 폐지되었다.

고려 충렬왕 때 판흥원창(判興元倉)이었던 조신(曹愼)이 원충갑(元冲甲)과 함께 영원산성에서 합단적을 물리쳤다.



「흥원창 : 1796년」

흥원창터 [터]

[위치] 창말에 있던 옛 흥원창 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흥원창터’라 하였다.

흥창모퉁이 [모퉁이]

[위치] 승등이에서 흥창으로 가던 길의 모퉁이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흥창모퉁이’라 하였다.

흥창버덩 [들]

[위치] 창말에서 남쪽으로 양샷을 지나 개치에 이르는 넓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흥창버덩’이라 하였다.

흥호(興湖) [마을]

[위치] 섬강이 남한강에 합류하는 곳으로, 현 창말

지역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유래] 양샷 앞강이 호수같이 넓고 깊어 양호(良湖)라 하였는데 흥원창과 양호의 이름을 따서 흥원창의 호수라는 뜻에서 흥호(興湖)라 하였다. 이 마을은 고려 때 원주, 영월, 평창, 정선, 횡성 심지어는 강릉, 삼척, 평해 지방의 세금 곡식이나 물자를 이곳에 모아 배를 이용하여 개성으로 보냈으며 조선시대에는 원주 등지의 조세만 모아 보냈던 곳으로 흥원창(興原倉)이라 하였다. 고려 때에는 전국 12조창의 하나였는데 곡식 200석씩을 싣는 평저선 21척이 있었다.

흥호나루 [나루] → 법천리 양호나루

흥호도선장 [나루] → 법천리 양호나루

[위치] 양샷 서쪽 강가에 있던 나루를 말한다.

흥호천(興湖川) [내]

[위치] 긴경산 줄기 골짜기의 물이 서쪽으로 흘러 현 49번 견원로를 따라 남서로 진검과 승등을 거쳐 월봉 서쪽에서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제6편

소초면(所草面) 지명(地名)



소초면 소재지 ; 1968년

[위치]

소초면은 원주시의 북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시청에서 약 13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횡성군 강림면과 우천면, 서쪽으로는 태장동 및 섬강을 경계로 하여 호저면 대덕리, 남쪽으로는 행구동과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북쪽으로는 횡성군 횡성읍에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소초면(所草面) 지역이었다.

1760년대 『여지도서』에 소초면은 1리·분1리·2리·분2리·3리·4리·분4리·5리·6리·분6리·7리·8리 등 12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장양리(초1리, 분1리, 분4리)·수암리(2리)·평장리(본4리)·의관리(5리)·둔둔리(본6리, 분6리)·교항리(7리)·학곡리(8리) 등 7개 리로 하였다.

1938년 원주면(原州面)이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하면서 원주면 소속이었던 흥양리(2리)를 편입하여 8개 리로 하여 원주군 소초면이 되었다.

1955년 원주시 승격과 더불어 원주군이 원성군으로 바뀌면서 원성군(原城郡) 소초면이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소초면이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함에 따라 원주시 소초면으로 되었다.

[유래]

살여울 소재바위의 이름을 따서 소초면(所草面)이라 하였다. 또는 원주지역의 역마(驛馬) 사육을 위한 풀을 베었다고 하여 소초면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소재바위는 바위가 소의 새바닥(헛바닥)처럼 생겼으므로 붙여진 이름으로, 이때에 ‘소’의 소리를 취해서 ‘소(所)’라 하고 ‘새’는 풀로 보아서 ‘초(草)’를 취하여 ‘소초(所草)’라 하였다. ‘헛바닥>새바닥’처럼 ‘새’는 ‘혀’의 방언이다.



소초면사무소 ; 19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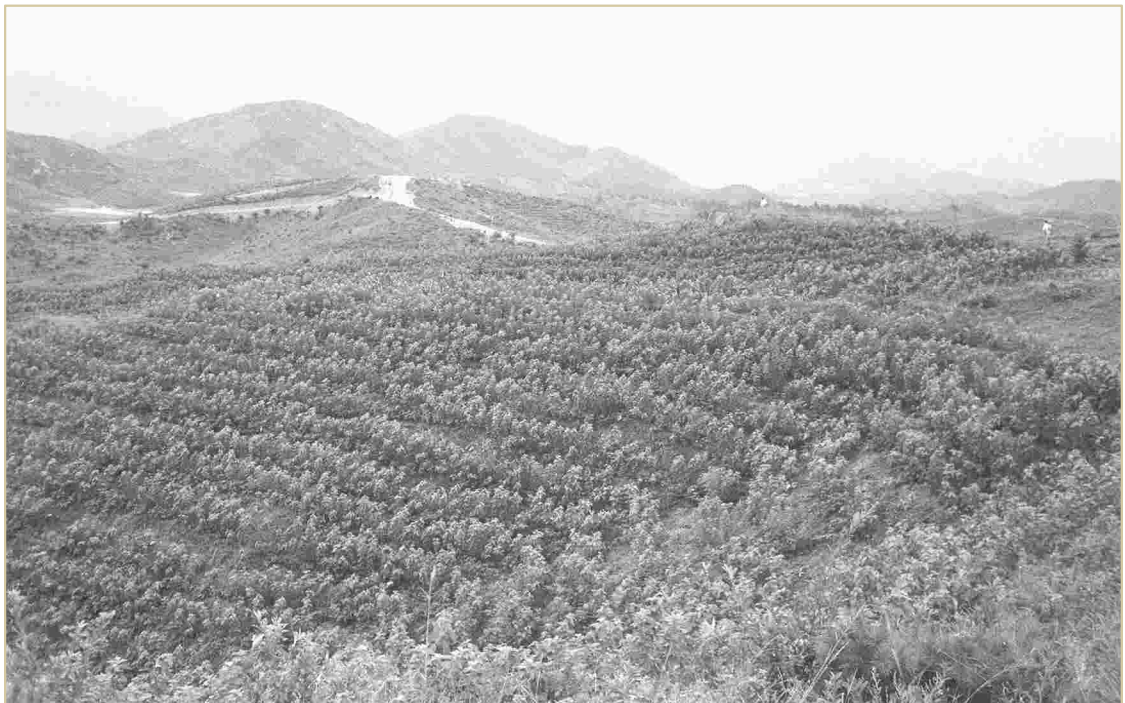
소초면사무소 준공식 ; 1989년





교항리 공산 마을 간이급수통수 기념식 ; 1979년

수암리 뽕나무단지 ; 1971년





의관리 전기점등식 ; 1973년

장양2리 구판장 ; 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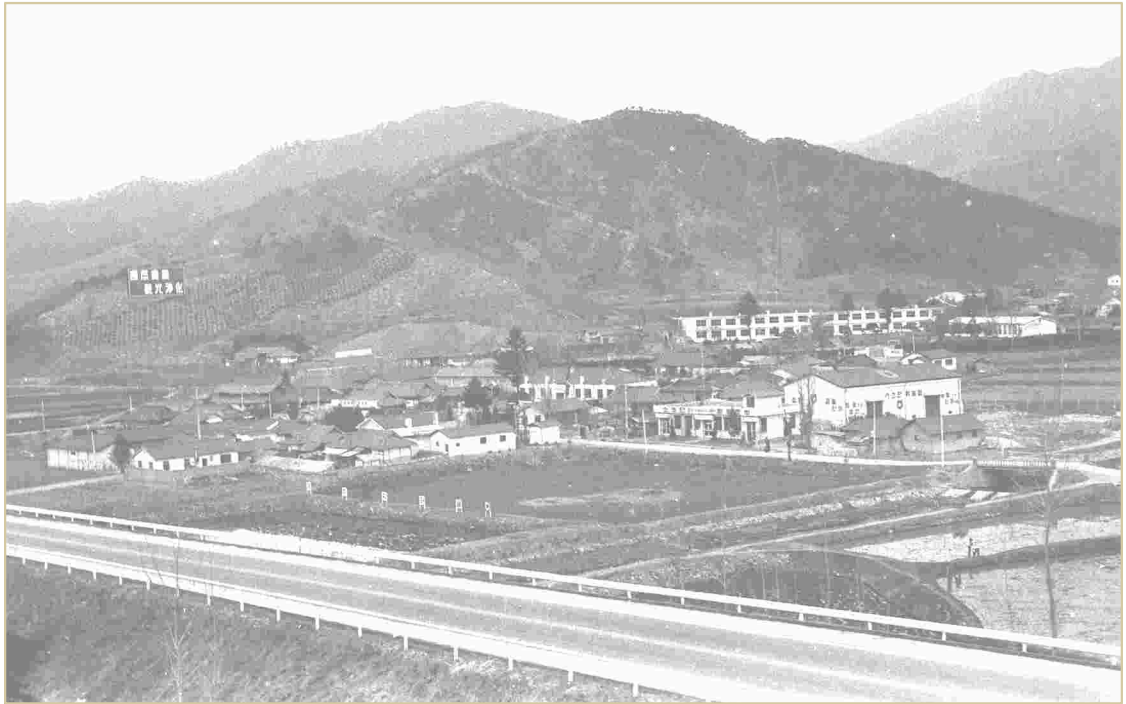




장양리~평장리 도로포장 준공식 ; 1987년

장양리 원주연초제조창 ; 1985년





평장리 ; 1977년

학곡리 학곡저수지 인근 도로 ; 1980년





학곡리 구룡사 입구 주차장 ; 1983년

학곡1리 백교 마을회관 준공식 ; 1993년





홍양리 홍양교 ; 1972년

소초면 소재지 ; 2015년



교항리(橋項里)

[위치]

교항리는 소초면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학곡리, 서쪽으로는 둔둔리, 남쪽으로는 평장리, 북쪽으로는 덕고산 줄기를 경계로 횡성군 횡성을 정암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소초면(所草面)의 지역으로서 칠리(七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공산·대동·독점·사전·일리실·율목정을 병합하여 교항리(橋項里)라 하고 원주군 소초면 교항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소초면 교항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소초면 교항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가 되었다.

[유래]

긴 다리가 있으므로 ‘다리목’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적어 교항리(橋項里)라 하였다.

가래골 [골]

[위치] 다리목에서 골말을 거쳐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숯돌봉 서쪽 아래에 있다.

거리담 [마을]

[위치] 대동 남서쪽, 숯돌봉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거석암(巨石岩) [바위] → 들언지바우

경현사터(景賢祠-) [당]

[위치] 공산 마을 안쪽 산기슭에 있던 고려 충렬왕 때의 문신 노당(露堂) 추적(秋適)을 봉안한 사당을 말한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내용] 1965년에 이곳에 많이 거주하는 양지 추씨 집안에서 건립하였다. 추적은 명심보감을 편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골말 [마을]

[위치] 다리목에서 북동쪽으로 난 가래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숯돌봉 서쪽 아래, 영동고속도로 동쪽에 있다. ‘동촌(洞村)’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골말(동촌)’이라 하였다.

[유래] 다리목 안쪽 골짜기에 마을이 있으므로 ‘골말’이라 하였다.

공산(公山) [마을]

[위치] 다리목 북쪽 앞고개 너머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큰말’, ‘안공산’, ‘넘말’, ‘데링계’ 마을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공산(公山)’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공산(公山)’이라 하였다.



「공산 마을 ; 2019년」

공산고개 [고개]

[위치] 공산 마을 안공산에서 서쪽으로, 둔둔리 공산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340m이다. ‘공산재’라고도 한다.

공산성황당(1) [당]

[위치] 공산 마을 앞 앞고개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내용]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성황고사를 지낸다. 마을 앞 성황당(1)에 제사를 지낸 후 산 아래의 성황당(2)에 제사를 지낸다.

공산성황당(2) [당]

[위치] 공산 큰말 북동쪽 405.2m 산 아래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공산재 [고개] → 공산고개

교항리(橋項里) [마을] → 다리목

교항리 석조불두 [불상]

[위치] 다리목 우저터 앞 도로 옆에 있는 불두(佛頭)를 말한다.

[내용] 고려시대 지방 양식을 잘 나타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24호이다.



「교항리 석조불두 ; 1975년」



「교항리 석조불두 ; 2018년」

구럭고개 [고개] → 구억고개

구억고개 [고개]

[위치] 대동 석경사에서 동쪽으로, 덕골(2)를 지나 경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럭고개’라 하였다.

[풀이] 경말(<구억말><구석말><구석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므로 ‘구석>구석>구억’이 되었다.

구억마을 [마을] → 경말

굴바우 [바위]

[위치] 덕고산 중턱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경말 [마을]

[위치] 독점 남쪽 양지골 먼 안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석경사 동쪽 너머에 있던 마을로 골 안에 논이 있었다.

[유래] 골짜기의 먼 구석에 마을이 있으므로 ‘경말’이라 하였다. 또는 옛날 구억 재산의 부자가 살았으므로 ‘구억말’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구석마을>구석마을>구억말>경말’로 음운 변천하였다. 구석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귀신바우 [바위]

[위치] 공산 앞, 삼승이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무당들이 와 치성을 드리는 바위이므로 귀신바우라 부른다.

꽃밭골 [골]

[위치] 다리목 안담에서 북쪽으로, 289.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참꽃(진달래)이 많아서 꽃밭골이라 하였다.

넘말 [마을]

[위치] 공산 마을 중 큰말의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월평장(越平庄)’이라 하였다.

[유래] 큰말에서 서쪽으로 작은 산을 넘어 있으므로 넘말이라고 하였다.

농바우 [바위]

[위치] 모래기 뒤, 농바우골 입구에 있는 바위를 말

한다.

[유래] 우람한 바위가 마치 장룡처럼 생겼으므로 농바우라 하였다.



「농바우 ; 2018년」

농바우골 [골]

[위치] 모래기 뒷산, 농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모래기에서 북쪽으로, 황성읍 정암리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다락 [마을]

[위치] 독점 북동쪽, 삼형제봉 북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대규모로 택지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다랏’이라 하였다.

[유래] ‘다락’은 높은 곳을 뜻하므로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풀이] ‘다락, 다랭이’는 산, 또는 높은 곳을 뜻하는 옛말 ‘달’에서 나온 지명으로, ‘달+악>달악>다락’이 되었다. ‘달’은 ‘高, 山’의 뜻이고 ‘악’은 ‘작大(小)’는 뜻의 명사화 접사이다. 이 마을에서 남쪽 위로 뻗은 골짜기가 ‘다리골(<달+(ㅣ)+골)’이므로 ‘다락’은 옛말 ‘달’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랏 [마을] → 다락

다리골 [골]

[위치] 다락 마을에서 형제교를 지나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양지골과 이리실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풀이] ‘달+(ㅣ)+골>다리골’이 되었다. ‘달’은 ‘高, 山’의 뜻이고 ‘ㅣ’는 매개모음이다. 골짜기의 마을 이름 ‘다락(<달+악>’과 같이 ‘산 또는 높은 곳’을

뜻하는 옛말 ‘달’에서 나온 지명이다.

다리목 [마을]

[위치] 탑고개 북쪽 아래, 대동 서쪽에 있는 큰 마을을 말한다. ‘골말’, ‘안담’, ‘부릿담’, ‘우저티(음달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서 ‘교항(橋項)’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다리목(橋項)’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교항리(다리목)’라 하였다.

[유래] 골말 마을 앞에 옛날 긴 다리가 있었으므로 다리목이라 하였다.

당골 [골]

[위치] 공산 넘말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남쪽 산 너머에 화랑개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당골(堂谷)’이라 하였다.

[유래] 산제당이 있었으므로 당골이라 하였다.

당골 [마을]

[위치] 당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당골’이라 하였다.

당골산제당 [당]

[위치] 공산 넘말 남쪽 당골에 있는 산제당을 말한다.

대동(垈洞) [마을]

[위치] 다리목 동쪽, 지치리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타골’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대동(垈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타골(垈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타골(대동)’이라 하였다.



「대동 마을 : 2019년」

댓말골 [골]

[위치] 다리목 안담에서 북쪽으로, 영동고속도로 옆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공산 마을로 올라가는 길이 나 있고 골짜기 위에 앞고개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댓말골짜기’라 하였다.

댓말골짜기 [골] → 댓말골

댕발골 [골] → 뒸발골

덕고산(德高山) [산]

[위치] 공산 마을 북쪽에 있는 높이 521.2m의 산을 말한다. 교항리와 둔둔리의 경계이며 원주시와 횡성군 횡성을 청룡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이재’, ‘이재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이재(德高山)’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덕고산(德高山)’이라고 하였다.

[내용]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먼저 이 산을 차지한다고 한다.

[풀이] ‘덕’은 산 또는 언덕을 나타내는 지명소이다. ‘덕장, 덕대(선반, 시렁), 언덕·둔덕’처럼 ‘덕’의 어원적 의미는 ‘높은 곳’이다. ‘덕’자가 들어간 산들은 대체로 크고 우람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한자로는 ‘德’으로 표기하였다.

‘덕고산’은 ‘덕+(亠)+산>덕오산>더고산>덕고산’이다. ‘亠’는 매개모음으로, ‘卜’가 들어가 ‘덕가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고’를 ‘高’로 표기하여 ‘높다’는 뜻을 강조하였다.

이 산을 ‘이재’, ‘이재봉’이라고도 하였는데, ‘이재’는 ‘윗재>잇재>이재’로, ‘윗(上)’이 단순모음화 된 결과이다. 즉 ‘이재’는 ‘위에 있는 고개’, ‘이재봉’은 ‘윗재가 있는 산’이란 뜻이다.

덕골(1) [골]

[위치] 대동 동쪽 위 석경사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304.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덕골(2) [골]

[위치] 독점 양지골 상류에서 남동쪽으로, 470.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데랭개 [마을]

[위치] 공산 큰말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되랭갓’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되랭갓’이라 하였다.

독점(獨店) [마을]

[위치] 모래기 남동쪽, 밤나무정 동쪽, 이리실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삼형제’, ‘질갓담’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독점(獨店)’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독점(獨店)’이라 하였다.

[유래] 독을 굽는 가마가 있었으므로 ‘독점’이라고 하였다. 마을 앞산, 현 도로 옆 옛 고갯길의 작은 산봉우리가 세 개이므로 ‘삼형제’, 길가에 있었으므로 ‘질갓담>질갓담’이라고도 하였다.



「독점 마을 · 삼형제고개 : 2019년」

독점골 [골]

[위치] 독점 마을 남쪽, 양지골 중간에서 남동쪽으로 독점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독점교 [다리]

[위치] 독점 마을 앞에 있던 옛 다리를 말한다. ‘형제교’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독점교(형제교)’라 하였다.

독점봉 [산]

[위치] 양지골 중간, 독점골 남동쪽에 있는 417.5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동촌(洞村) [마을] → 골말

땡발골 [골] → 땡발골

되랭갓 [마을] → 데랭개

땡발골 [골]

[위치] 밤나무정 북쪽 아래, 영동고속도로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땡발골’, ‘땡땡골’이라고도 한다.

두문곡(杜門谷) [마을] → 모래기

뿔다랭이산 [산]

[위치] 대동 북동쪽, 현 석경사 북쪽에 있는 높이 349.8m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뿔다랭이산’이라 하였다.

[풀이] ‘뿔(ㅅ)+달+양이+산>뿔달양이산>뿔다랭이산’이 되었다. ‘뿔’은 ‘後’, ‘달’은 ‘高, 山’, ‘양이’는 접사, ‘산’은 ‘山’이다. ‘뒤에 있는 높은 산’의 뜻이다.

들언지바위 [바위]

[위치] 다리목 안담 동쪽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거석암’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들언지바위(거석암)’라 하였다.

[유래] 넓은 바위 위에 또 하나의 바위가 마치 흔들바위처럼 얹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마고할미가 동쪽 하늘을 받치러 가다가 이 바위 위에서 쉬면서 개암을 깨어 먹기 위해 바위를 올려놓았는데, 그 바위를 그대로 들어 얹어 놓고 갔다고 전한다.

마귀할멈바위 [바위]

[위치] 다리목 도로변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유래]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싸울 때 마귀할멈이 나타나 도와주었는데 그 마귀할멈이 돌로 변하였다고 한다.

매사리골 [골]

[위치] 밤나무정 북쪽 영동고속도로 건너에 있는 요골의 북쪽, 큰고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명막바위 [바위]

[위치] 대동 마을 북쪽, 지치리고개 동쪽에 있는 바

위를 말한다.

모래개 [마을] → 모래기

모래기 [마을]

[위치] 독점 북쪽, 밤나무정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북쪽으로 사전골과 모래치를 넘어 횡성 정암리로 통한다. ‘모래개’라고도 한다. 한자로 적어 ‘사전(沙田)’이라고도 하고 ‘두문곡(杜門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물밋(沙田)’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사전(沙田)’이라 하였다.

[유래] 산속에 있는 마을이므로 ‘모래기’라 하였다. 또는 모래가 많다고 하여 ‘모래기’라 하였다고도 한다. 송헌 이반계가 고려가 망하자 숨어살았으므로 ‘두문곡(杜門谷)’이라고도 한다.

[풀이] 산 아래에 모래가 있을 리 없으므로 이때 ‘모래’는 옛말 ‘몰’에서 나온 것이다. ‘몰(山)+기>몰(井)+기>모래기’가 되었다. ‘井’는 매개모음, ‘기(己)’, ‘지(只)’는 ‘땅·장소’를 뜻하는 지명소이다.



「모래기 마을 ; 2019년」

모래기서낭 [당]

[위치] 모래기 마을 북쪽 산에 있는 서낭바위를 말한다.

[내용] 당집은 없이 큰 바위들과 소나무가 있다. 매년 정월 보름에 제사를 지낸다.

모래기은행나무 [나무]

[위치] 모래기 마을 중앙에 있던 은행나무를 말한다. 2018년에 베었다. 수령 약 650년, 높이 30m, 둘레 6m였는데 말라 고사목이 된 것을 2018년에

잘라 없앴다.

[유래] 고려 말 예부상서를 역임한 송헌 이반계가 치악산에 은거하면서 심은 나무라고도 하고 또는 옛날 우물이 있던 자리에 한 노인이 꽃아 놓은 지팡이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다고도 한다. 나무가 너무 울창하여 가지를 자르니,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등 좋지 않은 일이 많았다고 전한다. 송헌은 조선 태종 이방원이 불러도 나가지 않았으므로 이 마을을 ‘두문곡’이라고 하였다.



「모래기은행나무 ; 2018년」

모래재 [고개] → 모래치

모래치 [고개]

[위치] 모래기 북쪽 사전골 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북쪽 고개 너머로 횡성군 우천면 정암리의 돈다리골과 큰잣나무골로 통한다. ‘모래재’라고도 한다.

[풀이] 산을 뜻하는 ‘몰’과 고개를 뜻하는 ‘치’가 결합하여 ‘몰+치(재)>몰(井)치(재)>모래치(재)’가 되었다. ‘재’도 ‘치’와 함께 고개를 뜻하는 지명소이다.

반재이골 [골]

[위치] 대동에서 남동쪽으로, 숙새울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밤나무골 [골]

[위치] 밤나무정 마을에서 남동쪽 독점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밤나무정 [마을]

[위치] 대동 북쪽, 솟돌봉 동쪽, 지치리 고개 너머

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영동고속도로와 42번 국도 치악로 사이에 있다. ‘밤나무정’, ‘울정(栗亭)’, ‘율목정(栗木亭)’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밤나무정(栗木亭)’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밤나무정(栗木亭)’이라고 하였다.

[유래] 큰 아름드리 밤나무와 정자가 있었으므로 밤나무정이라 하였다. 이를 한자로 적어 ‘율목정(栗木亭)’이라고 하였다.



‘밤나무정 마을 ; 2019년

밤나무정 [마을] → 밤나무정

밤나무정주막 [주막]

[위치] 밤나무정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밤나무정주막(栗木亭酒幕)’이라고 하였다.

백배미 [마을]

[위치] 이리실 북동쪽, 원고개 북쪽에 붙어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백배미’라 하였다.

[유래] 큰 논배미가 백 개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꾼들이 논을 매고 세어보니 백 개 중 하나가 모자랐는데 그 하나가 샛갯 밑에 있었다는 설화가 전한다.

[풀이] 많다는 뜻의 단위인 ‘백’과 논이 단위인 ‘배미’가 결합하여 ‘백+배미>백배미’가 되었다.

백배미골 [골]

[위치] 이리실골 입구 이리실교에서 동쪽으로, 백배미 마을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끝에 원고개가 있다. 현 42번 국도 치악로가 지나고 있다.

버벽골 [골]

[위치] 독점 양지골에서 서쪽으로, 밤나무골로 향하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담] 옛날 이곳의 산적이 사람을 죽여 쌓아둔 시체들이 비오는 날이면 버벽거리며 소리를 내므로 버벽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범모루 [모롱이]

[위치] 모래기 마을 입구, 현 영동고속도로 동쪽 산모퉁이를 말한다.

[유래] 옛날 이 산모퉁이에서 범이 나타났으므로 범모루라 하였다.

봇들 [들]

[위치] 다리목 안담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봇들’이라 하였다.

부레담 [마을] → 부릿담

부릿담 [마을]

[위치] 다리목 탑고개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부레담’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부릿담’이라고 하였다.

[풀이] ‘부리+담>부리담>부릿담’이 되었다. ‘부리’는 ‘새부리’처럼 뽀족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산 정상에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산 밑자락이 뽀족하게 나온 곳에 마을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북원터 [마을]

[위치] 공산 마을 앞고개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북원터’라 하였다.

사전(沙田) [마을] → 모래기

사전골 [골]

[위치] 모래기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북쪽 고개 너머로 횡성군 정암리의 큰잣나무골과 돈다리골로 이어진다.

삼승이골 [골]

[위치] 공산 앞고개 남쪽 아래에서 서쪽으로, 높이 28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남쪽 바로 아래에 ‘약수정이골’이 있다.

삼형제 [마을] → 독점, 질갓담

[위치] 독점의 다른 이름이다. ‘삼형제고개’, ‘질갓담’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질갓담(삼형제고개)’이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 북쪽 앞에 세 개의 작은 봉우리로 이루어진 삼형제고개가 있어 삼형제라 하였다. 의형제 세 사람이 살아서 삼형제라 부른다고도 한다.

삼형제고개 [고개]

[위치] 현 독점 앞 도로 옆 210m, 212m, 206m 봉우리를 지나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삼형제고개’라고 하였다.

[유래] 옛 고갯길이 작은 봉우리 세 개가 나란히 있는 이곳을 지나므로 삼형제고개라 하였다. 또는 옛날 세 사람이 지치리를 넘어오면서 산적을 물리치고 이곳에서 의형제를 맺고 살았으므로 삼형제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삼형제고개(소초면 교항리, 문막읍 동화리), 삼형제골(문막읍 취병리) 등은 대체로 산봉우리가 세 개인 곳에 붙는 지명이다. 이후에 (의좋은) 삼형제가 살았다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삼형제고개 [마을] → 삼형제, 독점

새개울들 [들]

[위치] 다리목 골말 남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개울들’이라 하였다.

새말림 [산] → 셋말림

셋개골 [골]

[위치] 헌터골에서 동쪽으로, 헌터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횡성을 정암리의 셋개골이 있다.

셋말림 [산]

[위치] 꽃밭골 옆에 있는 높이 290.5m의 산을 말

한다. ‘새말림’이라고도 한다.

생운천(生雲川) [내]

[위치] 양지골 경말 위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흐르며 독점과 다리골을 지나, 횡성에서 섬강 지류인 전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석이바우 [바위]

[위치] 공산 뒤 골짜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석이버섯이 많이 나서 석이바우라 부른다.

석장골 [골]

[위치] 모래기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고개골과 농바우골 사이에 있다.

숫돌배기골 [골]

[위치] 아래대동에서 북동쪽 숫돌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숫돌봉 [산]

[위치] 다리목 골말 동쪽, 대동 북서쪽에 있는 높이 304.2m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숫돌봉’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이 산에서 숫돌이 많이 났으므로 숫돌봉이라 하였다.

승랑골 [골]

[위치] 다리목 안담 앞에서 남서쪽 부릿담으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아래대동 [마을]

[위치] 대동의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안골 [마을]

[위치] 모래기의 큰고개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안공산 [마을]

[위치] 공산의 서쪽 끝,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공산고개 아래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공산’이라 하였다.

안담 [마을]

[위치] 다리목 마을 서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영동고속도로 서쪽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담’이라 하였다.

암만산 [산]

[위치] 다리목 북쪽, 안담 동쪽에 있는 225.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앞고개 [고개]

[위치] 공산 마을 앞에 있는 높은 고개로, 공산 큰 말의 남동쪽, 데령개 남쪽 앞에 있다.

[내용] 다리목에서 북쪽으로, 마을로 들어오는 고갯길이 나 있고 고개 마루에 공산성황당(1)이 있다.

약수정이골 [골]

[위치] 다리목 땃말골 중간에서 서쪽으로, 290.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삼승이골 남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양지골 [골]

[위치] 독점에서 남쪽 경말에 이르는, 생운천이 흐르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서쪽 너머에 대동, 동쪽 너머는 학곡리 측새울이 있고 남쪽 너머에는 평장리 동굴이 있다.

어영골 [골]

[위치] 다리목 화랑개골 입구에서 남쪽으로, 높이 236.8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부릿담 서쪽 산 너머에 있다.

[풀이] ‘어영, 어용, 오양, 오용’ 등은 길이 험한 곳에 붙는 지명소이다. 골짜기가 험하다는 뜻이다.

엄나무정주막 [주막]

[위치] 교항리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현재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조선지리지』에 ‘엄나무정이주막(嚴木亭酒幕)’이라 하였다.

여계바우 [바위] → 예기바우

[위치] 꽃밭재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예계암’이라고도 한다.

예계암(禮鷄岩) [바위] → 예기바우

예기바우 [바위]

[위치] 모래기 동쪽 큰고개골 중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여계바우’, ‘예계암’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여계바우(예계암禮鷄岩)’라 하였다.

[유래] 여기서 소리를 치면 메아리가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돌아오므로 ‘얘기바우>예기바우’라 하였다고 한다.

와가마 [마을] → 뱃가마

뱃가마 [마을]

[위치] 모래기 서쪽 안골 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와가마’라고도 한다.

[위치] 옛날 기와를 굽던 곳이므로 와가마, 뱃가마라고 하였다.

요골 [골]

[위치] 밤나무정 뒤편골 북쪽 영동고속도로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영동고속도로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서쪽 291.1m의 봉우리를 향하고 있다.

우저터 [마을]

[위치] 다리목 탑고개 북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음달담’, ‘이재터’라고도 한다. 현 교항리 석조불두가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음달담(우저터, 이재터)’이라 하였다.

[유래] 탑고개 북쪽 아래에 있어 응달이 되므로 음달담, ‘웃(윗)재>우저, 이재’ 아래에 마을이 있으므로 ‘우저터’, ‘이재터’라 하였다.

[풀이] ‘우저’, ‘이재’는 ‘웃(윗)+재>웃(윗)재>우재, 이재’로 풀이된다. 골짜기 위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고개 아래에 마을이 있으므로 ‘우저터’, ‘이재터’라 하였다.

웃모래기 [마을]

[위치] 모래기 마을 북쪽, 사전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모래치’라고 하

였다.

웃모래치 [마을] → 웃모래기

원고개 [고개]

[위치] 이리실과 학곡저수지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백배미 앞 42번 국도 치악로가 지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원고개’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 원님이 가다가 쉬었던 고개라 하여 원고개라고 부른다.



「원고개 ; 2019년」

울목정(栗木亭) [마을] → 밤나무정

울정(栗亭) [마을] → 밤나무정

음달담 [마을] → 우저터

이리실 [마을]

[위치] 독점 동쪽, 백배미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일리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리이실(目里實)’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이리실(일리실)’이라 하였다.

[유래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주민들이 난을 이리저리 피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이리실골 [골]

[위치] 이리실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긴 골짜기를 말한다. 남쪽 고개 너머 학곡리 속새울을 지나 무쇠점으로 이어진다.

이리실교 [다리]

[위치] 이리실 앞에 있던 옛 다리를 말한다. 『한국

지명총람』에 ‘이리실교’라 하였다.

이리실서낭당 [당]

[위치] 이리실 마을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홍련암 동쪽 아래 당숲에 있다.



「이리실서낭당 ; 2018년」

이리실교 [다리] → 이리실교

이재 [산] → 덕고산

이재골 [골]

[위치] 공산 북쪽의 헌터골에서 북쪽으로 덕고산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이재봉 [산] → 덕고산

이재치 [마을]

[위치] 음달담에서 남동쪽 산 너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이재치’라 하였다.

이재터 [마을] → 우저터

일리실(日里實) [마을] → 이리실

жат나무골 [골]

[위치] 모래기 북동쪽, 사전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장손이 [마을]

[위치] 다리목 음달담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손이’라고 하였다.

장손이골 [골]

[위치] 대동 거리담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장손이들 [들]

[위치] 대동 장손이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손이들’이라 하였다.

장작터골 [골]

[위치] 원고개 동쪽 아래, 현 치악산호텔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지천이고개 [고개] → 지치리

지치리 [고개]

[위치] 다리목에서 북동쪽, 밤나무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42번 국도 치악로가 지나는 고갯길로, 고개너머에 ‘밤나무정’이 있다. ‘지천이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지치리’라고 하였다.

지칠바우 [바위]

[위치] 독점 남쪽 양지골 안, 대동 동쪽 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질갓담 [마을] → 삼형제고개, 독점

[위치] 삼형제고개 밑 길가에 있는 마을로 현 ‘독점’을 말한다. ‘삼형제’, ‘삼형제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질갓담(삼형제고개)’이라고 하였다.

[유래] 길가에 있었으므로 ‘질갓담>질갓담’이라고 하였다.

집너메 [마을]

[위치] 대동 북서쪽, 지치리고개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현 42번 국도와 대동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집너메’라고 하였다.

칠리(七里) [마을] → 교항리

큰고개 [고개]

[위치] 공산과 모래기를 잇는 고개를 말한다. 큰고개골 위에 있는 고개로, 높이는 315m이다.

큰고개골 [골]

[위치] 모래기에서 서쪽으로, 공산 마을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큰담 [마을] → 큰말

큰말 [마을]

[위치] 공산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을 말한다. ‘큰담’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큰담’이라고 하였다.

큰어영골 [골]

[위치] 골말에서 북동쪽으로 나 있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탑고개가 있다.

탁고개 [고개] → 탑고개

탑고개 [고개]

[위치] 다리목과 남쪽 평장동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다리목 음달말에 교항리석조불두가 있고 고개 정상에 평장리마애공양보살상이 있다. ‘탁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탑고개’라 하였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고개에 장사(壯士)의 화상을 그려 놓은 미륵과 탑이 있었다.’고 하였다.

[내용] 장사의 화상은 마애공양보살상을 지칭하는 것인데 탑은 없고 마애공양보살상이 남아있다. 탑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텃골 [골]

[위치] 대동 마을이 있는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토끼골’이라고도 한다.

텃골 [마을] → 대동

텃골봉 [산]

[위치] 텃골 석경사 남쪽에 있는 높이 402.1m의 봉우리를 말한다. 산 남서쪽 아래에 평장리 동골이 있다.

텃골성황당 [당]

[위치] 대동 마을 입구 길 옆 당숲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내용] 치악산 성황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성황고사를 지낸다.



「텃골성황당 : 2019년」

토끼골 [골] → 텃골

툼바우 [바위]

[위치] 공산 북동쪽 골짜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와 바위 사이에 사람이 다닐만한 틈이 있어서 툼바우라 한다. 옛날 거기에 지붕을 덮고 피난을 하였다고 한다.

핀지골 [골]

[위치] 모래기 마을 입구, 범모루에서 북동쪽으로 함짜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영동고속도로가 나 있다.

함짜고개 [고개]

[위치] 이리실 북쪽 아래, 영동고속도로의 교향교 동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서쪽 아래로 생운천이 흐른다. 횡성읍 우천면 법주리와 경계를 이루는 고개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함짜고개’라고 하였다.

함짜골 [골]

[위치] 함짜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횡성읍 우천면 법주리와 경계를 이룬다.

헌터고개 [고개]

[위치] 공산에서 북쪽으로 횡성읍 정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410m이다.

헌터골 [골]

[위치] 공산 북쪽 너머, 헌터고개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형제교(兄弟橋) [다리] → 독점교

홍련암(紅蓮庵) [절]

[위치] 이리실에 있는 조계종 사찰을 말한다.

[유래] 산이 연봉처럼 둘러있다 하여 홍련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약 2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석불좌상 3좌가 있어 절의 건립연대를 추정케 한다.

화랑개 [내]

[위치] 대동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며 의관리를 지나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화랑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화랑개(화랑포花浪浦)’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화랑기(花浪浦)’라고 하였다.

화랑개골 [골]

[위치] 다리목에서 서쪽, 둔둔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입구에 다리목 안담이 있고 골짜기를 따라 둔둔로가 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화랑개골짜기’라 하였다.

화랑개들 [들]

[위치] 다리목 화랑개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화랑개들’이라고 하였다.

화랑포(花浪浦) [내] → 화랑개

둔둔리(屯屯里)

[위치]

둔둔리는 소초면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교항리, 서쪽으로는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남쪽으로는 의관리와 평장리, 북쪽으로는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청룡리와 접해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소초면(所草面)의 지역으로 육리(六里)라 하였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본6리·분6리에 있는 고리골·정승골·양촌·음촌을 병합하여 둔둔리(屯屯里)라 하여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소초면 둔둔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가 되었다.

[유래]

두둑한 둔덕에 마을이 있으므로 ‘둔둔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둔둔리’라는 행정명이 되었다. 또는 권침(權琛)과 원호(元昊) 두 선비가 도망해 온 곳이어서 둔촌이라고 하다가 도망할 둔(遁)자와 거할 둔(屯)자, 또는 도망할 둔(遁)자와 달아날 둔(遯)자를 합하여 둔둔 마을이라 하였고, 이후 ‘둔둔리’가 되었다고도 한다. ‘遁屯’, ‘遁遯’은 고유지명 ‘둔둔이’를 뜻에 맞추어 한자로 적은 것이다.

가루개 [마을]

[위치] 무수터들 북쪽 아래, 중땀 남서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큰가루개와 작은가루개가 있었다. 모두 원주비행장에 편입되었다.

가루고개 [고개]

[위치] 아래둔둔이에서 서쪽으로, 길갓담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큰가루개와 작은가루개 사이에 있던 고개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루고개’라고 하였다.

갓담 [마을]

[위치] 아래둔둔이 둔둔초등학교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윗담’, ‘윗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갓담(윗말, 윗담)’이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에서 가에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갓담’이라고 하였다.

개사리고개 [고개]

[위치] 가루개에서 남쪽으로, 간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사부량산 동쪽, 웃고개 서쪽에 있다. 둔둔리와 의관리의 경계이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건넌골 [골]

[위치] 아래둔둔이에서 남동쪽으로, 웃방골고개와 서낭고개를 향하여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강릉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

건넌들 [들]

[위치] 건넌골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건넌들’이라고 하였다.

건넌들보 [보]

[위치] 건넌골 앞에 있는 고리골천의 보(洑)를 말한다.

건넌말 [마을]

[위치] 중땀 남쪽, 둔둔초등학교 남서쪽 도로 건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공군부대 골프장 클럽 하우스가 있는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건넌말’

이라고 하였다.

고구리재 [고개]

[위치] 고리골에서 북쪽으로, 횡성군 횡성을 청룡리 석전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이를 한자로 ‘고근현(高根峴)’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고구리재(고근현高根峴)’라고 하였다.

고근현(高根峴) [고개] → 고구리재

고리곡(古里谷) [마을] → 고리골

고리골 [마을]

[위치] 덕고산 남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둔둔이 북쪽, 아래둔둔이 북동쪽, 현 원주공항 청사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서쪽 옆으로 강릉선 철도가 나 있다. 한자로 ‘환곡(環谷)’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고리골(古里谷)’이라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고리동(古里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고릿골(환곡環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골짜기가 고리처럼 구부러져 있으므로 고리골이라 하였다.



「고리골 마을 ; 2019년」

고리골저수지 [못]

[위치] 덕고산 서쪽 아래, 고리골 마을 동쪽 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고리골천 [내]

[위치] 덕고산 서쪽에서 고리골저수지를 거치고 남서쪽으로 흐르며 둔둔초등학교를 지나 북서쪽으로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고리동 [마을] → 고리골

고릿골 [마을] → 고리골

공산고개 [고개]

[위치] 웃둔둔이 동쪽 공산골 끝에 있는 340m 높이의 고개를 말한다. 북쪽 덕고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에 있다. 고개 너머에 교항리 공산이 있다.

공산골 [골]

[위치] 음짓말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끝에 교항리 공산으로 가는 공산고개가 있다.

구봉 [산]

[위치] 버덩말 동쪽, 천제사터가 있는 368m의 산 봉우리를 말한다.

길갓담 [마을]

[위치] 섬강 동쪽 길가에 있던 마을로 큰가루개와 의관리 후평 사이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원주공항 활주소에 편입되었다. '섬강촌'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길갓담(섬강촌)'이라 하였다.

[유래] 길가에 있던 마을이므로 길갓담, 섬강 옆에 있었으므로 섬강촌이라고 하였다.

깃대봉 [산]

[위치] 간촌 동쪽, 터고개 남쪽 화랑개 옆에 있는 높이 209m의 산을 말한다. 둔둔리와 의관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깃대봉'이라고 하였다.

[유래] 일제강점기에 측량 표준기를 꽂았으므로 깃대봉이라 하였다.

늦모루보 [보]

[위치] 가루개 서쪽 아래, 섬강 모퉁이에 있는 고리골천의 보(洑)를 말한다. '섬강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늦모루보'라고 하였다.

다랑나무골 [골]

[위치] 화랑고개 남쪽 아래 화랑개골에서 북동쪽으로 346.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덕고산(德高山) [산]

[위치] 고리골 북동쪽, 교항리 이재골 북쪽에 있는 높이 521.2m의 산을 말한다. 둔둔리와 교항리의 경계이며 원주시와 횡성군 횡성읍 청룡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이재', '이재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이지(德高山)'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덕고산(德高山)'이라고 하였다.

[내용]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먼저 이 산을 차지한다고 한다.

[풀이] '덕'은 산 또는 언덕을 나타내는 지명소이다. '덕장, 덕대(선반, 시렁), 언덕·둔덕'처럼 '덕'의 어원적 의미는 '높은 곳'이다. '덕'자가 들어간 산들은 대체로 크고 우람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한자로는 '德'으로 표기하였다.

'덕고산'은 '덕(ㄷ)+산>덕오산>더고산>덕고산'이다. 'ㄷ'는 매개모음으로, 'ㅏ'가 들어가 '덕가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고'를 '高'로 표기하여 '높다'는 뜻을 강조하였다.

이 산을 '이재', '이재봉'이라고도 하였는데, '이재'는 '윗재>잇재>이재'로, '윗(上)'이 단순모음화 된 결과이다. 즉 '이재'는 '위에 있는 고개', '이재봉'은 '윗재가 있는 산'이란 뜻이다.



「덕고산」; 2019년

덧재 [고개]

[위치] 웃둔둔이 양짓말에서 북쪽 고리골로 넘어

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서쪽 아래로 강릉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고 북서쪽 아래에 원주공항이 있다. 고개 높이는 165m이다.

둔둔골 [골]

[위치] 둔둔초등학교 북쪽 고개 위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둔둔리(屯屯里) [마을]

[위치] 5번 국도 복원로가 지나는 의관리와 횡성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서쪽으로는 섬강을 경계로 호저면과 닿고 남쪽으로는 소초면 장양리와 닿아 있다. ‘둔둔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둔둔리(둔둔이)’라고 하였다.

[유래] 두둑한 언덕에 마을이 섰으므로 ‘둔둔이’라 하였다. 또는 권침과 관란 원호 두 선비가 도망해 온 곳이라고 해서 둔촌이라고 하던 것이 ‘도망할 둔(遁)자’와 ‘거할 둔(屯)자’를 합하여 ‘둔둔마을’이라 부르다가 ‘둔둔골>둔둔리’가 되었다고도 한다.

[풀이] ‘둔(屯)’은 ‘둔덕’과 마찬가지로 두둑하게 언덕진 곳을 이르는 말이다. 덕고산 아래 높은 둔덕에 마을이 자리 잡았으므로 ‘둔둔’, ‘둔둔이’라고 하였다. 같은 원리의 비슷한 이름으로 신림면 금창리의 ‘둥덩이’가 있다.

둔둔버덩 [들]

[위치] 웃둔둔이와 아래둔둔이 사이의 넓은 들을 말한다.

둔둔이 [마을] → 둔둔리

둔탄원(屯呑院) [원]

[위치]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 전하는 옛 지명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을 북쪽 38리에 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고을 북쪽 38리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풀이] ‘탄(呑)’은 고구려어의 ‘골짜기’를 뜻하는 지명소이다. 북쪽 38리라는 거리와 지명으로 보아 둔탄은 둔둔리로, 현 비행장 부근에 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길은 강원감영에서 횡성으로 가

던 옛 길이다.

뒗골 [골]

[위치] 아래둔둔이 갯담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둔둔초등학교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뒗되골 [골] [마을] → 뒗뒗골

뒗되저수지 [못] → 뒗뒗저수지

뒗뒗저수지 [못]

[위치] 뒗뒗골 골짜기 위, 5번 국도인 복원로 서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공군부대 골프장에 편입되었다.

뒗뒗골 [골]

[위치] 작은가루개 무수터들에서 북동쪽 뒗뒗저수지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공군부대 골프장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뒗되골(지후동池後洞)’이라고 하였다.

뒗뒗골 [마을]

[위치] 뒗뒗골 안, 뒗뒗저수지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공군부대 골프장에 편입되었다. 이를 한자로 적어 ‘지후동(池後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뒗 뒤에 있으므로 뒗뒗골, 한자로 뜻을 적어 지후동(池後洞)이라 하였다.

무수터 [골]

[위치] 사부량산 북동쪽 아래, 무수터저수지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무수터’라고 하였다.

[유래] 물이 많이 나오므로 무수터라 하였다.

[풀이] ‘물’의 고어 ‘뒗(뒗)+터’, ‘뒗터>뒗(ㄸ)터>무수터’가 되었다. 물이 나는 터, 물터란 뜻이다.

무수터들 [들]

[위치] 무수터저수지에서 남동쪽으로 나 있던 들을 말한다. 현 복원로 서쪽 공군부대 골프장에 편입되었다.

무수터저수지 [못]

[위치] 둔둔초등학교 남서쪽 웃고개의 북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무수터들 남쪽 위에 있는 저수지이다. 공군부대 골프장에 편입되어 연못으로 남아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무수터저수지’라고 하였다.

배꼽바우 [바위]

[위치] 사부량산 짝바우 위 언덕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버덩들 [들]

[위치] 웃둔둔이 버덩말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덩들’이라고 하였다.

버덩말 [마을]

[위치] 웃둔둔이 가운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둔둔초등학교 동쪽 골짜기 위에 있다. 마을 북동쪽에 양짓말, 남동쪽에 음짓말, 정승골이 있고, 마을 서쪽 아래로 강릉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버덩말 마을 ; 2019년」

북바우 [바위]

[위치] 사부량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유래] 바위 속이 마치 베를 짜는 북처럼 생기고 그 안에 작은 차돌이 있어서 북바우라고 하였다.

비녀바우 [바위] → 쪽바우

사보량산 [산] → 사부량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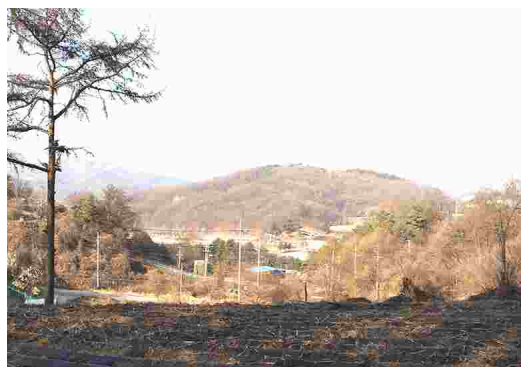
사봉산(射峰山) [산] → 사부량산

사부량산 [산]

[위치] 아래둔둔이 남서쪽, 가루개 남쪽에 있는 높이 221m의 산을 말한다. 서쪽으로 개사리고개와 웃고개로 이어지는 능선이 둔둔리와 의관리의 경계이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어 산 정상에 현재 관제탑이 설치되었다. ‘사봉산’, ‘사부산’, ‘사보량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사부량산(師夫郎山)’, ‘사보량산(射峰山)’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사부량산’이라고 하였다.

[유래] 예전에 이 산 밑에 사부(四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내용] 어원을 알 수 없으나 한자로 다양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우리말로 ‘사보, 사부, 사보랑, 사부랑’ 등으로 구전되다가 한자로 다양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사부량산 ; 2018년」

사부산(四府山) → 사부량산

상둔둔(上屯屯) [마을] → 웃둔둔이

서낭고개 [고개]

[위치] 화랑고개에서 북쪽 음짓말, 양짓말로 넘어가는 정승골의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85m이다.

섬강보(蟾江湫) [보] → 늦모루보

섬강촌(蟾江村) [마을] → 길갯담

[유래] 섬강 옆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섬강촌이라고도 하였다.

성재 [고개]

[위치] 덕고산 남서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양짓말에서 동쪽으로, 교항리 헌터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는 360m이다.

승진골 [골]

[위치] 화랑개골에서 북쪽으로 346.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다량나무골 동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시거리개울 [내] → 화랑개

[위치] 화랑개의 다른 이름이다. 시거리에 있는 내이므로 여기서는 시거리개울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시거리기울(三街里溪)’이라 하였다.

아래둔둔이 [마을]

[위치] 현 둔둔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을 비롯하여 서쪽 섬강 강변 들에 이르는 마을들을 말한다. ‘하둔둔(下屯屯)’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아리둔둔(下屯之)’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래둔둔이(하둔둔이)’라 하였다.

[유래] 덕고산 아래 높은 지대의 마을을 웃둔둔이로 부르고 서쪽인 이곳은 강변 쪽으로 낮은 지대이므로 아래둔둔이로 부른다.

[내용] 아래둔둔이 마을 안에 ‘아랫말’, ‘작은가루개’, ‘큰가루개’, ‘건넌말’, ‘중땀’, ‘갯담’ 마을이 있었다. 이 중 현 5번 국도 복원로 서쪽에 있던 마을들은 모두 공군부대 또는 비행장에 편입되었다.



「아래둔둔이 마을 : 2019년」

아랫말 [마을]

[위치] 중땀 서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작은가루개 북쪽 아래에 있던 마을이다. 원주비행장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랫말’이라고 하였다.

아랫말고개 [고개]

[위치] 아랫말에서 동쪽 웃둔둔이 버덩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랫말고개’라고 하였다.

양짓말 [마을]

[위치] 웃둔둔이 버덩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양촌’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양지말(陽之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짓말(양촌陽村)’이라고 하였다.



「양짓말 마을 : 2019년」

양촌(陽村) [마을] → 양짓말

웃고개 [고개]

[위치] 가루개에서 남동쪽으로 공방말, 잣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개사리고개 동쪽에 있다. 둔둔리와 의관리의 경계로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높이는 165m이다. ‘웃골고개’라고도 한다.

웃골고개 [고개] → 웃고개

움막골 [골]

[위치] 음짓말에서 남쪽, 정승골 동쪽 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공산골 남쪽 옆에 붙어있는 골짜기이다.

웃둔둔이 [마을]

[위치] 둔둔리 중 동쪽, 덕고산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상둔둔’이라고도 한다. ‘고리골’, ‘양짓말’, ‘음짓말’, ‘버덩말’, ‘정승골’ 등의 마을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둔둔이(상둔둔이)’라고 하였다.

[유래] 산 밑, 높은 곳에 있으므로 웃둔둔이라 부른다.



「웃둔둔이 마을 : 2019년」

웃방골 [골]

[위치] 정승골 골짜기 중간에서 북쪽으로, 웃방골 고개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웃방골고개 [고개]

[위치] 웃방골 북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의관리 간촌과 아래둔둔이 중땀을 오가던 고갯길이다. 고개 밑으로 강릉선 철로의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웃방굴 [굴]

[위치] 웃방골에 있는 굴을 말한다.

윗담 [마을] → 갯담

윗말 [마을] → 갯담

유방바우 [바위]

[위치] 사부랑산 배꼽바위 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유래] 모양이 둥글어서 유방을 닮았으므로 유방바우라고 하였다.

육리(六里) [마을] → 둔둔리

음짓말 [마을]

[위치] 양지말 남쪽, 버덩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정승골 북쪽 아래에 있다. ‘응달말’, ‘음촌’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음지말(陰之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음짓말(음촌陰村)’이라 하였다.



「음짓말 마을 : 2019년」

음촌(陰村) [마을] → 음짓말

응달말 [마을] → 음짓말

이위열녀목비각(二位烈女木碑閣) [비각]

[위치] 아래둔둔이 둔둔초등학교 동쪽 위, 느티나무 옆의 비각을 말한다.

[내용] 권용성의 처 김해 허씨와 권용엽의 처 밀양 박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하여 1887년에 후손들이 세운 열녀문의 비각을 말한다. 목비의 크기는 가로 198cm, 세로 32cm이다.



「이위열녀목비각 : 1968년」



「이위열녀목비각 ; 2019년」

이재 [산] → 덕고산

이재봉 [산] → 덕고산

작은가루개 [마을]

[위치] 큰가루개 북쪽, 아래둔둔이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옛 5번 국도 옆에 있던 마을로 섬강변 들판을 끼고 있던 마을이었으나 모두 원주공항에 편입되었다.

작은맥이골 [골]

[위치] 큰맥이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원주공항터미널 동쪽 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정성골 [마을] → 정승골

정승골 [골]

[위치] 의관리 간촌에서 북동쪽으로, 정승골 마을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한국지엠원주 서비스센터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정승골 [마을]

[위치] 웃둔둔이 음짓말 남쪽, 서낭고개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정성골’, ‘증싱골’, ‘황동구덩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정승골(政承洞)’이라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正承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정성골(증싱골, 정승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산에 묘 자리가 좋은 곳이 있어 정승이 나올 곳이므로 정승골, 또 샘물이 황금색이므로 황

동구덩이라 하였다고 한다.

정승동(政承洞) [마을] → 정승골

증땀 [마을]

[위치] 못뒤저수지 남쪽 아래, 현 복원로 서쪽 옆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둔둔초등학교에서 북서쪽, 도로 건너에 있던 마을로 지금은 공군부대 골프장에 편입되었다. ‘증지담’, ‘증턱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증턱말’이라고 하였다.

증지담 [마을] → 증땀

증턱말 [마을] → 증땀

증턱말서낭당 [당]

[위치] 둔둔초등학교 옆에 있던 서낭당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증턱말서낭당’이라고 하였다.

증싱골 [마을] → 정승골

지와터골 [골]

[위치] 웃둔둔이 버덩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고씨제실이 있고 골 위에 천제사터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지와터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 기와 굽던 터가 있어서 ‘기와터>지와터’라 하였다.

지후동(池後洞) [골] → 못뒷골

집너머골 [들]

[위치] 웃둔둔이 버덩말 앞에서 북동쪽으로, 덧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의 들을 말한다. 골 입구에 강릉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쪽바우 [바위]

[위치] 사부량산 덕바위 너머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비녀바우’라고도 한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찍바우 [바위]

[위치] 사부량산 북바우 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유래] 모양이 베를 짜는 여자의 하체와 같아서 찍

바우라고 부른다.

천제사터(天祭祀-) [터]

[위치] 버덩말 동쪽 368m의 봉우리 아래 천제를 지내는 바위를 말한다. ‘천지터’라고도 한다.

[내용] 천제사터는 정상 부근의 큰 바위 아래이며, 산신제터는 천제사터 5m 아래의 바위이다. 5년에 한 번씩 정월 초순에 천제사를 지낸다. 천제사를 지내고 산신제를 지내며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마을 입구의 오리나무에 수부제사를 지낸다.

천지터 [터] → 천제사터

초매소 [소]

[위치] 치마바우 밑에 있는 섬강의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초매소’라고 하였다.

[풀이] ‘초매, 처매, 치매’는 ‘치마’의 영서방언이다.

치마바우 [바위]

[위치] 섬강 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바위 아래에 초매소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치마바우’라고 하였다.

[유래] 모양이 마치 치마를 두른 것처럼 생겼으므로 치마바우라 하였다.

큰가루개 [마을]

[위치] 사부랑산 북쪽 아래, 작은 가루개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원주공항에 편입되었다.

큰맥이골 [골]

[위치] 현 원주공항터미널에서 남동쪽으로, 고리골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강릉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골짜기 너머에는 고리골 마을이 있다.

터고개 [고개] → 턱고개

턱고개 [고개]

[위치] 섬배고개 북쪽 아래 현 공군부대 정문에서 동쪽 화랑개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 간촌길이 나 있다. ‘터고개’라고도 한다.

턱바우 [바위]

[위치] 사부랑산 유방바우 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현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유래] 유방 위에 있는 턱을 닮았다고 하여 턱바우라고 하였다.

하둔둔(下屯屯) [마을] → 아래둔둔이

학교앞보 [보]

[위치] 둔둔초등학교 남쪽 옆에 있는 고리골천의 보(淤)를 말한다. 건넌들보 서쪽 아래에 있다.

해골 [들]

[위치] 웃둔둔이 버덩말 서쪽 앞에서 북동쪽 고리골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의 들을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강릉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

화랑개 [내]

[위치] 교항리 다리목에서 서쪽으로 둔둔리를 지나고 의관리의 간촌과 영거리, 왕대를 지나 능모루에서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화랑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화랑기(花浪浦)’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화랑개(화랑포花浪浦)’라고 하였다.

화랑개고개 [고개]

[위치] 화랑개골에서 북쪽으로 정승골, 웃둔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북쪽에 서낭고개가 있다.

[내용] 고개 마루에 효다함요양원이 들어서 있다.



「화랑개고개」; 2019년

화랑개골 [골]

[위치] 섬배고개 북쪽 아래 현 공군부대 정문에서 동쪽으로, 교항리 다리목까지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화랑개내가 흐르는 골짜기이다.

[내용] 골짜기 안에 세계엘리아복음선교회의 대규모 종교시설이 들어서 있다.



「화랑개골 ; 2019년」

화랑포(花浪浦) [내] → 화랑개

환곡(環谷) [마을] → 고릿골

항능골 [골] → 항등골

항능들 [들] → 항등들

항동구덩이 [마을] → 정승골

항등골 [골]

[위치] 정승골 입구에서 북쪽으로, 옷방골 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한국지엠원주서비스센터 안쪽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로 샘골(현 연화사가 있는 곳) 동쪽 산 너머에 있다. ‘항능골’, ‘항용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황용이들(黃龍坪)’이라 하였다.

항등들 [들]

[위치] 항등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항능들’, ‘항용들’이라고도 한다.

항용골 [골] → 항등골

항용들 [들] → 항등들

수암리(壽岩里)

[위치]

수암리는 소초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치악산 줄기를 경계로 학곡리, 서쪽으로는 장양리, 남쪽으로는 흥양리, 북쪽으로는 평장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소초면(所草面)의 지역으로서 이리(二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갓바우·상도곡·수동·신양·싱근술·바우실·원증동·회촌을 병합하여 수암리(壽岩里)라 하여 원주군 소초면 수암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소초면 수암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소초면 수암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가 되었다.

[유래]

‘쑥골’, 또는 ‘숯골’의 소리 ‘수(壽)’와 ‘바우실(岩谷)’의 ‘암(岩)’자를 따서 ‘수암리’라 하였다. 쑥골은 ‘봉곡(蓬谷)’이라 하였는데 이는 ‘쑥골’의 뜻을 따라 쓴 것이고 ‘수동(壽洞)’은 ‘쑥골’, ‘숯골’의 소리를 쓴 것이다. 바우실은 한자로 ‘암곡(岩谷)’이라 하였다.

간담말 [마을]

[위치] 갯바우 마을 중 가운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갯바우 [마을]

[위치] 갯바우봉 아래, 사리고개의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남쪽으로 흥양천이 흐르고 마을과 내 사이에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마을 안에 ‘웃말’, ‘간담말’, ‘아랫말’이 있다. ‘관암(冠岩)’, ‘관암동(冠岩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갯바우(冠岩)’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갯바우(관암冠岩, 관암동冠岩洞)’라 하였다.

[유래] 갯바우가 있어서 마을 이름을 갯바우라 하였다. 마을이나 뒷산에 갯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이름이 유래되었을 것이나 마을 사람 누구도 바위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관암저수지 위에 갯바우 관련, 원주에 널리 분포하는 ‘손님 많은 부잣집’ 설화가 전하고 있다.

[내용] 마을 앞 들판 중 남동쪽의 대부분이 36사단에 편입되고 마을 입구도 부대 앞을 지나게 되어 있다.



「갯바우 마을 : 2019년」

갯바우 [바위]

[위치] 갯바우 마을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관암(冠岩)’이라고도 부른다.

[유래] 바위가 갯을 쓴 것처럼 생겨서 갯바우라 불렀다고 한다.

[내용] 현재 마을에 갯바우는 없다. 마을 주민들 어느 누구도 갯바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다만 옛

어른들에게서 갯바우에 관한 내용을 들은 적은 있어서 아주 오래전 일인 것 같다고 말한다. 바위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장소는 관암저수지 북쪽 발인데 바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갯바우 관련 설화는 원주 전역에 넓게 분포하는 ‘손님 많은 부잣집’ 이야기이다.

[전설] ①옛날 이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다. ②집에 매일 거지들이 들끓어서 며느리가 스님에게 방도를 청하자 저 갯바위를 깨라고 하였다. ③바위를 깨니 바위 속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④그 이후로 거지들은 오지 않았지만 가세가 기울어 집도 망했다. 그 집터는 지금 관암저수지 바로 북쪽에 있는 넓은 밭이다.

갯바우봉 [산]

[위치] 갯바우 마을 북쪽, 노루고개 동쪽에 있는 높이 218.6m의 산을 말한다. 장양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개미재 [고개]

[위치] 바우실골 북쪽 끝에서 쑥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파크밸리 파크코스 1번과 3번 그린이 있는 곳이다.

[유래] 고개가 마치 허리가 잘록한 개미 같으므로 개미재라고 하였다.

고무지골 [골]

[위치] 치마골과 동우점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앞들 [들]

[위치] 쑥골 마을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관암(冠岩) [마을] [바위] → 갯바우

관암동(冠岩洞) [마을] → 갯바우

관암들 [들]

[위치] 갯바우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관암들’이라 하였다.

관암저수지 [못]

[위치] 갯바우 마을 동쪽 위에 있는 저수지를 말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관암저수지’라 하였다.



「관암저수지」; 2019년

광터골 [골]

[위치] 진양저수지에서 서쪽 탑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구나무재 [고개]

[위치] 신양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의 고개를 말한다. 고개에 큰 굴참나무들이 서 있고 마을회관이 있다.

[유래] 굴참나무가 많아서 구나무재라 하였다. 예전에는 여우, 늑대가 살았다고 한다.

굴골 [골]

[위치] 바우실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굴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 굴이 있으므로 굴골이라 하였다.

진양지 [마을] → 진양지

진양지들 [들] → 진양지들

길재 [고개] → 당재

너라우들 [들]

[위치] 원증거리 마을 서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원증천이 장양천에 합류하는 곳에 발달한 넓은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너라우들’이라고 하였다.

[유래] 들 안쪽에 너러바우가 있으므로 너라우들이라고 하였다.

[풀이] ‘널(너러)+바우>널바우>널바우>널와우>널아

우>너라우’로 음운 변천하였다. 넓은 바위라는 뜻이다.

너러바우 [바위]

[위치] 폭포수가 흐르는 수암천의 바닥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내용] 바닥에 넓은 바위가 층을 이루고 있으므로 너러바우라 하였고, 이 물을 폭포수라 하였다. ‘너라우들’은 이 바위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넉마루재 [고개] → 넉마루고개

넉적바우 [바위]

[위치] 쑥골 중앙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넉마루고개 [고개]

[위치] 바우실들에서 시루메골을 지나 남쪽 살여울 넉마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진새양지산 서쪽, 버들고개 동쪽 능선 사이에 있다. 고개 높이는 200m이다. ‘넉마루재’라고도 한다.

노가지고개 [고개]

[위치] 원증거리에서 북동쪽으로, 번개바우산 서쪽을 지나 싱근솔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원증사거리에서 북쪽으로 치악로가 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노가지고개’라 하였다.

[유래] 노간주나무(노가지나무)가 많아서 노가지고개라 하였다.

노루목봉 [산]

[위치] 진새양지산 남동쪽 능선, 바우실 남서쪽, 흥양초등학교 북동쪽에 있는 높이 335.4m의 산을 말한다. 진새양지산과 이어지는 능선이 수암리와 흥양리의 경계가 된다.

[유래] 노루고개 동쪽 능선에 있으므로 노루목봉이라고 한다.

누에고개 [고개]

[위치] 신양 마을에서 북쪽 평장리 섬배로 넘어가는 높이 200m의 고개를 말한다.

[유래] 옛날 양잠을 장려하던 때 섬배 쪽의 산비

탈에 뽕나무를 많이 심었으므로 누에고개라 불렀다. 신양 쪽은 과수원이 많으므로 양잠을 하지 않았다.

당재 [고개] → 학곡리 길재, 평장리 길재

[위치] 싣골에서 북동쪽으로, 학곡리 길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길재’, ‘질재’라고도 한다.

[유래] 고갯마루에 성황당이 있었으므로 ‘당재’, 고개가 길므로 ‘길재>질재’라고 하였다. 학곡리에 길재 마을이 있다.

도곡(陶谷, 道谷) [마을] → 장양리 도곡

[위치] 장양천을 따라 수암리와 장양리에 걸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장양리에 있는 마을을 ‘독골’, 또는 ‘아래독골’이라 하고 장양천 상류인 수암리에 있는 마을은 ‘웃독골’이라고 부른다. 아래독골은 다시 ‘독골상촌’, ‘독골하촌’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도곡(陶谷, 道谷)’, ‘상도곡’, ‘하도곡’, ‘도곡상촌’, ‘도곡하촌’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독골(陶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독골(도곡)’이라 하였다.

[유래] 독을 굽는 가마들이 있었으므로 독골이라 하였다.

독골 [마을] → 도곡, 장양리 도곡

독골서낭 [당]

[위치] 웃독골 영동고속도로 남쪽에 있는 느릅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 약 400년, 나무 높이 25m로 마을 당산목이다. 주변은 논밭으로 경작 중이다.

동곡(東谷) → 동우골

동우골 [마을]

[위치] 웃독골 서쪽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동우골(東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동우골’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서 웅기(동이)를 구웠으므로 동우골이라 하였다.

[풀이] ‘동우+골>동우골’이 되었다. ‘동우’는 ‘동이’

의 방언이다.

동우점 [마을]

[위치] 치마골 동쪽 안, 현 미륵사가 있는 곳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유래] 독 굽는 가마가 있었으므로 동우점이라 하였다.

되장골 [골]

[위치] 바우실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되장골’이라고 하였다.

뛰엄바우 [바위]

[위치] 바우실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뛰엄바우’라 하였다.

무네미 [마을]

[위치] 바우실 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무네미재 [고개]

[위치] 바우실 남동쪽 위에서 남쪽, 흥양리 새말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원골과 새재골의 물을 새말담에서 북쪽으로 보를 만들어 넘겨왔으므로 물이 넘어온다 하여 ‘무네미’라 하였다.

[풀이] ‘물+넘+이>물넘이>물너미>무너미>무네미’가 되었다.

미륵사 [절]

[위치] 수동 치마골에 있는 절을 말한다. 파크밸리 밸리코스 12번 그린 북쪽 아래에 있다.

[내용] 수암사, 영신암, 미륵사 등으로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으나, 마을 이름을 딴 수암사란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바랑골 [골]

[위치] 수동 마을에서 엄나무골과 갈라져 북동쪽으로, 437.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바랑골(鉢亞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바랑골’이라 하였다.

[유래] 바위 벼랑이 많은 골짜기이므로 ‘바랑골’이

라 하였다. ‘바랑’은 ‘벼랑’의 방언이다.

바랑골도랑 [내]

[위치] 바랑골을 따라 남서쪽으로 수동 마을로 내려와 장양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바랑골도랑(鉢亞谷澗)’이라고 하였다.

바우골 [골]

[위치] 바우실 마을에서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현 파크밸리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주차장이 있는 골짜기이다.

바우골굴 [굴]

[위치] 바우실 굴골에 있는 굴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마우골굴’이라 하였다.

[내용] 한국전쟁 때 주민들이 이 굴로 피난을 하였다고 한다.

바우실 [골] → 바우실골

바우실 [마을]

[위치] 원증거리에서 동쪽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파크밸리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다. ‘아우실’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암곡(岩谷)’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아우실(岩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암곡(바우실)’이라 하였다.

[유래] 바위가 많은 골짜기에 마을이 있으므로 바우실이라고 하였다.

[풀이] ‘아우실’은 ‘바우(岩)+실(谷)>바우실>바우살>아우실’로 변천한 것이다.



「바우실 마을 : 2019년」

바우실골 [골]

[위치] 원증거리에서 바우실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풀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 ‘바우+실>바우실’이 되어 원래는 ‘바우실’이 골짜기를 뜻하였으나, 이 골짜기에 마을이 들어서면서 ‘바우실’이 마을 이름이 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골짜기는 다시 ‘바우실골’이 되었다.

바우실들 [들]

[위치] 번개바우산 남쪽, 바우실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밤고개 [고개] → 방아고개

[유래] 밤나무가 많았으므로 밤고개라 하였다.

방공굴 [굴]

[위치] 상근술에 있던 굴을 말한다. 현 치악로 옆에 있던 굴이다.

[내용] 일제강점기에 판 넓은 굴이다. 후에 마을에서 냉장용으로 쓰다가 지금은 입구가 무너졌다.

방아고개 [고개]

[위치] 원증거리에서 서쪽으로, 장양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장수2로가 나서 고개는 많이 낮아졌다. ‘밤고개’, ‘용치’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방아고기(舂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방아고개(용치)’라 하였다.



「방아고개 : 2019년」

방아고개 [마을]

[위치] 방아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버덩들 [들]

[위치] 싱근솔 마을 남쪽, 치악로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수동 입구에 있는 들이다.

버드나무들 [들]

[위치] 질개울들 북쪽 아래에서 서쪽 신양 마을 현언으로 나 있는 들을 말한다. 현언저수지의 물을 댄다. 들 한가운데를 영동고속도로가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다.

버들고개 [고개]

[위치] 원증동 주막거리에서 남서쪽으로, 흥양리 돌모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유현(柳峴)'이라 하였다. 수암리와 흥양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로 고갯마루에 현재 조양병원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버들고기(柳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들고개(유현)'라 하였다.

[유래] 버드나무가 있었으므로 버들고개라 하였다.



「버들고개 ; 2019년」

버들고개주막 [주막]

[위치] 버들고개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버들고기주막(柳峴酒幕)'이라 하였다.

번개바우 [바위]

[위치] 번개바우산 남쪽에 있는 바위들을 말한다.

[유래] 큰 바위들이 벼락을 맞은 듯 갈라져 있으므로 번개바우라 하였다.

번개바우산 [산]

[위치] 원증거리 북동쪽, 바우실골 입구에 있는 높이 248m의 산을 말한다. 현 수암3리 경로당 북쪽에 있다. '석달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번개바우가 있으므로 번개바우산이라 하였다. 산에 큰 바위들이 있으므로 '석(石)+달(山)+봉(峰)>석달봉'이라고도 하였다. '달'은 '산'의 옛말이므로 '달'과 '봉'이 모두 '산'을 뜻하는 동의중복 표현이다. 돌산이라는 뜻이다.

베틀굴 [굴]

[위치] 바우실 마을 북쪽 뒷산에 있는 굴을 말한다.

[유래담] 일제강점기에 수탈을 피해 밤에 여기에 들어가 베를 짚으므로 베틀굴이라 하였다고 한다.

봉곡(蓬谷) [마을] → 쑥골

불모고개 [고개]

[위치] 신양에서 남쪽으로, 현언과 새언 사이의 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고개를 말한다. 신양에서 웃도곡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내용] 불모고개 남쪽 아래에 수암리 마애삼존불상이 있고 석탑재가 발견된 옛 절터가 있다.

사리고개 [고개]

[위치] 갯바우에서 남서쪽으로, 태장동 구룡골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남서쪽 아래에 태장동 사리고개골이 있다.

사자골 [골] → 흥양리 새재골

[위치] 바우골에서 북동쪽으로, 구룡사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상도곡(上陶谷) [마을]

[위치] 싱근솔 서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독골', '웃도곡', '상도곡', '상도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윗독골(上道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독골(상도동)'이라 하였다.

[유래] 독골 중 이 마을이 장양천 상류에 있으므로

로 ‘웃독골’이라고 하였다.

[내용] 장양천을 따라 장양리와 수암리에 독골 마을이 분포되어 있다. 장양리의 마을을 ‘독골’, 또는 ‘아래독골’이라 부르고 장양천 상류에 있는 수암리의 마을을 ‘웃독골(상도곡)’이라 부른다.

상도동(上陶洞) [마을] → 상도곡

상보들 [들]

[위치] 흥양천 북쪽, 갯바우 남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안통들 남쪽에 있는 들이다. 군부대에 모두 편입되었다.

[유래] 흥양천에 설치한 보(淤) 중에서 제일 위에 있으므로 상보들이라 하였다.

상촌저수지 [못]

[위치] 회촌 북쪽, 오얏고개 밑 수래울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수래울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형산저수지’라 하였다.



「상촌저수지 ; 2019년」

새언 [못]

[위치] 신양 마을 남서쪽, 불모고개 서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현언 서쪽 너머에 있다. 앞들에 물을 댈다. 1960년에 준공하였다.

[유래] 현언의 이름이 원래 신양저수지였으나 산 너머에 새로 못을 하나 막으면서 새 저수지를 ‘새언’, 원래 있던 묵은 저수지를 ‘현언’이라 하였다.

서넉골 [골] → 선녀골

석다리 [골]

[위치] 새언에서 석달봉으로 이어지는 서쪽 골짜기의 구릉을 말한다.

[풀이] ‘석(石)+달(山, 高)>석달>석달+ |>석달이>석다리가 되었다. ‘석’은 돌, ‘달’은 산의 옛말이다. 돌로 된 산, 돌산이라는 뜻이다.

석달봉(1) [산]

[위치] 새언 남서쪽에 있는 높이 303m의 산을 말한다. 장양리와 경계를 이룬다. 『조선지리지』에 ‘석다리(石達山)’라고 하였다.

[유래] 산 남쪽이 바위로 되어 있으므로 석달봉이라고 부른다.

[풀이] ‘석(石)+달(山)+봉(峰)>석달봉’이 되었다. ‘달’은 ‘산’의 옛말이므로 ‘달’과 ‘봉’이 모두 ‘산’을 뜻하는 동의중복 표현이다. 돌산이라는 뜻이다.

석달봉(2) [산] → 번개바우산

선녀골 [골]

[위치] 신양 마을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서쪽 아래에 장양리의 선녀골저수지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선넉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신양 마을에서 보아 서쪽 아래로 내려가는 골짜기이므로 서넉골이라 하였는데 ‘서넉골>선넉골>선녀골’이 되었다. 지금은 선녀골로 정착되었다.

선넉골 [골] → 선녀골

수골 [마을] → 쑥골, 수동

수동(壽洞) [마을]

[위치] 치악산 삼봉 줄기의 북서쪽 아래, 번개바우산 북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파크밸리 골프장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로, 장양천의 최상류지역이다. ‘쑥골’, ‘숯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쑥골(蓬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쑥골(수동, 수골, 봉곡)’이라 하였다.

[유래] 원래 ‘쑥골(蓬谷)’, 또는 ‘숯골’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음차하여 미화하면서 ‘수동(壽洞)’이라 하여 정착되었다.



「수동 마을 ; 2019년」

수동성황당 [당]

[위치] 수동 마을 한가운데 당숲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당숲의 참나무와 소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치악산신을 모셨다.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당고사를 지낸다.



「수동성황당 ; 2019년」

수래울 [골]

[위치] 도곡 상촌에서 남동쪽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에 상촌저수지가 있고 끝에 수래울고개가 있다. ‘수재울골’, ‘수형곡(水衡谷)’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형골(수형곡)’이라고 하였다.

[풀이] ‘수래울’은 ‘무래울’, ‘무래울’과 같은 지명으로 물이 나오는 곳, 물을 내오는 곳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자로 ‘수형곡(水衡谷)’이라고 한 것은 ‘수재울’의 ‘재울’을 ‘저울’로 보고 ‘衡(저울 형)’을 취한 결과이다.

수래울고개 [고개]

[위치] 수래울골 남동쪽 끝에서 남쪽 대알들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회촌 동쪽에 있는 고개로, 대알들을 지나 돌모루에 닿는다.

수래울골 [골] → 수래울

수래울저수지 [못] → 상촌저수지

수암리도요지 [터]

[위치] 현 36사단 안에 있는 도요지 터를 말한다.

[내용] 부대 정지작업 중에 와요가 발견되었고 많은 기와편이 발견되었다.

수암리마애삼존불상 [불상]

[위치] 현언저수지 서쪽 불모고개 동쪽 얇은 계곡에 있는 마애불상을 말한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18호이다.



「수암리마애삼존불상 ; 2018년」



「수암리마애삼존불상 추정도」

수암리절터 [터] → 탑고개

[위치] 현언 남서쪽, 현 마애삼존불상 서쪽 100m

지점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내용]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터에 석탑의 몸돌과 지붕돌이 남아있으며 기와편이 발견된다. 탑은 2층 기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암천(壽岩川) [내]

[위치] 장양천의 다른 이름이다. 치악산 토끼봉에서 발원하여 현 파크밸리 골프장과 쑥골, 싱근솔, 상도곡을 거쳐 너라우들에서 원증천을 합류한 후 장양리 도곡과 원터를 지나 거명터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유래] 장양천 상류의 두 큰 물줄기 중 한 줄기가 수암리를 경유하므로 이곳에서는 ‘수암천’이라고 부른다.

수재울 [골] → 수래울

수형곡(水衡谷) [골] → 수래울

수형골 [골] → 수래울

수형산(水衡山) [산]

[위치] 수래울 남동쪽 끝에 있는 높이 190m의 산을 말한다. 수래울고개 동쪽, 버들고개 남서쪽에 있다.

수형산저수지 [못] → 상촌저수지

쑥골 [골] → 쑥골(1)

쑥골 [마을] → 쑥골

시루메골 [골]

[위치] 바우실들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버들고개와 진새양지산 줄기의 중간으로 난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시루메(甌山)’라고 하였다.

식송(植松) [마을] → 싱근솔

식송정(植松亭) [마을] → 싱근솔

신양(新陽) [마을] → 신양말

신양동 [마을] → 신양말

신양말(新陽-) [마을]

[위치] 선녀골 동쪽, 섬배 남쪽 산 너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앞 계곡에 마애삼존불상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신양이(新陽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양동(신양, 신양말)’이라고 하였다.

[유래] 양지 바른 곳에 마을이 있으므로 신양(新陽)이라 하였다.



「신양말 마을 · 누에고개」; 2019년

신양이 [마을] → 신양말

신양저수지 [못] → 현언

심근솔 [마을] → 싱근솔

싱근솔 [마을]

[위치] 번개바우산 북동쪽, 쑥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식송(植松)’, ‘식송정(植松亭)’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심근솔(植松亭)’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식송(싱근솔, 식송정)’이라고 하였다.

[유래] 소나무를 심은 곳에 정자가 있었으므로 싱근솔, 이를 한자로 적어 식송, 식송정이라 하였다.

[풀이] 싱근솔은 소나무를 심었다는 데서 나온 지명이다. ‘심다’의 방언 ‘심그(다)’에서 ‘심근+솔>싱근솔>싱근솔’이 되었다. 이를 한자로 ‘식송(植松)’이라 하였다. 춘천 신사우동에 같은 의미의 ‘심금솔밭’이 있다.



「상근술 마을 : 2019년」

상근술주막 [주막]

[위치] 상근술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승근술주막(植松亭酒幕)’이라 하였다.

쑥골(1) [골]

[위치] 상근술에서 남동쪽으로, 현 파크밸리 골프장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통칭해서 말한다. ‘숯골’이라고도 한다.

쑥골(2) [골]

[위치] 수동성향당에서 남동쪽으로, 현 파크밸리 골프장 8번코스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의 상류는 대부분 골프장에 편입되었다. 골 위에 개미재가 있다.

쑥골 [마을] → 수동

[위치] 상근술 남동쪽 계곡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숯골’, ‘수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숙골(蓬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쑥이 많았으므로 ‘쑥골’, 또는 숯을 구웠으므로 ‘숯골’이라고 하였다.

[내용] 쑥이 많다 하여 ‘쑥골’이라 하였고, 골 안에서 숯을 많이 구웠으므로 ‘숯골’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숙골’이라 하고 한자로 ‘봉곡(蓬谷)’으로 표기하여서 ‘쑥골’을 취하였다. 쑥골, 또는 숯골을 소리를 적어서 ‘수동(壽洞)’이라고 하였다. 면소재지 평장리에 ‘안골’이 있으므로 이 둘을 암수의 짝으로 삼아 ‘숯골’, ‘암골’로 부르기도 한다.

쑥골서낭당 [당] → 수동성향당

아래수래울골 [골]

[위치] 상촌저수지 뚝 아래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아랫말 [마을]

[위치] 갯바우 마을 중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사리고개 동쪽 밑에 있는 마을이다.

아우실 [마을] → 바우실

안통들 [들]

[위치] 관암저수지 남쪽에 있는 들로, 상보들과 저수지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암곡(岩谷) [마을] → 바우실

앞들 [들]

[위치] 신양마을 앞 남서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애망터 [골]

[위치] 바랑골과 엄나무골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죽은 어린애들을 묻은 곳이므로 애망터라 하였다.

양지담 [마을]

[위치] 원증거리와 주막거리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앞 원증천을 중심으로 원증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

엄나무골 [골]

[위치] 쑥골 마을에서 동쪽으로, 713.5m 봉우리를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 너머에 구룡사 새재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엄나무골’이라 하였다.

[내용] 엄나무골과 치마골 등 넓은 골짜기에 옛날에 숯을 많이 구웠다고 한다.

오얏고개 [고개]

[위치] 원증거리 너라우들에서 남쪽으로 수래울을 거쳐 회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상촌저수

지 동쪽 위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오얏고개’라 하였다.

오얏골 [골]

[위치] 너라우들에서 남쪽으로, 오얏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옹고지 [마을]

[위치] 싱근솔 방공굴 앞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유래] 옹기가마가 있었으므로 옹고지라 하였다.

용치(春峙) [고개] [마을] → 방아고개

우리암(--岩) [바위]

[위치] 번개바위산 정상 북쪽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폭 50m, 높이 13m의 암벽으로, 암벽 등반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래] 암벽 등반가들이 붙인 이름이다.

웃도곡골 [골]

[위치] 싱근솔에서 북서쪽 상도곡 마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웃독골 [마을] → 상도곡

웃말 [마을]

[위치] 갯바우 마을 중 동쪽 위, 관암저수지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장골 [골]

[위치] 바우실골 중간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상초구가 있다. 현 소초메탈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웃장골’이라고 하였다.

웅골 [골]

[위치] 싱근솔 음달말에서 남쪽 번개바위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원증거리 [마을]

[위치] 버들고개 북동쪽 아래, 번개바위산 남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원증거리사거리 북서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안에 ‘주막

거리’, ‘양지담’, ‘폭포수’가 있다. ‘원징거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원증거리(元曾村)’라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元曾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원증동(元曾洞)’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원님이 이곳에 살아서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원증이라는 부자가 살아서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원증거리 마을 : 2019년」

원증거리고개 [고개]

[위치] 원증거리에서 남동쪽으로, 버들고개 앞 진양지를 지나 남쪽 살여울로 넘는 고개를 말한다.

원증동(元曾洞) [마을] → 원증거리

원증들 [들]

[위치] 주막거리에서 서쪽 양지담, 원증거리 앞까지 펼쳐진 들을 말한다. 원증천을 따라 남쪽과 북쪽에 발달한 들이다.

원증천(元曾川) [내]

[위치] 장양천의 상류 두 물줄기 중 하나를 말한다. 삼봉과 투구봉 사이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바우골을 지나 원증거리 너라우들에서 수암천과 합류한다.

[유래] 원증거리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원증천’이라고 부른다.

원증촌(元曾村) [마을] → 원증거리

원징거리 [마을] → 원증거리

유현(柳峴) [고개] → 버들고개

음달말 [마을]

[위치] 상근솔 남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남쪽이 산으로 막혀 음달지므로 음달말이라고 한다.

이리(二里) [마을] → 수암리

장양천(長陽川) [내]

[위치] 치악산 삼봉과 투구봉, 토끼봉 산줄기에서 발원하여 평장리 안골, 수암리 쑥골, 바우골 등을 지나온 평장천, 수암천, 원증천 등이 합류하여 장양리 거머터에서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유래] 장양리 앞에서 물줄기들이 모여 큰 물줄기가 되어 흐르므로 장양천이라 하였다.

[내용] 투구봉 아래에서 내려온 원증천(元增川)과 토끼봉에서 내려온 수암천(壽岩川)이 너라우들에서 합친 후, 평장리 안골에서 내려온 평장천(平庄川)과 양촌 앞에서 합류하여 섬강으로 들어간다. 원증천, 수암천, 평장천은 장양천의 각각 다른 이름으로, 각 마을 앞에서 따로 부르는 이름들이다.

절터 [터] → 수암리절터

젓둔 [마을] → 회촌

젓둔들 [들]

[위치] 관암저수지 북동쪽, 젓둔 마을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군부대에 거의 편입되었다.

젓둔서낭 [당]

[위치] 젓둔 마을 입구 공터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 약 400년의 마을 당산목이다. 젓둔이란 마을 이름은 이 나무의 수간부에 젓무덤처럼 생긴 2개의 돌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주막거리 [마을]

[위치] 원증거리 마을 중 바우실골 입구, 원증거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원증거리사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중방골 [골]

[위치] 도곡상촌 남동쪽에서 수래울골과 갈라져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보들 [들]

[위치] 갯바우 마을 남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상보들과 하보들 사이에 있다.

[유래] 흥양천 중보의 물을 대므로 중보들이라 하였다.

진새양지산 [산]

[위치] 바우골 남쪽에 있는 높이 307.5m의 산을 말한다. 번개바우산 남동쪽, 버들고개 남동쪽 줄기에 있다. 수암리와 흥양리의 경계되는 산이다.

진양저수지 [못]

[위치] 상근솔 북쪽 아래, 42번 치악로 옆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질개울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질개울저수지’라 하였다.

진양지 [마을]

[위치] 버들고개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현 조양병원원이 있는 곳을 말한다. ‘긴양지’라고도 한다.

[유래] 버들고개 아래로 길게 양지진 곳에 마을이 있으므로 ‘긴양지>진양지’라 하였다. 이 이름에서 ‘진양지들, 진양저수지, 진새양지’ 등의 이름이 나왔다.



「진양지 마을 ; 2019년」

진양지들 [들]

[위치] 버들고개에서 남서쪽으로, 진양지 마을을 따라 난 들을 말한다. 현 조양병원 앞 치악로 아래

에 있는 들이다. ‘긴양지들’이라고도 한다.



「긴양지들 ; 2019년」

질개울들 [들]

[위치] 진양저수지 북쪽 아래로 난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질개울들’이라 하였다.

질개울저수지 [못] → 진양저수지

질재 [고개] → 당재

참나무고개 [고개]

[위치] 원증거리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웃독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참나무고개’라 하였다.

[유래] 고개에 큰 참나무가 있으므로 참나무고개라 하였다.

참샘내기 [골]

[위치] 엄나무골 상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샘이 있고 참나무가 많이 나오는 골짜기이므로 참샘내기라 하였다.

치마골 [골]

[위치] 쑥골 동쪽 위에서 엄나무골과 갈라져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미륵사가 있는 골짜기이다. 파크밸리 골프장 밸리코스 13번 북쪽아래에 붙어있다.

[내용] 엄나무골과 치마골 등 넓은 골짜기에서 옛날에 숲을 많이 구웠다고 한다.

치마바우 [바위]

[위치] 바우실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탑고개 [고개]

[위치] 신양 마을 앞 수암리절터의 고개를 말한다. 현언저수지에서 남쪽으로 마애삼존불상 옆을 지나 장양리 웃독골로 가는 고개이다. 《조선지리지》에 ‘탑고기(塔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탑고개’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탑이 있었으므로 탑고개라 부른다. 고개 서쪽에 마애삼존불상과 옛 절터, 탑재가 남아있다. 옛 탑은 2중 기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제강점기에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한다.

[내용] 《전국유적목록》(문화재관리국, 1970)에 사각오층탑이라고 하였다.

팅계바우 [바위]

[위치] 무너미재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폭포(瀑布) [폭포] → 폭포수

폭포수 [폭포]

[위치] 너라우들 북쪽 계곡에 있는 수암천의 폭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폭포(瀑布)’라고 하였다.

[내용] 길게 늘어진 너러바우 암반을 타고 와폭처럼 물이 흘러내리므로 폭포수라 하였다.



「폭포수 ; 2018년」

폭포수(瀑布水) [마을]

[위치] 원증거리 마을 북서쪽, 너라우들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폭포수(瀑布水)’라 하였다.

[유래] 마을 뒤 너러바우에 폭포처럼 생긴 개울이 있어서 폭포수라 하였다.

하보들 [들]

[위치] 갯바우 마을 남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중보들 서쪽 아래, 아랫말 앞에 있다. 현 갯바위 사거리 북쪽에 붙어있는 들이다.

현언 [못]

[위치] 신양 마을 남쪽 앞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버드나무들에 물을 댈다. 저수지 남쪽에 마에 삼존불상이 있고 탑고개가 있다. ‘신양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양저수지’라 하였다.

[유래] 원래는 신양저수지라 하였으나 고개 너머에 새로 못을 막으면서 그것이 ‘새언’으로 불리고 이 못은 ‘현언’이 되었다.



「현언 ; 2019년」

회촌(檜村) [마을]

[위치] 돌모루 북서쪽, 관암저수지 북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젓둔’이라고도 한다. 현 장수 1로가 지나가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젓둔(檜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회촌(檜村)’이라 하였다.

[유래] 전나무가 많았으므로 ‘회촌’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마을 당산목인 느티나무의 수간부에 젓무덤처럼 생긴 2개의 돌기가 있었기 때문에 ‘젓둔’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현재 마을의 남동쪽 산 너머에 새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회촌길이란 이름을 쓰고 있다.



「회촌 마을 ; 2019년」

의관리(衣冠里)

[위치]

의관리는 소초면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평장리, 서쪽으로는 섬강을 경계로 하여 호저면 대덕리, 남쪽으로는 장양리, 북쪽으로는 둔둔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소초면(所草面)의 오리(五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간촌·궁방·영거리·왕대·후평을 병합하여 의관리(衣冠里)라 하여 원주군 소초면 의관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소초면 의관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소초면 의관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가 되었다.

[유래]

원래 마을 이름인 ‘옷갓’을 한자로 옮겨 ‘의관리(衣冠里)’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경주 김씨 집성촌이므로 옷(衣)과 갓(冠)을 갖추어 예절과 품위를 중시한 까닭이라는 것이다. 또는 옷이 많이 나므로 ‘옷골(칠곡漆谷)’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나 옷 관련 지명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간촌(間村) [마을]

[위치] 사부량산 남쪽에 있던 큰 마을을 말한다. 5번 국도인 복원로 동쪽과 서쪽에 있던 마을로 현 한국지엠원주서비스센터 주변과 공군부대 정문 안 지역이다. 공군부대에 모두 편입되었다. '셋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셋말(간촌間村)'이라고 하였다.

[내용] 마을 안에 '남산촌', '셋말', '선바우마을'이 있었는데 도로 서쪽 아래에 있던 마을은 모두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간촌 마을 : 2019년

개사리고개 [고개]

[위치] 간촌에서 북쪽 가루개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사부량산 동쪽, 옷고개 서쪽에 있다. 둔둔리와 의관리의 경계이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거북바우 [바위]

[위치] 셋골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북바우'라고 하였다.

[유래] 모양이 거북처럼 생겨서 거북바우라 하였다.

경로정(敬老亭) [누정]

[위치] 영거리 마을 서쪽에 있던 옛 정자를 말한다.

계암현(階岩峴) [고개] → 섬배고개

고사산(高寺山) [산] → 높은절산

고양이골 [마을] → 꿩골

꿩골 [마을]

[위치] 영거리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고양이골'이라고도 한다. 『한국

지명총람』에 '꿩골(고양이골)'이라고 하였다.

꿩골고개 [고개]

[위치] 꿩골에서 남서쪽으로 독괴골을 거쳐 왕대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꿩골고개'라고 하였다.

궁방(弓方) [마을]

[위치] 간촌 북쪽, 옷고개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한국지엠원주서비스센터 서쪽 도로 건너에 있던 마을이다. '궁방말'이라고도 하였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에 '궁방말(弓方村)'이라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弓方'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궁방(弓方, 궁방말)'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뒷산이 활처럼 생겼다고 하여 궁방, 궁방말이라 하였다.

궁방말(弓方-) [마을] → 궁방

길갓담 [마을]

[위치] 섬강 동쪽 길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큰가루개와 의관리 후평 사이에 있던 마을이다. 현 원주공항 활주로에 편입되었다. '섬강촌'이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길갓담(섬강촌)'이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이 길가에 있었으므로 '길갓담', 섬강 옆에 있었으므로 '섬강촌'이라 하였다.

깃대봉 [산]

[위치] 간촌 동쪽, 시거리 북쪽에 있는 높이 209m의 산을 말한다. 둔둔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깃대봉'이라고 하였다.

[유래] 일제강점기에 측량 표준기를 꽂았으므로 깃대봉이라 하였다.

깊은도랑골 [골]

[위치] 앞들에서 남쪽으로, 섬배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쪽 위에 복원로가 있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남산말 [마을] → 남산촌

남산촌(南山村) [마을]

[위치] 간촌 마을 중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남산말(南山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남산촌(南山村)’이라 하였다.

내포(內浦) [마을] → 안개

노랑개양지 [골]

[위치] 시거리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314.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므로 노랑개양지라 하였다.

높은절 [절] → 높은절터

높은절골 [골]

[위치] 섬배고개 아래에서 높은절터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높은절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높은절이 있는 골짜기이므로 높은절골이라 하였다.

높은절산 [산]

[위치] 화랑개 남쪽, 섬배고개 동쪽 산줄기에 있는 높이 324.8m의 산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고사산(高寺山)’이라고도 한다. 의관리와 평장리와 장양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높은절산(高寺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산 서쪽에 높은절이 있었으므로 높은절산, 고사산이라 하였다.



「높은절산 : 2018년」

높은절터 [터]

[위치] 높은절산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현재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절터(높은절터)’라 하였다.

[내용] 공군부대 편입 전에는 이곳에 축대와 기왓장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능모루 [마을]

[위치] 영거리 서쪽 아래, 125.4m 높이의 야산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옛 5번 국도 능우교 주변에 있던 마을로, 비행장 활주로에 편입되었다. ‘능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능모루말(陵隅村)’이라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陵隅’라고 하였다.

[유래] 능이 있는 모퉁이이므로 능모루라 하였다.

능모루말 [마을] → 능모루

능모루주막 [주막]

[위치] 능모루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능모루주막거리(陵隅酒幕)’라고 하였다.

[내용] 옛날에는 마을 옆으로 5번 국도가 지나고 여기에서 섬강 건너 북서쪽으로 호저면 대덕리 빨월, 남서쪽으로 호저면 대덕리로 가는 나루가 있던 교통의 요지였다.

능우(陵隅) [마을] → 능모루

능우교(陵隅橋) [다리]

[위치] 능모루 앞, 화랑개를 건너는 옛 5번 국도의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능우교(陵隅橋)’라 하였다.

다랑고지 [들]

[위치] 간촌 남쪽 샘골(2)에 있던 다랑이논을 말한다. 화랑개에서 샘골로 난 계단식 논이었다.

도롱소 [마을] → 장양리 도롱소

도롱소 [소]

[위치] 장양천과 화랑개가 섬강에 합류하는 곳을 말한다. 거머터 북쪽, 쇓골(수구곡) 남쪽에 있다.

현 원주공항 활주로 남쪽 끝 지역이다. ‘도롱수’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롱소’라고 하였다.



「도롱소 : 2019년」

도롱수 [소] [마을] → 도롱소

도롱수강 [내]

[위치] 섬강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도롱소, 도롱수가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도롱수강’이라고 불렀다.

독괴골 [골]

[위치] 영거리에서 남쪽 왕대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독밭 [들]

[위치] 영거리 남서쪽 앞에 있는 화랑개 독의 바깥 들을 말한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독밭’이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 앞 화랑개에 길게 막은 독이 있었는데, 독의 안과 밖을 구분하여 바깥의 들을 ‘독밭’, 안쪽의 들을 ‘독안’이라 하였다.

독안 [들]

[위치] 영거리 남서쪽 앞 화랑개의 독 안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독안’이라고 하였다.

뒷골 [골]

[위치] 왕대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뒷골’이라고 하였다.

뒷버덩 [마을] → 후평

뒷버덩들 [들]

[위치] 뒷버덩 마을 서쪽 섬강 변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원주공항 활주소에 편입되었다.

[유래] 버덩들의 북쪽 위에 있으므로 ‘뒷버덩들’이라 하였다.

매바우 [바위]

[위치] 간촌 선바우 남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매바우’라고 하였다.

[유래] 모양이 매처럼 생겼다고 하여 매바우라 하였다.

무재 [고개]

[위치] 의관리에 있다고 하는 고개 이름이다. 현재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조선지지자료』에 ‘무지(武岬)’라 하였다.

버덩들 [들]

[위치] 뒷버덩들 남쪽, 능모루 서쪽에 있던 섬강 변의 들을 말한다. 원주공항 활주소에 모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덩들’이라 하였다.

북바우 [바위]

[위치] 선바우 남쪽, 매바우 부근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북바우’라고 하였다.

[유래] 모양이 북처럼 생겼으므로 북바우라 하였다.

사령바우 [바위]

[위치] 쇓골 동쪽, 왕대 남쪽 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사령바우’라고 하였다.

사령이 [고개] → 사부랑고개

사보랑산 [산] → 사부랑산

사봉산(射峰山) [산] → 사부랑산

사부랑고개 [고개]

[위치] 영거리에서 북쪽으로, 사부랑산을 넘어 가루개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사령이(射岬)’라 하였다.



「사부랑고개」: 2019년

사부랑산 [산]

[위치] 국방 동쪽, 후평 동쪽에 있는 높이 221m의 산을 말한다. 서쪽으로 개사리고개와 웃고개로 이어지는 능선이 둔둔리와 의관리의 경계이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어 산 정상에 현재 관제탑이 설치되었다. ‘사봉산’, ‘사부산’, ‘사보랑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사부랑산(師夫郎山)’, ‘사보랑산(射峰山)’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사부랑산’이라고 하였다.

[유래] 예전에 이 산 밑에 사부(四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내용] 어원을 알 수 없으나 한자로 다양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우리말로 ‘사보, 사부, 사보랑, 사부랑’ 등으로 구전되다가 한자로 다양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사부산(四府山) → 사부랑산

산지당골 [골]

[위치] 솫골 남쪽 섬강 변에서 동쪽으로 섬배고개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안개가 있고 골 위에서 서낭당고개골이 갈라져 나간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새상봉 [산]

[위치] 간촌과 선바우 사이에 있는 높이 144.9m의 산을 말한다. 선바우 남쪽에 있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새상봉’이라고 하였다.

샘골(1) [골]

[위치] 국방말에서 북동쪽으로, 현 연화사가 있는 곳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샘골(2) [골]

[위치] 간촌 남쪽, 화랑개에서 현 형제농장 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일제강점기에 못을 막으려던 흔적이 있다. 물이 끊이지 않아 골 아래쪽 다랑고지에 물을 대었다고 한다.

샘골 [마을]

[위치] 국방말 동쪽 도로 건너 위, 샘골(1)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한국지엠원주서비스센터 북쪽에 있는 마을로 연화사가 있는 곳이다.

셋말 [마을]

[위치] 간촌의 다른 이름이다. 현 공군부대 정문 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간촌’, ‘세집담’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셋말(간촌, 세집담)’이라고 하였다.

[유래] 웃고개 아래의 국방말과 영거리 사이에 있으므로 ‘셋말’이라 하였다. 이를 한자로 적어 ‘간촌(間村)’이라 하였다. 전에 세 집이 살았으므로 ‘세집담’이라고도 하였다.

서낭당고개골 [골]

[위치] 산지당골에서 북동쪽으로, 179m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섬배고개 서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선바우 [마을]

[위치] 선바우가 있던 마을을 말한다. 국방말 남쪽, 간촌 북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현 한국지엠원주서비스센터 남서쪽 도로 건너, 공군부대 정문 북쪽 위에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선바위말(立石村)’이라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立石’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선바우’라 하였다.

선바우 [바위]

[위치] 간촌 옆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지금은 해체되고 없다. 『한국지명총람』에 ‘선바우’라 하였다.

선바우말 [마을] → 선바우

선배고개 [고개] → 섬배고개

섬강촌(蟾江村) [마을] → 길갓담

섬배고개 [고개]

[위치] 의관리에서 남쪽 원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5번 복원로가 지나는 곳으로 옛날부터 횡성, 원주를 연결하는 주된 교통로였다. ‘선배고개’라고도 한다. 『여지도서』에는 ‘계암현(階岩峴)’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섬비고기(階岩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섬배고개’라고 하였다.



「섬배고개 : 2019년」

세거리산 [산] → 시거리산

세집담 [마을] → 셋말

수구곡(水口谷) [들] → 씻골

숫골 [골]

[위치] 왕대에서 남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이다.

숫골고개 [고개]

[위치] 왕대에서 남쪽으로, 웃담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145.3m 봉우리 옆으로 난 고개이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숫골고개’라고 하였다.

씻골 [들]

[위치] 왕대 서쪽, 능모루 남서쪽에 있는 섬강 변의 들을 말한다. 현 원주공항 활주로 최남단 지역이다. ‘수구곡(水口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쉬골(水口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씻골(수구곡)’이라고 하였다.

[유래] 화랑개 하구 골짜기에 섬강의 물이 드나들므로 ‘수골>숫골>씻골’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적어 ‘수구곡(水口谷)’이라 하였다.

시거리 [마을]

[위치] 시거리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화전민들이 살던 곳이다.

[유래] 옛날 이 마을에서 궁방말, 교항리 화랑개골, 시거리고개로 가는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므로 ‘세거리>시거리’라 하였다. 또는 시거리고개 너머에서 평장리로 가는 길과 섬배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삼거리이므로 ‘세거리고개>시거리고개’가 되었다고도 한다.

시거리개울 [내] → 화랑개

[위치] 화랑개의 다른 이름이다. 시거리 앞에 있는 내이므로 여기서는 ‘시거리개울’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시거리기울(三街里溪)’이라 하였다.

시거리고개 [고개]

[위치] 시거리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도 평장리 잣말 시거리골이 있다. 의관리에서 평장리나 윗섬배로 가는 지름길로, 높이는 270m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시거리고개’라 하였다.

[유래] 시거리 마을, 시거리골 위에 있으므로 시거리고개라고 하였다. 또는 시거리고개 너머에서 평장리로 가는 길과 섬배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삼거리이므로 ‘세거리고개>시거리고개’가 되었다고도 한다.

시거리골 [골]

[위치] 간촌 남동쪽, 터고개 남쪽의 시거리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시거

리고개가 있고 고개 너머 평장리 잣골마을의 시거리골이 있다.

시거리산 [산]

[위치] 시거리고개 북동쪽에 있는 높이 313m의 산을 말한다. 둔둔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조선지리지』에 ‘세거리산(三街里谷)’이라 하였다.

안개 [마을]

[위치] 섬배고개 서쪽 아래, 산지당골 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공군부대 남문사거리에서 북서쪽 산 너머에 있던 마을이다. 공군부대 안에 편입되었다. ‘내포(內浦)’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개(내포內浦)’라고 하였다.

[유래] 섬강의 안쪽에 마을이 있으므로 ‘안(內)+개(浦)>안개>안개’라 하였다.

안개고개 [고개]

[위치] 안개에서 남쪽 화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공군부대 남문사거리에서 부대로 넘어가는 도로가 나 있는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개고개’라고 하였다.

앞들 [들]

[위치] 선바우 남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공군부대 정문 부근이다.

영거(永巨) [마을] → 영거리

영거리(永巨里) [마을]

[위치] 간촌 북서쪽, 사부산 남서쪽, 화랑개 옆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공군부대 안에 편입되었다. 한자로 ‘영거(永巨)’, ‘영거리(永巨里)’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영거리말(永巨里)’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영거리(영거永巨)’라고 하였다.

영거리말 [마을] → 영거리

오리(五里) → 의관리

웃갯 [마을]

[위치] 의관리의 원래 이름이다. 웃갯을 한자로 옮겨 ‘의관(衣冠)’이라 하였다.

[유래] 유래는 알려져 있지 않다. 경주 김씨 집성촌이었으므로 예절과 품위를 중시한 까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웃갯성황당 [당]

[위치] 웃골고개 옆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어 폐지되었다.

웃골 [마을] → 의관리

[위치] 의관리의 다른 이름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칠곡(漆谷)’이라고 하였다.

웃물 [샘]

[위치] 남산촌에 있는 약수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물’이라고 하였다.

[유래] 웃오른 사람이 먹고 목욕을 하면 효험이 있으므로 웃물이라 하였다.

왕대(旺岱) [마을]

[위치] 섬배고개 북서쪽 아래, 간촌 서쪽, 능모루 남동쪽에 있던 큰 마을을 말한다. 공군부대에 모두 편입되었다. ‘왕터’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왕디촌(旺岱村)’이라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旺岱’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왕대(旺岱, 왕터)’라고 하였다.

[유래] 큰 터가 있다고 하여 왕대라 불렀다 한다.

[내용] 화랑개 하류에 있던 큰 마을이었다. 원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는데, 후에 후평이 가장 큰 마을이 되었고 그 다음이 왕대, 간촌, 궁방말, 영거리, 능모루 순이었다.

왕대성황당 [당]

[위치] 왕대 마을 남쪽, 섬배고개 서쪽 아래에 있던 옛 성황당을 말한다. 공군부대에 편입되어 폐지되었다.

왕대촌(旺岱村) [마을] → 왕대

왕터 [마을] → 왕대

웃고개 [고개]

[위치] 궁방말에서 북쪽 가루개로 넘어가던 고개

를 말한다. 옷골 서쪽, 개사리고개 동쪽에 있다. 둔둔리와 의관리의 경계로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높이는 165m이다. ‘옷골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옷골개’라고 하였다.

옷골 [골]

[위치] 간촌에서 선바우를 지나 북쪽으로 아래둔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공군부대 정문에서 북쪽으로, 복원로가 나 있는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옷골’이라고 하였다.

[내용] 골짜기가 무척 아늑하였다고 한다.

옷골고개 [고개] → 옷고개

옷골서낭 [당]

[위치] 간촌 동쪽, 현 한국지엠원주서비스센터 동쪽에 있는 서낭을 말한다. 큰 소나무와 갈참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연화사에서 치성을 드린다.

웃담 [마을]

[위치] 왕대 남동쪽 위, 섬배고개 서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작은방뿔골 [골]

[위치] 큰방뿔골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작은방뿔골’이라고 하였다.

장수터 [굴] → 큰방굴

절터 [터] → 높은절터

칠곡(漆谷) [마을] → 옷골, 의관리

큰방굴 [굴]

[위치] 왕대 동쪽, 섬배고개 서쪽 아래에 있는 바위의 굴을 말한다. ‘장수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큰방굴’이라 하였다.

[유래] 굴이 큰 방처럼 생겼으므로 큰방굴이라 하였다.

큰방뿔골 [골]

[위치] 큰방굴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큰방뿔골’이라 하였다.

턱고개 [고개]

[위치] 샘골(1), 현 연화사에서 남동쪽 황등골 입구로 내려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엠원주서비스센터 북쪽에 붙어있는 작은 고개이다.

화랑개 [내]

[위치] 교항리 다리목에서 서쪽으로 둔둔리를 지나고 의관리의 간촌과 영거리, 왕대를 지나 능모루에서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시거리개울’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화랑개(화랑포花浪浦)’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화랑기(花浪浦)’라고 하였다.

[내용] 화랑개 하류에 간촌과 영거리, 왕대, 능모루 등의 마을이 서고 들이 넓게 발달한 곳이었으나 모두 비행장과 공군부대에 편입되었다. 화랑개가 흐르던 자리 남쪽 바로 위에 현 공군부대 정문이 서 있고 내는 부대 안을 흘러 활주로 남쪽 끝 부분에서 섬강에 합류한다. 화랑개가 섬강에 합류하는 곳에서 장양천이 합류하는 곳까지를 도롱소라 부른다.

화랑개골 [골]

[위치] 섬배고개 북쪽 아래 현 공군부대 정문에서 동쪽으로, 교항리 다리목까지 화랑개가 흐르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화랑개골’이라고 하였다.

화랑포(花浪浦) [내] → 화랑개

후평(後坪) [마을]

[위치] 사부량산 서쪽 아래, 섬강 강변 들판에 있던 큰 마을을 말한다. ‘뒤틀버덩’이라고도 한다. 원주공항 활주로는 모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뒤틀버덩(후평後坪)’이라고 하였다.

[유래] 버덩들 북쪽 위 뒤틀버덩들에 있는 마을이므로 ‘뒤틀버덩’이라 하였다. 이를 한자로 적어 ‘후평(後坪)’이라고 하였다.

장양리(長陽里)

[위치]

장양리는 소초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수암리와 평장리, 서쪽으로는 섬강을 경계로 하여 호저면 대덕리, 남쪽으로는 태장동과 수암리, 북쪽으로는 의관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소초면(所草面)의 초일리(初一里)·분일리(分一里)·분사리(分四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고촌·노하·대화지·하도곡·묵대·양촌·원대·장막골·장전·적동·택동·화수동을 병합하여 장양리(長陽里)라 하여 원주군 소초면 장양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소초면 장양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소초면 장양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가 되었다.

[유래]

장전(長田)과 양촌(陽村)의 이름을 따서 장양리(長陽里)라 하였다.

가자고개 [고개] → 가재고개

가자골 [골] → 가재골

가재고개 [고개]

[위치] 부암동에서 서쪽으로 난 가재골 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넘어 늑골을 지나 묵들과 섬강에 닿는다. ‘가자고개’라고도 한다.

가재골 [골]

[위치] 부암동에서 서쪽으로 가재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가자골’이라고도 한다.

갯바우봉 [산]

[위치] 노루고개 동쪽, 도곡 남쪽에 있는 218.6m 높이의 산을 말한다. 현 36보병사단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 수암리와 경계를 이룬다.

강골 [골]

[위치] 섬강 강변 묵들에서 남동쪽으로 묵대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거명터 마을과 늑골 사이, 묵대고개 남서쪽에 있다. 골 위에 외딴 집이 있다.

거리보 [보]

[위치] 장막들에 있는 장양천의 보(洑)를 말한다. 현 하나로마트 남쪽에 있다.

거명터 [마을]

[위치] 원터 서쪽, 도룡소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원터골에서 묵대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뒤 묵대고개로 강릉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검명터’, ‘거북터’, ‘묵대(墨臺)’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거명터(墨臺)’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명터(거북터, 묵대)’라고 하였다.

[유래] ‘거명터’는 ‘굶’계통의 지명으로 ‘크고 넓은, 신성한 땅’이라는 뜻이다.

[풀이] ‘굶+터>굶터>검터>거명터>거명터’로 음운변천하였다. 마을 남쪽 묵대고개 능선에 ‘검성’이라는 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굶’계통의 지명이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이 특

별히 땅이 검은 것도 아닌데, ‘검·거머·거명’을 ‘검다’고 보아 ‘묵(墨)’을 취하여 ‘묵대(墨臺)’, ‘묵들’이라는 이름이 파생되었다.

다른 이름으로는 ‘거북터’라고 하였는데, ‘거북터’의 유래는 밝히기 어렵다. 주변의 ‘거북바우’는 서쪽 섬강 건너 대덕리와 마을 북쪽 의관리 뒷골(수구곡)에 있다. 지리상 수구곡의 거북바우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강 건너의 대덕리와 의관리의 어느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거리가 멀어 그 바위로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명터 마을 : 2019년」

거명터강 [내]

[위치] 섬강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거명터 마을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거명터강’이라고도 하였다.

거명터들 [들]

[위치] 거명터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명터들’이라고 하였다. ‘묵들’이라고도 한다.

거북터 [마을] → 거명터

검성 [산]

[위치] 장막 북쪽, 대화지 동쪽에 있는 높이 197m의 산을 말한다. 가재고개 남쪽 능선에 있다.

검명터 [마을] → 거명터

계암현(階岩峴) [고개] → 섬배고개

고사산(高寺山) [산] → 높은절산

고촌(庫村) [마을]

[위치] 양촌 동쪽, 평장리 셋섬배 서쪽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곶집말’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고촌(庫村)’이라 하여 정착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곶집말(庫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고촌(곶집말)’이라고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에 창고가 있었으므로 ‘곶집말’, ‘고촌’이라 하였다.



「고촌 마을 : 2019년」

고촌보(庫村湫) [보]

[위치] 양촌들 앞에 있는 장양천의 보(湫)를 말한다.

골매기 [골]

[위치] 거머터 북쪽, 솟대백이 북서쪽 아래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에 외딴집이 있다.

곶집말 [마을] → 고촌

공심(公心) [마을]

[위치] 도곡 상촌 음달말 능구렁이골 끝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노루고개 북동쪽 아래에 있다.

공심산(公心山) [산]

[위치] 도곡상촌 남서쪽, 공심 마을 서쪽에 있는 높이 188.5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공신산(公心山)’이라고 하였다.

구양들 [들]

[위치] 양촌 앞의 들을 말한다. ‘군양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구양들(軍餉坪)’이라고 하였다.

군양들 [들] → 구양들

낮은터들 [들]

[위치] 상촌 양지담 북쪽 아래 무들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들 앞에 아홉마지기보가 있다.

너거리보 [보]

[위치] 부암동 남동쪽, 장막들에 있는 장양천의 보(湫)를 말한다.

노루고개 [고개]

[위치] 공심산 남쪽, 태장동 절골 동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태장동과 장양리의 경계가 되는 능고개 산줄기에 있다. 높이는 230m이다.

높은절산 [산]

[위치] 고촌 북동쪽에 있는 높이 324.8m의 산을 말한다. 장양리와 의관리, 평장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고사산(高寺山)’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높은절산(高寺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산 서쪽에 높은절이 있었으므로 ‘높은절산’, ‘고사산’이라 하였다.

늑골 [골]

[위치] 섬강 강변 목들에서 남동쪽 가재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대화지 마을 북쪽, 거머터 남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중간을 강릉선 철로가 가로질러 지나고 있다.

능고개 [고개]

[위치] 도곡에서 서쪽 태장동으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능산 남쪽에 있는 고개로, 현재 장수2로가 나 있다. 높이는 140m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능고기(陵峴)’라고 하였다.

능구렁이골 [골]

[위치] 도곡 음달담에서 남서쪽으로 공심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공심 마을이 있다.

능산 [산]

[위치] 능고개 북쪽에 붙어있는 낮은 산을 말한다. 높이 176m의 낮은 산이다. 산 북쪽에 영동고속도

로가 나 있고 남쪽에는 장수2로가 나 있다.

당골 [골] → 사당골

대화지(大化地) [마을]

[위치] 장막골 서쪽, 현 한국공사 북서쪽 섬강 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으로 강릉선 철로가 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대화지(大化地)’라고 하였다.

[유래] 큰 밭이 있었으므로 대밭+지>대왓지, 이를 한자로 적어 대화지(大化地)라 하였다.

[풀이] ‘대(大)+밭(田)+지>대밭지>대왓지>대왓지’이다. 큰 밭이 있으므로 붙여진 지명으로, ‘지(地·只)’는 땅·장소를 뜻하는 지명소이다. ‘밭>밭>왓>왓’은 평장리의 ‘평장앗’, 사제리 광터의 ‘정상앗’ 등에 남아있고 지리산의 피아골(<피밭골>)을 비롯, 제주도에 많이 남아있는 지명소이다.



「대화지 마을 : 2019년」

대화지강 [강]

[위치] 섬강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대화지 마을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대화지강’이라고 하였다.



「대화지강 : 2019년」

대화지골 [골]

[위치] 대화지들에서 남동쪽으로, 현 한국인삼공사 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대화지내 [내]

[위치] 대화지 동쪽 검성에서 사당골을 거쳐 섬강으로 들어가는 작은 내를 말한다.

대화지들 [들]

[위치] 대화지 마을 남쪽과 서쪽에 걸쳐, 섬강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습벌’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습벌(大化之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대화지들’이라고 하였다.

[풀이] 이 들을 ‘습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강변 쪽이 지대가 낮아 물이 자주 찔기 때문이다.

덕고개 [고개]

[위치] 장양리에서 남쪽으로 태장동 덕현들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장양사거리에서 태장농공단지삼거리로 넘어가는 복원로가 나 있다. ‘덕현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덕고기(德現)’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덕고개’라고 하였다.

덕현고개(德峴--) [고개] → 덕고개

도곡(陶谷, 道谷) [마을]

[위치] 장양천을 따라서 발달한 마을로 현 한국인삼공사 앞 장양사거리에서 동쪽과 남동쪽에 있는 하도곡과 수암리 싱근솔 서쪽 아래에 있는 상도곡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다. ‘독골’이라고도 한다. 한자로는 ‘陶谷’, ‘道谷’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독골(道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독골(도곡)’이라고 하였다.

[내용] 도곡 또는 독골로 불리는 마을은 아래독골(하도곡)의 ‘도곡상촌’, ‘도곡하촌’, 그리고 ‘웃독골(상도곡)’이 있다. 현 도곡사거리에 있는 마을을 ‘도곡상촌(상촌)’, 그 북쪽 장양천 하류에 있는 마을을 ‘도곡하촌(하촌)’으로 부른다. 한편 장양천 상류 싱근솔 서쪽 아래의 마을은 ‘웃독골(상도곡)’이

라고 부른다. 도곡상촌을 ‘상촌’, 도곡하촌을 ‘하촌’으로 줄여서 부른다.

도곡상촌 [마을] → 상촌

도곡하촌 [마을] → 하촌

도롱소 [마을]

[위치] 도롱소 옆 섬강 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도롱수’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롱소’라고 하였다.

[내용] 예전 섬강 도롱소 주변에 10여 호가 살았다. 1974년 공군기지가 들어오면서 이 마을이 제일 먼저 없어졌다. 도롱소 강변은 소초초등학교, 장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가던 곳이다.

도롱소 [소]

[위치] 장양천과 화랑개가 섬강에 합류하는 곳을 말한다. 거명터 북쪽, 싯골(수구곡) 남쪽에 있다. ‘도롱수’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롱소’라고 하였다.

[유래] 화랑개와 장양천이 섬강에 합류하는 곳으로 물이 크게 휘돌아 나가므로 도롱소라 하였다. 도롱소 상류 부분은 원주비행장 활주로에 편입되었고 하류 부분이 거명터와 대화지 앞에 있다.



「도롱소 ; 2019년」

도롱수 [마을] [소] → 도롱소

도롱수강 [내]

[위치] 섬강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도롱수(도롱소)가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도롱수강’이라 하였다.

도치 [고개]

[위치] 장막골에서 동쪽으로 봉오뚝을 넘어 석달봉까지 이어지는 긴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동남쪽에 원증동이 있다. 용덕사 북쪽의 산 정상 능선을 넘는 고개로, 높이는 261m이다.

독골 [마을] → 도곡

뒷골 [골]

[위치] 뒷골보가 있는 곳에서 영동고속도로로 건너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뒷골보 [보]

[위치] 도곡상촌 방아고개 북쪽에 있는 보(淤)를 말한다. 영동고속도로 남쪽에 있다.

모래담 [마을]

[위치] 도곡 상촌 양지담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뒤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무두리 [들]

[위치] 무두리보가 있는 곳의 들을 말한다.

[유래] 도곡하촌의 음달보에서 용덕사 중묘골 아래의 서낭대이보에 이르는 장양천이 둘러나가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같은 이름으로 판부면 금대리의 ‘무두러니’가 있다.

[풀이] ‘물+돌+이>물돌이>물두리>무두리’가 되었다.

무두리보 [보]

[위치] 도곡 하촌 음달보 서쪽 아래에 있는 보(淤)를 말한다. 현 장수1로가 지나가고 있다.

무들 [들]

[위치] 도곡 양지담 북쪽 아래, 능산 동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아래에 ‘남은터들’이 있고 그 아래에 ‘아홉마지기보’가 있다.

[유래] 물이 많은 들이므로 ‘물들>무들’이라고 하였다.

묵대(墨岱) [마을] → 거명터

묵대고개 [고개]

[위치] 원터에서 서쪽으로, 거명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마루로 강릉선 철로가 지나가

고 있다.

묵들 [들] → 거머터들

[위치] 거머터 서쪽 섬강 변에 나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들은 남서쪽으로 대화지 마을 앞까지 나 있다. ‘거머터들’이라고도 한다.

밤고개 [마을] → 방아고개

방아고개 [고개]

[위치] 도곡상촌에서 동쪽으로, 원증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장수2로가 나서 고개는 많이 낮아졌다. ‘용치’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방아고기(舂峴)’라고 하였다.



「방아고개 : 2019년」

방아고개 [마을]

[위치] 도곡 상촌 음달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모래담의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밤고개’라고도 한다.

방아고개골 [골]

[위치] 방아고개 서쪽 아래 장수2로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버덩 [들]

[위치] 거머터 묵대고개에서 서쪽 섬강에 이르는 넓은 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보똥지 [들] → 보똥지기

보똥지기 [들]

[위치] 장양천과 섬강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들을 말한다. ‘보똥지’라고도 한다.

[유래] 장양천 하류에 보를 막은 독 옆에 들이 있

으므로 ‘보똥지(<똥둔지), 보똥지기’라 하였다.

본부락 [마을] → 장막

봉오뚝 [산]

[위치] 도곡하촌 북쪽, 현 용덕사 뒤에 있는 높이 261.2m의 산을 말한다. 산 남쪽에 하촌이 있고 북쪽에는 선녀굴이 있다. 정상을 동서로 넘어가는 도치 고갯길이 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봉오뚝’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에 여기서 봉화를 들었다고 하여 봉오뚝이라 부른다.

부안동 [마을]

[위치] 장막골 북쪽, 원터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하나로마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부안동 마을 : 2019년」

사당골 [골]

[위치] 섬강 변 대화지에서 북동쪽 검성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 너머에 장막골이 있다. 골짜기 위로 강릉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 ‘당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 안에 옛날 서당이 있었다고 한다.

상도곡(上陶谷) [마을] → 수암리 상도곡

상촌(上村) [마을]

[위치] 현 도곡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을 말한다. 하도곡 마을 중 도곡상촌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다. 『조선지지자료』에 ‘상촌(上村)’이라고 하였다.

[내용] 도곡 마을 중 현 도곡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을 ‘상촌’이라고 하고 장양사거리 동쪽의 마을을 ‘하촌’이라고 부른다. 상촌 안에 ‘양지담’, ‘음달말’, ‘모래담’, ‘방아고개’가 있다.



「상촌 마을 ; 2019년」

새논보 [보]

[위치] 한국인삼공사 북동쪽, 북원로 옆에 있는 장양천의 보(洑)를 말한다.

새둔지 [들]

[위치] 도롱소 동쪽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옛날 벽돌공장이 있던 곳이다.

샘물골 [골]

[위치] 수래울골 입구에서 남쪽으로 갯바우봉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서낭댕이보 [보]

[위치] 현 용덕사 남서쪽 아래, 중묘골 입구에 있는 장양천의 보(洑)를 말한다. 무두리보 북쪽 하류에 있다.

서넉골 [골] → 선녀골

석다리 [산] → 석달봉

석달봉 [산]

[위치] 신양 남서쪽, 선녀골저수지 남동쪽에 있는 높이 303m의 산을 말한다. 수암리와 경계를 이룬다. ‘석다리’, ‘석달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석다리(石達山)’라고 하였다.

[유래] 산 남쪽이 바위로 되어 있으므로 ‘석달봉’이라 하였다.

[풀이] ‘석다리’는 ‘석+달+이>석달이>석다리’이다.

‘석(石)’은 ‘돌’, ‘달’은 ‘산’, ‘이’는 명사형성 접미사이다. ‘석달봉’은 ‘석+달+봉(峰)>석달봉’이 되었다. ‘달’은 ‘산’의 옛말이므로, ‘달’과 ‘봉’이 모두 ‘산’을 뜻하는 동의중복 표현이다. 즉 ‘석다리(<석달이)’, ‘석달봉’, ‘석달산’은 모두 ‘돌산’이라는 뜻이다.

석달산 [산] → 석달봉

선녀골 [골]

[위치] 원터앞들에서 동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신양선녀길이 나 있고 골짜기 서쪽 위에 선녀골저수지가 있다. ‘서넉골’이라고도 한다.

선녀골 [마을]

[위치] 선녀골저수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선유동(仙遊洞)’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선유동(선녀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선녀들이 이곳에 와서 놀았다 하여 선녀골이라 하였다 한다. 한편 신양마을에서는 서쪽 아래로 내려가는 골짜기이므로 ‘서넉골’이라 하였다. 지금은 선녀골로 정착되었다.

선녀골저수지 [못]

[위치] 선녀골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원터 동쪽, 신양마을 서쪽에 있다. ‘이무기남시터’라고 한다.

[유래] 몇 년 전 이 못에 이무기가 나타났다는 소동이 있었는데 이후로 이무기남시터로 불린다.



「선녀골저수지 ; 2019년」

선녀들 [들]

[위치] 선녀골저수지 아래에서 서쪽으로 원터앞들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선미골 [골]

[위치] 선녀골저수지에서 남쪽으로 석달봉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선미골’이라고 하였다.

선배고개 [고개] → 섬배고개

선유동(仙遊洞) [마을] → 선녀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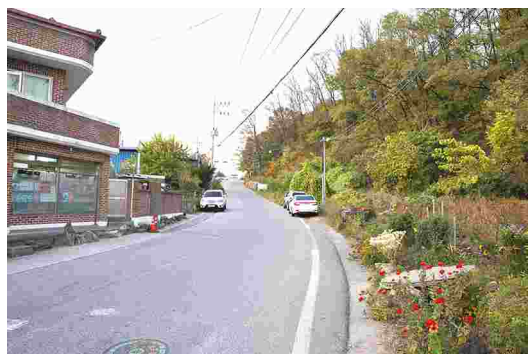
선이개들 [들]

[위치] 한국인삼공사 동쪽 도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도로에 대부분 편입되고 장양사거리 북동쪽에 들의 일부가 남아있다.

섬배 [마을] → 평장리 섬배

섬배고개 [고개]

[위치] 원터에서 북쪽 의관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5번 복원로가 지나는 곳으로 옛날부터 원주에서 횡성으로 가는 주된 교통로였다. ‘선배고개’라고도 한다. 『여지도서』에 ‘계암현(階岩峴)’이라고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섬비고기(階岩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섬배고개’라고 하였다.



「섬배고개 : 2019년」

숫대백이 [산]

[위치] 묵대고개 북쪽에 붙어있는 높이 154m의 산을 말한다. 거명터 동쪽, 원터 서쪽 사이에 있다. 산 아래로 강릉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

[유래] 옛날 이 산에 숫대를 많이 세웠으므로 ‘숫대백이’라 하였다.

수래울골 [골]

[위치] 도곡 음달말에서 남동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상촌저수지가 있다.

수통먹쇄보 [보]

[위치] 묵대고개 동쪽 아래에 있는 장양천의 보(洑)를 말한다.

습벌 [들] → 대화지들

아래섬배 [마을] → 양촌

아랫들 [들]

[위치] 거명터들 중 도롱소 남서쪽 아래의 들을 말한다. 상류의 들은 ‘웃들’이라고 한다.

아랫말 [마을]

[위치] 거명터 마을 중 묵대고개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홉마지기보 [보]

[위치] 낚은터들 앞에 있는 장양천의 보를 말한다.

양지담 [마을]

[위치] 도곡 상촌 음달말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도곡사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지담 마을 : 2019년」

양지말 [마을] → 양촌

양촌(陽村) [마을]

[위치] 고촌 서쪽, 화수동 동쪽으로, 장양천을 따

라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양지말’, ‘아래섬배’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양지말(陽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짓말’, ‘양촌(아래섬배)’이라고 하였다.



‘양촌 마을 ; 2019년’

양촌들 [들]

[위치] 양촌 마을 남쪽으로 장양천을 따라 길게 난 들을 말한다.

연자방앗간 [터]

[위치] 거명터 보둔지 옆에 있던 옛 방앗간 터를 말한다. 보둔지 보(湫)의 물을 이용하였다.

열마지기보 [보]

[위치] 장막골 동쪽, 장막들 남쪽에 있는 장양천의 보(湫)를 말한다. 현 영진교가 있는 곳이다.

[유래] 열마지기 정도의 물을 대므로 열마지기보라 하였다.

용치(春峙) [고개] [마을] → 방아고개

웃도곡 [마을] → 수암리 상도곡

웃독골 [마을] → 수암리 상도곡

웃들 [들]

[위치] 거명터들 중 도롱소가 있는 상류의 들을 말한다. 하류의 들은 ‘아랫들’이라고 부른다.

웃말 [마을]

[위치] 거명터 마을 중 서쪽 묵대고개 고갯마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원대(院垔) [마을]

[위치] 섬배고개 남쪽 아래, 장막골 북쪽, 거명터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선녀골삼거리 서쪽에 있다. ‘원터’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원대(院垔)’라고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원터골(院垔)’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원터골(원대)’라고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던 원(院)이 있었으므로 원터, 원터골이라고 하였다. 원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



‘원대 마을 ; 2019년’

원주지구전투전적비 [비]

[위치] 장양리 원주 횡성간 5번 국도변 우측 산봉우리에 있다.

[내용] 피라미드식으로 돌로 쌓아 올려 끝이 뾰족하게 네모꼴로 쌓아 올려져 있다. 정면 한복판에 동판으로 「原州地區戰鬪戰績碑」라고 세로로 쓰여 있고 밑에는 네모꼴로 동판에 비석이 세워진 내력이 새겨져 있다.



‘원주지구전투전적비 ; 2019년’



「원주지구전투전적비 비문 ; 2019년」

원터 [마을] → 원대

원터골 [골]

[위치] 원터에서 묵대고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원터골개울 [내]

[위치] 장양천의 다른 이름이다. 원터골 앞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원터골개울이라 불렀다. 『조선지리지』에 '원터골기울(院垡溪)'이라 하였다.

원터앞들 [들]

[위치] 원터골 동쪽 장양천에 있는 들을 말한다.

음달말(1) [마을]

[위치] 도곡 상촌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도곡사거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음달말'이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 남쪽에 산이 있어 응달지므로 음달말이라 하였다.

음달말(2) [마을]

[위치] 양촌 남쪽 장양천 건너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음달말'이라고 하였다.

음달보 [보]

[위치] 도곡 하촌 낚은터들 서쪽 아래에 있는 장양천의 보(洑)를 말한다.

이무기뉘시터 [뉘] → 선녀골저수지

이무니골 [골]

[위치]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 서쪽 섬강에서 동

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호저면 대덕리 가래터에서 동쪽 강 건너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이무니골'이라고 하였다.

[내용] 현 태장농공단지 뉴스테이아파트 북쪽에서 한국인삼공사 남쪽으로 나 있고 골 앞에 취수장 및 섬강을 막은 큰 보가 있다. 태장동과 경계이며 현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과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일리(一里) [마을] → 장양리

작은개굴골 [골]

[위치] 도곡상촌 음달말 능구렁이골에서 서쪽으로, 198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개굴골 남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고개 [고개]

[위치] 대화지에서 동쪽으로, 사당골을 거쳐 장막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장막(帳幕) [마을]

[위치] 한국인삼공사 북동쪽, 장양사거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영진아파트와 백운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장막골', '장막동', '본부락'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장막골(帳幕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장막골(장막, 장막동)'이라고 하였다.



「장막 마을 ; 2019년」

장막골 [골]

[위치] 장막 마을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장막골 [마을] → 장막

장막동(帳幕洞) [마을] → 장막

장막들 [들]

[위치] 장막골 동쪽, 부안동 남쪽에 장양천을 따라 난 들을 말한다.

장양덕절터 [터]

[위치] 하촌 북쪽 중묘골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현재 용덕사가 들어서 있다.

[내용] 옛 축대와 외편이 발견된다. 용덕사는 그 절터에 새로 지은 절이다.

장양천(長陽川) [내]

[위치] 치악산 삼봉과 투구봉, 토끼봉 산줄기에서 발원하여 평장리 안골, 수암리 쑥골, 바우골 등을 지나온 ‘평장천’, ‘수암천’, ‘원증천’이 합류하여 장양리 거명터에서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유래] 장양리 앞에서 물줄기들이 모여 큰 물줄기가 되어 흐르므로 장양천이라 하였다.

[내용] 투구봉 아래에서 내려온 ‘원증천(元增川)’과 토끼봉에서 내려온 ‘수암천(壽岩川)’이 너라우들에서 합친 후, 평장리 안골에서 내려온 ‘평장천(平庄川)’과 양촌 앞에서 합류하여 섬강으로 들어간다. ‘원증천’, ‘수암천’, ‘평장천’은 각 마을 앞에서 부르는 ‘장양천’의 다른 이름들이다.

죽박골 [마을] → 진박골

중묘골 [골]

[위치] 도곡 하촌 북쪽, 현 용덕사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스님들이 많이 입적하여 중의 묘가 많으므로 중묘골이라 하였다.

중방골 [골]

[위치] 도곡 음달말에서 수래울골과 갈라지며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수래울 북쪽에 붙어 있는 골짜기이다.

큰개굴골 [골]

[위치] 도곡 음달말에서 북서쪽 능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고개 [고개]

[위치] 대화지에서 대화지골을 거쳐 남동쪽으로, 태장동 진밭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갯길에 현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이 들어서 있다.

하도곡(下陶谷) [마을]

[위치] 도곡 마을 중 장양천 하류의 장양리에 있는 아래도곡을 말한다.

[내용] 상도곡은 이보다 상류인 수암리 원증거리 아래에 있다. 하도곡은 다시 도곡상촌(상촌)과 도곡하촌(하촌)으로 나누어지는데 상촌은 현 도곡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고 하촌은 도곡사거리 북쪽, 장양사거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쪽 장양천 하류에 있는 마을을 도곡하촌(하도곡, 하촌), 영동고속도로 남쪽 장양천 상류의 마을을 도곡상촌(상도곡, 상촌)이라고 부른다.

하촌(下村) [마을]

[위치] 아래도곡(하도곡) 마을의 도곡하촌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다. 상촌의 북쪽, 현 장양사거리 동쪽 안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하촌(下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도곡하촌(하도곡)’이라 하였다.

[유래] 장양천의 아래쪽 하류에 있으므로 하촌이라고 하였다.

화새바우 [마을] → 화수동

화새바우 [바위]

[위치] 화수동 뒷산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강릉선 철도에 편입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화새바우’라고 하였다.

[유래] 바위 모양이 황새처럼 생겨서 ‘황새바우>화새바우’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ㅇ’탈락으로 황새바우>화새바우가 되었다.

화수동(和壽洞) [마을] → 화새바우

[위치] 섬배고개 아래, 남문사거리 남서쪽 언덕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공군부대 남문 아래에 있는 마을로, 마을 서쪽으로 강릉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화수동(화새바우)’이라고 하였다.

[풀이] 화새바우(<황새바우)가 있는 마을을 한자로 적으면서 ‘화새’의 소리를 음차하면서 이를 미화하여 ‘화수(和壽)’라 하였다.

평장리(平庄里)

[위치]

평장리는 소초면의 중동부에 있는 마을로 면소재지이다.

동쪽으로는 치악산 줄기를 경계로 하여 학곡리, 서쪽으로는 장양리와 의관리, 남쪽으로는 수암리, 북쪽으로는 교항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소초면(所草面)의 지역으로 사리(四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간계암·계암·골말·안골·두둑·잣말을 병합하여 평장리(平庄里)라 하여 원주군 소초면 평장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소초면 평장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소초면 평장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가 되었다.

[유래]

넓은 밭이 있던 마을이므로 평장리(平庄里)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평장리를 ‘평장앗(平庄村)’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앗’은 ‘밭>밭>왓>앗’으로 변한 것으로 ‘밭(田)’을 뜻한다. 밭을 뜻하는 ‘왓·앗’은 제주도에 많이 남아있는 지명소이다. 원주에는 흥업면 사제리 광터에 ‘정상앗’이 있다.

가래골 [골]

[위치] 안골 동쪽 위에서 동골과 갈라져 남동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사태골이 갈라져 나가고 골 끝에는 옛 정덕암 터가 있다. 현재 택지와 들로 개발되고 있다.

간개미 [마을] → 셋섬배

[풀이] 간계암(셋섬배)이 간개암으로 발음되고 ‘간개암+ㅣ>간개암이>간개아미>간개미’로 음운 변천하였다.

간계암(間階岩) [마을] → 셋섬배

갈방양지 [고개]

[위치] 거래와 웃섬배 사이에 있던 고갯길을 말한다. 옛날에는 심한 고갯길이었으나 도로를 내면서 고개의 모습은 사라졌다.

[유래] ‘갈방(葛坊)’은 대개 침이 많은 곳에 붙는 지명이다. 침이 많은 양지쪽이어서 붙인 이름으로 추정된다.

개사리들 [들]

[위치] 부채고개 남쪽에서 남동쪽 두둑저수지를 향하여 난 들을 말한다. 솟든지골 서쪽 아래에 있다.

개암 [바위] → 섬바우

거래 [길]

[위치] 소초면 소재지인 평장리의 소초삼거리를 말한다.

[유래] 안골과 섬배로 이어지는 사거리 길이므로 ‘거래’라 하였다.

건넌골 [들]

[위치] 골말에서 도로 건너 남동쪽으로 난 넓은 들을 말한다.

건넌골 [마을]

[위치] 건넌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계암(階岩) [마을] → 섬배

계암산(階岩山) [산] → 대왕산

고사산(高寺山) [산] → 높은절산

곡촌(谷村) [마을] → 골말

골말 [마을]

[위치] 평장 북쪽, 탑고개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앞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곡촌(谷村)’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곡촌(골말)’이라고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므로 골말이라고 하였다.



‘골말 마을 ; 2019년’

골말봉 [산]

[위치] 골말 북쪽에 있는 높이 274.2m의 봉우리를 말한다. 평장리와 교항리, 둔둔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길재(1) [고개] → 당재

길재(2) [고개] → 질재

내곡(內谷) [마을] → 안골

너래바우 [바위]

[위치] 두둑 가래골 위, 달봉 아래 개울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개울에 넓게 깔려 있으므로 너래바우라 하였다. 물의 근원지라고 한다.

농바우 [바위]

[위치] 도토리 뒤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의 크기가 장농만큼 크므로 농바우라 하였다.

높은절산 [산]

[위치] 고촌 북동쪽에 있는 높이 324.8m의 산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고사산(高寺山)’이라고도 한다. 평장리와 장양리, 의관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조선지리지』에 ‘높은절산(高寺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산 서쪽에 높은 절이 있었으므로 높은절산, 고사산이라 하였다.

달봉 [산]

[위치] 안골 남동쪽, 두둑 동쪽, 길재고개 북쪽 능선에 있는 높이 673.5m의 봉우리를 말한다. 평장리와 학곡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월봉(月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달봉(월봉)’이라고 하였다.

[유래] 달이 떠오르는 봉우리이므로 ‘달봉’이라 부른다고 한다.

[풀이] ‘달’은 ‘高, 山’의 뜻을 가진 옛말이다. 따라서 달봉은 ‘높은 산’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달’을 하늘의 달(月)로 보아 ‘월봉(月峰)’이라 하였다.

당고개 [고개] → 당재

당재 [고개]

[위치] 안골에서 동쪽으로, 소초면 길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길재’, ‘질재’, ‘당고개’라고도 한다. 주민들은 ‘당재’라 부른다.

대골(1) [골]

[위치] 두둑에서 남동쪽으로 437.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쪽 너머에 수암리 바랑골과 엄나무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댓골’이라고 하였다.

대골(2) [골]

[위치] 도도리에서 남쪽 203.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쪽 너머에 수암리 수동쑥골(1)이 있다.

대왕산(大王山)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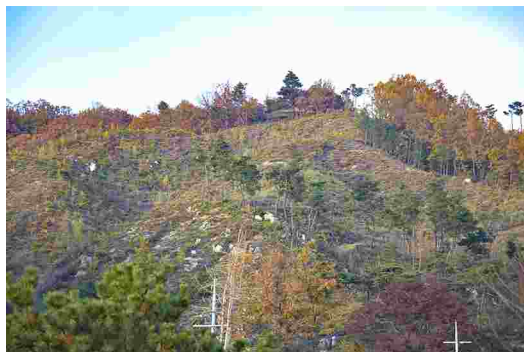
[위치] 옷섬배 북쪽에 있는 높이 241.5m의 산을 말한다. ‘계암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신을 모신 성황당이 있었으므로 대왕산이

라 하였다. 성황당은 일제강점기에 신사로 바뀌었으나 해방이 되면서 헐어 없앴다. 현재 산신제를 지내는 제단이 있다.

대왕산에서 풀을 베어다 소를 먹이면 소가 병들거나 죽었으며, 나무를 해서 아궁이에 불을 때면 그 방에서 잔 사람은 병에 걸리곤 해서 마을 사람들은 대왕산의 나무나 풀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산이 그만큼 신성시 되었다는 뜻이다.

[풀이] 옛날에 성황당에 모신 신을 ‘대왕’, 성황당을 ‘대왕당’이라고도 불렀는데 여기에도 신을 모셨으므로 ‘높고 신성한, 성스러운’ 의미에서 ‘대왕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태장동 ‘가매기’에서는 이를 신(神)을 뜻하는 ‘곰’으로 받아 옮겨 ‘가마지’, ‘가마지>가매기’라 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곰’은 ‘신(神)’ 또는 ‘왕(王)’의 뜻이다. 이곳과 흥양리 윗항골에서는 이를 대왕으로 옮겨 ‘대왕산’, ‘대왕재’라고 하였다.



‘대왕산’ ; 2019년

대왕산성황당 [당]

[위치] 옷섬배 마을 뒤 대왕산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제사를 지냈다.

[유래] 일제강점기에 원래 마을에 있던 성황당을 없애고 신사를 만들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신사를 없애고 다시 성황당을 세웠다고 한다. 지금 성황당은 마을 앞 한 군데에만 있다.

덕섬배 [마을] → 떡섬배, 옷섬배

도도리(道都里) [마을]

[위치] 두둑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전체에 돼지 축사가 많다. 20세대 정도가 살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도리(道都里)’라고 하였다.

[유래] ‘두둑>두둑>도둑>도도리’로 음운 변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옛날 도도리와 두둑, 안골을 지나는 길이 강릉으로 가는 큰 길이어서 이곳에 도둑이 많았으므로 도도리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도도리고개 [고개]

[위치] 두둑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도도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서쪽 아래에 못둔지고개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도도리지(道陶里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도리고개’라고 하였다.

도도리골 [골]

[위치] 창골 끝, 도도리고개에서 남동쪽 도도리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동곡(東谷) [골] [마을] → 동골

동골 [골]

[위치] 안골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동골 마을이 있고 동골 마을 위에 웃동골이 있으며 그 동쪽 너머에 속새울, 무쇠점이 있다. ‘동곡(東谷)’이라고도 한다.

동골 [마을]

[위치] 안골 북동쪽 동골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동골’이라 하였다.



「동골 마을 ; 2019년」

두남정(斗南亭) [누정]

[위치] 두둑 마을 가운데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1960년대에 없어졌다. ‘초당’이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두남정(斗南亭)’이라고 하였다.

[내용] 처음 초가지붕의 정자를 짓고 학동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던 서당이었다고 한다.

두둑(斗獨) [마을] → 두둑

두둑 [마을]

[위치] 안골 남쪽, 도도리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부채고개에서 남동쪽 큰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다. ‘두둑’, ‘두독’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두둑(斗獨)’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두둑(斗獨)’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두둑(두둑)’이라고 하였다.

[유래] 두둑한 둔덕에 마을이 있으므로 ‘두둑, 두둑’이라고 하였는데, 한자로 옮기면서 ‘두둑(斗獨)’이라고 하였다.

[풀이] ‘덕, 독, 두둑’은 모두 ‘불룩하게 솟은 곳, 높은 곳’을 뜻한다.



「두둑 마을 ; 2019년」

두둑저수지 [못]

[위치] 부채고개 남동쪽, 두둑 마을 서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개사리들에 물을 댄다. ‘삼새이저수지’, ‘삼성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삼성저수지’라고 하였다.

두둑 [마을] → 두둑

두루봉 [산]

[위치] 두둑 마을 북동쪽에 있는 높이 284.5m의 산을 말한다.

[유래] 산이 둥그런 모습이므로 두루봉이라 하였다. 산 주변이 골짜기여서 산이 둥그렇게 솟아 보이므로 두루봉이라 하였다.

[풀이] ‘두루’는 둥글다는 뜻의 ‘두르다’에서 나온 말로, ‘둘레, 두루마기, 두류봉, 두리상’ 등에 쓰인다. 산이 둥그렇다는 뜻이다.

두루봉골 [골]

[위치] 두루봉 동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안골(2)에서 갈라져 두루봉 아래로 난 골짜기이다.

떡섬배 [마을] → 웃섬배

[위치] 웃섬배의 또 다른 이름이다. ‘덕섬배’라고도 한다.

[유래] 아랫섬배와 셋섬배에 비해 높은 언덕에 마을이 있으므로 ‘덕+섬배>덕섬배>떡섬배’가 되었다.

말치고개 [고개]

[위치] 두둑에서 북쪽으로, 안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말치고개’라 하였다.

[유래] ‘말(大)+치(고개)>말치, 말치고개’가 되었다. 큰 고개라는 뜻이다. 또는 이 길이 예전에는 강릉으로 가는 큰 길이었는데 산적이 많아서 말을 쳐 빨리 지나가야 할 수 있었으므로 ‘말치는 고개’라 하여 말치고개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말’이 들어가 있는 ‘말티, 말치, 말고개’ 등에는 말과 관련된 전설이 있고 한자로 ‘馬’자를 쓴다. 그러나 이때 ‘말’은 ‘높다, 크다’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큰 고개라는 뜻으로 ‘말치’가 된 것이다. ‘말(큰)+치(고개)+고개’가 되어 고개라는 의미가 중첩되었다.

못둔지고개 [고개]

[위치] 도도리골 입구에서 북동쪽 숲둔지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두둑말 서쪽 아래에서 도도리 서쪽 아래를 연결하는 고갯길이다. 고개 남동쪽 위에 도도리고개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못둔지고개’라고 하였다.

무시령골 [골]

[위치] 잣골 위, 시걸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문바우 [바위]

[위치] 골말에서 의관리로 가는 문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문처럼 양쪽에 바위가 서 있어 그 사이의 길로 통행한데서 유래하였다.

문바우골 [골]

[위치] 골말에서 북서쪽으로 33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서쪽 너머에 시거리골이 있다.

[유래] 문바우가 있어서 문바우골이라 한다.

물방아보 [보]

[위치] 고촌 마을 앞에 있는 장양천의 보(湫)를 말한다. 양촌들에 물을 낸다.

박쥐골 [골]

[위치] 안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짝박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에 박쥐가 많이 살던 곳이라서 유래하였다.

북바우 [바위]

[위치] 안골 논 중앙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사람의 머리를 닮은 바위로 논 중앙에 있는데 없으면 북이 달아난다고 하여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본동(本洞) [마을]

[위치] 평장리의 중심 되는 마을을 말한다. 소초삼거리를 중심으로 소초초등학교, 면사무소, 보건소, 치안센터, 소초성당 등이 들어서 있다.

부채고개 [고개]

[위치] 평장동 장양천 남동쪽 두둑 입구에 있는 길을 말한다. 평장동에서 원주로 가는 고개였으나

도로가 나면서 고개의 모습은 사라졌다. 『한국지명총람』에 ‘부채고개’라고 하였다.

[유래] 모양이 부채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19년 4월 5일에 수백 명의 주민이 독립만세를 부른 곳이다.



「부채고개 : 2018년」

부채고개 [마을]

[위치] 부채고개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부채고개’라고 하였다.

부채고개다리 [다리]

[위치] 부채고개 앞에 있던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부채고개다리’라고 하였다.

사리(四里) [마을] → 평장리

사태골 [골]

[위치] 안골 동쪽 위 가래골에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동골의 남쪽, 가래골 북쪽 사이에 있다.

삼새이저수지 [못] → 두둑저수지

삼성저수지 [못] → 두둑저수지

상계암(上階岩) [마을] → 웃섬배

셋섬배우 [마을] → 셋섬배

셋섬배 [마을]

[위치] 고촌 동쪽, 웃섬배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셋섬비(間階岩)’라 하였

다. 『한국지명총람』에 ‘간개미(간계암, 셋섬배, 셋섬바우)’라 하였다.

[유래] 웃섬배와 아랫섬배 사이에 있으므로 ‘사이섬배>새섬배>셋섬배’가 되었다. 이를 한자어로 ‘간계암(間階岩)’이라 하였고, 이것이 ‘간개암’, ‘간개아미’, ‘간개미’로 불리기도 한다.



「셋섬배 마을 : 2019년」

셋섬바우 [마을] → 셋섬배

선바우 [바위] → 섬바우

선배 [마을] → 섬배

선비 [마을] → 섬배

섬바우 [바위]

[위치] 웃섬배 뒤 대왕산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선바우’, ‘섬바우’, ‘개암’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섬바우(섬바우)’라고 하였다.

[유래] 큰 바위가 서 있으므로 ‘선바우’, 또는 섬돌처럼 생겼다고 해서 ‘섬바우’라고 하였다. ‘선바우, 섬바우, 섬바우, 선배, 섬배, 선비, 계암, 개아미, 개미’ 등의 지명이 이 바위에서 유래하였다.

섬배 [마을]

[위치] 소초면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장양천을 따라 있는 마을로 고촌, 양촌, 섬배고개로 가는 길에 있다. ‘웃섬배’와 ‘아랫섬배’, ‘셋섬배’가 있다. 아랫섬배는 장양리의 양촌을 말한다. ‘개암, 계암, 개아미, 개미, 섬바우, 섬바우, 섬배, 선배, 선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난다. 『한국지명총람』에 ‘개

암(계암, 섬배)’이라고 하였다.

[유래] 웃섬배 마을 뒤 대왕산에 큰 바위가 서 있으므로 ‘선바우>선배’라고 하였다. 또는 그 바위를 섬바우라고도 하므로 이 경우 ‘섬바우>섬배’가 되었다.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섬돌 계(階)자와 바위 암(岩)자를 써서 ‘계암(階岩)’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계암, 개암, 개아미, 개미’ 등으로 실현되었다.

[풀이] 대왕산에 큰 바위가 서 있으므로 ‘선바우>선배, 선비’가 되었다. ‘선바우’가 ‘섬바우’로 혼용되면서 섬돌처럼 생겼다고 보고 ‘섬바우, 섬배, 솜바우’로 실현되고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섬돌을 뜻하는 ‘계(階)자와 바위 ‘암(岩)자를 취하여 ‘계암(階岩)>개암>개아미>개미’로도 실현되었다. 현재도 ‘섬배’와 ‘선배’, ‘선비’는 혼용되고 있다.

섬배개울 [내]

[위치] 장양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섬비기울(階岩溪)’이라고 하였다.

[유래] 섬배 마을 앞을 지나므로 여기에서는 섬배 개울이라고 불렀다.

섬배고개 [고개] → 장양리 섬배고개

섬배앞들 [들]

[위치] 웃섬배 앞 장양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섬배주막 [주막]

[위치] 섬배 마을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섬비주막(階岩酒幕)’이라고 하였다.

솜바우 [마을] → 섬배

솜바우 [바위] → 섬바우

수리바우 [바위]

[위치] 도도리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수리를 닮았으므로 수리바우라 하였다.

숫골 [골]

[위치] 도도리골 도도리고개 아래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숫둔지 [들]

[위치] 두둑말 서쪽 아래, 숫둔지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숫둔지’라고 하였다.

숫둔지골 [들]

[위치] 개사리들에서 동쪽 두둑 마을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들이 형성되어 있다.

시거리고개 [고개]

[위치] 잣말 북서쪽 시걸이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평장동과 웃섬배에서 북서쪽 의관리, 둔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평장동고개’라고도 한다. 높이는 270m이다.

[유래] 고개 너머 의관리에 시거리와 시거리골 위에 있는 고개이므로 시거리고개라 하였다.

시거리골 [골]

[위치] 골말 서쪽, 문바우골에서 다시 시거리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시거리산 [산]

[위치] 잣말 북서쪽 시거리골 동쪽에 있는 313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의관리와 둔둔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조선지리지』에 ‘세거리산(三街里谷)’이라고 하였다.

신촌(新村) [마을]

[위치] 질개울들 북쪽, 창골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치악로에서 신양선녀길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섬배 [마을]

[위치] 장양천 서쪽 아래에 있는 섬배 마을로, 양촌을 지칭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래섬배(하계암)’라고 하였다.

아시래기 [골]

[위치] 안골 마을에서 평장봉 동쪽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너머 북서쪽에 어용골이 있다.

안골(1) [골]

[위치] 평장동에서 동쪽 치악산 삼봉과 투구봉 줄기를 향하여 나 있는 길고 넓은 골짜기를 통칭하

여 말한다. 골짜기 안에 큰 골짜기로 동골, 가래골, 안골(2)가 있다. 골 동쪽 너머는 학곡리 치악산 큰골 지역으로 측새울과 무쇠점, 길재가 있다.

안골(2) [골]

[위치] 안골 마을에서 동골과 갈라져 남동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 길재(당재)가 있고 그 너머에는 길재 마을이 있다.

[내용] 옛날 학곡리와 평장리를 오가던 중요한 고갯길이었다.

안골 [마을]

[위치] 안골(1)에 있는 마을을 통칭하여 ‘안골’이라고 부른다. 치악산 삼봉줄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장양천 상류의 각 골짜기를 중심으로 발달한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안골(內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내곡(안골)’이라 하였다.

[유래담] 조선시대 흥판서란 분이 두둑에 왔을 때 이곳을 가리켜 ‘안(內)의 골(谷)은 어디냐?’하고 물어 지명이 없던 이곳이 내곡(內谷)으로 명명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안골 마을 : 2019년」

안골성황당 [당]

[위치] 안골 마을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오래 전에 폐지되고 당숲만 남아있다.

약물탕 [샘]

[위치] 섬배 마을 앞산에 있는 샘을 말한다. 섬배에 있던 세 개의 샘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샘이다.

[유래] 옛날에는 우물 앞에서 백배 절을 올리고 지

극정성으로 물을 떠다 먹이면 아이가 낫는다고 믿어 아이들이 아프면 샘물을 세 번 떠다 먹이는 풍습이 있었다. 약물탕이 영험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눈먼 장님도 이 물을 먹고 목욕하면 눈을 뜬다는 얘기가 떠돌 정도여서 쌍가마 타고 물 마시러 오는 양반들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도 우물 앞에는 무속인들이 가져다 놓은 술과 제기들이 남아있다.

어용골 [마을]

[위치] 탑고개 아래, 골말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위에 ‘큰어용골’과 ‘작은어용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어용골’이라고 하였다.

[풀이] ‘어영, 어용, 오양, 오용’ 등은 길이 험한 곳에 붙는 지명소이다. 골짜기가 험한 곳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다.



「어용골 마을 : 2019년」

웃물 [샘]

[위치] 달봉 아래, 가래골에 있는 샘을 말한다.

[내용] 옷이 올랐을 때 물을 바르고 마시면 나았다고 한다.

우무골 [골]

[위치] 두둑 마을에서 북쪽으로 말치재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우무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지형이 우묵하므로 ‘우묵골>우무골’이라 하였다.

우묵골 [골] → 우무골

움골 [마을]

[위치] 안골에서 남쪽으로, 두둑으로 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 질재가 있다.

웃동골 [골]

[위치] 동골 마을에서 동쪽 53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산 너머에 학곡리 동골과 측새울, 무쇠점이 있다.

웃섬배 [마을]

[위치] 섬배 마을 중 위쪽에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장양천을 따라 평장동 서쪽 아래, 새섬배의 동쪽 위에 있는 마을이다. ‘덕섬배’, ‘떡섬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웃섬비(上階岩)’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웃섬배(간계암)’라 하였다.



「웃섬배 마을 ; 2019년」

웃섬배대왕제단 [제단]

[위치] 웃섬배 마을 뒷산인 대왕산에 있는 대왕제를 지내는 제단을 말한다.

[내용] 별다른 표시는 없지만 큰 바위들이 겹쳐 있는 선바위 아래 평지에 자연적으로 된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웃섬배성황당 [당]

[위치] 웃섬배와 새섬배 사이 섬배로 옆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내용] 매년 음력 정월 초순에 택일하여 제사를 지낸다. 날짜는 절에서 받아온다고 한다. 마을 뒷산 대왕산에서 먼저 대왕제를 지내고 성황제를 지낸다. 당집 주변에는 수백 년 된 시무나무가 많이 서 있다.



「웃섬배성황당 ; 2019년」

월봉(月峰) [산] → 달봉

윗동골 [골]

[위치] 동골 마을에서 동쪽 위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산 너머에 측새울과 무쇠점이 있다.

작은어용골 [골]

[위치] 골말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앞에 어용골 마을이 있다.

[풀이] ‘오양, 오영, 오용, 어용’ 등은 길이 험한 곳에 붙는 지명소이다. 골짜기가 험하다는 뜻이다.

장수바위 [바위]

[위치] 도토리 동쪽 홍감이등 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에서 장수가 나왔다고 해서 장수바위라 한다.

[내용] 바위 안 구멍에서 장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장수가 짊었던 손자국과 발자국 모양이 생생히 남아있다. 큰 바위에서 작은 바위가 떨어져 나온 듯 그 모양이 일치한다. 가로 2m, 세로 1.8m의 큰 바위가 있고 옆에 가로 1m, 세로 0.9m의 작은 바위가 있다.

장양천(長陽川) [내]

[위치] 평장리 동쪽 치악산 줄기에서 시작하여 안골, 섬배를 거쳐 서쪽으로 흐르는 평장천과 수암리에서 흘러 내려오는 수암천이 장양리 양촌에서 만나 섬강으로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유래] 평장리를 거쳐 내려오는 내를 ‘평장천’, 수암리를 거쳐 내려오는 내를 ‘수암천’이라고 부르며 이 두 내가 장양리 양촌 앞 거머터에서 합쳐져 섬강으로 들어가므로 전체를 ‘장양천’이라 부른다.

잣골 [골]

[위치] 잣말에서 시거리고개를 향하여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잣말 [마을]

[위치] 평장동 북동쪽 잣골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골말 남쪽에 있다. 마을 앞을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현촌(峴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현촌(잣말)’이라고 하였다.

[유래] 고개 마루에 마을이 있으므로 ‘재+말>잣말’이라 하고 한자로 ‘현촌(峴村)’이라 하였다.

[내용] 평장에서 의관리와 둔둔리로 넘어가는 시거리고개를 넘는 길목에 있다.

절터골 [골]

[위치] 골말 문바우골 중간에서 북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절터골(寺垆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 절이 있었으므로 절터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름만 전할 뿐 절터는 주민 누구도 알고 있지 못하다.

[내용] 『전국유적목록』(문화재관리국, 1970)에 사각사층담이 있다고 하였다.

지네바우 [바위]

[위치] 잣말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 지네가 많았다는데서 유래하였다. 지금도 홍수 때는 지네가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지철바우 [바위]

[위치] 도토리 홍감이등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지철바우’라고 하였다.

[유래] 물이 치적치적하다 하여 지철바우라 불렀

다고 한다.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면 풍년이 들고, 나오지 않으면 흉년이라 하여 한 해 농사를 점쳤던 바위라고 한다. 자석 성질이 있다고도 한다.

질재(1) [고개] → 당재

[유래] ‘길(長)’과 고개를 뜻하는 ‘재’가 결합하여 ‘길+재>길재>질재’가 되었다. ‘길>질’은 구개음화이다.

질재(2) [고개]

[위치] 두둑에서 우무골을 거쳐 북쪽 안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짹박골 [골] → 박쥐골

차마돈지교 [다리]

[위치] 숲둔지골에 있는 옛 다리를 말한다. 못둔지 고개 북서쪽 아래 개울에 있는 작은 다리이다.

[유래] 큰 참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참나무둥지’를 ‘차마돈지’라 하여 다리 이름으로 하였다.

창골 [들]

[위치] 부채고개 남쪽, 신촌 동쪽에서 도도리로 난 들을 말한다. 들의 끝에서 도도리로 들어가는 도도리골이 이어진다.

초당(草堂) [누정] → 두남정

큰골 [골]

[위치] 두둑 마을에서 동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에서 남쪽으로 휘어 561m 봉우리로 향하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학곡리 길재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큰골(大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큰골’이라 하였다.

[내용] 옛날에는 학곡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이었다고 한다.

큰어용골 [골]

[위치] 골말에서 북동쪽으로 탑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어용골 위에 있다.

[풀이] ‘오양, 오영, 오용, 어용’ 등은 길이 험한 곳에 붙는 지명소이다. 골짜기가 험하다는 뜻이다.

탑고개 [고개]

[위치] 평장동에서 북동쪽 학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 42번 치악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 서쪽 옆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탑고기(塔峴)’라고 하였다.

[유래] 탑이 있었으므로 탑고개라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나 탑이 있었던 기록이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고개 남동쪽 아래 계곡에 고려시대 조성된 마애공양보살상이 있고, 고갯길 북쪽에 교항리 석조불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이 불교 성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탑고개 ; 2019년」

텃골봉 [산]

[위치] 웃동골 북쪽에 있는 높이 402.1m의 봉우리를 말한다. 산 북서쪽 아래에는 평장리 텃골이 있다.

평장동(平庄洞) [마을] → 평장리

[내용] 『조선지지자료』에 ‘평장앗(平庄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평장리(평장동)’이라고 하였다.

[유래] 넓은 밭이 있는 마을이므로 평장이라 하였다. ‘평장앗’의 ‘앗’, 또는 ‘왓’은 ‘밭(田)’이 ‘밭>밭>왓>앗’으로 음운 변화한 것이다. 제주도의 지명에 ‘왓’이 많이 남아있고, 원주에는 흥업면 사제리 광터에 ‘정상왓’이 있다.

[유래담]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천태산 마고선녀의 두상을 크게 그리고, 두 개의 장수 화상을 그려서 왜병의 눈을 속여 이곳에서 왜적을 쳐서 평

정시켰다고 ‘평정리’라 하였는데, 그 후 음운 변화에 의해 ‘평장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평장동고개 [고개]

[위치] 평장동에서 북서쪽으로, 시거리고개를 향하여 넘어가는 잣골을 말한다. 또는 시거리고개를 말하기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평장앗고기(平庄峴)’라 하였다.

평장리마애공양보살상 [불상]

[위치] 탑고개 아래 계곡에 있는 마애공양보살상을 말한다.

[내용] 높이 3.7m, 너비 6.2m의 바위에 보살상을 암벽에 짝 차게 조각하였다. 보살의 높이는 3.5m이다. 조각 수법으로 보아 조성 연대는 고려 전반기로 추정되고, 원주 지역의 지방색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19호이다.



「평장리마애공양보살상 ; 2018년」



「평장리마애공양보살상 추정도」

평장리 3·1운동 사적지 [터]

[위치] 부채고개를 말한다.

[내용] 1919년 4월 1일의 황성 만제시위에 참가하였다가 피살된 둔둔리 강달회와 하영현의 장례날(4월 3일)에 모인 소초면 주민들 중 박영하와 신현철이 중심이 되어 4월 5일 부채고개에 수백 명의 주민이 집결, 독립만세를 부르며 면사무소로 행진하였다.

평장앗 [마을] → 평장리

[풀이] ‘앗’은 ‘밭’이 ‘밭>밭>왓>앗’으로 음운 변화한 것이다. 지리산의 피밭골이 ‘피밭골>피밭골>피왓골>피아골’로 변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제주도의 지명에 ‘왓’이 많이 남아있다. 원주에는 흥업면 사제리 광터에 ‘정상왓’이 있다. 넓은 밭을 중심으로 마을이 섰으므로 마을 이름이 되었다.

평장앗고개 [고개] → 평장동고개

평장앗주막 [주막]

[위치] 평장동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청장앗주막(平庄村酒幕)’이라 하였다.

평장천(平庄川) [내] → 장양천

[위치] 평장리 동쪽 치악산 줄기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안골, 섬배를 거쳐 장양리 양촌 앞 거머터에서 수암리에서 내려오는 수암천과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장양천의 줄기이다.

[유래] 평장리를 지나오므로 이곳에서는 평장천이라 하였다.

하계암(下階岩) [마을] → 아랫섬배

행상바우 [바위]

[위치] 홍감이등 산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내용] 멀리 신양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 바위가 희게 보이면 흉년이 들므로 흉년을 막기 위해 많은 나무를 심고 풀로 덮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현촌(峴村) [마을] → 잣말

홍감이등 [산]

[위치] 도토리 남동쪽, 도도리고개 남동쪽 줄기에 있는 높이 391.4m의 산을 말한다. 아홉 개의 골짜기를 가지고 있다고 전한다.

학곡리(鶴谷里)

[위치]

학곡리는 소초면의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횡성군 우천면·강림면, 서쪽으로는 평장리·수암리·흥양리, 남쪽으로는 횡성군 강림면, 북쪽으로는 횡성군 우천면과 접하여 있다. 마을의 동쪽은 매화산·천지봉·비로봉의 산줄기로 형성되어 있고, 서쪽은 삼봉·투구봉·토끼봉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마을 한가운데로 치악산의 주 계곡인 큰골과 구룡골이 비로봉까지 연결되어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소초면(所草面) 지역으로 팔리(八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곡·이흥·백교·무쇠점·속새울·새재·장터·칠송·토동·토정을 병합하여 학곡리(鶴谷里)라 하고 원주군 소초면 학곡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소초면 학곡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소초면 학곡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가 되었다.

[유래]

비로봉에 이르는 큰골 중 구룡골 아래를 활골이라 하는데 이것을 한자로 음차하면서 미화하여 학곡(鶴谷)이라 하여 정착되었다. 두루미가 많이 오므로 ‘학곡’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급하게 흐르는 개울물을 화살, 화살대에 비유하여 ‘살대울’, ‘살여울’, ‘화살골’이라 한다. 치악산 큰골의 개울물이 급하게 흐르므로 여기에서는 ‘활골’이라 하였고, 이를 한자로 기록하면서 ‘학곡(鶴谷)’이라 하였다.

가마봉 [산] → 투구봉

[위치] 치악산 투구봉의 원래 이름이다.

[내용] 삼봉~투구봉~토끼봉으로 이어지는 치악산의 큰 산줄기에 있는 봉우리로, 학곡리와 흥양리의 경계가 된다.

[풀이] ‘감, 가마’는 ‘곰’계통의 언어로 ‘크다, 높다, 신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봉우리의 모습이 크고 우람하여 위엄이 있게 생겼으므로 신성시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거릿담 [마을] → 장터

[풀이] ‘거리+담>거리담>거릿담’이 되었다. ‘거리’는 길을 뜻하는 지명소이나 그 길에 마을이 섰으므로 마을의 뜻도 들어있다. ‘담’은 몇 집이 모인 마을을 지칭하는 지명소이다.

거북바우(1) [바위]

[위치] 구룡사 앞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구룡사(九龍寺) 이름을 구룡사(龜龍寺)로 바꾸게 된 유래가 전하고 있다. 바위 위에 ‘龜龍洞天’이 크게 음각되어 있다.

[유래] 원래 대웅전 자리 연못에 아홉 마리 용이 살고 있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은 그 자리가 마음에 들어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려고 하나 용들이 방해를 하여 용과 도술시합을 하게 되었다. 용들이 먼저 솟구쳐 오르자 뇌성벽력이 치고 산들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는데 의상은 비로봉과 천지봉에 줄을 걸어 배를 매놓고 그 안에서 자고 있었다. 의상이 부적을 한 장 그려 연못에 넣자 연못이 부글부글 끓었다. 용 여덟 마리가 갑자기 뛰어 나가면서 연못 앞산을 여덟 갈래로 내며 동해로 도망치고, 나머지 한 마리는 눈이 멀어 도망가지 못하고 계곡의 용소에 머물렀다. 그래서 절 이름을 구룡사(九龍寺)라 하였다.

이후 절이 차차 쇠락하게 되자, 한 노인이 나타나 절 입구의 거북바위 때문에 절의 기가 약해졌으니 그 혈을 끊으라 하였다. 그 말을 따라 거북바위의

혈을 끊자 절은 더 파폐해져 폐사 위기에 처했다. 주지 스님이 잠깐 조는 사이에 한 도승이 나타나 말하기를, 전에 나타난 노인은 이 절 자리에서 쫓겨난 용인데 절을 폐사시키려고 거북바위의 혈맥을 끊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거북의 혈맥을 끊어서 절이 쇠락해졌으니 다시 그 혈맥을 이으려면 절 이름의 ‘九’자를 ‘龜’로 바꾸라 하였다. 이후 ‘구룡사(龜龍寺)’라 하여 오늘에 이른다고 한다.



「거북바우(1) ; 2018년」

거북바우(2) [바위]

[위치] 옛 대성암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마치 거북이 엎드린 모습이므로 거북바우라 부른다.



「거북바우(2) ; 2018년」

거북샘 [샘]

[위치] 거북바우(2) 아래에 있는 샘을 말한다.

교학초등학교 구룡분교 [학교]

[위치] 학곡리 1015번지, 구룡사 북쪽 아래에 있

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48년에 개교하였고, 1983년 교학초등학교로 통합되어 폐교되었다.



「교학초등학교 구룡분교 ; 2018년」

구룡계곡 [골] → 구룡골

구룡골 [골]

[위치] 치악산 큰골 중 구룡사 앞의 골짜기를 말한다. ‘구룡계곡’, ‘활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구룡사가 있는 골짜기를 ‘구룡골’, ‘구룡계곡’, ‘활골’로 부른다. 이는 치악산의 큰골 중 구룡사 부근에서부터 부르는 이름이다. 학곡저수지에서부터 비로봉에 이르는 골짜기 전체는 ‘큰골’이라고 한다. 큰골 안에는 구룡골을 비롯하여 도실암골과 세림폭포 아래까지 마을이 있었다.

구룡사(龜龍寺, 九龍寺) [절]

[위치] 큰골에 있는 조계종 사찰로, 치악산을 대표하는 절이다. 『여지도서』에 85칸으로 치악산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유래] 신라 문무왕 6년(666)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치악산구룡사사적』에는 신라 말의 고승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웅전 자리에 9마리의 용이 살고 있는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창건하여 구룡사(九龍寺)라 하였으나 조선 중기에 거북바위 설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명

칭인 구룡사(龜龍寺)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내용] 대웅전을 비롯하여 정면에 보광루(普光樓)가 있다. 대웅전 앞 좌우에는 심검당(尋劍堂), 설선당(說禪堂)의 승사가 있고, 심검당 뒤에 서상원(瑞像院), 설선당 뒤에 요사가 있다. 이밖에도 삼성각(三聖閣), 범종각(梵鐘閣), 원통문(圓通門), 국사단(局師壇), 사천왕문(四天王門), 응진전(應眞殿) 등이 있다.

1706년(숙종 32)에 크게 중수되었고, 1966년 보광루를 해체 복원하였으며, 1968년에는 심검당과 요사를, 1971년에는 삼성각을, 1975년에는 대웅전을 보수 단청하였다. 2003년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되었는데 이듬해에 원형대로 복원하였다.



「구룡사 ; 1964년」

구룡사 부도밭 [터]

[위치] 구룡사 입구 승탑들이 있는 곳을 말한다. 총 9기의 조선시대 승탑이 있다.



「구룡사 부도밭 ; 2018년」

구룡소(龜龍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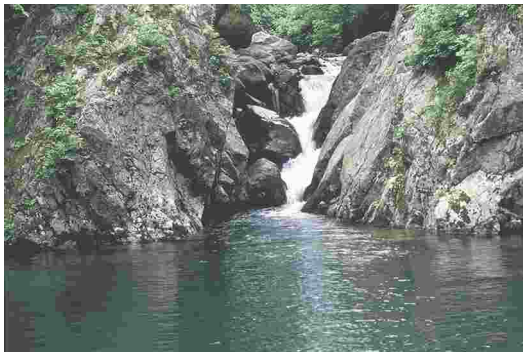
[위치] 구룡사 동남쪽 위, 구룡폭포에 있는 소(沼)

를 말한다. ‘용소(龍沼)’, ‘용담(龍潭)’, ‘용연(龍淵)’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에 ‘용연(龍淵)’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용소(龍沼)’라 하였다. **[유래]** 용이 바위를 가르며 올라갔다고 하여 용소라고 한다. 『여지도서』에 ‘구룡사 앞에 용연(龍淵)’이 있는데 장마가 지고 가뭄이 들 때 기도하면 곧 바로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

구룡폭포(龜龍瀑布) [폭포]

[위치] 구룡소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높이 2.5m로 큰골과 도실암골의 물이 모여서 폭포를 이루고 있다. 『조선환여승람』에 ‘구룡폭(龜龍瀑)’이라고 하였다.

[내용] 폭포는 원래 모습보다 많이 완만해졌다. 원래 폭포와 소(沼) 옆으로 길이 나 있었으나 최근 등산로를 변경하면서 현수교를 설치하고 그 앞을 지나도록 하였다.



「구룡폭포 ; 1995년」

길재 [고개]

[위치] 길재골의 길재 마을을 지나 서쪽으로 평장리 안골, 남서쪽으로 수암리 쑥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옛날 구룡골과 평장리 안골을 연결하던 대표적 고갯길이다. ‘길치’, ‘질재’, ‘당고개’, ‘당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길재(당재)’라 하였다.

[유래] 고개가 매우 길므로 ‘길재>질재’, 고갯마루에 서낭당이 있었으므로 ‘당고개’, ‘당재’라고도 하였다.

길재 [마을]

[위치] 치악산 길재골 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길현(吉峴)’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길재(길현, 당재)’라 하였다.

[내용] 현재 사람은 살지 않지만 농사는 짓고 있다. 1970년대에도 골짜기 안에 세 가구가 있었다.

길재골 [골]

[위치] 치악산 신흥주차장 북쪽 아래, 현 구룡자동 차야영장에서 학곡천 건너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길재 마을이 있고 골 끝에 길재고개가 있다.

길치 [고개] → 길재

길현(吉峴) [마을] → 길재

너럭바위 [바위]

[위치] 수레너미 입구에 있는 넓은 바위를 말한다.

다리골 [골] → 큰다리골

달구네미재 [고개]

[위치] 토정 마을에서 남쪽으로 원주드림랜드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용고개 서쪽에 있다.

달봉 [산]

[위치] 길재 마을 북서쪽에 있는 높이 673.5m의 봉우리를 말한다. 길재고개 북쪽 능선에 있다. 평장리와 학곡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월봉(月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달봉(월봉)’이라고 하였다.

[유래] 평장리에서 보아 달이 떠오르는 봉우리이므로 ‘달봉’이라 하였다. 옛날 정월 보름에 달봉 아래 당재에서 달불을 놓았다.

[풀이] ‘달’은 ‘高·山’의 뜻을 가진 옛말이다. 따라서 달봉은 ‘높은 산’을 뜻한다. 이때 ‘달’을 하늘의 달(月)로 보아 ‘월봉(月峰)’이라 하였다.

당고개(1) [고개] → 길재

당고개(2) [고개]

[위치] 새재골 입구에서 새재성황당을 지나 북서쪽으로, 길재골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말한다.

[유래] 성향당 옆으로 길이 나 있으므로 당고개라 하였다.

당재 [고개] → 길재

대곡(大谷) [골] → 큰골

대곡(大谷) [마을] → 큰말

대곡야영장 [터]

[위치] 큰골 구룡사 남쪽 위, 도실암골 입구 길 아래에 있던 야영장을 말한다. 지금은 폐쇄되어 숲으로 복원되었다.

대동(垚洞) [마을] → 거릿담

대목재 [고개]

[위치] 도실암골 남서쪽 끝에서 남쪽으로, 은선암계곡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 600m의 평평잡한 고개이다.

대성암터(大成庵-) [터]

[위치] 치악산 비로봉으로 가는 계곡길, 물안골 서쪽 정낭골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대성암(大成庵)’, ‘대승암(大乘菴)’, ‘대성절’이라고도 한다.

[내용] 정낭골 상류 해발 약 835m에 절터가 있고 절터 주변에 채마밭, 축대, 거북바위, 도자기 파편 등이 남아있다. 주민들은 ‘대성절’이라고 부른다. 건립 및 폐사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조선 숙종~영종 연간의 선비 삽교(雪橋) 안석경(安錫敬, 1718~1774)의 「유치악대승암기(遊雉岳大乘菴記)」가 있다. 안석경의 기록에 “(치악산) 산등성이에 기대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대승암(大乘庵)이고 두 번째가 월봉암(月峰庵)이다. 모두 선승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세 번째는 구룡사(龜龍寺)이다. 늘 스님 백여 명이 거주한다. (중략) 대승암과 월봉암은 선승들이 모두 독서하는 사람을 기피하므로 갈 수 없다.”고 하였다. 안석경은 대성암의 규모를 목조 건물 몇 칸이라고 하였고, 암자 뒤의 봉우리, 암자 앞 거북바위, 절벽, 샘이 있으며 ‘으스스하고 깊은 곳’이라 묘사하였다.

대성절 [절] → 대성암터

대성절골 [골] → 정낭골

대승암(大乘菴) [절] → 대성암터

도끼봉 [산] → 토끼봉

도시람 [마을] → 도실암

도실암 [마을]

[위치] 치악산 도실암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옛 치악산약초원이 있던 도실암골 입구를 비롯해서 도실암골 안에 있던 마을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도시람’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도시람’이라고 하였다.

[내용] 도실암골에는 약 10호 가량이 흩어져 살았다. 도실암골 입구에 몇 집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고 은선암계곡과 만나는 대목재까지 좁은 골짜기를 따라 집들이 있었다.

도실암골 [골]

[위치] 구룡사와 옛 대곡야영장 사이에서 남서쪽으로 쥐너미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옛 치악산약초원이 있던 골짜기로, 남서쪽으로 쥐너미재를 넘어 흥양리 범골로 이어진다. 골 끝에 대목재가 있고 대목재 너머에 은선암계곡이 있다.

도실암재 [고개]

[위치] 치악산 도실암골 중간에서 서쪽 토끼봉을 넘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흥양리 상초구 석장골이 있다.

동골 [골]

[위치] 무쇠점 속새울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서쪽 너머에는 평장리 동골, 안골 마을이 있다.

동낭골 [골]

[위치] 토동에서 북서쪽으로, 현 치악산호텔이 있는 백동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동양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낭골’이라고 하였다.

동락원(東樂院) [마을]

[위치] 구룡사 동쪽 개울 건너에 있던 옛 마을을

말한다.

[내용] 구룡사에 딸린 2층 건물이 있었는데 집터와 발터는 숲이 되었다.

동양골 [골] → 동낭골

막골 [골]

[위치] 학곡2리 경로당 맞은편, 현 수철교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옛날에 작은 절이 있었다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막골’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여기에서 막을 치고 살았으므로 막골이라 하였다.

말등바우 [바위]

[위치] 사다리병창 남쪽 능선에 있는 암벽능선을 말한다. 해발 약 910m 높이이다.



「말등바우 ; 2018년」

매지 [마을] → 매지골

매지곡(梅芝谷) [마을] → 매지골

매지골 [골]

[위치] 한다리에서 남동쪽 수레너미로 이어지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매화산 줄기의 남서쪽 아래에 있으며 골짜기 끝에 수레너미가 있다. ‘한다리골’이라고도 한다.

매지골 [마을]

[위치] 한다리 남동쪽 매지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매지’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미지(梅枝)’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매지곡(매지골)’

이라 하였다.

[내용] 1970년대에도 약 10호 정도가 수레너미 바로 아래까지 매지골을 따라 흩어져 살았다.

매지산(梅枝山) [산] → 매화산

매화산(梅花山) [산]

[위치] 한다리 남동쪽에 있는 높이 1,085m의 산을 말한다. ‘매지산(梅枝山)’, ‘신선봉(神仙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매화산(梅枝山)’이라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梅花山’, 『한국지명총람』에 ‘매화산(매지산)’이라고 하였다.

[내용] 소초면 학곡리, 황성군 우천면, 강림면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수레너미’를 경계로 하여 치악산과 구분되며 산 북쪽에는 강림으로 넘어가는 ‘전재’가 있다.

[풀이] 한다리에서 수레너미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매지골’이고 1910년대 기록이 ‘매지산(梅枝山)’, ‘매화산(梅花山)’으로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원래 이름은 ‘매지골’, ‘매지산’이었다가 후대에 ‘매화산’으로 정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지골, 매화산이 매화(梅花)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이때 ‘매’는 산을 뜻하는 ‘뫼, 메’에서 파생된 것이다. ‘매’와 관련된 지명인 ‘매봉’, ‘매화산’, ‘응봉(鷹峰)’ 등은 대부분 ‘뫼, 메’에서 파생된 것이다.



「매화산 ; 2019년」

무당골 [골]

[위치] 한다리 매지골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매화산 줄기인 696.1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나 있는 골

짜기를 말한다.

무두치 [고개]

[위치] 세럼골 중간에서 갈라져 남동쪽으로,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 1,109m 봉우리 남쪽에 있다.

무쇠점 [마을]

[위치] 한다리 남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다리와 숙새울 입구 중간, 수철교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한자로 ‘수철(水鐵)’, 또는 ‘수철점(水鐵店)’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무쇠점(水鐵店)’이라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水鐵店’으로 표기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수철(무쇠점)’이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 이곳에서 쟁기를 굽는 무쇠점이 있어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내용] 원래 무쇠점 마을은 현재의 숙새울 입구 자리가 아니라 현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소형주차장 지역이었다. 현재 주차장 지역이 큰골 안에서는 비교적 넓기 때문에 큰 마을이 있었고 그 다음 넓은 터로는 숙새울 입구인 대형주차장이었다. 1970년대까지 치악산관리사무소 주차장을 중심으로 약 15호 정도가 살고 있었다. 현재의 무쇠점 마을은 주차장 자리의 집들이 옮겨와 커졌다.

[풀이] 무쇠점, 무수막, 문막 등은 모두 물과 관련된 지명이다. ‘물’의 옛말 ‘뭇, 뭇’에 모음이 연음되어 ‘므스, 무수’로 발음되었다. 따라서 ‘뭇+막>뭇+(ㅊ)+막>무수막’, ‘뭇+점>뭇+(ㅊ)+점>무수점>무쇠점’이 되었다. 이때 ‘무수’를 ‘무쇠’로 보고 ‘무(물)+쇠’로 해석하여 ‘수철(水鐵)’이라 하였다. ‘쇠’를 ‘금(金)’으로 적어 ‘금호(金湖)’, ‘금대(金垓)’ 등으로 정착되기도 하였다.

무쇠점성황당 [당]

[위치] 옛 무쇠점 마을이 있던 곳. 현 치악산관리사무소가 있는 치악주차장 서쪽 산중일기 식당 뒤 산자락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위패는 없이 치악산신의 초상을 모셨다. 매

년 음력 정월 보름 아침에 제사를 지낸다.



「무쇠점성황당 ; 2018년」

문바우 [바위]

[위치] 치악산 배너미골 안 문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두 개가 문처럼 좁게 서 있으므로 문바우라 하였다.

문바우골 [골]

[위치] 치악산 배너미골 끝에서 남쪽으로, 배너미재 서쪽 1,04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문바우가 있으므로 문바우골이라 하였다.

물안골 [골]

[위치] 큰골 세럼폭포에서 남서쪽으로, 비로봉에 오르는 계곡을 말한다. 사다리병창 서쪽 아래에 골짜기를 따라 계곡길이 나 있다.

박쥐굴 [굴]

[위치] 큰골 위, 물안골에 있는 큰 바위의 굴을 말한다. 넓은 굴이어서 피난을 하여도 될 정도라고 한다.

배내미 [산] → 배너미

배내미재 [고개] → 배너미재

배너미 [산]

[위치] 치악산 비로봉 동쪽 능선에 있는 1,182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배내

미'라 하였다.

배너미골 [골]

[위치] 치악산 세림폭포에서 비로봉과 배너미 사이 배너미재를 향하여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배너미재 [고개]

[위치] 치악산 세림폭포에서 남쪽으로 배너미골을 거쳐 황성군 강림면 부곡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000m이다. '배내미재'라고도 한다.

[유래담] 옛날 큰 홍수가 났을 때 이곳으로 배가 넘어왔다고 해서 배너미재라 하였다고 한다.

[내용] 천지봉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있다. 고개 서쪽에 비로봉이 있고 남쪽 너머에는 가래골을 거쳐 변암이 있다.

[풀이] 산 이름에 많이 나타나는 '배'나 '박'은 '불' 계통의 이름이다. '태백, 소백, 박달재, 백달리' 등이 모두 이 계통의 지명이다. 따라서 '배'는 '박'과 같이 '큰, 높은, 밝은'이란 뜻으로서 배너미는 '큰 산 너머', 배너미재는 '큰 산을 넘는 고개'의 뜻이다.

배무덤 [산]

[위치] 치악산 배너미재에 있는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배무덤'이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 배가 배너미로 넘어와서 이곳에 묻혔다고 전한다.

백교(白橋) [마을] → 한다리

백동(栢洞) [마을]

[위치] 학곡저수지 서쪽에 붙어있는 마을을 말한다. 'жат나무거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백동(жат나무거리)'이라 하였다.

[유래] жат나무가 많이 있어서 'жат나무거리', 이를 한자로 적어 '백동(栢洞)'이라 하였다.

백련당(白蓮堂) [절]

[위치] 구룡사의 옛 건물 여섯 채 중 가장 높은 곳

에 있던 암자를 말한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내용] 안석경(安錫敬, 1718~1774)의 「구룡사백련당기(龜龍寺白蓮堂記)」에 나오는 건물 이름이다.

범담재 [고개]

[위치] 구룡사에서 북동쪽으로, 영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이곳에서 옛날에 범이 나타났으므로 범담재라 하였다.

봉화봉(烽火峰) [산] → 삼봉

비로봉(飛蘆峰, 毘盧峰) [산]

[위치] 치악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해발 1,288m이다. '비루봉', '비호봉(飛芦峰, 飛虎峰)', '시루봉', '실봉'이라고도 한다. 정상에 돌탑 세 개가 있다.

[내용] 《동국여지》에는 '비로봉(毘盧峰)'이라 하였다. 《여지도서》 《원주읍지》에 '비로봉(毘盧峰)'으로 적고 정상에 철마가 있다고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비호봉(飛芦峰)'으로 기록하였고, 《한국지명총람》에는 '비로봉(시루봉)'이라 하고 한자로 '飛蘆峰, 毘盧峰'으로 기록하였다. 이후 1970년대까지 주로 '비호봉(飛虎峰)'으로 쓰였으나 1980년대부터 '비로봉(飛蘆峰)'으로 정착되었다.

[풀이] 이 봉우리는 '비로봉·비루봉·비호봉·시루봉·실봉' 등의 비슷한 이름으로 불렸다. '높다, 밝다'는 뜻을 가진 '불'계통의 '불, 부루'가 음운 변화를 거치면서 비슷한 이름으로 다양하게 실현되다가 불교적 색채가 강한 '비로'로 정착되었다. 한자로는 '飛蘆', '毘盧', '飛芦', '飛虎' 등으로 쓰이다가 현대에 와서 '비로(飛蘆)'로 정착되었다.

주민들은 봉우리가 마치 떡시루처럼 생겼다고 하여 '시루봉, 실봉'으로 불러왔다. 전국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산 이름 '시루'는 산의 정상, 높은 꼭대기를 뜻하는 '수리(頂)'가 모음교체된 것이다. '매봉', 이를 한자로 적은 '鷹峰'은 이 '수리'를 독수리로 생각한 결과이며, '수레너미(車踰嶺)'는 '수리'를 수레로 본 결과이다.



「비로봉 ; 2016년」

비로봉 돌탑 [탑]

[위치] 치악산 비로봉 정상에 있는 세 개의 돌탑을 말한다.

[내용] 치악산 정상에 약 10m 높이의 돌탑이 세 개가 있는데 이는 봉산동에 살던 용창중이라는 사람이 3도가 보이는 곳에 3년에 하나씩 돌탑을 쌓으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쌓은 것이라 한다. 1962년부터 5년 동안 혼자서 쌓은 탑은 1967년에 모두 무너졌고 1970년부터 74년까지 새로 쌓았다. 세 탑 중 남쪽에 있는 것을 ‘용왕탑’, 중앙에 있는 것을 ‘산신탑’, 북쪽에 있는 것을 ‘철성탑’이라고 한다.



「비로봉 돌탑 ; 2015년」

비로봉 철마 [유적]

[위치] 비로봉 정상에 있었다고 전하는 철마를 말한다.

[내용] 『여지도서』 『원주읍지』에 ‘비로봉(毗盧峰) 정상에 철마가 있다.’고 하였다.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다.

비로봉 황장금표 [유적] → 황장금표(2)

비루봉 [산] → 비로봉

비선대(飛仙臺) [바위]

[위치] 『강원도지』에 나오는 바위 이름이다. 『강원도지』에 ‘치악산 정상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사다리병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비호봉(飛芦峰, 飛虎峰) [산] → 비로봉

사다리병창 [바위]

[위치] 치악산 큰골에서 세렘폭포와 갈라지는 곳에서 시작되는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주 등산로를 말한다. 급한 바위 암벽에 길이 나 있다.

[유래] 바위 벼랑이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다리병창이라 하였다. 또는 1973년 치악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탐방로를 정비하면서 말등바위에 사다리를 많이 설치했으므로 사다리병창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풀이] ‘병잔, 병잔, 병창’은 ‘벼랑’을 뜻하는 영서방언이다.



「사다리병창 ; 1983년」

산신탑 [탑] → 비로봉 돌탑

삼봉(三峰) [산]

[위치] 치악산 도실암골 서쪽 산줄기에 있는 높이 1,072.6m의 산을 말한다. ‘봉화봉’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삼봉(봉화봉)’이라고 하였다.

[유래] 흥양리에서 보아 정상에 세 개의 봉우리가

있으므로 ‘삼봉’으로 부른다.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하여 ‘봉화봉(烽火峰)’이라고도 한다.

[내용] 치악산 비로봉 줄기가 쥐너미재에서 내려 앉았다가 다시 솟은 산이 삼봉이며 북쪽으로 삼봉-투구봉(가마봉)-토끼봉(도끼봉)으로 이어지는 산 줄기가 학곡저수지로 이어진다. 이 산줄기와 비로봉-배너미-천지봉-수레너미-매화산 줄기 사이에 구룡사가 있는 큰골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혈을 끊기 위해 이 산에 쇠말뚝을 박았다고 한다.

삼신동(三新洞, 三神洞) [마을] → 속새울

상여바우 [바위]

[위치] 토정 동쪽, 토정골 북쪽의 매화산 능선에 있는 넓고 큰 바위를 말한다.

[유래담] 널찍한 바위에서 옛날 시신을 옮기다가 관을 내려놓고 쉬었으므로 상여바우라 하였다 한다.

새네미골 [골]

[위치] 구룡사에서 남서쪽으로, 600.2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서쪽 너머에 새재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쇠내미골’이라 하였다.

[유래] 서쪽 너머 새재골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므로 ‘새내미골>새네미골’이 되었다.

새말담 [마을]

[위치] 학곡저수지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신촌’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말담’이라고 하였다.

[유래] 새로 생긴 마을이므로 새말담이라 하였다.

새재 [고개]

[위치] 치악산 신흥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난 새재골의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신지(新峴)’라 하였다.

[풀이] 원래 ‘새재’는 고개 너머의 새두둑(草邱) 등 주변 정황으로 보아 풀이 많은 ‘새(薪)+재>새재’였을 것인데, ‘새’를 ‘薪’이 아니라 ‘新’으로 기록하면서 ‘새로 생긴’의 뜻으로 ‘新峴’, ‘新興’ 등의 지명으로 정착되었다.

새재 [마을]

[위치] 치악산 새재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새치’, ‘신밀’, 한자로 ‘신현(新峴)’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신지(新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새재(신밀, 신현)’라고 하였다.

[유래] 역새가 많은 고개 아래에 있으므로 ‘새재’라 하였다. 또는 고개 너머 새두둑(초구)이 있으므로 ‘새재’라 하였다고도 한다. 이때 ‘새’를 ‘새롭다’는 뜻으로 보아 한자로는 ‘신현(新峴)’이라 하였다. ‘신밀’은 신현(새재)의 아래에 마을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내용] 새재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1970년대에 이곳에는 약 10여 호가 살았는데 당시 구룡골과 도실암골 약 30호, 무쇠점 약 20호, 영말 약 10호에 비추어 큰 마을이었다. 현재의 ‘신흥리(新興里)’는 ‘새재(新峴)’의 ‘新’과 ‘영말(里興)’의 ‘興’에서 따온 이름이다.

새재골 [골]

[위치] 치악산 구룡사 입구 신흥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북쪽 안부를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넘어 수암리 바우실, 또는 흥양리 상초구로 연결된다.

새재성황당 [당]

[위치] 새재골 마을 입구 야산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성황당을 지나는 길을 ‘당재’라고 한다.

[내용] 위패는 없이 치악산신의 초상을 모셨다. 매년 음력 정월 14일과 10월 14일에 제사를 지내다가 지금은 음력 10월 14일에 한 번만 지낸다.

새치 [고개] [마을] → 새재

[위치] ‘새재’의 다른 이름이다.

[풀이] ‘새치’는 ‘새+치>새치’이다. ‘새(草, 薪)’는 역새가 많다는 뜻이며 ‘치(峙)’는 ‘재’와 같이 고개를 뜻하는 지명소이다. ‘역새가 많은 고개’란 뜻이다. 고개 너머에 있는 새두둑(草邱)과 상통하는 이름이다.

선녀탕 [소]

[위치] 도시람골과 세럼폭포 중간에 있는 은선암 계곡 입구의 소(沼)를 말한다.

[유래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는 곳이므로 선녀탕이라 하였다.

선녀탕계곡 [골] → 은선암계곡

세럼골 [골]

[위치] 치악산 세럼폭포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북동쪽 끝은 천지봉에 연결되고 남동쪽 끝은 무두치에 닿는다.

세럼재 [고개]

[위치] 세럼폭포가 있는 세럼골에서 북동쪽 천지봉으로 난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횡성군 강림면 어령골이 있다.

세럼폭포 [폭포]

[위치] 치악산 큰골의 세럼골 입구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천지봉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폭포를 이루고 있다. 세럼골, 배너미골, 사다리병창, 계곡길이 갈라지는 지점으로 각 등산로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세럼폭포 ; 1995년」

숙새울 [마을] → 숙새울

수레너미 [고개]

[위치] 한다리에서 남동쪽으로 길게 이어진 매지골의 고개를 말한다. 동쪽으로는 강림과 통하고 북쪽으로는 매화산 능선과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진달래능선을 거쳐 치악산 천지봉과 연결된다. ‘수루내미’, ‘수리재’, ‘수리너미치’라고도 한다. 『여지도서』에는 ‘차유령(車踰嶺)’이라 하고 동쪽으로 60리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수리너머고기(車踰嶺)’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루내미재’라 하였다.

[유래] ‘수레너미, 수리재’는 ‘높은 산 정상을 넘는 고개’란 뜻이다.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스승인 운곡 원천석을 찾아 강림으로 갈 때 수레를 타고 이 고개를 넘었으므로 수레너미라 하였다는 유래담이 전한다.

[풀이] ‘수레너미’의 ‘수레’는 높은 곳, 정상을 뜻하는 ‘술, 수리’에서 유래한 것이다. ‘술, 수리’는 ‘높은, 으뜸, 꼭대기,’ 등의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정수리, 독수리, 수릿날, 수리봉’ 등에 남아있다. 따라서 ‘수레너미, 수리재’는 높은 산의 정상을 넘는 고개란 뜻이다. 이 중 ‘수리봉’은 ‘매봉, 응봉(鷹峰)’으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그 이름이 분포되어 있다.

‘수리’를 수레로 보아 ‘차유령(車踰嶺)’이라 하였다.

수루내미 [고개] → 수레너미

수리너미치 [고개] → 수레너미

수리재 [고개] → 수레너미

수철(水鐵) [마을] → 무쇠점

숙새울 [마을] → 숙새울

숙새울 [마을]

[위치] 무쇠점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숙새울’, ‘숙새울’, ‘삼신(三新)’, ‘삼신동(三新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숙시울(三神洞)’

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삼신동(석새울, 속새울)’이라 하였다.

[유래] 속새가 많아서 ‘속새울’, 또는 ‘속새울’이라 하다가 ‘속새울’로 정착되었다.

[내용] 1970년대에 이 골짜기에는 10호 남짓한 집들이 골짜기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다. 구룡골에서 서쪽 고개 너머 평장동을 넘어 다니는 주 고갯길에 있던 마을이었다.

[풀이] 한자로 ‘삼신(三新), 삼신동(三新洞)’이라 하였는데 이때 ‘삼(三)’은 속새울의 ‘속’을 ‘석(石)’으로 본 것이며 ‘신(新)’은 ‘새’를 ‘새롭다’는 뜻으로 본 것이다. ‘울’은 골짜기(谷), 또는 골짜기에 들어선 마을(洞)을 뜻한다.



「속새울 마을 : 2019년」

속새울골 [골]

[위치] 무척점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속새울 마을이 있고 골 서쪽 너머 평장리 동골로 이어진다.

시루봉 [산] → 비로봉

신밀 [마을] → 새재

신선봉(神仙峰) [산] → 매화산

신식골 [골]

[위치] 속새울골 입구 남쪽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남쪽 너머에 갈재골에서 갈라진 참샘내기골이 있다. ‘신식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식골’이라 하였다.

신식골 [골] → 신숙골

신촌(新村) [마을] → 새말담

신현(新峴) [마을] → 새재

신흥동(新興洞) [마을]

[위치] 치악산 구룡사 입구, 현 신흥주차장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는 ‘신지(新峴),’ 1917년 지적도에는 ‘新峴’이라 하였다.

[유래] 원래 새재골 입구에 있으므로 ‘새재’ 또는 ‘신현(新峴)’이라 하다가 후대에 ‘신흥(新興)’으로 바꾸었다. ‘신흥(新興)’이란 이름은 ‘새재(新峴)’의 ‘新’과 ‘영말(이흥, 里興)’의 ‘興’을 합쳐서 새로 지은 이름이다.

실봉 [산] → 비로봉

안담 [마을]

[위치] 장터 거릿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담’이라 하였다.

어령골 [골] → 영골

어령재 [고개]

[위치] 치악산 영말에서 남동쪽으로, 천지봉을 넘어 강림면 어령골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어영골 [골] → 영골

영골 [골]

[위치] 치악산 영말에서 천지봉을 향하여 동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황성 강림리 어영골이 있다. ‘어영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영골’이라 하였다.

[풀이] ‘어영골>영골’이 되었다. ‘어영, 어용, 오용’ 등은 길이 험한 곳에 붙는 지명소이다. 골짜기가 험하다는 뜻이다.

영말 [마을]

[위치] 치악산 구룡사 입구 구룡교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강원도자연학습원이 들어서 있다. ‘이흥’, ‘이흥말’, ‘이흥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니흥말(里興洞)’이라 하였고, 『1917

년지적도』에 ‘이흥동(里興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영말(이흥, 이흥동)’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와 길이 험한 곳이므로 ‘어영말>영말’, ‘이흥말’이라 하였다.

[내용] 영말에는 1970년대에도 약 10호 가량의 집이 있어서 당시로서는 이 계곡에서 큰 마을이었다. ‘新峴(새재)’와 ‘里興(영말)’의 이름을 따서 ‘신흥리(新興里)’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풀이] 산 너머 강림에도 같은 이름의 어령골이 있다. 한자로 ‘이흥(里興)’이라 하였는데, ‘이흥, 니흥, 어령, 어영, 영’은 모두 같은 이름으로 골짜기가 험한 곳에 붙는 지명소이다. ‘영말’과 ‘역말’이 발음이 같으므로 이를 ‘역말’로 보고 역(驛)이 있었다고도 하나 믿을 수 없다. 학곡리는 강원감영에서 횡성 오원리를 거쳐 강릉으로 가는 큰 길로서, 백달리에 역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말봉 [산]

[위치] 영말 북쪽에 있는 462.4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이 봉우리를 넘는 고개가 ‘용너미’이며 봉우리 북쪽 아래에 ‘큰다리골’이 있다.

영말성황당 [당]

[위치] 옛 영말, 현 강원도자연학습원 입구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현재의 당집은 옛 당집을 자연학습원에서 새로 지은 것이다. 마을이 없어졌으므로 제사는 모시지 않는다.

오전골 [골]

[위치] 학곡리 한다리 남쪽, 현 옷칠기한지공예관에서 남동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옷물 [샘]

[위치] 새말담에 있는 우물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옷물’이라 하였다.

[유래] 옷 오른 사람이 먹고 목욕하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와선대(臥仙臺) [바위]

[위치] 『강원도지』에 나오는 지명이다. 『강원도지』에 ‘치악산 꼭대기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사다리병창의 말등바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용고개 [고개]

[위치] 토정 마을에서 남쪽 원주드림랜드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용너미 [고개]

[위치] 영말에서 북쪽으로 영말봉을 넘어 무쇠점 남쪽 큰다리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용담(龍潭) [소] → 구룡소

용소(龍沼) [소] → 구룡소

용소나무 [나무]

[위치] 토정 마을 남동쪽 위, 횡성군과의 경계에 있는 소나무를 말한다. 수령은 약 300년이다. ‘장군송’이라고도 한다.

[유래] 용이 승천한 소나무이므로 용소나무라 하였다.

[내용] 구룡소에 있던 아홉 마리의 용 중 여덟 마리는 승천하고 승천하지 못한 한 마리의 용이 용소물(학곡천)을 타고 내려오다가 영말에서 무쇠점까지 용너미를 넘고, 다시 용고개를 넘어와 이 용소나무를 타고 승천하였다고 전한다.



「용소나무 : 2019년」

용연(龍淵) [소] → 구룡소

용왕담 [담] → 비로봉 돌담

월봉(月峰)(1) [골] [산]

[위치] 도실암골 서쪽, 새재골 남동쪽에 있는 높이 578.2m의 봉우리, 또는 그곳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토끼봉에서 북동쪽으로 구룡사에 이르는 능선에 있다. 봉우리는 이름이 없고 이 골짜기 이름이 월봉이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내용] 안석경이 월봉암(月峰庵)이 있다고 한 곳으로 추정되는 산이다.

월봉(月峰)(2) [산] → 달봉

월봉암(月峰庵) [절]

[위치] 월봉(1)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옛 절을 말한다. 안석경(安錫敬, 1718~1774)의 「구룡사백련당기(龜龍寺白蓮堂記)」에 월봉암이란 절 이름이 나온다. 현재 월봉암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용] 「구룡사백련당기(龜龍寺白蓮堂記)」에 ‘산등성이에 기대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대승암(大乘庵)이고, 두 번째가 월봉암(月峰庵)이다. 모두 선승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세 번째는 구룡사(龜龍寺)다. 늘 스님 백여 명이 거주한다. 절은 모두 여섯 개의 건물이 있는데, 백련당(白蓮堂)이 제일 높고 깊으며 고요하다. 가난한 선비가 책을 읽을 곳이 없어 책상을 들고 산에 오르는 자가 많다. 대승암과 월봉암은 선승들이 모두 독서하는 사람을 기피하므로 갈 수 없다. 구룡사는 스님이 늘 선비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을 정하기 때문에 독서하는 선비들이 많이 모인다. 나는 치악산의 봉우리가 높은 것과 계곡이 깊은 것을 사랑하여 백련당에서 책을 읽으려 한다. 이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한다.’라고 하였다.

은선암계곡 [골]

[위치] 도실암골 남쪽, 세럼폭포 북쪽 아래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선녀탕계곡’이라고도 한다. 골짜기 중간에서 도실암골과 연결되므로 상

류 부분을 ‘도실암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 위에 은선암 절이 있었으므로 ‘은선암계곡’이라 하였다.

[내용] 선녀탕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쥐너미재에 이르는 긴 골짜기이다. 도실암골 남쪽 끝에서 대목재를 넘으면 이 계곡의 중간에 연결된다. 이 계곡의 중간 윗부분을 도실암골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도실암골’이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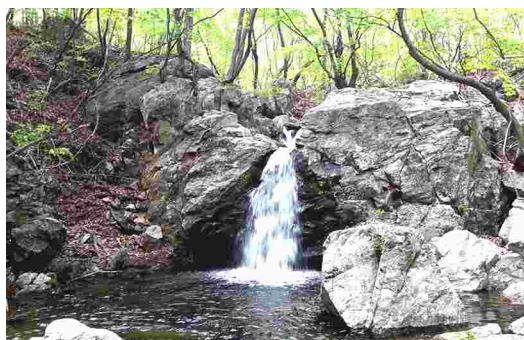
은선암터 [터]

[위치] 은선암계곡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선녀탕 남서쪽 계곡 안에 있다.

[내용] 1980년대 초에 폐사된 절로 절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축대 일부와 기와조각이 남아있다.

은선폭포 [폭포]

[위치] 은선암계곡 상류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선녀탕에서 계곡 안 약 1km 지점에 있는 폭포이다.



「은선폭포 ; 2018년」

이흥(里興) [마을] → 영말

이흥동(里興洞) [마을] → 영말

이흥말 [마을] → 영말

작은매지골 [골]

[위치] 매지골 중간에서 746.8m 봉우리를 향하여 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무당골 남쪽 너머에 있다.

갓나무거리 [마을] → 백동

장군송(將軍松) [나무] → 용소나무

장대(場垔) [마을] → 장터

장터 [마을]

[위치] 학곡저수지 남쪽, 구룡사 입구의 학곡삼거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상가 밀집지역이다. ‘거릿담’, ‘장터거리’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장대(場垔)’, ‘대동(垔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장터거리(鶴谷酒幕)’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대동(거릿담)’, ‘장터(장대)’라고 하였다.

[유래] 장이 서는 중심 마을이었으므로 ‘장터’, ‘장터거리’라고 하였다.



「학곡시장 기공식 ; 1972년」



「장터 마을 ; 2019년」

장터거리 [마을] → 장터

장터거리주막 [주막]

[위치] 장터거리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장터거리(鶴谷酒幕)’라 하였다.

적악산(赤岳山) [산] → 치악산

절개 [마을]

[위치] 구룡사 근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절개’라 하였다.

[유래] 절 부근이라고 해서 절개라고 하였다.

점골 [골]

[위치] 무쇠점에서 남동쪽으로, 78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측새울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로 현 갈멜산기도원이 들어서 있다.

정낭골 [골]

[위치] 세림폭포 남서쪽 물안골 위에서 남서쪽으로, 대성암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대성절골이라고도 한다.

쥐너미재 [고개]

[위치] 도실암골에서 남서쪽으로 흥양리 범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고개를 넘어가는 고개라는 뜻으로 ‘재넘이’가 ‘쥐넘이>쥐너미’로 되었다. 쥐떼가 넘어간 고개라 하여 ‘쥐너미재’라고도 한다.

[유래담] 옛날 범골에는 범사(凡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쥐가 너무 많아 스님들이 쥐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절을 떠났다고 한다. 하루는 그 많은 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지어 범사를 떠났는데 그 후로는 이 범사를 찾는 사람이 없어졌고 절은 폐사되었다고 한다.

[풀이] ‘재+넘+이+재>재넘이재>재너미재>쥐너미재’로 음운 변천하였다. ‘재(고개)’를 넘어가는 고개란 뜻이다. ‘재(고개)’가 중첩되었다.

진달래능선 [산]

[위치] 수레너미에서 남서쪽 천지봉으로 가는 산의 능선을 말한다.

[유래] 봄에 진달래가 많이 피므로 진달래능선이라고 하였다.

길재 [고개] → 길재

참샘내기골 [골]

[위치] 갈재골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측새울골이 있다.

창대바우 [바위] → 창대봉

창대봉 [산]

[위치] 치악산 말등바우 남서쪽에 있는 976.1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창대바우’라고도 한다.

천주봉(天柱峰) [산] → 천지봉

[내용] 천지봉의 원래 이름이다.

천지봉(天地峰) [산]

[위치] 비로봉과 수레너미, 매화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있는 높이 1,085.7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세럼폭포 북동쪽, 영말 남동쪽에 있다. 북쪽으로 진달래능선을 거쳐서 수레너미와 매화산에 닿고 남서쪽으로는 배너미재를 거쳐 비로봉에 닿는다. 옛 기록에 ‘천주봉(天柱峰)’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구룡사의 승천하는 아홉 마리의 용으로 인하여 천지봉에 9개의 능선이 생겼다고 한다.

천지봉고개 [고개]

[위치] 학곡리에서 황성군 우천면 백달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천지봉고개’라 하였다.

[유래] 천지봉 옆을 지나므로 천지봉고개라고 하였다.

치악산(雉岳山) [산]

[위치] 원주시 소초면과 황성군 강림면의 경계에 있는 높이 1,288m의 산을 말한다. 원주의 진산으로 주봉인 비로봉과 향로봉, 남대봉, 삼봉, 천지봉 등의 봉우리들이 있고 능선 길이는 24km에 달한다.

[유래] ‘높고 밝은, 성스러운 산’을 뜻하는 ‘뽕달’을 ‘赤岳山’이라 하였고 ‘赤’과 소리가 같으면서도 ‘높다’는 뜻을 가진 ‘雉’로 하여 ‘雉岳山’이라 하였다. 후에 ‘雉’를 원래 뜻인 ‘성(城)’, ‘담’, ‘높은’의 뜻 대신에 ‘뽕’으로 해석하면서, 상원사의 뽕 전설이 결합되어 치악산이 되었다고 전한다.

[내용] 치악산 주 계곡인 큰골에는 구룡사가 있고 구룡소, 구룡폭포, 선녀탕, 세럼폭포가 있다. 큰골의 주 등산로로는 사다리병창과 물안골 계곡길 등이 있다. 치악산에는 옛날부터 절이 많아서 현재 남아있는 절터만 해도 100군데가 넘는다고 전하는데 현존하는 사찰은 구룡사, 상원사, 석경사, 국형사, 보문사 등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찰인 구룡사(龜龍寺)는 신라 말 무척대사, 또는 의상조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고찰이다. 치악산에 있는 산성으로는 금두산성, 영원산성, 해미산성 등이 있고 치악산 주변에 운곡 원천석과 관련된 석경사, 태종대, 노구소 등이 있다.

큰골인 구룡계곡에는 노목들이 울창하여 옛날 일반인의 벌목을 금했다는 황장금표(黃腸禁標)가 신흥주차장 주변 두 군데와, 비로봉 옆 등 세 군데에 남아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치악산을 봄가을에 치제(致祭)를 올렸던 곳으로 기록하고 있다. 『광여도』 『여지도』 『지승』 『1872년지방지도』 『해동지도』에 구룡사와 상원사가 표시되어 있다. 『광여도』 『여지도』 『지승』 『1872년지방지도』에 태종대가 표시되어 있다. 『1872년지방지도』에 석경사, 영원산성, 입석대, 비로봉, 국형사가 나온다. 『광여도』에 치악사(雉岳寺)가 표기되어 있으며, 『지승』 『해동지도』에 치악산이 표시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을 동쪽 25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라고 기록하였고, 치악산과 관련된 고려시대의 진보궐(陳補闕) 관련 설화가 실려 있다. 『여지도서』 『강원도원주군읍지』에 같은 내용의 설화가 실려 있다. 『조선지리지』에 ‘본부면 2리 황암(黃岩) 마을에 소재한다.’고 기록하였다.

[풀이] 치악산을 한자로는 雉岳山, 雉嶽山, 峙岳山, 赤岳山, 赤嶽山 등으로 적었다. 지금은 ‘雉岳山’으로 정착되었고 그 유래로는 ‘雉’를 뽕으로 해석하여 상원사의 뽕 전설이 연관되어 전한다. ‘치악산(雉岳山)’이란 이름은 12세기 『삼국사기』에

궁예가 치악산(雉岳山) 석남사(石南寺)에 터를 잡은 기록으로 처음 나타난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고려 중기인 1145년에 쓴 것이고 꿩 전설은 19세기 말 『梵海禪師文集』의 ‘자웅종기(雌雄鐘記)’ 설화로 처음 나타나므로 치악산이란 이름은 꿩 전설보다 700여 년 전에 쓰인 것이다. 따라서 꿩 전설 때문에 ‘雉岳山’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중환의 『택리지』(1751),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1866)에 이 산을 ‘적악산(赤岳山)’이라 하였으므로 그 이전부터 ‘赤岳山’으로도 불려왔음을 알 수 있다.

원래 고유어로 된 산 이름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후대에 한자로 기록되었다고 보면 어원상으로 ‘적악산’이 먼저일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赤岳山’의 ‘赤’이 대표적인 고유어 ‘붉’계통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붉’은 ‘크고 높은, 성스러운’의 뜻을 가진 고유어이며, ‘달’은 ‘高·山’의 뜻을 가진 고유어이다. ‘붉’은 소리를 따라 ‘박혁거세’처럼 ‘朴’으로 적거나 ‘밝다’는 뜻으로 보아 ‘赤’, 또는 ‘白’으로 표기하였다. 전국에 많은 박달재, 백운산(白雲山) 등 ‘白’자 계통의 산, 적근산(赤根山)과 같은 ‘赤’자 계통의 산이 모두 ‘붉’에서 파생된 지명들이다.

‘달’은 ‘달동네, 다락방, 다랑논(<다락논)’ 등에 남아있는 지명소로서, ‘달’을 ‘月’로 보아 월악산(月岳山) 등 전국에 많은 ‘月’자 계통의 산 이름을 낳았다. 치악산에 남아있는 지명 ‘백교(白橋)’, ‘백달리(白達里)’는 고대의 ‘박달이(<박달<붉달)’의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며, ‘배무덤’, ‘배너미재’ 등도 ‘붉’의 잔존형태이다.

따라서 ‘적악산’의 원래 이름은 ‘높고 밝은, 신성한 산’의 뜻인 ‘붉달’이었고 이를 ‘赤岳, 赤岳山’이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가 하면 ‘赤’의 중국식 한자음이 ‘치[chi]’이며, ‘雉’는 ‘높다’는 뜻의 ‘성(城), 성벽(城壁), 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

므로 김부식은 ‘赤’과 음이 같으면서도 산의 형세나 역사성, 원주의 지리적 군사적 위상을 고려하여 ‘雉’라고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해도 ‘백주(白州)’는 원래 고구려의 ‘도랍현(刀臘縣)’으로, 이를 ‘치악성(雉岳城)’이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즉 백주는 ‘도랍>치악>백주’로 이름이 변천한 것으로서 ‘도랍’, ‘치’, ‘백’은 서로 대응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랍’은 ‘달(高, 山)’의 ‘다락, 도락’의 소리를 적은 것이며, ‘雉岳’의 ‘雉’는 ‘달, 다락, 도락’이 가진 ‘높다’는 뜻을 적은 것이고, ‘岳’은 뜻과 소리가 동시에 적용된 것이다. ‘白州’의 ‘白’은 ‘박(<붉)’의 소리와 ‘밝다’는 뜻을 적은 것이다. 즉, 여기에서 ‘달(高·山)’과 ‘雉(城·壁)’, ‘白’이 서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락(高, 山)=담(雉, 높다)=밝대(白, 赤)’의 등식에 의하여 ‘도랍(<도락<다락<달)현=치악성(雉岳城)=백주(白州)’로 지명이 변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붉달(白橋·白達)=赤岳=雉岳’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원사와 관련된 꿩 보은설화는 19세기에 꿩 모티프(motif)가 생긴 이후 ‘雉’를 ‘성(城)·담’이 아닌 ‘꿩’으로 해석하면서 결합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치악산」; 1991년

치악산약초원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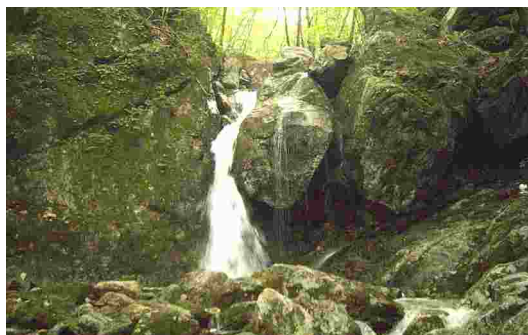
[위치] 구룡소 위, 도실암골 입구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내용] 화전민들이 살던 도실암 마을 입구에서 약

초를 재배하던 곳으로, 지금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있다.

칠석폭포 [폭포]

[위치] 치악산 세림폭포 갈림길에서 남서쪽 위 물안골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칠석폭포 ; 2018년」

칠성탐 [탐] → 비로봉 돌탐

칠송(七松) [마을]

[위치] 장터 남동쪽 소나무 숲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칠송(七松)’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칠송동’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반송 일곱 그루가 있었으므로 칠송이라 하였다.



「칠송 마을 ; 2019년」

칠송동(七松洞) [마을] → 칠송

칠송성황당 [당]

[위치] 칠송 마을 북쪽, 마을 가운데 당숲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느티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치악산신을 모셨다. 매년 음력 정월 초닷새에 당고사를 지낸다.



「칠송성황당 ; 2019년」

큰골 [골]

[위치] 학곡저수지에서 남쪽으로, 구룡사를 거쳐 치악산 정상에 이르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대곡(大谷)’이라 하였다.

[내용] 치악산 줄기는 비로봉을 정점으로 하여 두 줄기로 나뉜다. 비로봉에서 북동쪽으로 배너미재, 천지봉, 수레너미, 매화산으로 이어지는 줄기가 있고 북서쪽으로 비로봉에서 쥐너미재, 삼봉, 투구봉, 토끼봉으로 이어지는 줄기가 있다. 두 산줄기 사이에 크게 형성된 골짜기를 ‘큰골’이라 한다. 큰골 안에서 구룡사 앞을 ‘구룡골’이라 하고, 구룡골 아래 학곡저수지까지를 ‘활골’이라 부른다.

큰골 [마을]

[위치] 영말 남쪽 구룡사 주위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큰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대곡(큰골)’이라 하였다.

큰골성황당 [당]

[위치] 큰골 도실암골 입구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오래 전에 폐지되었다.

큰다리골 [골]

[위치] 무쇠점 남쪽, 치악산관리사무소 주차장 남쪽 끝에서 남동쪽으로 78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수형산방이 있는 골짜기이다.

큰말 [마을] → 큰골

탑고개 [고개]

[위치] 학곡리에서 남서쪽 평장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 42번 치악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 서쪽 옆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유래] 탑이 있었으므로 탑고개라 불렸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탑에 대한 기록이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내용] 탑고개 동쪽 아래 계곡에 고려시대 조성된 마애공양보살상이 있다. 현재 탑은 흔적이 없지만 다리목의 석조불두도 원래는 이 고개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이 옛 불교 유적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끼봉 [산]

[위치] 치악산 삼봉 능선, 투구봉 북쪽 아래에 있는 높이 898.5m의 봉우리를 말한다. ‘도끼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산봉우리 모양이 도끼처럼 날카롭게 생겨서 도끼봉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토끼봉으로 통용되고 있다.

토동(土洞) [마을]

[위치] 장터 서쪽 건너편, 교학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토울’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통동(土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토동(土洞)’이라 하였다.



「토동 마을 : 2019년」

토동골 [골]

[위치] 교학초등학교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토동성황당 [당]

[위치] 토동 토물골 뒷산 중턱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매년 음력 정월 초이틀에 성황당 고사를 지낸다.

토동현(土洞峴) [고개]

[위치] 『여지도서』에 나오는 고개 이름이다. 현 토동과 장터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황성군 우천면 백달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내용] 옛 강원감영에서 황성 역골을 지나 강릉으로 가는 고갯길이었다.

토물 [마을] → 토정

토물골 [골]

[위치] 학곡저수지에서 남서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토동 마을 서쪽에 붙어있다.

토울 [마을] → 토동

토정(土井) [마을]

[위치] 칠송 마을 남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원주드림랜드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토물(토정)’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에 토정샘이 있어서 ‘토물’, 이를 한자로 적어 ‘토정(土井)’이라 하였고, 이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토정골 [골]

[위치] 토정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매화산 능선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토정샘 [샘]

[위치] 토정 마을 남동쪽, 현 원주드림랜드 안쪽에 있던 샘을 말한다.

[내용] 이 샘이 있었으므로 마을 이름을 ‘토물’, ‘토정(土井)’이라 하였다.

토정웃물 [샘]

[위치] 토정 마을 남쪽, 현 원주드림랜드에 있는 웃샘을 말한다.

투구봉 [산]

[위치] 치악산 삼봉과 토끼봉 사이에 있는 996.8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유래] 원래 이름은 ‘가마봉’으로 흥양리 주민들이 신성시하던 산이다. 모양이 투구와 비슷하므로 투구봉이라 하여 지금은 투구봉으로 통용되고 있다. 옛날 장군이 투구를 벗어놓고 쉬었다고도 한다.

통통바우 [바위]

[위치] 치악산 구룡골 학곡천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현 신흥주차장과 무쇠점 중간 학곡천에 있는 큰 바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통통바우’라고 하였다.

[유래] 바위가 크고 통통해서 두드리면 통통 울리므로 통통바우라 하였다.

팔리(八里) [마을] → 학곡리

하누재 [고개]

[위치] 사다리병창 서쪽 아래 큰골 계곡 물안골에서 서쪽으로, 은선암계곡 상류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대성암터 남쪽 능선에 있는 고개이다.

학곡리도요지 [터]

[위치] 학곡리 백교 북쪽 산기슭에 있는 도요지 터를 말한다.

[내용] 예전부터 구룡사의 기와를 굽던 요지가 있었다는 말이 전하여왔는데 1985년 농지정리 과정에서 요지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현재 많은 기와 조각과 가마 구조물이 발견되고 있다.

학곡봉(鶴谷峰) [산]

[위치] 토물골 남서쪽에 있는 높이 455.6m의 봉우리를 말한다.

학곡저수지 [못]

[위치] 치악산 큰골 입구에 있는 큰 저수지를 말

한다. ‘활골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활골저수지’라고 하였다.



「학곡저수지 ; 2019년」

학곡주막 [주막] → 장터거리주막

학곡천(鶴谷川) [내]

[위치] 치악산 비로봉에서 시작하여 북으로 흐르며 구룡사를 거쳐 학곡저수지에 이르는 내를 말한다. ‘활골내’라고도 한다.

학골 → 학곡리

한다리 [마을]

[위치] 장터와 무쇠점 사이에 있는 큰 마을을 말한다. 현 원주드림랜드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자로 ‘백교(白橋)’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한다리(白橋)’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한다리(백교)’라 하였다.

[유래] ‘박달>박달이>박다리>백다리(백교白橋)>한다리>한다리’가 되었다. ‘큰 산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유래담] 옛날에 흰 돌로 만든 다리가 있어서 백교(白橋)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백교(白橋)’는 ‘붉달>박달>박다리>백다리>백교(白橋)’가 된 것이다.

‘붉’은 ‘크고 높은, 신성한’의 뜻이고 ‘달’은 ‘높은 곳(高), 산(山)’의 뜻이다. ‘붉’은 ‘박달재, 박달미’로 쓰였고, ‘밝다’는 뜻의 ‘적(赤)’ ‘백(白)’ 계통의 산 이름(赤根山, 白雲山 등)을 낳았다. 치악산의 옛 이름 적악산(赤岳山)도 같은 계통의 이름이다. ‘달’은 ‘다락, 다랑이, 달동네’ 등에 남아있고 ‘월

(月)계통의 산 이름(月岳山, 月峰 등)을 낳았다. ‘크고 높은 산’을 뜻하는 ‘불달’의 ‘달(이)’를 ‘다리’로 보아 ‘백교(白橋)’가 된 후 이를 뜻으로 풀이하여 ‘한다리>한다리’가 되었다. ‘한’도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한다리’의 ‘한’과 ‘불달’의 ‘불’은 같은 뜻으로 만났다. 같은 어원의 지명으로 옆 마을에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白槎里)’가 있다.

한다리골 [골] → 매지골

[위치] 한다리 마을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매지골의 딴 이름이다.

한다리성황당 [당]

[위치] 한다리 마을 입구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오래 전에 폐지되고 소나무 당숲이 남아있다.

활골 [골]

[위치] 큰골 중 구룡골 아래, 학곡저수지까지의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물살이 급하므로 활처럼 빠르다고 하여 ‘활골’이라고 하였다. ‘학곡(鶴谷)’이라는 지명은 활골을 한자로 음차하면서 미화한 것이다.

활골내 [내] → 학곡천

활골저수지 [못] → 학곡저수지

황룡보 [보]

[위치] 황룡보들에 있는 학곡천의 보(洑)를 말한다.

황룡보들 [들]

[위치] 장터 남동쪽, 칠송 서쪽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황룡보들’이라 하였다. ‘황영보들’이라고도 한다.

황영보들 [들] → 황룡보들

황장금표(黃腸禁標)(1) [유적]

[위치] 신흥주차장 구룡사 매표소 왼쪽 기슭의 바위에 있다.

[내용] 제1황장금표의 규격은 폭 47cm, 둘레 270cm인 자연석으로 전면에 ‘黃腸禁標’라 새겼다. 글씨 크기는 가로 11cm, 세로 14cm이다. 이 금표는

황장목봉산(黃腸木封山:널빤지로 사용하는 품질 좋은 큰 소나무가 있는 국가 지정 보호 국유림)의 경계 표시로서 황장목 금양(禁養:궁중용 목재 보호를 위하여 일반인의 도벌을 금지하는 경고표시)으로 설치된 것이다. 치악산은 질이 좋은 소나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강원감영이 가까워 관리에 유리하고 한강 상류에 자리하여 뗏목으로 운반이 편리하여 조선 초기 전국 60개소의 황장목봉산 가운데서도 이름난 곳이다. 정확한 설치 연대는 알 수 없다. 1979년 5월 30일 강원도 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었다.



「황장금표(1) ; 2018년」

황장금표(黃腸禁標)(2) [유적]

[위치] 치악산 비로봉 동쪽 능선 바위에 있다.

[내용] 정상 산길 능선에 황장외금표와 같은 형태로 땅속에 묻혀있는 바위에 가로 30cm, 세로 25cm의 평면에 6cm 크기로 ‘黃腸禁標’라 새겨져 있다. 이로보아 치악산의 황장금표는 구룡사 입구의 옛길과 산길 등 사람이 다니는 여러 곳에 설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황장금표(2) ; 2017년」

황장외금표(黃腸外禁標) [유적]

[위치] 신흥주차장 북쪽, 새재골로 들어가는 옛 길 옆에 있다.

[내용] 길 옆 둔덕에 묻혀있는 바위에 가로 24cm, 세로 25cm 크기로 '黃腸外禁標'라 새겨져 있다.



「황장외금표 ; 2019년」

흥양리(興陽里)

[위치]

흥양리는 소초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치악산 줄기인 쥐너미재에서 삼봉과 투구봉 능선을 경계로 학곡리와, 쥐너미재와 원통골을 잇는 능선을 경계로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서쪽으로 태장동, 남쪽으로 봉산동과 행구동, 북쪽으로 수암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본부면(本部面)의 이리(二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살여울·황골·상초구·송문·피미를 병합하여 흥양리(興陽里)라 하여 본부면에 편입되어 원주군 본부면 흥양리가 되었다.

1917년 본부면이 원주면으로 바뀌면서 원주군 원주면 흥양리가 되었다.

1937년 원주면이 읍으로 승격할 때 소초면에 소속되어 원주군 소초면 흥양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어 원성군 소초면 흥양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꿈에 따라 원주군 소초면 흥양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가 되었다.

[유래]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흥양(興陽) 마을의 이름을 따서 흥양리(興陽里)라고 하였다.

가마봉 [산] → 투구봉

[내용] 투구봉의 원래 이름이다. 삼봉-투구봉-토끼봉 능선은 흥양리의 동쪽을 막고 있는 큰 산줄기로 이곳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풀이] ‘가마’는 ‘곰’계통의 언어로 ‘크다, 높다, 신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봉우리의 모습이 크고 우람하여 위엄이 있게 생겼으므로 신성시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가마폭포 [폭포]

[위치] 투구봉과 삼봉의 서쪽 아래, 밤나무골 안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투구봉과 삼봉의 물길이 합쳐져 내려오는 골짜기에 있다.



「가마폭포 ; 2018년」

건너말 [마을]

[위치] 직산들 서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피미서낭당 서쪽에 있다.

구멍바우 [바위] → 산파바우

낙수봉 [산]

[위치] 삼봉 서쪽 능선 아래에 있는 높이 933m의 바위 봉우리를 말한다. ‘낙시봉’이라고도 한다.

낙시봉 [바위] → 낙수봉

남자바우 [바위] → 자지바우

넉마루 [마을] → 녕마루

넘어골 [골]

[위치] 아래항골에서 남동쪽으로 토끼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녕마루 [마을]

[위치] 살여울저수지 남쪽, 살여울 양지말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으로 5번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 지나가고 있다. ‘넉마루’라고도 한다.

녕마루고개 [고개]

[위치] 녕마루에서 북쪽으로, 수암리 바우실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진새양지산 서쪽, 버들고개 동쪽 능선 사이에 있다. 고개 너머에 시루메골이 있고 골 아래에 바우실들이 있다. 고개 높이는 200m이다.

녕마루들 [들]

[위치] 녕마루 마을에서 남동쪽 노루고개를 향하여 난 들을 말한다.

노루고개 [고개]

[위치] 피미 북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피미에서 북서쪽으로 버들고개까지 이어지는 긴 고개이다.

노루고개 [마을]

[위치] 피미 북쪽, 노루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노루목봉 [산]

[위치] 진새양지산 남동쪽 줄기에 있는 335.4m 높

이의 산을 말한다. 당산 북서쪽 집념개를 건너에 있는 산으로, 흥양리와 수암리의 경계이다.

논골 [골]

[위치] 상초구 새마을담에서 남쪽으로, 옛 문수사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문수사터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답골(畓-)’이라고도 한다.

누룩바우 [바위]

[위치] 살여울 앞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마치 누룩이 쌓여 있는 것 같으므로 누룩바우라 하였다.

능골봉 [산]

[위치] 흥양 남쪽, 큰쇠파니골 남서쪽 끝에 있는 높이 342m의 산을 말한다. 산 너머에 봉산동 모래기 마을이 있다.

답골(畓-) [골] → 논골

당산(堂山) [산]

[위치] 상초구성황당이 있는 산을 말한다. ‘당제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성황당이 있으므로 ‘당산’, 당제를 올리는 산이므로 ‘당제산’이라고 한다.

당제산 [산] → 당산

대곡(大谷) [골] → 황골

대바우 [바위] → 입석대

대알들 [들]

[위치] 살여울 북서쪽, 돌모루사거리 북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42번 국도인 치악로 동쪽 아래에 있는 들이다.

대암(大岩) [바위] → 입석대

대왕재 [고개]

[위치] 옷항골에서 북쪽, 흥양리 범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대왕지(大王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대왕재(대왕현大王峴)’라 하였다.

[유래] 조선 제3대 태종(太宗) 이방원이 스승 윤곡

(耘谷) 원천석(元天錫)을 찾아 강림으로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이 고개로 넘어왔다 하여 대왕재라고 부른다.

[풀이] 마을신을 대왕으로 부르고 그 신을 모신 서낭당을 대왕당(大王堂)으로 부르는데, 이 고개에 마을신을 모신 당이 있었으므로 ‘대왕재’라고 하였다.

대왕제터 [터]

[위치] 옷항골 대왕재에 있는 제사터를 말한다. 터에 ‘太宗大王駐蹕碑’를 세웠다.

[내용] 태종 이방원이 윤곡 원천석을 만나러 치악산에 왔다가 쉬어간 곳이라 하여 매년 사월 초파일에 성황제에 앞서 제사를 지낸다. 대왕제를 먼저 지내고 왕을 따르던 종사들을 위한 종사제를 지낸 후 성황당에서 성황제를 지낸다.



「대왕제터 ; 2019년」

대왕현(大王峴) [고개] → 대왕재

도끼봉 [산] → 토끼봉

도릿골 [골]

[위치] 살여울 앞 음달말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피미 건너담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릿골’이라 하였다.

돌머루 [마을] → 돌모루

돌모루 [마을]

[위치] 흥양교 남쪽, 현 돌모루사거리의 남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황골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돌머루’, ‘돌몰’, 한자로 ‘석우(石隅)’라

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돌모루(石隅)’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돌모루(석우)’라 하였다. **[유래]** 큰 바위 모퉁이에 마을이 있어 돌모루라 하였다.



「돌모루 마을 : 2019년」

돌모루개울 [내] → 흥양천

[위치] 흥양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돌모루기울(石隅溪, 石隅川)’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돌모루개울(석우천石隅川)’이라고 하였다.

[유래] 돌모루 마을 앞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돌모루개울이라고 불렀다.

돌모루들 [들]

[위치] 돌모루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돌물우들(石隅坪)’이라고 하였다.

돌모루주막 [주막]

[위치] 돌모루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돌모루주막(石隅酒幕)’이라 하였다.

돌물 [마을] → 돌모루

되미골 [골]

[위치] 상초구 새말담에서 새재골과 갈라져 동쪽으로, 토끼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서 석장골이 이어진다. ‘뽕미골’, ‘뽕미골’이라고도 한다.

뽕봉 [산]

[위치] 맹골산 남동쪽 능선에 있는 높이 197m의

산을 말한다. 맹골산과 하우고개의 중간에 있는 산이다. 봉우리 북쪽에 붉은덕고개가 바로 붙어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뽕봉’이라 하였다.

[유래] 산이 가팔라서 오르기가 매우 힘들므로 뽕봉이라고 한다.

뽕미골 [골] → 뽕미골

뽕미골 [골] → 뽕미골

뽕고개 [고개]

[위치] 살여울 마을에서 북쪽 살여울골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뽕고기(後峴)’라 하였다.

뽕골(1) [골]

[위치] 상초구에서 남동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뽕골(2) [골]

[위치] 살여울 마을 뒤, 뽕고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뽕골’이라 하였다.

뽕들 [들]

[위치] 웃항골과 아래항골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재 항골로 주변에 있는 들로, 모텔과 카페들이 들어서 있다. 『조선지리지』에 ‘뽕들(後坪)’이라고 하였다.

뽕바우 [마을]

[위치] 살여울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거리 [고개]

[위치] 하초구 재상둔지에서 남쪽으로, 아래항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마거리고기(馬去里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 말이 넘어오다 풀을 뜯던 고개라 하여 ‘말거리>마거리’라 하였다고 한다.

[내용] 새두둑에서 원주로 가는 지름길이어서, 한국전쟁 때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라고 한다.

마거리고개 [고개] → 마거리

만세 [들]

[위치] 당산 북쪽, 집념개울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노루목봉 남동쪽에 있는 들이다. ‘만세양지’라고도 한다.

만세개울 [내] → 집념개울

만세양지 [들] → 만세

맹골 [골]

[위치] 하우고개 북쪽 아래, 뱀사태머리골에서 북서쪽 붉은덕고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다. 골짜기 끝에는 붉은덕고개가 있다.

맹골산 [산]

[위치] 갯바위사거리 남서쪽, 하우고개 북서쪽에 있는 높이 222m의 산을 말한다. 산 남쪽에 원주태장체육단지가 있다. 된봉과 구분하지 않고 이 산을 된봉으로 부르기도 한다.

[내용] 산의 남동쪽 아래 능선에 붉은덕고개와 된봉이 있고 그 아래에 하우고개가 있다. 북쪽 사면은 경사가 급하고 하우고개로 내려가는 남동쪽은 경사가 완만하다.

먹통바우골 [골]

[위치] 맹골 동쪽, 하우고개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모래기재 [고개]

[위치] 아래황골에서 남서쪽 봉산동 모래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갯길로 살대울모래기길이 나 있고, 고개 너머에 모래기저수지가 있다. 높이는 255m이다.

무나무골 [골]

[위치] 하초구 봇들지 서쪽 아래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물이 흔하게 남아돌므로 ‘물+남+(우)>물나무>무나무’라 하였다.

무네미고개 [고개]

[위치] 상초구 새말담에서 수암리 바우실로 넘어

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무네미고개’라 하였다.

[유래] 보를 설치하여 새재골과 원골의 물이 북쪽 바우실로 넘어가므로 무네미고개라 하였다.

[풀이] 물이 이 고개로 넘어가므로 ‘물+넘+이>물너미>무너미>무네미’가 되었다.

문수골 [골]

[위치] 상초구 뒷골 초입에서 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현 하물사 돌도량과 최고자연농원이 있는 곳에서 동쪽 문수사터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문수골(文秀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문수골’이라 하였다.

[유래] 옛 문수암이 있었으므로 문수골이라고 하였다.

문수골 [마을]

[위치] 상초구 문수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돌도량과 최고자연농원이 있는 곳에서 동쪽 골짜기에 있던 마을이다.

문수골저수지 [못]

[위치] 문수골 옛 문수사터 앞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문수사터(文殊寺-) [터]

[위치] 문수골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옛 절은 ‘문수암(文殊庵)’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문수사(文殊寺)’라 하였다.

[내용] 마을 사람들은 ‘문수암(文殊庵)’이라고 한다. 연혁은 알 수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초기에 서거정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였다고 하고, 윤곡 원천석의 시에도 문수사가 나오므로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축대 및 크게 훼손된 석불좌상, 석탑재 일부가 남아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치악산 서쪽 골짜기에 있다고 하였고 『여지도서』에 치악산 서쪽 골짜기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고 하였다. 화전민 4~5호가 마을을 이루어 살다가 지금은 농경지가 되었다.



「문수사터 ; 2018년」

문수암(文殊庵) [절] → 문수사터

문수폭포 [폭포]

[위치] 문수골 옛 문수사터 서쪽 아래 계곡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내용] 약 100m 정도의 암반을 타고 비스듬히 흘러내리는 와곡이다.

문숫골 [골] → 문수골

미랭이골 [골]

[위치] 입석대 매표소에서 절골과 갈라져 남동쪽으로, 971.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가운데에서 원통골이 갈라져 나가고, 골 남쪽 너머에는 행구동 고둔치의 미랭이골이 있다.

바른골 [골]

[위치] 솔문안들에서 남동쪽으로, 송문산 동쪽의 높이 30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밤나무골 [골]

[위치] 상초구 새말버딩 안골에서 삼장골과 갈라져 남동쪽으로 삼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방골 [들]

[위치] 붓들지에서 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방골들 [들]

[위치] 방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뱀사태머리골 [골]

[위치] 봉들 남쪽, 하우고개 북쪽 아래에 있는 골

짜기를 말한다. 현 송문사거리 남서쪽 지역으로 제 주본가 식당이 들어선 곳이다.

버딩말 [마을]

[위치] 살여울 마을 남쪽, 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버들고개 [고개]

[위치] 돌모루에서 북동쪽으로, 원증동 주막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수암리와 흥양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로, 고갯마루에 조양병원이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유현(柳峴)'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버들고기(柳峴)'라고 하였다.

[유래] 고개 위에 버드나무가 있었으므로 버들고개라 하였다.



「버들고개 ; 2019년」

번안터골 [들]

[위치] 직산들 남쪽 개울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직산교 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골짜기 끝으로 5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범골(1) [골]

[위치] 하초구에서 남동쪽으로, 삼봉 남쪽의 쥐너미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범든바우골(好岩谷)'이라 하였다.

[유래] 범사(凡寺)라는 절이 있었으므로 범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범골(2) [골]

[위치] 흥양천에서 남서쪽 파밭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흥양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 인텔레콤 등 회사들이 들어서 있다.

범골 [마을]

[위치] 하초구 남동쪽, 범골(1)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범용사가 있다.



「범골 ; 2019년」

병문거리골 [골]

[위치] 솔문안에서 남동쪽으로 송문천을 따라 유새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보지바우 [바위]

[위치] 살여울 마을 앞 흥양천 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썸바우’, ‘여자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바위가 마치 여자의 성기를 닮았으므로 보지바우라 하였다.

[내용] 이 바위에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 속설이 있어 지금도 외지에서 찾아온다고 한다.

봇들지 [못]

[위치] 하초구 초구앞들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봉들 [들]

[위치] 솔문안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송문사거리 북쪽에 있는 들로 유새에서 내려오는 송문천과 흥양천 사이에 있는 들이다. 들의 대부분이 36사단 백호신병교육대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지역에는 상가 및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봉사절터 [터]

[위치] 범골 북쪽, 낙수봉 서쪽 아래에 있던 옛 절의 터를 말한다. 낙수봉 서쪽 아래에 있는 770.9m의 봉우리 남서쪽 7부 능선에 있다. ‘삼봉절터’라

고도 한다.

[내용] 축대와 건물터, 우물 두 군데가 남아있고, 기와편과 자기편이 흩어져 있다. 봉사절터라는 이름만 전할 뿐 절의 연혁은 알려져 있지 않다.

봉화봉(烽火峰) [산] → 삼봉

부흥동(富興洞) [마을] → 유새

부흥사면(富興寺面) [마을]

[위치] 현재의 흥양리 일부와 행구동, 관설동, 반곡동, 금대리 지역을 관할하던 옛 행정지명이다. 흥양리에서 가리파재에 이르기까지 원주천 동쪽의 긴 지역을 지칭하던 이름이다.

[유래] 원래 사근사면(沙斤寺面)이라 하다가 1906년에 부흥사면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근사면, 부흥사면은 부흥사로 알려진 절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부흥사면과 판제면(板梯面)을 통합하여 판부면(板富面)이라 하여 오늘에 이른다.

부흥사지(富興寺址) [터]

[위치] 유새에 있던 옛 절터를 말한다. 현 석탑재가 있는 부근이 옛 절터라고 알려져 있다. 유물로 보아 고려시대의 절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내용] 마을에 고려 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2호 석탑재 등이 수습되어 있다. 옛 지명인 ‘사근사면(沙斤寺面)’, ‘부흥사면(富興寺面)’이 이 절에서 유래하였다.



「부흥사지 석탑재 ; 2017년」



「부흥사지 석탑재 ; 2017년」

부흥재 [고개]

[위치] 《조선지리지》에 나오는 고개 이름이다. 3리 가매기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가매기에서 부흥사 방면으로 넘었던 고개 일 것이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지형을 고려하면 가매기에서 번재를 거쳐 송문산을 넘는 현 유새고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지리지》에 ‘부흥췌(富興峴)’이라 하였다.

붉은덕고개 [고개]

[위치] 뱀사태머리골에서 서쪽으로, 맹골을 거쳐 태장동 소리개골과 구룡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85m이다.

붉은재 [고개]

[위치] 상초구에서 북쪽으로, 상초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동쪽 위에 새말담이 있다.

삐쭈재 [고개]

[위치] 상초구와 하초구 사이에 있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현 최고자연농원에서 남쪽으로, 붓들지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옛날에 삐꾸기가 많이 살았으므로 삐쭈재라 하였다.

사근사면(沙斤寺面) [마을]

[위치] ‘부흥사면(富興寺面)’의 옛 이름이다.

[유래] ‘사근사’는 폐허가 되어 없어진 절이라는 뜻으로 ‘삭은사>사근사’이다. 이는 옛 부흥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내용] 영조 36년(1760)에 발행한 《여지도서》에 원주목 사근사면으로 나온 이후 1906년에 부흥사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옛 부흥사면은 현재의 금대리와 관설동, 반곡동, 행구동 지역, 즉 원주천의 동쪽 지역을 길게 관장하다가, 판제면과 통합되면서 현재의 판부면이 되었다. 사근사면의 행정구역도 부흥사면과 같았으리라고 추정된다.

사래울 [마을] → 살여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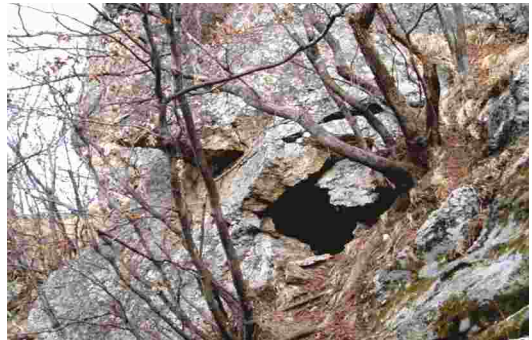
사래울골 [골] → 살여울골

사래울저수지 [못] → 살여울저수지

산파바위 [바위]

[위치] 삼봉 북쪽 아래, 투구봉으로 가는 능선 길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구멍바위’라고도 한다.

[유래] 바위에 난 구멍이 좁아서 사람이 옆으로 겨우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산파바위, 구멍바위라고 하였다.



「산파바위 ; 2018년」

살여울 [마을]

[위치] 돌모루 북동쪽 흥양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양지말’, ‘버덩말’, ‘녕마루’, ‘뽕바위’ 마을이 있다. ‘사래울’, ‘새래울’, 이를 한자로 적어 ‘시탄(矢灘, 矢潭)’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살려울(矢灘)’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살여울(시탄, 시탄동)’이라 하였다.

[풀이] ‘살’은 화살을 말하고 ‘여울’은 바닥 경사가 급하여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곳을 말한다. 개울물이 화살처럼 급하게 흐르므로 ‘살여울’이라 하

였다. 이와 같은 이름으로 봉산동의 ‘살대울’, 학곡리의 ‘활골’, 우산동의 ‘화살골’ 등이 있다.



「살여울 마을 ; 2019년」

살여울골 [골]

[위치] 대알들에서 동쪽으로 진새양지산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살여울저수지가 있고,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골짜기 끝에 흥양교차로가 나 있다.

살여울성황당 [당]

[위치] 돌모루와 살여울 중간, 흥양천 옆 산 밑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기와를 얹은 당집에 치악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성황제를 지낸다.



「살여울성황당 ; 2019년」

살여울저수지 [못]

[위치] 살여울 북동쪽 뒤, 진새양지산 서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현 흥양교차로 서쪽에 있다. ‘사래울저수지’, ‘새래울저수지’, ‘시탄저수지’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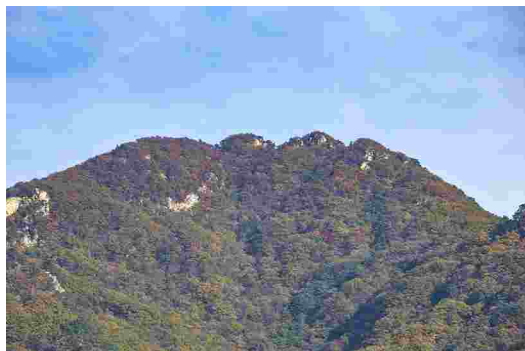
「살여울저수지 ; 2019년」

삼봉(三峰) [산]

[위치] 치악산의 서쪽 줄기 중 가장 높은 봉우리로, 높이 1,072.6m이다. 비로봉 서쪽 쥐너미재에서 다시 북쪽으로 시작되는 능선의 첫 봉우리이다. 북쪽 능선에 투구봉과 토끼봉이 이어져 있다. ‘봉화봉’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삼봉(봉화봉)’이라고 하였다.

[유래] 흥양리에서 보아 봉우리가 세 개이므로 삼봉이라 하였다.

[내용]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혈을 끊기 위해 이곳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설이 있다.



「삼봉 ; 2019년」

삼봉절터 [터] → 봉사절터

삼장골 [골]

[위치] 상초구 새말담 안골에서 남동쪽으로, 투구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밤나무골이 남동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삼전골’, ‘삼

정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삼전골(三田洞)'이라고 하였다.

삼장골 [마을]

[위치] 투구봉 서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안골에서 투구봉으로 이어지는 골짜기에 있던 마을이다. '삼정골'이라고도 한다.

삼장절터 [터]

[위치] 삼장골에 있던 옛 절의 터를 말한다.

삼전골 [골] [마을] → 삼장골

삼정골 [골] [마을] → 삼장골

상초골 [골]

[위치] 하초구에서 상초구 새마을담을 지나 남동쪽 삼봉과 투구봉 사이로 뻗은 긴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새마을담에서 북동쪽으로 왼골이 갈라져 나가고 새마을담 남동쪽 골짜기 안에서 다시 안골이 동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상초구(上草邱) [마을]

[위치] 새두둑(초구) 마을 중 골짜기의 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웃시두둑(上草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상초구'라 하였다.

[내용] 원래 웃새두둑, 윗새두둑이라 하였으나 이를 한자로 적어 '상초구(上草邱)'라 하였고, 지금은 한자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상초구 마을 : 2019년」

상초구성황당 [당]

[위치] 상초구 마을 앞 당산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매년 음력 3월 3일과 동짓날에 성황고사를 지내다가 지금은 3월 3일에 한 번만 지낸다. 당산의 우거진 소나무 당숲에 돌담이 있고, 돌담 안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당집이 나란히 있다. 큰 당집은 주민들의 복덕을 관장하는 산신령당이고, 작은 당집은 가축을 관장하는 수비당이다.



「상초구성황당 : 2019년」

상황골 [마을] → 웃황골

새두둑 [들]

[위치] 상초구 남쪽, 현 최고자연농원 남쪽의 들을 말한다.

[유래] 역사가 많은 둔덕이어서 '새두둑'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마을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이를 한자로 '초구(草邱)'라 하였다.

새두둑 [마을] → 초구리

새래울 [마을] → 살여울

새래울저수지 [못] → 살여울저수지

새말 [마을] → 새말담

새말담 [마을]

[위치] 상초구 마을에서 북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왼골이 나 있고 왼골 끝에 새재가 있다. '새말', '신촌'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말(신촌)'이라 하였다.

새말버덩 [들]

[위치] 새말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새보들 [들]

[위치] 돌모루마을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흥양교 동쪽에 새로 보를 막아 들에 물을 대었으므로 새보들이라 하였다.

새잇말 [마을] → 셋말

새재 [고개]

[위치] 상초구 북동쪽 원골에서 갈라져 나간 새재골의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구룡사 신흥동의 새재골로 이어진다. 한자로 ‘신흥(新峴)’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신흥(新峴)’이라고 하였다.

[유래] 새두둑에 있는 골짜기의 고개이므로 ‘새재’라 하였다. ‘새’는 역새가 많다는 뜻의 ‘새(草, 薪)’인데 이를 새롭다는 뜻으로 보아 ‘新峴’이라고 하였다.

새재 [마을]

[위치] 새마을담 북동쪽 원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자로 ‘신흥(新峴)’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재(신흥동)’라고 하였다.

[유래] 원골에서 갈라져 새재골 입구에 있으므로 ‘새재’라 하였다.

새재골 [골]

[위치] 새말담 원골에서 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 ‘새재’가 있고 고개 너머로 학곡리 ‘새재골’이 이어진다.

셋골 [골]

[위치] 유새골 입구에서 남쪽으로, 송문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유새들(1)과 유새들(2) 사이에 있는 좁은 골짜기이므로 ‘사잇골>셋골’이라 하였다.

셋말 [마을]

[위치] 상초구 남쪽, 하초구 북쪽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새잇말’이라고도 한다.

[유래] 상초구와 하초구 사이에 있으므로 ‘사잇말>새잇말>셋말’이라 하였다.

석우(石隅) [마을] → 돌모루

석우천(石隅川) → 돌모루개울

석장골 [골]

[위치] 상초구 새말담 되미골에서 동쪽으로, 토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 끝에서 다시 골짜기가 세 갈레로 갈라지므로 석장골이라 하였다.

소새바우 [바위] → 쇠새바우

솔문안 [마을]

[위치] 현 송문사거리 동쪽, 유새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원래는 ‘솔문이’, ‘솔문안’이었는데 이를 한자로 적어 ‘송문동(松門洞)’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는 ‘솔문이골(松門里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솔문안(송문동)’이라 하였다.

[유래] 솔문이 안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솔문안’이라고 하였다. 이를 한자로 ‘송문동(松門洞)’이라 하였다.

솔문안들 [들]

[위치] 솔문안 남쪽 개울을 따라 난 들을 말한다.

솔문이 [마을] → 솔문안

[위치] 유새 입구 현 송문안사거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솔문안’, ‘송문동’이라고 한다.

[유래] 골짜기 입구에 소나무가 서 있어 문처럼 보였으므로 ‘솔문>솔문이’라 하였다. 이 지역의 ‘솔(松)’ 관련 지명들, ‘솔문안’, ‘송문동(松門洞)’, ‘송문산(松門山)’, ‘송문천(松門川)’ 등이 모두 여기에 서 파생되었다.

송문동(松門洞) [마을] → 솔문안

송문산(松門山) [산]

[위치] 유새 남서쪽에 있는 높이 302m의 산을 말한다. 또는 남동쪽에 있는 높이 268.5m의 산을 말

하기도 한다. 산 서쪽 아래에 강원과학고와 하우고개가 있고 남쪽에 변재저수지, 북동쪽 아래에 유새마을이 있다.

송문천(松門川) [내]

[위치] 송문산에서 유새, 솔문안, 봉들로 흘러 흥양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쇠새바우 [바위]

[위치] 살여울 마을 앞에 있는 넓고 큰 바위를 말한다. ‘소새바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쇠새바우(소새바우)’라 하였다.

[유래] 마을 앞 바위의 모양이 소의 혀처럼 생겼으므로 ‘소새바우>쇠새바우’라 하였다. 이 바위 이름을 따서 소초면(所草面)의 이름이 생겼다. 즉 ‘소’를 음차하여 ‘소(所)’라 하고 ‘새’는 풀로 보아 ‘초(草)’를 취하여 ‘소초(所草)’라 하였다. ‘헛바닥>셋바닥’처럼 ‘새’는 ‘혀’의 방언이다.

[내용] 원주에 널리 유포하는 ‘손님 많은 부잣집’ 설화가 전한다. 원주 이씨 시탄파의 집안에 손님이 많아 며느리들이 힘들어 하자 지나가는 중이 이 바위를 가르면 손님이 끊어진다고 하여 바위를 갈았는데 그때 바위에서 피가 났다고 한다. 그때 가른 바위가 ‘쇠새바우’이다.



『쇠새바우 : 2019년』

수리바우 [바위]

[위치] 입석대 뒤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의 모양이 독수리처럼 생겨서 수리바

우라 부른다.

시탄(矢灘, 矢潭) [마을] → 살여울

시탄동(矢灘洞) [마을] → 살여울

시탄저수지 [못] → 살여울저수지

신선대(神仙臺) [바위]

[위치] 입석대 남쪽에 있는 높이 20여m의 바위를 말한다.

[내용] 예전 산신제를 지내던 곳으로 지금도 무당들이 치성을 드리고 있다.

신선대약수 [샘]

[위치] 입석대 맞은 편 신선대에 있는 약수를 말한다.

[내용] 치악산 산신령이 이 물을 즐겨 마셨다고 하여 예전에는 이곳에서 해마다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신촌(新村) [마을] → 새말담

신현동(新峴洞) [마을] → 새재

ষঁ바우 [바위] → 보지바우

아래새두둑 [마을] → 하초구

아래황골 [마을]

[위치] 황골 마을 중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자로 ‘하황곡(下黃谷)’이라고도 한다.

[내용] 황골저수지와 황골삼거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을 ‘웃황골’, 그 서쪽 아래 뒷들과 넘어골 주변 두부촌 마을을 ‘아래황골’이라고 한다.

안골 [골]

[위치] 상초구 새말버딩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논골 동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안골 위에서 삼장골과 밤나무골이 갈라져 나간다.

앞들 [들]

[위치] 살여울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압들(前坪)’이라 하였다.

양지말 [마을]

[위치] 살여울 동쪽 산기슭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남쪽 흥양천 건너에는 음달말이 있다.

여자바우 [바위] → 보지바우

원골 [골]

[위치] 상초구 동쪽 위 새마을담에서 북동쪽으로 70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동쪽 너머로 갈재골이 이어진다.

[유래] 골짜기 입구인 상초구 새마을담에서 보아 왼쪽에 있으므로 ‘원골’이라고 하였다. 오른쪽에는 ‘안골’이 있다.

웃새두둑 [마을] → 상초구

웃항골 [마을]

[위치] 항골의 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항골삼거리와 항골저수지 주변의 마을이다.



「웃항골 마을 : 2019년」

원증거리고개 [고개]

[위치] 살여울에서 뒷고개, 사례울들을 지나 버들고개 정상에서 북서쪽 원증거리 마을로 가던 고개를 말한다.

원통골 [골]

[위치] 항골 입석대 매표소 남동쪽의 미랭이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906.7m 봉우리 남쪽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원통재가 있다.

원통재 [고개]

[위치] 항골 입석대 절골에서 남동쪽으로 미랭이

골, 원통골을 거쳐 횡성군 강림면 부곡의 원통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890m이다.

[유래담] 조선 태종 이방원이 스승 원천석을 찾아 강림으로 넘어갔다가 찾지 못하고 원통해 하며 넘어와서 원통재라 하였다고 전한다.

[풀이] 전국에 많이 나타나는 ‘원통’, ‘원통재’는 어원상 ‘큰재, 큰고개’를 뜻하는 ‘온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윗새두둑 [마을] → 상초구

유사(流沙, 裕舍) [마을] → 유새

유새 [마을]

[위치] 솔문안 남동쪽 계곡 안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날 부흥사가 있었으므로 ‘부흥동(復興洞)’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뉴시(流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유새(유사)’라고 하였다.

[내용] 처음에는 ‘유사(流沙)’라 하였는데, 뜻이 좋지 않다고 하여 ‘유(裕)’자로 고쳤다고 한다.



「유새 마을 : 2019년」

유새고개(1) [고개]

[위치] 유새들(2)에서 남서쪽으로, 봉산동의 번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송문산 남동쪽에 있는 높이 245m의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 번재능골의 작두골이 있다.

유새고개(2) [고개] → 짓골고개

[위치] 유새에서 북쪽으로, 살여울 짓골로 넘어가

는 고개를 말한다. ‘짚골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유새고개’라 하였다.

유새골 [골]

[위치] 유새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송문천을 따라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샛골이 갈라져 나가고 골 끝에서 작골이 남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뉴시골(流沙谷)’이라 하였다.

유새들(1) [들]

[위치] 유새 마을 서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새들(2) [들]

[위치] 샛골에서 남동쪽으로 난 들로, 유새고개 북쪽 아래에 있다. 들 끝에서 작골이 이어진다.

유새성황당 [당]

[위치] 유새 마을 입구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도로를 내면서 해체되었다.

[내용] 치악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당고사를 지냈다. 현 ‘통나무와 질그릇 레스토랑’ 입구에 있었으나 해체되고 난 자리에 소나무를 심었다.

육문이골 [골]

[위치] 하우고개와 송문사거리 사이 뱀사태머리골에서 남동쪽으로, 송문산 동쪽의 30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음달말 [마을]

[위치] 살여울 남쪽, 흥양천 건너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남쪽에 산이 막혀 있어 응달이 지므로 음달말이라고 하였다.

음방골 [골]

[위치] 상초구 새말버덩 안골에서 북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음방골 [마을]

[위치] 음방골에 있던 작은 마을을 말한다.

이리(二里) → 흥양리

입석골 [골] → 절골

[위치] 황골 동쪽 입석사로 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입석골’이라 하였다.

입석대(立石臺) [바위]

[위치] 절골 안, 입석사(立石寺) 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입석암’, ‘대바우’, ‘대암(大岩)’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에 고을 동쪽 15리에 있다고 하였고, 『1917년지적도』에 ‘대암(大岩)’으로 기록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입석대’라 하였다.

[내용] 30m 절벽 위에 가로 세로가 약 5m, 높이 약 20m의 사각기둥 모습으로 서 있다. 주변에는 노송 숲이 있으며, 바로 앞에 청석탑이 있고, 약 30m 떨어진 곳에는 고려시대의 마애여래좌상이 있다. 남쪽 맞은편에 신선대가 있다.



「입석대 ; 1970년」

입석사(立石寺) [절]

[위치] 윗황골 동쪽 절골, 치악산 능선 밑에 있는 조계종 사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입석디절(立石寺)’이라고 하였고, 『한국지명총람』에 ‘입석암(立石庵)’이라 하였다.

[유래] 입석, 입석대가 있으므로 입석사라 하였다. 절의 자세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이곳 절 뒤 토굴에서 수도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원래 입석사는 입석대에서 원주 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암자로 있었는데 현재 위치에 신축한 것이라고 전한다.



「입석사 ; 1974년」



「입석사 ; 2018년」

입석암(立石岩) [바위] → 입석대

입석암(立石庵) [절] → 입석사

작골 [골]

[위치] 유새골 끝, 송문천 최상류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새고개 남동쪽에 있다. 고개 너머에는 봉산동 작두골이 있다.

작두골 [골]

[위치] 돌모루 새보들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재상둔지 [못]

[위치] 하초구 봇들지 남서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하초구저수지’라고도 한다.

재상둔지골 [골] [들]

[위치] 하초구 마을에서 재상둔지저수지에 이르는 골짜기 및 골짜기의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지상둔지들(才上屯之坪)’이라고 하였다.

절골 [골]

[위치] 윗항골에서 동쪽, 입석사를 지나 치악산 능선 황골삼거리에 이르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입석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입석골’이라 하였다.

[유래] 입석사가 있으므로 ‘입석골’, ‘절골’이라 하였다.

증보들 [들]

[위치] 피미 서쪽, 노루고개 남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쥐너미재 [고개]

[위치] 범골 끝에서 북동쪽으로, 도시람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북쪽에 삼봉과 투구봉, 토끼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있다.

[유래] 재(고개)를 넘어가는 고개이므로 ‘재너미재>쥐너미재’라 하였다. 쥐떼가 넘어간 고개라 하여 쥐너미재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유래담] 옛날 범골에는 범사(凡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쥐가 너무 많아 스님들이 견디지 못하고 절을 떠났다고 한다. 하루는 그 많은 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지어 범사를 떠났는데 그 후로 절은 폐사되었다고 전한다.

[풀이] ‘재+넘+이>재넘이>재너미>쥐너미’로 음운 변천하였다. ‘쥐너미재’는 ‘재(고개)를 넘어가는 고개’란 뜻으로 ‘재(고개)’가 중복되었다.

지역골 [골]

[위치] 돌모루에서 남동쪽으로, 218m 봉우리를 향하여 길게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쪽 너머에 유새마을이 있다.

직산(稷山) [마을] → 피미

직산동(稷山洞) [마을] → 피미

직산들 [들]

[위치] 피미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옆에 성황당이 있다.

진새양지산 [산]

[위치] 피미 북쪽, 버들고개 남동쪽 산줄기에 있는
높이 307.5m의 산을 말한다. 흥양리와 수암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진양지들 [들]

[위치] 대알들 북쪽, 버들고개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조양병원의 남동쪽에 있는 들이다.

집넙개울 [내]

[위치] 상초구 북쪽에 있는 개울을 말한다. 현 제
일참숯공장 북쪽 아래에 있는 내이다. 토끼봉 서
쪽, 새재와 삼장골에서 내려오는 원주천의 지류 흥
양천을 부르는 이름이다. 만세양지 들 앞에 있으
므로 ‘만세개울’이라고도 한다.

짓골 [골]

[위치] 살여울 남쪽 내 건너, 음달말이 있는 골짜
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짓골’이라 하였다.

짓골고개 [고개]

[위치] 짓골에서 남쪽으로, 유새로 넘어가는 고개
를 말한다. 높이는 190m이다. ‘유새고개’라고도 한
다. 『한국지명총람』에 ‘짓골고개’라 하였다.

초구리(草邱里) [마을]

[위치] 흥양천을 중심으로 피미 동쪽, 투구봉 서쪽
아래의 넓은 계곡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흥양
초등학교의 동쪽 계곡에 넓게 자리 잡은 마을로,
‘상초구(웃새두둑)’와 ‘하초구(아래새두둑)’가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초구리(草邱里)’라고 하였다. 『한
국지명총람』에 ‘초구리(새두둑)’라 하였다.

[유래] 역사가 많은 둔덕에 들어선 마을이므로 ‘새
두둑’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적어 ‘초구(草邱)’,
‘초구리(草邱里)’라 하였다. 흥양리에서 가장 넓은
곳에 있는 마을이다.

초구앞들 [들]

[위치] 상초구와 하초구 사이에 있는 넓은 들을 말
한다.

큰골 [골] → 향골

큰쇠파니골 [골]

[위치] 흥양 아래향골에서 남쪽으로, 335m 봉우
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봉
산동 작은쇠파니골이 있다. 현 소담식당 위 치악
참숯가마가 있는 골짜기이다.

탐배기절터 [터]

[위치] 삼장골 위, 투구봉 서쪽 아래에 있는 옛 절
터를 말한다.

토끼고개 [고개]

[위치] 향골의 넘어골에서 남쪽 행구동 석경촌으
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 운곡로가 나 있
다. 『조선지리지』에 ‘토끼지(兔峴)’라고 하였다.

토끼봉 [산]

[위치] 치악산 삼봉 능선, 투구봉 북쪽에 있는 높
이 898.5m의 봉우리를 말한다. ‘도끼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산봉우리 모양이 도끼처럼 날카롭게 생겨
서 원래 이름은 ‘도끼봉’이나, 지금은 ‘토끼봉’으
로 정착되었다.

토끼재 [고개] → 토끼고개

투구봉 [산] → 가마봉

[위치] 새두둑 동쪽에 있는 높이 996.8m의 봉을
말한다. 치악산 삼봉과 토끼봉 사이에 있다. 원래
이름은 ‘가마봉’으로, 흥양리 주민들이 신성시하던
산이었다. 지금은 ‘투구봉’으로 정착되고 있다.

[유래] 원래 이름은 신성하다는 뜻을 가진 ‘곰’계
통의 ‘가마봉’이다. 흥양리에서 보아 모양이 투구
와 비슷해서 ‘투구봉’이라 하였고 옛날 장군이 투
구를 벗어놓고 쉬었다는 유래담도 생겼다.

[내용] 쥐너미재에서 다시 새로운 치악산 능선이
시작되는데 삼봉을 거쳐 북쪽에 투구봉이 있고 그
다음에 토끼봉이 있다. 투구봉 동쪽에 도실암골이
있고 서쪽에는 흥양리 새두둑이 있다.

파발골 [골]

[위치] 유새에서 남동쪽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팽개바우 [바위]

[위치] 새재골 입구 되미골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피미 [마을]

[위치] 살여울 동쪽, 새두둑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흥양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마을로, 황골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한자로 '직산(稷山)', '직산동(稷山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피미(稷山)'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피미(직산동)'라 하였다.

[유래] 피 농사를 짓던 곳이므로 피미라 하였다. 또는 옛날 전란 때 마을 앞 조그만 동산에 피 짚으로 노적더미를 가장하여 적병을 물리쳤으므로 피미라 불렀다고도 한다.

[풀이] '피'는 벼 대신에 구황작물로도 쓰던 곡식의 일종이다. '미'는 산을 뜻하는 '뫼'가 변한 것이다. 즉 '피(稷)+뫼(山)>피뫼>피메>피미'가 되었다. '피 농사를 짓던 산', 또는 전설과 연관시켜 '피 짚으로 덮은 산'의 뜻이다.



「피미 마을 : 2019년」

피미서낭 [당]

[위치] 피미성황당 남쪽, 현 백옥식당 옆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 약 300년, 나무 높이 23m로 마을 당산목이다.

피미성황당 [당]

[위치] 피미 앞 직산들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직산들 한가운데 있다. 홍수로 유실된 후 당집은 새로 지었으나 당숲은 훼손되고 남아있지 않다. 치악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당고사를 지낸다.



「피미성황당 : 2018년」

하우고개 [고개]

[위치] 솔문안과 태장동 소일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강원과학고등학교 앞 과학고삼거리에서 송문사거리로 이르는 곳으로 고갯길에 현재 치악로가 나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하우고기(河鳥峴)'라고 하였다.

하초구(下草邱) [마을]

[위치] 초구(새두둑) 중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상초구와 범골 사이에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하초구(下草邱)'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아리시두둑(下草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하초구(아래새두둑)'라 하였다.



「하초구 마을 : 2019년」

하초구서낭 [당]

[위치] 하초구 마을 앞 흥양천 냇가에 있던 돌탑을 말한다.

[내용] 마을에서 허물어 없어 폐지되었다.

하초구저수지 [못] → 재상둔지

하항골 [마을] → 아래항골

황곡(黃谷) [골] → 황골

황곡동(黃谷洞) [마을] → 황골

황골 [골]

[위치] 피미에서 입석대까지 이르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 ‘대곡(大谷)’, ‘황곡(黃谷)’이라고도 한다.

[유래] 큰 골짜기이므로 ‘한골>황골’이라 하였다. 옛 기록에는 ‘큰골’이라 하고 ‘대곡(大谷)’이라 적었다.

[풀이] 황골은 크다는 의미의 ‘한+골>한골>항골>황골’로 변천된 것이다. 황골은 ‘아래항골’, ‘웃항골’을 지나 입석대까지 이르는 큰 골짜기이다. 한자로 적으면서 ‘황곡(黃谷)’이라 하였다.

황골 [마을]

[위치] 새두독 남동쪽 황골 골짜기에 있는 마을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황골(黃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황골(항곡, 황곡동)’이라 하였다.

[내용] 큰 골짜기 안에 마을이 분포되어 있어서 ‘아래항골’과 ‘웃항골’로 나뉜다. 동쪽 골짜기인 절골에 입석사가 있고 남쪽으로는 행구동으로 통한다. 특산품으로 옥수수엿이 유명하고 현재 음식점과 숙소가 많이 들어서 있다.

황골개울 [내] → 흥양천

[위치] 흥양천의 다른 이름이다. 황골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황골개울이라 불렀다. 『조선지리지』에 ‘황골기울(黃谷川)’이라 하였다.

황골삼거리 [고개]

[위치] 절골 동쪽 끝에 있는 치악산 능선의 고개를 말한다.

[내용] 북쪽으로 비로봉, 남쪽으로 고둔치와 향로봉으로 이어지는 등산길의 삼거리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황골성황당 [당]

[위치] 황골저수지 남서쪽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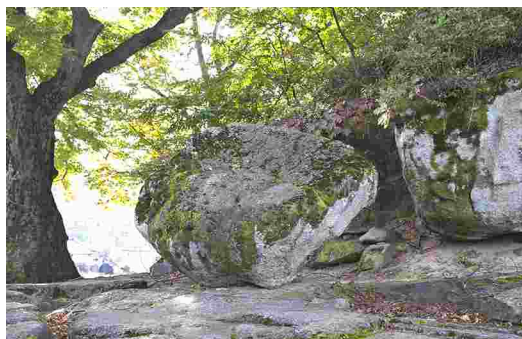
[내용] 매년 음력 사월 초파일에 제사를 지낸다. 대왕제를 먼저 지내고 왕을 따르던 종사들을 위한 종사제를 지낸 후 성황당에서 성황제를 지낸다.

황골저수지 [못]

[위치] 웃항골 삼거리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저수지 옆에 당집이 있다.

흔들바우 [바위]

[위치] 살여울 쇠새바우 위에 있는 둥근 바위를 말한다. 원래는 위에 있던 것이 떨어져 현 위치에 있다고 한다.



「흔들바우 ; 2019년」

흥양(興陽) [마을]

[위치] 피미 남쪽, 아래항골로 가는 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돌담집 식당 서쪽 건너편의 마을로 현재 파인밸리 주택촌이 들어섰다. 마을 서쪽 위로 5번 순환도로가 지나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흥양이(興陽)’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흥양리(흥양, 흥양동)’라 하였다.



「흥양 마을 ; 2019년」

흥양동(興陽洞) [마을] → 흥양리

흥양들 [들]

[위치] 흥양 마을 동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흥양이 [마을] → 흥양

흥양천(興陽川) [내]

[위치] 웃항골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물줄기와 삼봉과 투구봉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피미에서 합친 후 서쪽으로 살여울, 돌모루, 태장동을 지나 대동거리 앞에서 원주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황골을 흐르므로 ‘황골개울’, 돌모루 앞을 지나므로 ‘돌모루개울’, ‘석우천’이라고도 한다. 유로연장은 10.7km, 유역면적은 23.3km²이다. 『조선지지자료』에 ‘황골기울(黃谷川)’이라고 하였다.

[유래] 흥양리에서 발원하여 흥양리 대부분의 지역을 지나므로 ‘흥양천’이라 하였다.

제7편

신림면(神林面) 지명(地名)



신림면 소재지 ; 1974년

[위치]

신림면은 원주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원주시청에서 약 21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영월군 주천면, 서쪽으로는 판부면과 충북 제천시 백운면, 남쪽으로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북쪽으로는 영월군 무릉도원면과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목(原州牧) 가리파면(加里破面)이었다.

1760년대에 발행한 『여지도서』에 가리파면에는 1리와 2리가 있었다.

이후 고종 32년(1895)에는 1리(금당리, 신림리) · 2리(구학리) · 3리(용암리) · 4리(성남리) · 5리(황둔리) · 6리(송계리)의 6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원주군(原州郡) 가리파면에 구학 · 금창 · 성남 · 송계 · 신림 · 용암 · 황둔의 7개 리를 두어 관할하였다.

1917년 신림리(神林里)의 이름을 따서 원주군 신림면(神林面)이라 개칭하였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로 승격할 때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꿈에 따라 원성군 신림면이 되었다.

1989년 다시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바뀌면서 원주군 신림면이 되었다.

1995년 시 · 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신림면이 되었다.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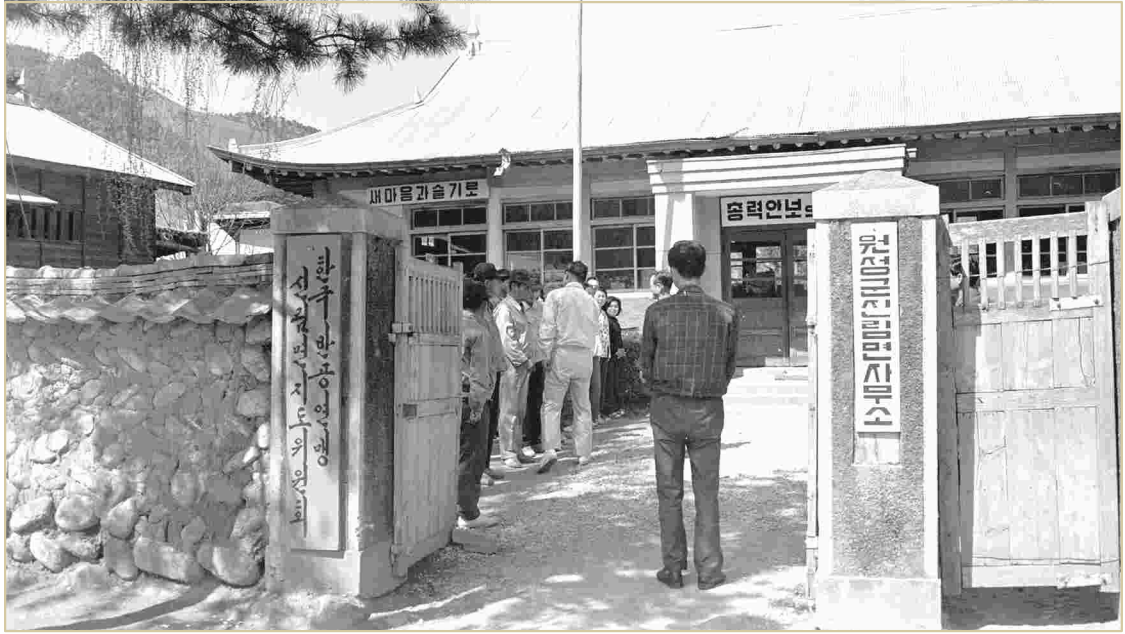
원래의 이름인 ‘가리파’는 가리파재에서 연유한 것이다. ‘가리파’는 ‘가리+파>가리파’인데 ‘가리’는 갈(分)에서 파생된 것으로 ‘갈라지다’의 뜻이며 ‘파(坡)’는 옛 고구려어로서 ‘언덕, 바위’를 뜻하였다. 현대어의 ‘바위’는 이 고구려어 ‘파’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가리파’는 원주와 신림을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되는 고개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신림(神林)이라는 이름은 고려 성종 11년(991)의 행정구역 개편 때 평구도(平丘道) 소속 원주 예하에 단구역(丹丘驛)과 함께 신림역(神林驛)이 등장하면서 처음 나타난다. 이후 조선시대 태재(泰齋) 유방선(柳方善, 1388~1443)이 28세에 신림을 지나면서 「제신림역(題神林驛)」이라는 시를 지었고 『고려사』(1451)와 『세종실록지리지』(1454)에 신림역 이름이 나온다.

우리나라 역참제도는 5세기 삼국시대 초기부터 운영되었고, 이후 통일신라기에 전국망이 확립되었는데, 그것이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궁예가 신림 석남사에 터를 잡은 것 등으로 보아 신림역은 늦어도 통일신라 시기에는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따라서 ‘신림’이라는 이름은 적어도 천 몇 백 년의 역사를 가진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신림(神林)이란 이름은 이 지역을 ‘신이 깃든 곳’으로 특별하게 신성시한 결과로 생긴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림(神林)이라는 지명은 현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신림굴(神林-)’, ‘신림당(神林堂)’, ‘신산(神山)’, ‘신산당(神山堂:큰당)’, ‘신숲(神-)’ 등에 나타나 있다. 고대에는 이 장소들이 거대한 당숲으로 서로 연결되

어 있으면서 ‘신숲’, ‘신림’, ‘신산’ 등으로 불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거기에 역이 들어섰으므로 ‘신림역’이라 하였고, 이후 이 마을을 지칭하는 ‘신림리’라는 행정명이 생기고 그것이 확장되어 ‘신림면’이 되었다.



신림면사무소 ; 1972년

신림면사무소 준공식 ; 1987년





신림면 황둔출장소 준공식 ; 1991년

구학리 선학교 준공식 ; 1983년





금창리 가리파재 ; 1983년

성남리 성황림 ; 1974년





송계2리 노인회관 준공식 ; 1997년

용암리 용소막 마을 ; 1964년





용암리 용암교 개통식 ; 196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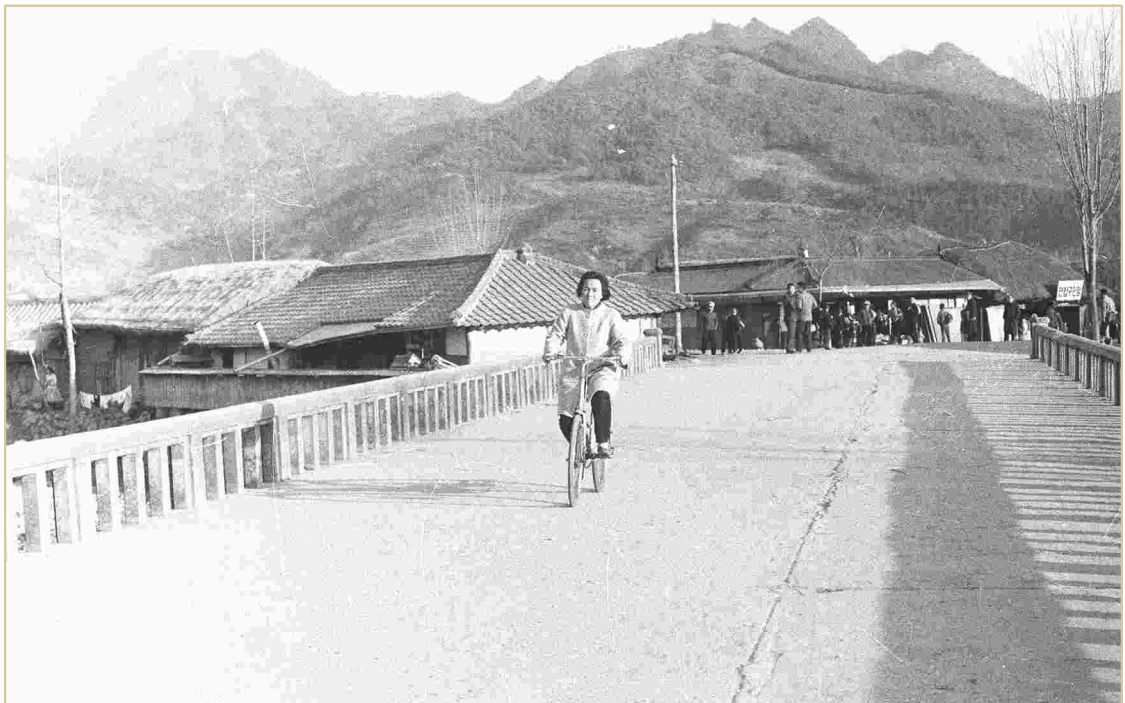
용암리 가나안농군학교 ; 1986년





용암2리 복지회관 준공식 ; 1986년

신림리 신림교 ; 1967년





신림리 전기점화식 ; 1973년

신림리 삼거리 ; 1979년





황둔리 재사동 마을 교량 준공식 ; 1994년

신림농협 농특산물직판장 개장식 ; 1993년





신림면 지하수개발 기념탑 제막식 ; 1998년

신림면 소재지 ; 2015년



구학리(九鶴里)

[위치]

구학리는 신림면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용암리, 서쪽과 남쪽으로는 충북 제천시, 북쪽으로는 신림리·금창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가리파면(加里坡面) 지역으로서 이리(二里)라고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구미동·대곡·방학동·사동·석동·선학동·항학동을 병합하여 구학리(九鶴里)라 하여 원주군 가리파면 구학리가 되었다.

1917년에 가리파면을 신림면(神林面)으로 개칭함에 따라 원주군 신림면 구학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할 때 원주군이 원성군으로 바뀌어서 원성군(原城郡) 신림면 구학리가 되었다.

1989년 다시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바뀌면서 원주군 신림면 구학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가 되었다.

[유래]

이 지역의 ‘구학’ 관련 지명들은 ‘굴>구락,구력’에서 파생된 것이다.

유래담으로 구학산에서 학(鶴) 아홉 마리가 신선이 되어 날아갔다고도 하고, 이 마을에 학이 서식했으므로 구학리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구학(九鶴)’은 구학산의 원래 어원인 ‘구락’, 또는 ‘구력’의 소리를 옮겨 적은 것이다. 이를 ‘구학(九鶴)’으로 음차하면서 주변에 크게 영향을 미쳐 ‘방학동, 항학동, 선학동’, 제천의 ‘구학리, 방학리, 운학리’ 등 ‘학’자 지명의 이름을 낳았다.

‘구학리·구학산·구미동·구력재’, 제천시 ‘구레골’ 등은 ‘굴·굴’ 계통의 지명으로, ‘구라·구래·구레·구러·구리’ 등으로 실현된다. 귀래면 용암리 ‘구락골’, 부론면 단강리의 ‘구라골’ 등 많은 지역의 큰 골짜기가 ‘구라·구락골’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것이 지형과 관련된 일반화된 지명소임을 알 수 있다.

가래머리 [골]

[위치] 선학동 남동쪽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가래나무가 많으므로 가래머리라 하였다고 한다.

[내용] 골짜기가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구학리와 용암리의 경계가 되어 있다. 동쪽 골짜기는 용암리, 서쪽 골짜기는 구학리에 속한다. 동쪽 골짜기 끝에 영불사가 있고, 서쪽 골짜기 끝에는 채석장이 들어서 있다.

가래머리 [마을]

[위치] 가래머리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래머리’라고 하였다.

[풀이] 골짜기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머리 부분에 마을이 있으므로 ‘가래(<갈>)+머리>가래머리’라 하였다.

가운데골 [골]

[위치] 절골에 있는 세 골짜기 중 중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중간에 있는 골짜기라서 가운데골이라 하였다.

감투봉 [산]

[위치] 황학동 마을 북쪽, 당당봉 동쪽에 있는 높이 679.7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유래] 봉우리 모양이 감투처럼 생겨서 감투봉이라고 한다.

갓골 [골]

[위치] 절골에서 가장 바깥,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갓골 너머에 큰골의 닭이집버덩이 있다.

[유래] 절골의 세 골짜기 중 가장 바깥쪽에 있으므로 갓골이라 한다.

[풀이] ‘가(邊)+골(谷)>가골>갓골’이 되었다.

고드매기골 [골]

[위치] 구미동 위에서 남서쪽으로, 575.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

구학통나무펜션이 있다.

골안 [골] → 안골

공동묘지모퉁이 [모퉁이]

[위치] 구미동 입구에 있는 산모퉁이를 말한다.

[유래] 공동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력재 [고개]

[위치] 황학동 북서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구학리에서 충북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로 넘어가는 주된 고개로 구학산로가 나 있다. 고개 높이는 480m이다. ‘구력재’, ‘구력재’, ‘구록재’, ‘구록치’, ‘구록티’, ‘구록재’라고도 한다. 제천 쪽에서는 ‘운학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에 ‘구역씨(九億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력재(구록치求祿峙)’라고 하였다.

[내용] 구력재는 백운산과 구학산 주능선의 안부에 위치한 높이 약 480m의 고개이다. 동쪽으로 강원도 원주시,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제천시의 경계이다. 원래 이 고개는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주민들이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으로 5일장을 보러 다니던 소로였는데, 고갯마루로 이어진 길에 2차선 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다.

[풀이] 이 고개는 ‘구력재·구역재·구력재·구록재·구록치·구록티·구록재·운학재’ 등으로 불리고 있어서 유난히 별칭이 많다.

이 지역에 ‘구’자와 관계된 지명으로는 신림의 ‘구학리·구학산·구미동’ 등이 있고 구력재를 넘으면 제천의 구례골이 있다. 과거의 기록으로 1750년대 중반의 『여지도서』에 ‘구록산(九勒山)’이라 하였고, 1834년 『청구요람』의 지도에는 금창리 ‘벼락바우봉’ 일대를 ‘구록산’으로 표시하였으며, 1911년 『조선지리지』에 ‘구역씨(九億峴)’, 1970년 『한국지명총람』에 ‘구력재(구록치)’라고 하였다. 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지형도에는 ‘구력재’로 표기되어 있다.

위의 다양한 이름들에서 공통적인 것은 ‘구력(록·

록·역·력)’이며 여기에 고개를 뜻하는 티(치·재)가 결합하여 따로 산 이름으로도 불린 것으로, 원래의 이름을 음차하여 기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름들이 나타났다.

‘구리(굴)’은 ‘구라·구래·구려·구래·구리’ 등으로 나타나는 ‘굴·굴’ 계통의 언어이다. 이 계통의 지명으로는 ‘구락굴(귀래 용암리)’, ‘구라굴(부론 단강리)’이 있고, 다른 곳에도 큰 골짜기가 ‘구라, 구락굴’로 나타나므로 이것이 지형과 관련된 일반화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력재’는 ‘굴+재>굴재>굴+(ㅈ)+재>구라재>구락재>구력재, 구록재’ 등으로 실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락산, 구력산’을 음차하면서 이를 미화하여 ‘구학산(九鶴山)’이라 하였고 그것이 이 지역에 영향을 끼쳐 방학동, 선학동, 황학동 뿐만 아니라 고개 너머의 방학리, 운학리(백운면), 구학리(제천) 등 ‘학’자가 들어간 지명들을 낳아 통일성이 부여되고 아홉 마리 학의 설화가 결부되어 신성성과 고귀함을 더했다. 그만큼 이 지역에 미친 지명소 ‘구리(굴)>구라, 구력’의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구력재」; 2019년

구력재 [고개] → 구력재

구록재 [고개] → 구력재

구록치(求祿峙) [고개] → 구력재

구록티 [고개] → 구력재

구록산(九勒山) [산] → 구학산

구록재 [고개] → 구력재

구미골 [골]

[위치] 석동에서 북서쪽으로, 구미동을 지나 이문골에 이르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구미천이 흐르고 있다. 구미동을 지칭하기도 한다.

구미골 [마을] → 구미동

구미골재 [고개] → 예찬이재

구미동(九尾洞, 九味洞) [마을]

[위치] 석동 북서쪽 구미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구밋거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구미골(九尾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밋거리(구미동九味洞)’라고 하였다.

구미천(九尾川) [내]

[위치] 구미골 상류 박씨고개와 예찬이재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구미골을 흘러 석동에서 구학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구밋거리 [마을] → 구미동

구역재 [고개] → 구력재

구학내 [내] → 구학천

구학리(九鶴里) [마을] → 구학리, 구학산

구학분교 [학교] → 신림초등학교 구학분교

구학산(九鶴山) [산]

[위치] 구학리 남서쪽에 있는 높이 983.4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구학산(九鶴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구학산(九鶴山)’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아홉 학이 놀다가 신선이 되어 날아갔다고 하여 구학산이라고 하였다. 또는 정상을 기점으로 하여 마치 학이 나래를 편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구학산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옛날에 이곳 마을의 어느 대갓집에 초상이 나서 명당이라고 알려진 산 정상 아래를 파자 그 속에서 학이 아홉 마

리가 날아올랐는데 이때 날아간 학들이 머문 곳에 학(鶴)자가 들어간 지명들이 생겼다고도 한다. 즉 방학, 황학, 학산, 운학 등이 이러한 지명이며 이후로 마을 이름을 구학리라 하였고 산 이름을 구학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내용]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및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백운산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벼락바위봉, 다시 남동쪽으로 구력재를 거쳐 솟은 산이다. 산 정상은 남쪽과 서쪽이 급경사 바위지대로 하단부와 중앙부는 울창한 수림지대로 가려져 있다.

[풀이] ‘구리’는 옛말 ‘골, 굴’ 계통으로 ‘굴’은 ‘구라·구래·구례·구려·구리’ 등으로 나타난다. 구학(九鶴)은 ‘구락·구력’의 소리를 적은 것으로, 이를 미화하여 ‘구학(九鶴)’으로 음차하면서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쳐 방학동, 황학동 등의 ‘학’자 지명을 낳고 현대에도 영향을 미쳐 분토골을 선행동으로 개칭하기도 하였다. 구력재를 넘어 충북 백운면에도 방학리, 운학리가 있고 제천에도 구학리 등 ‘학’자 지명들이 있다.

구학천(九鶴川) [내]

[위치] 구학산 북쪽 황학동 큰골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황학동, 방학동, 사림을 거쳐 용암리에서 주포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황학동 마을에서 발원하므로 ‘황학천’이라고도 하고, 종림 앞을 흐르므로 용암리에서는 ‘종림천’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학내(九鶴-)’라고 하였다.

[유래] 구학산에서 발원하므로 구학천이라 하였다.

농바우 [바위]

[위치] 감투봉 아래, 농바우골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모양이 장룡을 닮았으므로 농바우라고 하였다.

농바우골 [골]

[위치] 황학동 마을 북쪽, 감투봉 아래 농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누른가리 [마을] → 황학동

누운가리 [마을] → 황학동

다방골 [골]

[위치] 선학동 북쪽 안골 위 복수네미골에서 동쪽과 북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웃다방골’과 ‘아래다방골’이 있다.

닭이집버덩 [터]

[위치] 큰골 안에 있는 넓은 터를 말한다. ‘닭이집 번둔’이라고도 한다.

[유래] 넓은 터가 마치 닭장의 모습이어서 닭이집 버덩이라 하였다고 한다.

닭이집번둔 [터] → 닭이집버덩

당골 [골]

[위치] 석동들에서 도로 건너 남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남서쪽으로 짐승골이 갈라져 나가고 골 남쪽 끝은 큰골과 이어진다. 골짜기 안에 구학사(九鶴寺)가 있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 제당이 있었으므로 당골이라 하였다.

당당골(1) [골]

[위치] 구미동 외골 남쪽 맞은편에서 남서쪽으로, 679.7m 감투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감투봉 남동쪽 너머에 황학동의 당당골이 있다.

[유래] 옛날에 무당들이 살면서 굿을 하고 치성을 드린 골짜기이므로 당당골이라고 한다.

당당골(2) [골]

[위치] 황학동 마을에서 북쪽으로, 당당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당당봉 능선 너머 북동쪽으로 구미동 당당골(1)과 연결되어 있다. 황학동에서 보면 골짜기가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당당봉 [산]

[위치] 황학동 마을 북쪽에 있는 높이 633.7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봉우리 동쪽에 감투봉이 있다.

대곡(大谷) [골] → 큰골(1)

대리석광산(大理石鑛山) [광산]

[위치] 석동거리 앞에 있던 옛 대리석 광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대리석광산(大理石鑛山)’이라고 하였다.

덕대골 [골]

[위치] 방학앞들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서쪽 너머에 당골이 있다.

[유래] 옛날에 마마가 돌아 사람이 앓고 화생기미가 없으면 이 골짜기에 덕(시령)을 메고 사람을 옮겨다 놓았다고 하여 ‘덕대골’이라 하였다 한다. 또 는 이 골짜기에서 마마를 앓은 사람이 골짜기의 기운을 받아 많이 살아나서 덕을 본 골짜기라 하여 ‘덕대골’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독바우 [바위]

[위치] 방학동 마을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독바우들 [들]

[위치] 방학동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독바우들’이라 하였다.

[유래] 들머리에 독바우가 있으므로 독바우들이라고 하였다.

독바우보 [보]

[위치] 독바우들에 있는 구학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독바우보’라고 하였다.

동네당 [당] → 황학동성황당

만두재 [고개]

[위치] 황학동 작은골 서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구력재 산줄기 남쪽에 있다. 고개 높이는 525m이다. ‘인만두재’라고도 한다.

[유래] 고개 너머에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의 약물탕거리가 있고 이 약물탕거리 앞에 만두 모양의 바위가 있으므로 만두재라고 한다.

말바우 [바위]

[위치] 절골 모퉁이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동네 사람들이 어릴 때 말 타기를 하며 놀던 바위라서 말바우라 부른다.

매봉재 [산]

[위치] 선학동 마을 뒤 북동쪽에 있는 420.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문바우 [바위]

[위치] 큰골(1) 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문같이 생겼으므로 문바우라고 하였다.

[내용] 가뭄이 많이 들면 마을에서 개를 잡아 이곳에 그 피를 바르고 기우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

미소골들 [들]

[위치] 황학동 마을 북쪽 아래에 구학천을 따라 형성된 들을 말한다. 현 597번 구학산로가 지나가고 있다.

박씨고개 [고개]

[위치] 밤나무골 서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별수아골이 있다. 고개 높이는 640m이다.

밤나무골 [골]

[위치] 구미동 이문골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 박씨고개가 있다. ‘밥남은골’이라고도 한다.

밥남은골 [골] → 밤나무골

방가골 [마을] → 방학동

방학골 [마을] → 방학동

방학동(放鶴洞) [마을]

[위치] 선학동 남서쪽, 석동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방가골’, ‘방학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방학골(放鶴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방학동(放鶴洞, 방가골)’이라 하였다.

[유래담] 구학산에서 날아온 학이 이곳에서 놀았

으므로 방학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방학동 마을 ; 2019년」

방학동저수지 [못]

[위치] 불당골 앞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방학앞들 [들]

[위치] 방학동 남서쪽, 석동 동쪽 사이의 구학천을 따라 형성된 들을 말한다.

버드내골(1) [골]

[위치] 선학동 북쪽 위 안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높이 541.5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매봉재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버드내골(2) [들]

[위치] 석동에서 남서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현 신림참숯공장과 숲내음펜션이 있는 곳이다. 들 서쪽 위에 여수골들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절골이 이어진다.

벼락바우 [바위]

[위치] 큰골(1) 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 바위가 벼락을 맞아서 벼락바우라고 한다.

병풍바우 [바위]

[위치] 만두재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병풍을 펼쳐 놓은 것 같으므로 병풍바우라고 하였다.

복수네미골 [골]

[위치] 선학동 북쪽 안골에서 북쪽으로, 526.5m 봉

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신림 역골의 복수네미골이 있다.

[유래담] 옛날에 선학동에 사는 사람이 고개 너머 금창리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어 복 많은 사람이라 하였다. 복 많은 사람이 고개를 넘나들면서 쉬어갔다 하여 복수네미라 하였다고 한다.

부터골 [마을] → 선학동

분토골 [마을] → 선학동

[위치] 방학동 북동쪽 아래, 가래머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자로 적어 ‘분토동(芬土洞)’이라 하였고 지금은 ‘선학동’으로 고쳐 부른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부터골(分土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선학동(분토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분토가 많이 나므로 분토골이라 하였는데 분토의 어감이 좋지 않고 주민 간의 송사가 잦으므로 선학동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분토동(芬土洞) [마을] → 선학동

불근데기골 [골]

[위치] 석동에서 북동쪽 558.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북쪽 너머에 선목골이 있다.

[풀이] ‘불은덕골>불은덕이골>불근더기골>불근데기골’로 변하였다. ‘불은덕’은 ‘불대(은)+덕>불은덕>불근덕’으로 주로 흙이 붉은 둔덕(산)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불당골 [골]

[위치] 방학동 남동쪽, 큰골에서 남쪽으로 절바우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방학동저수지가 있다.

[유래] 옛날 불당이 있었으므로 불당골이라 한다.

사동(寺洞) [마을] → 절골

산제당골 [골]

[위치] 큰골(1)에 있는 산제당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산제당이 있어서 ‘산제당골>산지당골’이라

고 한다.

삼형제바위 [바위]

[위치] 당골 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큰 바위 세 개가 형제처럼 나란히 있으므로 삼형제바우라 한다.

석동(石洞) [마을]

[위치] 방학동 서쪽, 황학동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석동거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석동거리(石洞巨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석동거리(석동石洞)’라고 하였다.

[유래] 방학동과 황학동, 구미골로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곳이므로 석동거리라고 하였다. 원래 이름은 ‘석동거리’로, 한자로 ‘石洞巨里’로 적었으나 지금은 이를 단순화하여 ‘석동’으로 부른다.

[내용] 마을 입구의 당숲을 경계로 서쪽은 석동, 동쪽은 방학동으로 나뉜다.



「석동 마을 : 2019년」

석동거리 [마을] → 석동

석동당숲 [숲]

[위치] 석동 마을 앞에 있는 넓은 당숲을 말한다. 숲 안에 성황당과 천지당이 있다.

[내용] 황학천과 구미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숲으로 소나무와 엄나무, 참나무를 비롯한 고목이 우거졌고 가운데로 내가 흐른다. 웃성남의 성황림 닮음으로 당숲이 울창한데 보존 상태는 좋지 않다.

석동들 [들]

[위치] 석동 남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석동성황당 [당]

[위치] 석동 마을 입구 당숲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당숲 안 천지당 옆에 있다.

[내용] 백운산신을 모신다. 제당은 방학동과 석동 두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음력 3월 3일은 방학동에서 제를 지내고, 9월 9일에는 석동에서 제를 지낸다. 옛날에는 소를 잡을 정도로 크게 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돼지를 잡아 제를 지내고 있다.

석동천지당 [당]

[위치] 석동 마을 입구 당숲 안, 성황당 남쪽에 있는 두 그루 엄나무 옆에 있다.

[내용] 자연적으로 제단을 삼고 감실을 설치하였으나 위패는 없다.

석이바위 [바위]

[위치] 큰골 안 닭이집버덩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선목골 [골]

[위치] 안골에서 안반대기와 갈라져 서쪽으로, 높이 620.7m의 수리봉과 525.7m 봉우리 사이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선목골 입구에서 안반대기골이 북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산 너머에는 구미동 역골이 있다.

선바위 [바위] → 손바위

선산재골 [골] → 용암리 선산재골

선학교(仙鶴橋) [다리]

[위치] 선학동 앞에 있던 구학천의 옛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선학교(仙鶴橋)’라고 하였다.

선학동(仙鶴洞) [마을]

[위치] 방학동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부터골’, ‘분토골’, ‘분토동’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선학동(仙鶴洞, 분토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원래 이름은 분토가 나는 곳이어서 ‘분토골’이었고 한자로는 ‘분토동(芬土洞)’이라 하였다. 분토라는 말이 자꾸 다룬다는 어감을 주며 주민들 사

이에 송사가 벌어지고 다툼이 잦다고 생각하여 마을 이름을 선학동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선학동 마을 : 2019년」

선학동성황당 [당]

[위치] 선학동 마을 입구의 당숲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수령 약 250년의 느티나무와 시무나무로 이루어진 당숲에 있다. 백운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9월 9일에 당고사를 지내다가 농사일로 바뀐 철이므로 3월 3일로 변경하였다.

섬바우 [바위]

[위치] 황학동에서 구력재로 넘어가는 산중턱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모양이 마치 곡식날가리인 섬이 쌓여 있는 모양이어서 섬바우라고 한다.

섬바우골 [골]

[위치] 황학동에서 서쪽으로, 구력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섬바우가 있다.

손바우 [바위]

[위치] 황학동 마을 앞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선바우’라 하였다.

[유래] 높이가 약 30m의 바위로, 모양이 마치 손바닥을 세워놓은 것 같으므로 손바우라 하였다.

수리봉 [산]

[위치] 구미동 역골 북동쪽에 있는 높이 620.7m의 산을 말한다.

[내용] 신림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수리봉 북동쪽 아래에 신림의 역골이 있다.

수리산 [산]

[위치] 선학동 복수네미골에서 갈라진 아래다방골 동쪽 끝에 있는 높이 576.7m의 산을 말한다. 산 동쪽 너머에 신림리 아래산뒤골이 있다. 신림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 산이 매우 수려하므로 수리산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숫가마골 [골]

[위치] 황학동 작은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서 숫을 구웠으므로 숫가마골이라고 부른다.

신림초등학교 구학분교 [학교]

[위치] 방학동 북동쪽 아래, 선학동 서쪽 아래에 있던 초등학교를 말한다. 희망캠핑장이 들어서 있다.

[내용] 1953년에 신림국민학교 구학분교로 인가되어 개교하였고, 1996년에 신림초등학교에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신림초등학교 구학분교 : 2019년」

쌍묘구덩이 [골]

[위치] 황학동 마을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쌍묘가 있어서 쌍묘구덩이라고 한다.

아래다방골 [골]

[위치] 복수네미골에서 동쪽으로, 576.7m의 수리

산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웃다방골 아래에 있다.

안골 [골]

[위치] 선학동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안골 안에 복수네미골, 안반데기, 신목골 등 많은 골짜기가 있다. ‘골안’이라고도 한다.

안반데기 [골]

[위치] 안골 안에서 선목골과 갈라져 북쪽으로, 수리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안골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이다. 골 끝에 620.7m의 수리봉이 있고 북쪽 너머로 중시당골을 거쳐 신림 역골 마을에 닿는다.

[유래] 안반(떡을 칠 때 쓰는 넓고 두꺼운 판자) 같은 넓은 바위가 있으므로 안반대기라고 부른다.

애장골 [골]

[위치] 황학동 앞 미소골들에서 북쪽으로, 679.7m 감투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당당골(2)와 여수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여덟마지기들 [들]

[위치] 석동과 구미동 허풍터 사이에 있는 구미골 구미천의 들을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곳을 개간해서 논을 만들었는데 논이 여덟마지기가 나와서 여덟마지기들이라 한다.

여수골 [골]

[위치] 황학동 앞 버드내골 서쪽에서 북서쪽으로, 감투봉 동쪽 625.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신림참숯공장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여수골’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가 반듯하게 노출되어 있어 비가 온 후에 가장 먼저 햇살을 받으므로 여수골이라고 부른다.

여수골들 [들]

[위치] 황학동 미소골들 동쪽 아래에서 구학천을 따라 여수골 앞까지 난 들을 말한다.

역골 [골]

[위치] 구미동 허풍터골 동쪽 맞은편에서 북동쪽으로, 54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 신림리 역골 마을의 큰골이 있다.

역골 [마을]

[위치] 구미동 역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작은 역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신림리의 역골을 ‘큰 역골’이라 하고 구미동의 역골을 ‘작은 역골’이라 한다. 이곳 역골이 신림 역골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옛 신림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

예찬이재 [고개]

[위치] 구미동 이문이골 북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신림면 금창리 예찬, 심박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는 550m이다. ‘구미골재’라고도 한다.

외골 [골]

[위치] 구미동 당당골 북쪽 맞은편에서 북쪽으로, 637.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재래이골 북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운학재 [고개] → 구력재

웃다방골 [골]

[위치] 복수네미골에서 아래다방골과 갈라져 북동쪽으로, 545.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아래다방골 위에 있다.

이리(二里) [마을] → 구학리

이문골 [골]

[위치] 구미동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예찬이재가 있고 고개를 넘으면 작은 강안이골을 거쳐 금당리 예찬 심박골에 닿는다.

인만두재 [고개] → 만두재

작은골 [골]

[위치] 황학동에서 남서쪽으로, 구력재와 만두재로 이어지는 능선의 599.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에서 만두재로 향하는

골짜기가 갈라진다.

작은만두재 [고개]

[위치] 황학동에서 작은목쟁이를 거쳐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만두재보다 작으므로 작은만두재라고 한다.

작은목쟁이 [고개]

[위치] 황학동에서 작은만두재로 가는 길에 있는 잘룩한 고개를 말한다.

작은역골 [마을] → 역골

잔밤나무거리 [터]

[위치] 황학동 입구 큰밤나무거리 맞은편에 있는 터를 말한다.

[유래] 자잘한 밤나무들이 있어서 잔밤나무거리라 한다.

재래이골 [골]

[위치] 구미동에서 북동쪽으로, 59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외골과 역골 사이에 있다. 고개 북쪽 너머에 신림리 역골 마을의 큰골이 있다.

재산박골 [골]

[위치] 선학동 안골의 선목골 아래에서 서쪽으로, 522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서쪽 너머에 석동 불근데기골이 있다.

절골 [골]

[위치] 석동 남서쪽 버드내골에서 남서쪽으로, 구학산 줄기인 55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골짜기 입구에 원주제일감리교회 수양관이 들어서 있다.

[유래]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절골이라고 한다. 지금도 절터에서는 기와조각이 나온다고 한다.

절골 [마을]

[위치] 석동 남서쪽 골짜기, 절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사동(寺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절솔(寺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절골(사동寺洞)'이라고 하였다.

[내용] 옛날에는 20여 가구가 살았으나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절골모퉁이 [모퉁이]

[위치] 절골로 가는 입구의 길모퉁이를 말한다.

절바위 [바위]

[위치] 방학동 불당골 남쪽, 구학산 산줄기의 높이 724.5m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담바우봉 능선의 선산재 서쪽에 있다. 남동쪽 아래에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의 노목마음이 있다.

[유래] 바위의 모습이 마치 사람이 절을 하는 모습이어서 절바우라 한다.

절터골 [골]

[위치] 큰골(2)에서 남동쪽으로 구학산을 향하여 다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정선전씨열녀비(旌善全氏烈女碑) [비]

[위치] 방학동 마을입구 도로변에 있는 비각의 비를 말한다.

[유래] 정선 전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1920년에 정찬모 면장이 주축이 되어 건립하였다. 정선 전씨는 함경도에서 구학리 구미동으로 이주해 와서 살다가 남편이 병들어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죽자 두문불출하며 식음을 전폐한지 9일 만에 따라 죽었다고 한다.



「정선전씨열녀비」 ; 2019년

제당(祭堂) [당] → 황학동제당

제당골 [골] → 산지당골

제비바우골 [골]

[위치] 큰골(1) 안, 문바우 왼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짐승골 [골]

[위치] 당골 중간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남서쪽 끝에서 절골과 합쳐진다.

[유래] 짐승들이 많이 있으므로 짐승골이라 하였다. 절골 안의 골짜기 중 가장 골이 깊고 외져서 낮에도 무섭다고 한다.

차바우 [바위]

[위치] 절골 모퉁이, 말바우 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청목들 [들] → 청목정들

청목정(靑木亭) [누정]

[위치] 선학동 마을 앞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청목정들의 위치를 보아 구학천 옆, 현 선학교 부근으로 추정된다.

청목정들 [들]

[위치] 방학동 남동쪽에서 방학동 동쪽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넓은 들을 말한다. ‘청목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청목של(靑木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청목정들(靑木亭-)’이라고 하였다.

청목정보(靑木亭湫) [보]

[위치] 선학동 앞, 청목정들에 있는 구학천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청목정보(靑木亭湫)’라고 하였다.

큰골(1) [골]

[위치] 방학동에서 남서쪽으로 구학산을 향하여 남서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대곡(大谷)’이라고도 한다.

큰골(2) [골]

[위치] 황학동에서 구학산을 향하여 남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상류에서 절터골이 남동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큰골 [마을]

[위치] 큰골(1) 안, 구학산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쪽에 구학산방과 칠백고지펜션 등이 들어서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큰골(대곡大谷)’이라고 하였다.

[내용] 옛날에는 20여 가구가 살았으나 1970년대 화전민 이주정책으로 마을이 비었다가 2000년대에 다시 마을이 들어섰다.

큰밤나무거리 [길]

[위치] 황학동 입구에 있는 길을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 큰 밤나무 두 그루가 있어서 큰밤나무거리라고 하였다.

피나무터 [터]

[위치] 구미동 옛 송어양식장 앞에 있는 터를 말한다.

[유래] 피나무가 많이 있었으므로 피나무터라 하였다.

허풍터 [마을]

[위치] 역골 앞, 허풍터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구미동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담] 옛날 이곳에 허풍이 심한 사람이 살았으므로 허풍터라 하였다.

허풍터골 [골]

[위치] 구미동 남쪽, 역골 남쪽 맞은편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625.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황학동(黃鶴洞) [마을]

[위치] 구학산 북동쪽 아래, 구력재 남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누옹가리(黃鶴洞)’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황학동(黃鶴洞, 누른가리)’라고 하였다.

[유래] 원래 이름 ‘누른가리’를 한자로 훈차, 음차하여 ‘황학동(黃鶴洞)’이라 하였다. ‘누른가리’는 ‘두

고을의 경계가 되는 넓은 곳'의 뜻이다.

[유래담] 지세가 높은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여 황학동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 학을 높은 학이라고도 하고 학의 새끼라고도 한다.

[내용]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로 넘어가는 구학리의 마지막 마을이다. 현재 597번 구학산로가 마을의 북쪽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 황학동이라는 한자 이름보다는 '누른가리'라는 순우리말 지명으로 더 알려져 있고 한때는 50여 가구가 살았던 큰 마을이었다.

[풀이] '누른가리'는 넓다는 뜻인 '너르·노르·누르'+가리(갈래)>누른가리가 되었다. 한자로는 '누르'를 넓다는 뜻을 취하지 않고 누른색으로 보아 '황(黃)'자를 취하였고 '구락·구력'의 '락·력'을 '학(鶴)'으로 음차한 것과 같이 '누르'를 '누락·누력'으로 보고 '학(鶴)'으로 취하여 다른 '학'자 마을과 동질감을 추구하였다.

'가리'는 '갈'에서 파생된 것으로, '가리파'처럼 산줄기가 갈린 목, 또는 고장이 크게 나누어지는 곳에 주로 쓰인다. 따라서 '누른가리'는 '두 고을의 경계가 되는 넓은 곳'의 뜻이다.



「황학동 마을 ; 2019년」

황학동산지당 [당]

[위치] 황학동 남쪽 큰골(2) 산지당골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마을에서 40분 걸리는 먼 곳에 있다.

[내용]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삼월 삼짇날에 세 군데 제당에 제를 지내는데 산지당에서 첫 번째로 산신제를 지낸다. 구학산 산신을 모시고 있다.

황학동서낭 [나무]

[위치] 구력재 정상에 있는 서낭을 말한다. 당집은 없고 돌배나무를 서낭으로 섬긴다. 마을에서 제사 지내는 세 군데 제당 중 맨 마지막으로 치성을 드린다.

황학동성황당 [당]

[위치] 황학동 마을 안 구학천 옆, 소나무 당숲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제당 세 군데 중 마을에 있으므로 '동네당'이라고도 한다.

[내용] 매년 음력 삼월 삼짇날에 세 군데 제당에 제를 지내는데 동네당에서는 산신제에 이어 두 번째로 제사를 지낸다.



「황학동성황당 ; 2019년」

황학동제당 [당]

[위치] 황학동에 있는 세 곳의 제당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제당(祭堂)'이라고 하였다.

[내용] 작은 동네지만 제당은 세 군데 있다. 즉 큰골의 '산지당', 마을에 있는 '성황당', 구력재에 있는 '서낭'이 그것이다. 이 세 곳의 제당이 마을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삼월 삼짇날에 세 군데에 모두 제를 지내고 있다.

황학천(黃鶴川) → 구학천

휘추리바우골 [골]

[위치] 큰골(1)에 있는 사잇골을 말한다.

[유래담] 산자락이 휩 휘돌아나갔다고 하여 휘추리바우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금창리(金倉里)

[위치]

금창리는 신림면의 북서쪽에 있다.

동쪽으로는 성남리, 서쪽으로는 가리파고개를 경계로 판부면 금대리, 남쪽으로는 구학리, 남서쪽으로는 충북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와 접해 있고, 북쪽은 금대리·성남리와 접해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가리파면(加里坡面)의 지역으로 일리(一里)라고 하였다.

1914년에 금옥동·강안·둔창·예찬·흑천을 병합하여 금창리(金倉里)라고 하여 원주군 가리파면 금창리가 되었다.

1917년에 가리파면을 신림면(神林面)으로 개칭함에 따라 원주군 신림면 금창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로 승격할 때 원주군을 원성군으로 바꾸어서 원성군(原城郡) 신림면 금창리가 되었다.

1989년 다시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바뀌면서 원주군 신림면 금창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가 되었다.

[유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현 신림리에 소속된 금옥동(金玉洞)과 둔창(屯倉)의 이름을 따서 금창리(金倉里)라 하였다.

가르패 [고개] → 가리파재

가르패 [마을] → 가리파

가르패재 [고개] → 가리파재

가리치(加里峙) [고개] → 가리파재

가리파(加里坡) [고개] → 가리파재

가리파(加里坡) [마을]

[위치] 가리파재 동쪽, 둔창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가리파동’, ‘가르패’, ‘가리파’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가리파치(加里坡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리파(가리파동加里坡洞)’라고 하였다.

[유래] 원주와 신림의 두 고을이 크게 갈라지는 고개에 마을이 있으므로 가리파라 하였다.

[풀이] ‘가리’는 분기(分岐)를 뜻하는 ‘갈’에서 파생된 것이다. ‘가리’가 들어간 이름은 산줄기가 갈린 목, 또는 마을이나 고을이 크게 나누어지는 곳에 주로 나타난다. ‘파’는 언덕, 고개를 뜻하므로 가리파는 산줄기가 갈린 고개나 언덕, 또는 고을이 나누어지는 고개라는 뜻이다. 즉 가리파재를 중심으로 원주와 신림의 두 고을이 크게 나누어지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가리파 마을 ; 2019년」

가리파고개 [고개] → 가리파재

가리파굴 [굴] → 둔창굴

가리파동(加里坡洞) [마을] → 가리파

가리파성황당 [당]

[위치] 가리파 고개 정상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옛날 가리파와 짜리치를 넘어 원주와 제천을 오가던 보부상들이 호랑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갯마루에 성황당을 짓고 산신제를 지냈다. 1890년대에 성황계를 조직하여 가리파에는 백운산신을, 짜리치에는 치악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제를 올렸다. 제사는 같은 날 짜리치에서 먼저 지낸 후 가리파에서 지내는데 짜리치에서 제사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가리파제에는 꼭 참석하였다고 한다. 현재 성황당 기념비에는 계원 약 40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가리파성황당 ; 2019년」

가리파재 [고개]

[위치] 금창리와 판부면 금대리의 경계가 되는 높이 약 450m의 고개를 말한다. ‘가르패재·가리파고개·가리파·가리파재·잿말랭이’라고도 한다. 현재 이 고개를 지나는 중앙고속도로에 치악재라는 이름을 붙인 이후 ‘치악재’로 불리고 있다. 『여지도서』에 ‘가리파치(加里破峙)’, 『대동지지』에 ‘가리치(加里峙)’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가리파지(加里坡峙)’, ‘가리파제(加里坡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리파재(加里坡-)’라고 하였다.

[내용] 치악산과 백운산 사이를 관통하는 고개로 작게는 판부면 금대리와 신림면 금창리, 크게는 원주와 신림을 나누는 경계이다. 옛날에는 산적과 호

랑이가 출몰하는 매우 험한 고개였으나 지금은 도로가 확장되고 직선화되었다.

가리파치(加里坡峙) [고개] → 가리파재

가리파 [마을] → 가리파

가리파재 [고개] → 가리파재

강아지바우 [바위] → 복실이바우

강안(江安) [마을] → 강안이

강안이(江安-) [마을]

[위치] 둔창 남서쪽, 강안이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강안’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강한니(江漢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강안이(강안江安)’이라 하였다.

[유래] 금창천 안쪽 깊은 곳에 마을이 있으므로 ‘강안’이라 하였다. 또는 옛날 난리가 났을 때 강씨와 안씨가 피난하였다고 하여 ‘강안’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풀이] ‘강의 안쪽’이라고 하여 ‘강+안+(ㅣ)>강안, 강안이’가 되었다. ‘물+안>물안’이나 ‘섬+안+(ㅣ)>섬안이>서마니’와 같은 이치이다.

강안이골 [골]

[위치] 둔창 남서쪽, 금창골 입구에서 남서쪽으로, 꽃대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강안이 마을이 있다.

거무내 [마을] → 흑천

거무내골 [골]

[위치] 둔창 북서쪽, 가리파재로 올라가는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흑천 마을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 치악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거무내산 [산] → 성남리 거무내산

거무내재 [고개] → 성남리 거무내재

[위치] 흑천 성남골 동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성남리 아랫성남이 있다. 고개 높

이는 약 670m이다. ‘큰재’라고도 한다.

구미골재 [고개] → 예찬이재

국지번둔 [들]

[위치] 예찬 마을 남서쪽 아래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굴바우골 [골]

[위치] 바깥다리실에서 말뚝바우골과 갈라져 북쪽으로 시명봉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금옥동(金玉洞) [마을] → 신림리 금옥동

금창계곡(金倉溪谷) [골]

[위치] 예찬에서 동쪽으로 둔창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둔창내가 흐르고 있다. ‘금창골’이라고도 한다.

금창골 [골] → 금창계곡

금창리들 [들]

[위치] 금창리 중 둔창 주변의 넓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금창리들’이라고 하였다.

금창천(金倉川) [내]

[위치] 가리파 고개에서 시작하여 흑천, 금옥동을 지나 둔창 앞에서 둔창천과 합류하고 역골 앞에서 역곡천과 합류한 다음 신림에서 주포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기시매골 [골] → 지시매골

경뚱막골 [골]

[위치] 흑천 마을에서 서쪽으로, 심봉 아래를 거쳐 가리파로 넘어가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담] 옛날에 이곳에 움막을 짓고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가장이 매일 술을 먹고 다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부인이 남편이 나간 사이에 불을 질러 아이들과 함께 자살했다고 한다. 남편은 불에 놀라 쩌뚝거리며 도망갔다고 해서 쨍뚱막이라 한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내다리실(內多里室) [마을] → 안다리실

노적봉재 [고개]

[위치] 둔창에서 서쪽으로, 동덩이를 거쳐 예찬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늘목 [마을]

[위치] 금창 계곡 늘목골 안, 예찬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늘목’이라고 하였다.

늘목골 [골]

[위치] 예찬 외다리실에서 남쪽으로, 657.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늘목 마을이 있다.

[유래] 골 입구는 좁은데 골안은 터가 매우 넓으므로 늘목골이라 하였다.

[풀이] ‘목’은 그 지점을 꼭 통과하여야 하면서 좁아지는 곳에 붙는 이름이다. ‘늘’은 ‘넓다, 늘어나다’의 뜻으로 ‘늘, 노루, 너르, 널, 늘’ 등으로 쓰인다. 골 입구가 좁으므로 ‘목’이며, 목 안의 골이 넓으므로 ‘늘목’으로, ‘안이 넓어지는 목’이라는 뜻이다.

다리실 [마을]

[위치] 가리파재 북쪽에 붙어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국도 5호선 치악로에 있는 치악휴게소(옛 가리파휴게소) 동쪽,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치악휴게소의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위에 자비사와 명경사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다리질(多里宗)’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다리실(多里室)’이라고 하였다.

[유래] ‘달(山·高)+실(谷)>달살>달()살>다리실’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리실’은 ‘높은 산골짜기’, 또는 ‘높은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이때 ‘다리’를 ‘다리(橋)’로 보아 예전에 이 마을 앞에 돌로 만든 다리가 있었으므로 다리실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가리파 정상에 있는 이 마을을 ‘다리실’이라 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동쪽 신림 방면 골짜기

의 마을을 ‘바깥다리실’(치악휴게소 북동쪽 마을), 고개 정상에서 서쪽 아래의 넓은 골짜기를 ‘큰다리실골’, 큰다리실골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긴 골짜기를 ‘안다리실골’이라고 부른다. ‘안다리실골’은 시명봉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능선과 연결되는 깊고 험한 골짜기이다. 한편 ‘큰다리실’과 비교하여 이곳 다리실을 ‘작은다리실’로 부르기도 한다. 가리파 옛 고갯길에서 본다면 가리파 남동쪽이 산이 낮으며 들이 펼쳐지므로 바깥인 셈이고, 상대적으로 서쪽이 산세가 가파르고 골이 깊으므로 안쪽으로 보아 다리실을 중심으로 안과 밖을 구별하였다. **[풀이]** ‘다리실’은 ‘다리+실’인데 ‘실’은 골짜기를 뜻하고 ‘다리’는 ‘높은 곳(高), 산(山)’을 의미하는 옛말 ‘달’에서 나온 것이다. 즉 ‘달(山, 高)+실(谷)>달살>달()살>달이살>다리실’이 되었다. ‘이’는 매개모음이다. 따라서 ‘다리실’은 ‘높은 산의 골짜기’란 뜻이다. ‘산’을 뜻하는 ‘달’은 ‘박달재’, ‘달봉’처럼 전국의 산 이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를 하늘의 ‘달’로 보아 ‘월(月)’로 적어 ‘월악산’, ‘월출산’, ‘월봉’ 등과 같은 ‘월(月)계통의 산 이름’을 낳았다.



「다리실 마을 : 2019년」

당작골 [골]

[위치] 둔창 지시매골 남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둔창신령당이 있는 강안이골 동쪽, 작은당 서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동쪽 능선

에 작은당이 있다.

독수리바우 [바위]

[위치] 매봉재 밑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유래] 독수리가 새끼를 치고 살았으므로 독수리 바우라 한다.

동네당 [당] → 둔창성황당

둔창(屯倉) [마을]

[위치] 가리파재 남동쪽, 신림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금창리에서 중심된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둔창(屯倉)’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둔창(屯倉)’이라고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둔전(屯田)의 쌀을 저장하던 창고가 있었으므로 ‘둔창(屯倉)’이라고 하였다. 둔전은 역골의 신림역에 소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둔창 마을 : 2019년」

둔창굴 [굴]

[위치] 판부면 금대리 원동에서 시작하여 신림면 금창동 둔창까지 이르는 옛 중앙선 철도의 긴 터널을 말한다. ‘치악굴’, ‘십리굴’, ‘가리파굴’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지명총람』에 ‘십리굴(가리파굴, 둔창굴, 치악굴)’이라고 하였다.

[유래] 이 터널은 길이가 3,650m로서 약 십리가 되므로 십리굴이라고도 한다.

둔창내 [내] → 둔창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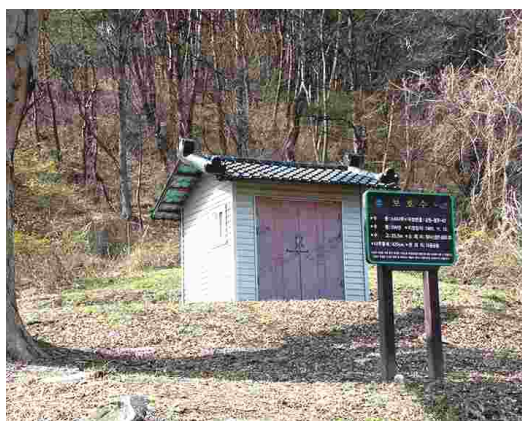
둔창리당숲 [숲]

[위치] 둔창에 있는 당숲을 말한다. 큰당과 작은당 주위에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둔창성황당 [당]

[위치] 둔창 마을 뒷산에 있는 성황당으로, ‘동네당’이라고도 한다.

[내용] 수령 약 200년의 느티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백운산신을 모셨다.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제사를 지낸다. 둔창에는 원래 다섯 군데 마을 제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신령당과 성황당 두 군데만 남아있다.



「둔창성황당 : 2018년」

둔창신령당 [당]

[위치] 둔창성황당 남서쪽, 강안이골 입구에 있는 제단을 말한다. 이 당을 ‘큰당’, 동쪽 능선에 있는 당을 ‘작은당’이라고 부른다.

[내용] 바위 벼랑 아래에 자연석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위패를 모셨다. 제단이 있는 벼랑 위에는 울창한 소나무 당숲이 있다. 백운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제사를 지냈다. 둔창에는 원래 5군데 제당이 있었다. 신령당(큰당)과 둔창성황당(동네당), 작은당 세 군데에 제사를 지냈는데 현재 큰당과 동네당만 남아있고, 제사는 2000년대부터 동네당 한 군데만 지내고 있다. 마을 주민이 줄어든 탓에 당에 딸린 논 5~6마지기도 매각하여 제사의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둔창신령당 ; 2018년’

둔창작은당 [당]

[위치] 둔창성황당 남서쪽, 둔창신령당 동쪽, 당작골 동쪽 능선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서쪽 강안이 골 입구의 둔창신령당을 ‘큰당’, 이당을 ‘작은당’이라 하였다. 2000년대부터 제사가 폐지되었다.

둔창천(屯倉川) [내]

[위치] 둔창 서쪽 벼락바위봉과 예찬에서 시작하여 금창계곡, 둔창을 거쳐 금창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둔창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둔창내(둔창천屯倉川)’라고 하였다.

둔창터(屯倉-) [터]

[위치] 옛날 둔전(屯田) 창고가 있던 터를 말한다. 현재 둔창 마을회관 부근의 밭으로 알려져 있다.

등덩이 [마을]

[위치] 둔창 서쪽, 금창계곡 안 가파른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등등’, ‘등덩이’, ‘용동’이라고도 한다. 현 신림유격장이 들어서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등덩이(용동)’라고 하였다.

[유래] 가파른 둔덕에 있는 마을이므로 ‘둔둔>등등>등덩’ 등으로 불렸다.

[풀이] 초소면 둔둔리(<둔+둔>처럼 ‘둔+덩이>둔덩이>둔덩이>등덩이’, ‘둔+둔>둔둔>등등’, ‘둔둔+(ㅣ)>둔둔이>등등이>등덩이’ 등으로 음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덩이’, ‘ㅣ’는 접미사이다. ‘둔(屯)’은 ‘덕(德)’과 같이 ‘언덕, 둔덕’을 가리키는 지명소이다. ‘덕’은 크고 우람한 산의 의미로도 쓰인다.

등덩이골 [골]

[위치] 등덩이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776.5m 찰방망이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쪽에 현 신림유격장이 들어서 있다.

등등 [마을] → 등덩이

등덩이 [마을] → 등덩이

등지봉 [산]

[위치] 금창리에 있는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등지봉’이라고 하였다.

[유래] 산모양이 닭의 등지처럼 생겨서 등지봉이라고 한다.

막골(1) [골]

[위치] 예찬 외다리실에서 북쪽으로, 629.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늘목골 북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골짜기 끝이 막혀 있어 더 이상 가지 못하므로 막골이라고 하였다. 또는 이 골에 큰 뱀이 살았는데 이 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죽으므로 막골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막골(2) [골]

[위치] 바깥다리실 말뚝바우골 위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갈라져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말굽바우 [바위] → 말뚝바우

말뚝바우 [바위]

[위치] 말뚝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말굽바우’라고도 한다.

[유래담] 옛날 치악산 상원사 주지가 백련사와 상원사를 오가며 바람을 피울 때 용마가 내려앉은 말발자국이 남아있으므로 ‘말굽바우’ 또는 ‘말뚝바우’라 하였다.

말뚝바우골 [골]

[위치] 바깥다리실 마을에서 북쪽 시명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서 막골이 갈라져 나가고 막골 서쪽에 화채봉이 있다.

[유래] 말뚥바우가 있어서 말뚥바우굴이라 하였다.

매봉재 [산]

[위치] 강안이 마을 남동쪽에 있는 높이 604.9m의 산을 말한다. 신림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수리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독수리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수리봉이라고도 한다.

문지기당숲 [숲]

[위치] 예찬 마을 입구에 있는 예찬하당의 당숲을 말한다.

[유래] 둔창에서 예찬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으므로 ‘문지기당숲’이라고 한다.

바깥다리실 [마을]

[위치] 바깥다리실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밖다리실’이라고도 한다.

[유래] 가리파고개 북쪽의 다리실 마을을 중심으로 남동쪽 밖에 있으므로 ‘바깥다리실’이라 하였다. 금대리 쪽 계곡에 있는 마을은 ‘안다리실’이라 부른다.

바깥다리실골 [골]

[위치] 가리파마을과 거무내골 중간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치악휴게소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밖다리실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골짜기 안에 바깥다리실 마을이 있고 마을 북쪽 위에 말뚥바우골과 막골, 굴바우골이 있다.

바랑골 [골]

[위치] 흑천 마을에서 북쪽 787.7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의 형상이 마치 중이 지고 다니는 바랑같이 생겼으므로 바랑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풀이] ‘바랑’은 ‘벼랑’의 방언이다. ‘바랑골’은 골짜기에 바위벼랑이 있을 때 붙는 지명이다.

박쥐둥굴 [굴]

[위치] 매봉재 밑에 있는 굴을 말한다.

[내용] 사람 20여 명 정도가 들어갈 크기의 큰 굴로, 한국전쟁 때 이 굴에서 마을 사람들이 피난살이를 하였다고 한다.

밖다리실 [마을] → 바깥다리실

밖다리실골 [골] → 바깥다리실골

밤나무골 [골]

[위치] 예찬에서 서쪽 백운면 운학리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백운산 [산] → 흥업면 백운산

범잡은골 [골]

[위치] 금창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동네 사람을 물어간 범을 이 골에서 잡았다고 하여 범잡은골이라 한다.

벼락바우 [바위]

[위치] 벼락바우봉 정상 옆 849.9m 높이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벼락바우’라고 하였다.

[유래] 바위가 벼락을 맞아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으므로 벼락바우라 한다.

벼락바우골 [골]

[위치] 예찬 북서쪽, 찰방망이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벼락바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벼락바우봉 [산]

[위치] 찰방망이 북서쪽에 있는 높이 939m의 산을 말한다. 판부면 금대리와 경계되는 산이다.

[내용] 서쪽 백운산과 이어지는 큰 산줄기의 일부이다. 북동쪽 아래에 치악산자연휴양림이 있다.

복실이바우 [바위]

[위치] 찰방망이봉 동쪽 773.5m 높이의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강아지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바위 모양이 강아지 모양을 닮아서 강아지바우, 복실이바우라고 부른다.

불당골 [골]

[위치] 예찬에서 북서쪽으로, 찰방망이 마을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삼봉(三峰, 蓼峰) [산]

[위치] 동덩이 북쪽, 칠봉암 남서쪽에 있는 높이 729.5m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한 큰 바위산들을 말한다.

[유래] 봉우리가 세 개가 있으므로 삼봉이라고 한다. 또는 옛날에 삼씨 서 말을 뿌렸다고 해서 삼봉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내용] 삼봉산에 올라가면 더덕냄새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한다. 골짜기가 깊어서 귀가 달린 뱀이 있다고 한다.

상당(上堂) [당] → 예찬신령당

설통바우 [바위]

[위치] 칠봉암 밑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별통을 많이 두고 양봉을 하였으므로 설통바우라 한다.

성남골 [골]

[위치] 흑천 마을에서 동쪽 694.3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동쪽 끝에 거무내재가 있다.

[유래] 골짜기의 끝 거무내재 너머 성남리가 있으므로 성남골이라 하였다.

쇠골 [마을] → 신림리 금옥동

수리봉 [산] → 매봉재

숫가마골 [골]

[위치] 거무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숫을 굽던 가마가 있었으므로 숫가마골이라 한다.

승지골 [골]

[위치] 흑천 작은거무내골 남쪽의 도로 건너 맞은편에서 남서쪽으로, 575.1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흑천 마을 입구 서쪽 건

너편에 있다.

시명봉(始明峰) [산]

[위치] 치악산 남대봉 남쪽, 가리파재 북쪽에 있는 높이 1,196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성남리, 금대리, 금창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 치악산 줄기에서 가장 남쪽에 있으므로 빛이 시작되는 곳이라 하여 시명봉(始明峰)이라 하였다.

시묘터 [터]

[위치] 흑천 성남골에 있는 터를 말한다. ‘시무터’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에 이곳 연못 옆에 묘를 쓰고 여자가 시묘살이를 했다고 한다. 시묘살이 하는 여자를 동네 불량배가 겁탈하여 여자가 연못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연못은 메워지고 흔적이 없지만 아직도 연못자리에서 물이 난다고 한다.

시무터 [터] → 시묘터

심박골 [골]

[위치] 예찬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남동쪽으로 작은강안이골이 갈라져 나간다. ‘심밭골’, ‘심뵈골’이라고도 한다. 음운 변화하여 ‘흰바위골’이라고 하기도 한다.

[유래] 옛날 이곳에 심씨와 박씨가 처음 정착하여 마을을 일구었으므로 심박골이라 하였다 한다. 또는 옛날 이 골에서 산삼을 많이 캐서 심뵈다고 하여 ‘심뵈골>심밭골’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심밭골 [골] → 심박골

심봉 [산]

[위치] 바깥다리실 동쪽, 흑천 북서쪽에 있는 높이 570.3m의 봉우리를 말한다.

심뵈골 [골] → 심박골

십리굴 [굴] → 둔창굴

안다리실 [마을] → 판부면 금대리 안다리실

안다리실골 [골] → 판부면 금대리 안다리실골

여찬 [마을] → 예찬

여찬이 [마을] → 예찬

예찬(禮贊) [마을]

[위치] 금창계곡 서쪽 끝, 심박골과 찰방망이골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날 관행(官行) 길이었다고 한다. 현 심박골관광농원이 들어서 있다. ‘여찬이’, ‘예찬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여찬니(余贊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예찬이(예찬리禮贊里)’라고 하였다.



「예찬 마을 ; 2019년」

예찬당숲 [숲]

[위치] 예찬 마을 한가운데 중당이 있는 숲을 말한다.

예찬리(禮贊里) [마을] → 예찬

예찬상당(禮贊上堂) [당] → 예찬신령당

예찬신령당(禮贊神靈堂) [당]

[위치] 예찬 북쪽 찰방망이골 입구에 있는 산신령을 모신 당집을 말한다. ‘상당’이라고도 한다.

[내용] 마을에서 모시는 세 당 중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상당(上堂)이라고 한다.

예찬이 [마을] → 예찬

예찬이재 [고개]

[위치] 예찬 앞 작은강안이골에서 남쪽 구학리 구

미동 이문이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550m이다. ‘구미골재’라고도 한다.

예찬중당(禮贊中堂) [당]

[위치] 예찬 심박골 마을 한가운데 당숲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중당’이라고도 한다.

[내용] 마을에서 모시는 세 개의 당 중 가운데에 있으므로 중당이라고 한다. 백운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제사를 지낸다. 상당은 신령당이다.



「예찬중당 ; 2019년」

예찬하당(禮贊下堂) [당]

[위치] 예찬 막골과 큰골 사이에 있던 당집을 말한다. 노적봉재 남서쪽, 외다리실과의 중간 길가 오리바우 아래에 있던 당이다. ‘하당’이라고도 한다.

[내용] 마을에서 모시는 세 개의 당 중 아래에 있으므로 하당이라 하였다. 백운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제사를 지냈다. 2018년에 철거하였다.

오리바우 [바위]

[위치] 예찬 외다리실 북동쪽, 노적봉재 북서쪽 아래 길옆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모습이 오리를 닮아서 오리바우라 하였다고 한다.

[내용] 바위 아래에 예찬하당이 있었다. 2018년에 철거하면서 바위도 일부 파괴되었다.

옥구골 [골]

[위치] 거무내 서쪽에 있는 굴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옥구굴’이라고 하였다.

외다리실 [마을]

[위치] 예찬 마을 입구, 늘목골 맞은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막골 입구에 있다.

용동 [마을] → 동덩이

이재 [고개]

[위치] 찰방망이 마을 남쪽 바로 아래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내용] 찰방망이재를 넓히면서 현재는 이 고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 때 많은 인민군들이 이 고개를 넘어 퇴각했다고 한다.

일리(一里) [마을] → 금창리

작은강안이골 [골]

[위치] 예찬 마을 남쪽에서 흰바우골과 갈라져 남동쪽으로, 푼대봉을 향하여 휘어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골짜기 동쪽 너머에 강안이골과 강안이 마을이 있다.

작은거무내골 [골]

[위치] 거무내골 북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5번 치악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작은당 [당] → 둔창작은당

작은문지방고개 [고개]

[위치] 꺾동막에서 북쪽으로, 상원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장자터 [터]

[위치] 가리파 장자터골 안에 있는 부잣집 터를 말한다.

장자터골 [골]

[위치] 가리파 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금대리 안다리실 마을이 있다.

갯말랭이 [고개] → 가리파재

절충장군묘터 [터]

[위치] 예찬 마을에 있는 절충장군 평귀옥의 묘터를 말한다.

[내용] 임진왜란 때 절충장군을 지낸 인물로 추정되는 묘터이다. 봉분과 비석이 사라지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주리봉 [산]

[위치] 둔창리 마을 남쪽 앞, 옷갈곡동 북서쪽에 있는 높이 492.1m의 산을 말한다.

중당(中堂) [당] → 예찬중당

지스매골 [골] → 지시매골

지시매골 [골]

[위치] 둔창 마을 서쪽, 강안이골 북쪽 맞은편에서 북서쪽으로, 552.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기시매골’, ‘지스매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지스매골’이라고 하였다.

찰방망이 [마을]

[위치] 예찬 북쪽, 찰방망이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찰방매기’, ‘찰방목’, ‘찰방향’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찰방목(찰방향察訪項)’이라고 하였다.

찰방망이고개 [고개]

[위치] 동덩이 서쪽, 예찬 북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북쪽 너머에는 찰방망이골, 치악산자연휴양림이 있다. 고개 높이는 645m이다. ‘찰방목’, ‘찰방향’이라고도 한다.

[유래] 역골의 옛 신림역에는 관리가 없었으므로 단구역의 찰방(察訪)이 신림역을 관장하느라 이 고개를 넘어 다녔으므로 찰방망이라고 부른다. 또는 원주 원씨가 이곳에 묘를 쓰고 후손 중에 찰방(察訪) 관직이 났으므로 찰방망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찰방망이골 [골]

[위치] 예찬에서 북쪽으로, 찰방망이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찰방망이봉 [산]

[위치] 동댕이 북서쪽, 찰방망이골 동쪽에 있는 높이 796.1m의 봉우리를 말한다. 칠봉암 서쪽, 삼봉 북서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찰방매기 [마을] → 찰방망이

찰방목(察訪-) [마을] → 찰방망이

찰방항(察訪項) [마을] → 찰방망이

치마바우 [바위]

[위치] 둔창리 주리봉 밑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이 바위를 건들면 동네 처녀들이 바람이 난다고 한다.

치악굴(雉岳窟) [굴] → 둔창굴

치악재 [재] → 가리파재

칠대바우 [고개]

[위치] 예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칠봉암(七峰庵) [절]

[위치] 가리파 남서쪽, 높이 646.2m 봉우리에 있는 태고종 사찰이다. 찰방망이봉 동쪽에 있다.

큰골 [골]

[위치] 둔창과 예찬 사이 노적봉재에서 북쪽으로, 높이 672.1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동댕이골 서쪽, 외다리실 막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내용] 범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큰다리실골 [골] → 판부면 금대리 큰다리실골

큰당 [당] → 둔창신령당

큰문지방고개 [고개]

[위치] 작은문지방고개 위에 있는 큰 고개를 말한다. 꺾뚝막골에서 북쪽으로, 상원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큰재 [고개] → 거무내재

하당(下堂) [당] → 예찬하당

함터 [터]

[위치] 둔창 맞은편에 있는 터를 말한다.

[내용] 관혼상제 때 사용하는 물건들을 수작업으로 만들던 터이다. 이곳에서 혼인 때 쓰는 예물함과 혼인예복, 폐백물품 등을 만들었다고 한다.

화채봉 [산]

[위치] 바깥다리실 말뚝바우골 위, 막골 서쪽에 있는 677m의 봉우리를 말한다. 판부면 금대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에 있다.

[유래] 봉우리의 모양이 둥그런 기차화통 같다고 하여 화채봉이라고 한다.

흑천(黑川) [마을]

[위치] 가리파 남동쪽, 둔창 북서쪽 거무내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거무내’, ‘흑천’, ‘흑천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거무네(黑川)’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무네(흑천黑川, 흑천동黑川洞)’라고 하였다.

[유래] ‘검+내>검내>거무내’이다. ‘검, 거무’는 ‘신(神)’을 뜻하는 ‘검’, ‘내’는 ‘땅(土, 壤)’ 또는 ‘내(川)’를 의미한다. ‘신이 깃든 신성한 땅’이라는 뜻이다.

[풀이] 이 지역에 있는 거무내 관련 지명은 ‘거무내’, ‘거무내골’, ‘거무내산’, ‘거무내재’ 등이 있다. 즉 ‘거무내’란 지명이 이곳 흑천을 비롯, 산줄기로 이어진 성황림 옆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어원상으로 ‘거무’는 ①‘검다(黑)’는 뜻, ②‘곰’으로 보아 ‘뒤(後)’의 뜻, ③‘검>검, 검, 곰’으로 보아 ‘검(神)’의 뜻으로 볼 수 있다. 한자 지명 ‘흑천(黑川)’으로 기록하였으나 냇물이 검지는 않으므로 주변 정황으로 보면 성황림에 신을 모셨고, 당숲이 신성시된 것으로 보아 ③의 뜻, 신(神)을 뜻하는 ‘검’에서 음운 변천된 것으로 보인다.

옛말 ‘검’은 ‘검·가마, 곰·고모, 검·거무’ 등으로 파생되어 ‘높고 큰’, ‘신성한’ 등의 의미로 널리

리 쓰였고, ‘내’는 ‘땅, 들(土, 壤)’을 뜻하기도 하고 ‘내(川)’를 뜻하기도 하였다. 즉 ‘거무내’는 ‘곰 +내>검내>거무내’가 된 것으로 ‘신성한 땅’을 의미한다.



「흑천 마을 : 2019년」

흑천동 [마을] → 흑천

흑천 [마을] → 흑천

흰바우골 [골] → 심박골

성남리(城南里)

[위치]

성남리는 신림면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매화산 줄기를 경계로 하여 황둔리, 서쪽으로는 금창리·판부면 금대리, 남쪽으로는 신림리, 북쪽으로는 남대봉을 경계로 하여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가리파면(加里坡面) 지역으로 사리(四里)라고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가둔지·절골·상원동·전불·주련동을 병합하여 성남리(城南里)라 하여 원주군 가리파면 성남리가 되었다.

1917년 가리파면을 신림면(神林面)으로 개칭함에 따라 원주군 신림면 성남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할 때 원주군을 원성군으로 바꾸어서 원성군(原城郡) 신림면 성남리가 되었다.

1989년 다시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바뀌면서 원주군 신림면 성남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가 되었다.

[유래]

‘성남(城南)’이라는 이름은 절골에 있는 ‘석남사(石南寺)’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석남>성남’으로 음운 변화한 것이다.

[풀이]

원래의 석남사(石南寺)를 『여지도서』에서는 성남사(城南寺)라 하였다.

『여지도서』(1757~1765)에 상원사(上院寺, 12칸)와 성남사(城南寺, 6칸)가 따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때 성남사는 곧 석남사를 지칭한 것이다. 따라서 『여지도서』가 쓰인 1700년대 이전부터 ‘석남’이 ‘성남(城南)’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후삼국시대에 궁예가 절골의 석남사를 터전으로 삼아 영월·평창·정선·강릉 등을 통합 지배하여 석남사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이었을 것이므로 ‘석남>성남’은 자연스런 음운 현상으로 짐작된다.

한편 성남리 북쪽 치악산 향로봉에 금두산성(金頭山城)이 있어 성(城)의 남쪽이란 뜻에서 성남(城南)으로 불렸다고도 하나, 거리나 지형·인문지리로 볼 때 금두산성과 성남리와는 연관이 없으므로 믿기 어렵다.

가둔지(加屯地) [마을]

[위치] 언당 북쪽, 아랫성남 남쪽, 성남리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가둔지(加屯之)’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둔지(加屯地)’라 하였다.

[유래] 본 마을에서 보아 외떨어진 둔덕에 마을이 있으므로 ‘가둔지’라 하였다.

[풀이] 가둔지는 ‘가+둔+지>가둔지’로 ‘가’는 ‘邊’의 뜻이며 ‘둔’은 언덕, ‘지(地)’는 ‘곳, 장소’를 뜻하는 지명소이다. 옛 기록에 ‘지’는 대체로 ‘只’로 표기하였는데 여기에서는 ‘地’로 표기하였다.



「가둔지 마을 ; 2019년」

가둔지들 [들]

[위치] 가둔지 마을 서쪽 앞에서 남쪽으로 언당까지 이어진 넓은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가둔지들(加屯之坪)’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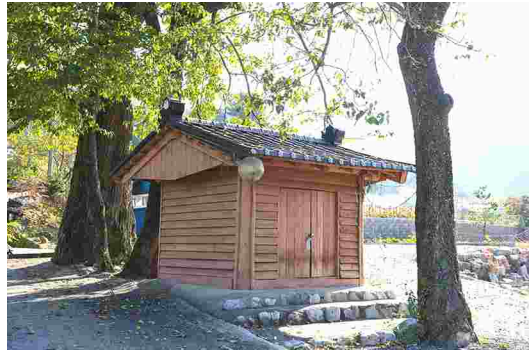
「가둔지들 ; 2019년」

가둔지들 [들] → 가둔지들

가둔지성황당 [당]

[위치] 가둔지 마을 입구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엄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매년 음력 초파일과 9월 9일에 마을 제사를 올린다.



「가둔지성황당 ; 2019년」

가래머리골 [골]

[위치] 전불에서 남쪽으로, 783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서쪽에 횃골이 있다.

[풀이] ‘가래’는 ‘갈래’, ‘머리’는 앞부분을 뜻한다. 골짜기가 갈라지는 앞부분이란 뜻이다.

가매골재 [고개]

[위치] 선바우골 북쪽, 선바우가 있는 큰선바우골 북동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횃성군 강림면 부곡리 ‘가매골’이 있다. 고개 높이는 838.5m이다.

[유래] 고개 너머에 강림면 부곡리의 가매골이 있으므로 가매골재라고 하였다.

각시바우 [바위]

[위치] 높은다리에서 전불로 들어가는 골짜기 중간, 길 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내용] 신랑바우와 각시바우가 같이 있는데 신랑바우는 서 있는 모습이고 각시바우는 일반적인 둥근 모습을 하고 있다.

갈매바우 [바위] → 갈미바우

갈미바우 [바위]

[위치] 작은주련골의 사태골과 쌍갈래길 사이, 길 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갈매바우’라고도 한다.

갈밭골 [골]

[위치] 화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761.6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갈대가 많이 자라서 갈을 엮어 자리를 땄다고 한다. 현재는 갈이 자라지 않는다.

감투봉 [산]

[위치] 아랫성남 서쪽, 거무내산 남동쪽에 있는 높이 493m의 산을 말한다.

갓밤산골 [골]

[위치] 밤산골에서 북쪽 옆에 붙어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밤산골 가에 붙어있으므로 갓밤산골이라고 하였다.

개자리터골 [골]

[위치] 주련골성황당 남쪽에서 개울 건너 동쪽으로, 794.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거무내골 [골]

[위치] 성황림에서 서쪽으로, 거무내산을 끼고 돌며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큰거무내골’과 ‘작은거무내골’, ‘산막골’, ‘구멍뚜러지기’ 등이 있고, 서쪽 고개 너머에는 금창리 흑천 마을 ‘거무내골’이 있다.

거무내산 [산]

[위치] 성황림 남서쪽에 있는 높이 603m의 산을 말한다. 당숲산 남서쪽, 감투봉 북서쪽에 있다.

[유래] ‘검, 거무’는 신(神)을 뜻하는 ‘검’에서 파생된 것으로 ‘검내>검내>거무내’로 ‘신성한 곳’이라는 뜻이다. 거무내산에 성황림과 당숲이 있으므로 ‘신을 모신, 신성한 산’이라는 뜻으로 거무내산이라고 하였다.

[풀이] 이 지역에 있는 거무내 관련 지명으로 ‘거무내’, ‘거무내골’, ‘거무내산’, ‘거무내재’ 등이 있

다. 즉 ‘거무내’란 지명은 금창리 마을 흑천을 비롯, 성황림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거무’는 ①‘검대(黑)’의 뜻, ②‘검’으로 보아 ‘뒤(後)’의 뜻, ③‘검>검·검·검’으로 보아 ‘검(神)’의 뜻으로도 볼 수 있다. 거무내 마을을 한자로 ‘흑천(黑川)’이라 하였는데 ‘검대’와 ‘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성황림에 신을 모셨고, 거무내산의 당숲이 신성시된 것으로 보아 ③신(神)을 뜻하는 ‘검’에서 음운 변천된 것으로 보인다.

옛말 ‘검’은 ‘검·가마, 검·고모, 검·거무’ 등으로 파생되어 ‘높고 큰’, ‘신성한’ 등의 의미로 널리 쓰였고, ‘내’는 ‘내(川)’를 뜻하기도 하고 ‘땅, 들(土, 壤)’을 뜻하기도 한다.

즉 거무내는 ‘검+내>검내>거무내’가 된 것으로, ‘신성한 땅’을 의미하며 ‘거무내산’은 신성한 곳의 산을 의미한다.

거무내재 [고개]

[위치] 성황림 서쪽 거무내골의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거무내재를 넘고 가리파재를 넘어 원주에 닿는다. 고개 너머에는 금창리 흑천의 성남골과 흑천의 거무내골이 있다. 높이는 약 670m이다. ‘큰재’라고도 한다.

[내용] 성남리 주민들은 거무내골에서 거무내재를 넘어 금창리 거무내(현 흑천)를 지나 다리골과 가리파재를 넘어 원주를 왕래하였다. 돌아오는 길이 늦어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거무내재에서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러 호랑이와 산돼지 등 짐승을 쫓아 돌아오는 주민들을 보호하였다고 한다.

건달보 [보]

[위치] 가둔지 앞에 있는 주포천의 보(淤)를 말한다.

[유래담] 일하기 싫은 사람이 건들거리듯 엉성하게 보(淤)를 막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곤하루봉 [골] → 곤할아봉

곤할아봉 [골]

[위치] 상원골 샘골 위, 중재에서 대치 동쪽 878m 봉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곤하루봉’이라고도 한다.

[내용] 험하고 무서워 낮에도 혼자 가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구룡소(九龍沼) [소] → 용소

구멍뚜러지기 [골]

[위치] 거무내골 입구에서 남서쪽으로, 거무내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새둔지 남쪽 건너, 당숲산 서쪽에 있다.

[유래] 골짜기 안 바위에 큰 구멍이 나 있으므로 구멍뚜러지기라 부른다. 현재는 골짜기에 돌 너더리가 가득 차 있다.

구시정골 [골] → 무쇠정골

기호네집터 [터]

[위치] 작은주련골 쌍갈래길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안쪽 끝에 있는 넓은 터를 말한다. 동쪽 능선 너머에는 주련골 큰집터가 있다.

[유래] 예전 이곳에 이기호라는 사람이 터를 넓게 잡고 살았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길재 [고개] → 질재

길재골 [골] → 질재골

남대(南臺) [터]

[위치] 남대봉 아래에 있는 넓은 터를 말한다. ‘큰남대’와 ‘작은남대’가 있다.

남대봉(南大峰, 南臺峰, 南台峰) [산]

[위치] 상원골 위에 있는 높이 1,181.5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상원사 북쪽 바로 위에 있는 봉우리로 판부면과 신림면 및 횡성군 안흥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남태봉’이라고도 부른다. 『1917년 지적도』에 ‘南臺峰’으로 나온다. 『한국지명총람』에 ‘남대봉(南臺峰)’이라고 하였다.

[내용] 비로봉과 함께 치악산을 대표하는 봉우리이다. 봉우리 남쪽에 더 높은 시명봉(1,196m)이 있

으나 주 등산로에서 제외되어 있어 남대봉이 주봉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대봉 남동쪽 해발 1,100m 지점에 상원사가 있다. 남대봉은 1910년대 이후까지 ‘南臺峰’으로 쓰이다가 1970년대 이후 ‘남태봉(南台峰)’으로 기록되었으나 현지에서는 ‘남대봉(南大峰)’으로 쓰고 있다. 한편 정상 남쪽에 넓은 터를 뜻하는 ‘큰남대’, ‘작은남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이 봉은 봉우리보다는 높은 ‘터’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때는 남쪽의 시명봉과 남대봉의 이름이 서로 바뀐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 봉이 ‘남대봉’, 남쪽 1,196m의 봉이 ‘시명봉’으로 정착되었다.

남태봉(南台峰) [산] → 남대봉

노들다리 [다리] [마을] → 높은다리

노들자리 [마을] → 높은다리

노송마을 [마을] → 아랫성남

높은다리 [다리]

[위치] 높은다리 마을에 있던 다리를 말한다.

높은다리 [마을]

[위치] 윗성남 북쪽, 상원골과 전불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노들다리’, ‘노들자리’라고도 한다. 현 버스 종점, 성남지킴공원터가 있는 곳으로 상원사, 남대봉, 전불, 선바위봉 등 산행의 기준점이 되는 마을이다.

[유래] 상원골 입구에서 전불로 가는 길 입구 높은 곳에 다리가 있었으므로 ‘높은다리’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에 다리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주막집이 있었다고 한다. 이 주막집은 붓집장수나, 사냥꾼, 객객 등이 쉬어가는 곳으로, 다리 건너부터 치악산의 산세가 험하므로 밤에는 재를 넘을 수 없어 오후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다음날 무리를 이루어 출발하였다. 팔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먹고 자고 쉬어서 산을 넘어갔다 하여 ‘놀던 다리’, ‘놀다가던 자리’, 즉 ‘노들다리’, ‘노들자리’가 되고 현

재는 ‘높은다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높은다리 마을 ; 2019년」

능숲 [숲]

[위치] 성남리 본동, 절터골 입구에 있는 큰 솔밭을 말한다. 옛 절골매표소가 있던 곳의 숲이다.

[내용] 일제강점기에 솔밭을 많이 없앴다고 한다. 현재 절골매표소는 폐쇄되었다.

다리띤골 [골]

[위치] 작은주련골 안 사태골과 쌍갈래길 사이에서 남동쪽 610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호랑이에게 잡혀 다리를 떼었다고 해서 ‘다리떼인골>다리띤골’이라 하였다.

당뒤 [들]

[위치] 성항림 동쪽 내 건너의 들을 말한다.

당숲(1) [숲] → 성항림

당숲(2) [숲] → 수림지, 아랫당숲

당숲굴 [굴]

[위치] 당숲산에 있는 굴을 말한다.

[내용] 옛날 화전민들이 살면서 이 굴에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당숲산 [산]

[위치] 성항림 서쪽 건너편, 당숲(1)이 있는 산을 말한다. 거무내산 동쪽 아래 능선에 있다. 높이는 468m이다.

[내용] 현 성남로가 나기 전에는 성항림과 당숲산이 연결되어 있어서 두 숲이 신성한 숲으로 동일

시되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서로 분리되었다. 당숲을 신성시하여 당숲산에서는 주민들이 땀나무를 하지 않았다.

당숲약수 [샘] → 옷샘

대덕바위 [바위]

[위치] 성항림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아랫성남과 옷성남 경계에 있다.

[유래담] 옷성남쪽 다래덩굴을 걸으면 옷성남 처녀가 바람이 나고 아랫성남쪽 다래덩굴을 걸으면 아랫성남쪽 처녀가 바람이 난다고 한다. 마을 처녀 중 바람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석수장을 불러 대덕암이라 새기고 난 후 대덕바위라 불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다래덩굴이 우거져 잘 보이지 않는다.

대치(大峙) [고개]

[위치] 상원골 주차장 아래 작은무두치골에서 북동쪽으로, 황성군 강림면 부곡리 대치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상원사 동쪽 산줄기에 있다. 고개 높이는 848.8m이다. ‘대치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디치씨(大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대치재(대치大峙)’라 하였다.

[내용] 샘골에서 중재를 거쳐 올라가는 길도 있다. 고개 이름과는 달리 고개는 크지도 않고 평평한 안부(鞍部)로 되어 있다.

대치재 [고개] → 대치

덕골 [골]

[위치] 선바우골 입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덧둔지 [들] → 텃둔지

독소 [소]

[위치] 성남리 앞 주포천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독(단지)과 같아서 독소라고 한다.

돌무덤 [묘]

[위치] 상원사 마지막주차장에서 상원사로 가는 상원골 산길에 있는 돌무덤을 말한다. 등산로의 이정표 노릇을 하는 무덤이다.

돌보 [보]

[위치] 아랫성남 마을 위에 있는 주포천의 보(湫)를 말한다. 옛 정미소, 현 치악신림오토캠핑장과 성남교 사이에 있다.

두남골 [골]

[위치] 석남사터 위 절골 중간에서 서쪽으로, 높이 1,060~1,070m급 산줄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서 ‘큰두남’과 ‘작은두남’이 갈라진다. 골짜기 서쪽 너머에는 판부면 금대리 ‘안다리실골’이 있다.

뒷골 [골]

[위치] 윗성남 양지땀에서 북동쪽으로, 횃골굴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밤산골과 미륵대이 사이에 있다. ‘양지땀뒷골’이라고도 한다.

마당재 [고개]

[위치] 작은주련골 최상류 기호네집터에서 북쪽으로, 전불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약 820m이다.

마상골 [골]

[위치] 아랫성남 감투봉 동쪽 아래 주포천에서 북쪽으로 휘돌아 서쪽으로 거무내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당숲산과 감투봉 사이, 옛 정미소, 현 치악신림오토캠핑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골의 모양이 말머리 같다고 하여 마상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주차장 [시설]

[위치] 상원골 서낭바우 위에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상원골 큰무두치골 위에 있다. 큰주차장은 작은무두치골 남쪽 위에 있다.

막골 [골]

[위치] 주련골 입구 서쪽 건너에서 서쪽으로, 높이 673.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감투봉 남쪽 아래, 배나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막골’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이 골짜기에 산막이 있었으므로 막골

이라 하였다.

만경대(萬景臺) [바위]

[위치] 남대봉 능선 북서쪽 등산길에 있는 높이 1,154m의 암벽을 말한다. ‘망경대’, ‘만물상’이라고도 한다.

[유래] 암벽 위에서 치악산 남서쪽의 전경이 모두 다 내려다보이므로 만경대라고 부른다.

만물상(萬物像) [바위] → 만경대

망경대(望景臺) [바위] → 만경대

매봉 [산] → 응봉산

목쟁이고개 [고개]

[위치] 아랫성남에서 남동쪽으로, 큰주련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무당소 [소]

[위치] 횃골폭포 앞에 있는 주포천의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무당소’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이곳에 무당이 빠져 죽어서 무당소라고 한다.

무쇠교 [다리]

[위치] 무쇠정골 앞, 주포천의 다리를 말한다.

무쇠정골 [골]

[위치] 가둔지에서 주포천 건너 북서쪽으로, 거무내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구시정골’, ‘무시정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 이 골짜기에서 무쇠 솥을 만들었으므로 무쇠정골이라고 한다.

무시령골 [골]

[위치] 짜리치골 중간 짜리치 마을에서 북쪽으로, 응봉산 남쪽 759.5m 봉우리를 향하여 길게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시령골’이라고도 한다.

무시정골 [골] → 무쇠정골

문바우(1) [바위]

[위치] 절골 안, 옷절터 북서쪽 위, 시명봉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절

골 마지막 집에서 보면 문바우(2) 왼쪽 위에 검게
높이 솟아 있는 바위이다. 높이는 1,075m이다.

[유래] 능선 정상 급경사에 거대한 바위가 문기둥
처럼 양쪽에 있으므로 문바우라 하였다. 석남사(石
南寺)라는 절 이름이 이 바위들의 남쪽에 있으
므로 생긴 것이다.



「문바우(1) : 2018년」

문바우(2) [바위]

[위치] 절골 문바우(1) 동쪽 아래, 높이 925m에 있
는 거대한 바위를 말한다.

[유래] 절골에서 보면 커다란 바위가 마치 창호지
를 바른 문처럼 희게 보이므로 문바우라 부른다.

[내용] 산더미처럼 거대한 바위들이 군락을 이루
어 병풍처럼 둘러서 있다. 절골 마지막 집에서 북
서쪽으로 문바우(2)가 보이고 왼쪽 위에 높이 솟
아 있는 문바우(1)이 보인다. 문바우(2) 아래 흙처
럼 파인 긴 굴에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지
금도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찾고 있다.



「문바우(2) : 2018년」

물방아보 [보]

[위치] 가둔지 마을 앞에 있는 주포천의 보(淤)를
말한다.

미골 [골]

[위치] 아랫당숲 남쪽 아래에서 주포천 건너 서쪽
554.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작은 골짜기
를 말한다. 무쇠정골 북쪽, 배나무골 남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미내골 [골]

[위치] 윗성남 윗버덩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큰미내골’과 ‘작은미내골’이 있
다. 현 다래민박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들이다.

[유래] 묘를 많이 쓴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미륵댕이 [골]

[위치] 버덩말 동쪽 주포천 건너에서 712.2m 봉
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양지땀 남쪽
에 있는 골짜기로 윗나무골과 뒷골 사이에 있다.

바드랫골 [골]

[위치] 축치동골 축치동 서쪽 아래에서 북동쪽으
로, 53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
한다. 신단지골 동쪽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 너머
에 주련골이 있다. 현 신림양계장 북쪽에 있는 골
짜기이다.

[내용] 원래 이름은 ‘잔바드랫골’이었다고 한다.

밤산골 [골]

[위치] 윗보데기 남쪽 주포천 건너, 능숲과 윗버덩
동쪽 주포천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주포
천에서 569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밤산골 [마을]

[위치] 밤산골 입구 주포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
한다. 현 기와집식당 동쪽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현재 한 가구가 살고 있다.

방천 [둑]

[위치] 성항림에서 북쪽으로, 재터골 앞까지 쌓은 독을 말한다.

[내용] 재터골과 거무내골의 물이 버덩말로 넘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독이다.

배나무골 [골]

[위치] 아랫성남 주련골 입구 서쪽 맞은편에서 서쪽 673.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막골 남쪽, 미골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끝은 거무내재로 연결된다. 『한국지명총람』에 ‘배나무골’이라 하였다.

버덩말 [마을]

[위치] 윗성남에서 학교와 상가 등이 있는 본동의 중심 마을을 말한다.



「버덩말 마을 ; 2019년」

버드내골 [골] → 신림리 유다리골

[위치] 가둔지 앞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버러리 [터]

[위치] 큰거무내골과 작은거무내골 사이에 있는 넓은 터를 말한다.

벼락바우(1) [바위]

[위치] 높은다리 위 상원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현 소롯길 찻집 동쪽 아래 계곡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옛날 상원골에 사는 바람난 과부가 밤마다 마실을 다니다가 벼락이 떨어져 바위에 깔려죽었으므로 벼락바우라고 하였다. 그때 떨어진 큰 바위가 개울 안에 남아있고, 길은 계곡 건너편으로

났다.

벼락바우(2) [바위]

[위치] 절골 마지막집 북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사자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바위의 모습이 마치 벼락을 맞은 듯이 험하므로 벼락바우라고 하였다. 바위의 모양이 마치 사자 머리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사자바우라고도 한다.

보악소 [소]

[위치] 옛 성림초등학교 옆 주포천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본동 [마을]

[위치] 윗성남의 중심 되는 마을로 옛 성림초등학교와 마을회관이 있다. 마을 안에 ‘안담’, ‘버덩말’, ‘웃버덩’이 있다. ‘음달말’이라고도 한다.



「본동 마을 ; 2019년」

부식이골 [골]

[위치] 절골 석남사터 위 절골폭포에서 북쪽으로, 841.2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빨간다리 [다리]

[위치] 성남리 본동 앞에 있는 주포천의 다리를 말한다.

[유래] 빨간 페인트칠을 해서 빨간다리라 하였다.

사그매기 [골]

[위치] 싸리치골에서 북동쪽으로, 현 신림터널 북쪽의 733.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황둔리 석기동이 있다. ‘사기막골’, ‘성남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서 사기를 구웠으므로 사그매기, 사기막골이라 하였다.

사기막골 [골] → 사그매기

사동(寺洞) [마을] → 절골

사리(四里) [마을] → 성남리

사자바우 [바위] → 벼락바우(2)

사재목쟁이 [고개]

[위치] 윗성남 웃버덩에서 능숲을 넘어 절골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사지목재’라고도 한다. 현재 절골 길이 나 있다.

[유래담] 고개의 모습이 사람이 죽은 모습. 즉 死 者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사재목쟁이라 부른다고 한다.

사지목재 [고개] → 사재목쟁이

사태골 [골]

[위치] 작은주련골 입구 북쪽, 쌍갈래길 남쪽 사이에서 동쪽으로, 624.8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 골짜기에서 산사태가 자주 났으므로 사태골이라 하였다.

산막골 [골]

[위치] 거무내골 안에서 북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큰산막골’과 ‘작은산막골’이 있다. 골짜기 북쪽 너머에는 ‘재덕골’, 남쪽 너머에는 ‘작은거무내골’이 있다.

산지당 [당]

[위치] 작은주련골 쌍갈래길과 기호네집터 중간, 길 옆에 있는 작은 바위굴을 말한다.

[유래] 예전 이곳을 왕래하던 산사람들이 산제를 올리던 곳이므로 산지당이라 부른다.

상성남(上城南) [마을] → 윗성남

상성남리성황당 [당] → 윗성남성황당

상원골 [골]

[위치] 높은다리에서 북서쪽으로, 상원사와 남대봉을 향하여 올라가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치악산 남쪽 자락의 가장 큰 골짜기이다.

상원골 [마을]

[위치] 높은다리 북쪽 위, 샘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상원골(上院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상원동(上院洞)’이라 하였다.

상원동(上院洞) [마을] → 상원골

상원사(上院寺) [절]

[위치] 남대봉 아래에 있는 조계종 사찰을 말한다. 『동국여지지』에는 ‘상원사(上元寺)’로 표기하였다. 우담 정시한(1625~1707)의 『산중일기』에 ‘상원암(上院庵)’으로 나온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상원(上院寺)’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상원사(上院寺)’라 하였다.

[내용]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도 하고 신라 말 경순왕의 왕사였던 무착대사(無着大師)가 건립하였다고도 한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절로 치악산 이름과 연관된 평의 보은설화가 있고 백련암과 얽힌 설화도 있다. 『여지도서』에 ‘12칸으로 치악산 높은 정상에 있으며 용추(龍湫)를 메워 암자를 세웠다고 한다.’고 하였다.



「상원사 ; 1938년」



「상원사 ; 2018년」

상원사 계수나무 [나무]

[위치] 상원사 대웅전 앞쪽에 있는 높이 9m, 둘레 1.2m의 나무를 말한다.

[내용] 이 나무는 신라 말 무착대사(無着大師)가 상원사를 창건한 후 기념으로 심었다는 전설과 무착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난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수령 약 500년의 희귀목으로 계수나무로 알려져 왔으나 이깔나무로 판명되었다.

상원암(上院庵) [절] → 상원사

상터골 [골]

[위치] 전불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890.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상터구력’이라고도 한다. 골짜기 너머에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상터 마을이 있으므로 상터골이라 한다.

[풀이] ‘상터골’을 ‘상터구력’이라고도 하므로 ‘골’과 ‘구력’이 서로 대응하고 있다. 즉, 골짜기를 뜻하는 ‘골’과 ‘구>굴, 구력, 구락’은 같은 어원임을 알 수 있다.

상터구력 [골] → 상터골

새납잽이묘터 [터]

[위치] 작은주련골 쌍갈랫길 북쪽 횃가마골 중턱의 동쪽에 있는 묘를 말한다.

[유래] 예전 이 묘소의 주인이 태평소(새납, 쇠납)를 잘 불었으므로 새납잽이묘터라고 부른다.

새둔지 [들]

[위치] 거무내골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성항림에서 거무내 쪽으로 올라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이다. 구멍뚜러지기 아래 북쪽 건너편에 있다.

샘골 [골]

[위치] 높은다리 북쪽 위, 상원골 마을에서 북쪽으로, 대치 동쪽 능선에 있는 964.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재와 대치로 올라가는 골짜기이다. 현 골짜기 입구에 다그라스통나무 민박이 들어서 있다. ‘샘골’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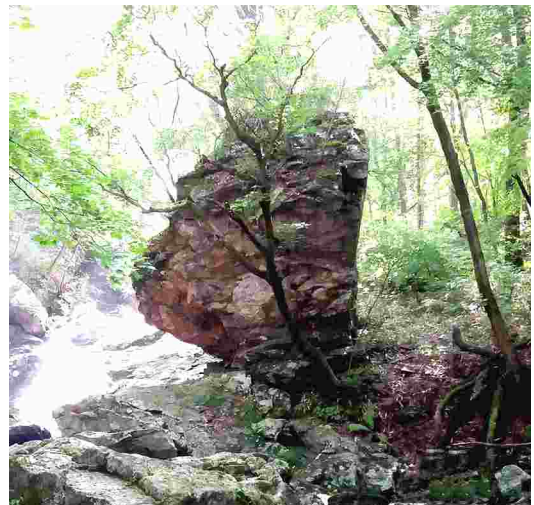
[유래] 아주 맑은 샘이 있어서 샘골이라고 한다.

샘골 [골] → 샘골

서낭바우 [바위]

[위치] 상원골 상원사 마지막 주차장 아래 계곡에 있는 마름모꼴의 큰 바위를 말한다. 바위 아래에는 용소가 있다. 바위가 신앙의 대상이 된 드문 예이다.

[유래] 예전 이 바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바로 옆에 당집이 있었으므로 서낭바우라 한다.



「서낭바우 ; 2018년」

석남사터(石南寺-) [터]

[위치] 절골에 있는 옛 석남사의 터를 말한다.

[유래] 절골 옷절터 위에 있는 문바우(1), 문바우(2) 남쪽 아래이므로 ‘석남(石南)’이라 하였다. ‘石

南寺'라고 쓰인 기와가 발굴됨으로써 이곳이 석남사터임이 확인되었다.

[내용] 논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주변에 석축과 석재가 많이 남아있다. 궁예가 이곳을 근거지로 삼고 영서의 각 지역을 정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에 대한 기록이 없어 명확하지 않으나 늦어도 조선 초기에는 폐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바우(2) 아래의 옷절터는 이 절에 딸린 암자의 터로 짐작된다. 『여지도서』에 이 절을 '성남사(城南寺)'라고 하였으므로 원래의 '석남사'가 '성남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을 이름 '성남리'는 '석남>성남'에서 유래한 것이다.



「석남사터 ; 2019년」

석바우 [바위]

[위치] 문바우(2)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석이버섯이 많이 자라므로 석바우라 하였다.

선바우 [마을]

[위치] 선바우골 안. 선바우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섬바우'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입암(立岩)'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선바우(立石)'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선바우(입암立岩)'라 하였다.

선바우 [바위]

[위치] 높은다리 북동쪽 선바우골 안, 큰선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섬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큰 바위가 서 있으므로 선바우라 하였다. 또 는 바위모양이 곡식날가리인 섬을 쌓아놓은 것 같

다고 하여 섬바우라고도 한다.

[풀이] 원래 '선바우'인데 '선'의 'ㄴ'이 '바우'의 'ㅂ' 앞에서 동화되어 '섬바우'라고도 불린다.

선바우골 [골]

[위치] 높은다리 전불골에서 북동쪽으로, 선바우로 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큰선바우골'·'작은선바우골'이 있다. '섬바우골'이라고도 한다.

선바우봉 [산]

[위치] 선바우골 북동쪽, 작은선바우골 끝에 있는 높이 1,000.6m의 산을 말한다. 신림면 성남리, 횡성군 강림면, 영월군 무릉도원면과 경계를 이루는 봉우리이다. '섬바우봉'이라고도 한다.

섬바우 [바위] → 선바우

섬바우골 [골] → 선바우골

섬바우봉 [산] → 선바우봉

성남(城南) → 성남리

성남골 [골] → 사그매기

성남리이깎나무 [나무] → 상원사 계수나무

성남사(城南寺) [절] → 석남사터

[위치] 절골의 석남사터에 있던 옛 절을 말한다.

[내용] 『여지도서』(1757~1765)에 6칸으로 고을 동쪽 50리 거리인 치악산 봉우리에 있다고 하였다. '치악산 봉우리' 때문에 상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혼동되지만 상원사(上院寺)는 따로 구분하여 기록하였으므로 성남사는 석남사를 지칭한 것이다. 따라서 『여지도서』가 쓰인 그 이전부터 '석남>성남'이 되어 마을은 '성남(城南)'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천(城南川) [내]

[위치] 주포천의 다른 이름이다. 성남리를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성남천으로 부른다.

성림분교 [학교] → 신림초등학교 성림분교

성지골 [골]

[위치] 성남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 성을 쌓으려고 했다고 해서 성지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성황당 [당] → 윗성남성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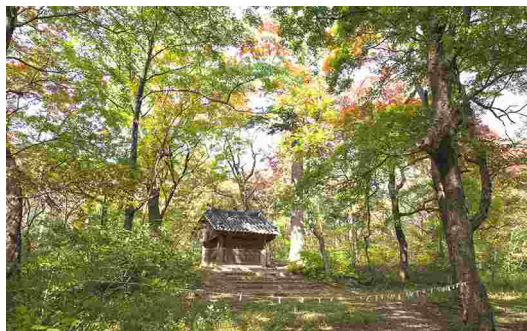
성황림(城隍林) [숲]

[위치] 윗성남 마을 입구에 있는 숲을 말한다. ‘당숲’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당숲(성황림 城隍林)’이라 하였다.

[유래] 성황당이 있는 숲이므로 ‘성황림’이라고 하였다.

[내용] 이 숲은 예전부터 중요하게 인식되어 일제강점기인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목록에 ‘윗성남 당숲’으로 처음 등록되었다. 1940년에는 남북한 총 119점 중 제93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93호 ‘성황림(城隍林)’으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다. 1990년 8월에 보호벽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온대림의 일부로 보존되어 있는데 신갈나무, 복자기나무, 졸참나무, 말채나무, 털피나무, 느릅나무 등 고산식물에서부터 야산식물에 이르기까지 50여 종의 목본식물과 습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숲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정착하고 살던 사람들이 치악산의 성황신을 마을 수호신으로 섬기던 당숲이기도 하다. 성황당 옆에는 높이가 29m의 전나무와 10여 그루의 노목이 있다.



「성황림 : 2019년」

성황림마을 [마을] → 윗성남

세존대 [바위] → 판부면 금대리 세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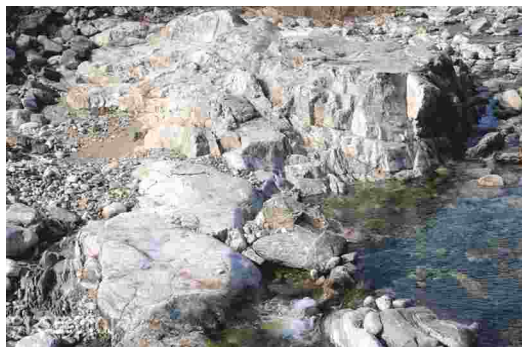
소나무 [숲] → 아랫당숲

소바우등지 [소]

[위치] 아랫성남 성남교 옆에 있던 주포천의 소(沼)를 말한다. ‘큰소바우등지’와 ‘작은소바우등지’가 있다. 다리를 놓으면서 바위의 형체가 크게 훼손되었다.

[유래] 바위가 마치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하여 소바우등지라 하였다.

[내용] 다리 위쪽에 큰소바우등지, 아래쪽에 작은소바우등지가 있다. 큰소바우등지에서는 남자들이, 작은소바우등지에서는 여자들이 목욕을 하였다. 바위 아래 소는 물이 깊어 어른들이 목욕을 하였다.



「소바우등지 : 2018년」

숫대배기 [들]

[위치] 주련골 입구, 아랫성남성황당 동쪽 산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예전 이곳에 숫대를 많이 세워둔 곳이므로 숫대배기라 하였다.

수림지(樹林地) [숲] → 아랫당숲

수명골 [골] → 시명골

시령골 [골] → 무시령골

시명골 [골]

[위치] 허궁다리골에서 북서쪽으로 시명봉을 향하

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수명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가 시명봉에 닿으므로 ‘시명골’, ‘수명골’이라고 부른다.

시명봉(始明峰) [산]

[위치] 남대봉 남쪽, 절골 북서쪽, 가리파재 다릿골 북쪽에 있는 높이 1,196m의 봉우리를 말한다. 치악산 남쪽 줄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신단지골 [골]

[위치] 축치동골에서 북쪽으로, 541.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양지바위골 동쪽, 바드랫골 서쪽에 있다.

신랑바우 [바위]

[위치] 전불 마을로 들어가는 전불골 중간, 길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내용] 신랑바우와 각시바우가 같이 있는데 신랑바우는 서 있는 모습이고 각시바우는 둥근 모습을 하고 있다.



「신랑각시바우 : 2018년」

신림광산터 [터]

[위치] 축치동골 안 음달바위골 앞에 있던 옛 은광터를 말한다.

신림초등학교 성림분교 [학교]

[위치] 윗성남 버덩말 마을에 있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63년 2월에 신림국민학교 성림분교로 인

가되었다. 1966년에 성림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가 1984년에 성림분교로 격하되었고, 1996년에 신림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림초등학교 성림분교 : 2019년」

신림터널 [굴]

[위치] 축치동과 황둔리 창촌을 잇는 88번 국도, 싸리치에 있는 길이 620m의 터널을 말한다.

[내용] 이 터널이 생기기 전까지의 옛 국도는 신림리의 배나무거리에서 언골, 철철바우골을 지나 싸리치를 넘는 길이었다.

심메골 [골]

[위치] 주련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서 산삼을 캐다고 하여 심메골이라 하였다.

싸리고개 [고개] → 싸리치

싸리재 [고개] → 싸리치

싸리치 [고개]

[위치] 성남에서 동쪽 황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신림터널이 생기고 난 후 싸리치는 폐쇄되어 도로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고개 높이는 580m이다. ‘싸리재’, ‘싸리치재’, ‘싸리고개’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에 ‘유현(紐峴)’이라 하고 ‘고을 동쪽 60리에 있는데 매우 높고 험하다.’고 하였고, 『여지도서』에 ‘유치(紐峙)’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싸리치씨(紐峙)’라

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싸리치(축치紐峙)’라 하였다.

[유래] 싸리나무가 많았으므로 싸리치라 불렀다고 한다.

싸리치 [마을]

[위치] 싸리치 고개 서쪽 아래 싸리치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축치동(紐峙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싸리치(紐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축치(紐峙)’라 하였다.

싸리치골 [골]

[위치] 언당에서 북동쪽 싸리치로 이어지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현 88번 신림항동로가 지나가고 있다. ‘축치’라고도 한다.

싸리치성황당 [당] → 신림리 싸리치성황당

[위치] 옛 싸리치 고개 정상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고개 정상의 너럭바위에서 제를 지내다가 당집을 지어 가리파성황당과 함께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같은 날 제를 올렸다. 현재 이 성황당은 신림리 금옥동으로 옮겼다.

싸리치재 [고개] → 싸리치

쌍갈래길 [길]

[위치] 아랫성남 작은주련골 중간에 있는 갈림길을 말한다.

[유래] 작은주련골에서 헛가마골이 갈라져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므로 쌍갈래길이라 하였다.

쌍룡수 [샘]

[위치] 상원골 상원사 남쪽 아래, 등산로 옆에 있는 샘을 말한다.

아들바우 [바위] → 판부면 금대리 세존대

아랫당숲 [숲]

[위치] 아랫성남 주련골 입구에 있는 주포천의 당숲을 말한다. ‘수림지(樹林地)’, ‘소나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소나무(수림지樹林地)’라 하

였다.

[내용] 마을 입구에 큰 소나무 2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다. 옛날에 노송 숲이 울창하여 천연기념물 제92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1972년 홍수로 인해 크게 훼손되어 1973년에 해지되었다. 당숲 가운데 있던 성황당은 도로가 나면서 주련골 입구 현 위치로 옮겼다. 현재 당숲은 여름 피서지로 이용되고 있다.

아랫성남 [마을]

[위치] 성남리 중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랫당숲(수림지)이 있는 마을이다. ‘수림지’, ‘노송마을’, ‘아랫당숲’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하성남(下城南)’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래성남(하성남下城南)’이라 하였다.

[내용] 마을 입구 노송이 우거진 숲에 당집이 있어서 ‘노송마을’, ‘아랫당숲’, ‘수림지’ 등으로 불렸다. 마을 동쪽으로 주련골이 나 있다.

아랫성남성황당 [당]

[위치] 아랫성남 당숲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지금은 주련골 입구에 있다.

[내용] 원래 당숲 가운데에 있던 것을 도로를 내면서 현 위치로 옮겼다. 매년 음력 사월 초파일과 9월 9일에 당고사를 지낸다.



「아랫성남성황당 : 2019년」

안담 [마을]

[위치] 윗성남 본동의 음달말 안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앞골 [골]

[위치] 싸리치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511.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남동쪽 너머에 철철바우가 있다.

애기소 [소]

[위치] 성남리 주포천에 있는 소를 말한다.

양지땀 [마을]

[위치] 윗성남 버덩말에서 주포천 건너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양지말’이라고도 한다.

[풀이] ‘땀, 땀’은 본 마을에서 떨어져 몇 집이 모여 있을 때 쓰이는 이름이다.

양지땀뿔골 [골] → 뿔골

양지말 [마을] → 양지땀

양지바우 [바위]

[위치] 언당교 동쪽 88번 신림항둔로 도로변 방호벽 뒤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양지바우골 입구의 서쪽 도로변에 있는 암벽이다.

양지바우골 [골]

[위치] 축치동골 입구에서 북쪽으로, 555.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축치동골을 사이에 두고 음달바우골과 마주보고 있다. 옛 신림 광산터 북쪽의 골짜기이다.

엄지바우 [바위] → 판부면 금대리 세존대

여우바우 [바위]

[위치] 재터골 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바위 아래 가재가 많았다고 한다.

[유래] 화전 밭에 내려온 여우를 쫓으면 산위로 도망가던 여우가 이 바위 밑에서 꼭 뒤를 돌아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열한마지기보 [보]

[위치] 가둔지 앞에 있는 주포천의 보(湫)를 말한다.

[유래] 이 보(湫)의 물로 열한 마지기 논에 물을 댈 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울나무골 [골]

[위치] 성황림 동쪽 당뒤에서 동쪽으로, 60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미륵대이 남쪽에 있다. 골 남동쪽 너머에 횃가마골이 있다.

울샘 [샘]

[위치] 성황림 안, 성황당 뒤에 있는 샘을 말한다. ‘당숲약수’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당숲약수’라 하였다.

[내용] 여기서 물이 솟아 성황림 뒤편이 습지식물의 보고가 되었다. 겨울에도 물이 차지 않아 옛날에는 마을 빨래터로 이용하였다.

용마바우 [바위]

[위치] 상원사 대웅전 앞에 있는 높이 40m의 벼랑을 말한다. 현 종각이 서 있는 바위이다. ‘용마암’이라고도 한다.

용마암(龍馬岩) [바위] → 용마바우

용소(龍沼) [소]

[위치] 상원골 마지막 주차장, 서낭바우 아래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명주실 한 타래가 다 들어갈 정도로 깊은 소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메워졌다. ‘구룡소’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용소(龍沼)’라 하였다.

[유래담] 용이 승천한 곳이라 하여 용소라고 부른다. 가뭄이 심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개를 잡아 바위에 피를 뿌리고 이 소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용천(龍泉) [샘]

[위치] 상원사에 있는 샘을 말한다.

[유래담] 상원사는 높이 1,000m 이상 되는 치악산의 반석 위에 세운 절인데 절터로서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곳이나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흠이었다. 절을 창건한 무착대사가 불심을 다하여 석장으로 바위틈을 찌르니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올랐다고 한다. 지금도 이 물만으로도 충분하며 여름에도 손이 시리도록 차갑다고 한다.

웃넘개 [고개]

[위치] 아랫성남에서 서쪽으로, 배나무골을 거쳐 금옥동 웃쇠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거무내재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높이는 630m이다.

웃버덩 [들]

[위치] 윗성남 마을, 능숲 동쪽 도로변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웃버덩 [마을]

[위치] 윗성남 웃버덩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보데기 [들]

[위치] 웃버덩에서 북동쪽으로, 도로를 따라 난 버덩을 말한다. 큰미내골과 작은미내골 남쪽에 있는 들이다.

[유래] 위에 있는 보(湫)에 딸린 버덩이므로 ‘웃+보(湫)+덕+ㅣ’ > 웃보덕이 > 웃보더기 > 웃보데기’라 하였다. ‘덕’은 언덕이나 둔덕, 버덩을 말한다. ‘ㅣ’는 접미사이다.

웃절터 [터]

[위치] 절골 문바우(2) 동쪽 아래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내용] 이름으로 보아 옛 석남사에 딸린 암자로 추정된다. 자연적으로 쌓은 축대와 기와편이 발견되고 있다. 일설에는 궁예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 숨어 지냈을 것이라고도 한다.



「웃절터 ; 2018년」

웃절터폭포 [폭포]

[위치] 웃절터 서쪽 개울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급격한 경사의 긴 계곡에 있는 와폭(臥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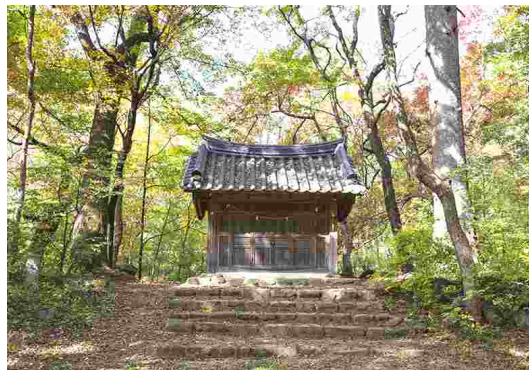
윗성남 [마을]

[위치] 성남 마을 중 성항림이 있는 위쪽 마을을 말한다. ‘상성남’, ‘성항림마을’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상성남(上城南)’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웃성남(상성남上城南)’이라 하였다.

윗성남성황당 [당]

[위치] 윗성남 성항림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내용] 당숲이 잘 보존되어 있어 성항림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옛날에는 굴피지붕에 작은 규모였으나 지금은 기와를 얹고 새로 넓혀지었다. 엄나무와 전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음력 사월초파일과 9월 9일에 성황제를 지낸다. 신림리의 신림당이 수당, 이 당이 암당이었던다고 한다.



「윗성남성황당 ; 2019년」

음달말 [마을] → 본동

음달바위 [바위]

[위치] 양지바위 건너편 음달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음달바우골 [골]

[위치] 양지바우골 맞은편에서 남쪽으로, 547.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입구에 옛 신림광산터가 있다.

음지땀 [마을]

[위치] 윗성남 버덩말에서 도로 건너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내 건너 동쪽이 양지땀인데 비해 산 밑에 있는 음지이므로 음지땀이라 하였다.

응봉산(鷹峰山) [산]

[위치] 주련골 북동쪽, 전불골 남동쪽에 있는 높이 1,063.5m 봉우리를 말한다. ‘매봉’이라고도 한다.

[내용] 동쪽으로 황둔리 매봉산과 이어진 능선은 성남리와 황둔리의 경계가 된다. 북쪽으로 선바우봉과 이어진 능선은 신림면 성남리와 영월군 무릉도원면과 경계를 이룬다. 이 산과 황둔리 매봉산(1,094.9m)은 서로 혼동되어 이름이 바뀌어 쓰이기도 한다.

의옥폭포 [폭포] → 회옥폭포

입암(立岩) → 선바우

작은거무내골 [골]

[위치] 거무내골 안, 거무내산 북쪽 아래에서 큰거무내골과 갈라져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북쪽 너머에 산막골이 있다.

작은남대(--南臺) [터]

[위치] 시명봉 동쪽, 상원골의 흙바우골 상류에 있는 터를 말한다. 큰남대 남쪽에 있다.

작은두남 [골]

[위치] 두남골 위에서 큰두남과 갈라져 서쪽으로, 높이 1,062.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서쪽 너머에 판부면 금대리 안다리 실골이 있다.

작은무두치골 [골]

[위치] 상원골에서 샘골 입구를 지나 북쪽으로, 대치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무두치골 동쪽, 샘골 서쪽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무들치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현 상원사 큰주차장 동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무두치골과 작은무두치골 사이 계곡

에 주택이 한 채 들어서 있다.

작은무들치골 [골] → 작은무두치골

작은미내골 [골]

[위치] 웃보데기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나간 두 골짜기 중 동쪽에 있는 것을 말한다. 현 다래민박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큰미내골의 동쪽에 있다.

작은사태골 [골]

[위치] 큰선바우골, 선바우 아래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산막골 [골]

[위치] 산막골 안에서 큰산막골과 갈라져 서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선바우골 [골]

[위치] 선바우골 안에서 큰선바우골과 갈라져 북동쪽으로, 선바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선바우골 남동쪽에 있다.

작은소바우등지 [소] → 소바우등지

[위치] 아랫성남 성남교 아래에 있는 주포천의 소(沼)를 말한다.

[내용] 이곳에서는 여자들이 목욕을 하고 큰소바우등지에서는 남자들이 목욕을 하였다고 한다.

작은주련골 [골]

[위치] 아랫성남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83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주련골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 ‘사태골’, ‘횃가마골’이 있다.

작은질재골 [골]

[위치] 질재골에서 북동쪽으로, 890.3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질재골 북쪽에 있다.

잔바드랫골 [골] → 바드랫골

장승거리 [마을]

[위치] 싸리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황둔으로 넘어가는 옛길에 있던 마을이다.

[유래] 장승이 서 있었으므로 장승거리라 하였다.

재터골 [골]

[위치] 윗성남에서 서쪽으로, 752.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산막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재’는 고개를 뜻하고 ‘터’는 집터를 말한다. 골 안의 잣말랑 고개 밑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잣말 [마을]

[위치] 재터골 안, 잣말랑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잣말랑이 [고개]

[위치] 재터골 중턱에서 남쪽으로, 산막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재(고개)+말(<마루>+양이>잣말랑이’로 분석된다. ‘마루’는 꼭대기를 뜻하는 말이며 ‘양이’는 접미사이다. 즉 고개 꼭대기라는 뜻이다.

전불(典佛) [마을]

[위치] 높은다리 동쪽 계곡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준불(典佛)’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전불(典佛)’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전불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또는 전불(田佛)로 보아 절과 밭이 있어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상원사의 기와를 이곳에서 구웠다는 설이 전한다.

[풀이] ‘전+벌>전벌>전불, 준불’이 되었다. ‘준’은 ‘전(田)’의 방언이다. ‘벌(들;野, 坪)’은 ‘불논(<별논> 관설동)’, ‘불논(>부른)’처럼 ‘불, 불’로도 발음되어 ‘伐, 佛, 火’ 등으로 기록되었다. 골짜기 안에 밭으로 된 들이 있다는 뜻이다.

전불골 [골]

[위치] 높은다리에서 동쪽으로 전불 마을을 지나 마을 위 남동쪽으로, 응봉산 줄기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절골 [골]

[위치] 윗성남의 웃버덩 능슥에서 북서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절골 안의 많은 골짜기들이 시명봉을 중심으로 한 산줄기를 향하여 나 있다.

[유래] 옛 석남사(石南寺)가 있었으므로 절골이라고 부른다.

절골 [마을]

[위치] 절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사동(寺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절솔(寺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절골(사동寺洞)’이라 하였다.

절골성황당 [당]

[위치] 절골 마을 옛 석남사터 남서쪽, 개울 건너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매년 음력 3월 보름과 9월 보름에 당고사를 지낸다. 소나무 당숲이 무성하다.



「절골성황당 ; 2019년」

절골폭포 [폭포]

[위치] 절골 마을 위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절골폭포소 [소]

[위치] 절골폭포 아래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정낭골 [골]

[위치] 상원골 상류 마지막 철다리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흙바우골 위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유래] 예전 상원사에 오르는 사람들이 소변 볼 곳이 없어 이 골짜기에 찾아들어 소변을 보므로 정낭골이라 한다.

[풀이] ‘정낭’은 ‘뒷간(화장실)’의 영서방언이다.

주령골 [골] → 주련골

주련골(珠蓮-) [골]

[위치] 아랫성남 당숲에서 북동쪽으로, 응봉산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이 골짜기를 ‘큰주련골’이라고 하고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작은주련골’이라고 한다. ‘주령골’, ‘주렴골’, ‘지령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치악산의 줄기가 주렴처럼 되어 있다고 하여 주련골, 주렴골, 주령골이라고 한다.

주련골 [마을]

[위치] 주련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주련골(珠蓮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주련골(주련동珠蓮洞)’이라 하였다.

주련골성향당 [당]

[위치] 주련골 연화사 아래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주련골성향당 : 2019년」

주련동(珠蓮洞) [마을] → 주련골

주렴골 [골] → 주련골

주포천(周浦川) [내]

[위치] 높은다리 북쪽의 상원골과 북동쪽의 선바우골, 동쪽의 전불골에서 시작하여 성남리를 거쳐

신림리에서 금창천을 합류하고 용암리에서 구학천을 합류한 뒤 충청북도 제천시 학산리에서 제천천으로 유입하는 내를 말한다. ‘성남천(城南川)’, ‘신림천(神林川)’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관동지』에 ‘신림천(神林川)’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신림니(神林溪)’라고 하였다.

[유래] 이 내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周浦里)를 지나가므로 주포천으로 부른다.

중재 [고개]

[위치] 샘골에서 북쪽으로, 대치로 가는 길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샘골 끝 서쪽, 대치 아래에 있는 고개이다. 샘골 끝에서 서쪽으로 중재를 넘어 작은무두치골과 만난다.

지령골 [골] → 주련골

질재 [고개]

[위치] 질재골에서 동쪽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선바우봉 남쪽의 높이 890.3m 봉과 870.4m 봉 사이에 있는 고개로 높이는 855m이다. ‘길재’라고도 한다.

[풀이] 고개가 길므로 ‘길+재(고개)>길재>질재’가 되었다. ‘길재>질재’는 구개음화의 결과이다. ‘길(아)치>질(아)치’도 같은 이치이다.

질재골 [골]

[위치] 전불 마을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질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선바우골과 전불 사이에서 동쪽으로 난 골이다. ‘길재골’이라고도 한다.

짜작골 [골]

[위치] 상원골 큰주차장 동쪽 아래, 작은 무두치골 맞은편에서 남서쪽으로, 807.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남쪽 너머에 첩덕골이 있다.

쫓대봉 [산]

[위치] 횃골 끝에 있는 높이 783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촛대처럼 생겨서 촛대봉이라 한다.

총각소 [소]

[위치] 성남리 주포천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총각소’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여기서 총각이 빠져 죽었으므로 총각소라고 하였다.

축치(軸峙) [마을] → 싸리치

축치동골 [골] → 싸리치골

[위치] 언당에서 싸리치재로 이어지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싸리치골’의 다른 이름이다.

[내용] 원래는 골짜기 전체를 싸리치골이라 하였으나 싸리치 마을을 축치동으로 부르면서 축치동까지의 골짜기를 축치동골로 부르고 그 위를 싸리치골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칠성배기 [터]

[위치] 전불 남동쪽 칠성배기골에 있던 칠성당 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사람들이 와서 소원을 빌고 가던 칠성당이 있었으므로 칠성배기라고 한다.

칠성배기골 [골]

[위치] 전불에서 남동쪽으로, 응봉산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침덕골 [골]

[위치] 석남사터에서 절골과 갈라져 북서쪽으로, 높이 900.7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서쪽에 절골이 있다.

[내용] 1/5,000지도에는 미내골로 표기되어 있다.

큰거무내골 [골]

[위치] 거무내골 상류, 거무내재에 닿는 골짜기를 말한다.

큰남대(-南臺) [터]

[위치] 남대봉 남쪽 아래에 있는 넓은 터를 말한다. 남대봉에서 시명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동쪽에 있다. 터 남쪽에 작은남대가 있다.

큰두남 [골]

[위치] 절골 웃절터 남쪽에서 남서쪽 1,040.2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작은두남이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골 서쪽 너머에 판부면 금대리 안다리실골이 있다.

큰무두치골 [골]

[위치] 상원골 작은무두치 서쪽 위에서 북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대치 서쪽으로 연결된다.

[내용] 현 상원골 큰주차장에서 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무두치골과 작은무두치골 사이 계곡에 주택이 한 채 들어서 있다.

큰미내골 [골]

[위치] 웃보데기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나간 두 골짜기 중 서쪽에 있는 것을 말한다. 현 다래민박 바로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동쪽 너머에 작은미내골이 있고, 서쪽 너머에는 침덕골이 있다.

큰사태골 [골]

[위치] 큰선바우골, 선바우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큰산막골 [골]

[위치] 산막골 안에서 작은 산막골과 갈라져 북서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큰선바우골 [골]

[위치] 선바우골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에 선바우가 있고, 골짜기 끝에 가매골재가 있다.

큰소바우동지 [소] → 소바우동지

[위치] 아랫성남 성남교 아래에 있는 주포천의 소(沼)를 말한다.

[유래] 여기에서는 남자들이 목욕을 하고 작은소바우동지에서는 여자들이 목욕을 하였다.

큰재 [고개] → 거무내재

큰주련골 [골] → 주련골

큰주차장 [시설]

[위치] 상원골 작은무두치골 남쪽 위에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북서쪽 위, 서낭바위가 있는 곳에 마지막주차장이 있다.

큰집터 [터]

[위치] 주련골 연화사 북동쪽 위, 골짜기 끝부분에 있는 넓은 터를 말한다. 동쪽 능선 너머에 황둔리 석은샛골이 있고 서쪽 능선 너머에는 작은주련골 상류의 기호네집터가 있다.

[유래] 골짜기 안에 큰 집터가 있으므로 큰집터라 하였다.

덧둔지 [들]

[위치] 절골 입구 서쪽에 있는 버덩을 말한다. 능숲과 웃버덩 남쪽, 현 하르방펜션이 있는 곳이다. ‘덧둔지’라고도 한다.

투구바위 [바위]

[위치] 전불 투구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투구바우골 [골]

[위치] 전불 마을 위에서 동쪽으로 925.2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피나무골(1) [골]

[위치] 절골 입구, 덧둔지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남서쪽 너머에 재터골이 있다.

피나무골(2) [골]

[위치] 횃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피나무가 많으므로 피나무골이라 하였다.

하성남(下城南) [마을] → 아랫성남

하성남리성황당 [당] → 아랫성남성황당

허궁다리 [마을]

[위치] 허궁다리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허궁다리골 [골]

[위치] 절골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973.9m 높이의 봉우리 등 시명봉 남동쪽 줄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북서쪽으로 시명골이 갈

라져 나간다.

[유래] 옛날에 큰 산사태가 나서 돌들이 굴러 떨어져 쌓여 땅 밑이 비어 있으므로 허궁다리라 하였다.

[풀이] ‘허궁(허공)+달+이>허궁달이>허궁다리’가 되었다. 지면이 떠있으므로 ‘허공>허궁’이 되었고 ‘다리’는 ‘달+ㅣ>달이>다리’로서, ‘달’은 ‘산(山)’ 또는 ‘높은 곳(高)’을 뜻하는 옛말이며 ‘ㅣ’는 접미사이다. 즉, ‘땅 밑이 텅 빈 산’이라는 뜻이다.



「허궁다리 : 2018년」

헛가마골 [골] → 횃가마골

호랑바위 [바위]

[위치] 가둔지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머리만 남겨 바위 위에 두었다고 해서 호랑바위라고 한다. 그 바위에 호랑이가 자주 와 놀았다고 한다.

호랑바우골 [골]

[위치] 가둔지 마을 앞에서 북동쪽으로, 452.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양지바우골이 있다.

호랑이산 [산]

[위치] 큰미내골과 작은미내골 북서쪽 위에 있는 산을 말한다.

호박골 [골]

[위치] 전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담] 옛날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전불 당

숲의 당목을 찍어 넘기고는 그날 밤에 호환을 당했다고 한다. 다음날 이 골짜기에 시신의 머리만 남아있었으므로 이 골의 이름을 호박골이라 하었다고 한다.

홈바우 [바위]

[위치] 홈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에 홈이 파여져 있어서 홈바우라 한다.

홈바우골 [골]

[위치] 상원골 마지막주차장과 상원사의 중간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시명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상원골 마지막주차장에서 첫 번째 철다리를 건너, 정낭골 남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상류에 시명봉 아래의 ‘작은남대’가 있다.

회곡(回谷) [골] → 횡골

회골 [골] → 횡골

회옥골(回玉-) [골] [마을] → 횡골

회옥굴 [굴] → 횡골굴

회옥폭포 [폭포]

[위치] 횡골 입구에 있는 작은 폭포를 말한다. 횡골의 물이 상원골 높은다리 아래로 합류하는 곳에 있다. 폭포 아래에 무당소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회옥동폭포(回玉洞瀑布)’라 하였다.

횡가마골 [골]

[위치] 작은주련골 쌍갈래길에서 북쪽 752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산 너머에 횡골이 있다. ‘횡가마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 너머에 횡골굴이 있으므로 ‘횡가마골’, ‘횡가마골’이라고 부른다.

횡골 [골]

[위치] 높은다리 아래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회곡(回谷)’이라고 하였다.

횡골 [마을]

[위치] 횡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지금은 가나안농군학교 건물인 복민연수원이 들어서 있다. ‘회옥(回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회골(回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회옥골(回玉-)’이라 하였다.

[내용] 옛날에 절골의 석남사에 이어서 횡골에 절을 지었는데 이 절에서 상원사의 기와를 구웠다고 전한다. 옛 절터는 지금의 복민연수원 자리로 연수원터를 닦을 때 기와편 등이 나왔다고 한다.

[풀이] ‘회옥’은 한자지명 ‘회곡(回谷)’에서 ‘곡(谷)’의 ‘ㄱ’음이 ‘회’의 말음 ‘ㅣ’의 뒤에서 약화되어 탈락한 결과이다. ‘회곡>회옥’이 되었다.

횡골굴 [굴]

[위치] 횡골마을 남쪽 골짜기 중턱에 있는 굴을 말한다. 석회암이 녹아서 생긴 약 50m 정도의 자연굴이다. 박쥐가 많이 서식한다고 한다. ‘회옥굴’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회골굴’이라고 하였다.

송계리(松桂里)

[위치]

송계리는 신림면의 북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비산과 솔치고개를 경계로 하여 영월군 주천면, 남쪽과 서쪽으로는 황둔리, 북쪽으로는 영월군 무릉도원면과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가리파면(加里波面)의 지역으로 육리(六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계야·도룡·삼거리·삼송·유치·회봉산·후동을 병합하여 송계리라 하여 원주군 가리파면 송계리가 되었다.

1917년 가리파면을 신림면(神林面)으로 개칭함에 따라 원주군 신림면 송계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할 때 원주군이 원성군으로 바뀌면서 원성군(原城郡) 신림면 송계리가 되었다.

1989년 다시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바뀌면서 원주군 신림면 송계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가 되었다. 현재 삼송은 황둔리에 소속되어 있다.

[유래]

삼송(三松)과 계야(桂野)의 이름을 따서 송계리(松桂里)라 하였다. 계야(지야)는 송계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옛날에 기와를 많이 구웠으므로 ‘기와’의 방언 ‘개와’로 불리다가 ‘개와>개야>계야, 지야’가 되었다. 한자로는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계야(桂野), 계야(啓野)’로 음차되어 쓰이다가 지금은 ‘계야(桂野)’로 정착되었다.

계야(桂野) [마을]

[위치] 도용 북쪽, 서마니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송계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지야’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계야(桂野)’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계야(桂野, 지야)’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기와를 구웠으므로 ‘기와’의 방언 ‘개와>개야’라고 하다가 한자로 소리를 적어 ‘계야(桂野, 啓野)’라 하였다. 또는 옛날에 이 마을에 계수나무가 아주 많아 ‘계야’라고 하였다고도 하고, 한국전쟁 때까지도 계수나무 고사목이 있었다고 전하나 이는 桂野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계수나무 때문이라면 啓野로 썼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즉 ‘桂野, 啓野’는 기와의 방언 ‘개와, 개야’를 음차하여 소리를 적은 것이다.

[풀이] ‘지야’는 ‘기와’의 옛말이다. 현대 국어의 ‘기와’는 ‘덜새>디새>디새>디애>지애>지야>지와>기와’의 복잡한 변화를 거친 단어이다. 옛말 ‘지야’라는 지명이 현재에도 남아있고, ‘기와’의 방언 ‘개와’가 ‘개와>개야, 계야’가 되어 지금은 ‘지야’, ‘계야’로 실현되고 있다.



「계야 마을 : 2019년」

계야강(啓野江) [내] → 황둔천

[위치] 황둔천의 다른 이름이다. 계야 앞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계야강이라 하였다. ‘계야천’이라고도 한다. 『관동지』에 ‘계야천(啓野川)’이라 하였다.

계야느티나무 [나무]

[위치] 계야 절골 입구 독바우 옆에 있는 세 그루의 느티나무를 말한다. 예전부터 마을에서 신성시

하며 보호하고 있다.

계야뒷골 [골] → 뒷골

계야들 [들]

[위치] 계야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웃들’과 ‘아랫들’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계야뜰(桂野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계야들’이라 하였다.

계야샘물 [샘]

[위치] 계야 마을 절골 입구 개울 독바우 옆,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샘을 말한다.

계야성황당 [당]

[위치] 계야 마을 입구, 언덕에 있던 옛 성황당을 말한다. 당은 폐지되어 없어졌고 소나무 당숲이 남아있다.

계야아랫들 [들]

[위치] 계야 마을 북서쪽 황둔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계야웃들 [들]

[위치] 계야 마을 남동쪽, 황둔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계야천(啓野川) [내] → 계야강, 황둔천

고사리골(1) [골]

[위치] 회사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고사리골(2) [골]

[위치] 계야 마을 서쪽, 절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안골 [골]

[위치] 회사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731.7m 봉우리와 764.7m 봉우리로 이어진 회봉산 줄기를 향하여 길게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꽃밭구덩이 [들]

[위치] 계야 왜동지 위에 있는 둔덕을 말한다.

[유래] 꽃나무가 무성하였으므로 꽃밭구덩이라고

하였다.

넘바골 [골]

[위치] 솔치 녹방골 끝부분에서 남쪽으로, 666.6m 봉우리를 향하여 다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녹방골 [골]

[위치] 솔치마을 솔치골에서 남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물미골 서쪽, 제당골 동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끝에서 다시 넘바골이 이어진다. 『한국지명총람』에 ‘녹방골’이라 하였다.

늦대장골 [골]

[위치] 버들치 마을 이터골과 안골 사이에서 남동쪽으로, 558.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달기양지 [들]

[위치] 버들치 마을 동쪽, 달기양지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별이 잘 드는 높은 곳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달+기+양지>달기양지’이다. 이때 ‘달’은 옛말 ‘달(高·山)’이며 ‘기(己)’는 ‘곳, 장소’를 뜻하는 지명소이다. 따라서 달기양지는 ‘양지바른 높은 곳’의 뜻이다.

달기양지골 [골]

[위치] 버들치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버들치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버들치재가 있다.

도룡 [마을] → 도용

도룡골 [골] [마을] → 도용골

도룡(道龍) [마을] → 도용

도룡골 [골] → 도용골

도용(道用) [마을]

[위치] 계야 남서쪽, 삼송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도룡’, ‘도룡’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도룡골(道用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에 ‘도룡골(도룡골, 도용道用)’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용이 승천한 소(沼)가 있었으므로 ‘도룡>도용’이라 하였다고 한다.

도용골 [골]

[위치] 도용 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도용뒹골 동쪽에 있다.

도용골들 [들]

[위치] 도용 마을 동쪽 앞, 황둔천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도용골앞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룡골앞들’이라 하였다.

도용골앞들 [들] → 도용골들

도용뒹골 [골]

[위치] 도용 마을 뒤에서 북서쪽으로, 외솔배기 북쪽 능선에 있는 640.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도용성황당 뒹쪽, 도용골 서쪽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도용뒹골’이라 하였다.

도용들 [들]

[위치] 도용 마을 남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웃들’이라고도 한다.

도용성황당 [당]

[위치] 도용 마을 가운데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성황당’이라 하였다.

[내용] 소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매년 정월 보름에 당고사를 지낸다. 위패는 없고 큰 벽화를 걸어두었는데 벽화에는 백마를 탄 젊은 왕과 공물을 바치는 백성의 모습을 그렸다. 젊은 왕은 단종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도용성황당 ; 2019년」

독바우 [바위]

[위치] 계야 절골과 처마골이 갈라지는 곳 입구, 개울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느티나무와 계야샘 물이 같이 있다. ‘용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큰 바위가 홀로 우뚝 서 있으므로 ‘독바우’라고 한다. 또는 바위가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여 ‘용바우’라고도 한다.

[내용] 독바우가 무서워 밤에는 아이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세 그루의 느티나무와 함께 마을에서 신성시하고 있다.



「독바우 ; 2018년」

돌고지 [산]

[위치] 솔치 앞산 솔치골 입구에 있는 산자락을 말한다. 현 송어파티 식당 북동쪽에 있다.

[유래] 곳처럼 돌출된 곳에 돌이 많이 흘러 내려와 있으므로 돌고지라 하였다.

[내용] 이곳이 옥녀산발형의 명당자리 중 거울자리라 하여 돌고지 앞에 무덤들이 많이 있다. 서쪽 맞은편 메골과 연관된 지명이다.

[풀이] 일반적으로 ‘돌고지’는 ‘도랑의 굽이진 곳’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여기는 비산에서 내려온 산자락이 곳처럼 돌출되어 있고 거기에 돌이 흘러내려 많이 쌓여 있으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돌+곳(串)+이>돌곳이>돌고지’가 되었다. ‘ㅣ’는 명사형성 접미사이다.

돌고지샘 [샘]

[위치] 돌고지에 있는 샘을 말한다. 현 송어파티 식

당 양식장이 들어서 있다.

되내재 [고개] → 버들치

[위치] 버들치 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고개 너머에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되내)가 있다.

[유래] 도천리(桃川里)의 옛 이름이 물이 돌아가는 곳이라 하여 ‘되내(<도내>돌내)’인데, 되내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므로 되내재라 하였다.

뒷골 [골]

[위치] 계야 처매골 중간에서 북쪽으로, 557.2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북쪽 너머에 뒷골 마을이 있다.

뒷골 [마을]

[위치] 아래뒷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계야 북서쪽, 뒷골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현 생명샘기도원이 들어서 있다. ‘계야뒷골’, ‘후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뒤골(後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뒷골(후동後洞, 계야뒷골)’이라고 하였다.

메골 [골]

[위치] 치골과 도용뒷골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묘골’, ‘뫼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 안에 묘가 많으므로 ‘묘골>뫼골>메골’이라 한다.

[내용] 골짜기의 지형이 옥녀산발형의 지형으로 여자가 산발을 하고 머리를 빗는 형국인데, 이는 도용 뒷산이 5개의 골로 이루어져 꼭 열개 빗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동쪽 도용들 건너편 솔치 앞산 돌고지는 거울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 골짜기에 명당의 혈이 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묘소를 썼다고 전한다.

메네치골 [골]

[위치] 버들치 배나무골 북쪽, 서마나강에서 동쪽으로 526.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뫼넛골’, ‘며느리취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며느리취나무가 많아서 ‘며느리취골>메네치

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내용] 영월군과 경계가 되는 골짜기로, 골짜기 북쪽 서마니 마을에 큰메네치골이 있다. 산나물이 많은 골짜기로 옛날 어린애들이 죽으면 이 골짜기에 많이 묻었다고 한다.

며느리취골 [골] → 메네치골

외골 [골] → 메골

외넛골 [골] → 메네치골

묘골 [골] → 메골

물미골 [골]

[위치] 솔치 마을 동쪽 끝, 솔치재 서쪽 아래에서 남동쪽으로, 595.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원수골 남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남쪽 너머에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물미 마을이 있다.

물안천 [내] → 황둔리 물안천, 황둔천

배거리산 [산] → 비산

배나무골 [골]

[위치] 계야 북쪽, 회사 남쪽의 아랫땃골 동쪽 건너 맞은편에서 동쪽으로, 526.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버덩말 [마을]

[위치] 도용앞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버들치 [고개]

[위치] 버들치 마을에서 동쪽으로,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비산 북쪽에 있다. 고개 높이는 530m이다. '유치(柳峙)', '유치고개', '되내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들치(유치柳峙)'라 하였다.

[유래] 고개가 짙은 푸른색이 있으므로 버들치, 버들고개라고 하였다. 또는 옛날에 버드나무가 있었으므로 버들치라고 하였다고 한다. 고개 너머 주천면 도천리가 있으므로 도천리의 옛 이름 '되내'를 따

라 '되내재'라고도 하였다.

[풀이] '버들'이 들어간 지명들은 대개 버드나무와 연관시키지만 고갯길이 짙은 푸른색에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뽕(뽕)+은(을)+치>뽕은(뽕을)치>버들치, 유치(柳峙)'이다.

버들치 [마을]

[위치] 계야 북동쪽, 비산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유치(柳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들치(유치柳峙)'라 하였다.

[유래] 버들치 고개의 이름을 따라 마을 이름도 버들치라 하였고, 이를 한자로 적어 '유치(柳峙)'라 하였다.

버들치성황당 [당]

[위치] 버들치 마을 달기양지골과 안골이 갈라지는 지점의 안골 입구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1900년대부터 전해온 성황당으로 1959년에 새로 지었다. 당집 처마에 개건 당시의 찬조금을 낸 26명의 이름과 100원부터 2,000원에 이르는 찬조금 내역이 목판에 기록되어 있다.



「버들치성황당」 2019년

범어골 [골] → 범우골

범우골 [골]

[위치] 계야웃들에서 황둔천을 건너 동쪽으로, 높이 593.8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범어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에 이 골짜기에서 범이 자주 나타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산(飛山) [산]

[위치] 솔치재 북동쪽, 버들치 남쪽 능선에 있는 높이 694.3m의 산을 말한다. 원주시 신림면과 영월군 주천면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비우산’, ‘배거리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비산(비우산)’이라고 하였다.

[유래] 예부터 산 위에 구름이 걸려 있으면 꼭 비가 온다고 해서 ‘비산’, ‘비우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옛날 서마니강이 범람했을 때 산꼭대기에 배가 걸려들므로 ‘배거리산’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비우산(飛雨山) [산] → 비산

사동(寺洞) [마을] → 절골

삼거리 [마을]

[위치] 도용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삼거리(三乚里, 삼거리장三乚里場)’라고 하였다.

[유래] 평촌과 솔치, 송계리로 가는 세 갈래 길이므로 삼거리라 하였다.

삼거리장(三乚里場) [장]

[위치] 예전 삼거리에 서던 5일장을 말한다. 지금은 장이 서지 않는다.

삼송(三松) [마을] → 황둔리 삼송

서마니강 [내]

[위치] 회사 앞을 흐르는 강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 부르는 주천강의 다른 이름이다. ‘섬안이강’이라고도 한다.

[유래] 영월군 무릉도원면 도원리 섬안 마을은 강이 마을을 감싸고 한 바퀴를 돌아나가므로 마치 섬의 안쪽 같다고 하여 ‘섬안’, 또는 ‘섬안이>서마니’라고 한다. ‘섬안이>서마니’ 마을 이름을 따라 ‘섬안이강>서마니강’이라 하였다.



「서마니강 ; 2019년」

설통바우 [바위]

[위치] 큰치골 안 설통바우골에 있는 넓은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아래에 벌통을 놓고 벌을 처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바우골 [골]

[위치] 큰치골에서 북쪽으로, 556.9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섬안이강 [내] → 서마니강

솔치 [고개]

[위치] 황둔천 동쪽, 솔치마을에서 영월군 주천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영월군 주천면과 경계가 되는 고개로 지금은 솔치터널이 나 있다. 고개 높이는 450m이다. ‘솔치재’, ‘송치’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솔치씨(松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솔치(송치松峙)’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큰 숲을 이루고 짙게 있었으므로 솔치라 하였다. 신작로를 내고, 일본인들이 동광을 개발하면서 훼손되어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다.

솔치 [마을]

[위치] 솔치들 동쪽, 솔치재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자로 ‘송치(松峙)’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솔치(松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솔치(송치松峙)’라 하였다.

솔치골 [골]

[위치] 솔치들에서 동쪽으로, 솔치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솔치 마을이 있다.

솔치들 [들]

[위치] 솔치 마을 서쪽 아래, 황둔천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삼송 동쪽, 도용들 남동쪽 황둔천 건너에 있는 들이다.

솔치성향당 [당]

[위치] 솔치 마을 솔치골 입구 길옆에 있던 성향당을 말한다.

[내용] 당은 폐지되었고 그 자리에 솔치침터가 세워져 있다. 당숲이 남아있다.

솔치앞산 [산]

[위치] 도용 동쪽 건너편에 있는 높이 478m의 산을 말한다.

[유래] 솔치 마을 뒤에 있으나 도용에서 보아 동쪽 마을 앞에 있으므로 솔치앞산이라 부른다.

[내용] 비산(694.3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려온 산줄기의 마지막 봉우리이다. 산 서쪽 아래에 돌고지가 있다.

솔치웃물 [샘]

[위치] 솔치 아래, 옛 402번 국도변에 있는 샘을 말한다.

솔치재 [고개] → 솔치

송계천(松桂川) [내] → 황둔천

송치(松峙) [고개] [마을] → 솔치

아랫땃골 [골]

[위치] 계야 북쪽, 회사 남쪽, 배나무골 서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땃골 마을이 있다.

아랫들 [들]

[위치] 계야웃들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아랫들보 [보]

[위치] 도용골들 동쪽에 있는 황둔천의 보(洑)를 말한다. 아랫들에 물을 댄다.

안골 [골]

[위치] 버들치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비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애미자골 [골]

[위치] 계야 마을회관 동쪽 황둔천 건너에서 남동쪽으로, 600.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오미장골’, ‘오메장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오미자나무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 한다.

오메장골 [골] → 애미자골

오미장골 [골] → 애미자골

왜둔지 [들] → 왜둥지

왜둥지 [들]

[위치] 계야 마을 입구에 있는 둔덕을 말한다. ‘왜둔지’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에 아름드리 숲에 왜가리들이 둥지를 틀었으므로 ‘왜둥지’라 하였다고 한다. 한국전쟁 이후 나무들이 고사되고 화전을 일군 후 숲은 없어지고 현재는 이름만 남아있다. 또는 임진왜란 때 왜병이 이곳에 군영을 두고 진을 쳤다고 하여 ‘왜둔지’라 불렀다고도 한다.

외솔배기 [산]

[위치] 도용골 서쪽, 중골봉 남쪽에 있는 629.8m 높이의 산을 말한다. 황둔리와 경계되는 산이다.

[유래]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으므로 외솔배기라 하였다.

외솔배기골 [골]

[위치] 큰치골에서 설통바우골과 갈라져서 북서쪽으로, 외솔배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용바우 [바위] → 독바우

용바우골 [골]

[위치] 독바우(용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웃돌 [돌] → 도용돌

웃돌보 [보]

[위치] 도용골들에 있는 황둔천의 보(洑)를 말한다.
계야웃돌에 물을 댄다.

원수골 [골]

[위치] 솔치골 동쪽 끝, 솔치재 아래에서 북쪽으로, 비산 줄기인 580.2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물마골 북쪽 맞은편에 있다. '전장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임진왜란 때 주천에서 왜병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들이 솔치 뒷 골짜기에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탐지한 왜적들이 비산을 돌아 의병의 뒤를 쳐 많은 의병들이 이곳에서 전사하였다고 한다. 이때 많은 의병이 죽고 왜적에게 원수를 진 곳이라 하여 '원수골', 왜병과 의병이 전투를 벌인 곳이라 하여 '전장골'이라 부른다 한다.

유치(柳峙) [마을] → 버들치

유치성황당 [당] → 버들치성황당

육리(六里) [마을] → 송계리

이터골 [골]

[위치] 버들치 마을 입구에서 남동쪽으로, 비산 줄기인 629.8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골 [골]

[위치] 골안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미내골 [골]

[위치] 계야아랫들에서 서쪽으로, 540.8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미내골 남쪽에 있다.

작은치골 [골]

[위치] 도용 마을 도용들에서 북서쪽으로, 556.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매골 남쪽, 설통바우골 북동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재피골 [골]

[위치] 계야 절골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전장골 [골] → 원수골

절골 [골]

[위치] 계야에서 서쪽으로, 788.4m 높이의 회봉산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 안에 절이 있었으므로 절골이라 부른다. 현재 골 입구에 약천사가 있다.

절골 [마을]

[위치] 절골 안, 회봉산 동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사동(寺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절골(寺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절골(사동寺洞)'이라 하였다.

[내용] 골이 커서 옛날에는 15가구가 살았으나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제당골 [골]

[위치] 솔치 마을 남쪽, 도로 건너편에서 남쪽으로, 636.2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녹방골이 있다. 현 원주참숯가마캠핑장 도도캠핑가 들어서 있다. '지당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 산제당이 있어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중골봉 [산]

[위치] 도용뒷골 끝, 외솔배기 북쪽 능선 위에 있는 높이 640.2m의 산을 말한다. 송계리와 황둔리의 경계가 되는 산줄기에 있다.

[유래] 황둔리 중골 위에 있는 산이므로 중골봉이라 하였다.

중산안골 [골]

[위치] 계야 절골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 중이 살았으므로 '중살은골>중산안골'이라 하였다.

지당골 [골] → 제당골

지야 [마을] → 계야

처마골 [골] → 처매골

처매골 [골]

[위치] 계야에서 북서쪽으로 641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뒷골이 북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처마골’이라고도 한다.

천제단거리 [터]

[위치] 도용들 가운데 있던 옛 제사터를 말한다. 천제단거리와 터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내용] 도용들 가운데 큰 소나무 밑에 단을 쌓아 제를 지내던 곳이다. 가뭄이 들면 돼지를 잡아 천제를 지냈다. 이곳 제단에 있는 돌을 가져다 사사로이 쓰면 동티가 나서 사람이 앓고 다시 가져다 놓으면 병이 나았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소나무가 노랗게 말라 죽었고 미군들이 들어와서 고사목을 베어버렸다고 전한다.

치골 [마을]

[위치] 도용 남서쪽, 큰치골과 작은치골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큰골(1) [골]

[위치] 서마니강이 흐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송계리와 영월군 무릉도원면의 경계되는 골짜기이다.

큰골(2) [골]

[위치] 솔치들에서 남동쪽으로, 636.2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미내골 [골]

[위치] 계야아랫들에서 서쪽으로, 540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미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치골 [골]

[위치] 도용들과 황둔리 줄개들 사이에서 북서쪽으로 외솔배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서 외솔배기골과 설통바우골이 갈라진

다. 골짜기 북동쪽에 작은치골이 있다.

황둔보(黃屯淤) [보]

[위치] 솔치들 서쪽, 송계교 북쪽 아래 황둔천에 있는 보(淤)를 말한다. 솔치들에 물을 댄다.

황둔천(黃屯川)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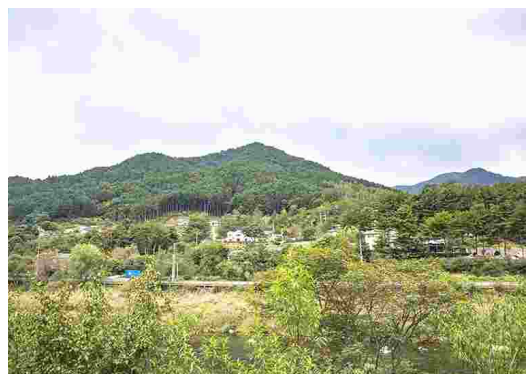
[위치] 싸리치와 응봉산 줄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며 황둔에서 오미천을 합류하고 북쪽으로 흐르다가 서마니에서 주천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계야강’, ‘계야천’, ‘물안천’, ‘송계천’이라고도 한다. 『관동지』에 ‘계야천(啓野川)’이라고 하였다.

[유래] 황둔리를 경유하므로 황둔천이라고 하였다.

회봉산(回峰山) [산]

[위치] 계야 북서쪽, 절골 서쪽 끝에 있는 산을 말한다. 신림면 송계리와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산 서쪽 줄기 아래에 황둔리의 초치(初峙)가 있다. ‘북봉(765.8m)’과 ‘남봉(788.4m)’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회봉산(回峰山)’이라고 하였다.

[내용] 이 산의 북쪽 줄기에 있는 영월군 무릉도원면의 높이 766.1m의 산 또한 회봉산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 산줄기의 봉우리들은 대체로 회봉산으로 통용됨을 알 수 있다. 백운산 이름이 판부면과 귀래면 등에 널리 분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회봉산」; 2019년

회봉산(回峰山) [마을]

[위치] 절골 동쪽 끝, 회봉산 동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회봉산(回峰山)’이라고 하였다.

회봉산 남봉 [산]

[위치] 회봉산 줄기에 있는 높이 788.4m의 봉우리를 말한다. 절골 서쪽 끝에 있다. 남봉과 북봉을 비롯한 이 산줄기를 회봉산으로 부른다.

회봉산 북봉 [산]

[위치] 회봉산 줄기에 있는 높이 765.8m의 봉우리를 말한다. 절골 서쪽 끝에 있다. 남봉과 북봉을 비롯한 이 산줄기를 회봉산으로 부른다.

회사 [마을]

[위치] 계야 북쪽, 서마니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회사들 [들]

[위치] 회사 마을 남쪽, 서마니강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후동(後洞) [마을] → 뒷골

신림리(神林里)

[위치]

신림리는 신림면의 중심 되는 마을로 신림면 소재지이다.

동쪽으로는 황둔리, 서쪽으로는 금창리, 남쪽으로는 용암리와 구학리, 북쪽으로는 성남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가리파면(加里坡面)의 지역으로 일리(一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능골·당후·마지동·산두·신산·역골·유교동·언곡을 병합하여 신림리(神林里)라 하여 원주군 가리파면 신림리가 되었다.

1917년 가리파면을 신림면(神林面)으로 개칭함에 따라 원주군 신림면 신림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할 때 원주군이 원성군으로 바뀌면서 원성군(原城郡) 신림면 신림리가 되었다.

1989년 다시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바뀌면서 원주군 신림면 신림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가 되었다.

[유래]

고려 성종 11년(991)에 신림역(神林驛)이 등장하므로 신림(神林)이라는 이름은 고려시대 이전, 늦어도 역참(驛站) 제도가 확립된 통일신라시대부터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림(神林)이라 불린 것은 이 지역이 예부터 신(神)이 깃든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 이 지역에 신(神)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분포하며, 신림당(神林堂)과 성황림의 성황당 등 당이 무수히 많은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역(驛)을 신림(神林)에 세웠기 때문에 신림역이라 하였을 것이므로 신림(神林)은 옛 신림역 부근으로서 신림당·신산·귀신숲 등이 있는 신림골, 즉 현 면소재지 지역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는골 [골]

[위치] 연골 안 농골 입구에서 남쪽으로, 589.4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옛 신림면 쓰레기소각장이 있던 곳에서 남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이다.

[유래] 골이 가늘고 길어서 가는골이라 하였다.

각시바우 [바위]

[위치] 옷산뒤골과 아래산뒤골 사이에 있는 주포천 옆의 큰 바위를 말한다. 신랑바우의 남쪽 200m 지점에 있다.

[유래] 각시바우를 흔들면 마을 총각들이 바람이 나고 신랑바우를 흔들면 처녀들이 바람이 나므로 밤이 되면 처녀총각들이 서로 바위를 흔들었다고 한다. 각시바우 아래에는 굴이 있는데 한국전쟁 때 인민군들이 시체 수백 구를 여기에 암장하여 최근 까지도 해골이 많았다고 한다.



「각시바우 : 2018년」

갈가지바우 [바위]

[위치] 와룡골 골짜기 위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갈가지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 밑에 갈가지(개호주:호랑이 새끼)가 살았으므로 갈가지바우라 한다.

갈곡(葛谷) [마을]

[위치] 신림 북서쪽 위, 둔창 남서쪽, 금옥동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갈골’, ‘갈공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갈공니(葛公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갈공이(갈공동葛公洞)’라 하였다.

[유래] 지형이 갈고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갈공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갈곡(葛谷)’이라 하였다.

갈곡동(葛谷洞) [마을] → 갈곡

갈골 [마을] → 갈곡

갈공이 [마을] → 갈곡

강원도로마이트 [광산]

[위치] 역골 뒤에 있던 옛 광산 이름이다. 인조석 및 철을 녹이는데 쓰이는 물질을 채굴하였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강원도로마이트’라 하였다.

고림새골 [골]

[위치] 역골 마을 남서쪽, 산막골과 범골 사이에서 남쪽으로, 620.7m 높이의 수리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골짜기 전체에 석회광산이 들어서 있다.

골안 [마을]

[위치] 현 신림중학교 동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곳집골 [골]

[위치] 역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상여를 보관하던 집이 있어서 곳집골이라 하였다.

귀신숲(1) [숲] → 신숲

귀신숲(2) [숲]

[위치] 신랑바우, 각시바우 뒤에 있는 옷산뒤골의 숲을 말한다.

[유래담] 옛날 신랑바우에 의병이 잠복해 있다가 왜군 수백 명을 전멸시킨 곳인데 그 후 해골이 나뒹굴어 귀신이 나온다고 하여 귀신숲이라고 부른다.

금옥동(金玉洞) [마을]

[위치] 가리파고개 남동쪽, 둔창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쇠골’, ‘소터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쇠골(金玉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쇠골(금옥동金玉洞)’이라 하였다.

[유래] ‘소골’이 음운 변화하여 ‘쇠골’이 되고 이를 한자로 금옥동이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옛 날에 쇠를 많이 캐서 쇠골, 이를 한자로 쇠‘금(金)’자를 써서 ‘금옥동’이 되었다고도 한다.

[풀이] 쇠를 많이 캐다고 하나 실제 철광산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곳에 ‘소터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골>쇠골’이 되고 ‘쇠’를 한자로 ‘金’자를 취하여 ‘금옥동’으로 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옥동서낭 [당]

[위치] 금옥동 마을 입구, 마을회관 앞마당에 있는 서낭을 말한다.

[내용] 느티나무를 당목으로 삼아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정성을 드린다. 제사가 다가오면 마을길 입구에도 금줄을 치고 황토 흙을 세 무더기 쌓아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금창천(金倉川) [내]

[위치] 가리파 고개에서 시작하여 흑천, 금옥동을 지나 둔창 앞에서 둔창천과 합류하고 역골에서 역곡천과 합류한 다음 신림에서 주포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용암천(龍岩川)’이라고도 한다.

[유래] 금옥동(金玉洞)과 둔창(屯倉)을 지나므로 금창천이라고 부른다.

[내용] 주포천을 용암천이라고도 불렀고 둔창천이 용암천의 상류에 해당하므로 용암천이라고도 불렀다. 현재 용암천은 주포천이라 부르고 주포천의 큰 줄기는 성남리를 거쳐 흐르므로 이 내는 마을 이름을 따라 금창천으로 부른다.

남산(南山) [산]

[위치] 신림면소재지 남쪽에 있는 높이 477.8m의 산을 말한다.

남산개 [들]

[위치] 신림면소재지 남쪽의 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금창천 건너에 있는 들과 면소재지 남쪽 주포천을 따라난 들을 합쳐서 말한다. ‘남산개’, ‘남산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남산개’라 하였다.

남산개보 [보]

[위치] 새말 서쪽, 남산개에 있는 주포천의 보(湫)를 말한다. ‘남산개보’, ‘남산들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남산개보’라 하였다.

남산개샘 [샘]

[위치] 남산개 남쪽, 신랑바위 옆에 있는 샘을 말한다.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좋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남산들 [들] → 남산개

남산들보 [보] → 남산개보

남산개 [들] → 남산개

남산개보 [보] → 남산개보

내마짓골 [마을] → 안말

논골 [골] → 농골

농골 [골]

[위치] 402번 옛 도로, 현 싸리치길 지당골 동쪽, 큰지당골 서쪽 사이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636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논골’, ‘농바우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농바우가 있어서 농바우골이라 하던 것이 줄어서 ‘농골’이 되었다고 한다.

[내용] 예전 쓰레기소각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산삼농장이 들어서 있다. 지도에는 ‘논골’로 나온다.

농바우 [바위]

[위치] 농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큰 바위가 장롱의 반달이처럼 생겼으므로 농바우라고 하였다.

농바우골 [골] → 농골

능골 [골]

[위치] 현 신림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440.9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 중앙고속도로와 옛 중앙선 철로가 있다. 동쪽 산 너머에는 일신광업 채석장이 있었다.

[유래담] 조선시대에 이곳에 능터를 잡아놓고 쓰

지 않았다고 전한다.

능골 [마을]

[위치] 능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능동’, ‘능밑’, ‘능하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능골(陵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능골(능동陵洞, 능밑, 능하동陵下洞)’이라고 하였다.

능동(陵洞) [마을] → 능골

능밑 [마을] → 능골

능하동(陵下洞) [마을] → 능골

당뒤 [마을]

[위치] 언당 서쪽, 배나무거리 북서쪽, 설통바우골 (1) 앞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당후동(堂後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당뒤(堂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당후동(堂後洞)’이라 하였다.

[유래] 당의 뒤쪽에 마을이 있으므로 ‘당뒤’라고 하였다. 당은 1980년대에 없어지고 당숲이 남아있다.

당뒤당숲 [숲]

[위치] 언당 서쪽, 주포천 옆에 있는 소나무 당숲을 말한다. 현재 노송 약 20그루가 남아있다.

당뒤성황당 [당] → 언당성황당

당후동(堂後洞) [마을] → 당뒤

당후동성황당 [당] → 언당성황당

도록(逃鹿) [들] → 주누개

두꺼비밑네모골 [골]

[위치] 마지뜰 서쪽, 주포천 옆의 옛 신림소공원 자리에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뒷담 [마을]

[위치] 신림초등학교 북서쪽, 와룡골 남동쪽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학교 담 뒤에 마을이 있으므로 ‘뒷담’이라 하였다.

마지동(麻芝洞) [마을]

[위치] 신림동 동쪽, 삼거리 남쪽, 현 신림중학교

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마을 동서쪽으로 중앙고속도로와 신림TG가 나 있다. ‘마짓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마지몰(麻之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마짓골(마지동麻芝洞)’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종이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마지동 마을 ; 2019년」

마지동당숲 [숲]

[위치] 마지뜰 안말 앞, 현 신림TG 남쪽에 있는 당숲을 말한다. 옛날에는 숲이 무성했으나 농지에 편입되고 도로가 나면서 훼손돼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있다. ‘마짓골당숲’이라고도 한다.

마지동성황당 [당]

[위치] 마지동 당숲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안말 서쪽 앞, 현 신림TG 남쪽에 붙어있다.

[내용] 예전에는 당숲이 무성했으나 도로가 나고 주변이 들로 개발되면서 당목 몇 그루만 남아있다. 성황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당고사를 지낸다.



「마지동성황당 ; 2019년」

마지뜰 [뜰]

[위치] 삼거리 남쪽, 마지동 북서쪽에 있는 주포천 옆의 넓은 뜰을 말한다. 현 신림TG 남쪽, 중앙고속도로 북쪽에 있는 뜰이다. 뜰의 대부분이 도로에 편입되었다. '마짓골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마지골뜰(麻之洞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마짓골들'이라고 하였다.

마짓골 [마을] → 마지동

마짓골당숲 [숲] → 마지동당숲

마짓골들 [뜰] → 마지뜰

마짓골보 [보]

[위치] 삼거리 서쪽에 있는 주포천의 보(洑)를 말한다. 마지뜰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마짓골보'라 하였다.

마짓골서낭당 [당] → 마지동성황당

매봉재 [산]

[위치] 갈곡 서쪽, 역골 북서쪽에 있는 604.9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서쪽 너머에 금창리 강안이 마을이 있다.

[내용] 금창리 강안리와 신림리 역골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매봉재골 [골]

[위치] 역골 마을에서 북쪽으로, 매봉재 줄기인 높이 543.6m의 봉우리를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머우바우골 [골]

[위치] 마지동 골안 동쪽에서 북동쪽 597.1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북쪽 너머에 농골이 있다.

모기장골 [골] → 보기장골

미아골 [골]

[위치] 마지동 골안 마을에서 불당골과 갈라져 북쪽으로, 높이 546.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북쪽 너머에 서들골과 지당골이 있다.

바랑골 [골]

[위치] 금옥동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거무내재가 있는 높이 673.2m의 봉우리를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의 형상이 종이 지고 다니는 바랑같이 생겨서 바랑골이라 하였다 한다.

[풀이] '바랑'은 '벼랑'의 영서방언이다. 골짜기에 바위벼랑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박쥐굴 [굴]

[위치] 아래산뒤골에 있는 굴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박쥐굴'이라 하였다.

[유래] 일제강점기에 광물탐사를 하다가 버려진 굴에 박쥐가 살므로 박쥐굴이라 한다.

밤나무골 [골]

[위치] 신림중학교 동쪽 뒷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방석솔 [나무]

[위치] 현 신림치안센터에 있는 소나무를 말한다. 옛 신림당 당숲의 일부이다.

배나무거리 [마을]

[위치] 삼거리 북쪽, 언당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명성교회가 있는 곳이다.

[유래] 마을 앞길에 돌배나무가 있었으므로 배나무거리라 하였다.

백정소 [소]

[위치] 신림 앞 금창천과 주포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던 소(沼)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 버드나무가 많이 자랐는데 고리백정이 버드나무를 베다가 빠져죽어서 백정소라 하였다. 옆에 신림도수장이 있었다.

백회광산 [광산]

[위치] 당뒤 마을에 있는 백회를 캐던 옛 광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백회광(白灰鑛)'이라고 하였다.

버덩들 [뜰]

[위치] 새말 남쪽, 웃산뒤골 동쪽 주포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남쪽 끝은 용암리와 경계이다.

버드내골 [골] → 유다리골

범골 [골]

[위치] 역골 마을 남서쪽의 산막골과 큰골 사이에서 북서쪽으로, 높이 604.9m의 매봉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 동쪽, 산막골 서쪽 사이, 고림새골 북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보기장골 [골]

[위치] 배나무거리에서 주포천 건너 서쪽으로, 높이 556.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설통바우골(1) 남쪽에 있다. 골짜기 서쪽 너머에 와룡골이 있다. ‘모기장골’이라고도 한다.

보리골 [골]

[위치] 금옥동 소터골 안, 외랑골과 바랑골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 이 골짜기에서 보리농사를 하였으므로 보리골이라 하였다.

복수네미골 [골]

[위치] 역골에서 남쪽으로, 526.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애막골 서쪽, 사나무실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너머에 구학리 선학동 복수네미골이 있다.

봉국이바우 [바위]

[위치] 금옥동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담] 옛날에 자식이 없는 사람이 이 바위에 처성을 드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봉국이라고 하였으므로 봉국이바우라 하였다고 한다.

분추밭구덩이 [골]

[위치] 역골에서 북쪽 갈곡으로 넘어가던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현재 역골 전체에 대규모 석회광산이 들어서서 골짜기가 모두 없어졌다.

불당골 [골]

[위치] 마지동 골안 마을에서 미아골과 갈라져 동

쪽으로, 543.3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사나무실골 [골]

[위치] 역골 마을에서 남쪽으로, 524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시당골 동쪽, 복수네미골 서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남쪽 너머에 구학리 선학동의 안반대기가 있다.

산두 [마을] → 산뒤

산두들 [들] → 용암리 산뒤들

산뒤 [마을]

[위치] 새말 서쪽 주포천 건너, 웃산뒤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산두(山頭)’, ‘산후동(山後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산두(山頭)’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산뒤(산두山頭, 산후동山後洞)’라고 하였다.

[유래] 수리산 북쪽 뒤에 있으므로 ‘산뒤’, ‘산두’라고 하였다. 이를 한자로 적어서 ‘산두(山頭)’, ‘산후동(山後洞)’이라고 하였다.

[풀이] ‘산두(山頭)’는 ‘산뒤’의 소리를 따른 것이며 ‘산후(山後)’는 뜻을 따른 것이다.

산막골 [골]

[위치] 역골 마을 서쪽 위에서 매봉재를 향하여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산제당골 [골]

[위치] 마지동 마을회관 동쪽 고속도로 건너편에서 동쪽으로, 458.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샘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산제당이 있으므로 산제당골이라고 하였다.

산후동(山後洞) [마을] → 산뒤

삼거리 [마을]

[위치] 마지동 북쪽, 배나무거리 남쪽, 언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성남과 신림, 짜리치로 가는 옛 도로가 갈라지는 세 갈래 길이므로 삼거리라 부른다.

삼봉산(三峰山) [산] → 용암리 삼봉산

상보들 [들]

[위치] 갈곡 마을 동쪽 앞, 금창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새갈골 [골] → 셋갈골

새들보 [보]

[위치] 웃산뒤골 앞 신랑바우 앞에 있는 주포천의 보를 말한다. 버덩들과 용암리 새들에 물을 댈다.

새마을동네 [마을] → 새말

새말 [마을]

[위치] 신림 면소재지의 남쪽, 신림IC 북서쪽, 5번 제원으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새터말’, ‘새마을동네’, ‘신기동(新基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시터(新垆)’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새터말(신기동新基洞)’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지리지』에 ‘시터(新垆)’라고 한 것으로 보아 원래 한 집이 있던 들에 ‘새터’란 이름이 있었으나 1960년대에 저수지 독이 터져 쓸려나간 후 새로 마을이 크게 들어서서 ‘새말’, ‘새터말’이라 하였다. 새말이 신산 옆에 있으므로 그 이름을 따서 지금은 ‘신산’이라 부른다.

새목쟁이골 [골]

[위치] 마지동 골안에서 동쪽으로 웃새목재에 이르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새터말 [마을] → 새말

샘골 [골]

[위치] 마지동성황당에서 동쪽 중앙고속도로 건너 높이 501.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마지뜰 식당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우무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에 샘이 있어서 동네에서 물을 길어 먹었다고 한다.

셋갈골 [골]

[위치] 갈곡 마을에서 서쪽으로, 매봉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아래갈골 북쪽, 웃갈골 남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갈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두 골짜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셋갈골’이라 하였다.

[풀이] ‘사이+갈골>사이갈골>새갈골>셋갈골’이 되었다.

서들골 [골]

[위치] 옛 도로가 있는 언골에서 남쪽으로 550.3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지당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 대창석회, 현 명성수양관 나사렛동 남쪽에 있다.

[유래] 산에 무너진 돌무더기가 많으므로 서들골이라 한다.

[풀이] ‘서들’, ‘서덜’은 산기슭이나 냇가에 돌무더기가 있는 곳에 붙는 이름이다.

설통바우골(1) [골]

[위치] 배나무거리에서 주포천 건너 맞은 편 당뒤 마을에서 서쪽으로, 높이 556.1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세한도펜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보기장골 북쪽에 있다.

설통바우골(2) [골]

[위치] 마지동 골안 동쪽, 머우바우골과 새목쟁이골 중간에서 북동쪽 597.1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북쪽 너머에 농골이 있다.

성남골 [골]

[위치] 신림에서 북쪽으로 주포천을 따라 성남으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소터골 [골]

[위치] 금옥동 마을에서 동쪽으로 쇠골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바랑골 남쪽, 외랑골 북쪽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입구에 보리골이 있다. ‘쇠골’이라고도 한다.

쇠골 [마을] → 소터골

쇠골재 [고개]

[위치] 금옥동에서 동쪽으로, 소터골을 지나 유다리골로 넘어가는 높이 540m의 고개를 말한다.

[유래] 소터골(쇠골) 위에 있으므로 쇠골재라고 하였다.

수리봉 [산]

[위치] 역골 마을 남서쪽, 중시당골과 고림새골 남쪽 끝에 있는 높이 620.7m의 산을 말한다. 산 남서쪽 너머에 구학리 구미동 역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리봉’이라 하였다.

[유래] 산이 매우 수려하므로 수리봉이라 하였다고 한다.

수리산 [산]

[위치] 아래산뒤골 서쪽 끝에 있는 576.7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산 서쪽 너머에 구학리 선학동 ‘다방골’이 있다. 구학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신기동(新基洞) [마을] → 새말

신랑바우 [바위]

[위치] 옷산뒤골 입구에 있는 주포천 옆의 바위를 말한다. 신랑바우 남쪽에 각시바우가 있다.

[유래] 바위 상단이 사모관대모양이어서 신랑바우라 하였다.

[내용] 신랑바우를 흔들면 마을 처녀들이 바람이 나고 각시바우를 흔들면 마을 총각들이 바람이 난다고 해서 노총각, 노처녀들이 밤이면 몰래 흔들었다고 한다. 1970년대 복구사업을 나온 군인들이 장난으로 이 바위를 흔들어 떨어뜨리는 바람에 하체만 남은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신랑바우 : 2018년」

신림(神林) [마을] → 신림리

신림골 [마을]

[위치] 신림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유래] 신림이 있는 골짜기, 또는 마을이란 뜻이다.

신림내 [내] → 주포천

신림당(神林堂) [당] → 신림성황당

신림당숲 [숲] → 신숲

신림도수장(神林屠獸場) [시설]

[위치] 금창천과 주포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던 도살장을 말한다. 백정소 옆에 있었다.

신림리유적 [유적]

[위치] 현 신림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일대를 말한다.

[내용] 중앙고속도로 공사 지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유적으로 통일신라~조선시대까지의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신림성황당(神林城隍堂) [당]

[위치] 신림 면소재지의 당숲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현 신림치안센터가 있는 곳이다. ‘신림당(神林堂)’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신림당(神林堂)’이라 하였다.

[내용] 옛날에는 당숲이 울창하여 신산과 마지동 성황당까지 숲으로 이어졌었다고 한다. 신림당은 매우 영험하여 정성으로 빌면 효험이 있고 잘못하면 도깨비가 나타나 장난을 쳤다고 한다. 성황림의 윗성남성황당이 암당이었고 이 당이 수당이였으므로 이 산 밑에서는 남자가 오래 살지 못하였다고 전한다. 신림(神林)의 지명이 이 당과 당숲에서 유래되었다.

신림역(神林驛) [역]

[위치] 조선시대 역이 있던 곳을 말한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현 역골, 또는 신림장터의 삼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에 고을 동쪽 45리에 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고을 동남쪽 45

리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원주의 단구역과 함께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가 오랜 역이다. 가리파재를 경계로 하여 제천과 주천 등 영서지역을 담당하는 거점이었으므로 역을 설치하였다. 『여지도서』에 복마(卜馬) 3필, 노비 31명이 있다고 하였다. 신림역에는 관리가 없었으므로 단구역 찰방이 이곳을 관장하였다. 찰방이 단구역과 신림역으로 오고가던 고개가 ‘찰방망이고개’이다.

신림우시장 [장]

[위치] 금창천과 주포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남산개에 있던 소 시장을 말한다.

신림장터 [장] → 장터거리

신림참(神林站) [원]

[위치] 신림에 있던 참(站)을 말한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내용] 참(站)은 역과 역 사이에 쉬어가는 곳으로 약 25리마다 있었다. 옛날 원주에는 안창참, 흥원참, 신림참, 주천참이 있었다.

신림천(神林川) [내] → 주포천

[위치] 주포천의 다른 이름이다. 신림 앞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신림천이라 부른다.

신산(神山) [산]

[위치] 신산동 동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현 신림중학교 남쪽에 있는 산이다.

[내용] 당숲과 성황당이 있었다.

신산동(神山洞, 新山洞) [마을]

[위치] 마지뜰 남쪽, 현 신림중학교 남쪽 개울 건너, 신산 서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내용] 원래의 마을은 신산(神山) 서쪽 아래에 있었으나 1940년대 중앙선 철도가 생기면서 철로에 거의 편입되어 없어졌고 남아있던 일부의 마을은 1990년대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지금은 옛 마을 서쪽에 새로 생긴 새말이 그 이름을 이어받

아 신산(新山)이라 한다.

신산성황당 [당]

[위치] 현 신림중학교 남쪽, 신산 당숲에 있던 옛 성황당을 말한다. 신산마을 북서쪽, 현 씨그램수지 남서쪽에 있던 당으로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큰당’이라고도 한다.

[내용] 매년 음력 20일 이전으로 길일을 정하고 당신(堂神)과 궁합이 맞는 사람을 골라 제주로 삼았는데, 돼지 한 마리를 올리는 큰 제사였다고 한다. 중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당숲이 도로에 편입되어 당도 없어졌다.

신숲(神-) [숲]

[위치] 신림당에 있던 당숲을 말한다. 현 신림치안센터 지역에 있던 숲이다. ‘귀신숲’, ‘신림당숲’이라고도 한다.

[내용] 울창한 숲이었다고 전한다. 신산(神山)까지 이어진 이 숲을 ‘신림(神林)’이라 하였고 이곳에 있던 당을 ‘신림당(神林堂)’이라 하였다. 신림(神林)의 지명이 이 숲에서 유래하였다. 신림면에 당집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이 지역이 예부터 신성시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싸리치 [고개] → 성남리 싸리치

싸리치골 [골] → 성남리 싸리치골

싸리치성황당 [당]

[위치] 금옥동 외랑골 동쪽 골짜기 끝, 바위 밑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원래 싸리치 정상에 있었으나 1980년대에 이곳으로 옮겼다.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제를 올린다. 여기에서는 치악산신을 모시고 가리파에서는 백운산신을 모시는데 이곳에서 제사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가리파제에는 꼭 참석한다고 한다. 성황계가 조직되어 있다.

아래갈골 [골]

[위치] 갈곡 마을 남쪽 아래에서 남서쪽으로, 역골

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석회광산이 들어서서 골짜기 전체가 없어졌다.

아래산뒤 [마을]

[위치] 용암리 갈밭골 서쪽, 금창천 건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웃산뒤골 남쪽 주포천 옆에 있는 마을이다.

아래산뒤골 [골]

[위치] 아래산뒤 마을에서 서쪽으로 수리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박쥐굴이 있다.

안골 [마을] → 안말

안말 [마을]

[위치] 마지뚝 안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신림TG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골’이라고도 한다. 마을 서쪽 앞에는 마지동성황당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내마짓골’이라 하였다.

앞집앞골 [골]

[위치] 유다리골 입구에서 남서쪽으로, 556.1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유다리골에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동쪽 아래, 앞집이 있는 골짜기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애막골 [골]

[위치] 역골 마을 입구에서 남쪽 527.4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복수네미골 동쪽에 있다.

언골 [골]

[위치] 마지동 마을 북쪽 삼거리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88번 구도로가 있던 곳이다. 한 자로는 소리를 따라 ‘언곡(彦谷)’이라 하였다. ‘은곡(銀谷)’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 남쪽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4~5월 까지도 눈이 녹지 않고 얼어 있으므로 ‘언골’이라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이곳에서 은을 캐므로 ‘은골’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언골 [마을]

[위치] 언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은곡(銀谷)’이라 하였다.

언당 [마을]

[위치] 배나무거리 북쪽, 가둔지 남쪽, 싸리치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언골과 당뒤 마을 이름을 따서 ‘언당’이라 하였다. 언골과 당뒤를 포함한 세 마을 중 늦게 마을이 생기면서 두 마을의 이름을 합쳐서 지은 이름이다. 당뒤 마을의 성황당은 나중에 언당성황당으로 불리게 되었다.

언당성황당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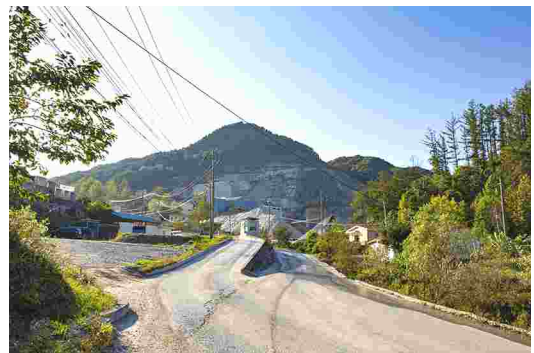
[위치] 당뒤당숲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성황당은 1980년대에 없어져서 지금은 당숲만 남아있다. ‘당뒤성황당’, ‘당후동성황당’이라고도 한다.

[유래] 원래는 당뒤성황당, 당후동성황당이라 하였으나 마을이 새로 생기면서 언골과 당뒤의 이름을 따 ‘언당’이라 하였고 성황당도 언당성황당으로 불렸다.

역곡(驛谷) [마을] → 역골

역골 [골]

[위치] 신림면소재지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구학리 구미동이 있다. 현재 골짜기 전체에 대규모 석회광산이 들어서 있다.



「역골」; 2019년

역골 [마을]

[위치] 역골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

지지자료]에 ‘역골(驛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역곡(驛谷)’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에 신림역이 있었으므로 역골이라 하였다.

역골성황당 [당]

[위치] 역골 앞산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성황당 옆에 산신을 모시는 제단이 있다. 전 나무를 당목으로 모시고 있다.

역골작은재 [고개]

[위치] 역골에서 남쪽으로, 구학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역골천 [내]

[위치] 역골 남서쪽 큰골과 산막골에서 시작하여 역골을 지나 신림초등학교 앞에서 금창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와룡골 [골]

[위치] 능골 서쪽, 와룡골 마을에서 북쪽으로 높이 585.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 중앙고속도로와 옛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와룡골(臥龍-) [마을]

[위치] 현 신림초등학교 북서쪽, 능골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갈곡 남동쪽, 주누개들 동쪽에 있다. ‘와룡동’, ‘왜릉골’, ‘외룡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와룡동(臥龍洞, 왜릉골)’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지형이 마치 용이 누운 것처럼 생겼다 하여 와룡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내용] 마을 동쪽은 옛 중앙선 철로와 중앙고속도로, 마을 서쪽은 5번 치악로가 지나고 있다.

와룡동(臥龍洞) [마을] → 와룡골

왜릉골 [마을] → 와룡골

외골 [골] → 외랑골

외랑골 [골]

[위치] 금옥동 마을에서 동쪽으로, 602.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싸리치성 황당을 옮겨놓았다. ‘외골’이라고도 한다.

외룡골 [마을] → 와룡골

외마짓골 [마을]

[위치] 마지동 서쪽, 바깥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외마짓골’이라 하였다.

용암천(龍岩川) [내] → 금창천, 주포천

우무골 [골] → 샘골

[유래] 우물이 있어 ‘우물골>우무골’이 되었다.

움터골 [골]

[위치] 언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큰움터골’과 ‘작은움터골’이 있다.

[유래] 옛날에 움집을 짓고 살던 골짜기이므로 움터골이라고 한다.

웃갈곡 [마을]

[위치] 갈곡 마을 중 북쪽 위, 웃갈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갈골 [골]

[위치] 웃갈곡 마을에서 서쪽으로, 574.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금창리 강안이 마을이 있다.

웃넘개 [고개]

[위치] 아래성남에서 서쪽으로, 배나무골을 거쳐 금옥동 웃쇠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거무내재 남쪽에 있는 고개로, 높이는 630m이다.

웃산뒤골 [골]

[위치] 새말 남서쪽 주포천 옆 신랑바우에서 서쪽으로, 557.4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골 안에 산뒤 마을이 있다. 골의 북쪽에는 남산이 있고, 골 남쪽에는 수리산이 있다.

웃새목재 [고개]

[위치] 마지동 골안 새목쟁이골의 동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북쪽으로는 싸리치 옛 도로의 큰 지당골, 남동쪽으로는 충북 제천시 명암리 요부골로 가는 고갯길이다. 고개 높이는 675m이다.

웃쇠골 [골]

[위치] 금옥동 마을에서 북쪽으로, 높이 570.1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 너머에 바랑골이 있고 북쪽 너머에는 흑천의 성남골이 있다. 골짜기의 끝 능선에서 북동쪽에 거무내재가 있다.

웃쇠골 [마을]

[위치] 웃쇠골 골짜기 상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교동(柳橋洞) [마을] → 유다리골

유다리골 [골]

[위치] 가둔지 남쪽 가둔지들에서 주포천 건너 서쪽으로, 560.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 쇠골재가 있고 남서쪽 아래에는 금옥동이 있다. ‘버드내골’이라고도 한다.

유다리골 [마을]

[위치] 유다리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유다릿골(유교동柳橋洞)’이라 하였다.

[유래] 앞개울에 버드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었으므로 ‘버드내골’, ‘유다리골’이라 하였다.

은곡(銀谷) [골] [마을] → 언골

은골 [골] [마을] → 언골

일리(一里) [마을] → 신림리

작은배나무골 [골]

[위치] 새목쟁이골 중간, 머우바우골과 설통바우골(2)가 갈라지는 곳에서 남쪽으로, 삼봉산 하봉과 중봉 사이의 631.2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에 큰배나무골이 있고 남쪽 너머에는 삼봉골이 있다.

작은옴터골 [골]

[위치] 언골 안 큰옴터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장터거리 [마을]

[위치] 신림장이 서는 곳을 말한다. 신림면소재지, 현 신림교를 중심으로 동서 도로 변에 있던 장터로, 지금은 다리 동쪽으로 축소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신림장터(神林場-)’라고 하였다.

주녹개 [들] → 주누깨들

주누깨들 [들]

[위치] 갈곡 마을 앞에서 남동쪽으로 와룡골에 이르는 넓은 들을 말한다. ‘주녹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준옥기뜰(俊旭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주녹개(도록逃鹿)’라고 하였다.

주누개보 [보]

[위치] 주누깨들에 있는 금창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주누개보’라 하였다.

주리봉 [산]

[위치] 웃갈곡동 북서쪽, 둔창리 마을 남쪽 앞에 있는 높이 492.1m의 산을 말한다.

주석보들 [들]

[위치] 언당에서 남쪽으로 언골 앞까지 이르는 주포천 옆의 들을 말한다. 배나무거리 서쪽에 있는 들이다.

주포천(周浦川) [내]

[위치] 높은다리 북쪽의 상원골과 북동쪽의 선바우골, 동쪽의 전불골에서 시작하여 성남리를 거쳐 신림리에서 금창천을 합류하고 용암리에서 구학천을 합류한 뒤 충북 제천시 학산리에서 제천천에 유입하는 내를 말한다. ‘성남천(城南川)’, ‘신림천(神林川)’이라고도 한다. 『대동지지』에 ‘중천(中川)’이라 하였다. 『여지도서』 『관동지』에 ‘신림천(神林川)’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실림니(神林溪)’라고 하였다.

[유래] 이 내를 용암천, 신림천이라고도 하였는데,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周浦里)를 지나가므로 주포천이 공식 하천명이 되었다.



「주포천 : 2019년」

중봉(中峰) [산]

[위치] 작은배나무골의 남동쪽 끝에 있는 683.7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삼봉산의 세 봉우리 중 하나로, 용암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중시당골 [골]

[위치] 역골에서 남쪽으로, 551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사나무실골 서쪽, 고림새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입구가 광산으로 개발되었다.

중천(中川) [내] → 주포천

지당골 [골]

[위치] 옛 88번 도로가 있는 언골에서 남쪽으로 난 두 번째 골짜기를 말한다. 서들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짜장배기 [골]

[위치] 유다리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자작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창교역(倉交驛) [역]

[위치] 웃갈곡 동쪽 앞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신호장을 말한다.

[유래] ‘금창리’의 ‘창(倉)’자와 교행의 ‘교(交)’자를 합쳐 ‘창교역’이라 하였다.

[내용] 1977년 신호장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1995년 유인신호장으로 승격하였다가, 2005년 무인신호장으로 변경되었다.

천삼산(天蓼山) [산]

[위치] 웃새목재 남동쪽, 감악산 서쪽에 있는 높이 818.6m의 산을 말한다. 신림리와 용암리 및 제천시 봉양읍과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유래] 하늘에서 산삼 씨앗을 준다는 전설이 있어 천삼산이라 한다. 늦가을에 비가 내리면 선덕동의 철철바위로 산삼 씨앗이 떨어내 오는데 이는 하늘이 산삼 씨앗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천삼산 동봉(天蓼山 東峰) [산]

[위치] 천삼산 동쪽에 있는 높이 821.7m의 봉우리를 말한다. 신림리와 용암리 및 충북 제천시 봉양읍과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철철바우 [바위]

[위치] 짜리치에서 신림을 잇는 옛 도로, 큰지당골을 지나 짜리치 남쪽 길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칠칠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수량이 적어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철철하므로 철철바우 또는 칠칠바우라 한다.



「철철바우 : 2018년」

철철바우골 [골]

[위치] 철철바우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757.6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출렁다리 [다리]

[위치] 금창천과 주포천이 만나는 지점, 신림 마을과 남산개를 연결하는 현수교를 말한다.

칠칠바우 [바위] → 철철바우

칠칠바우골 [골] → 철철바우골

큰골 [골]

[위치] 역골 남서쪽 끝에서 북서쪽으로, 638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북쪽 너머에 금창리 강안이 마을이 있다. 큰골 아래에까지 광산이 들어서 있다.

큰당 [당] → 신산성향당

큰배나무골 [골]

[위치] 새목쟁이골에서 작은배나무골을 지나 남동쪽으로, 천삼산 줄기인 668m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남동쪽 너머에 용암리 옛 천수암터가 있다.

큰옴터골 [골]

[위치] 짜리치로 가는 88번 옛 도로의 지당골과 농골 사이에서 북쪽으로, 526.6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재 [고개] → 성남리 거무내재

[위치] 금옥동 바랑골 북동쪽 끝에 있는 고개로 거무내재의 다른 이름이다. 성남리 아랫성남으로 가는 고개이다.

큰지당골 [골]

[위치] 88번 옛 도로 농골 동쪽 위에서 남동쪽으로, 783.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현 이푸른하늘 공장이 들어서 있다.

탐산거리들 [들]

[위치] 신산 남쪽, 갈밭골 북서쪽, 버덩들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탐산보들’이라고도 한다.

탐산보 [보]

[위치] 새들보 위에 있는 주포천의 보(洑)를 말한다.

탐산보들 [들] → 탐산거리들

풋대봉 [산]

[위치] 매봉재 남서쪽, 역골 끝 큰골 북서쪽에 있는 높이 652.2m의 봉우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풋대봉’이라 하였다.

[유래] 측량을 위해 대를 세우고 삼각점을 두었으므로 풋대봉이라고 한다.

하봉(下峰) [산]

[위치] 작은배나무골 남쪽 끝에 있는 653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삼봉산의 세 봉우리 중 하나로, 신림리와 용암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호로메새골 [골]

[위치] 역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용암리(龍岩里)

[위치]

용암리는 신림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제천시 봉양읍, 서쪽으로는 구학리, 북쪽으로는 신림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가리파면(加里坡面)의 지역으로서 삼리(三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갈밭골·당후·사림·연봉정·용소막·정암·종림·탑동을 병합하여 용암리(龍岩里)라 하여 원주군 가리파면 용암리가 되었다.

1917년 가리파면을 신림면(神林面)으로 개칭함에 따라 원주군 신림면 용암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할 때 원주군이 원성군으로 바뀌면서 원성군(原城郡) 신림면 용암리가 되었다.

1989년 다시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바뀌면서 원주군 신림면 용암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가 되었다.

[유래]

용암(龍岩)은 용소막(龍沼幕)과 정암(鼎岩)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명이다. 용소막(龍沼幕)은 마을에 용소라는 큰 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정암(鼎岩)은 가마솥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는골 [골]

[위치] 선터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가마솔바우 [바위]

[위치] 역뒤 마을 남동쪽, 삼봉골 입구 중앙고속도로 서쪽에 있는 산중턱의 세 바위를 말한다.

[유래] 뾰족한 바위 세 개가 각각 떨어져 있어 가마솔의 세 발과 같으므로 ‘가마솔바우’라 하였다. 이를 한자로 적어 ‘정암(鼎岩)’이라 하였고 이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내용] 가마솔바우 위에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조부 산소가 있다. 솔은 뜨거워야 좋은데 마침 산소가 있는 바위 아래에서 불이 나 솔바우가 뜨거워져서 대통령이 탄생하였다고 전한다.

가재골 [골]

[위치] 정암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567.3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갈밭골 [마을]

[위치] 중앙선 철로의 신림역 북쪽, 중앙고속도로 신림IC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옮겨 ‘갈전동(葛田洞)’, ‘노전동(蘆田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갈바우골(葛田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갈밭골(노전동蘆田洞)’이라 하였다.

[유래]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밭골이라 하였다 한다.

[내용] 마을 동쪽 위에는 중앙고속도로가, 마을 서쪽 아래로는 옛 중앙선 철로가 있다.



「갈밭골 마을 : 2019년」

갈밭골성향당 [당]

[위치] 갈밭골 마을 동쪽 산 중턱에 있는 성향당을 말한다.

[내용] 원래의 당집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고 현 당집은 1980년대에 새로 지은 것이다. 특정 산신을 지칭하지 않고 산령(山靈) 위패를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 14일 밤에 고사를 지냈다. 2000년대에 폐지되었다.

갈전동(葛田洞) [마을] → 갈밭골

굽다리 [들]

[위치] 사림 마을회관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공동묘지골 앞에 있는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굽다리’라 하였다.

[유래] 내를 건너는 굽은 다리가 있었으므로 ‘굽다리>굽다리’라 하였다.

공동묘지골 [골]

[위치] 사림 마을 북쪽, 공동묘지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불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골 안에 공동묘지가 있으므로 공동묘지골이라 하였다.

관솔기름공장 [터]

[위치] 용암삼거리에서 용암교 사이에 있던 옛 공장터를 말한다.

[내용] 일제강점기에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신림의 송진, 솔뿌리, 관솔가지 등으로 기름을 만들던 공장이 있던 자리이다.

구학천(九鶴川) [내]

[위치] 구학산 북쪽 황학동 큰골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황학동, 방학동, 사림을 거쳐 용암리 종림에서 주포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황학천(黃鶴川)’, ‘종림천(種林川)’이라고도 한다.

[유래] 구학산(九鶴山)에서 발원하여 내려오므로 구학천이라고 하였다. 황학동 마을에서 발원하므로 ‘황학천(黃鶴川)’이라고도 하고, 종림 앞을 흐르므로 ‘종림천(種林川)’으로 부르기도 한다.

군부골 [골]

[위치] 선덕동 현 성원사에서 삼봉산 상봉을 향하여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궁골’, ‘군부골’이라고도 한다.

궁골 [골] → 군부골

군부골 [골] → 군부골

금밭골 [골]

[위치] 사림 당뒤에서 남서쪽으로, 담바위 북쪽 능선의 585.1m 봉우리를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남산버덩 [들] → 남산벌

남산벌 [들]

[위치] 구학리 선학동 앞, 소나무터들에서 남쪽 가래머리 입구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남산버덩’이라고도 한다.

노전동(蘆田洞) [마을] → 갈밭골

담바우 [바위]

[위치] 탑골 뿔대양지골 남쪽, 담바우봉 능선 북쪽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담비바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담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가 담처럼 길게 둘러서 있으므로 담바우라고 하였다. 또는 바위 아래에 담비가 떼를 지어 살므로 담비바우라 하다가 담바우가 되었다고 한다.

담바우봉 [산]

[위치] 탑골 뿔대양지골 남쪽, 삼각점이 있는 높이 705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담바우봉 남서쪽 아래에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의 노목마을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담바우’라 하였다

[유래] 능선 북쪽에 담바우가 있어서 담바우봉이라고 한다.

담비바우 [바위] → 담바우

당뒤 [마을]

[위치] 사림 남쪽, 탑골 동쪽, 종림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자로 적어 ‘당후(堂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당뒤(당후堂後)’라 하였다.

[유래] 마을이 사림성황당 당숲의 뒤에 있으므로 당뒤라고 한다.

당뫓골 [골]

[위치] 당뒤에서 남쪽으로, 585.1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토끼골과 금밭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당뫓들 [들]

[위치] 당뒤 마을과 구학천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당숲 [숲] → 사림당숲

당숲거리 [길]

[위치] 사림당숲 옆에 있는 길을 말한다.

당후(堂後) [마을] → 당뒤

대장골 [골]

[위치] 종림 남쪽에서 남서쪽으로, 44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이다.

[유래] 옛날 대장장이가 살았으므로 대장골이라 하였다.

뫓골 [골]

[위치] 종림에서 남서쪽으로, 485.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종림뫓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종림뫓골’이라 하였다.

뫓골 [마을]

[위치] 뫓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내용] 예부터 두어 가구가 살면서 화전을 하였다. 화전 정리 때 모두 철거되었다.

묘구덩이 [골]

[위치] 종림 마을 앞들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종림뫓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묘가 많이 있으므로 묘구덩이라고 한다.

무당바우 [바위]

[위치] 삼봉사로 가는 삼봉골 중간에 있는 사각형의 큰 바위를 말한다. 바위 옆, 골 입구에 서낭이 새로 차려져 있다.

[유래] 옛날 무당이 춤을 추다 떨어져 죽어서 무당바우라 한다.

물방아골 [골]

[위치] 선터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 하였다. 현재 물레방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바깥연봉정 [마을]

[위치] 연봉정 마을 중 서쪽 도로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연봉정주막거리에 있던 마을로, 마방과 농업을 하였으나 도로를 확장하면서 모두 도로에 편입되었다.

바랑골 [골]

[위치] 천수골 선덕동 산신당에서 북동쪽으로, 천삼산 남동쪽의 780m 능선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 이 골짜기의 스님들이 감악산 백련사 쪽으로 다니던 골짜기이므로 바랑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바랑’은 ‘벼랑’의 방언이다.

배나무골 [골]

[위치] 종림 뒷골의 산지당골 북쪽에 있는 골을 말한다.

[유래] 골짜기 입구에 큰 돌배나무가 있으므로 배나무골이라 하였다.

벽밀 [마을]

[위치] 벽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벽밀’이라 하였다.

벽밀 [산]

[위치] 삼봉 마을 남쪽, 현 가나안농군학교 북서쪽 산 아래, 철로 변에 있는 산벼랑을 말한다. ‘절벽

밀’이라고도 한다.

[유래] 중앙선 철로를 내면서 산을 깎아 높은 절벽이 생겼으므로 ‘절벽밀’, ‘벽밀’이라고 하였다.

벽밀들 [들]

[위치] 벽밀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삼봉들 남쪽, 용소막들 동쪽 내 건너에 있는 들이다.

분터골 [골]

[위치] 삼봉골과 지칭골이 갈라지는 곳의 골짜기를 말한다.

불당골 [골]

[위치] 사림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541.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불당골’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불당이 있었다고 한다.

빈수막골 [골]

[위치] 용소막에서 북서쪽으로, 505.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안골 북쪽, 현 용암교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빈집골 [골]

[위치] 선덕동 천수골 옛 정법사에서 북서쪽으로, 646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철철바위가 있다.

[유래] 옛날 화전민이 살던 빈집이 있었으므로 빈집골이라 하였다.

뿔대양지 [터]

[위치] 뿔대양지골에 있는 터를 말한다.

[유래] 일제강점기에 이곳에 측량용 폴대를 세웠으므로 ‘폴대(pole-)양지>뿔대양지’라고 한다.

뿔대양지골 [골]

[위치] 탑골에서 남쪽으로 담바위봉을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구인암이 있다.

사림(社林, 士林, 射林) [마을]

[위치] 용소막 서쪽, 탑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자로는 社林, 士林, 射林 등으로 다양하

게 기록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사림소(射林所)’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사림(士林)’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사림(社林)’이라고 하였다.

[내용] 옛날에 마을 한가운데 큰 미루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풍수지리적으로 사림은 배의 형국을 하고 있어 미루나무가 배의 돛대가 되었다고 전한다.



「사림 마을 : 2019년」

사림 [숲] → 사림당숲

[위치] 사림 마을 남서쪽, 당뒤 서쪽에 있는 당숲을 말한다.

사림당숲 [숲]

[위치] 사림 남쪽, 당뒤 서쪽에 있는 시무나무숲을 말한다. 토끼굴 앞에 있다.

[내용] 성황당 주변에 있는 수령 약 200년 이상의 시무나무숲이다. 현재 숲의 일부가 남아있다.

사림들 [들]

[위치] 사림 마을 남쪽에 있는 구학천 옆의 들을 말한다. 용소막들 서쪽에 붙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사림뜰(士林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사림들’이라 하였다.

사림보 [보]

[위치] 사림 앞에 있는 구학천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사림보(社林湫)’라 하였다.

사림성황당 [당]

[위치] 사림 남서쪽, 당뒤 마을 서쪽 당숲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숲 옆에 C&N커피코리아 공장이 들어서 있다.

[내용] 성황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9월 9일에 돼지머리를 올려 제사를 지낸다. 1850년부터 이 마을에서는 당숲에 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 한해나 풍수를 방지하였다고 한다. 당집은 2003년 새농촌건설우수마을 시상금으로 새로 지었고, 사림과 당뒤 마을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사림성황당 : 2019년」

사림소(射林所) [마을]

[위치]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관동지』 『원주읍지』에 고을 동쪽 45리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사림 마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 소(所)는 향(鄕)·부곡(部曲)·장(莊)·처(處)와 함께 부곡제(部曲制)를 구성하며, 군(郡) 현(縣) 이하의 행정단위로 이해된다. ‘향·부곡’은 삼국시대부터 있었고 ‘소’는 고려시대에 생긴 것으로 왕실이나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업·광업·수산업 부문의 공물(貢物)을 생산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신분상으로 천민집단으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에는 신분상 양민으로서 소규모의 행정단위, 특산품을 생산하던 장인 집단으로 보고 있다. 천민집단으로만 본다면 옛 지리지에 소나 부곡을 고적(古跡) 항목에 특별히 편성할 가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所)는 조선 초기에 전국적으로 군현제가 정비되면서 향·부곡과 함께 군현으로 승격되거나, 또는 직촌(直村)으로 되

어 소멸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무엇을 생산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원주에는 이 마을 외에 고을 동쪽 13리에 ‘소탄소(所呑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산뒤들 [들]

[위치] 아래산뒤골 입구 아래산뒤 마을에서 주포천을 따라 남동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속섬들에서 서쪽 주포천 건너에 있는 들이다.

산지당골 [골]

[위치] 종림 뒷골, 담바위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숯가마터가 있고 기와 파편이 나온다. 배나무골 남쪽에 있다.

[유래] 옛날 이곳에 산제당이 있었으므로 산지당골이라 부른다.

삼리(三里) [마을] → 용암리

삼봉(三峰) [마을]

[위치] 주막거리 동쪽, 정암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용암삼거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삼봉(三峰)’이라 하였다.

[유래] 삼봉산 서쪽 아래, 삼봉골 입구에 들어선 마을이므로 삼봉이라 하였다.



「삼봉 마을 : 2019년」

삼봉골 [골]

[위치] 역뒤 마을에서 동쪽으로, 삼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골 안에는 삼봉사(三峰寺)가 있다.

삼봉뒷골 [골]

[위치] 삼봉 마을에서 동쪽으로, 447.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삼봉들 [들]

[위치] 삼봉 마을을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 남쪽에 걸쳐 있는 주포천 옆의 넓은 들을 말한다. 들 가운데에 옛 주막거리가 있다.

삼봉사(三峰寺) [절]

[위치] 삼봉골 동쪽 안, 삼봉산 상봉 서쪽 아래에 있는 절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용암사(龍岩寺, 삼봉사三峰寺)’라 하였다.



「삼봉사 ; 2019년」

삼봉산(三峰山) [산]

[위치] 역뒤 마을 동쪽 삼봉골에 있는 66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상봉, 중봉, 하봉이 있다.

[유래] 봉우리가 세 개이므로 삼봉산이라 한다.

삼봉약수 [샘]

[위치] 삼봉골 삼봉사(三峰寺) 절 뒤에 있는 샘을 말한다.

상봉(上峰) [산]

[위치] 삼봉산의 삼봉 중 가장 남쪽에 있는 높이 665m의 산을 말한다. 중봉 남쪽, 시루봉 북쪽에 있다.

새들(1) [들]

[위치] 신림리 신산 앞 탐산거리들에서 남동쪽으

로 용암리 갈밭골, 신림역에 이르기까지의 긴 들을 말한다. 5번 제원로를 경계로 하여 서쪽의 버들들, 속섬들과 분리되어 있다.

[유래] 예전 큰 홍수 이후, 신림리 마지뜰보다 나중에 새로 생긴 들이라 하여 ‘새(新)들’이라고 하고 이 들에 물을 대는 보는 ‘새들보’라 하였다.

새들(2) [들]

[위치] 종림 남동쪽 주포천 옆, 연봉정들 서쪽 내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모래와 자갈이 풍부하여 중앙선 철도를 놓을 때 골재를 대량으로 생산한 곳이다. 버려진 잡초지로 마을 공동 우마장(牛馬場)으로 사용되다가 개간하여 새로 들이 생겼으므로 ‘새들’이라고 하였다.

샘골 [골]

[위치] 가는골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샘이 있었으므로 샘골이라 하였다. 샘골 입구에 맑은 샘물이 있었는데 속병이 있던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모두 속병을 고쳤다고 한다. 현재는 폐쇄되었다.

석회광(石灰鑛) [광산]

[위치] 사림 뒷산에 있는 석회광산을 말한다. 현재 금강케미칼이 들어서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석회광(石灰鑛)’이라 하였다.

선대동(善垌洞) [마을] → 선덕동

선덕골 [마을] → 선덕동

선덕동(善德洞) [마을]

[위치] 연봉정 동쪽 위 천수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에 성원사(옛 선덕사)가 있다. ‘선터골’, ‘선덕골’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선덕동(善德洞)’, ‘선대동(善垌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선터골(선대동善垌洞)’이라 하였다.

[유래담] 착한 사람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선덕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신라시대 선덕여왕이 들

러 쉬었다고 하여 선덕동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원래 이름은 ‘선터골’이었는데 이를 한자로 적어 ‘선대동(善垌洞)’이라 하였다. ‘선덕동(善德洞)’은 선터의 소리를 미화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후 선덕여왕이 결부되었다.

선덕동산신당 [당]

[위치] 천수골 안, 바랑골 입구 수련천 개울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내용] 당집 안에 옛 선덕사(현 성원사)에 있던 산신탱화를 모셨다.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제사를 올리다가 지금은 정월 보름에 한 번만 지내고 있다.



「선덕동산신당 ; 2019년」

선덕사(善德寺) [절] → 성원사, 천수암터

선사재 [고개] [마을] → 선산재

선산재 [고개]

[위치] 구학리 가래머리를 지나 남쪽으로,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노목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660m이다. ‘선사재’, ‘성산재’, ‘순산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성산재’라 하였다.

선산재 [마을]

[위치] 가래머리 남쪽 위, 선산재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선사재’, ‘성산재’, ‘순산재’라고도 한다.

[내용] 마을 남쪽으로 선산재를 넘으면 충북 제천

시 봉양읍 옥전리의 노목이 나온다. 1970년대 이곳에 계단식 개간을 권장하여 10여 가구를 이주시켰으나 실패하고 모두 철수하였다고 한다.

선산재골 [골]

[위치] 가래머리골에서 남쪽으로 선산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선터골 [골]

[위치] 삼봉산 남쪽, 수련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선덕동이 있는 골짜기이다. 골 북동쪽으로 천수골이 이어지고 남동쪽으로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의 바랑골이 갈라져 나간다.

[내용] 선터골의 동쪽 능선이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이다. 여기에서 갈라져 나간 바랑골은 충북에 소속되어 있다.

선터골 [마을] → 선덕동

섭다리 [다리]

[위치] 옛날 주막거리와 용소막을 잇던 주포천의 다리를 말한다. 현 용암삼거리 서쪽 597번 구학산로의 용암교가 있는 자리에 있던 다리이다.

성산재 [고개] [마을] → 선산재

성원사(聖元寺) [절]

[위치] 선덕동에 있는 조계종 사찰을 말한다.

[유래] 옛 이름은 선덕사였는데 성원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선덕사는 천수암에서 내려와 지은 절이었다.

소나무터 [마을] → 송목정

소나무터들 [들]

[위치] 송목정 마을에서 서쪽으로, 가래머리 입구 남산버딩에 이르는 넓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소나무터들’이라 하였다.

속섬들 [들]

[위치] 새들(1) 서쪽에 주포천 옆을 따라 난 들을 말한다. 버딩들 남쪽 끝에서 용암삼거리에 이르는 들로 5번 제원로와 주포천 사이에 있는 들이다. 주

포천 서쪽 건너에 산뒤편이 있다.

송목정 [마을] → 송목정

솔분목 [마을] → 송목정

송목정(松木亭) [마을]

[위치] 탑골 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솔분목’, ‘송목정’, ‘소나무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소나무터(송목정松木亭)’라 하였다.

[유래] 길이 좁은(숯은) 곳이므로 숯은목>솔분목, 송목정이라 하였다.

[풀이] 길이 좁은 곳이어서 좁은목의 뜻인 ‘솔분목(<솔분목<숯+은+목>’으로 불리다가 ‘솔분’을 ‘솔(松)’로, ‘목(項)’을 ‘木’으로 표기하여 ‘송목(松木)’, ‘송목정(松木亭)’이라 하였다. ‘소나무터’는 송목(松木)을 다시 풀어서 쓴 것이다. 『조선지리지』에 ‘소나무터(松木亭)’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소나무터(송목정)’라 하였다.

솔바우 [마을] → 가마솔바우, 정암

쇠굴 [굴]

[위치] 쇠통머리골 안에 있는 석회암굴을 말한다.

[내용] 옛날에는 명주실 한 타래를 풀어도 끝이 닿지 않았다고 하며 큰 고드랫돌(종유석)을 따가지고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굴 입구에서 들으면 굴 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전하는 말로는 이곳이 제천의 의림지와 지하로 통하고 있어 이 굴에 왕겨를 부으면 며칠 후 의림지에 왕겨가 떠오른다고 한다.

쇠통머리 [모퉁이]

[위치] 용암리에서 구학리로 들어오는 입구 쇠통머리골의 모퉁이를 말한다. 현 금강케미칼 남쪽, 탑골교 북쪽에 있는 산모퉁이이다. ‘채총머리’라고도 한다.

쇠통머리골 [골]

[위치] 소나무터들 북쪽 내 건너에서 북쪽으로, 수리산 줄기인 541.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채총머리골’이라고도 한다.

수구덩이 [소]

[위치] 용소막들 안에 있던 늪지와 소(沼)를 말한다. 2002년 경지 정리를 하면서 없어졌다. ‘용소막소(龍沼幕沼)’라고도 한다.

[풀이] 물구덩이란 뜻이다. 물을 수(水)로 표현하였다.

수련(水蓮) [마을] → 연봉정

수련천(水蓮川) [내]

[위치] 천삼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절골, 천수골, 선덕동을 거쳐 연봉정 앞에서 주포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숲안들 [들]

[위치] 연봉정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원길바우 [바위] → 원질바우

원길바우산 [산] → 원질바우산

원질바우 [바위]

[위치] 선산재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원길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사람 키의 50배가 된다고 하여 ‘원길바우>원질바우’라고 하였다. 바위가 깎아지른 듯 서 있었으나 광산이 들어서면서 모두 없어졌다. 『한국지명총람』에 ‘원길바우’라고 하였다.

원질바우산 [산]

[위치] 선산재골 남쪽 위 원질바우가 있는 산을 말한다. ‘원질바우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원질바우산’이라 하였다.

스무숲 [숲] → 종림

슨산재 [고개] [마을] → 선산재

시루봉 [산]

[위치] 삼봉산 상봉 남쪽, 선터골 북서쪽에 있는 높이 603.3m의 산을 말한다.

시무숲 [마을] → 종림

시무십 [마을] → 종림

신림역(神林驛) [역]

[위치] 정암 마을 서쪽 앞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역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신림역(神林驛)’이라 하였다.

[내용] 1941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역사는 1941년에 건축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1956년에 신축하였고, 1961년에 다시 지었다.



「신림역 ; 2018년」

아래산뒤 [마을]

[위치] 용소막 북쪽, 아래산뒤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내용] 산뒤 마을과 웃산뒤골, 아래산뒤골은 신림리 지역이다. 아래산뒤골이 신림리와 용암리의 경계로 아래산뒤 마을만 용암리 지역이다.

안골 [골]

[위치] 용소막에서 북서쪽으로, 505.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불당골 동쪽, 빈수막골 서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골 북쪽 너머에 ‘아래산뒤골’이 있다.

안암박골 [골] → 여우바우골

안연봉정 [마을]

[위치] 연봉정 마을 중 동쪽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앞들 [들]

[위치] 당뒤 동쪽, 종림 북동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종림 마을 앞에 있으므로 앞들이라 하였다.

애막골 [골]

[위치] 연봉정과 선덕동 사이에서 북서쪽으로, 높이가 579.7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선터골 서쪽, 가나안농군학교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애막골’과 ‘작은애막골’이 있다. 애막골을 ‘큰애막골’, 그 옆의 골짜기를 ‘작은애막골’이라고 부른다. ‘왜막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어린애들이 죽으면 묻은 골짜기여서 ‘애막골’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작은 돌무덤들이 많이 남아있다. 또는 임진왜란 때 왜병이 막사를 쳤다고 하여 ‘왜막골’이라 한다고도 하나 이는 애막골과 음이 비슷한 왜막골에 근거하여 덧붙여 지어낸 말이다.

여우바우골 [골]

[위치] 종림 당뒤 마을 서쪽의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안암박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매흘구덩이(매흘:옛날 흠벽을 단장할 때 사용하던 고운 흙) 앞 큰바위굴에 여우가 살았으므로 여우바우골이라고 하였다.

역뒤 [마을]

[위치] 중앙선 철로의 신림역 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 위에는 중앙고속도로, 서쪽 아래에는 옛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유래] 역의 뒷편에 마을이 있으므로 역뒤라고 하였다.



「역뒤 마을 : 2019년」

연봉(蓮峰) [산]

[위치] 현 가나안농군학교 남쪽, 연봉정 마을 입구에 있는 높이 323m의 산을 말한다.

연봉정(蓮峰亭) [마을]

[위치] 용소막 남동쪽, 가나안농군학교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가 되는 마을이다. ‘안연봉정’, ‘바깥연봉정’이 있었다. 바깥연봉정을 ‘수련(水蓮)’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연봉정(延峰亭)’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연봉정(蓮峰亭, 수련水蓮)’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가운데에 연꽃이 많이 피는 큰 연못이 있었으므로 연봉정이라고 하였다. 또는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당이 있으므로 연봉정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조선지리지』에 ‘연봉정(延峰亭)’, 『1917년지적도』에 ‘연봉정(蓮峰亭)’, 『한국지명총람』에 ‘연봉정(蓮峰亭)’으로 기록하였다. 마을 앞산이 연봉인 것으로 보아 마을 앞 주포천에 정자가 있었으며 그것을 연봉정이라 하면서 마을 이름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봉정 마을 : 2019년」

연봉정들 [들]

[위치] 연봉정 마을 서쪽 주포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연봉정주막거리 [마을]

[위치] 연봉정 서쪽, 주포천 옆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바깥연봉정’이라고도 한다. 도로를 확장하

면서 모두 도로에 편입되었다.

[내용] 마방과 농업을 하던 마을로 물레방아가 있었다. 해방 이후 물레방아를 이용하여 젓가락 공장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왜막골 [골] → 애막골

용소막(龍沼幕) [마을]

[위치] 신림역 남서쪽, 용암삼거리 남서쪽, 주포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용소막(龍沼幕)’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용소막(龍沼幕)’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에 용소(龍沼)라는 큰 못이 있어서 용소막이라 하였다. 또는 주포천에 용이 승천한 큰 소가 있어서 용소막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용소막 마을 ; 2019년」

용소막공소 [터]

[위치] 현 용소막성당 앞에 있던 옛 공소(公所)를 말한다.

[내용] 용소막에 교우촌이 형성된 것은 1893년부터이다. 1898년에 원주 본당소속 공소로 설립되어 1904년에 용소막 본당으로 승격하였다.

용소막들 [들]

[위치] 용소막 남쪽 앞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주포천과 구학천이 합류하는 곳에 형성된 넓은 들이다. 『조선지리지』에 ‘용소막썰(龍沼幕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용소막들’이라 하였다.

용소막물레방아 [터]

[위치] 용소막에 있던 물레방아터를 말한다. 현 용암교 북쪽 부근에 있었다.

용소막보(龍沼幕湫) [보]

[위치] 용소막 들에 있는 주포천의 보(湫)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용소막보(龍沼幕湫)’라 하였다.

용소막성당 [성당]

[위치] 용소막 마을에 있는 천주교 교회를 말한다.

[내용] 강원도에서 횡성군 풍수원, 원주 원동성당에 이어 세 번째로 건립된 천주교 성당이다. 프랑스인 지자레의 설계와 감독으로 1915년에 착공, 그해 가을에 현 건물을 완공하였다. 고딕양식으로 목조와 붉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관이 수려하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되었다.



「용소막성당 ; 2015년」



「용소막성당 ; 2019년」

용소막소(龍沼幕沼) [소] → 수구덩이

용소막주막거리 [마을]

[위치] 용소막 동쪽, 삼봉 서쪽, 현 용암삼거리 주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내용] 제천과 원주를 오가는 사람들이 쉬던 주막이 있던 곳이다. 1970년대까지 이 지역에 관솔기름농축공장과 질그릇 공장, 우마차 소징수리점 등이 있어서 신림면소재지보다 상권이 번성하였다고 전한다.

용암사(龍岩寺) [절] → 삼봉사

웃답골 [골]

[위치] 탑골에서 남서쪽으로, 512.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소나무터 남쪽, 뽕대양지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애막골 [골]

[위치] 선덕동 애막골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장군바우 [바위] → 철철바우

장군수 [샘]

[위치] 빈집골에 있는 샘을 말한다. 큰 바위 사이에서 나오는 석간수이다.

장자터(長者-) [골]

[위치] 소나무터 남쪽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자터(長者-)’라 하였다.

[유래] 옛날 이곳에 부자가 살았으므로 장자터라고 하였다.

절골 [골]

[위치] 선덕동 천수골 옛 정법사에서 동쪽으로, 높이 650m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 이 골짜기에 절이 있었으므로 절골이라 한다. 암자 규모의 절터가 남아있다.

절골성황당 [당] → 선덕동산신당

젓가락공장 [터] → 연봉정주막거리

정암(鼎岩) [마을] → 가마솔바우

[위치] 신림역 동쪽, 역뒤 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솔바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솔바우(鼎岩)’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솔바우(솔바위, 정암鼎岩)’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 동쪽 삼봉골 입구에 가마솔바우가 있어서 마을 이름을 솔바우라 하였고 이를 한자로 적어 ‘정암(鼎岩)’이라 하였다.



「정암 마을 ; 2019년」

제메골 [골] → 지메골

좁은목 [마을] → 송목정

종림(種林) [마을]

[위치] 용소막 남쪽, 연봉정 서쪽 주포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스무숲’, ‘시무숲’, ‘시무십’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시무십(種林)’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종림(種林, 시무숲, 시무십)’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이 생기기 전에 큰 시무나무숲이 있었고 그 숲을 ‘스무숲’, ‘시무숲’이라 하였다. 숲에는 높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깊은지 명주실 한 타래가 다 들어가고도 끝이 닿지 않았다고 전한다. 시무숲에 마을이 들어서서 마을 이름을 ‘시무숲’, ‘시무십’, 또는 ‘종림’이라 하였다. ‘종림(種林)’은 ‘시무’를 ‘씨, 씨앗’으로 보고 이를 뜻으로 옮긴 것이다.



「종림 마을 ; 2019년」

종림당숲 [숲]

[위치] 종림 마을 남쪽 끝에 있는 당숲을 말한다. 지금은 훼손되어 숲의 일부만 남아있다.

[내용] 옛날에는 수백 년 된 시무나무를 비롯, 팔배나무, 매차나무, 산사나무 등이 울창하여 호랑이가 나올 정도였는데 한국전쟁 후 숲과 당집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한다. 당숲의 수호목이던 팔배나무가 고사하고 그 옆의 매차나무가 역할을 대신하였으나 이 나무도 고사하였다.



「종림당숲 ; 2019년」

종림뒷골 [골] → 뒷골

종림뒷산 [산]

[위치] 종림 남쪽, 마을 뒤에 있는 산을 말한다.

종림들 [들]

[위치] 종림 동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종림들’이라 하였다.

종림 매차나무 [나무]

[위치] 종림 당숲에 있던 나무를 말한다. 지금은 고사(枯死)해서 없어졌다.

[내용] 원래 이 당숲에는 마을의 수호목으로 ‘팔배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고사한 뒤, 옆의 매차나무가 수호목의 역할을 하였다. 마을에서는 당을 세우고 조상께 제사를 지내며 이 나무에 빌어 한해나 풍수도 방지한다고 믿었다. 수령 약 220년이었으나 고사하였다.

종림성황당 [당]

[위치] 종림 당숲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현재 당집 자리에 정자가 서 있다.

[내용] 음력 10월 상달 첫 정일(丁日)에 제사를 모셨다. 1980년대 이후 폐지되었다.

종림천(種林川) [내]

[위치] 구학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종림 마을 앞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종림천이라 부른다.

주막거리 [마을] → 용소막주막거리, 연봉정주막거리

중봉(中峰) [산]

[위치] 삼봉산의 삼봉 중에 가운데 있는 683.7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상봉 북쪽, 하봉 동쪽에 있는 봉우리로 삼봉 중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산 북쪽에 신림리의 ‘큰배나무골’과 ‘작은배나무골’이 있다.

지메골 [골]

[위치] 소나무터들 남쪽, 대리석광산 옆 골짜기를 말한다. ‘제메골’이라고도 한다.

지정박골 [골]

[위치] 탑골 남쪽 뿔대양지골에서 남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지칭골 [골]

[위치] 역뒤 마을 동쪽, 중앙고속도로 터널 동쪽,

가재골과 삼봉골 사이의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질그릇공장 [터]

[위치] 용소막과 사림 사이 현 마을회관 자리에 있던 그릇공장을 말한다.

[내용] 1910년대부터 1950년 한국전쟁 전까지 벽돌, 기와, 옹기와 질그릇을 만들었다. 1970년대에는 용소막 용암천 변으로 자리를 옮겨 옹기그릇을 생산하였다.

채총머리 [모롱이] → 쇠통머리

채총머리골 [골] → 쇠통머리골

천삼산(天蓼山) [산]

[위치] 감악산 서쪽, 삼봉산 북동쪽의 818.6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용암리 및 충북 제천시 봉양읍과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천수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하늘에서 산삼 씨앗을 준다는 전설이 있어서 천삼산이라 한다. 늦가을에 비가 내리면 선덕동 천수골의 철철바위로 삼산 씨앗이 떨어려 오는 데 이는 하늘이 산삼씨앗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는 옛날 한 효자가 병든 아버지를 구하려고 산속을 헤매다가 이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여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으므로 천삼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천삼산동굴 [굴]

[위치] 천삼산 동봉 남쪽 아래, 천수암터 북동쪽 위에 있는 작은 동굴을 말한다.

천삼산 동봉(天蓼山 東峰) [산]

[위치] 천삼산 동쪽에 있는 높이 821.7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천삼산 정상에서 서쪽 100m 거리에 있다.

천수골 [골]

[위치] 선덕동 선덕골에서 북동쪽으로, 천삼산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옛 정법사, 마애불상, 천수암터가 있고, 골 북서쪽에는 신림리 큰배나무골이 있다. ‘천수암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 위 천삼산 아래에 옛 천수암이 있었으므로 천수골이라 하였다.

천수골마애불 [불상]

[위치] 천수골 옛 정법사 위, 천수암터 아래에 있는 마애불상을 말한다.

[내용] 천수암에 딸린 마애불로 1970년대에 조각하였다. 10m 높이의 바위에 약 2m의 불신상이 새겨져 있다.

천수산(千手山) [산] → 천삼산

천수암 [마을]

[위치] 천삼산 남쪽 아래, 천수암이 있던 곳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천수암’이라고 하였다.

[유래] 천수암 절이 있었으므로 마을도 천수암이라 하였다.

천수암골 [골] → 천수골

천수암약수 [샘]

[위치] 천수암터에 있는 약수를 말한다. 위장병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천수암터 [터]

[위치] 천삼산 남쪽, 천수골 끝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유래] 1940년경 ‘묘연’이라는 비구니가 옛 절터에 세운 절이다. 1970년대 화전민들을 소개(疏開)할 때 선덕동으로 내려와 선덕사(善德寺)로 이름을 바꾸어 세웠고 선덕사는 2002년에 다시 성원사(聖元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내용] 절터가 기가 세어서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밤에 괴성이 들리고 낮에 보면 거기에 아름다리나 무가 부러져 있곤 한다고 한다. 절터에 약수가 있고 절터 북동쪽 위에는 작은 자연석굴이 있다.

천정바우 [바위]

[위치] 천삼산 능선 남서쪽, 천수암터 북동쪽에 있

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크고 높아서 천정 같다고 하여 천정바우라 하였다.

철철바우 [바위]

[위치] 천수골 옛 정법사 북동쪽 위, 천수암터 남서쪽에 있는 바위로, ‘장군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철철거린다고 하여 철철바우라 하였다. 수량이 많지 않으나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끊이지 않고 철철거리며 흐른다고 한다. 늦가을에 비가 내리면 철철바위로 산삼 씨앗이 떠내려 오는데 이는 하늘이 산삼 씨앗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 전설에서 천삼산이라는 산 이름이 생겼다.

큰보 [보]

[위치] 종림 새들(2) 동쪽, 연봉정들 서쪽에 있는 주포천의 보(湫)를 말한다.

[유래] 구학천과 수련천의 물이 주포천에 합류하는 곳에 있으므로 큰보라 부른다.

큰애막골 [골] → 애막골

[내용] 애막골을 큰애막골이라고 부르고, 중간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작은애막골이라고 한다.

탐골 [마을]

[위치] 사림 남서쪽, 당뒤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남쪽으로 뿔대양지골이 이어진다. ‘탐동(塔洞)’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탐골(탐동)’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이곳에 큰 절과 돌탑이 있었는데 탑이 있던 곳이므로 탐골이라 하였다. 또는 전설에 의하면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가에 돌을 하나씩 쌓아 자연스럽게 돌탑이 형성되었으므로 탐골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탑의 맨 위에 마지막 얹혀진 돌이 토금(土金)이었다는 설이 있다.



「탐골 마을 ; 2019년」

탐골석탑터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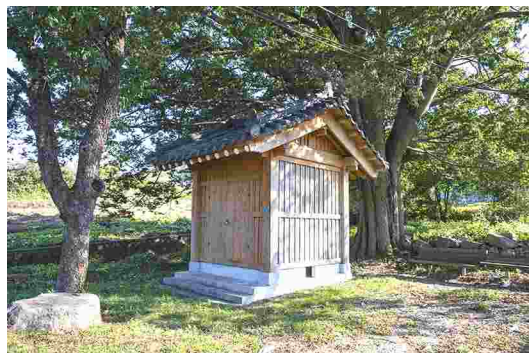
[위치] 탐골 마을, 현 한국사와 탐골성향당 사이에 있던 탑의 터를 말한다.

[내용] 탐골 마을이 옛 절터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5층 석탑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반출되었다고 한다. 석탑재 일부는 1991년에 창건한 한국사 앞에 옮겨져 있는데 투박한 자연석을 약간 가공한 정도이다. 『전국유적목록』(문화재관리국, 1970)에 ‘4층 방탑으로 높이 약 6척’이라고 하였다.

탐골성향당 [당]

[위치] 탐골 마을 입구에 있는 성향당을 말한다.

[내용] 2003년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새로 지은 성향당이다. 엄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당고사를 지낸다. 당집 앞에 한 쌍의 장승이 있다.



「탐골성향당 ; 2019년」

탑동(塔洞) [마을] → 탑골, 탑골석탑터

토끼골 [골]

[위치] 당뒤 마을 서쪽 사림성황당에서 남쪽으로, 담바위 북쪽 능선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앞에 당숲과 현 C&N커피코리아 공장이 들어서 있다. ‘퇴끼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퇴끼골’이라 하였다.

[유래] 토끼가 많았다고 하여 토끼골이라고 한다.

퇴끼골 [골] → 토끼골

하봉(下峰) [산]

[위치] 삼봉산의 삼봉 중 북서쪽에 있는 653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중봉 서쪽, 삼봉사 북쪽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 북쪽 아래에 신림리 작은배 나무골이 있다.

한국사 [절]

[위치] 탑골에 있는 태고종 절을 말한다. 절 앞에 옛 석탑 부재가 있다.

황둔리(黃屯里)

[위치]

황둔리는 신림면의 동쪽에 있다.

동쪽으로는 송계리·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서쪽으로는 성남리와 신림리, 남쪽으로는 감악봉과 석기암을 경계로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송학면 오미리, 북쪽으로는 매봉산과 초치(初峙)를 경계로 영월군 무릉도원면과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가리파면(加里坡面) 지역으로서 오리(五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물안골·소야·신목정·재사동·창골·샘골·청룡·평촌을 병합하여 황둔리(黃屯里)라고 하여 원주군 가리파면 황둔리가 되었다.

1917년 가리파면을 신림면(神林面)으로 개칭함에 따라 원주군 신림면 황둔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할 때 원주군이 원성군으로 바뀌어서 원성군(原城郡) 신림면 황둔리가 되었다.

1989년 다시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바뀌면서 원주군 신림면 황둔리가 되었다.

1995년 원주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가 되었다.

[유래]

황둔천 옆 산기슭에 마을이 길게 들어섰으므로 ‘황둔’, ‘황둔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황둔리(黃屯里)’라 하여 정착되었다.

[풀이]

황둔을 황(黃)을 취하여 붉은 언덕이라고 하였으나 황둔천 옆 둔덕을 따라 길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그 어원은 ‘늘어진’의 뜻인 ‘늘·눌·눌, 느르·노루·누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느르, 노루, 누르’는 ‘황(黃)’으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황둔리는 ‘길게 늘어진 둔덕의 마을’이란 뜻이다.

가마바우 [마을] → 감바우

가마바우 [바위]

[위치] 창촌 남쪽 큰감바우골 남쪽 끝, 감악봉(1) 서쪽 아래에 있는 등고선 높이 775m의 큰 바위를 말한다. ‘감바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감바우(가마바우)’라고 하였다.

[유래] 거대한 바위를 신성하게 여겨서 감바우, 가마바우라 부른다.

[내용] 감악산에서 석기암산에 이르는 산줄기 전체가 거대한 바위산이므로 그 바위산 전체를 감바우, 가마바우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큰감바우골에서 볼 때 우람하게 커 보이는 이 바위를 감바우·가마바우로 지칭하고 있지만 감바우골이란 이름이 큰감바우골, 작은감바우골(1), (2) 등으로 각각 다른 골짜기를 지칭하고 있어서 감악산 전체를 감바우·가마바우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풀이] ‘감바우(가마바우)’, ‘가막재(감악재)’, ‘감악산(가막산)’ 등의 지명은 모두 ‘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감·가마, 곰·고모’ 등은 ‘곰’계열의 언어로 ‘神’, 또는 ‘크다, 높다, 신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가마바우골 [골] → 감바우골

가마바우삼거리 [길]

[위치] 감악산 계곡길 등산로인 큰감바우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능선길로 올라가는 갈림길이 있는 곳을 말한다. 옛 큰가마바우 마을이 있던 곳이다.

가막고개 [고개] → 감악재

가막재 [고개] → 감악재

가운데치 [고개] → 중치

갈매기골 [골] → 갈미기

갈미기 [골]

[위치] 재사동 재사골에서 요부골과 갈라져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큰갈미기’와 ‘작은갈미기’가 있다. ‘갈매기골’이라고도 한다.

갈밭골 [골]

[위치] 연봉머리 남쪽 내 건너, 재사동 입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교회와 마을이 있는 곳이다.

감바우 [마을]

[위치] 창촌 남쪽, 큰감바우골 안에 있던 마을 중 골짜기 입구의 마을을 말한다. 가마바우 북쪽 아래 골짜기에 있던 마을로 ‘가마바우’라고도 하였다. 골 중간의 큰 마을은 큰감바우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감바우’라고 하였다.

감바우 [바위] → 가마바우

감바우골 [골]

[위치] 큰감바우골을 중심으로 감악산에 이르는 골짜기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큰감바우골과 작은감바우골이 있다. ‘가마바우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감바우(가마바우)가 있는 골짜기이므로 감바우골이라고 하였다.

[내용] 감바우골은 주로 감바우 마을이 있던 큰감바우골을 지칭하지만, 작은감바우골(1), (2) 등의 다른 골짜기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즉 감악산이 거대한 바위산이므로 이를 감바우로 인식하고 그 산에 이르는 골짜기들을 감바우골이라고 하였다.

감악봉(紺岳峰) [산] → 감악산

감악산(紺岳山) [산]

[위치] 창촌 남쪽에 있는 높이 954m의 산을 말한다. 정상에는 원주시에서 세운 정상표지석(930m)과 제천시에서 세운 정상표지석(945m)이 따로 있다. 원주표지석은 감악3봉(942m)과 월출봉(954m) 사이에 있고 제천표지석은 월출봉 동쪽의 일출봉(960.8m) 옆에 있다. ‘감악봉’, ‘감암산’, ‘삼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감바우(가마바우)가 있으므로 ‘감악산’이라고 하였다. 창촌에서 보면 감악1봉~3봉의 봉우리 세 개인 것으로 보이므로 ‘삼봉’이라고도 한다.

[내용]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과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조선시대에는 ‘감암산(紺巖山)’이라고도 하였다. 산줄기가 북쪽의 치악산에서 이어져 내려오며, 남쪽으로 석기암산(石機巖山)과 연결된다. 정상에는 일출봉과 월출봉이 있고, 정상 남서쪽 아래 불당골에는 662년(신라 문무왕 2)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백련사(白蓮寺)가 있다. 절과 정상 사이에 감악산성터가 남아있고 상원사 용마암과 얽힌 전설이 있다.

《여지도서》에 치악산(雉岳山)의 동남쪽 가지로 동쪽으로 뻗어가서 용두산(龍頭山)이 된다고 하였다. 《대동지지》에 감악산(紺岳山)으로 적고 동쪽 50리에 있으며 제천과의 경계라고 하였다.

[풀이] 가마바우가 있어서 ‘가마봉>감악봉, 감악산’이 되었다. ‘감·가마, 곰·고모’ 등은 ‘곰’계통의 언어로 주로 ‘크다, 높다, 신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감악산은 가마바우를 비롯, 정상의 월출봉과 일출봉 등 거대한 암봉들로 이루어진 산이다.

감악산성(紺岳山城) [성]

[위치] 감악봉 정상 부근에 있는 옛 산성을 말한다. ‘감악산성(紺巖山城)’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산의 7~8부 능선에 천연 암벽을 이용하여 돌로 쌓은 테뫼식 산성으로 둘레는 1,188m이다. 돌로 성을 쌓은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감악1봉 [산]

[위치] 창촌에서 남쪽으로 능선을 따라 감악산 정상에 이르는 곳에 있는 첫 봉우리를 말한다. 높이는 870.7m이다.

감악2봉 [산]

[위치] 창촌에서 남쪽으로 능선을 따라 감악산 정상에 이르는 곳에 있는 둘째 봉우리를 말한다. 높이는 918.1m이다.

감악3봉 [산]

[위치] 창촌에서 남쪽으로 능선을 따라 감악산 정상에 이르는 곳에 있는 셋째 봉우리를 말한다. 높이는 942m이다.

감악재 [고개]

[위치] 창촌 큰가마골에서 남쪽으로 충북 제천 요부골, 비끼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백련사가 있다. 고개 높이는 860m이다. ‘가막고개’, ‘가막재’, ‘감악현’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막재(감악현紺岳峴)’라고 하였다.

감악현(紺岳峴) [고개] → 감악재

감암산(紺巖山) [산] → 감악산

감암산성 [성] → 감악산성

개진골 [골]

[위치] 소야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이 골짜기에 사는 동물이 개를 많이 물어갔다고 하여 개진골이라고 한다.

거레이골 [골]

[위치] 큰감바우골에서 돼지바우골 남쪽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돼지바우골 남쪽, 시마이골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감바우골로 들어가면서 두 번째로 만나는 오른쪽 골짜기이다. ‘거랭이골’, ‘거렁뱅이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에 이 골짜기에 거지가 살았으므로 거레이골, 거랭이골, 거렁뱅이골이라 하였다.

거랭이골 [골] → 거레이골

거렁뱅이골 [골] → 거레이골

건넌골 [골]

[위치] 재사동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고든골 [골]

[위치] 평촌 남쪽 내 건너에서 남서쪽으로, 693.4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사리매기 [고개]

[위치] 소야 큰골 북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큰나막신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는 854m이다.

[내용] 한국전쟁 때 퇴각하던 인민군들이 이 고개에서 쉬다가 제천 장막에서 쏜 포탄을 맞아 많이

죽었다고 한다.

곧은골 [골] → 동창골

광대시령(廣垓--) [터]

[위치] 청룡 앞산에 있는 넓은 터를 말한다. 신배골, 여우박골, 오랫동안 만나는 산 정상의 넓은 터이다.

[풀이] ‘광대(廣垓)’는 넓은 터를 뜻하고 ‘시령’은 높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높은 곳에 있는 넓은 터’라는 뜻이다.

구룡소(九龍沼) [소] → 구용소

구용소 [소]

[위치] 연봉정 앞에 있는 황둔천의 소(沼)를 말한다. ‘귀용소’, ‘구룡소’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귀용소’라고 하였다.

[유래] 양쪽에 큰 바위가 소(沼)를 감싸고 있어, 마치 소여물통인 구유 같으므로 붙인 이름이다.

구용소들머리 [모퉁이]

[위치] 구용소 밑에 있는 길모퉁이를 말한다.

귀용소 [소] → 구용소

금수탕(金水湯) [샘]

[위치] 재사동 요부골 병풍바위 위쪽에 있는 샘을 말한다.

[유래담] 물에 금빛이 돈다고 하여 금수탕이라고 한다. 물을 뜨면 금빛이 없어지며 부정 탄 사람이 가면 물이 끓어지는데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도 물의 양은 한결같다고 한다. 금수탕 옆에는 7~8m 정도의 작은 굴이 있는데 임신부가 이 굴에 들어가 누워서 배가 동굴 천정에 닿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까치재 [고개] → 중치

깨박골 [골]

[위치] 중골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꽃밭소 [소]

[위치] 신목정 남서쪽, 신목보가 있는 황둔천의 소

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꽃밭소’라고 하였다.

[유래] 소(沼) 옆의 바위벼랑에 철쭉이 많이 피므로 꽃밭소라고 하였다.



「꽃밭소 ; 2018년」

나막신골 [골]

[위치] 재사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738.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나막신골 동쪽 너머에 큰나막신골과 작은나막신골이 있고 그 아래에 나막신골 마을이 있다.

[유래] 골짜기 너머로 나막신골과 연결되므로 이 골짜기도 나막신골이라 하였다.

나막신골 [마을]

[위치] 청룡 남쪽, 오미저수지 북서쪽 아래 귀통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바랑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이를 한자로 ‘목리동(木履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나막신골(목리동木履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예전에 나막신을 만들던 곳이라 나막신골이라고 한다.

[내용] 나막신골 마을과 마을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바랑골이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이다.

남근바우 [바위] → 탑바우

노적바우 [바위]

[위치] 감악산 정상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마치 곡식 낱가리를 쌓은 것 같으므로 노적바우라 한다.

높은봉 [산]

[위치] 창촌 맏돌골과 용가매기골 북쪽 끝에 있는 높이 977.5m의 산을 말한다. 매봉산 능선의 동쪽, 찰방바우봉의 북서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산 북동쪽 아래에는 무릉도원면 두산리 용바우골이 있다.

대바우골 [골]

[위치] 평촌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대바우골’이라고 하였다.

대밭골 [골]

[위치] 소야 큰쇠골 선지바우 위에서 북쪽으로, 높이 907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현 치악산환경순수련원 주차장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덕바우골 [골]

[위치] 재사골 입구, 재사동 나막신골 맞은 편 서쪽 골짜기를 말한다.

덥막골 [골] → 덧밭골

덧밭골 [골]

[위치] 연봉정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582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덥막골’이라고도 한다.

돌고개 [고개] → 돌기재, 석기령

돌기재 [고개] → 석기령

[위치] 재사동에서 남쪽으로, 싸리골을 거쳐 제천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돌고개’, ‘장재’, ‘석기령’이라고도 한다. ‘돌기재’를 한자로 적어 ‘석기령(石機嶺)’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재’라고 하였다.

[유래] 돌로 된 산의 고개이므로 ‘돌고개’, ‘돌기재’, ‘석기령’이라 하였다. 이 고개를 넘어 제천에 장을 보러 다녔으므로 ‘장재’라고도 하였다.

[내용] 옛날 재사동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어 제천장까지 40km를 오갔다고 한다.

[풀이] ‘돌고개’는 ‘돌+고개>돌고개’이다. ‘돌기재’

는 돌의 옛말 ‘돌’과 고개를 뜻하는 ‘재’가 결합하여 ‘돌+재>돌재>돌()재>돌기재’가 되었다. ‘돌기재’를 한자로 적어 ‘석기령(石機嶺)’이라 하였다. ‘石’과 ‘嶺’은 뜻을 적은 것이고 ‘機’는 소리를 적은 것이다. 바위로 된 산의 고개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돌’의 옛말 ‘돌’은 ‘돌’, ‘돌ㄱ’, ‘독’으로 실현된다. ‘돌+맹이>돌맹이’, ‘돌+(을, 이)>돌굴, 돌기’, ‘돌삼>독섬(獨島)’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닭(鷄)’이 관련된 ‘닭+알>닭(이)알>돌기알>달걀’, ‘닭+새기>독새기(달걀의 제주방언)’도 같은 이치이다.

돌배나무주막 [주막] → 신목정주막

[유래] 돌배나무가 많은 곳에 주막이 있었으므로 돌배나무주막이라고도 하였다.

동자바우 [바위] → 월출봉

[위치] 감악산 정상에 있는 바위봉우리를 말한다. 월출봉의 다른 이름이다.

동창골 [골] → 곧은골

[위치] 물안동 명주사에서 북쪽으로, 응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곧은골’이라고도 한다. 옛 ‘곧은골’을 지금은 ‘동창골’로 부른다.

돼지바우골 [골]

[위치] 큰감바우골 초입에서 남서쪽으로, 63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감바우골로 들어가면서 만나는 첫 번째 오른쪽 골짜기이다.

두껍바우 [바위]

[위치] 재사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두꺼비를 닮아서 두껍바우라 하였다.

둥둥바우 [바위]

[위치] 재사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북처럼 생겨서 둥둥바우라 하였다.

마당바우 [바위]

[위치] 감악재에서 동쪽 감악산 정상으로 가는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마당바우’라고 하였다.

[유래] 비스듬히 누운 넓이 50여 평의 바위이다. 200~300명이 앉을 수 있으므로 마당바우라고 하였다.

말림골 [골]

[위치] 신목정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587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황둔초등학교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말치(末峙) [고개]

[위치] 중골에서 횡성군 강림면 태종대에 이르는 고갯길에 있는 초치-중치-말치 중 마지막 고개를 말한다. 강림면과 영월군 무릉도원면의 경계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높이는 660m이다.

매봉산 [산]

[위치] 창촌 북쪽, 치악산 줄기에 있는 1,094.9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영월군 무릉도원면과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서쪽에 높이 1,063.5m의 응봉산이 있다. ‘푼대봉’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미봉산(鷹峰山)’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산 정상에서 매를 가지고 꿩과 토끼를 사냥했다고 해서 매봉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는 산 봉우리에 항상 매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산 아래 석기동에서 바라본 산의 모습이 매의 부리처럼 생겨서 매봉산으로 부른다고도 한다. 표준측량을 위한 푼대를 세웠으므로 푼대봉이라고도 한다.

[내용] 멧돼지가 많고 1년에 산삼이 3~4뿌리는 나온다고 한다. 이 산과 서쪽 응봉산(1,063.5m)의 이름이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

맷돌골 [골]

[위치] 창촌 창골 끝에서 용가매기골과 갈라져 북쪽 943m 봉과 977.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용가매기골 동쪽에 있는 골이다.

맹노인골짜기 [골]

[위치] 큰감바우골 안 시마이골 입구를 말한다.

[유래] 시마이골 입구에 옛날에 맹씨 성을 가진 노

인이 살았으므로 맹노인골짜기라 하였다.

먼옴터골 [골]

[위치] 재사동 옴터골 안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명주사(明珠寺) [절]

[위치] 물안골(2)에 있는 절을 말한다. 고판화박물관과 함께 있다.



「명주사 ; 2019년」

모래구덩이골 [골]

[위치] 소야 큰쇠골에서 서쪽으로, 704.8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대밭골 서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로 현 치악산항둔수련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목리동(木履洞) [마을] → 나막신골

문덩이터골 [골]

[위치] 물안동 한삼밭골 안 깊숙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문둥이가 살았던 곳이므로 문덩이터골이라고 하였다.

물안(物安) [마을] → 물안동

물안골(1) [골]

[위치] 황둔천 상류, 창촌에서 서쪽으로 짜리치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물안골(2) [골]

[위치] 짜리치 동쪽 아래에서 북쪽으로, 응봉산 서

쪽 줄기인 1,068.2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삼밭골에서 북쪽 내 건너 맞은편에 있다.

[내용] 골짜기 안에 명주사(明珠寺)와 고판화박물관이 있다.

물안동(勿安洞, 物安洞) [마을]

[위치] 물안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싸리치와 창촌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물안이’, ‘물안동’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음차하여 ‘물안(勿安, 物安)’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물안니(勿安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물안동(物安洞)’이라 하였다.

[유래] 황둔천의 상류로, 내의 안쪽에 마을이 있으므로 ‘물안’이라고 하였다.

물안동성향당 [당]

[위치] 물안동 앞 황둔천 옆에 있는 성향당을 말한다. 물안골(2) 남쪽 도로와 개울 사이, 현 고판화박물관 입구 남동쪽, 꿈에별장 서쪽에 있다.

[내용] 성향신을 모시고 매년 정월 보름에 마을 제사를 지낸다. 당집은 2003년에 새로 지었다.



「물안동성향당 : 2019년」

물안이 [마을] → 물안동

물안천 [내] → 황둔천

[위치] 황둔천의 다른 이름이다. 물안동 앞을 지나가므로 이곳에서는 ‘물안천’이라 부른다.

바랑골 [골]

[위치] 오미저수지 나막신골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706m 봉우리를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가 되는 골짜기이다.

바른골 [골]

[위치] 청룡 샛말 동쪽, 솔골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531m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남쪽 너머에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선바우골이 있다.

박달골 [골]

[위치] 중골 마을 북쪽에서 서쪽으로, 876m 높이의 작은매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박달나무가 많이 있으므로 박달골이라 하였다.

밤나무골 [골]

[위치] 창촌 창골에서 북쪽으로, 980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배골 [골]

[위치] 오미저수지 둑 아래에서 서쪽으로, 706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나막신골 마을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백련사(白蓮寺) [절]

[위치] 감악봉 정상 남서쪽 아래에 있는 절을 말한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지역이다. 상원사 용마암에 얹힌 전설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백련사(白蓮寺)’라고 하였다.



「백련사 : 2018년」

벼락바우 [바위]

[위치] 소야 벼락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벼락바우골 [골]

[위치] 소야 큰쇠골 중간에서 북쪽으로, 922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 안에 벼락바우가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병안 [마을]

[위치] 재사동 마을 중 재사골 남서쪽 상류, 요부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재사동성황당과 아리울캠핑장이 있는 마을이다.

[유래] 골짜기 입구는 좁은데 안에 들어가면 넓은 것이 마치 병과 같으므로 ‘병안’이라 하였다.

병안골 [골]

[위치] 재사골이 병안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갈라져 나가다가 다시 남쪽으로 석기암 서쪽의 859.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에서 남동쪽으로 싸리골이 갈라져 나가고 싸리골 끝에 석기암이 있다. 골짜기 입구에 아리울캠핑장이 들어서 있다.

병풍바우 [바위]

[위치] 재사동 요부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북나무골 [골]

[위치] 물안동 남쪽 내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성황당 남쪽 건너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붉나무가 많이 자라므로 북나무골이라고 하였다. 붉나무는 웃나무과로 북나무, 붉나무, 뿔나무, 굴나무, 오배자나무라고도 한다.

불당골(1) [골]

[위치] 오미저수지 서쪽 바랑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나막신골 마을에서 보아 바랑골의 세 번째 골짜기로, 큰나막신골 남서쪽에서 북서쪽 738.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불당골(佛堂-)’이라 하였다.

불당골(2) [골]

[위치] 소야 입구에서 북서쪽으로, 616.9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 골짜기 입구에 불당터가 있었으므로 불당골이라 하였다.

불당터 [터]

[위치] 소야 마을입구 불당골(2) 입구의 터로, 옛날에 불당이 있던 자리이다.

사태골 [골]

[위치] 소야 큰골에서 북쪽으로, 922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서쪽 맞은편에 심밭골이 있다.

산뿔골 [골]

[위치] 중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산신바우 [바위]

[위치] 재사동 요부골 안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산지당골 [골]

[위치] 평촌 큰원골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숯가마골 아래에 있다.

[유래] 산제당이 있어서 ‘산제당골>산지당골’이라 하였다. 큰 바위를 서남으로 모신다.

산지바우 [바위] → 선지바우

삼거리장 [장]

[위치] 현 황둔중학교 동쪽, 신림면사무소황둔출장소 부근에 서던 시장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삼거리장’이라고 하였다.

[유래] 송계리와 연결되는 삼거리에 장이 섰으므로 삼거리장이라 하였다.

삼봉(三峰) [산] → 감악산

[위치] 감악산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창촌 쪽에서 보면 봉우리가 세 개로 보이므로 삼봉이라고 한다.

삼송(三松) [마을]

[위치] 신목정 동쪽, 송계교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황둔리의 가장 큰 마을로 신림면사무소 황둔출장소, 신림농협 황둔분소 등이 있는 마을이다.

상보(上湫) [보]

[위치] 신목정보 위에 있는 보(湫)를 말한다. 소아
탐거리 동쪽 아래에 있는 보이다.

새목재 [고개]

[위치] 재사동 싸리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새목재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
다. 석기암의 북쪽 능선에 있는 640m의 고개이다.

[유래] 고개 너머에 새목재골이 있으므로 새목재
라 하였다.

새터재 [고개] → 초치

샘골 [골]

[위치] 청룡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636.2m의 봉우
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 너머에
송계리 넘바골이 있다.

샘골 [마을]

[위치] 청룡 마을 북동쪽, 삼송 남동쪽 황둔천 건
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자로 ‘천동(泉洞)’이
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심골(泉洞)’이
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샘골(천동泉洞)’이
라고 하였다.

샘말 [마을]

[위치] 청룡 남쪽 위, 오미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
는 마을을 말한다. ‘셋말’이라고도 한다.

샘말들 [들]

[위치] 청룡 샘말 동쪽 앞, 오미저수지 북쪽 아래
에 있는 들을 말한다. ‘셋말들’이라고도 한다.

셋말 [마을] → 샘말

셋말들 [들] → 샘말들

석기교(石基橋) [다리]

[위치] 석기동 앞에 있던 옛 다리를 말한다. 『한국
지명총람』에 ‘석기교(石基橋)’라 하였다.

석기동(石基洞) [마을]

[위치] 물안동 북서쪽, 썩은샘골에 있는 마을을 말
한다. 싸리치 북쪽, 신림터널 동쪽 출구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썩은샘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석으석동(石義石洞)’이라고 하
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썩은샘골(석기동石基洞)’
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옛날 석씨 성을 가진 선비가 은둔하고 살
아서 ‘석은사골’이라고 하였는데 ‘석은사골>썩은샘
골’이 되었다고 전한다.

석기령(石機嶺) [고개] → 돌기재

[위치] 재사동 싸리골을 거쳐 남쪽으로, 석기암을
넘어 충북 봉양읍 명암리, 또는 남동쪽으로 제천
못재를 넘어 의림지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돌고
개’, ‘돌기재’, ‘장재’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855m
이다.

[풀이] ‘석기령(石機嶺)’은 ‘돌기재’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돌기재’는 ‘돌+재>돌()재>돌기재’로 되
었다. ‘돌’은 돌의 옛말이다. ‘돌고개’는 ‘돌+고개>
돌고개’이다.

석기암(石機巖) [산]

[위치] 재사동 남쪽에 있는 높이 906.7m 높이의
산을 말한다. 감악산 줄기 남동쪽에 있으며 충북
제천시 봉양읍과 경계가 되는 산이다. ‘석기암산’
이라고도 한다.

[유래] ‘돌바우>돌기바우>석기암’이 되었다. 돌바
위란 뜻이다.

[풀이] 재사동에 ‘돌고개’, ‘돌기재’가 있으므로 ‘돌
재>돌기재(석기령)’, ‘돌바우>돌기바우(석기암)’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감악산과 석기암산이 모두
바위로 된 산이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석기암산(石機巖山) [산] → 석기암

석은사골 [골] → 썩은샘골

석은사골 [마을] → 석기동

석이바우 [바위]

[위치] 작은갈미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선녀바우 [바위] → 일출봉

[위치] 감악산 정상에 있는 바위봉우리를 말한다.

일출봉의 다른 이름이다.

선바우 [바위]

[위치] 감악산 능선 등산로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탑바우 아래에 있다.

[유래]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으므로 선바우라 부른다.

선지바우 [바위]

[위치] 소야 마을 북서쪽, 큰쇠골 입구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현 치악산환경순수원 매표소 옆 언덕에 있는 바위이다. '산지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바위가 서 있으므로 선지바우라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엮어져 누워 있다.

설통밭골 [골]

[위치] 물안동 복나무골 북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물안골 동쪽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성가마골 [골]

[위치] 재사동 재피골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723.3m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소골 [마을] → 소야

소바우 [골]

[위치] 재사동 병안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소야(小野) [마을]

[위치] 재사동 북동쪽, 신목정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소골', '쇠골', '씨골', '소야골', '소야동(小野洞)', '소학동(巢鶴洞)'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황새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에 '소야골(小野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소야골(소야동小野洞, 소학동巢鶴洞, 씨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소가 죽었다고 하는 '소죽은골>소중골>쇠중골'이라는 지명이 있으므로 소야골 관련 지명들은 '소(牛)'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풀이] '소골>쇠골, 씨골'의 '소, 쇠, 씨'를 음차하

여서 '소야(小野)'라 하였다. 또는 황새가 많이 살았다는 것으로 보아 '새골>쇠골, 씨골'에서 음차하여 '소야(小野)'라 하였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소야'는 '쇠', '씨'를 음차한 것이다. '소학(巢鶴)'은 소리를 살리면서 황새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소야골 [마을] → 소야

소야동(小野洞) [마을] → 소야

소야당숲 [숲]

[위치] 소야 마을 안 성향당의 시무나무숲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소야당숲'이라고 하였다.

소야성향당 [당]

[위치] 소야 마을 안 시무나무 당숲에 있는 성향당을 말한다. 불당터골 입구, 주택이 있는 마을 한 가운데에 있다.

[내용] 원래 성향당이 두 군데가 있었으나 한 군데만 남았다. 매년 정월 14일과 9월 9일에 당고사를 지낸다.



「소야성향당 ; 2019년」

소중골 [골]

[위치] 소야에서 북쪽으로, 66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쇠중골', '씨중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소중골'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옛날에 소를 매다가 소가 죽어서 '소죽은골>소중골>쇠중골, 씨중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소학동(巢鶴洞) [마을] → 소야

술골 [골]

[위치] 청룡 셋말 동쪽 맞은편에서 동쪽으로, 높이 650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원골과 바른골이 있다.

송계천(松溪川) [내] → 황둔천

쇠골 [마을] → 소야

쇠중골 [골] → 소중골

수리병대 [골]

[위치] 재사동 재피골 맞은 편, 서쪽 골짜기를 말한다.

숫가마골 [골]

[위치] 평촌 큰원골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산지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이 골에서 숫을 구웠으므로 숫가마골이라고 하였다.

시마이골 [골]

[위치] 큰감바우골 안, 거래이골 남쪽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심마니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심마니들이 살던 곳이므로 ‘심마니골’, ‘시마이골’이라 하였다.

[풀이] ‘심마니골>심마이골>시마이골’이 되었다.

식량골 [골]

[위치] 삼송 즐거들에서 북서쪽으로, 453.2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현 황둔중학교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신나무정이들 [들] → 신목정들

신망골 [골] → 심방골

신목당(新木堂) [당]

[위치] 신목정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황둔초등학교 뒤 작은 밭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어 흔적이 없다.

신목당숲 [숲]

[위치] 신목당 주변에 있던 신배나무(돌배나무) 숲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신목당숲’이라고 하였다.

신목들 [들] → 신목정들

신목보(新木湫) [보] → 신목정보

신목정(新木亭) [마을]

[위치] 소야 북동쪽, 삼송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황둔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신나무정이(新木亭)’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신목정(新木亭)’이라 하였다.

[유래] 신배나무 정자가 있었으므로 마을 이름도 신목정이라고 하였다.

신목정들 [들]

[위치] 신목정 남쪽에서 삼송 남쪽에 이르는 황둔천 옆의 들을 말한다. ‘신목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신나무정이뜰(新木亭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신목들’이라고 하였다.

신목정보(新木亭湫) [보]

[위치] 신목정 마을 남쪽 앞에 있는 황둔천의 보(湫)를 말한다. 신목정 남쪽 내 건너의 청룡들에 물을 댄다. ‘신목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보(신목보新木湫)’라고 하였다.

[내용] 황둔천 높이 가로질러가는 보 아래에 꽃밭 소가 있다.

신목정주막 [주막]

[위치] 신목정 마을 앞, 신배나무숲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현 황둔초등학교 앞 도로 옆이다. ‘돌배나무주막’이라고도 하였다.

신배골 [골]

[위치] 청룡 마을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487.8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 오랏골 북쪽에 있다.

신배나무숲 [숲]

[위치] 신목정 마을 앞에 있던 돌배나무숲을 말한다. 지금은 황둔초등학교 앞에 두 그루가 남아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신배나무’라고 하였다.

[내용] 큰 나무들이 있었으나 고사하기도 하고 도로를 내면서 많이 없어졌다. 옛날 이곳에 신목정

주막이 있었다.

심마니골 [골] → 시마이골

심방골 [골]

[위치] 중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큰심방골과 작은심방골이 있다. '신망골'이라고도 한다.

심밭골 [골]

[위치] 소야 큰쇠골 위 큰골에서 북서쪽으로, 높이 980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사태골 서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심봉개울 [내]

[위치] 소야 북서쪽 고사리매기에서 남동쪽으로 심밭골과 큰쇠골을 거쳐 소야에서 황둔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유래] 심봉산 아래에서 황둔천에 합류하므로 심봉개울이라 하였다.

심봉산 [산]

[위치] 소야 남서쪽 마을 입구에 있는 446.2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싸리골 [골]

[위치] 재사동 병안골에서 남쪽으로, 석기암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석기령이 있고 석기령 동쪽에 석기암이 있다. '싸르골'이라고도 한다.

싸리치 [고개] → 성남리 싸리치

싸르골 [골] → 싸리골

씩은샛골 [골]

[위치] 물안골에서 북서쪽으로, 응봉산 남서쪽 줄기의 높이 83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석기동 마을이 있다.

[내용] 현 신림터널 동쪽 출구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옛 국도가 돌아 나오는 곳으로, 골짜기에 미륵암이 있다.

씩은샛골 [마을] → 석기동

씨골 [마을] → 소야

아들바우 [바위]

[위치] 신림터널 동쪽, 석기동 입구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현 과적차량검문소가 있는 곳에 있다.

[유래] 임신부가 돌을 던져 바위 위에 앉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어 아들바우라 한다. 어른이 흔들면 움직이는 흔들바위이다.

아래감바우골 [골] → 작은감바우골(1)

아래산지당골 [골]

[위치] 소야 남쪽 황둔천 건너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706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웃산지당골 동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남쪽 너머에 큰나막신골이 있다. 현 한울오토캠핑장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아랫산지댕이'라고도 한다.

[유래] 산제당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제당이 없어진지는 오래되었다.

아랫산지댕이 [골] → 아래산지당골

안산골 [골]

[위치] 물안동에서 남쪽으로, 745.4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삼밭골 동쪽 아래, 물안동성향당 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애장골 [골]

[위치] 재사동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어린이가 죽으면 묻은 골짜기이므로 애장골이라고 하였다.

양지바우골 [골]

[위치] 물안동에서 북쪽으로, 799.3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여우박골 [골]

[위치] 청룡 샘말 큰오랫골 입구에서 갈라져 서쪽으로, 623.4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오랫골과 작은오랫골 사이에 있다.

연봉머리 [모퉁이]

[위치] 연봉정 마을 남서쪽 산모퉁이를 말한다.

[유래] 경사가 심한 산이 튀어나온 급한 길모퉁이

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머리’는 ‘모롱이>모리>머리’로 변천한 말이다.

연봉쟁이 [마을] → 연봉정

연봉정(蓮峰亭) [마을]

[위치] 평촌 남동쪽, 재사동 북쪽 황둔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재사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연봉쟁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연봉정(蓮峰亭, 연봉쟁이)’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당이 있으므로 연봉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영개골 [골]

[위치] 평촌 남동쪽 황둔앞들에서 북쪽으로, 높이 641.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우무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기소 [소]

[위치] 소야 앞에 있는 황둔천의 소(沼)를 말한다. 심봉산 남서쪽, 현 한울오토캠핑장 옆에 있는 소이다. ‘이기소’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예기소’라고 하였다.



「예기소 ; 2018년」

오래골 [골] → 오랫골

오랫골 [골]

[위치] 청룡 앞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큰오랫골과 작은오랫골이 있다. ‘오래골’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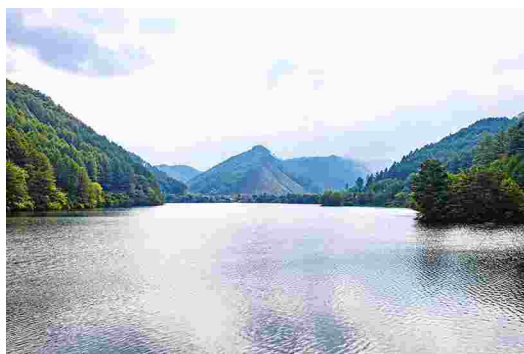
오리(五里) [마을] → 황둔리

오미저수지(五味貯水池) [못]

[위치] 청룡 남쪽, 제천의 용두산 북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석기암과 제천 용두산 사이의 오미천 물을 모아 셋말들과 청룡들에 물을 댄다. ‘황둔저수지’라고도 한다.

[유래] 저수지 남쪽 위 오미천의 물이 들어오므로 오미저수지라고 한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내용] 저수지 하단 제방이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의 경계이다.



「오미저수지 ; 2019년」

오미천(五味川) [내]

[위치] 석기암과 충북 제천의 용두산 사이에서 발원, 북쪽으로 흘러 오미저수지에 머물렀다가 청룡에서 황둔천으로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유래]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를 거쳐 오므로 오미천이라 하였다.

원골 [골]

[위치] 청룡 샘말 동쪽 솔골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666.6m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북동쪽 너머에 제천시 송계리 넘바골이 있다.

요부골(1) [골]

[위치] 재사동 재사골 위에서 갈미기와 갈라져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큰요부골과 작은요부골이 있다.

요부골(2) [골]

[위치] 재사골 병안에서 서쪽으로, 높이 611.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 재사동성황당과 병안 마을이 있다.

용가매기골 [골]

[위치] 창촌 창골의 북쪽 끝에서 맷돌골과 갈라져 북서쪽 1004.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매봉산 남동쪽 아래, 맷돌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우무골 [골]

[위치] 평촌 마을의 옛 황둔초등학교 창평분교(현 엘림실험터 수련원)에서 북쪽으로, 높이 679.8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영개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움터골 [골]

[위치] 재사동 병안 요부골 동쪽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웃감바우골 [골] → 큰감바우골

웃산지당골 [골]

[위치] 소야 남쪽, 향교골 남쪽 건너편 큰물건너들에서 남동쪽으로, 738.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아래산지당골 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로, 현 한울오토캠핑장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산지대’라고도 한다.

[유래] 산제당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제당이 없어진지는 오래되었다.

원골(1) [골]

[위치] 옛 황둔초등학교 창평분교(현 엘림실험터 수련원)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서 ‘큰원골’과 ‘작은원골’이 갈라진다.

원골(2) [골]

[위치] 재사골에서 큰요부골과 갈라져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원골은 다시 ‘큰갈미기’와 ‘작은갈미기’로 갈라진다.

월출봉(月出峰) [산]

[위치] 감악산 정상에 있는 두 봉우리 중 서쪽에 있는 높이 954m의 봉우리를 말한다. ‘동자바우’라고도 한다. 원주에서 세운 감악봉 정상석(930m)의 동쪽에 있다.

음달바우골 [골]

[위치] 소야 진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해가 잘 들지 않아서 음달이 지므로 음달바우골이라 하였다.

음터골 [골]

[위치] 재사골 병안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응봉산(鷹峰山) [산]

[위치] 석기동 썩은샛골 북쪽에 있는 1,063.5m 높이의 봉을 말한다. 동쪽 능선에 매봉산(1,094.9m)이 있다. 영월군 무릉도원면과 황둔리, 성남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내용] 이 산과 동쪽 매봉산은 이름이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

이기소 [소] → 예기소

일출봉(日出峰) [바위]

[위치] 감악산 정상에 있는 두 봉우리 중 동쪽에 있는 높이 960.8m의 봉우리를 말한다. ‘선녀바우’라고도 한다.

[내용] 제천에서 세운 감악봉 정상석 바로 옆에 있는 바위봉우리이다. 이 봉이 감악산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작은갈매기골 [골] → 작은갈미기

작은갈미기 [골]

[위치] 재사동 재사골에서 요부골(1)과 갈라진 갈미기에서 서쪽으로, 감악산 일출봉(960.8m)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갈매기골’이라고도 한다.

작은감바우 [마을]

[위치] 연봉정 남서쪽, 황둔천 건너 작은감바우골

(1)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SK이천주유소 남쪽, 강원도힐링캠핑장이 들어선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작은감바우’라고 하였다.

작은감바우골(1) [골]

[위치] 연봉머리 남서쪽, 작은감바우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680.9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감바우골(2) [골]

[위치] 물안동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789.1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서쪽 너머에 한삼밭골이 있다.

작은나막신골 [골]

[위치] 나막신골 마을 남서쪽 바랑골에서 북서쪽으로, 높이 706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나막신골 마을에서 보아 바랑골의 첫 번째 골짜기이다.

작은매봉산 [산]

[위치] 중골 안 박달골 북서쪽 위에 있는 876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작은소야골 [마을] → 작은쇠골

작은쇠골 [골]

[위치] 소야에서 서쪽으로 62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서쪽 너머에 영개골이 있다.

작은쇠골 [마을]

[위치] 작은쇠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작은소야골’이라고 하였다.

작은신망골 [골] → 작은심방골

작은심방골 [골]

[위치] 중골 마을에서 서쪽으로, 666.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심방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신망골’이라고도 한다.

작은오랫골 [골]

[위치] 셋말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623.4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신배골 남쪽, 여

우박골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입구에 솔향기펜션이 있다.

작은요부골 [골]

[위치] 큰요부골 중간에서 서쪽으로, 감악봉 동쪽의 높이 771.4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원골 [골]

[위치] 원골(1)에서 북쪽으로, 높이 692.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큰원골이 갈라져 나간다.

장재 [고개] → 돌기재, 석기령

재사골 [골]

[위치] 연봉정 남쪽 재사동에서 남쪽으로, 감악봉과 석기암 중간으로 이어지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골짜기 안에 많은 골짜기들이 있다. 골짜기들은 강원과 충북의 경계가 되는 각 산줄기에 이어져 있다.

재사골재 [고개]

[위치] 재사골에서 큰요부골을 지나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석기암과 감악산의 중간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 제천 명암리의 재사랭이골을 지나 요부골에 닿는다. 고개 높이는 700m이다.

재사논(才士論) [마을] → 재사동

재사논이(才士論-) [마을] → 재사동

재사동(才士洞) [마을]

[위치] 연봉정 남쪽, 재사골에 있는 마을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현 산노리캠핑장 남쪽 위, 아리울캠핑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재사논’, ‘재사논이’, ‘재사라니’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치사논니(才士論)’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재사동(才士洞, 재사라니)’이라고 하였다.

[유래] 고개에 논이 있으므로 ‘재논>재사논, 재사논이, 재사라니’라 하였고, 이를 한자로 적어 ‘재사(才士, 재사논(才士論), 재사동(才士洞)’이라 하

었다.

[풀이] ‘재사논이’, ‘재사라니’의 ‘재’는 고개이며 ‘논(論)’은 ‘논(畛)’을 뜻한다. ‘재(士)+논>잣논>잣(士)논>재사논>재사논이, 재사론이, 재사라니’로 음운 변화된 것으로, 고개에 논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한자로 음차하여 적으면서 ‘才士, 才士論, 才士洞’이라 하였다.

이곳에는 논이 있어 ‘재사논이’였고 고개 너머 제천의 ‘재사랭이’는 ‘재+(士)+랑이>잣(士)랑이>재사랑이>재사랭이’로 고개에 밭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재사동성향당 [당]

[위치] 재사동 병안 마을, 요부골 앞에 있는 성향당을 말한다.

[내용] 감악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10월 중 길일을 택해 제사를 모신다. 당숲과 당집이 잘 보존되어 있다.



「재사동성향당 ; 2018년」

재사라니 [마을] → 재사동

재삼밭골(1) [골]

[위치] 평촌 남쪽 내 건너의 고든골 서쪽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화전을 일구어 삼 농사를 하던 곳이므로 재삼밭골이라 하였다. ‘재삼밭’은 화전(火田)을 일구어 나무를 태운 재를 섞어 갈아 삼 농사를 짓는 밭을 말한다.

재삼밭골(2) [골]

[위치] 재사동 병안 마을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재삼을 많이 하였다고 하여 재삼밭골이라 하였다.

재피골 [골]

[위치] 재사동 남쪽 위에서 남동쪽으로, 685.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성가마골이 갈라져 나간다. 골짜기 남동쪽 너머로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새목재골을 거쳐 소바우 마을에 닿는다.

전달골 [골]

[위치] 재사동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정선어터골 [골]

[위치] 소야 큰쇠골에서 서쪽으로, 704.8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모래구덩이 골 북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졸골 [골]

[위치] 청룡 샛말들에서 내 건너 동쪽으로, 65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주추밭골 [골] → 지추밭골

중곡(中谷) [골] [마을] → 중골

중골 [골]

[위치] 신목정에서 북쪽 초치를 향하여 길게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현 황둔초등학교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 큰심방골, 작은심방골, 콩밭골, 박달골 등이 있다.

중골 [마을]

[위치] 초치 남동쪽 아래, 중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중곡(中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중골(中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중골(중곡中谷)’이라 하였다.

[유래] 중골을 한자로 ‘중곡(中谷)’, 또는 ‘중동(中洞)’이라 하였으나 골짜기 안에 ‘큰심방골’, ‘작은심방골’ 등 ‘심방골(<승방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심

방'은 승방(僧房)이 음운 변화하여 나타나는 이름이다.

중골봉 [산]

[위치] 중골 북쪽, 외솔배기 북서쪽 능선 위에 있는 높이 640.2m의 산을 말한다.

중재 [고개] → 중치

중치(中峙) [고개]

[위치] 중골에서 북쪽으로 초치를 넘어 영월군 무릉도원면에 있는 두 번째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600m이다. '중재', '가운데치', '까치재'라고도 한다.

즐개들 [들]

[위치] 삼송 북쪽으로 나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현 황둔중학교 동쪽, 황둔천 서쪽 사이에 발달한 들이다.

지당골 [골]

[위치] 물안동 물안골 위에서 곧은골과 갈라져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명주사 위에서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추바우골 [골] → 지추밭골

지추밭골 [골]

[위치] 소야에서 북쪽으로, 673.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주추밭골', '지추바우골'이라고도 한다. 골짜기 북쪽 너머에 박달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지추바우골'이라 하였다.

[유래] 지추가 많이 났다고 하여 '지추밭골', 지추바우가 있던 곳이어서 '지추바우골'이라 하였다.

진골 [골]

[위치] 소야 지추밭골 위로 이어진 긴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이 길다고 하여 '긴골>진골'이 되었다.

찰방바우봉 [산]

[위치] 창촌 밤나무골 북쪽 끝에 있는 876.3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산 동쪽 아래에 심밭골이 있다.

창골 [골]

[위치] 창촌 마을에서 북쪽으로, 매봉산 능선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골짜기 안에 밤나무골, 맏돌골, 용가매기골 등이 북쪽 매봉산 능선을 향해 복잡하게 나 있다.

창골 [마을] → 창촌

창골다리 [다리]

[위치] 창골 앞에 있던 옛 황둔교의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창골다리'라 하였다.

창촌(倉村) [마을]

[위치] 물안동 동쪽 아래, 평촌 서쪽 위에 있는 큰 마을을 말한다. 감악산 등반의 기점이 되는 마을이다. '창골', '창촌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창골(昌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창골(창촌倉村, 창촌리倉村里)'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에 창고가 있었으므로 창골, 창촌이라 하였다고 한다.

창촌당숲 [숲]

[위치] 창촌 입구 성황당 주변의 숲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창촌당숲'이라고 하였다.

[내용] 예전에는 숲이 우거졌을 것으로 보인다. 길이 나고 밭이 생기면서 숲은 많이 훼손되었다. 길 한가운데 당목이 서 있다.



「창촌당숲 : 2019년」

창촌리(倉村里) [마을] → 창촌

창촌성황당 [당]

[위치] 창촌 마을 입구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성황신과 매봉산신을 모시고 있다. 매년 정월 보름에 당고사를 지낸다.



「창춘성황당 ; 2019년」

창평(倉坪) [마을]

[위치] 창촌(倉村)과 평촌(坪村)을 합하여 창평이라고 부른다.

창평분교 [학교] → 황둔초등학교 창평분교

처음치 [고개] → 초치

천동(泉洞) [마을] → 샘골

첫고개 [고개] → 초치

청룡(靑龍) [마을]

[위치] 삼송 남쪽, 신목정 남동쪽, 오미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청용(靑龍)’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청룡(靑龍)’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마을 앞산이 용머리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청룡이라 부른다. 용의 머리 형상을 한 산봉우리가 아늑하게 마을 입구를 감싸고 있어 바람이 불어도 마을은 피해가 없다고 한다.

청룡들 [들]

[위치] 청룡 마을 동쪽과 북쪽으로, 황둔천 주변에 발달한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청룡들’이라고 하였다.

초치(初峙) [고개]

[위치] 중골 북서쪽 끝, 회봉산 서쪽 아래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영월군 무릉도원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높이는 610m이다. ‘새터재’, ‘처음치’, ‘첫

고개’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초치(初峙)’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첫고개(초치初峙)’라고 하였다.

[내용] 이 고개는 황둔리 중골에서 영월군 무릉도원면을 거쳐 횡성군 강림면으로 가는 고갯길인 초치-중치-말치 중 첫째 고개이다. 황둔에서 북서쪽 중골 위에 초치가 있고, 초치 너머에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뱀골에 중치가 있다. 뱀골에서 북서쪽으로 중치를 넘어 황정골에 달고 다시 북서쪽으로 말치를 넘으면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태종대가 나온다. 이 고갯길은 길지만 강림으로 가는 골은 지름길이어서 옛날 강림을 왕래하던 고갯길이였다.

축치(柵峙) [고개] → 성남리 싸리치

출렁다리 [다리]

[위치] 연봉정과 남쪽 재사골을 연결하던 황둔천의 옛 다리를 말한다. 현 재사교의 동쪽에 있던 다리이다.

코주부바우 [바위]

[위치] 창촌 남쪽에서 감악산 정상으로 향하는 능선 길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의 모습이 뭉툭한 코에 입을 꼭 다문 할아버지를 닮았으므로 코주부바우라 부른다.

콩밭골 [골]

[위치] 중골 상류에서 동쪽으로, 640.2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박달골 위, 동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가마바우 [마을] → 큰감바우

큰갈매기골 [골] → 큰갈미기

큰갈미기 [골]

[위치] 재사동 재사골에서 요부골(1)과 갈라진 갈미기 중간에서 남쪽으로, 감악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작은요부골이 있다. ‘큰갈매기골’이라고도 한다.

큰감바우 [마을]

[위치] 감악산 큰감바우골 안에 있던 마을 중 골짜기 중간의 큰 마을을 말한다. 지도에 ‘가나바위’, 또는 ‘감바우삼거리’로 표시된 곳이다. ‘큰가마바우’라고도 한다. 골 입구의 작은 마을은 ‘감바우’, ‘가마바우’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큰감바우’라고 하였다.

[내용] 현 1/5,000지도 등에 이곳이 ‘가나바위’로 나온다. 이 ‘가나바위’는 ‘가마바우’의 잘못이다. 이곳에는 바위는 없고 옛 ‘큰감바우’ 마을이 있던 곳이다.

큰감바우골 [골]

[위치] 창촌에서 남쪽으로, 감악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감바우’ 마을과 ‘큰감바우’ 마을이 있었다.

큰골 [골]

[위치] 소야 큰쇠골에서 북서쪽 위로 길게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 [마을]

[위치] 소야 큰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큰골’이라고 하였다.

큰나막신골 [골]

[위치] 작은나막신골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높이가 738.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나막신골 마을에서 보아 바랑골에 있는 두 번째 골짜기이다.

큰물 [내]

[위치] 황둔천의 다른 이름이다.

큰물건너들 [들]

[위치] 소야 향교골에서 황둔천 건너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두리캠프친구 동쪽, 한울오토캠핑장 서쪽에 있는 들이다.

큰바우얼굴 [바위]

[위치] 창촌 남쪽 감악산 능선 길에서 높이 930m의 원주시표지석 봉우리 북쪽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옆에서 보면 바위 모습이 마치 거대한 사람의 얼굴 모습이므로 큰바우얼굴이라고 부른다.

큰산지대 [골] → 옷산지당골

큰쇠골 [골]

[위치] 소야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980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쇠골 위에서 다시 큰골이 이어지는 큰 골짜기이다. 현 치악산 황둔수련원 자연휴양림이 들어서 있다.

[내용] 골짜기 안에 대밭골, 모래구덩이골, 벼락바우골, 심밭골 등 많은 골짜기가 있다. 큰쇠골 위쪽을 큰골로 부르기도 한다.

큰신망골 [골] → 큰심방골

큰심방골 [골]

[위치] 중골 마을에서 서쪽으로, 655.4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박달골 남쪽 아래, 작은심방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신망골’이라고도 한다.

큰오랫골 [골]

[위치] 셋말에서 남서쪽으로, 516.3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서쪽으로 여우박골이 갈라져 나간다.

큰요부골 [골]

[위치] 재사골 병안에서 남쪽으로, 석기암 서쪽의 71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재사골재가 있다.

큰원골 [골]

[위치] 원골(1)에서 북동쪽으로, 814.8m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북쪽으로 작은원골이 갈라져 나간다.

탑거리 [길]

[위치] 소야 마을 앞, 현 소야교에서 마을에 이르는 길을 말한다.

[유래] 옛날에 탑이 있었으므로 탑거리라 하였다.

[내용] 『전국유적목록』(문화재관리국, 1970)에 ‘4각 4층탑으로 높이 5척 3촌’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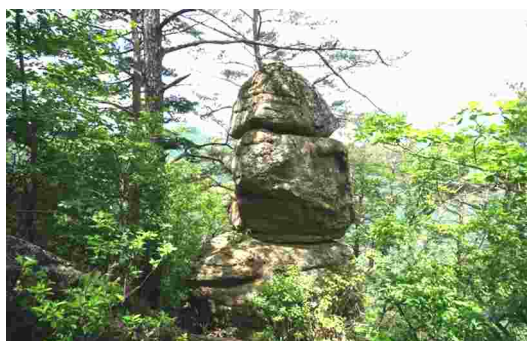
탐거리다리 [다리]

[위치] 탐거리 앞에 있던 다리를 말한다. 현 소야교가 있는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탐거리다리’라고 하였다.

탐바우 [바위]

[위치] 감악산 능선길 감악1봉 북쪽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남근바우’라고도 한다.

[내용] 바위가 5층탑을 쌓아올린 것 같으므로 탐바우, 그 모습이 마치 남근과 같으므로 남근바우라고도 한다.



「탐바우 ; 2018년」

통천문(通天門) [바위]

[위치] 감악산 정상 부근 월출봉에서 일출봉 사이 등산로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양 옆으로 선 두 개의 바위기둥 위에 큰 바위가 지붕처럼 얹혀 있고 중간이 문처럼 비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통천문 ; 2018년」

평촌(坪村) [마을]

[위치] 창촌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평촌리(坪村里)’라고 하였다.

평촌들 [들]

[위치] 평촌 서쪽에서 창촌 동쪽 사이, 황둔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평촌리(坪村里) [마을] → 평촌

평촌성황당 [당]

[위치] 옛 황둔초등학교 창평분교 뒤에 있는 당집을 말한다.

[내용] 매년 음력 10월 보름에 당고사를 지낸다. 원래 정월 보름과 10월 보름으로 두 차례 당고사를 지내다가 지금은 10월 보름에 한 번만 올린다.



「평촌성황당 ; 2018년」

풋대봉 [산] → 매봉산

[위치] 1,094.9m 높이의 매봉산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다.

[유래] 표준측량을 위한 풋대가 세워져서 풋대봉이라고 한다. 삼각점이 있다.

학곡(鶴谷) [골]

[위치] 황둔중학교 뒤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담] 옛날에 묘를 파다가 학이 나왔으므로 학곡이라 하였다고 한다.

한삼밭골 [골]

[위치] 물안골(2) 남쪽 맞은편에서 남쪽 815.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 안에 큰 삼밭이 있었으므로 한삼밭 골이라 하였다. 또는 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서 산삼을 캐다고 하여 한삼밭골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행교골 [골] → 향교골

향교골 [골]

[위치] 큰물건너들에서 도로 건너 북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북쪽 너머에 작은쇠골이 있다. 현 한울오토캠핑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행교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전에 이곳에 향교가 있었으므로 향교골이라 부른다.

홍출네터 [터]

[위치] 평촌 원골 끝에 있는 집터를 말한다.

[유래] 옛날 홍출이라는 사람이 살았으므로 홍출네터라고 하였다.

화냥바우 [바위]

[위치] 큰감바우골 입구에서 약 50m 남쪽 위, 개울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개울 바위에 둥근 흙이 파여 물이 돌아서 나가는데 이 흙을 작대기로 휘저으면 동네 처녀들이 바람이 나므로 화냥바우라 하였다. 짓궂은 남자들이 꼭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황둔(黃屯) [마을] → 황둔리

황둔들 [들]

[위치] 평촌 마을 앞에서 작은감바우골(1) 앞까지, 황둔천을 따라 길게 나 있는 들을 말한다. ‘황둔앞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황둔썰(黃屯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황둔들’이라고 하였다.

황둔앞들 [들] → 황둔들

황둔이 [마을] → 황둔리

황둔저수지 [못] → 오미저수지

황둔천(黃屯川) [내]

[위치] 싸리치와 응봉산 줄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며 청룡에서 오미천을 합류하고 북쪽으로 흐르다가 서마니에서 주천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계야강’, ‘계야천’, ‘물안천’, ‘송계천’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관동지』에 ‘계야천(啓野川)’이라고 하였다.

[유래] 황둔리를 경유하므로 황둔천이라고 하였다.

황둔초등학교 창평분교 [학교]

[위치] 황둔리 1380, 평촌에 있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49년에 개교하여 1998년에 황둔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황둔초등학교 창평분교 ; 2019년」

행 정 지 원

- 박종수 : 원주시역사박물관 관장
- 금은숙 : 원주시역사박물관 행정관리팀장
- 김연진 : 원주시역사박물관 주무관

책 자 편 찬

- 김성찬 : 원주시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

원주시명총람(중)

발행일

2020년 1월 20일

발행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 · 편찬

김성찬(학예연구팀장)

원주시 2020

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봉산동)

원주시역사박물관 (033)737-4372